

【책임연구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출산을 반대세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송민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15-31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저자 이삼식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정가 13,000원

발간사 <<

한 국가의 인구는 인구학적 요인들과 그 국가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인구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과거와 현재 인구 변동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미래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1964년 최초로 실시된 이래 거의 매 3년마다 실시하였으며, 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 등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하여 왔다. 금번 2015년 조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행태와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 내지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 및 출산 행태 변화 등에 관한 기초적인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과거 인구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개선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조언을 제공해 준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 준 김태현 인구사회연구센터 센터장, 최진호 아주대학교 교수, 그리고 본 원의 오영희 연구위원과 김은정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 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부 도입부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	15
제1절 표본설계	15
제2절 가중치	30
제3장 조사완료 기혼여성 및 미혼남녀의 일반특성	37
제1절 조사완료 기혼여성의 일반특성	37
제2절 조사완료 미혼남녀의 일반특성	55

제2부 기혼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 행태

제4장 기혼여성의 결혼 행태	67
제1절 결혼에 관한 태도	67
제2절 결혼 실태	86
제3절 결혼비용	90

제5장 기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행태	99
제1절 자녀에 대한 태도	99
제2절 임신 실태	131
제3절 출산 행태	157
제6장 기혼여성의 산전산후 관리 실태	179
제1절 산전 관리에 관한 사항	179
제2절 분만에 관한 사항	183
제3절 산후 관리에 관한 사항	188
제4절 수유 실태	197
제7장 유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행태	207
제1절 육아가사 분담에 관한 사항	207
제2절 취학 전 자녀의 돌봄 방법	230
제3절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돌봄 방법	247
제4절 자녀 양육비에 관한 사항	260
제8장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 행태	267
제1절 취업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전후 경력단절 실태	267
제2절 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 관련 태도	284
제3절 비취업 기혼여성의 취업 의향	296
제4절 일 형태와 자녀 출산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	304

제9장 기혼여성의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11
제1절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311
제2절 출산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욕구 314
제3절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지도 및 도움정도 322

제3부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행태

제10장 미혼남녀의 결혼가치관 331
제1절 결혼에 대한 태도 331
제2절 부부의 역할에 관한 태도 353
제3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태도 362

제11장 미혼남녀 본인의 결혼 계획과 정책 욕구 383
제1절 본인의 결혼 계획 383
제2절 결혼정책에 대한 욕구 399

제12장 미혼남녀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태도 405
제1절 자녀에 대한 태도 405
제2절 본인의 출산에 대한 태도 429

제13장 미혼남녀의 저출산 현상 인식과 정책 욕구 439
제1절 저출산현상 관련 인식과 태도 439
제2절 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446

제4부 결론부

제14장 결 론 453

부 록 461

표 목차

〈표 1- 1〉 주요 조사 내용	14
〈표 2- 1〉 최종 표본조사구 결과	16
〈표 2- 2〉 2012년도 조사의 지역구분별 주요항목 CV값	17
〈표 2- 3〉 2012년도 조사의 지역구분별 주요 항목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7
〈표 2- 4〉 2012년 출산력조사의 지역별 조사구 가구소득 CV 값	18
〈표 2- 5〉 2012년도 및 2015년도 조사의 CV값	18
〈표 2- 6〉 2012년도 조사 주요항목의 집락 내 상관계수	20
〈표 2- 7〉 2012년도 조사 주요항목의 설계효과(deff)	21
〈표 2- 8〉 2012년도 조사와 2015년도 조사의 가구소득 CV	22
〈표 2- 9〉 지역별 가구수 분포	23
〈표 2-10〉 지역별 일반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의 거주 가구 분포	24
〈표 2-11〉 지역별 조사구 수	25
〈표 2-12〉 지역별 일반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 분포	25
〈표 2-13〉 지역별 가임기 여성(15~49세) 분포	26
〈표 2-14〉 2015년도 조사의 제급근비례배정 및 비례배정의 조사구 CV값 목표정도	27
〈표 2-15〉 2015년도 조사의 최종 시도별 층별 표본배정(제급근비례배정) 결과	28
〈표 2-16〉 2015년도 조사의 최종 표본추출 결과(표본조사구)	29
〈표 2-17〉 기혼여성(15~49세) 가중치 지역별 분포	33
〈표 2-18〉 미혼남녀(20~44세) 가중치의 지역별 분포	34
〈표 3- 1〉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 특성	38
〈표 3- 2〉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	40
〈표 3- 3〉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가구지출	42
〈표 3- 4〉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가구재산	43
〈표 3- 5〉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가구부채	44
〈표 3- 6〉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거주 유형	46
〈표 3- 7〉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현 거주 주택의 점유형태	49

〈표 3- 8〉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현 거주 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여부	50
〈표 3- 9〉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거주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임대보증금	51
〈표 3-10〉 보증부 월세 및 사글세 거주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월세(사글세) 비용 ..	52
〈표 3-11〉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현 거주주택의 구입 및 임차를 위한 용자 여부 ..	53
〈표 3-12〉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가구원 중 다른 주택 소유 여부	55
〈표 3-13〉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	56
〈표 3-14〉 미혼남녀(20~44세)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	57
〈표 3-15〉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미혼남녀(20~44세)의 주택 점유형태	58
〈표 3-16〉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미혼남녀(20~44세)의 거주 주택을 위한 용자 여부	58
〈표 3-17〉 미혼남녀(20~44세)의 월평균 소득	59
〈표 3-18〉 미혼남녀(20~44세)의 월평균 지출	60
〈표 3-19〉 20~44세 미혼남녀의 재산 규모	61
〈표 3-20〉 미혼남녀(20~44세)의 부채 규모	61
〈표 3-21〉 미혼남녀(20~44세)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	62
〈표 4- 1〉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68
〈표 4- 2〉 기혼여성(15~49세)의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	70
〈표 4- 3〉 기혼여성(15~49세)의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72
〈표 4- 4〉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73
〈표 4- 5〉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74
〈표 4- 6〉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76
〈표 4- 7〉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77
〈표 4- 8〉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 (15~49세)의 태도	78
〈표 4- 9〉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	80
〈표 4-10〉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81

〈표 4-11〉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82
〈표 4-12〉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84
〈표 4-13〉 가족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85
〈표 4-14〉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 연령	87
〈표 4-15〉 유배우여성(15~49세)의 현재 남편과의 혼인신고 및 결혼식 여부	88
〈표 4-16〉 유배우여성(15~49세)의 현 배우자와 함께 삶, 결혼식 및 혼인신고 간 순서	90
〈표 4-17〉 기혼여성(15~49세)의 본인 지출 결혼비용(초혼 시)에 부담을 느낀 정도	91
〈표 4-18〉 기혼여성(15~49세)의 본인 지출 결혼비용(초혼 시)에 부담을 느낀 항목(중복응답)	92
〈표 4-19〉 기혼여성(15~49세)의 신혼집 마련방법	93
〈표 4-20〉 기혼여성(15~49세)의 신혼집 마련비용 부담자(중복 응답)	94
〈표 4-21〉 기혼여성(15~49세)의 신혼집 마련 평균 비용(구입, 보증금)	95
〈표 4-22〉 기혼여성(15~49세)의 신혼집 마련 평균 비용(월세, 사글세)	95
〈표 4-23〉 기혼여성(15~49세)의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 여부 및 용도	97
〈표 4-24〉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대출금액	98
〈표 5- 1〉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자녀 필요성	100
〈표 5- 2〉 기혼여성(15~49세)의 본인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	101
〈표 5- 3〉 기혼여성(15~49세)의 본인의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104
〈표 5- 4〉 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106
〈표 5- 5〉 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성 구별에 대한 태도	108
〈표 5- 6〉 기혼여성(15~49세)의 인생목표 추구 시 적정 자녀수에 대한 태도	110
〈표 5- 7〉 기혼여성(15~49세)의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112
〈표 5- 8〉 기혼여성(15~49세)의 아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	113
〈표 5- 9〉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114
〈표 5-1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116

〈표 5-11〉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117
〈표 5-12〉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120
〈표 5-13〉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122
〈표 5-14〉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123
〈표 5-15〉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126
〈표 5-16〉 ‘영아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보다 가정에서 키워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129
〈표 5-17〉 자녀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130
〈표 5-18〉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 횟수	131
〈표 5-19〉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순위별 임신 방법	132
〈표 5-20〉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종결 형태별 구성비	134
〈표 5-21〉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인공임신중절 횟수	136
〈표 5-22〉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자녀 성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횟수	137
〈표 5-23〉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인공임신중절 시기	138
〈표 5-24〉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시기별 인공임신중절 이유	139
〈표 5-25〉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남아 출산을 위한 노력	140
〈표 5-26〉 유배우여성(15~49세)의 피임 실천	142
〈표 5-27〉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여성(15~49세)의 피임 목적	144
〈표 5-28〉 출산연기를 목적으로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여성(15~49세)의 출산연기 이유	145
〈표 5-29〉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현재 피임 방법(중복응답) ..	148
〈표 5-30〉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난임 경험 여부	149
〈표 5-31〉 난임 경험이 있는 유배우여성(15~49세)의 난임 진단 경험 여부	150
〈표 5-32〉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 부부 중 원인 제공자	151

〈표 5-33〉 난임의 구체적 원인(중복응답)	152
〈표 5-34〉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치료 여부	152
〈표 5-35〉 난임 치료 경험이 있는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치료 장소(중복응답)	153
〈표 5-36〉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여부	153
〈표 5-37〉 난임 시술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시술 결과	154
〈표 5-38〉 난임 시술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시술 시 힘들었던 점	155
〈표 5-39〉 난임 시술을 받은 유배우부인(15~49세)과 남편의 시술 중단 경험	155
〈표 5-40〉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시술경험이 없거나 받다가 중단한 주된 이유 ..	156
〈표 5-41〉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난임으로 인한 정서·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 또는 진료 경험 및 만족도	157
〈표 5-42〉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당시 계획 자녀수	158
〈표 5-43〉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아수	160
〈표 5-44〉 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164
〈표 5-45〉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165
〈표 5-46〉 유배우여성(15~49세)의 추가출산 계획	166
〈표 5-47〉 유배우여성(15~49세)의 현존자녀의 성구조별 추가출산 계획	169
〈표 5-48〉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중단 이유(1순위)	172
〈표 5-49〉 유배우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중단 이유(2순위)	173
〈표 5-50〉 유배우여성(15~49세)의 기대자녀수	175
〈표 5-51〉 취업 유배우여성(15~49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기대자녀수	176
〈표 5-52〉 유배우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결혼 당시 계획 자녀수,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 ..	177
〈표 6- 1〉 기혼여성(15~49세)의 초진시기(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181
〈표 6- 2〉 기혼여성(15~49세)의 산전 수진 횟수(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182
〈표 6- 3〉 기혼여성(15~49세)의 분만장소(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184
〈표 6- 4〉 기혼여성(15~49세)의 분만방법(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186

〈표 6- 5〉 기혼여성(15~49세)의 출산당시 연령별 평균 임신주수(2013.1.1.~2015.7.31 출 생아 기준)	188
〈표 6- 6〉 기혼여성(15~49세)의 산후 수진 경험(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189
〈표 6- 7〉 기혼여성(15~49세)의 산후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191
〈표 6- 8〉 산후우울증 진단 및 상담을 받은 기혼여성(15~49세)의 진단 혹은 상담 장소(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192
〈표 6- 9〉 기혼여성(15~49세)의 산후조리 장소(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	193
〈표 6-10〉 산후조리시설을 이용한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산후조리시설 이용일수, 비용, 모자동실 이용시간(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196
〈표 6-11〉 기혼여성(15~49세)의 모유수유 경험 여부(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	197
〈표 6-12〉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모유수유 중단 예정시기 및 실제 중단시기(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199
〈표 6-13〉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아의 월령별 수유양상(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201
〈표 6-14〉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아의 생후 1개월 시 수유양상(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202
〈표 6-15〉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아의 생후 3개월 시 수유양상(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203
〈표 6-16〉 기혼여성(15~49세) 출생아의 생후 6개월 시 수유양상(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205
〈표 7- 1〉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여성(15~49세)의 태도	208
〈표 7- 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여성(15~49세)의 태도	209
〈표 7- 3〉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여성 (15~49세)의 태도	210

〈표 7- 4〉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여성(15~49세)의 태도	212
〈표 7- 5〉 부부 역할 관련 견해에 대한 유배우여성(15~49세)의 태도	213
〈표 7- 6〉 자녀가 있는 유배우여성(15~49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남편과의 육아 공평분담 정도	215
〈표 7- 7〉 자녀가 있는 취업 유배우여성(15~49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남편과의 육아 공 평분담 정도	217
〈표 7- 8〉 유배우여성(15~49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남편과의 가사 공평분담 정도 ...	218
〈표 7- 9〉 취업 유배우여성(15~49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남편과의 가사 공평분담 정도	220
〈표 7-10〉 초등학교 재학 이하 자녀를 둔 유배우여성(15~49세)의 평일 및 주말 육아 시간	222
〈표 7-11〉 초등학교 재학 이하 자녀를 둔 유배우여성(15~49세)의 남편의 평일 및 주말 육아 시간	223
〈표 7-12〉 유배우여성(15~49세)의 평일 및 주말 가사 시간	224
〈표 7-13〉 유배우여성(15~49세) 남편의 평일 및 주말 가사 시간	225
〈표 7-14〉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지난 6개월 동안 친정/시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움-비경제적 지원 간 관계	227
〈표 7-15〉 기혼여성(15~49세)의 지난 6개월 동안 자녀 돌봄에 대해 부모 이외의 친인척에 게 도움을 받은 경험 여부	229
〈표 7-16〉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연령별 주간 돌봄에 바람직한 곳(사람(아동 기준) 230	
〈표 7-17〉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연령별 야간 돌봄에 바람직한 곳(사람(아동 기준) 231	
〈표 7-18〉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0~2세 자녀(막내아 기준)의 바람직한 주간 돌 봄 방법	232
〈표 7-19〉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3세~취학 전 자녀(막내아 기준)의 바람직한 주 간 돌봄 방법	234
〈표 7-20〉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연령별 주간에 실제 돌보는 곳(사람(아동 기준) ...	235
〈표 7-21〉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연령별 야간에 실제 돌보는 곳(사람(아동 기준) ...	236
〈표 7-22〉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0~2세 자녀(막내아 기준)의 주간돌봄방식	237
〈표 7-23〉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3세~취학전 자녀(막내아 기준)의 주간돌봄방식	238

〈표 7-24〉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연령별 주간에 시설 이용 이유(아동 기준)	239
〈표 7-25〉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0~2세 자녀(막내아 기준)의 주간돌봄방식으로 시설 이용 이유	240
〈표 7-26〉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3세~취학전 자녀(막내아 기준)의 주간돌봄방식으로 시설 이용 이유	242
〈표 7-27〉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연령별 주간에 시설을 이용하지 주된 이유(아동 기준)	243
〈표 7-28〉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영아(0~2세) 자녀를 주간에 시설에 보내지 않는 주된 이유	244
〈표 7-29〉 영아(0~2세)의 주간 돌봄으로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과 바람직한 곳사람(아동 기준) 간의 일치도	245
〈표 7-30〉 영아(0~2세)의 야간 돌봄으로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과 바람직한 곳사람(아동 기준) 간의 일치도	246
〈표 7-31〉 유아(3세~취학 전)의 주간 돌봄으로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과 바람직한 곳사람(아동 기준) 간의 일치도	246
〈표 7-32〉 유아(3세~취학 전)를 야간에 맡기기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과 바람직한 곳사람(아동 기준) 간의 일치도	247
〈표 7-33〉 초등학교 재학 자녀를 돌보기에 바람직한 곳사람(1순위, 아동 기준)	248
〈표 7-34〉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취학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 기준)을 돌보기에 바람직한 곳사람(1순위)	249
〈표 7-35〉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취학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 기준)을 돌보기에 바람직한 곳사람(1순위)	250
〈표 7-36〉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년별 실제 맡긴 곳사람(1순위, 아동 기준)	251
〈표 7-37〉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취학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 기준)를 실제 맡긴 곳사람(1순위)	252
〈표 7-38〉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취학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 기준)를 실제 맡긴 곳사람(1순위)	253
〈표 7-39〉 초등학교 재학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아동 기준)	254

〈표 7-40〉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의 돌봄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255
〈표 7-41〉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의 돌봄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257
〈표 7-42〉 초등학교 재학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아동 기준)	258
〈표 7-43〉 초등학교 재학(1~6학년) 자녀의 방과후 돌봄 방법의 실제와 희망 간 일치도(1순위)	259
〈표 7-44〉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 방법의 실제와 희망 간 일치도(1순위)	259
〈표 7-45〉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 방법의 실제와 희망 간 일치도(1순위)	260
〈표 7-46〉 기혼여성(15~49세)의 자녀 양육 책임의 범위에 대한 태도	261
〈표 7-47〉 기혼여성(15~49세)의 월평균 자녀양육비용 지출액	264
〈표 8- 1〉 결혼 전후 6개월 간 취업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경력단절 경험 ..	267
〈표 8- 2〉 결혼 당시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경력단절 경험 ..	269
〈표 8- 3〉 결혼 전후 6개월 간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15~49세)의 경력단절 이유 ..	269
〈표 8- 4〉 기혼여성(15~49세)의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간 취업 상태	271
〈표 8- 5〉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경력단절 경험	272
〈표 8- 6〉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경력단절 이유	273
〈표 8- 7〉 기혼여성(15~49세)의 둘째아 출산 전후 6개월간 취업 상태	274
〈표 8- 8〉 둘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경력단절 경험	275
〈표 8- 9〉 둘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경력단절 이유	276
〈표 8-10〉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및 출산 전후 6개월간 취업 상태	277
〈표 8-11〉 막내 출산전후 6개월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막내 출생코호트별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	279
〈표 8-12〉 막내 출산전후 6개월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당시 경제활동특성별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2011.1.1.일 이후 출생아 대상)	280

〈표 8-13〉 막내 출산전후 6개월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막내 출생코호트별 육아휴직 사용 경험	281
〈표 8-14〉 막내 출산전후 6개월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당시 경제활동특성별 육아휴직 사용 경험(2011.1.1.일 이후 출생한 막내 대상)	283
〈표 8-15〉 취업 기혼여성(15~49세)이 현재 일을 하는 주된 이유	285
〈표 8-16〉 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시간제 근로 여부	287
〈표 8-17〉 시간제 취업 기혼여성(15~49세)이 시간제 근로를 하는 이유	289
〈표 8-18〉 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정도	290
〈표 8-19〉 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정도	291
〈표 8-20〉 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특성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이유	293
〈표 8-21〉 취업 기혼여성(15~49세)이 일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기간	295
〈표 8-22〉 비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297
〈표 8-23〉 비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향후 취업 의향	298
〈표 8-24〉 현재 비취업이나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15~49세)의 취업 희망 이유	300
〈표 8-25〉 현재 비취업이나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15~49세)의 취업 희망 시기	303
〈표 8-26〉 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적인 직장형태와 적정자녀수	305
〈표 8-27〉 기혼여성(15~49세)의 향후 시간제근로 희망 여부	307
〈표 8-28〉 향후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기혼여성(15~49세)의 시간제 근로 희망 이유	309
〈표 9- 1〉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출생아수 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 ·	311
〈표 9- 2〉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정도	313
〈표 9- 3〉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국가의 출산 및 양육지원 필요성에 대한 태도	314
〈표 9- 4〉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세금을 통한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태도	316
〈표 9- 5〉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직장의 출산 및 양육지원 필요성에 대한 태도	317
〈표 9- 6〉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영역)1)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319
〈표 9- 7〉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1순위)	321
〈표 9- 8〉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도움 정도	325

〈표 9-10〉 보육·유아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율 및 도움 정도	326
〈표 9-11〉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율 및 도움 정도	328
〈표 10- 1〉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333
〈표 10- 2〉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335
〈표 10- 3〉 미혼남녀(20~44세)의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	337
〈표 10- 4〉 미혼남녀(20~44세)의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	340
〈표 10- 5〉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41
〈표 10- 6〉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44
〈표 10- 7〉 ‘결혼식은 격식을 갖추어 예단, 예물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45
〈표 10- 8〉 ‘결혼식은 호화롭게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47
〈표 10- 9〉 ‘혼인신고는 결혼식 이후 함께 살아 본 뒤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48
〈표 10-10〉 결혼 문화와 형식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50
〈표 10-11〉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결혼 비용(주택비용 제외)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52
〈표 10-12〉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54
〈표 10-13〉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56
〈표 10-14〉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58
〈표 10-15〉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59
〈표 10-16〉 부부 역할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61
〈표 10-17〉 ‘가족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가구형태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중복응답)	363

〈표 10-18〉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65
〈표 10-19〉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67
〈표 10-20〉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69
〈표 10-21〉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71
〈표 10-22〉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72
〈표 10-23〉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74
〈표 10-24〉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76
〈표 10-25〉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77
〈표 10-26〉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79
〈표 10-27〉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381
〈표 11- 1〉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의향	384
〈표 11- 2〉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의향에 대한 태도	385
〈표 11- 3〉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계획 연령	388
〈표 11- 4〉 결혼 의향이 있는 취업 미혼남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 계획 연령	391
〈표 11- 5〉 미혼남녀(20~44세)가 제시한 배우자 조건	393
〈표 11- 6〉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의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395
〈표 11- 7〉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별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396
〈표 11- 8〉 미혼남녀(30~44세)의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398
〈표 11- 9〉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에 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399
〈표 11-10〉 미혼남성(20~44세)의 필요한 결혼정책	402
〈표 12- 1〉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406

〈표 12- 2〉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이유	408
〈표 12- 3〉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자녀수	411
〈표 12- 4〉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자녀수	413
〈표 12- 5〉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적인 직장형태와 자녀수 간 조합에 대한 태도 ..	415
〈표 12- 6〉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416
〈표 12- 7〉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417
〈표 12- 8〉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419
〈표 12- 9〉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421
〈표 12-1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422
〈표 12-11〉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424
〈표 12-12〉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425
〈표 12-13〉 자녀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427
〈표 12-14〉 미혼남성(20~44세)의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	428
〈표 12-15〉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기대자녀수	431
〈표 12-16〉 미혼남녀(20~44세)의 무자녀 또는 1자녀만 출산 의향 이유(1순위)	433
〈표 12-17〉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적 자녀의 성별 구조1)	434
〈표 12-18〉 미혼남녀(20~44세)가 희망하는 자녀 성 구성1)	435
〈표 12-19〉 미혼남녀(20~44세)의 첫 아이 출산 여건	437
〈표 13- 1〉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439
〈표 13- 2〉 저출산현상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	441
〈표 13- 3〉 국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	443

〈표 13- 4〉 직장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444
〈표 13- 5〉 세금으로 다자녀가정 지원하는 것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445
〈표 13- 6〉 출산 및 양육에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인식	447
〈표 13- 7〉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인식(1순위)	450

부표 목차

〈부표 1〉 기혼여성(15~49세)의 동거, 결혼식 및 혼인신고 간 순서	461
〈부표 2〉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의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피임 방법(중복응답)	462
〈부표 3〉 유배우 여성(15~49세)의 피임 중단 이유	462
〈부표 4〉 현재 배우자와 피임 경험이 없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피임 무경험 이유	463
〈부표 5〉 현재 피임 중단 혹은 피임경험이 없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피임 의향	464
〈부표 6〉 현재는 피임을 하지 않으나 향후 피임 의향이 있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피임 방법(중복응답)	465
〈부표 7〉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돌보기에 바람직한 곳(사람), 2순위	466
〈부표 8〉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467
〈부표 9〉 기혼여성(15~49세)의 보육·유아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468
〈부표 10〉 기혼여성(15~49세)의 돌봄 인프라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469
〈부표 11〉 기혼여성(15~49세)의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인지여부 및 향후 이용의향	470
〈부표 12〉 기혼여성(15~49세)의 육아휴직제도 인지여부 및 향후 이용의향	471
〈부표 13〉 기혼여성(15~49세)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인지여부 및 향후 이용의향	472
〈부표 14〉 기혼여성(15~49세)의 유연근무제 인지여부 및 향후 이용의향	473
〈부표 15〉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2순위)	474
〈부표 16〉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인식(2순위)	475

그림 목차

[그림 2-1] 기혼여성(15~49세)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33
[그림 2-2] 미혼남녀(20~44세)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35



Abstract <<

The 2015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has conducted the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every three years since the early 1970s. The 2015 Survey was conducted of about 11,000 ever-married women of childbearing ages (15~49) and never-married men and women aged 20~44, who resided in households within the enumeration districts for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he survey items were focused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of different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groups.

As a result, the attitude toward marriage was considerably negative among single men and, to a greater extent, among single women. The proportion of ever-married women who failed to be pregnant without any contraception during the previous year was over 10 percent, of whom 40 percent were diagnosed as infertile. The rate of pregnancy waste was 20 percent. The rate was higher for ever-married women who lived in rural areas, were employed, or married later.

About ten percent of ever-married women showed indif-

ferent attitude about having a child. Such attitude was more pervasive in single persons: 18 percent for single men and 30 percent for single women. The reasons cited by the ever-married women for wanting no more than one child were “burden for education of child”, “in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life”, etc. Three-fifths of the ever-married women were found to have experienced a career break after marriage, 45 percent after first childbirth, and 20 percent after second childbirth. About 15 percent of the demand for institutional childcare went unmet for children aged 0~2; almost 30 percent of the demand for after-school care for 4th graders and young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went unmet.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expected to be of use not only for academic purposes but also i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related policie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한국사회에서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행태와 함께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 내지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과거 인구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목적과 더불어 출산행태 변화 등에 관한 기초적인 학술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 연구결과

가. 결혼 행태

결혼과정은 과거의 초혼코호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결혼식→함께 삶→혼인신고’ 순서로 진행하였다면, 최근에 초혼한 코호트일수록 ‘함께 삶→결혼식→혼인신고’, ‘함께 삶→혼인신고(결혼식 안함)’ 등 다양한 진행과정을 보인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 전제 조건 중 하나로서 신혼집 마련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초혼코호트일수록 신혼집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험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혼집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남성의 책무로 여겼다면 최근에는 여성은 물론 친정까지 신혼집 마련의 부담을 분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혼의 부담은 현재의 미혼세대에도 중요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남성의 60%와 미혼여성의 40%만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실제 결혼할 의향이 있는 미혼남성은 75%, 미혼여성은 65%로 나타난다. 결혼할 의향이 없는 가장 주된 원인은 미혼남녀 공히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라는 가치관의 고착화에 기인하며, 이외에도 미혼남성은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미혼여성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하여 결혼을 주저하고 있다.

나. 임신 실태

유배우여성 중 1/10은 피임을 하지 않아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 실제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비율은 2/5수준에 이른다. 난임 진단자 중 3/4는 실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시술을 받은 비율은 3/5 정도이다. 난임 시술을 중단한 주된 이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1/10만이 상담이나 진료를 받고 있다.

임신소모율은 1/5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건의료인프라 미흡에 따라 농촌 지역, 취업여성, 만혼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출산 후 관리되는 인구 자질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 재생산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로 우리나라 출산여성의 대부분은 산후에 검진을 받고 있으나, 농촌 지역에서 의료기관에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다. 출산 행태

기혼여성 중 10% 정도는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미혼남성에게서 18%로 더 높아지고, 미혼여성에게서는 30%로 더욱 높다. 미혼여성의 경우 성분업적 역할관으로 인한 양육부담

과 기회비용으로 인하여 더욱 부정적인 자녀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자녀를 전혀 두지 않겠다는 이유는 주로 난임이며, 1자녀만 두겠다는 이유는 주로 자녀교육비 부담, 일-가정양립 곤란, 고연령 등이다. 미래 결혼할 미혼남성은 자녀양육교육비 부담, 경제적 이유 등으로 그리고 미혼 여성은 자녀양육교육비 부담, 일-가정양립곤란이나 자아성취, 육아인프라 부족 등으로 자녀를 1명을 두거나 전혀 두지 않을 의향이 존재한다.

라. 자녀양육 행태

유자녀 유배우여성의 약 60%가 남편과 육아가 공평하게 분담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8%는 가사 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육아와 가사 시간은 맞벌이부부이든 아니든 부인과 남편 간 가사 시간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기혼여성인 부모(친정, 시댁)으로부터 자녀 돌봄을 지원 받은 정도는 25% 정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녀가 첫째아이거나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영아(0~2세)의 주간 돌봄방식에 대한 실제와 희망 간의 일치도는 본인 및 남편(79.9%), 어린이집 및 유치원(74.3%), 부모(54.8%) 등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가 영아의 주간 돌봄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취업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가 절반 정도로 나타나, 취업모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돌봄 방식에 대한 실제와 희망 간의 일치도는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71.1%), 학원(68.8%), 본인 및 남편(70.1%) 등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3/5정도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대학 졸업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녀양육비는 대체적으로 대도시에서

많고,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공교육비나 부모의 돌봄에 대한 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다.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기혼여성의 2/5가 결혼 전후 6개월 간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된 이유로는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아, 육아전념 희망 등이다.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45%수준이나,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전후에는 2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결혼 시 그리고 첫째아 출산 시 경력단절이 되지 않은 여성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이용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마. 정책 영역

기혼여성과 미혼남녀 모두 국가나 직장의 결혼·출산 관련 지원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기혼여성은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등에 대한 정책 욕구가 높다. 미혼남성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 자녀보육교육비 지원 등에 대한 그리고 미혼여성은 다양한 보육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도 높다. 자녀를 양육하기에 바람직한 사회여건으로 기혼여성은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 공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혼남성은 경기활성화, 교육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등을 그리고 미혼여성은 경기활성화, 자녀 보육 및 양육에 대한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혼남녀 모두 국가의 결혼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이들이 필요한 결혼정책으로는 미혼남성은 청년고용 안정, 신혼집 마련 지원, 실업문제 해소를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청년고용 안정, 신혼집 마련,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사회환경 변화로 인하여 결혼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기 어려워지고, 가족문화나 직장환경 역시 전통적인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미혼층의 비혼화와 만혼화로 이어지고 있다. 적어도 비자발적인 만혼화 비혼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청년층의 고용불안정, 주거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도 사회적 차원에서 노력이 중요하며, 양성평등적 가족문화와 가족친화적이면서 양성평등적인 직장문화의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

기혼여성과 미혼남녀의 출산행태도 상당 수준 저출산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자체가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며, 실제 생활에서도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일가정양립 곤란(기회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을 억제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조사의 결과들이 결혼과 출산에 관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정책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환류를 통해 정책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용어: 출산력, 가족



제 1 부

도입부

제1장 서론

제2장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

제3장 조사완료 기혼여성 및 미혼남녀의 일반특성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국가의 인구는 출생, 사망 및 국제인구이동이라는 인구학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변동은 그 국가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 상황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과거 고출산-저사망의 인구 변동은 인구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후 저출산-저사망으로의 인구 전환으로 우리나라는 가까운 미래에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인구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경제성장 둔화,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인구 변동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변동요인들 중 사망이나 이동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나, 출산의 경우 복합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산물로서 그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출산 행위는 개인 또는 부부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가치관뿐만 아니라 가족 상황(부부관계, 소득수준, 기존 자녀와 부모의 상황, 경제활동 등), 지역 환경, 사회구조(교육, 사회보장 등), 경제상황(경기, 고용안정성 등), 정치(정책) 등 제반 상황들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 행태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 행태의 변화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

에 대하여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사회에서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행태와 함께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 내지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 더해 본 조사를 통해 인구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 등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금년 조사는 1964년 이래 23번째 실시된 것으로, 금년도 조사의 결과도 과거 인구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목적과 더불어 출산행태 변화 등에 관한 학술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4부 즉, 도입부, 기혼여성의 결혼·임신·출산·양육행태,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태도, 결론부로 구성된다. 도입부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더불어 연구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로서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조사에 포함된 가구와 응답자(기혼여성, 미혼남녀)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부에서는 기혼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 행태를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의 결혼행태로 가치관과 실제 혼인실태 및 결혼 당시 소요된 비용 등을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의 임신, 피임, 난임, 출산 등과 관련한 실태와 태도를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의 산전·산후 관리와 관련하여 산전관

리, 분만, 산후관리, 수유 등에 관한 실태와 태도를 분석하였다. 기혼여성 가구의 자녀양육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부간 육아·가사 분담 정도, 취학 전 및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돌봄 실태, 자녀양육비 등을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시 경력단절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일-가정양립 행태를 분석하였다. 정부의 정책 실시와 관련하여 기혼여성의 인지도 및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출산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제3부에서는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와 더불어 향후 본인의 결혼에 대한 가치와 태도도 분석하였다. 또한 미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와 더불어 본인의 향후 출산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분석하였다.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를 파악하였다.

제4부 결론부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의 함의를 제시하고 정책적 건의를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사전에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원은 총 27개 조사팀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팀은 지도원 1명과 조사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조사원은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표본추출한 600개 조사구 내의 약 12,000가구와 이들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15~49세) 및 미혼남녀(20~44세)를 조사하였다.

조사 시점은 2015년 8월 1일이며, 실제 조사기간은 2015년 8월~11월이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 데이터 입력(더블펀칭), 에디팅 및 승수 작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가구 및 가구원의 일반적인 특성,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 일-가정양립에 관한 사항,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 관련 태도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는 주요 조사항목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하도록 한다.

<표 1-1> 주요 조사 내용

가구조사표	기혼여성 조사표	미혼남녀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및 비동거가구원 사항 - 가구일반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에 관한 태도 •본인의 결혼 실태 •본인의 결혼비용 -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 •출산에 대한 태도 •피임에 관한 사항 •난임에 관한 사항 - 산전산후 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전관리에 관한 사항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수유에 관한 사항 -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의 육아/가사 분담 •부모지원 •기타 친인척지원 •취학전 자녀의 보육 •초등학교 재학자녀 보육 •자녀양육비 - 일-가정양립에 관한 사항 -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항 -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 - 본인의 결혼에 관한 사항 -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 - 향후 출산에 관한 사항 - 출산관련 정책

2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 <<

제1절 표본설계

1. 표본설계 개요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가구의 출산 및 결혼과 관련된 실태 및 의식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장단기 인구정책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부인의 임신, 출산, 피임 행태 변화와 부부의 취업 및 자녀양육, 그리고 미혼남녀의 가족형성 의식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며 이러한 자료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 정책에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선정하여야 한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조사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의 총수는 물론 개별특성까지 파악하여 각종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학술연구, 민간부문의 경영계획수립에 활용하고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추출틀을 제공하기 위해 90% 전수조사와 10% 표본조사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추출틀로 선정하였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구 형태가 아파트, 일반에 해당하는 299,902 조사구 17,302,282 가구를 표본틀로 구성하였다.

층화기준은 16개 시·도, 동부/읍·면부별이며, 추출방법은 층화 2단 집

락추출이다. 조사구 추출(1단)은 층별 내재적 층화변수(조사구 특성, 15~49세 가임여성 비율, 가구원수, 고령자수)로 정렬한 후, 가구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로 조사구를 추출하였으며, 가구추출(2단)은 조사구 내 가구수를 기준으로 계통추출 하였다.

이 조사의 목표 표본규모는 표본조사구 600개, 10,000가구로 조사구 별 17~18가구를 조사완료 목표로 설정하였다. 목표 조사 성공률을 83%로 고려하여 20% 과대 추출하였으며, 최종 표본규모는 12,000가구이다. 본 조사의 지역별 표본조사구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1〉 최종 표본조사구 결과

지역	계	동부	읍·면부
전국	600	462	138
서울	66	66	-
부산	36	36	-
대구	31	31	-
인천	33	33	-
광주	24	24	-
대전	25	25	-
울산	20	20	-
경기	91	65	26
강원	31	19	12
충북	32	19	13
충남	37	18	19
전북	33	22	11
전남	32	18	14
경북	42	24	18
경남	48	29	19
제주	19	13	6

2. 2015년도 조사의 표본규모 결정

우선적으로 2012년도 조사의 주요 항목(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 지출 등)에 대한 CV(상대표준오차)를 분석하였다. 2012년 조사의 지역

구분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층화집락효과를 고려한 CV 값을 산출해보면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2-2〉 2012년도 조사의 지역구분별 주요항목 CV값

(단위: 가구, %)

항목	전체		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표본	CV	표본	CV	표본	CV	표본	CV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14.871	3.17	6,847	4.32	5,750	5.41	2,274	5.96
월평균 가구지출(만원)	14.861	3.07	6,839	4.11	5,753	5.34	2,269	5.78
출생아수(명)	6.889	0.91	3,069	1.11	2,903	1.55	917	2.36
이상 자녀수(명)	7.159	0.74	3,196	0.77	3,015	1.42	948	1.44

각 지역구분별 항목들의 표준오차와 95% 신뢰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2-3〉 2012년도 조사의 지역구분별 주요 항목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지역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전체	10.07	297.64	337.29
	대도시	14.25	301.48	357.80
	중소도시	18.35	302.84	375.46
	농어촌	13.93	205.46	261.58
월평균 가구지출 (만원)	전체	7.70	235.69	266.00
	대도시	10.66	238.12	280.22
	중소도시	14.25	238.64	295.07
	농어촌	11.02	168.30	212.73
출생아수 (명)	전체	0.016	1.764	1.828
	대도시	0.019	1.737	1.815
	중소도시	0.027	1.722	1.831
	농어촌	0.045	1.839	2.022
이상자녀수 (명)	전체	0.016	2.159	2.224
	대도시	0.016	2.126	2.192
	중소도시	0.031	2.126	2.250
	농어촌	0.033	2.247	2.381

2015년도 조사의 적정 조사구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2012년도 조사의 시도별 조사구수와 가구소득의 CV값을 살펴보았다. 2012년도 조사

에서는 전북과 전남의 가구소득 CV값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서울, 부산, 강원, 경기 및 경남의 CV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4〉 2012년 출산력조사의 지역별 조사구 가구소득 CV 값

(단위: 개, 가구, %)

지역	2012년도 조사		
	조사구	가구	CV(가구소득)%
전국	360	14,871	3.17
서울	46	1,792	7.77
부산	26	1,078	8.60
대구	23	942	9.42
인천	24	1,010	12.21
광주	18	733	8.97
대전	18	845	10.31
울산	15	615	9.48
경기	49	2,070	8.23
강원	16	649	8.40
충북	17	768	11.92
충남	19	786	12.17
전북	18	737	16.76
전남	16	633	14.71
경북	21	862	11.36
경남	24	935	8.84
제주	10	416	11.67

2015년도 조사에서 적정 표본가구규모로 18,000가구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위해 2012년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표본수를 달리 했을 때의 CV값을 비교하였다. 2012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도 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완료수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5〉 2012년도 및 2015년도 조사의 CV값

(단위: 가구, %)

항목	2012년도 조사		2015년도 조사	
	표본	CV	표본	목표 CV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14,871	3.17	15,000	3.15
			12,000	3.52
			10,000	3.86
			8,000	4.32

〈표 2-5〉 계속

(단위: 가구, %)

항목	2012년도 조사		2015년도 조사	
	표본	CV	표본	목표 CV
월평균 가구지출 (만원)	14,861	3.07	15,000	3.05
			12,000	3.41
			10,000	3.74
			8,000	4.18

$$N_1 CV_1^2 = N_2 CV_2^2$$

N_1 : 2012년 조사 표본규모

CV_1^2 : 2012년 조사 결과 상대표준오차

N_2 : 2015년 조사 산출된 표본규모(완료수 기준)

CV_2^2 : 2015년 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

표본 수에 따른 목표 CV값을 살펴보면 10,000 가구 이상(완료기준)이면 4%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 및 조사 일정을 고려하여 2015년 적정 표본 수(완료기준)는 10,000 가구로 결정하였다.

2012년도 조사에서는 조사구별 50가구를 조사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집락내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집락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는 집락(조사구) 내 단위(가구)들의 동질적인 정도의 척도를 나타낸다. 2012년도 조사의 주요항목별 시도별 집락내상관계수(ρ)를 살펴봄으로써 조사구별 조사대상 가구수 적정성 검토에 대한 판단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계산한 ρ 을 비교하였다. 2012년도 조사는 조사구당 50가구를 조사함에 따라 $M=50$ 을 적용하고, 2012년도 조사에서 조사구당 20가구를 조사했을 때($M=20$)의 추정값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rho = 1 - \frac{M}{M-1} \frac{SSW}{SST}$$

SSW(sum of squares within): 집락내 변동

SST(total sum of squares): 총변동

〈표 2-6〉 2012년도 조사 주요항목의 집락 내 상관계수

지역	출생아 수		혼인 후 자녀의 필요성	
	조사구별 50가구	조사구별 20가구 일 때의 추정값	조사구별 50가구	조사구별 20가구 일 때의 추정값
전국	0.093	0.064	0.064	0.035
서울	0.080	0.051	0.074	0.045
부산	0.098	0.070	0.132	0.104
대구	0.069	0.040	0.028	-0.003
인천	0.064	0.034	0.054	0.024
광주	0.123	0.095	0.029	-0.002
대전	0.113	0.085	0.073	0.043
울산	0.101	0.073	0.012	-0.019
경기	0.061	0.031	0.030	-0.001
강원	0.028	-0.003	0.061	0.032
충북	0.107	0.078	0.084	0.055
충남	0.139	0.111	0.023	-0.008
전북	0.077	0.048	0.012	-0.019
전남	0.097	0.068	0.062	0.032
경북	0.084	0.055	0.068	0.038
경남	0.084	0.055	0.066	0.036
제주	0.058	0.028	0.034	0.003

조사구 집락내상관계수 범위는 $-\frac{1}{N-1} \leq \rho \leq 1$ 이다. 집락내 조사단위가 서로 동질적이고, 집락들이 서로 이질적이면 집락내상관계수가 1에 가까워지므로, 이 경우 조사구의 표본 가구수는 작게 하고 조사구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조사구내 표본 가구수가 50일 때와 조사구내 표본 가구수가 20일 때의 추정값과 비교하면 집락내상관계수가 0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락추출 시의 표본크기(n_{clu})는 단순임의추출 시의 표본크기(n_{srs})에 설계효과(design effect, $deff$)를 고려해야 한다. 집락내상관계수를 바탕으로 설계효과($deff$) 산정 산식은 다음과 같다.

$$n_{clu} \geq n_{srs} \times deff$$

$$deff = 1 + (M-1)\rho$$

M : 조사구당 표본가구수

(표 2-7) 2012년도 조사 주요항목의 설계효과($deff$)

지역	출생아 수		혼인 후 자녀의 필요성	
	조사구별 50가구	조사구별 20가구 일 때의 추정값	조사구별 50가구	조사구별 20가구 일 때의 추정값
전국	5.557	2.223	4.158	1.663
서울	4.908	1.963	4.634	1.854
부산	5.825	2.330	7.456	2.982
대구	4.386	1.754	2.370	0.948
인천	4.115	1.646	3.633	1.453
광주	7.035	2.814	2.412	0.965
대전	6.534	2.614	4.566	1.826
울산	5.946	2.378	1.604	0.642
경기	3.984	1.594	2.462	0.985
강원	2.349	0.940	4.000	1.600
충북	6.219	2.488	5.128	2.051
충남	7.789	3.116	2.123	0.849
전북	4.773	1.909	1.577	0.631
전남	5.738	2.295	4.027	1.611
경북	5.102	2.041	4.327	1.731
경남	5.128	2.051	4.215	1.686
제주	3.846	1.538	2.660	1.064

대체로 $deff$ 값이 3이 넘어가면 표본설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석 되는데, M=50 인 경우 $deff$ 값이 7이 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2015년 도 조사에서는 2012년도에 비해 조사구 수를 늘리고, 조사구 내 표본가

구수를 줄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5년도 조사에서는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2012년도 조사에 비해 조사구 수를 늘리고, 조사구 당 가구수를 줄였다. 2012년도 조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과 실현 가능한 정도를 고려하여 2015년도 조사의 조사구 수를 600개 그리고 1개 조사구 당 가구수를 18가구(완료기준)로 산정하였다. 2015년도 조사의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16개 시도별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8〉 2012년도 조사와 2015년도 조사의 가구소득 CV

(단위: 개, 가구, %)

지역	2012년도 조사			2015년도 조사		
	조사구	가구	CV (가구소득)%	조사구	가구	CV (가구소득)%
전국	360	14,871	3.17	600	10,800	3.72
서울	46	1,792	7.77	66	1,188	9.54
부산	26	1,078	8.60	36	648	11.09
대구	23	942	9.42	31	558	12.24
인천	24	1,010	12.21	33	594	15.92
광주	18	733	8.97	24	432	11.68
대전	18	845	10.31	25	450	14.13
울산	15	615	9.48	20	360	12.39
경기	49	2,070	8.23	91	1,638	9.25
강원	16	649	8.40	31	558	9.06
충북	17	768	11.92	32	576	13.76
충남	19	786	12.17	37	666	13.22
전북	18	737	16.76	33	594	18.67
전남	16	633	14.71	32	576	15.42
경북	21	862	11.36	42	756	12.13
경남	24	935	8.84	48	864	9.20
제주	10	416	11.67	19	342	12.87

3. 2015년도 조사의 표본설계

가. 모집단

목표 모집단은 조사대상 전체의 집합적 개념이다. 2015년도 조사의 모집단은 2015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일반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

이다. 조사모집단은 조사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조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모집단이다. 조사모집단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특성번호 '아파트(A)', '일반(1)'에 해당하는 299,902 조사구 17,302,282 가구로 표본틀을 설정하였으며, 조사의 현실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기숙사, 특수시설조사구, 섬지역조사구 등은 제외하였다. 표본추출틀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이므로 조사구가 2015년도 상황과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기숙사, 특수시설조사구 및 섬지역조사구를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조사모집단은 목표모집단과 차이가 존재한다. 지역별 기숙사, 특수시설조사구 및 섬지역조사구를 제외한 가구의 모집단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의 약 20% 그리고 경기지역이 약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지역별 가구수 분포

(단위: 가구, %)

지역	전체	(비율)	동부	(비율)	읍면부	(비율)
전국	17,302,282		14,212,805		3,089,477	
서울	3,574,986	20.66	3,574,986	20.66	-	-
부산	1,215,859	7.03	1,215,859	7.03	-	-
대구	816,832	4.72	816,832	4.72	-	-
인천	901,106	5.21	901,106	5.21	-	-
광주	518,313	3.00	518,313	3.00	-	-
대전	535,947	3.10	535,947	3.10	-	-
울산	312,269	1.80	312,269	1.80	-	-
경기	3,905,377	22.57	3,239,885	18.73	665,492	3.85
강원	560,024	3.24	347,807	2.01	212,217	1.23
충북	564,019	3.26	340,838	1.97	223,181	1.29
충남	756,381	4.37	290,559	1.68	465,822	2.69
전북	661,787	3.82	452,241	2.61	209,546	1.21
전남	623,037	3.60	286,117	1.65	336,920	1.95
경북	1,009,688	5.84	519,334	3.00	490,354	2.83
경남	1,160,162	6.71	722,789	4.18	437,373	2.53
제주	186,495	1.08	137,923	0.80	48,572	0.28

조사모집단에서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표본추출 시 고려해야 한다. 지역별로 일반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의 거주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0〉 지역별 일반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의 거주 가구 분포

(단위: 가구)

지역	전체		동부		읍면부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전국	9,365,808	7,936,474	7,153,996	7,058,809	2,211,812	877,665
서울	2,173,518	1,401,468	2,173,518	1,401,468	-	-
부산	639,887	575,972	639,887	575,972	-	-
대구	416,997	399,835	416,997	399,835	-	-
인천	442,761	458,345	442,761	458,345	-	-
광주	191,968	326,345	191,968	326,345	-	-
대전	254,697	281,250	254,697	281,250	-	-
울산	153,108	159,161	153,108	159,161	-	-
경기	1,826,859	2,078,518	1,458,100	1,781,785	368,759	296,733
강원	318,915	241,109	153,915	193,892	165,000	47,217
충북	311,174	252,845	150,978	189,860	160,196	62,985
충남	445,401	310,980	119,216	171,343	326,185	139,637
전북	359,804	301,983	175,655	276,586	184,149	25,397
전남	388,230	234,807	110,030	176,087	278,200	58,720
경북	652,498	357,190	265,506	253,828	386,992	103,362
경남	640,711	519,451	345,303	377,486	295,408	141,965
제주	149,280	37,215	102,357	35,566	46,923	1,649

나. 모집단 층화기준

표본조사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90% 자료에서 적정 표본수를 산정하고, 전국을 16개 시도별(1차 층화) 그리고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지역을 동부와 읍·면부(2차 층화)로 나누어 조사구 특성에 따라 추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조사구 수를 살펴보았다.

〈표 2-11〉 지역별 조사구 수

(단위: 개, %)

지역	계	비율	동부	비율	읍면부	비율
전국	299,902	-	243,292	-	56,610	-
서울	60,928	20.32	60,928	20.32	-	-
부산	21,134	7.05	21,134	7.05	-	-
대구	14,242	4.75	14,242	4.75	-	-
인천	14,978	4.99	14,978	4.99	-	-
광주	9,011	3.00	9,011	3.00	-	-
대전	8,957	2.99	8,957	2.99	-	-
울산	5,394	1.80	5,394	1.80	-	-
경기	66,581	22.20	54,779	18.27	11,802	3.94
강원	10,179	3.39	6,117	2.04	4,062	1.35
충북	10,059	3.35	5,927	1.98	4,132	1.38
충남	13,560	4.52	4,986	1.66	8,574	2.86
전북	11,811	3.94	7,865	2.62	3,946	1.32
전남	11,270	3.76	4,935	1.65	6,335	2.11
경북	18,184	6.06	9,183	3.06	9,001	3.00
경남	20,337	6.78	12,475	4.16	7,862	2.62
제주	3,277	1.09	2,381	0.79	896	0.30

지역별로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2〉 지역별 일반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 분포

(단위: 개)

지역	전체		동부		읍면부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전국	167,490	132,412	126,047	117,245	41,443	15,167
서울	37,779	23,149	37,779	23,149	-	-
부산	11,504	9,630	11,504	9,630	-	-
대구	7,544	6,698	7,544	6,698	-	-
인천	7,348	7,630	7,348	7,630	-	-
광주	3,653	5,358	3,653	5,358	-	-
대전	4,301	4,656	4,301	4,656	-	-
울산	2,694	2,700	2,694	2,700	-	-
경기	32,224	34,357	25,451	29,328	6,773	5,029
강원	5,955	4,224	2,816	3,301	3,139	923
충북	5,783	4,276	2,754	3,173	3,029	1,103
충남	8,228	5,332	2,082	2,904	6,146	2,428

〈표 2-12〉 계속

(단위: 개)

지역	전체		동부		읍면부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전북	6,749	5,062	3,267	4,598	3,482	464
전남	7,332	3,938	2,006	2,929	5,326	1,009
경북	12,078	6,106	4,864	4,319	7,214	1,787
경남	11,666	8,671	6,193	6,282	5,473	2,389
제주	2,652	625	1,791	590	861	35

본 조사에서는 조사구 수 또는 가구 수에 따라 표본을 비례 배분할 경우 읍·면지역의 표본규모가 과소 표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조사의 목적에 적합한 가임여성의 규모에 따라 표본 조사구를 제공된 비례 배분하였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역별 가임기 여성(15~49세)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13〉 지역별 가임기 여성(15~49세) 분포

(단위: 명)

지역	동부			읍면부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계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계
서울	1,556,359	1,233,203	2,789,562	-	-	-
부산	377,822	476,196	854,018	-	-	-
대구	265,781	344,581	610,362	-	-	-
인천	303,090	428,237	731,327	-	-	-
광주	114,489	290,483	404,972	-	-	-
대전	161,902	249,087	410,989	-	-	-
울산	95,995	148,850	244,845	-	-	-
경기	1,007,408	1,677,076	2,684,484	198,717	256,229	454,946
강원	76,218	152,365	228,583	63,519	34,365	97,884
충북	89,332	162,931	252,263	58,197	49,077	107,274
충남	68,763	153,448	222,211	119,204	108,653	227,857
전북	95,828	231,407	327,235	54,744	18,591	73,335
전남	56,689	146,885	203,574	85,923	49,030	134,953
경북	146,964	215,007	361,971	123,427	84,513	207,940
경남	207,141	334,629	541,770	100,146	121,872	222,018
제주	74,585	30,750	105,335	23,229	1,206	24,435
계	4,698,366	6,275,135	10,973,501	827,106	723,536	1,550,642

다. 시도별 표본규모

2012년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도 조사의 표본규모를 제공근비례배정과 비례배정의 방법별로 CV 목표정도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제공근비례배정의 지역별 목표 CV값의 편차가 비례배정의 지역별 목표 CV값 편차보다 크지 않고 15%내외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조사를 위한 표본배정에는 제공근비례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16개 시도별로 가입여성 수에 따라 제공근 비례로 배분하여 적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과소 표집되지 않도록 층별 표본수를 결정하였다.

〈표 2-14〉 2015년도 조사의 제공근비례배정 및 비례배정의 조사구 CV값 목표정도

(단위: 개, 가구, %)

지역	2015년 조사 제공근비례배정			2015년도 조사 비례배정		
	조사구	가구	목표정도 (CV)%	조사구	가구	목표정도 (CV)%
전국	600	10,800	3.72	600	10,800	3.72
서울	66	1,188	9.54	134	2,412	6.70
부산	36	648	11.09	41	738	10.39
대구	31	558	12.24	30	540	12.44
인천	33	594	15.92	35	630	15.46
광주	24	432	11.68	19	342	13.13
대전	25	450	14.13	20	360	15.80
울산	20	360	12.39	12	216	16.00
경기	91	1,638	9.25	149	2,682	7.23
강원	31	558	9.06	16	288	12.61
충북	32	576	13.76	17	306	18.88
충남	37	666	13.22	21	378	17.55
전북	33	594	18.67	20	360	23.98
전남	32	576	15.42	16	288	21.81
경북	42	756	12.13	27	486	15.13
경남	48	864	9.20	37	666	10.48
제주	19	342	12.87	6	108	22.90

라. 층별 표본배정

2015년 조사에서는 16개 시도별로 1차 층화 후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지역을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하여 최종 확정된 표본규모를 조사구별로 20가구씩 배정하였다. 1차 추출단위는 표본조사구이며, 2차 추출단위는 조사구 내의 가구이며, 최종 조사단위는 가구 내 거주하는 기혼여성(15~49세) 및 미혼남녀(20~44세)이다.

〈표 2-15〉 2015년도 조사의 최종 시도별 층별 표본배정(제급근비례배정) 결과

(단위: 가구)

지역	계	동부			읍·면부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계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계
전국	10,800	3,762	4,554	8,316	1,332	1,152	2,484
서울	1,188	630	558	1,188	-	-	-
부산	648	306	342	648	-	-	-
대구	558	252	306	558	-	-	-
인천	594	270	324	594	-	-	-
광주	432	162	270	432	-	-	-
대전	450	198	252	450	-	-	-
울산	360	162	198	360	-	-	-
경기	1,638	504	666	1,170	216	252	468
강원	558	144	198	342	126	90	216
충북	576	144	198	342	126	108	234
충남	666	126	198	324	180	162	342
전북	594	162	234	396	126	72	198
전남	576	126	198	324	144	108	252
경북	756	198	234	432	180	144	324
경남	864	234	288	522	162	180	342
제주	342	144	90	234	72	36	108

층별 할당 결과는 목표 표본규모로 작성하였으며, 표본조사구당 18가구를 조사 완료하는 것으로 표본가구수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2015년도

조사를 위한 최종 표본조사구 배정 결과로 조사구 내 목표 가구 수는 18 가구, 전체 표본 조사구 수는 600개(동부 462개, 읍·면부 138개)이다.

〈표 2-16〉 2015년도 조사의 최종 표본추출 결과(표본조사구)

(단위: 개)

지역	계	동부			읍·면부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계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계
전국	600	209	253	462	74	64	138
서울	66	35	31	66	-	-	-
부산	36	17	19	36	-	-	-
대구	31	14	17	31	-	-	-
인천	33	15	18	33	-	-	-
광주	24	9	15	24	-	-	-
대전	25	11	14	25	-	-	-
울산	20	9	11	20	-	-	-
경기	91	28	37	65	12	14	26
강원	31	8	11	19	7	5	12
충북	32	8	11	19	7	6	13
충남	37	7	11	18	10	9	19
전북	33	9	13	22	7	4	11
전남	32	7	11	18	8	6	14
경북	42	11	13	24	10	8	18
경남	48	13	16	29	9	10	19
제주	19	8	5	13	4	2	6

마. 표본조사구 추출

표본조사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항목 중 활용 가능한 변수인 조사구 특성, 점유형태, 혼인상태, 여성 비율 및 거처종류를 층별 내재적 층화변수로 선정하였다. 점유형태는 조사구별 자가 비율을 구하여 10% 간격으로 10개로 범주화하였다. 층별 조사구 특성, 여성비율, 혼인상태, 거처종류 순으로 정렬한 후, 가구 수를 기준으로 확률 비례표본추출방법으로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바. 표본가구 선정

본 조사를 위해 추출된 600개의 표본조사구에서 요도와 가구명부를 이용하여 계통추출법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였다. 가구명부에는 가구에 대한 세부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구명부의 순서에 따라 계통추출하는 방식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였다. 표본조사구 당 20가구를 추출하였으며, 조사구 당 18가구를 조사완료 목표로 설정하였다.

사. 대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에서 가구 수가 적은 조사구는 인접 조사구에서 표본가구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적격한 가구를 조사하도록 하며, 재개발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 층 내에서 예비조사구(표본조사구의 20%)로 대체하여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2015년도 조사는 특별조사구를 제외하고 일반조사구만 선정하여 조사하였지만, 표본프레임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추출된 표본조사구의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총관리자가 조사구를 확인하였으며, 재개발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조사구는 즉각적으로 연구진 및 표본설계 전문가에 전달하여 다른 조사구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제2절 가중치

통계조사에서 가중치 적용은 모집단 구조와 표본 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치의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3단계를 거쳐 산정된다. 우선 가중치는 가중표본합계치 (weighted sample total)을 산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평균, 구성비 등의 통계치를 산출하도록 한다. 추정치 편향을 없애기 위해 사후층화(Post Stratification)를 하여 가중치 조정을 실시한다. 가중치 부여는 조사구 추출이 1단계, 추출된 조사구에서 가구 추출이 2단계이다. 각 조사구 내 가구들은 동일한 가중값(설계 가중치)을 가지며, 조사 완료 후 추출확률을 고려하여 가중값을 부여하였다.

L : 층의 수

N_h : 층 h 의 모집단 조사구 수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의 총 가구 수

$S_h = \sum_{i=1}^{N_h} S_{hi}$: 층 h 에서 총 가구 수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

$$\text{설계가중치}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무응답을 보정하기 위하여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최초 목표 표본 크기를 유효 표본크기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최초 표본단위를 대체표본으로 교체(substitution)하는 경우 무응답 보정은 필요하지 않다.

$$\text{무응답 조정 가중치} = \frac{m_{hi}}{r_{hi}}$$

사후층화의 경우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가중치로 계산된 가구 가중치는 2005년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지역(특별·광역시, 9개 도의 동부와 읍·면부), 연령(5세 단위), 혼인상태별 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외삽법(extrapolation technique)을 적용하여 2015년 15~49세 여성의 기혼율과 20~44세 남녀의 미혼율을 각각 추정하였다. 사후조정을 위한 모수는 2015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참고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의 행정자료(주민등록부, 건축물 대장 등)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로 실시되었으며, 조사기준시점은 2015년 11월 1일이다. 이에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준(근거)과 적합하도록 행정자치부의 2015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최종 가중치의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 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 가중치} \times \text{사후층화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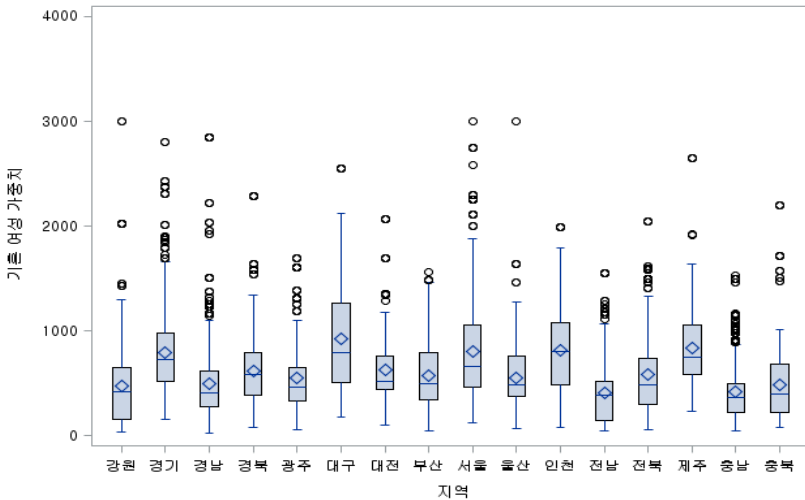
전체 기혼여성 표본 수는 11,009명이며, 기혼여성 가중치의 전체 평균은 642.3으로 표본 1명이 642.3명의 기혼여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기혼여성 가중값 평균이 921.8로 가장 높으며, 전남은 413.0으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 중위값은 인천이 806.0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365.3로 가장 낮았다.

〈표 2-17〉 기혼여성(15~49세) 가중치 지역별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 사분위수	제3 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11,009	642.3	3.9	537.4	369.7	839.9	0.63
서울	1,191	802.5	13.5	655.4	462.5	1056.9	0.58
부산	625	576.0	11.8	494.2	339.4	789.5	0.51
대구	577	921.8	20.8	789.4	503.6	1267.4	0.54
인천	616	813.3	17.1	806.0	488.0	1082.2	0.52
광주	452	545.9	15.2	457.4	327.1	654.9	0.59
대전	482	625.8	14.0	520.3	440.7	763.9	0.49
울산	335	551.4	17.3	486.0	371.9	756.9	0.57
경기	1,665	793.6	9.4	723.4	515.2	984.3	0.49
강원	575	478.8	15.8	417.7	157.7	644.5	0.79
충북	581	486.8	13.8	392.1	225.7	687.6	0.68
충남	657	419.5	11.2	365.3	223.7	490.3	0.68
전북	617	579.2	16.3	479.4	300.8	742.0	0.70
전남	603	413.0	12.6	381.6	141.2	515.2	0.75
경북	789	621.8	12.4	582.4	381.1	797.4	0.56
경남	903	500.3	12.9	407.6	274.1	616.1	0.77
제주	341	837.5	20.5	751.3	580.5	1057.1	0.45

[그림 2-1] 기혼여성(15~49세)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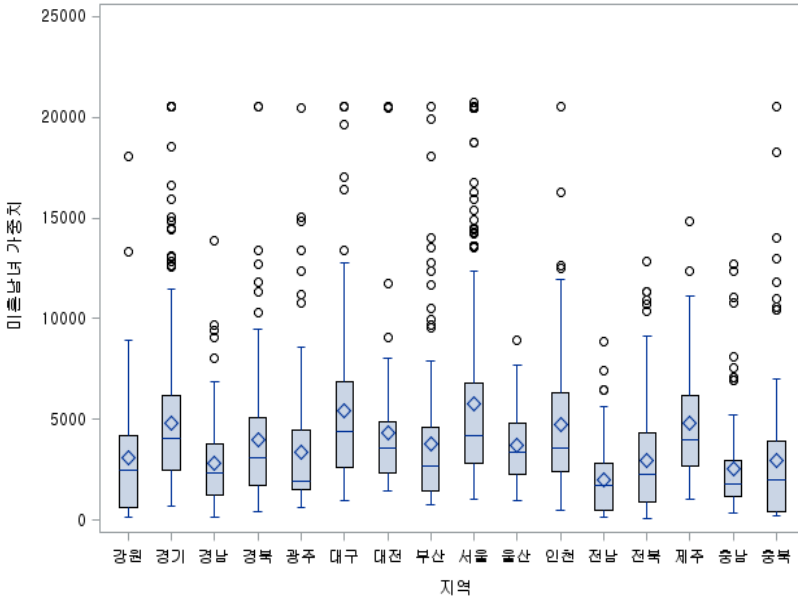
전체 미혼남녀 표본 수는 2,383명이며, 미혼남녀 가중치의 전체 평균은 4044.3으로 표본 1명이 4044.3명의 미혼남녀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미혼남녀 가중값 평균은 5755.1로 가장 높으며, 전남은 1995.3으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 중위값은 대구가 4411.4로 제일 높았으며, 전남이 365.3로 가장 낮았다.

〈표 2-18〉 미혼남녀(20~44세) 가중치의 지역별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 사분위수	제3 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2,383	4044.3	71.7	3059.7	1770.2	5105.6	0.86
서울	300	5755.1	258.3	4223.8	2831.1	6830.5	0.78
부산	141	3801.4	302.2	2664.3	1478.5	4618.4	0.94
대구	146	5415.9	330.4	4411.4	2637.1	6884.6	0.74
인천	161	4734.2	252.1	3609.7	2391.3	6351.9	0.68
광주	112	3379.8	319.8	1900.2	1485.9	4487.8	1.00
대전	92	4363.7	371.3	3595.7	2363.5	4866.7	0.82
울산	78	3696.8	216.1	3359.4	2268.1	4800.7	0.52
경기	353	4833.4	189.6	4053.8	2472.9	6183.9	0.74
강원	103	3091.3	284.9	2467.1	647.8	4226.0	0.94
충북	124	2953.0	317.6	2000.4	432.3	3892.2	1.20
충남	128	2552.1	202.6	1793.5	1167.6	2994.6	0.90
전북	133	2974.3	231.1	2279.1	903.6	4318.7	0.90
전남	121	1995.3	155.9	1708.5	499.6	2823.9	0.86
경북	148	3960.5	269.2	3082.8	1746.6	5061.6	0.83
경남	176	2794.6	155.9	2315.7	1261.0	3760.6	0.74
제주	67	4796.9	364.9	4001.5	2663.2	6220.7	0.62

[그림 2-2] 미혼남녀(20~44세)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지나치게 큰 가중치 값들은 추정량의 분산을 크게 만들어 추정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중치의 과도한 변동을 줄이고자 사후조정 후 극단 가중치 조정을 하였다. 실제 분석 시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값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완료 기혼여성 및 미혼남녀의 일반특성

제1절 조사완료 기혼여성의 일반특성

1. 기혼여성의 분포

본 조사에 응답한 기혼여성(15~49세)은 총 11,009명으로 대도시(이하에서 대도시는 광역시 이상 지역을 의미함)에 43.6%, 중소도시(이하에서는 일반시와 통합시의 동부를 의미함)에 41.7%, 농촌(이하에서는 읍·면을 의미함)에 14.7%가 분포되었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는 15~19세 0.1%, 20~24세 0.4%, 25~29세 4.4%, 30~34세 15.7%, 35~39세 22.3%, 40~44세 27.7%, 45~49세 29.5%로 분포되었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분포는 중졸이하 3.1%, 고졸 41.4%, 대졸 51.5%, 대학원 졸업 4.0%였다. 기혼여성의 교육상태별 분포는 졸업 97.3%, 재학 0.7%, 수료·중태·휴학 2.0%였다. 기혼여성은 유배우 93.8%, 사별 1.3%, 이혼·별거·미혼모 5.0% 등으로 혼인상태가 분포되었다.

기혼여성의 종교로는 없음이 53.1%이며, 불교 16.2%, 개신교 22.4%, 천주교 7.7%, 기타 0.6%로 분포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가구소득 계층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기준으로 60%미만 13.8%, 60~80%미만 15.6%, 80~100%미만 19.2%, 100~120%미만 17.5%, 120~140%미만 9.4%, 140~160%미만 8.6%, 160%이상 15.9% 등으로 분포되었다.

기혼여성의 국적은 대다수(98.1%)가 한국(출생)이며, 이외 한국(귀화

등) 1.3%, 외국 0.6% 등으로 분포되었다. 이들 기혼여성 중 취업 중인 경우는 56.5%이며 나머지 43.5%는 비취업 중이었다. 취업 기혼여성의 직종으로는 관리자 1.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8.2%, 사무종사자 24.0%, 서비스종사자 18.2%, 판매종사자 12.7%,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2.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 단순노무종사자 10.1%, 군인 0.1% 등으로 분포되었다.

〈표 3-1〉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계
기혼여성 전체	43.6	41.7	14.7	100.0
(명)	(4,798)	(4,589)	(1,622)	(11,00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연령				
15~19세	0.1	0.1	0.1	0.1
20~24세	0.2	0.4	1.0	0.4
25~29세	3.6	4.6	6.2	4.4
30~34세	15.1	15.9	16.8	15.7
35~39세	22.1	22.5	22.1	22.3
40~44세	28.2	27.9	25.6	27.7
45~49세	30.7	28.6	28.2	29.5
교육수준				
중졸이하	2.2	3.6	4.4	3.1
고졸	37.2	43.1	48.8	41.4
대졸	55.7	49.7	44.3	51.5
대학원 졸	4.9	3.6	2.5	4.0
교육상태				
졸업	97.5	97.1	96.9	97.3
재학	0.8	0.7	0.4	0.7
수료, 중태, 휴학	1.6	2.2	2.8	2.0
혼인상태				
유배우	93.1	94.3	94.3	93.8
사별	1.5	1.1	1.2	1.3
이혼·별거·미혼모	5.4	4.6	4.5	5.0
종교				
없음	53.3	52.6	53.5	53.1
불교	15.6	16.6	16.9	16.2
개신교	22.1	22.5	22.9	22.4
천주교	8.3	7.7	6.2	7.7
기타	0.6	0.6	0.5	0.6

〈표 3-1〉 계속

(단위: %, 명)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계
가구소득 ¹⁾				
60%미만	12.6	13.3	18.6	13.8
60~80%미만	14.5	15.0	20.5	15.6
80~100%미만	18.3	19.7	20.9	19.2
100~120%미만	17.1	18.1	16.8	17.5
120~140%미만	9.5	10.0	7.4	9.4
140~160%미만	8.8	8.8	7.5	8.6
160%이상	19.3	15.1	8.3	15.9
국적				
한국(출생)	98.5	98.0	97.7	98.1
한국(귀화등)	1.0	1.6	1.4	1.3
외국	0.6	0.5	0.9	0.6
취업여부				
취업	55.7	57.5	56.1	56.5
비취업	44.3	42.5	43.9	43.5
취업여성	100.0	100.0	100.0	100.0
직종				
관리자	1.6	1.2	1.9	1.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9.1	28.7	24.0	28.2
사무 종사자	26.8	22.8	19.0	24.0
서비스 종사자	17.2	17.9	22.1	18.2
판매 종사자	12.6	13.0	11.8	12.7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1	0.6	3.7	0.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2.9	2.5	2.9	2.7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2	1.8	2.6	1.7
단순노무종사자	8.5	11.3	11.6	10.1
군인	-	0.1	0.4	0.1

주: 1)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의 경제 상황

가. 가구소득

기혼여성(15~49세)의 가구소득은 전체적으로 600만원 이상이 2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0만원~400만원 미만(21.1%)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서는 600만원 이상 가구의 비율이 28.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농촌지역(읍면)에서는 300만원 미만이 26.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연령층일수록 가구소득도 높게 나타났다. 25세 미만 연령층의 가구소득을 보면 300만원 미만 비중이 58.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45~49세 연령층의 경우에는 600만원 이상 비중이 31.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집단의 경우 300만원 미만 비중이 50.9%로 상대적으로 높고, 대학원 졸업 집단의 경우 600만원 이상 비중이 65.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유배우 여성의 경우 가구소득이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이혼·별거·미혼모의 70% 이상이 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혼여성이 취업 중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

(단위: %, 명)

구 분	3백만원 미만	3백만~4백만원미만	4백만~5백만원미만	5백만~6백만원미만	6백만원 이상	계	(명)
전체	18.5	21.1	19.1	16.8	24.5	100.0	(11,004)
거주지($\chi^2=176.4^{***}$)							
대도시	16.6	19.8	18.8	16.7	28.1	100.0	(4,796)
중소도시	17.8	20.6	19.9	17.9	23.8	100.0	(4,587)
농촌	26.3	26.0	17.8	14.2	15.7	100.0	(1,620)
연령($\chi^2=451.4^{***}$)							
25세 미만 ¹⁾	58.5	22.6	7.5	5.7	5.7	100.0	(53)
25~29세	31.4	30.2	17.7	12.5	8.2	100.0	(487)
30~34세	21.1	26.3	20.3	14.9	17.4	100.0	(1,723)
35~39세	16.9	25.2	21.9	15.3	20.7	100.0	(2,449)
40~44세	16.6	19.2	19.3	17.8	27.1	100.0	(3,047)
45~49세	17.7	15.7	16.5	18.9	31.3	100.0	(3,243)
교육수준($\chi^2=1234.2^{***}$)							
중졸이하	50.9	23.1	10.5	9.4	6.1	100.0	(342)
고졸	25.3	25.6	19.5	14.4	15.2	100.0	(4,551)
대졸	12.2	18.6	19.8	19.5	29.8	100.0	(5,668)
대학원졸	4.8	5.9	11.3	12.9	65.1	100.0	(441)

〈표 3-2〉 계속

(단위: %, 명)

구 분	3백만원 미만	3백만~4백만원미만	4백만~5백만원미만	5백만~6백만원미만	6백만원 이상	계	(명)
혼인상태($\chi^2=1586.3^{***}$)							
유배우	14.8	21.6	20.0	17.8	25.9	100.0	(10,319)
사별	73.2	14.5	4.3	4.3	3.6	100.0	(138)
이혼·별거·미혼모	75.9	13.9	4.4	2.6	3.3	100.0	(547)
취업여부($\chi^2=759.7^{***}$)							
취업	13.4	15.7	20.1	18.9	31.8	100.0	(6,218)
비취업	25.2	28.1	17.7	14.1	14.9	100.0	(4,787)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가구지출

기혼여성(15~49세)의 월평균 가구지출은 300만원 미만 31.1%, 500만원 이상 21.5%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거주지역별 월평균 가구지출은 대도시보다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촌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 41.1%로 가장 높은 반면, 대도시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지출은 20대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반면, 40대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은 등 기혼여성이 고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 기혼여성의 가구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학력 기혼여성의 가구지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가구지출은 이혼·별거·미혼모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 80.5%에 달하며, 유배우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22.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취업 기혼여성의 가구지출은 300만원 미만이 40.6%로 가장 높은 등 취업 기혼여성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3〉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가구지출

(단위: %, 명)

구 분	3백만원 미만	3백만~4백만원미만	4백만~5백만원미만	5백만원 이상	계	(명)
전체	31.1	27.7	19.7	21.5	100.0	(11,006)
거주지($\chi^2=193.0^{***}$)						
대도시	27.6	26.9	19.9	25.6	100.0	(4,798)
중소도시	31.4	27.4	21.1	20.2	100.0	(4,587)
농촌	41.1	30.7	15.1	13.2	100.0	(1,621)
연령($\chi^2=821.3^{***}$)						
25세 미만 ¹⁾	80.8	9.6	3.8	5.8	100.0	(52)
25~29세	58.0	30.5	7.2	4.3	100.0	(488)
30~34세	42.7	31.5	14.6	11.2	100.0	(1,723)
35~39세	33.0	32.5	18.6	15.9	100.0	(2,450)
40~44세	26.1	26.6	22.2	25.1	100.0	(3,049)
45~49세	23.5	22.8	22.9	30.8	100.0	(3,243)
교육수준($\chi^2=711.7^{***}$)						
중졸이하	64.7	19.5	9.0	6.7	100.0	(343)
고졸	37.7	29.4	18.3	14.6	100.0	(4,553)
대졸	25.4	27.5	21.3	25.8	100.0	(5,671)
대학원졸	10.5	18.2	21.8	49.5	100.0	(440)
혼인상태($\chi^2=837.2^{***}$)						
유배우	27.9	28.5	20.8	22.8	100.0	(10,319)
사별	78.3	18.8	2.2	0.7	100.0	(138)
이혼·별거·미혼모	80.5	13.9	2.6	3.1	100.0	(548)
취업여부($\chi^2=446.1^{***}$)						
취업	23.9	27.3	23.2	25.7	100.0	(6,220)
비취업	40.6	28.1	15.1	16.2	100.0	(4,786)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가구재산

기혼여성이 속해있는 가구의 재산수준은 3억원 이상 32.8%, 1억원 미만 23.8%, 1억원~2억원 미만 23.7% 등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은 3억원 이상이 39.3%와 32.0%로 가장 높은 반면, 농촌의 경우 1억원 미만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이 20대인 경우 가구의 재산은 1억원 미만이 가장 높고, 40대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학력별로 가구 재산은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1억원 미만 그리고 대학원 졸업인 경우 3억원 이상 비율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로 가구 재산은 이혼·별거·미혼모와 사별인 경우 1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유배우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가구 재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가구재산

(단위: %, 명)

구 분	1억원 미만	1억~2억원 미만	2억~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계	(명)
전체	23.8	23.7	19.7	32.8	100.0	(11,005)
거주지($\chi^2=503.0^{***}$)						
대도시	18.8	20.6	21.2	39.3	100.0	(4,796)
중소도시	23.0	25.5	19.4	32.0	100.0	(4,587)
농촌	40.5	27.9	15.6	16.0	100.0	(1,621)
연령($\chi^2=517.3^{***}$)						
25세 미만 ¹⁾	67.9	20.8	7.5	3.8	100.0	(53)
25~29세	43.9	35.1	13.1	7.8	100.0	(487)
30~34세	26.0	29.8	21.4	22.8	100.0	(1,725)
35~39세	23.9	24.4	22.7	28.9	100.0	(2,451)
40~44세	19.8	22.4	18.6	39.1	100.0	(3,048)
45~49세	22.5	19.5	18.5	39.5	100.0	(3,243)
교육수준($\chi^2=1223.4^{***}$)						
중졸이하	61.4	21.1	6.4	11.1	100.0	(342)
고졸	33.8	26.7	18.0	21.5	100.0	(4,553)
대졸	14.9	22.3	22.1	40.8	100.0	(5,670)
대학원졸	5.5	13.2	16.4	65.0	100.0	(440)
혼인상태($\chi^2=772.8^{***}$)						
유배우	20.9	24.2	20.4	34.5	100.0	(10,320)
사별	55.4	24.5	11.5	8.6	100.0	(139)
이혼·별거·미혼모	69.3	15.0	8.0	7.7	100.0	(547)
취업여부($\chi^2=7.3$)						
취업	24.7	23.6	19.4	32.3	100.0	(6,217)
비취업	22.5	23.9	20.0	33.6	100.0	(4,787)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가구부채

기혼여성에 속해 있는 가구 중 40.7%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가구의 가구 부채 규모로는 5천만원 미만 25.4%, 1억원 이상 17.6%, 5천만원~1억원 미만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거주 지역별로 가구부채는 전국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도 가구부채의 분포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차이점은 20대와 30대에서 5천만원~1억원미만 비율이 1억원 이상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도 가구부채 패턴이 전체 기혼여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고졸, 중졸이하에서 5천만원~1억원 미만 비율이 1억원 이상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졸인 경우 5천만원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가구부채도 전체 패턴과 유사하며, 다만 사별과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 5천만원~1억원 미만 비율이 1억원 이상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가구부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가구부채

(단위: %, 명)

구 분	가구부채 없음	5천만원 미만	5천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명)
전체	40.7	25.4	16.3	17.6	100.0	(10,985)
거주지($\chi^2=72.7^{***}$)						
대도시	39.7	23.5	16.5	20.3	100.0	(4,794)
중소도시	41.0	25.8	16.5	16.7	100.0	(4,574)
농촌	43.2	29.6	15.2	12.1	100.0	(1,617)
연령($\chi^2=81.1^{***}$)						
25세 미만 ¹⁾	55.8	28.8	15.4	-	100.0	(52)
25~29세	45.1	28.6	14.8	11.5	100.0	(486)
30~34세	36.9	25.4	19.4	18.2	100.0	(1,718)
35~39세	37.9	25.8	19.0	17.3	100.0	(2,446)
40~44세	41.8	24.7	15.4	18.1	100.0	(3,044)
45~49세	43.1	25.0	13.8	18.1	100.0	(3,238)

〈표 3-5〉 계속

(단위: %, 명)

구 분	가구부채 없음	5천만원 미만	5천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명)
교육수준($\chi^2=276.6^{***}$)						
중졸이하	51.6	33.5	9.9	5.0	100.0	(343)
고졸	40.4	30.5	15.7	13.4	100.0	(4,543)
대졸	40.1	21.7	17.3	20.9	100.0	(5,658)
대학원졸	43.0	13.6	14.8	28.6	100.0	(440)
혼인상태($\chi^2=134.2^{***}$)						
유배우	40.1	24.7	16.9	18.3	100.0	(10,301)
사별	52.2	29.0	12.3	6.5	100.0	(138)
이혼·별거·미혼모	49.9	36.9	7.1	6.0	100.0	(547)
취업여부($\chi^2=3.1$)						
취업	40.0	25.8	16.4	17.8	100.0	(6,213)
비취업	41.7	24.8	16.2	17.3	100.0	(4,774)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혼여성의 주거 실태

기혼여성(15~49세) 중 74.1%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단독주택 11.2%, 다세대주택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3.3%)과 기타(0.9%)는 미세하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별로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대도시에서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의 거주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읍면부)에서는 오히려 아파트의 거주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후자는 농촌에서 가입 기혼여성이 자녀의 보육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연령별 주택유형도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30대의 경우 다세대주택 거주비율이 단독주택 거주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연령층일수록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고, 저연령층일수록 단독주택과 다

세대주택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학력수준 별 주택유형도 대졸에서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이 단독주택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제외하면 전체 패턴을 따르고 있다. 다만, 고학력일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학력일수록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주택유형도 전체 패턴을 따르고 있으며, 다만 이혼·별거·미혼모의 경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배우인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취업 중인 경우 전체 패턴을 따르나, 비취업 중인 경우에는 아파트 다음으로 다소나마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이 단독주택 거주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로 주택유형은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패턴을 따르되, 고소득층일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6〉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거주 유형

(단위: %, 명)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타 ¹⁾	계	(명)
전체	11.2	74.1	3.3	10.5	0.9	100.0	(11,009)
거주지($\chi^2=283.0^{***}$)							
대도시	12.7	69.7	2.1	14.9	0.6	100.0	(4,799)
중소도시	10.5	75.5	4.7	8.1	1.2	100.0	(4,589)
농촌	8.9	83.2	3.0	4.3	0.7	100.0	(1,622)
연령($\chi^2=77.2^{**}$)							
25세 미만 ²⁾	26.9	44.2	7.7	19.2	1.9	100.0	(52)
25~29세	15.8	69.0	2.7	11.9	0.6	100.0	(487)
30~34세	10.3	74.5	3.7	10.8	0.7	100.0	(1,724)
35~39세	9.2	76.0	3.2	11.1	0.5	100.0	(2,453)
40~44세	10.8	76.0	3.1	9.3	0.8	100.0	(3,049)
45~49세	12.6	72.0	3.3	10.7	1.3	100.0	(3,244)

〈표 3-6〉 계속

(단위: %, 명)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타 ¹⁾	계	(명)
교육수준($\chi^2=491.5^{***}$)							
중졸이하	27.7	49.6	7.0	14.6	1.2	100.0	(343)
고졸	15.0	65.9	3.8	13.9	1.3	100.0	(4,554)
대졸	7.6	81.2	2.7	8.0	0.5	100.0	(5,671)
대학원졸	5.5	87.0	2.5	4.8	0.2	100.0	(440)
혼인상태($\chi^2=220.1^{***}$)							
유배우	10.3	75.6	3.2	10.1	0.8	100.0	(10,324)
사별	19.4	60.4	7.9	10.1	2.2	100.0	(139)
이혼·별거·미혼모	25.6	49.8	4.4	18.5	1.6	100.0	(546)
취업여부($\chi^2=57.6^{***}$)							
취업	12.6	71.8	3.5	10.9	1.2	100.0	(6,219)
비취업	9.4	77.1	3.0	10.0	0.4	100.0	(4,790)
가구소득 ³⁾ ($\chi^2=542.0^{***}$)							
60%미만	21.2	59.0	3.8	14.8	1.2	100.0	(1,518)
60~80%미만	15.5	65.6	3.9	14.2	0.8	100.0	(1,714)
80~100%미만	9.5	73.1	3.9	12.2	1.3	100.0	(2,119)
100~120%미만	10.3	74.6	3.9	10.4	0.7	100.0	(1,924)
120~140%미만	9.8	80.1	2.1	7.7	0.3	100.0	(1,034)
140~160%미만	6.9	83.1	2.8	6.7	0.6	100.0	(945)
160%이상	4.6	87.8	1.7	5.1	0.8	100.0	(1,751)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 등이 포함됨.

2)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15~49세)이 속해 있는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로는 60.5%가 자가로 보유하고 있었고, 20.0%는 전세로 그리고 15.3%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3.3%는 무상으로 살고 있었다. 지역별 점유형태도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농촌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전세 비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가 비율은 중소도시에서, 전세 비율은 대도시에서 그리고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은 농촌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 점유형태도 대체적으로 전체

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 다만, 25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가 비율은 고연령층일수록 높았고, 전세 비율은 25세 미만을 제외하면 저연령층일수록 높았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과 무상 비율은 저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학력별 주택 점유형태도 전체적인 패턴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고졸 이하의 상대적 저학력층에서는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전세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기혼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가 비율과 전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주택 점유형태는 전체적인 패턴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기혼여성인 유배우 상태인 경우에 주택 점유형태는 전체 패턴을 따르고 있으나, 사별과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 자가, 전세, 무상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로 살고 있는 비율이 43.5%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취업상태에 따른 주택의 점유형태는 전체 패턴을 따르고 있었다.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가구소득별 주택의 점유형태는 전체 패턴을 따르고 있었다. 즉, 가구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 자가, 전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소득의 60~80% 미만인 경우에는 여전히 자가 비율이 높으나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전세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증금 있는 월세와 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세 비율은 가구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내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소득계층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3-7〉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현 거주 주택의 점유형태

(단위: %, 명)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상	기타 ¹⁾	계	(명)
전체	60.5	20.0	15.3	3.3	0.8	100.0	(11,009)
거주지($\chi^2=205.8^{***}$)							
대도시	59.0	23.3	13.7	3.4	0.5	100.0	(4,798)
중소도시	65.9	15.8	14.5	3.0	0.8	100.0	(4,589)
농촌	49.7	22.2	22.4	4.4	1.3	100.0	(1,623)
연령 ²⁾ ($\chi^2=414.0^{***}$)							
25세 미만	29.6	24.1	38.9	5.6	1.9	100.0	(54)
25~29세	34.9	34.7	22.6	6.4	1.4	100.0	(487)
30~34세	50.1	28.1	15.5	5.5	0.8	100.0	(1,724)
35~39세	58.0	21.8	15.5	4.0	0.7	100.0	(2,452)
40~44세	65.2	17.3	14.2	2.6	0.7	100.0	(3,048)
45~49세	68.1	14.8	14.5	2.0	0.6	100.0	(3,245)
교육수준($\chi^2=469.8^{***}$)							
중졸이하	46.8	12.8	34.6	3.2	2.6	100.0	(343)
고졸	58.0	16.4	21.3	3.1	1.3	100.0	(4,555)
대졸	63.1	22.8	10.1	3.6	0.3	100.0	(5,671)
대학원졸	63.7	27.9	5.4	2.9	-	100.0	(441)
혼인상태($\chi^2=547.9^{***}$)							
유배우	62.7	20.0	13.6	3.2	0.6	100.0	(10,324)
사별	37.0	20.3	34.8	6.5	1.4	100.0	(138)
이혼·별거·미혼모	26.9	20.3	43.5	5.5	3.8	100.0	(547)
취업여부($\chi^2=16.1^{**}$)							
취업	60.6	19.3	16.2	3.0	0.8	100.0	(6,218)
비취업	60.5	21.0	14.2	3.7	0.7	100.0	(4,789)
가구소득 ³⁾ ($\chi^2=1316.8^{***}$)							
60%미만	34.7	18.7	37.3	6.5	2.8	100.0	(1,518)
60~80%미만	50.6	21.6	22.1	4.4	1.3	100.0	(1,714)
80~100%미만	60.1	20.5	15.8	3.3	0.3	100.0	(2,119)
100~120%미만	65.7	21.3	9.9	2.8	0.3	100.0	(1,923)
120~140%미만	69.5	19.3	8.3	2.8	0.1	100.0	(1,035)
140~160%미만	71.4	19.8	5.9	2.6	0.2	100.0	(944)
160%이상	76.4	18.1	4.4	1.0	0.1	100.0	(1,752)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가 포함됨.

2)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15~49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 아닌 경우 20.9%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대도시 17.5%, 중소도시 19.1%, 농촌 32.7%로 도시지역

보다 농촌에서 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연령이 높을수록 점차 높아지다가 35~39세에서 24.8%로 정점을 이룬 후 다시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가구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인 경우 31.8%인 반면, 160% 이상인 경우에는 4.0%로 낮게 나타났다.

〈표 3-8〉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현 거주 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여부

(단위: %, 명)

구 분	임대주택	비임대주택	계	(명)
전체	20.9	79.1	100.0	(3,977)
거주지($\chi^2=78.7^{***}$)				
대도시	17.5	82.5	100.0	(1,803)
중소도시	19.1	80.9	100.0	(1,427)
농촌	32.7	67.3	100.0	(746)
연령 ¹⁾ ($\chi^2=20.0^{**}$)				
25세 미만	5.9	94.1	100.0	(34)
25~29세	16.4	83.6	100.0	(287)
30~34세	18.5	81.5	100.0	(767)
35~39세	24.8	75.2	100.0	(933)
40~44세	21.8	78.2	100.0	(983)
45~49세	20.1	79.9	100.0	(973)
가구소득 ²⁾ ($\chi^2=167.8^{***}$)				
60%미만	31.8	68.2	100.0	(894)
60~80%미만	22.4	77.6	100.0	(771)
80~100%미만	24.7	75.3	100.0	(777)
100~120%미만	16.0	84.0	100.0	(606)
120~140%미만	12.9	87.1	100.0	(287)
140~160%미만	13.5	86.5	100.0	(245)
160%이상	4.0	96.0	100.0	(396)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6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택의 점유형태가 자가가 아닌 경우 임대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인 비율이 3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억원 이상인 비율

이 32.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 1억원 이상 비율이 45.2%에 달하는 반면, 농촌에서는 1억원을 넘는 비율이 12.7%에 불과했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임대보증금액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임대보증금액도 많은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60%미만인 계층의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1억원 이상 비율이 9.3%에 불과한 반면, 160% 이상인 계층의 경우 1억원 이상 비율은 76.8%에 달하였다.

〈표 3-9〉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거주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임대보증금

(단위: %, 명)

구 분	1천만원 미만	1~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명)
전세	14.8	34.1	18.2	32.9	100.0	(3,892)
거주지($\chi^2=340.4^{***}$)						
대도시	7.5	30.7	16.6	45.2	100.0	(1,778)
중소도시	18.1	35.1	19.1	27.7	100.0	(1,391)
농촌	26.3	40.7	20.3	12.7	100.0	(723)
연령 ¹⁾ ($\chi^2=192.8^{***}$)						
25세 미만	57.6	27.3	12.1	3.0	100.0	(33)
25~29세	22.9	26.1	25.4	25.7	100.0	(280)
30~34세	12.9	24.2	23.7	39.1	100.0	(751)
35~39세	12.1	32.9	17.7	37.3	100.0	(915)
40~44세	14.2	35.1	17.8	33.0	100.0	(961)
45~49세	15.7	44.6	12.8	26.9	100.0	(951)
가구소득 ²⁾ ($\chi^2=859.7^{***}$)						
60%미만	26.1	50.1	14.5	9.3	100.0	(850)
60~80%미만	17.1	41.1	22.0	19.8	100.0	(749)
80~100%미만	13.0	39.4	17.9	29.6	100.0	(769)
100~120%미만	10.3	23.5	22.3	43.8	100.0	(600)
120~140%미만	9.1	23.3	23.0	44.6	100.0	(287)
140~160%미만	11.5	13.2	20.2	55.1	100.0	(243)
160%이상	2.8	12.2	8.1	76.8	100.0	(393)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6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15~49세)가 자가가 아니고 월세로 사는 경우, 월세액은 20만원 미만 비율이 4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40만원 미만 34.6%, 40만원 이상 2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월세액 분포는 대체적으로 전체 패턴을 따르되, 농촌에서 20~40만원 미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40만원 이상 비율은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월세액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고연령층일수록 40만원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월세액은 저소득층일수록 월세액 20만원 미만과 20~40만원 미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와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40만원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서는 월세액 분포는 20만원 미만, 20~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60% 이상인 계층의 경우에는 월세액 분포가 역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 보증부 월세 및 사글세 거주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월세(사글세) 비용

(단위 : %, 명)

구 분	20만원 미만	20~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계	(명)
전체	41.3	34.6	24.1	100.0	(1,783)
거주지($\chi^2=60.4^{***}$)					
대도시	34.9	35.2	29.9	100.0	(690)
중소도시	39.6	35.5	25.0	100.0	(705)
농촌	55.9	31.7	12.4	100.0	(388)
연령 ¹⁾ ($\chi^2=30.5^{***}$)					
30세 미만	51.2	34.9	14.0	100.0	(141)
30~34세	43.3	32.7	23.9	100.0	(284)
35~39세	44.4	32.4	23.2	100.0	(401)
40~44세	36.7	39.0	24.3	100.0	(461)
45~49세	43.5	32.2	24.3	100.0	(497)

〈표 3-10〉 계속

(단위: %, 명)

구 분	20만원 미만	20~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계	(명)
가구소득 ²⁾ ($\chi^2=89.0^{***}$)					
60%미만	45.2	40.1	14.7	100.0	(611)
60~80%미만	38.2	36.7	25.1	100.0	(403)
80~100%미만	44.0	32.1	23.9	100.0	(343)
100~120%미만	42.2	22.6	35.2	100.0	(199)
120~140%미만	35.6	35.6	28.7	100.0	(87)
140~160%미만	35.6	28.8	35.6	100.0	(59)
160%이상	24.1	25.3	50.6	100.0	(83)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5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15~49세)의 가구에서 주택 구입 시 용자를 받은 비율은 전체적으로 46.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용자를 받은 비율은 대도시 47.5%, 중소도시 46.8%, 농촌 4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보면, 기혼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용자받은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나, 30~34세(53.1%)를 정점으로 고연령층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20%~140% 미만 계층에서 용자받은 비율이 52.9%로 가장 높았으며, 전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혹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11〉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현 거주주택의 구입 및 임차를 위한 용자 여부

(단위: %, 명)

구 분	용자 받음	용자 받지 않음	계	(명)
전체	46.3	53.7	100.0	(10,649)
거주지($\chi^2=20.4^{***}$)				
대도시	47.5	52.5	100.0	(4,638)
중소도시	46.8	53.2	100.0	(4,455)
농촌	41.1	58.9	100.0	(1,556)

〈표 3-11〉 계속

(단위: %, 명)

구 분	응자 받음	응자 받지 않음	계	(명)
연령 ¹⁾ ($\chi^2=77.8^{***}$)				
25세 미만	26.0	74.0	100.0	(50)
25~29세	43.8	56.2	100.0	(459)
30~34세	53.1	46.9	100.0	(1,631)
35~39세	49.9	50.1	100.0	(2,355)
40~44세	45.1	54.9	100.0	(2,970)
45~49세	41.9	58.1	100.0	(3,185)
가구소득 ²⁾ ($\chi^2=126.4^{***}$)				
60%미만	33.7	66.3	100.0	(1,422)
60~80%미만	44.6	55.4	100.0	(1,642)
80~100%미만	49.9	50.1	100.0	(2,049)
100~120%미만	48.4	51.6	100.0	(1,871)
120~140%미만	52.9	47.1	100.0	(1,006)
140~160%미만	48.6	51.4	100.0	(919)
160%이상	46.5	53.5	100.0	(1,734)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15~49세)이 속해있는 가구의 어느 가구원이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13.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다른 주택 소유비율은 농촌에서 다소 높을 뿐 거의 차이가 없었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층일수록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 연령층의 다른 주택 소유 비율은 10%미만인 반면, 40대 연령층은 14%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주택 소유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의 월평균소득 60%미만인 계층의 경우 다른 주택 소유비율은 4.5%인 반면, 160% 이상인 계층의 경우 2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2〉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가구원 중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단위: %, 명)

구 분	다른 주택 소유	다른 주택 없음	계	(명)
전체	13.2	86.8	100.0	(11,009)
거주지($\chi^2=1.2$)				
대도시	13.1	86.9	100.0	(4,798)
중소도시	13.1	86.9	100.0	(4,589)
농촌	14.1	85.9	100.0	(1,622)
연령 ¹⁾ ($\chi^2=77.8^{***}$)				
25세 미만	9.4	90.6	100.0	(53)
25~29세	4.7	95.3	100.0	(488)
30~34세	10.3	89.7	100.0	(1,725)
35~39세	11.5	88.5	100.0	(2,452)
40~44세	14.6	85.4	100.0	(3,049)
45~49세	16.0	84.0	100.0	(3,243)
가구소득 ²⁾ ($\chi^2=465.3^{***}$)				
60%미만	4.5	95.5	100.0	(1,517)
60~80%미만	7.3	92.7	100.0	(1,714)
80~100%미만	10.5	89.5	100.0	(2,119)
100~120%미만	12.7	87.3	100.0	(1,929)
120~140%미만	14.9	85.1	100.0	(1,028)
140~160%미만	18.0	82.0	100.0	(945)
160%이상	26.7	73.3	100.0	(1,751)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조사완료 미혼남녀의 일반특성

1. 미혼남녀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미혼조사는 주된 가임기층인 20~44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미혼남성의 지역 분포를 보면, 대도시 49.0%, 중소도시 36.6%, 농촌 14.4%였고, 미혼여성은 대도시 53.0%, 중소도시 36.0%, 농촌 11.0%였다. 미혼남성 중 20대가 59.3%, 미혼여성 중 20대는 69.4%였다. 고졸 이하(대학 재학 포함) 비율은 미혼남성의 52.2%, 미

혼여성의 34.0%였다. 교육상태가 재학 중인 비율은 미혼남성 20.2%, 미혼여성 20.5%였다. 미혼남성 응답자의 65.2% 그리고 미혼여성 응답자의 61.0%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기존 제도 종교 중에서 남성은 개신교 비율이 15.1%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도 개신교가 17.7%로 가장 높았다. 미혼남성 응답자 중 취업자는 59.5%, 미혼여성 응답자 중 취업자는 63.4%였다.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미혼남성 중 사무 종사자가 23.7%로 가장 많았고, 미혼여성 응답자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40.8%로 가장 많았다.

〈표 3-13〉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

(단위: %, 명)

구 분	미혼남성	미혼여성	계	(명)
미혼남녀 전체	100.0(1,096)	100.0(1,287)	100.0	(2,383)
거주지				
대도시	49.0	53.0	51.2	(1,219)
중소도시	36.6	36.0	36.3	(864)
농촌	14.4	11.0	12.6	(300)
연령				
20~24세	33.3	40.1	37.0	(881)
25~29세	26.0	29.3	27.8	(662)
30~34세	20.2	17.7	18.8	(448)
35~39세	12.4	8.3	10.2	(243)
40~44세	8.0	4.6	6.2	(147)
교육수준				
고졸이하	52.2	34.0	42.3	(1,009)
대졸이상	47.8	66.0	57.7	(1,374)
교육상태				
졸업	65.3	74.1	70.1	(1,670)
재학	20.2	20.5	20.4	(485)
수료, 중퇴, 휴학	14.5	5.4	9.6	(228)
종교				
없음	65.2	61.0	62.9	(1,500)
불교	12.9	13.2	13.0	(311)
개신교	15.1	17.7	16.5	(394)
천주교	6.7	7.8	7.3	(173)
기타	0.2	0.3	0.3	(6)
취업여부				
취업	59.5	63.4	61.6	(1,467)
비취업	40.5	36.6	38.4	(915)

〈표 3-13〉 계속

(단위: %, 명)

구 분	미혼남성	미혼여성	계	(명)
취업자의 직종				
관리자 및 전문가	13.8	40.8	28.8	(423)
사무 종사자	23.7	35.6	30.3	(445)
서비스 종사자	15.8	13.0	14.3	(210)
판매 종사자	10.1	6.5	8.1	(119)
기타	36.6	4.1	18.5	(272)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미혼남녀의 주거 특성

미혼남성의 경우 부모와 비동거 비율은 18.6%였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18.7%였다. 미혼남성의 경우 20대 초반 부모와 비동거 비율은 4.4%에 불과하나 30대 초반 30.0%, 30대 중반 44.0%로 연령에 따라 높았다. 미혼여성의 부모와 비동거 비율도 20대 초반 6.4%, 30대 초반 28.6%, 40대 후반 45.8%였다.

〈표 3-14〉 미혼남녀(20~44세)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

(단위: %, 명)

구 분	동거	비동거	계	(명)
미혼남성 전체($\chi^2=147.5^{***}$)	81.4	18.6	100.0	(1,072)
20~24세	95.6	4.4	100.0	(361)
25~29세	88.4	11.6	100.0	(285)
30~34세	70.0	30.0	100.0	(220)
35~39세	56.0	44.0	100.0	(134)
40~44세	63.9	36.1	100.0	(72)
미혼여성 전체($\chi^2=129.5^{***}$)	81.3	18.7	100.0	(1,270)
20~24세	93.6	6.4	100.0	(513)
25~29세	81.1	18.9	100.0	(375)
30~34세	71.4	28.6	100.0	(224)
35~39세	57.7	42.3	100.0	(97)
40~44세	54.2	45.8	100.0	(59)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미혼남성의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보증금이 있는 월세 33.1%, 자가 28.0%, 전세 24.5% 등이었다.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미혼여성의 주택 점유형태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39.3%, 전세 31.2%, 자가 16.0% 등이었다.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미혼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자가 비율이 높았다.

〈표 3-15〉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미혼남녀(20~44세)의 주택 점유형태

(단위: %, 명)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기타	계	(명)
미혼남성 전체($\chi^2=30.1^{***}$)	28.0	24.5	33.1	14.4	100.0	(200)
30세 미만	12.2	18.4	44.9	24.5	100.0	(49)
30~34세	26.2	41.5	21.5	10.8	100.0	(65)
35세 이상	39.3	14.3	35.7	10.7	100.0	(84)
미혼여성 전체($\chi^2=22.8^{***}$)	16.0	31.2	39.3	13.5	100.0	(237)
30세 미만	10.6	29.8	40.4	19.2	100.0	(104)
30~34세	10.9	26.6	50	12.5	100.0	(64)
35세 이상	29.9	37.3	28.4	4.5	100.0	(6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성의 경우주택을 마련할 때 용자를 받은 비율이 29.1%였다. 미혼여성 중 용자를 받은 비율은 17.3%였다. 미혼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용자를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6〉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미혼남녀(20~44세)의 거주 주택을 위한 용자 여부

(단위: %, 명)

구 분	용자 받음	용자 받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chi^2=7.8^{\dagger}$)	29.1	70.9	100.0	(174)
30세 미만	10.8	89.2	100.0	(37)
30~34세	33.9	66.1	100.0	(59)
35세 이상	34.6	65.4	100.0	(78)

〈표 3-16〉 계속

(단위: %, 명)

구 분	응자 받음	응자 받지 않음	계	(명)
미혼여성 전체($\chi^2=5.9$)	17.3	82.7	100.0	(209)
30세 미만	12.8	87.2	100.0	(86)
30~34세	12.3	87.7	100.0	(57)
35세 이상	26.2	73.8	100.0	(6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미혼남녀의 경제적 특성

미혼남성 중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비율은 39.9%, 100만~200만원 미만 비율은 21.6%, 50만원 미만인 비율은 24.1%였다. 미혼여성 중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비율은 32.6%, 100만~200만원 이상인 비율은 31.0%였다. 미혼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월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17〉 미혼남녀(20~44세)의 월평균 소득

(단위: %, 명)

구 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	(명)
미혼남성 전체($\chi^2=363.0^{***}$)	24.1	14.3	21.6	39.9	100.0	(1,096)
20~24세	42.9	25.8	25.3	6.0	100.0	(364)
25~29세	20.0	14.0	27.7	38.2	100.0	(285)
30~34세	11.3	6.3	17.2	65.2	100.0	(221)
35~39세	11.7	5.1	9.5	73.7	100.0	(137)
40~44세	11.4	2.3	17.0	69.3	100.0	(88)
미혼여성 전체($\chi^2=356.1^{***}$)	24.2	12.1	31.0	32.6	100.0	(1,287)
20~24세	43.3	21.3	26.3	9.1	100.0	(517)
25~29세	13.8	7.7	34.5	44.0	100.0	(377)
30~34세	7.9	2.6	38.6	50.9	100.0	(228)
35~39세	8.4	9.3	27.1	55.1	100.0	(107)
40~44세	16.7	3.3	26.7	53.3	100.0	(6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성 중 39.6%가 월평균 지출이 100만~200만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고, 미혼여성의 경우도 38.8%가 같은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월평균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 월평균 지출액이 50만원 미만인 비율은 40대 후반 4.5%, 20대 초반 42.6%, 월평균 지출액이 200만원 이상인 비율은 20대 초반 2.2%, 40대 후반 36.4%였다. 미혼여성의 월평균 지출액이 50만원 미만인 비율은 20대 초반 46.7%, 40대 후반 3.3%, 월평균 지출액이 200만원 이상 비율은 20대 초반 1.2%, 40대 후반 18.3%였다.

〈표 3-18〉 미혼남녀(20~44세)의 월평균 지출

(단위: %, 명)

구 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	(명)
미혼남성 전체($\chi^2=327.4^{***}$)	22.5	24.5	39.6	13.4	100.0	(1,096)
20~24세	42.6	36.5	18.7	2.2	100.0	(364)
25~29세	19.6	25.6	47.0	7.7	100.0	(285)
30~34세	9.1	15.5	55.5	20.0	100.0	(220)
35~39세	7.3	14.6	48.2	29.9	100.0	(137)
40~44세	4.5	9.1	50.0	36.4	100.0	(88)
미혼여성 전체($\chi^2=422.6^{***}$)	25.1	28.4	38.8	7.7	100.0	(1,287)
20~24세	46.7	35.3	16.9	1.2	100.0	(516)
25~29세	15.9	29.2	50.4	4.5	100.0	(377)
30~34세	5.7	22.8	55.7	15.8	100.0	(228)
35~39세	6.5	14.0	51.4	28.0	100.0	(107)
40~44세	3.3	11.7	66.7	18.3	100.0	(6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성 중 재산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였다. 미혼남성의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재산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즉, 재산 없음 비율은 20대 초반 64.1%, 40대 후반 13.6% 그리고 재산이 2천만원 이상인 비율은 20대 초반 4.1%, 40대 후반 73.9%였다. 미혼여성 중 재산 없음은 30.3%, 재산 2천만원 이상은 33.8%였다. 미혼여성이 고연령층일수록 재산이 더 많이 나타났다.

〈표 3-19〉 20~44세 미혼남녀의 재산 규모

(단위: %, 명)

구 분	없음	5백만원 미만	5백만~ 2천만원미만	2천만원 이상	계	(명)
미혼남성 전체($\chi^2=454.2^{***}$)	34.4	14.7	17.0	34.0	100.0	(1,096)
20~24세	64.1	20.5	11.2	4.1	100.0	(365)
25~29세	32.2	19.9	23.4	24.5	100.0	(286)
30~34세	13.1	8.6	21.7	56.6	100.0	(221)
35~39세	7.4	4.4	16.9	71.3	100.0	(136)
40~44세	13.6	3.4	9.1	73.9	100.0	(88)
미혼여성 전체($\chi^2=442.5^{***}$)	30.3	14.6	21.4	33.8	100.0	(1,287)
20~24세	54.5	21.7	17.6	6.2	100.0	(517)
25~29세	18.0	11.1	28.6	42.3	100.0	(378)
30~34세	9.7	8.4	19.8	62.1	100.0	(227)
35~39세	11.3	13.2	20.8	54.7	100.0	(106)
40~44세	10.2	0.0	15.3	74.6	100.0	(59)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성 중 부채가 없는 비율은 83.8%였고, 미혼여성 중 비율은 89.0%였다. 미혼남성 중 부채가 1,001만~3,000만원 이하인 비율은 4.9%, 500만원 이하인 비율은 3.4%였다. 미혼여성 중 부채가 501만~1,000만원 이하인 비율은 3.3%, 500만원 이하인 비율은 3.2%,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4%, 1,001~3,000만원인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표 3-20〉 미혼남녀(20~44세)의 부채 규모

(단위: %, 명)

구 분	없음	5백만원 이하	5백만~ 1천만원이하	1천만원~ 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	계	(명)
미혼남성 전체	83.8	3.4	3.2	4.9	4.7	100.0	(1,096)
20~24세	92.6	3.0	3.3	0.5	0.5	100.0	(364)
25~29세	88.8	5.3	1.4	3.5	1.1	100.0	(285)
30~34세	74.7	3.6	2.7	9.5	9.5	100.0	(221)
35~39세	77.9	0.0	2.9	11.0	8.1	100.0	(136)
40~44세	64.0	3.4	10.1	6.7	15.7	100.0	(89)

〈표 3-20〉 계속

(단위: %, 명)

구 분	없음	5백만원 이하	5백만~ 1천만원이하	1천만원~ 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	계	(명)
미혼여성 전체	89.0	3.2	3.3	2.1	2.4	100.0	(1,287)
20~24세	90.9	3.5	3.1	1.7	0.8	100.0	(517)
25~29세	86.2	4.0	5.3	2.9	1.6	100.0	(377)
30~34세	93.4	0.4	1.3	0.9	4.0	100.0	(226)
35~39세	82.2	4.7	1.9	1.9	9.3	100.0	(107)
40~44세	86.7	3.3	1.7	5.0	3.3	100.0	(6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비율은 미혼남성 21.5%, 미혼여성 16.9%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미혼남녀 공히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독립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중인 경우가 비취업 중인 경우에 비해 경제적 독립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독립한 기간은 연령효과로 인하여 고연령층일수록 길게 나타났다. 한편, 취업여부별 경제적 독립기간은 비취업 시 사례수가 적어 대표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3-21〉 미혼남녀(20~44세)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

(단위: %, 명)

구 분	도움 받고 있음	도움 받지 않음	계	(명)	경제적으로 독립한 기간					계	(명)
					3년 미만	3~6년 미만	6~9년 미만	9~12년 미만	12년 이상		
미혼남성 전체	78.5	21.5	100.0	(1,072)	28.0	19.0	16.1	18.1	18.9	100.0	(230)
연령($\chi^2=216.2^{***}$)											
20~24세	95.8	4.2	100.0	(361)	93.8	6.3	-	-	-	100.0	(16)
25~29세	88.4	11.6	100.0	(285)	45.2	32.3	19.4	-	3.2	100.0	(31)
30~34세	65.5	34.5	100.0	(220)	26.3	36.8	21.1	7.9	7.9	100.0	(76)
35~39세	47.0	53.0	100.0	(134)	17.1	4.3	18.6	35.7	24.3	100.0	(70)
40~44세	50.0	50.0	100.0	(72)	8.3	5.6	2.8	27.8	55.6	100.0	(36)
취업여부($\chi^2=173.6^{***}$)											
취업	64.8	35.2	100.0	(633)	27.8	19.7	16.1	17.5	18.8	100.0	(223)
비취업	98.4	1.6	100.0	(438)	37.5	-	12.5	37.5	12.5	100.0	(8)

〈표 3-21〉 계속

(단위: %, 명)

구 분	도움 받고 있음	도움 받고 있지 않음	계 (명)	경제적으로 독립한 기간					계 (명)
				3년 미만	3~6년 미만	6~9년 미만	9~12년 미만	12년 이상	
미혼여성 전체	83.1	16.9	100.0 (1,270)	17.3	25.9	19.0	17.3	20.5	100.0 (214)
연령($\chi^2=180.0^{***}$)									
20~24세	96.3	3.7	100.0 (513)	50.0	40.0	-	10.0	-	100.0 (20)
25~29세	84.5	15.5	100.0 (374)	20.7	44.8	25.9	6.9	1.7	100.0 (58)
30~34세	70.7	29.3	100.0 (225)	15.2	25.8	24.2	22.7	12.1	100.0 (66)
35~39세	54.6	45.4	100.0 (97)	9.3	9.3	16.3	30.2	34.9	100.0 (43)
40~44세	54.2	45.8	100.0 (59)	3.8	3.8	7.7	11.5	73.1	100.0 (26)
취업여부($\chi^2=96.9^{***}$)									
취업	75.3	24.7	100.0 (805)	16.6	27.1	19.6	18.6	18.1	100.0 (199)
비취업	96.8	3.2	100.0 (464)	33.3	13.3	6.7	-	46.7	100.0 (15)

* p<0.05, ** p<0.01, *** p<0.001

주: 1)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 2 부

기혼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 행태

제4장 기혼여성의 결혼 행태

제5장 기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행태

제6장 기혼여성의 산전산후 관리 실태

제7장 유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행태

제8장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 행태

제9장 기혼여성의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욕구



4

기혼여성의 결혼 행태 <<

제1절 결혼에 관한 태도

1.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11.5%, ‘하는 편이 좋다’는 37.7%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전체 기혼여성의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태도는 6.0%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태도가 44.4%로 높아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최근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별로 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50%에 육박하나 농촌의 경우에는 46.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은 20대와 45~49세에서 5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30대와 40~44세에서 50% 미만으로 이른바 ‘V’자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신혼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자녀 성장기 등의 생애주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태도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고졸 이하에서 50% 미만이었던 반면, 대졸 이상에서는 50% 이상(대학원졸 60.5%)이었다. 혼인상태별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은 유배우인 경우 50.5%였으나, 사별인 경우 47.5%, 이혼·별거·미혼모의 경우 25.4%로 각각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는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가구 소득이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160% 이상 계층에서 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55.5%로 가장 높고, 월평균소득의 60% 미만 계층에서는 38.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보면, 농촌거주 기혼여성에게서 결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로는 농촌에서 인프라 등 자녀 양육 환경 등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30대~40대초 기혼여성에게서 결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로는 미취학 자녀의 돌봄의 어려움, 일-가정양립 곤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저학력층과 저소득층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혼·별거·미혼모의 경우에는 결혼생활이 불안정한 영향으로 인하여 결혼에 대한 필요성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욕구와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곤란 등이 서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표 4-1〉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	계	(명)
기혼여성 전체	11.5	37.7	44.4	6.0	0.4	100.0	(11,009)
거주지($\chi^2=34.8^{***}$)							
대도시	10.3	39.3	44.1	5.8	0.5	100.0	(4,798)
중소도시	12.5	37.2	44.3	5.7	0.2	100.0	(4,588)
농촌	12.3	34.3	45.2	7.8	0.4	100.0	(1,622)

〈표 4-1〉 계속

(단위: %, 명)

구 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	계	(명)
연령 ¹⁾ ($\chi^2=74.3^{***}$)							
25세 미만	13.2	39.6	43.4	1.9	1.9	100.0	(53)
25~29세	14.4	43.5	36.8	4.5	0.8	100.0	(487)
30~34세	9.7	38.0	46.9	5.0	0.4	100.0	(1,724)
35~39세	10.0	38.2	45.8	5.5	0.4	100.0	(2,451)
40~44세	10.7	37.1	45.2	6.4	0.6	100.0	(3,048)
45~49세	13.9	36.8	42.3	6.9	0.2	100.0	(3,244)
교육수준($\chi^2=161.6^{***}$)							
중졸이하	14.2	32.8	37.2	15.1	0.6	100.0	(344)
고졸	10.5	35.0	46.2	7.9	0.5	100.0	(4,554)
대졸	11.9	39.6	43.8	4.4	0.4	100.0	(5,673)
대학원졸	15.7	44.8	37.5	2.0	-	100.0	(440)
혼인상태($\chi^2=232.3^{***}$)							
유배우	11.9	38.6	43.7	5.4	0.4	100.0	(10,323)
사별	12.2	35.3	46.0	6.5	-	100.0	(139)
이혼·별거·미혼모	4.6	20.8	55.6	18.5	0.5	100.0	(547)
취업여부($\chi^2=9.1$)							
취업	12.1	37.2	43.9	6.4	0.4	100.0	(6,220)
비취업	10.8	38.3	44.9	5.6	0.4	100.0	(4,789)
가구소득 ³⁾ ($\chi^2=166.3^{***}$)							
60%미만	8.8	30.0	50.2	10.5	0.5	100.0	(1,518)
60~80%미만	10.7	34.5	46.6	7.7	0.5	100.0	(1,714)
80~100%미만	11.6	38.9	44.2	5.0	0.3	100.0	(2,119)
100~120%미만	12.0	39.2	43.5	4.9	0.4	100.0	(1,923)
120~140%미만	11.5	40.6	41.8	5.6	0.5	100.0	(1,033)
140~160%미만	13.1	38.2	43.1	5.3	0.2	100.0	(944)
160%이상	13.2	42.3	40.4	3.8	0.3	100.0	(1,752)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해 질문한 결과, 30세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은 8.5%에 불과한 반면, 3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생

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32.3세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농촌에 비해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기혼여성의 연령에 따라서는 꺾(∩)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치관 내지 실제 본인의 배우자와의 결혼연령이 반영된 결과로도 간주할 수 있다. 특히 30대 미만에서 남성의 이상적인 연령을 낮게 응답한 것은 본인 및 남편이 보다 이른 연령에서 결혼한 사실에 대한 일종의 합리화 효과(rationalization effect)로 간주할 수 있겠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늦추어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혼여성의 대부분이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상당 비율이 35세 이상도 남성의 결혼연령으로서 이상적이라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도시 거주, 최근 코호트(30대), 고학력 등의 특성을 가진 기혼여성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남성의 만혼화에 대한 수용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4-2〉 기혼여성(15~49세)의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계	(명)	평균
기혼여성 전체	1.7	6.8	38.0	32.3	21.2	100.0	(11,007)	32.3
거주지($\chi^2=33.6^{***}$)								
대도시	1.3	6.0	36.9	34.0	21.8	100.0	(4,798)	32.4
중소도시	1.8	7.4	38.5	31.5	20.8	100.0	(4,588)	32.3
농촌	2.5	7.6	40.1	29.6	20.2	100.0	(1,622)	32.2
연령 ¹⁾ ($\chi^2=265.6^{***}$)								
30세 미만	3.1	8.0	35.9	36.1	16.9	100.0	(540)	32.1
30~34세	1.5	5.2	32.5	36.1	24.8	100.0	(1,723)	32.7
35~39세	1.6	5.0	33.0	32.4	27.9	100.0	(2,451)	32.8
40~44세	1.4	7.0	38.9	30.8	21.8	100.0	(3,049)	32.3
45~49세	1.8	8.6	44.3	31.1	14.2	100.0	(3,244)	31.9

〈표 4-2〉 계속

(단위: %, 명, 세)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계	(명)	평균
교육수준($\chi^2=207.6^{***}$)								
중졸이하	7.6	12.5	41.1	24.8	14.0	100.0	(343)	31.4
고졸	2.3	8.0	40.1	30.2	19.4	100.0	(4,554)	32.1
대졸	0.9	5.8	36.6	34.0	22.7	100.0	(5,671)	32.5
대학원졸	1.1	2.5	33.6	38.1	24.7	100.0	(441)	32.8

* p<0.05, ** p<0.01, *** p<0.001

주: 1) 30세 미만에는 15~19세 7명, 20~24세 46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질문한 결과, 30~31세 44.6%, 28~29세 26.4%, 27세 이하 14.4%, 32~34세 10.3%, 35세 이상 4.3% 등으로 3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59.2%)에 육박하였다.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평균 30세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마찬가지로 농촌에 비해 대도시에서, 최근 코호트일수록 그리고 고학력층일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 거주 시 62.4%인 반면, 농촌 거주 시 경우에는 55.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최근의 코호트일수록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다만 20대 기혼여성의 경우 일종의 합리화 효과(rationalization effect)로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늦추어 응답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이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도시 거

주, 최근 코호트(30대), 고학력 등의 특성을 가진 기혼여성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그만큼 최근의 초혼연령 상승은 기혼여성의 태도에 한정해보아도 도시생활 패턴, 고학력화 등과 맞물려 일정 부분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3〉 기혼여성(15~49세)의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14.4	26.4	44.6	10.3	4.3	100.0	(11,007)	30.0
거주지($\chi^2=47.5^{***}$)								
대도시	13.0	24.6	46.6	11.3	4.5	100.0	(4,798)	30.1
중소도시	14.6	28.1	43.5	9.6	4.1	100.0	(4,587)	29.9
농촌	17.8	26.9	41.4	9.7	4.1	100.0	(1,622)	29.8
연령 ¹⁾ ($\chi^2=308.9^{***}$)								
30세 미만	21.6	29.0	38.4	8.1	2.8	100.0	(541)	29.5
30~34세	12.0	21.8	45.0	15.4	5.7	100.0	(1,724)	30.4
35~39세	11.6	23.2	44.7	14.4	6.1	100.0	(2,451)	30.4
40~44세	13.9	26.3	47.4	8.1	4.3	100.0	(3,049)	29.9
45~49세	17.0	30.9	42.6	7.1	2.3	100.0	(3,243)	29.6
교육수준($\chi^2=270.6^{***}$)								
중졸이하	29.9	27.0	34.3	6.1	2.6	100.0	(344)	29.0
고졸	17.9	28.1	42.5	7.6	3.9	100.0	(4,553)	29.7
대졸	11.2	25.2	46.7	12.1	4.7	100.0	(5,672)	30.2
대학원졸	7.3	23.6	45.9	18.9	4.3	100.0	(440)	30.6

* p<0.05, ** p<0.01, *** p<0.001

주: 1) 30세 미만에는 15~19세 7명, 20~24세 46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가족에 대한 태도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동거, 출산, 이혼, 재혼, 자녀양육 등을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였다.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 7.8%, 대체로 찬성 36.1%, 별로 찬성하지 않음

40.2%, 전혀 찬성하지 않음 16.0%로 긍정적인 태도(찬성+매우 찬성)가 43.9%, 부정적인 태도가 56.2%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긍정적인 태도는 응답여성이 저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여성의 학력수준별 긍정적인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과 대학원졸인 경우 중졸 이하와 대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여성의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긍정적인 태도는 34.1%로 가장 낮았으며,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에는 54.3%로 절반 이상으로 높았고, 유배우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43.4%로 전체 평균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4〉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7.8	36.1	40.2	16.0	100.0	(11,009)
거주지($\chi^2=19.7^{**}$)						
대도시	7.4	34.4	41.2	17.0	100.0	(4,799)
중소도시	8.0	36.7	40.1	15.2	100.0	(4,588)
농촌	8.4	39.1	37.4	15.1	100.0	(1,621)
연령 ¹⁾ ($\chi^2=402.8^{***}$)						
25세 미만	11.1	59.3	22.2	7.4	100.0	(54)
25~29세	11.7	46.4	31.4	10.5	100.0	(487)
30~34세	10.8	44.5	34.1	10.6	100.0	(1,725)
35~39세	9.1	40.8	39.0	11.1	100.0	(2,452)
40~44세	6.9	33.9	41.5	17.7	100.0	(3,049)
45~49세	5.3	28.1	44.7	21.9	100.0	(3,244)
교육수준($\chi^2=17.6^{\text{b}}$)						
중졸이하	6.7	37.0	36.7	19.5	100.0	(343)
고졸	8.5	37.0	39.0	15.5	100.0	(4,554)
대졸	7.4	35.0	41.5	16.1	100.0	(5,672)
대학원졸	6.8	38.4	38.0	16.8	100.0	(440)
혼인상태($\chi^2=38.9^{***}$)						
유배우	7.7	35.7	40.5	16.1	100.0	(10,323)
사별	5.8	28.3	39.1	26.8	100.0	(138)
이혼·별거·미혼모	9.9	44.4	33.8	11.9	100.0	(547)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응답여성의 27.1%(전적 찬성 3.9%, 대체로 찬성 23.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응답여성이 최근 코호트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은 25세 미만인 경우 52.0%, 25~29세 36.9% 등으로 높았던 반면, 45~49세인 경우에는 21.1%로 낮았다. 응답여성의 혼인상태별로 긍정적인 태도는 이혼·별거·미혼모 34.8%, 유배우 26.8%, 사별 23.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응답여성의 거주지와 교육수준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코호트 효과와 현재 본인이 처해 있는 혼인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거주지나 교육수준 등의 배경적인 요인들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함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4-5〉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3.9	23.2	44.8	28.0	100.0	(11,009)
거주지($\chi^2=7.5$)						
대도시	3.9	22.8	44.6	28.7	100.0	(4,797)
중소도시	3.8	23.2	45.9	27.0	100.0	(4,589)
농촌	4.2	24.6	42.7	28.5	100.0	(1,622)
연령 ¹⁾ ($\chi^2=230.2^{***}$)						
25세 미만	5.8	46.2	30.8	17.3	100.0	(52)
25~29세	4.7	32.2	41.3	21.8	100.0	(487)
30~34세	5.9	28.3	44.9	20.9	100.0	(1,725)
35~39세	4.2	25.9	46.0	23.9	100.0	(2,451)
40~44세	3.5	21.7	44.8	29.9	100.0	(3,049)
45~49세	2.8	18.3	44.7	34.2	100.0	(3,243)

〈표 4-5〉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교육수준($\chi^2=11.0$)						
중졸이하	4.4	24.8	45.2	25.7	100.0	(343)
고졸	3.8	24.1	45.2	26.9	100.0	(4,553)
대졸	4.0	22.6	44.3	29.1	100.0	(5,672)
대학원졸	4.3	21.6	47.4	26.7	100.0	(439)
혼인상태($\chi^2=45.9^{***}$)						
유배우	3.8	23.0	44.9	28.2	100.0	(10,324)
사별	7.2	15.9	34.8	42.0	100.0	(138)
이혼·별거·미혼모	5.5	29.3	45.5	19.7	100.0	(547)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작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응답여성의 46.2%(전적 찬성 6.0%, 대체로 찬성 40.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응답여성이 최근 코호트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고학력일수록,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 등에 동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여성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태도 비율은 25세 미만인 경우 61.5%로 45~49세인 경우 40.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응답여성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47.0%로 중소도시나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응답여성의 교육수준별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은 중졸 이하인 경우 36.2%인데 비해 대학원졸인 경우에는 52.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여성의 혼인상태별로 긍정적인 태도는 이혼·별거·미혼모 54.9%, 유배우 45.9%, 사별 34.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코호트 효과와 더불어 현재 본인이 처해 있는 혼인상

태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지나 교육수준 등 배경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4-6〉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6.0	40.2	39.3	14.5	100.0	(11,009)
거주지($\chi^2=19.2^{**}$)						
대도시	6.1	40.9	38.4	14.6	100.0	(4,799)
중소도시	5.7	39.4	41.3	13.6	100.0	(4,589)
농촌	6.5	40.3	36.6	16.7	100.0	(1,622)
연령 ¹⁾ ($\chi^2=130.6^{***}$)						
25세 미만	3.8	57.7	23.1	15.4	100.0	(52)
25~29세	6.4	45.7	37.3	10.7	100.0	(488)
30~34세	7.8	44.5	37.0	10.7	100.0	(1,724)
35~39세	5.7	43.8	38.6	11.9	100.0	(2,451)
40~44세	6.1	38.4	39.9	15.6	100.0	(3,048)
45~49세	5.1	35.7	41.2	18.0	100.0	(3,244)
교육수준($\chi^2=32.1^{***}$)						
중졸이하	3.5	32.7	45.5	18.4	100.0	(343)
고졸	6.0	38.7	40.5	14.8	100.0	(4,554)
대졸	6.0	41.5	38.4	14.0	100.0	(5,672)
대학원졸	7.9	44.2	34.5	13.4	100.0	(441)
혼인상태($\chi^2=43.2^{***}$)						
유배우	5.9	40.0	39.5	14.6	100.0	(10,324)
사별	9.4	25.2	41.0	24.5	100.0	(139)
이혼·별거·미혼모	7.3	47.6	36.3	8.8	100.0	(546)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응답여성의 18.0%(전적 찬성 2.0%, 대체로 찬성 16.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아주 우세하였다. 응답여성이 최근 코호트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태도의 비율은 응답여성이 25세 미만인 경우 34.0%인 반면, 45~49세인 경우에는 14.6%로 매우 낮았다. 응답여성의 거주지와 교육

수준 및 혼인상태와 동 견해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코호트 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거주지나 교육수준 등 배경적 요인과 혼인상태의 실제 생활상황 등에 의한 영향은 미세한 것으로 간주해볼 수 있다.

〈표 4-7〉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2.0	16.0	43.2	38.7	100.0	(11,008)
거주지($\chi^2=11.9$)						
대도시	2.0	14.8	43.3	39.9	100.0	(4,797)
중소도시	1.9	16.9	43.5	37.7	100.0	(4,589)
농촌	2.4	16.9	42.4	38.3	100.0	(1,622)
연령($\chi^2=132.2^{***}$)						
25세 미만 ¹⁾	1.9	32.1	43.4	22.6	100.0	(53)
25~29세	2.5	20.5	44.1	32.9	100.0	(487)
30~34세	3.4	18.9	45.1	32.7	100.0	(1,724)
35~39세	1.8	16.6	46.5	35.1	100.0	(2,452)
40~44세	2.1	15.8	41.2	40.9	100.0	(3,049)
45~49세	1.4	13.2	41.6	43.8	100.0	(3,244)
교육수준($\chi^2=13.2$)						
중졸이하	0.9	20.7	39.7	38.8	100.0	(343)
고졸	1.8	15.7	44.0	38.4	100.0	(4,554)
대졸	2.2	16.0	42.7	39.1	100.0	(5,671)
대학원졸	2.5	15.7	45.2	36.6	100.0	(440)
혼인상태($\chi^2=10.4$)						
유배우	2.0	15.8	43.3	38.8	100.0	(10,323)
사별	0.7	13.0	42.0	44.2	100.0	(138)
이혼·별거·미혼모	2.6	19.8	42.1	35.5	100.0	(546)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해 응답여성의 65.6%(전적 찬성 12.3%, 대체로 찬성 53.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응답여성의 혼인상태별로 긍정적인 태도는 이혼·별거·미혼모 88.5%, 사별 74.1%, 유배우 64.2%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응답여성의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등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하며, 다만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본인의 상황과 맞물려 합리화 효과가 작용하여 태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4-8〉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 (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12.3	53.3	28.7	5.7	100.0	(11,009)
거주지($\chi^2=11.3$)						
대도시	12.8	53.8	27.8	5.7	100.0	(4,797)
중소도시	12.0	52.8	29.8	5.3	100.0	(4,589)
농촌	11.8	53.1	28.1	7.0	100.0	(1,622)
연령($\chi^2=17.5$)						
25세 미만 ¹⁾	9.4	52.8	28.3	9.4	100.0	(53)
25~29세	10.5	54.1	28.6	6.8	100.0	(486)
30~34세	12.1	54.6	28.2	5.0	100.0	(1,725)
35~39세	11.9	53.2	29.6	5.3	100.0	(2,451)
40~44세	11.8	52.6	29.0	6.5	100.0	(3,049)
45~49세	13.5	53.2	27.9	5.4	100.0	(3,243)
교육수준($\chi^2=11.8$)						
중졸이하	13.2	51.2	29.8	5.8	100.0	(342)
고졸	13.1	52.9	28.3	5.7	100.0	(4,554)
대졸	11.5	53.6	29.2	5.7	100.0	(5,672)
대학원졸	14.5	54.8	24.8	5.9	100.0	(440)
혼인상태($\chi^2=208.8^{***}$)						
유배우	11.4	52.8	29.8	6.0	100.0	(10,324)
사별	23.0	51.1	21.6	4.3	100.0	(139)
이혼·별거·미혼모	26.6	61.9	10.1	1.5	100.0	(546)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응답여성의 60.9%(전적 찬성 8.3%, 대체로 찬성 52.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응답여성이 과거 코호트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여성이 25세 미만인 경우 51.9%인 반면, 45~49세인 경우에는 6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서 분석한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과거 코호트일수록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에 비추어 보아, 실제 결혼생활을 길게 경험한 코호트일수록 불가피한 경우에 관계없이 이혼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태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대도시보다는 농촌 거주 여성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불가피한 이혼에 대해서는 대도시 거주 기혼여성 사이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강하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면 이혼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농촌 거주 기혼여성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거주지 간 차이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은 교육수준 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저학력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농촌 거주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저학력층의 기혼여성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자녀문제와 결부하여 결혼생활을 지속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응답여성의 혼인상태별로 긍정적인 태도는 이혼·별거·미혼모 87.8%, 사별 65.9%, 유배우 59.4%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본인의 실제생활과 결부하여 합리화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는 보편화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는 거주지, 교육수준 등 배경적 요인과 실제 결혼생활 상황 등에 의해 뚜렷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표 4-9〉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8.3	52.6	31.7	7.5	100.0	(11,009)
거주지($\chi^2=17.8^{**}$)						
대도시	8.8	51.2	31.9	8.0	100.0	(4,799)
중소도시	7.5	53.9	32.0	6.7	100.0	(4,588)
농촌	9.3	52.8	30.0	7.9	100.0	(1,624)
연령 ¹⁾ ($\chi^2=29.9$)						
25세 미만	7.7	44.2	32.7	15.4	100.0	(52)
25~29세	7.0	48.8	35.5	8.8	100.0	(488)
30~34세	9.0	50.5	32.9	7.5	100.0	(1,724)
35~39세	7.5	53.2	32.3	7.0	100.0	(2,451)
40~44세	7.8	52.4	31.8	8.0	100.0	(3,048)
45~49세	9.2	54.2	29.8	6.8	100.0	(3,244)
교육수준($\chi^2=28.1^{**}$)						
중졸이하	7.9	52.5	32.4	7.3	100.0	(343)
고졸	9.0	54.6	29.1	7.4	100.0	(4,554)
대졸	7.9	51.2	33.4	7.5	100.0	(5,672)
대학원졸	7.0	49.5	35.2	8.2	100.0	(440)
혼인상태($\chi^2=274.6^{***}$)						
유배우	7.5	51.9	32.7	7.8	100.0	(10,323)
사별	12.3	53.6	29.0	5.1	100.0	(138)
이혼·별거·미혼모	22.7	65.1	11.7	0.5	100.0	(547)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해 응답여성의 64.7%(전적 찬성 11.4%, 대체로 찬성 53.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보다 상대적으로 우

세하였다. 기혼여성의 일반 특성별 태도를 살펴보면, 농촌보다는 대도시
에 거주하는 경우, 최근 코호트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별이나
이혼 등에 있는 경우에 비해 유배우인 경우에 긍정적인 태도의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재혼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는 향후에도 더 높아질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겠다. 다만, 조사 당
시 실제 사별이나 이혼(별거 포함) 중에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재혼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관에 비해 현실
적으로 재혼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여건 등은 상대적으로 어
려운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표 4-10〉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11.4	53.3	28.6	6.7	100.0	(11,007)
거주지($\chi^2=14.2^*$)						
대도시	11.7	53.8	27.7	6.8	100.0	(4,796)
중소도시	10.4	53.7	29.3	6.6	100.0	(4,588)
농촌	13.1	50.5	29.4	7.0	100.0	(1,622)
연령($\chi^2=121.4^{***}$)						
25세 미만 ¹⁾	11.3	56.6	24.5	7.5	100.0	(53)
25~29세	14.5	60.7	21.1	3.7	100.0	(489)
30~34세	12.2	59.4	23.7	4.8	100.0	(1,725)
35~39세	11.1	55.2	28.3	5.4	100.0	(2,451)
40~44세	10.2	52.2	30.2	7.4	100.0	(3,047)
45~49세	11.8	48.4	31.1	8.7	100.0	(3,243)
교육수준($\chi^2=120.5^{***}$)						
중졸이하	9.3	46.6	32.4	11.7	100.0	(343)
고졸	10.6	49.7	31.1	8.6	100.0	(4,555)
대졸	12.0	55.9	26.9	5.2	100.0	(5,670)
대학원졸	13.9	60.9	21.8	3.4	100.0	(440)
혼인상태($\chi^2=40.0^{***}$)						
유배우	11.4	54.0	28.1	6.6	100.0	(10,322)
사별	12.9	37.4	36.7	12.9	100.0	(139)
이혼·별거·미혼모	11.7	44.3	35.6	8.4	100.0	(548)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응답여성의 66.6%(전적 찬성 10.3%, 대체로 찬성 56.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기혼여성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과거 코호트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인 경우에 비해 사별이나 이혼 중인 경우에 긍정적인 태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연령층이거나 혼인상태가 이혼(별거 포함) 혹은 사별인 경우에 실제 자녀 양육의 경험(특히 이혼과 사별 중인 경우 홀로 양육)이 많아 동 견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은 경제력이나 독립적인 생활력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학력층에서 동 견해에 대한 찬성 비율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적인 배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4-11〉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10.3	56.3	29.7	3.7	100.0	(11,009)
거주지($\chi^2=9.6$)						
대도시	10.5	55.5	29.9	4.1	100.0	(4,799)
중소도시	9.8	57.3	29.7	3.2	100.0	(4,588)
농촌	11.3	55.8	29.4	3.5	100.0	(1,623)
연령($\chi^2=34.6^{**}$)						
25세 미만 ¹⁾	11.5	50.0	30.8	7.7	100.0	(52)
25~29세	9.4	50.5	35.9	4.1	100.0	(487)
30~34세	10.0	53.7	32.2	4.2	100.0	(1,724)
35~39세	9.3	56.5	30.3	3.9	100.0	(2,451)
40~44세	10.8	58.3	27.9	3.0	100.0	(3,048)
45~49세	11.0	56.6	28.8	3.7	100.0	(3,244)

〈표 4-11〉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교육수준($\chi^2=18.8^*$)						
중졸이하	10.5	50.7	34.7	4.1	100.0	(343)
고졸	11.4	55.8	29.1	3.8	100.0	(4,554)
대졸	9.6	56.8	30.1	3.5	100.0	(5,672)
대학원졸	8.6	59.1	27.5	4.8	100.0	(440)
혼인상태($\chi^2=121.6^{***}$)						
유배우	9.7	56.0	30.6	3.7	100.0	(10,323)
사별	20.9	57.6	13.7	7.9	100.0	(139)
이혼·별거·미혼모	19.6	61.2	17.8	1.5	100.0	(546)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53.1%(전적 찬성 9.9%, 대체로 찬성 43.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기혼여성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졸 이하나 고졸 등의 경우 동 견해에 찬성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졸 이상의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중인 경우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5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배우 상태인 경우 53.4%,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 45.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별인 경우에는 매우 찬성 비율이 18.7%에 이르렀다. 한편, 기혼여성의 연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호트 효과보다 다른 배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4-12〉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9.9	43.2	36.8	10.2	100.0	(11,006)
거주지($\chi^2=20.0^{**}$)						
대도시	10.0	43.0	35.5	11.4	100.0	(4,798)
중소도시	9.4	43.5	38.0	9.1	100.0	(4,586)
농촌	10.6	42.8	37.3	9.3	100.0	(1,621)
연령($\chi^2=23.3$)						
25세 미만 ¹⁾	5.6	40.7	42.6	11.1	100.0	(54)
25~29세	9.8	41.4	39.3	9.4	100.0	(488)
30~34세	9.6	43.6	36.2	10.6	100.0	(1,722)
35~39세	8.2	43.1	38.7	10.0	100.0	(2,450)
40~44세	10.1	44.3	36.1	9.4	100.0	(3,049)
45~49세	11.0	42.3	35.9	10.8	100.0	(3,243)
교육수준($\chi^2=87.4^{***}$)						
중졸이하	6.4	34.1	44.3	15.2	100.0	(343)
고졸	9.2	40.3	39.3	11.2	100.0	(4,553)
대졸	10.5	45.2	34.9	9.3	100.0	(5,671)
대학원졸	10.5	53.5	28.9	7.1	100.0	(439)
혼인상태($\chi^2=42.2^{***}$)						
유배우	9.7	43.7	36.6	10.0	100.0	(10,320)
사별	18.7	37.4	25.2	18.7	100.0	(139)
이혼·별거·미혼모	9.9	35.6	42.8	11.7	100.0	(547)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양한 가족 가치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견해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적으로 찬성에 4 점, 대체로 찬성에 3점, 별로 찬성하지 않음에 2점,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 1점씩 각각 부과한 후 가중평균점수를 산정하였다. 태도 점수는 중간값이 2.5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큰 경우에는 찬성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그보다 낮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이혼이나 재혼,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경향이 다소나마 우세하게 나타났다(2.62~2.73점/4점). 반면, 결혼과 관

계없는 동거나 자녀에 대한 태도는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81~2.03점/4점). 입양에 대한 태도는 찬반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2.53점/4점).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다양한 가족이라도 그 가족이 혼인이나 혈연을 기초로 형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높으나, 그 외 입양, 동거, 혼외출산 등 혼인이나 혈연을 기초로 하지 않는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다소 우세하였다. 즉,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은 혼인과 혈연을 조건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4-13〉 가족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점)

견해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가중평균 점수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7.8	36.1	40.2	16.0	100.0(11,009)	2.36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	3.9	23.2	44.8	28.0	100.0(11,009)	2.03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6.0	40.2	39.3	14.5	100.0(11,009)	2.38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2.0	16.0	43.2	38.7	100.0(11,009)	1.81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12.3	53.3	28.7	5.7	100.0(11,009)	2.72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8.3	52.6	31.7	7.5	100.0(11,009)	2.62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11.4	53.3	28.6	6.7	100.0(11,007)	2.69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10.3	56.3	29.7	3.7	100.0(11,009)	2.7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9.9	43.2	36.8	10.2	100.0(11,006)	2.53

제2절 결혼 실태

1. 기혼여성의 초혼연령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은 27~29세가 25.2%, 25~26세 24.4%, 23~24세 18.4%, 30~34세 14.7%, 21~22세 9.1%, 20세 이하 4.9%, 35세 이상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태 개념이 아닌 정태 개념으로 가임기 기혼여성의 초혼연령은 20대 이하가 82%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이들 기혼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6.8세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통계청의 혼인통계에 의하면 매년 결혼을 하는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최근 약 30세로 가임기 기혼여성 전체의 초혼연령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기혼여성의 초혼코호트별(이하에서는 초혼 연도를 기준으로 한 코호트임)로 살펴보면, 초혼코호트가 최근일수록 초혼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대 초반에 초혼한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는 반면, 30대 이상에서 초혼한 비율은 최근 초혼코호트에서 높게 나타났다. 30~34세에 초혼한 비율은 1995~1999년 초혼코호트에서 4.0%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이후 초혼코호트에서는 35.2%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초혼연령은 1995년 이전 코호트의 경우 23.5세, 1995~1999년 초혼코호트 25.8세, 2000~2004년 초혼코호트 27.3세, 2005~2009년 초혼코호트 28.5세, 2010년 이후 초혼코호트 29.9세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젊은 연령층일수록 30대 이상에서 결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현 연령이 35~39세인 경우 30대 이상에서 결혼한 비율이 26.8%, 40~44세인 경우 18.6%, 45~49세인 경우 11.6%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30~34세 이하의 연령층들은 대체적으로 아직 결혼을 종료하지 않는 이른바 센서링 효과(censoring effect)로 30대 이상에서의

초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초혼연령은 35~39세 이상에서는 고연령층일수록 낮게 나타난 반면, 저연령층에서는 아주 낮게 나타났다.

가임기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30대 이상에서의 초혼 비율이 급격하게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30대 이상에서의 초혼한 비율은 중졸 이하 13.7%로 낮은 반면, 대졸의 경우 21.8%, 대학원졸의 경우 3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평균 초혼연령은 중졸 이하 23.9세, 고졸 25.7세, 대졸 27.7세, 대학원졸 28.9세로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4-14〉 기혼여성(15~49세)¹⁾의 초혼 연령

(단위: %, 명, 세)

구 분	20세 이하	21~22세	23~24세	25~26세	27~29세	30~34세	35세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4.9	9.1	18.4	24.4	25.2	14.7	3.4	100.0	(10,987)	26.8
초혼코호트($\chi^2=4511.5^{***}$)										
~1994년	15.0	21.8	34.9	22.7	5.5	-	-	100.0	(2,447)	23.5
1995~1999년	2.7	9.2	23.8	35.1	25.2	4.0	-	100.0	(2,461)	25.8
2000~2004년	1.9	5.6	14.7	27.9	31.0	16.9	2.1	100.0	(2,080)	27.3
2005~2009년	1.7	3.7	8.5	21.6	35.5	23.2	5.9	100.0	(2,045)	28.5
2010~2015년	1.7	2.4	5.2	12.2	32.8	35.2	10.5	100.0	(1,954)	29.9
연령 ²⁾ ($\chi^2=1098.8^{***}$)										
30세 미만	11.6	13.5	20.9	29.2	24.9	-	-	100.0	(535)	24.7
30~34세	2.5	5.3	10.4	21.6	38.1	22.1	-	100.0	(1,720)	27.5
35~39세	2.6	6.6	12.8	21.9	29.3	22.9	3.9	100.0	(2,448)	27.8
40~44세	5.2	8.3	20.0	26.5	21.4	13.7	4.9	100.0	(3,045)	26.8
45~49세	6.7	13.0	25.0	25.0	18.7	7.8	3.8	100.0	(3,239)	25.9
교육수준($\chi^2=1628.9^{***}$)										
중졸이하	27.1	22.9	14.9	14.9	6.5	8.0	5.7	100.0	(336)	23.9
고졸	8.5	14.5	23.8	23.2	18.0	9.2	2.8	100.0	(4,544)	25.7
대졸	1.1	4.5	15.1	26.2	31.2	18.3	3.5	100.0	(5,668)	27.7
대학원졸	0.5	1.8	8.4	20.9	34.5	28.4	5.5	100.0	(440)	28.9

* p<0.05, ** p<0.01, *** p<0.001

주: 1) 미혼모인 경우 조사하지 않았음.

2) 30세 미만에는 15~19세 7명, 20~24세 43명이 포함되어 있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의 초혼(함께 삶, 혼인신고, 결혼식) 시점

유배우여성(15~49세)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99.0%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98.3%가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와 결혼식 비율은 최근에 초혼한 코호트일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혼인신고 비율은 1995년 이전 초혼코호트의 경우 100.0%이나, 2010~2015년 초혼코호트의 경우에 95.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혼식 비율도 과거 초혼코호트의 경우 99% 이상이었으나, 2010년 이후 초혼코호트의 경우에는 95.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일수록 아직은 아주 낮은 수준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경향(일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부부인 경우도 있지만)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5〉 유배우여성(15~49세)¹⁾의 현재 남편과의 혼인신고 및 결혼식 여부

(단위: %, 명)

구 분	혼인신고 여부		결혼식 여부	
	신고 함(%)	전체(명)	식 올림(%)	전체(명)
전체	99.0	(10,085)	98.3	(10,085)
초혼코호트	$(x^2=279.6^{***})$		$(x^2=178.4^{***})$	
~1994년	100.0	(1,999)	99.5	(1,999)
1995~1999년	99.9	(2,197)	99.6	(2,198)
2000~2004년	99.8	(1,957)	99.3	(1,958)
2005~2009년	99.6	(1,993)	97.9	(1,993)
2010~2015년	95.7	(1,938)	95.1	(1,938)

* p<0.05, ** p<0.01, *** p<0.001

주: 1) 유배우여성 중 현재 배우자와 초혼인 경우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배우여성(15~49세)의 현 남편과의 함께 삶(같은 집에서 삶을 의미), 결혼식 및 혼인신고 간의 순서(초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혼여성의 75.1%가 ‘결혼식→함께 삶→혼인신고’ 순으로 진행했으며, ‘함께 삶→

결혼식→혼인신고'의 순이 7.2%, '함께 삶→혼인신고→결혼식'의 순이 6.0%, '혼인신고→결혼식→함께 삶'의 순이 4.0%, '결혼식→혼인신고→함께 삶'의 순이 3.8% 등으로 나타났다.

초혼코호트 간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식→함께 삶→혼인신고' 순의 비율은 1995년 이전 초혼코호트의 경우 80.1%, 1995~1999년 초혼코호트 81.3%로 나타나나, 2000~2004년 초혼코호트 78.3%, 2005~2009년 초혼코호트 73.5%, 2010~2015년 초혼코호트 61.2% 등으로 최근에 초혼한 코호트일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함께 삶→결혼식→혼인신고'의 순의 비율은 반대로 최근에 초혼한 코호트에서 높게 나타났다. 동 비율은 1995년 이전 초혼코호트의 경우 6.2%이나, 2005~2009년 초혼코호트 8.0%, 2010~2015년 초혼코호트에서는 9.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신고→결혼식→함께 삶' 순은 1995년 이전 초혼코호트의 경우 2.5%이나, 2010~2015년 초혼코호트에서는 7.7%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 혼인인고를 하는 순서를 거치는 것이 결혼관련 관행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로서 그러한 관행은 여전히 우세하나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며, 반대로 먼저 함께 살고 나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는 경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분석했듯이,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서 살고 있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결혼형태는 빠르게 다양화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6〉 유배우여성(15~49세)¹⁾의 현 배우자와 함께 삶, 결혼식 및 혼인신고 간 순서
(단위: %, 명)

구 분	전체	초혼코호트 ²⁾ ($\chi^2=634.9^{***}$)				
		~1994년	1995~ 1999년	2000~ 2004년	2005~ 2009년	2010~ 2015년
함께 삶 → 결혼식 → 혼인신고	7.2	6.2	6.1	6.9	8.0	9.2
함께 삶 → 혼인신고 → 결혼식	6.0	6.3	5.6	5.9	5.2	7.2
결혼식 → 함께 삶 → 혼인신고	75.1	80.1	81.3	78.3	73.5	61.2
결혼식 → 혼인신고 → 함께 삶	3.8	3.7	3.0	3.9	4.6	3.7
혼인신고 → 함께 삶 → 결혼식	1.6	0.8	0.9	1.1	2.0	3.4
혼인신고 → 결혼식 → 함께 삶	4.0	2.5	2.6	3.0	4.6	7.7
함께 삶 → 결혼식 (혼인신고 안함)	0.1	-	-	-	0.1	0.6
결혼식 → 함께 삶(혼인신고 안함)	0.4	-	0.1	0.1	-	2.1
함께 삶 → 혼인신고 (결혼식 안함)	1.2	0.5	0.4	0.6	1.7	2.8
혼인신고 → 함께 삶(결혼식 안함)	0.1	-	-	-	0.1	0.4
함께 삶 (결혼식, 혼인신고 안함)	0.4	-	0.1	0.1	0.4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085)	(2,443)	(2,462)	(2,080)	(2,044)	(1,954)

주: 1) 현재 배우자와 초혼인 경우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3절 결혼비용

1. 결혼비용 부담

기혼여성(15~49세)의 36.2%(매우 부담 3.2%)가 결혼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초혼한 코호트 일수록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비용이 부담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5년 이전에 초혼한 코호트에서 29.3%로 나타난 반면, 2010~2015년 초혼코호트에서는 47.2%로 나타났다.

〈표 4-17〉 기혼여성(15~49세)¹⁾의 본인 지출 결혼비용(초혼 시)에 부담을 느낀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부담되었음	부담되는 편이었음	부담되지 않았음	전혀 부담되지 않았음	계	(명)
전체	3.2	33.0	58.2	5.6	100.0	(10,988)
초혼코호트($\chi^2=223.3^{***}$)						
~1994년	2.7	26.6	64.9	5.8	100.0	(2,447)
1995~1999년	1.8	28.5	63.8	5.8	100.0	(2,462)
2000~2004년	3.1	33.8	57.8	5.2	100.0	(2,080)
2005~2009년	3.8	36.7	53.2	6.2	100.0	(2,044)
2010~2015년	5.1	42.1	48.2	4.6	100.0	(1,953)

* p<0.05, ** p<0.01, *** p<0.001

주: 1) 미혼모인 경우 조사하지 않았으며, 두 번 이상 결혼한 경우에는 초혼을 기준으로 질문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비용 지출액에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한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부담을 느낀 항목을 최대 두 개까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부담을 느꼈던 항목으로 신혼살림(57.7%), 예물·예단(51.9%), 주택마련(26.0%), 결혼식(18.5%), 신혼여행(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전 초혼코호트를 제외한 나머지 초혼코호트에서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신혼살림, 예물·예단, 주택마련, 결혼식, 신혼여행 순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전 초혼코호트의 경우에는 예물·예단, 신혼살림, 주택마련 등의 순으로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신혼살림 마련에 부담을 느꼈다는 비율은 코호트에 관계 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물·예단 마련에 부담을 느꼈다는 비율은 최근 초혼코호트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결혼식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최근 초혼코호트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주택마련에 부담을 느꼈다는 비율도 대체적으로 최근 초혼코호트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으로 올수록 주택 가격과 임차료 상승 추세, 예식장 이용 관련 비용 상승과 일부 호화 경향 등에 따른 결혼식 비용 상승, 신혼여행지로 해외를 선호하는 경향 등에 기인한 신혼여행 비용 상승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4-18〉 기혼여성(15~49세)의 본인 지출 결혼비용(초혼 시)에 부담을 느낀 항목(중복 응답)

(단위: %, 명)

구 분	예물/예단	결혼식	신혼살림	신혼여행	주택마련	기타	(대상자수)
전체	51.9	18.5	57.7	2.7	26.0	0.2	(4,003)
초혼코호트							
~1994년	60.5	15.0	57.1	2.4	20.7	0.1	(721)
1995~1999년	55.7	16.4	58.8	1.3	24.3	-	(751)
2000~2004년	52.1	19.9	57.2	3.0	24.2	0.2	(771)
2005~2009년	49.3	20.1	57.4	2.1	30.5	0.5	(834)
2010~2015년	44.2	20.2	57.9	4.6	28.9	0.2	(927)

주: 1) 미혼모인 경우 조사하지 않았으며, 두 번 이상 결혼한 경우에는 초혼을 기준으로 질문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신혼집 마련

가. 신혼집 마련 방법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신혼집 마련 방법을 질문한 결과, 전세가 51.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가(18.8%), 보증부월세(12.5%), 시댁 또는 친정과 동거(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혼여성의 초혼코호트별 차이를 살펴보면, 최근에 초혼한 코호트일수록 자가, 보증부월세, 관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과거에 초혼한 코호트일수록 전세, 월세, 사글세, 시댁·친정 동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일수록 결혼을 연기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주택 구매력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점과 임대 시장의 경향이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9〉 기혼여성(15~49세)의 신혼집 마련방법

(단위: %, 명)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시댁/친정 동거	관사	기타	계	(명)
전체	18.8	51.4	12.5	1.7	1.3	11.2	2.4	0.7	100.0	(10,988)
초혼코호트($\chi^2=573.3^{***}$)										
~1994년	10.6	53.6	13.9	3.4	2.9	13.4	1.7	0.4	100.0	(2,446)
1995~1999년	15.1	60.0	8.0	1.3	1.1	11.7	2.4	0.6	100.0	(2,462)
2000~2004년	20.5	51.8	10.4	1.4	0.9	12.2	2.5	0.4	100.0	(2,081)
2005~2009년	23.7	47.8	13.6	1.2	0.7	10.0	2.2	0.8	100.0	(2,045)
2010~2015년	26.9	41.3	17.5	0.8	0.5	8.1	3.3	1.5	100.0	(1,953)

* p<0.05, ** p<0.01, *** p<0.001

주: 1) 미혼모인 경우 조사하지 않았으며, 두 번 이상 결혼한 경우에는 초혼을 기준으로 질문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신혼집 마련 부담자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신혼집 마련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질문(중복응답 허용)한 결과, 남편(84.8%), 시댁(32.8%), 본인(26.3%), 친정(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초혼코호트별로 주택마련 부담자를 보면, 전체적인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담자를 남편으로 응답한 비율은 초혼코호트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부담자를 본인, 시댁, 친정으로 응답한 비율은 최근에 초혼한 코호트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최근에 초혼을 하는 경우 직장생활 등으로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만큼 경제력이 축적되어 결혼 시 주택 마련에 적어도 일부라도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 주택 가격이나 전·월세액의 증가와 더불어 신혼집 마련 비용이 증가하면서 부모(주로 시댁이나 친정도 마찬가지로)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0〉 기혼여성(15~49세)의 신혼집 마련비용 부담자(중복 응답)

(단위: %, 명)

구 분	본인	남편	시댁	친정	기타	(대상자수)
전체	26.3	84.8	32.8	4.0	0.1	(9,415)
초혼코호트						
~1994년	21.4	85.2	25.2	2.9	0.2	(2,067)
1995~1999년	24.5	83.6	31.0	3.3	0.1	(2,102)
2000~2004년	26.2	84.2	35.0	4.4	0.1	(1,767)
2005~2009년	29.7	85.2	36.1	4.7	0.0	(1,780)
2010~2015년	30.8	86.0	38.2	5.1	-	(1,701)

주: 1) 미혼모인 경우 조사하지 않았으며, 두 번 이상 결혼한 경우에는 초혼을 기준으로 질문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신혼집 마련 비용

가임기 기혼여성(15~49세) 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으로 자가 구입비는 평균 1억1,868만원, 전세 보증금은 평균 4,978만원, 보증부월세 중 보증금은 평균 1,32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가 구입비는 1995년 이전 초혼코호트의 경우 7,364만원인 반면, 2010~2015년 초혼코호트의 경우 1억5,645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도 1995년 이전 초혼코호트가 평균 2,339만원을 부담한 반면, 최근 2010~2015년 초혼코호트는 약 1억원(9,950만원)으로 4배 정도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부월세 중 보증금 역시 최근에 초혼한 코호트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가 구입비, 전세보증금 및 보증부월세 보증금 모두 최근 초혼코호트일수록 금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물가상승도 있지만 주로 주택 구입비와 전세비용이 빠르게 증가한 추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21〉 기혼여성(15~49세)의 신혼집 마련 평균 비용(구입, 보증금)

(단위: 만원, 명)

구 분	자가 구입비		전세 보증금		보증부월세 보증금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전체	11,868	(2,065)	4,978	(5,643)	1,321	(1,369)
초혼코호트						
~1994년	7,364	(259)	2,339	(1,311)	565	(337)
1995~1999년	8,519	(371)	3,426	(1,474)	908	(196)
2000~2004년	11,164	(426)	4,646	(1,077)	1,641	(216)
2005~2009년	13,360	(485)	7,128	(977)	1,483	(278)
2010~2015년	15,645	(525)	9,950	(805)	1,969	(342)

주: 1) 미혼모인 경우 조사하지 않았으며, 두 번 이상 결혼한 경우에는 초혼을 기준으로 질문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15~49세)의 부부가 신혼 당시 주택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보증부월세 중 월세는 평균 23만원, 월세만인 경우에는 평균 26만원, 사글세는 월평균 21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보증부월세 중 월세는 물론 월세와 사글세의 경우에도 일부 코호트에서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대표성이 약할지라도 대체적으로 최근에 초혼한 코호트일수록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기혼여성(15~49세)의 신혼집 마련 평균 비용(월세, 사글세)

(단위: 만원, 명)

구 분	보증부 월세 중 월세		월세		사글세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전체	23	(1,368)	26	(183)	21	(142)
초혼코호트						
~1994년	15	(336)	16	(84)	21	(72)
1995~1999년	21	(195)	23	(31)	16*	(27)
2000~2004년	25	(216)	30*	(28)	19*	(18)
2005~2009년	27	(279)	51*	(24)	23*	(15)
2010~2015년	30	(342)	39*	(16)	31*	(10)

주: 1) 미혼모인 경우 조사하지 않았으며, 두 번 이상 결혼한 경우에는 초혼을 기준으로 질문함.
 2) *는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신혼집 마련 시 대출

신혼집 마련을 위해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6%가 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최근에 초혼한 코호트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95년 이전 초혼코호트의 경우 대출경험 비율은 8.7%에 불과하나, 2005~2009년 초혼코호트는 25.7%, 2010~2015년 초혼코호트는 37.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으로 올수록 주택 가격이나 전월세 금액이 증가한 영향을 받아 그만큼 대출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신혼집 유형은 전세 48.6%, 자가 구입 47.0%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보증부월세(4.3%), 사글세(0.1%) 등은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초혼코호트별로 보면, 최근에 초혼한 코호트일수록 자가 구입과 보증부월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결혼을 연기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속시킴으로써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신혼집으로 자가를 구입을 하는 경향이 최근일수록 높아졌으나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한편, 최근에 임대 선호도가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에 따라 전세를 위한 대출 비율이 감소하고, 대신 보증부월세를 위한 대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3〉 기혼여성(15~49세)의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 여부 및 용도

(단위: %, 명)

구 분	대출 이용 (%)	전체 (명)	대출 유경험자의 신혼집 유형(대출 용도)					계	(명)
			자가 구입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전체	20.6	(9,415)	47.0	48.6	4.3	-	0.1	100.0	(1,943)
초혼코호트($\chi^2=531.8^{***}$)									
~1994년	8.7	(2,066)	35.9	59.7	3.3	-	1.1	100.0	(181)
1995~1999년	15.9	(2,101)	43.9	53.7	2.4	-	-	100.0	(335)
2000~2004년	18.8	(1,766)	50.0	46.1	3.9	-	-	100.0	(332)
2005~2009년	25.7	(1,780)	48.8	46.6	4.6	-	-	100.0	(459)
2010~2015년	37.4	(1,700)	49.0	45.5	5.5	-	-	100.0	(637)

* p<0.05, ** p<0.01, *** p<0.001

주: 1) 미혼모인 경우 조사하지 않았으며, 두 번 이상 결혼한 경우에는 초혼을 기준으로 질문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작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15~49세)이 신혼집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은 1천만~3천만원 미만(39.1%), 5천만원~1억원 미만(23.2%), 3천만~5천만원 미만(22.6%), 1억원 이상(8.3%), 1천만원 미만(6.7%) 순으로 평균 3,9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대출을 받은 금액은 최근에 초혼한 코호트일수록 많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출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비율은 1995년 이전 초혼코호트에서 28.7%, 1995~1999년 초혼코호트 12.2%, 2000~2004년 초혼코호트 5.5%, 2005~2009년 초혼코호트 1.8%, 2010~2015년 초혼코호트 1.9%로 최근 초혼코호트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반면, 5천만원~1억원 미만을 대출받은 비율은 과거 초혼코호트는 5%미만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 초혼한 코호트에서는 38.9%까지 높게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비율도 1995년 이전 초혼코호트의 경우 0.6%에 불과하나, 2010~2015년 초혼코호트에서는 15.3%까지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평균 대출금액은 1995년 이전 초혼코호트 1,641만원, 1995~1999년 초혼코호트 2,269만원, 2000~2004년 초혼코호트 3,114만원, 2005~2009년 초혼코호트 4,345만원, 2010~2015년 초혼코호트 5,49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택 가격

과 임차료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만큼 신혼집 마련 시 대출에 대한 의존도 (금액과 비율 모두)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4〉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대출금액

(단위: %, 명, 만원)

구 분	1천만원 미만	1천만~3천만원 미만	3천만~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명)	평균 (만원)
전체	6.7	39.1	22.6	23.2	8.3	100.0	(1,933)	3,900
초혼코호트($\chi^2=600.2^{***}$)								
~1994년	28.7	59.7	8.3	2.8	0.6	100.0	(181)	1,641
1995~1999년	12.2	61.9	19.3	4.5	2.1	100.0	(336)	2,269
2000~2004년	5.5	53.2	19.3	15.6	6.4	100.0	(327)	3,114
2005~2009년	1.8	31.3	30.6	28.7	7.7	100.0	(457)	4,345
2010~2015년	1.9	19.4	24.5	38.9	15.3	100.0	(633)	5,494

* p<0.05, ** p<0.01, *** p<0.001

주: 1) 미혼모인 경우 조사하지 않았으며, 두 번 이상 결혼한 경우에는 초혼을 기준으로 질문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기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행태 <<

제1절 자녀에 대한 태도

1. 자녀 필요성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2%이며, 다음으로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나은 것이다(29.0%)', '없어도 무관하다(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학력일수록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반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는 고졸과 대졸의 경우 높은 반면, 중졸이하와 대학원졸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학력일수록 자녀 존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의무처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은 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태도 비율은 사별, 유배우, 이혼·별거·미혼모 순으로 그리고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혼·별거·미혼모, 유배우, 사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였던 어려움 등으로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지역적 배경이나 경제적 상황이 자녀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1〉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자녀 필요성

(단위: %, 명)

구 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	(명)
전체	60.2	29.0	10.6	0.1	100.0	(11,009)
거주지($x^2=7.8$)						
대도시	59.8	29.7	10.3	0.1	100.0	(4,799)
중소도시	60.9	28.6	10.4	0.1	100.0	(4,589)
농촌	59.3	28.3	12.2	0.2	100.0	(1,621)
연령 ¹⁾						
25세 미만	65.4	26.9	7.7	-	100.0	(52)
25~29세	68.6	22.6	8.4	0.4	100.0	(487)
30~34세	58.4	30.3	11.2	0.1	100.0	(1,725)
35~39세	60.3	28.6	10.8	0.3	100.0	(2,451)
40~44세	60.9	28.6	10.3	0.2	100.0	(3,049)
45~49세	59.1	30.1	10.8	-	100.0	(3,244)
교육수준($x^2=22.2^{**}$)						
중졸이하	66.9	23.8	8.7	0.6	100.0	(344)
고졸	60.2	28.4	11.3	0.1	100.0	(4,554)
대졸	59.9	29.5	10.4	0.2	100.0	(5,672)
대학원졸	58.8	32.8	8.2	0.2	100.0	(439)
혼인상태($x^2=100.9^{***}$)						
유배우	61.1	28.5	10.2	0.2	100.0	(10,323)
사별	63.3	31.7	5.0	-	100.0	(139)
이혼·별거·미혼모	42.0	37.8	20.1	-	100.0	(547)
취업여부($x^2=0.3$)						
취업	60.2	29.2	10.5	0.1	100.0	(6,219)
비취업	60.2	28.9	10.8	0.1	100.0	(4,790)
가구소득 ²⁾						
60%미만	56.3	30.2	13.3	0.3	100.0	(1,518)
60~80%미만	57.9	29.3	12.6	0.2	100.0	(1,715)
80~100%미만	62.5	27.4	10.1	-	100.0	(2,118)
100~120%미만	58.2	30.0	11.6	0.2	100.0	(1,922)
120~140%미만	60.9	30.6	8.3	0.2	100.0	(1,034)
140~160%미만	64.0	27.0	8.8	0.2	100.0	(945)
160%이상	62.8	28.9	8.2	0.1	100.0	(1,751)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x^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앞서 자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가 필요하

다고 응답한 이유를 질문하였다. 이들 응답 기혼여성 중 80.5%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심리적 만족(17.5%)이라고 응답하였다. ‘가문(대)를 잇기 위해(1.2%)’와 ‘노후생활을 위해서(0.6%)’, 기타(‘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타’ 등 0.3%)의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자녀가 필요한 이유로 경제적 혹은 수단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거주지별로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는 중소도시 및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대체적으로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를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노후 생활이나 심리적 만족을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5-2〉 기혼여성(15~49세)의 본인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 명)

구 분	가문(대)를 잇기 위해	노후생활을 위해서	심리적 만족	가정의 행복과 조화	기타 ¹⁾	계	(명)
전체	1.2	0.6	17.5	80.5	0.3	100.0	(9,825)
거주지($\chi^2=32.1^{***}$)							
대도시	1.1	0.8	17.6	80.2	0.2	100.0	(4,297)
중소도시	1.0	0.3	18.4	79.9	0.4	100.0	(4,108)
농촌 ²⁾	1.6	1.0	14.4	82.8	0.1	100.0	(1,421)
연령 ²⁾							
25세 미만	-	-	25.0	75.0	-	100.0	(48)
25~29세	1.6	0.7	13.5	84.0	0.2	100.0	(445)
30~34세	0.6	0.3	14.8	84.2	0.2	100.0	(1,531)
35~39세	1.1	0.7	15.2	82.7	0.3	100.0	(2,177)
40~44세	1.1	0.5	17.3	80.9	0.3	100.0	(2,729)
45~49세	1.5	0.9	21.4	76.0	0.3	100.0	(2,894)

〈표 5-2〉 계속

(단위: %, 명)

구 분	가문(대)를 잇기 위해	노후생활을 위해서	심리적 만족	가정의 행복과 조화	기타 ³⁾	계	(명)
교육수준							
중졸이하	1.6	1.0	35.0	60.8	1.6	100.0	(311)
고졸	1.3	0.8	19.2	78.3	0.3	100.0	(4,037)
대졸	1.0	0.5	15.3	83.0	0.2	100.0	(5,074)
대학원졸	0.5	0.2	14.2	84.8	0.2	100.0	(402)
혼인상태							
유배우	1.1	0.5	16.1	82.0	0.3	100.0	(9,257)
사별	2.3	3.8	39.4	54.5	-	100.0	(132)
이혼·별거·미혼모	1.8	2.1	40.1	55.3	0.7	100.0	(436)
취업여부($\chi^2=7.2$)							
취업	1.2	0.8	17.9	79.8	0.3	100.0	(5,559)
비취업	1.0	0.4	17.0	81.3	0.2	100.0	(4,265)
가구소득 ³⁾ ($\chi^2=80.1^{***}$)							
60%미만	1.2	1.1	23.4	73.5	0.7	100.0	(1,311)
60~80%미만	0.8	1.0	18.0	79.8	0.4	100.0	(1,494)
80~100%미만	1.4	0.5	15.3	82.7	0.1	100.0	(1,905)
100~120%미만	1.2	0.3	17.7	80.5	0.4	100.0	(1,698)
120~140%미만	1.5	0.5	15.5	82.5	-	100.0	(947)
140~160%미만	0.9	0.6	16.2	82.2	0.1	100.0	(859)
160%이상	1.1	0.4	16.5	81.9	0.1	100.0	(1,607)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타'가 해당됨.

2)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앞서 자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29.4%)',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워서(21.4%)',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20.5%)',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18.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을 제외하면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저연령층일수록 부부만의 생활 추구, 직장생활 지속 희망,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등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

대로 고연령층일수록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 경제적으로 자녀양육 곤란)를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생활 지속, 부부만의 생활 추구, 자유 등을 위해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유배우가 아닌 여성들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로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자녀양육이 어려워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은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부부만의 생활 추구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기혼여성들이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경제적인 여유로움, 자유, 직장생활 지속 등을 응답한 비율이 비취업 기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취업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자녀양육 곤란 등을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취업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취업여성은 경제적 어려움, 일-가정양립 곤란 등을 이유로, 비취업여성은 자녀양육 부담 등을 이유로 자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적 상황 상 자녀 양육의 어려움, 그리고 고소득층일수록 부부만의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가치관의 문제로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거주지 등의 특성에 따른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이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기혼여성(15~49세)의 본인의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 명)

구 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	직장생활 지속 희망	부부만의 생활 추구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	경제적으로 자녀양육 곤란	아이 희망하나 불임 등으로 임신 곤란	기타 ¹⁾	계	(명)
전체	29.4	2.8	18.1	20.5	21.4	2.5	5.4	100.0	(1,168)
거주지($\chi^2=11.2$)									
대도시	32.7	2.6	16.0	21.0	20.0	1.8	5.9	100.0	(495)
중소도시	27.2	2.7	19.4	21.3	21.7	2.7	5.1	100.0	(475)
농촌	26.8	3.0	20.2	17.2	24.2	4.0	4.5	100.0	(198)
연령 ²⁾ ($\chi^2=73.6^{***}$)									
30세 미만	22.2	4.4	17.8	33.3	17.8	2.2	2.2	100.0	(45)
30~34세	25.9	5.2	25.4	25.9	16.1	-	1.6	100.0	(193)
35~39세	29.4	4.5	22.6	20.0	17.4	2.3	3.8	100.0	(265)
40~44세	29.9	1.6	17.2	16.9	22.3	4.5	7.6	100.0	(314)
45~49세	31.9	0.9	11.7	19.4	27.1	2.3	6.8	100.0	(351)
교육수준 ³⁾ ($\chi^2=53.9^{***}$)									
고졸이하	29.7	1.3	14.9	18.9	27.5	2.8	5.0	100.0	(545)
대졸	29.6	3.7	21.0	20.8	16.9	2.6	5.5	100.0	(587)
대학원졸	19.4	11.1	22.2	38.9	-	-	8.3	100.0	(36)
혼인상태 ⁴⁾ ($\chi^2=35.7^{***}$)									
유배우	29.7	2.9	19.9	19.8	19.7	2.8	5.4	100.0	(1,052)
이혼·별거·미혼모·사별	26.3	2.5	2.5	26.3	36.4	0.8	5.1	100.0	(118)
취업여부($\chi^2=19.4^{**}$)									
취업	30.3	4.0	18.1	21.8	20.0	2.3	3.5	100.0	(651)
비취업	28.2	1.4	18.0	18.8	23.2	2.9	7.5	100.0	(517)
가구소득 ⁵⁾ ($\chi^2=90.3^{***}$)									
60%미만	24.3	2.5	11.4	19.8	32.7	2.5	6.9	100.0	(202)
60~80%미만	31.0	1.9	17.6	17.6	25.5	3.2	3.2	100.0	(216)
80~100%미만	28.6	3.3	18.3	15.5	27.2	1.4	5.6	100.0	(213)
100~120%미만	35.1	1.4	18.5	27.0	12.6	2.3	3.2	100.0	(222)
120~140%미만	29.1	4.7	15.1	22.1	17.4	-	11.6	100.0	(86)
140~160%미만	31.0	7.1	21.4	22.6	10.7	3.6	3.6	100.0	(84)
160%이상	25.7	3.5	26.4	20.8	11.8	4.9	6.9	100.0	(144)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남편이 아이를 싫어해서', '유전병 등 질환 때문에', '기타'가 해당됨.

2) 25세 미만에는 15~19세 0명, 20~24세 3명이 포함되어 있음.

3) 고졸이하에는 중졸이하 29명이 포함되어 있음.

4) 이혼·별거·미혼모·사별자에서 사별은 7명이 포함되어 있음.

5)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6)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이상자녀수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이상자녀수(ideal number of children)를 질문한 결과, 2명(65.9%), 3명(19.9%), 1명(7.0%), 4명 이상(5.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평균 이상자녀수는 2.25명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별 이상자녀수는 대도시에서 1~2자녀를 응답한 비율이 그리고 농촌에서는 3명, 4명 이상을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이상자녀수는 농어촌 2.32명, 중소도시 2.25명, 대도시 2.22명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령 표준화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저연령층일수록 이상자녀수를 2명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고연령층일수록 3~4명 이상을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평균 이상자녀수는 저연령층 즉, 최근 코호트일수록 적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대와 30대의 이상자녀수는 평균 2.2명 정도로 45~49세의 2.3명에 비해 0.1명 정도가 적었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로 이상자녀수는 대체적으로 고학력층일수록 1명을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저학력층일수록 3~4명 이상을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평균 이상자녀수는 중졸이하(2.35명), 고졸(2.26명), 대학원졸(2.24명), 대졸(2.23명) 순으로 많았다. 연령 표준화 후에 평균 이상자녀수는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이상자녀수는 이혼·별거·미혼모인 경우 1~2명을, 사별자인 경우에는 3명을, 유배우인 경우에는 4명 이상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평균 이상자녀수는 사별(2.34명), 유배우(2.25명), 이혼·별거·미혼모(2.14명) 순으로 많았다. 연령 표준화 후에 평균 이상자녀수는 유배우, 사별, 이혼·별거·미혼모 순으로 많게 나

타났다.

기혼여성의 출생아수와 이상자녀수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출생아수가 많을수록 이상자녀수로 3~4명 이상을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출생아수가 적을수록 1~2명을 이상자녀수로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표준화 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 이상자녀수는 차이가 존재하나, 뚜렷한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한 소득계층에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취업 여부별 이상자녀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변수들과 이상자녀수 간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표 5-4〉 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모르겠음	계	(명)	평균 (연령 비표준화)	평균 (연령 표준화)
전체	0.2	7.0	65.9	19.9	5.7	1.3	100.0	(11,009)	2.25	-
거주지($\chi^2=37.6^{***}$)										
대도시	0.4	7.2	67.2	18.7	5.2	1.4	100.0	(4,797)	2.22	2.22
중소도시	0.1	7.3	65.5	20.2	5.8	1.1	100.0	(4,590)	2.25	2.25
농촌	0.1	5.9	63.2	22.5	6.9	1.4	100.0	(1,623)	2.32	2.32
연령 ¹⁾ ($\chi^2=72.6^{***}$)										
25세 미만	-	7.7	75.0	11.5	5.8	-	100.0	(52)	2.18	-
25~29세	-	6.2	69.0	20.3	3.3	1.2	100.0	(487)	2.21	-
30~34세	0.1	7.6	68.5	18.7	4.0	1.1	100.0	(1,726)	2.19	-
35~39세	0.2	7.8	67.6	18.2	4.9	1.3	100.0	(2,451)	2.21	-
40~44세	0.2	6.4	66.2	19.8	6.0	1.3	100.0	(3,049)	2.26	-
45~49세	0.4	6.8	62.3	22.0	7.3	1.2	100.0	(3,243)	2.30	-
교육수준($\chi^2=35.7^{**}$)										
중졸이하	-	4.4	63.5	20.5	8.8	2.9	100.0	(342)	2.35	2.33
고졸	0.4	6.4	65.6	20.8	5.8	1.1	100.0	(4,554)	2.26	2.26
대졸	0.1	7.6	66.4	19.1	5.5	1.3	100.0	(5,672)	2.23	2.24
대학원졸	-	8.0	64.0	21.2	5.2	1.6	100.0	(439)	2.24	2.23

(표 5-4) 계속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모르겠음	계	(명)	평균 (연령 비표준화)	평균 (연령 표준화)
혼인상태($\chi^2=65.6^{***}$)										
유배우	0.2	7.0	65.9	20.0	5.9	1.1	100.0	(10,324)	2.25	2.25
사별	-	5.1	62.3	26.8	5.1	0.7	100.0	(138)	2.34	2.22
이혼·별거·미혼모	1.1	8.4	66.5	16.8	3.3	3.8	100.0	(547)	2.14	2.18
취업여부($\chi^2=7.9$)										
취업	0.2	6.8	65.2	20.3	6.1	1.4	100.0	(6,219)	2.26	2.25
비취업	0.2	7.2	66.9	19.3	5.2	1.1	100.0	(4,789)	2.23	2.23
출생아수($\chi^2=373.6^{***}$)										
0명	0.9	12.3	67.7	13.5	2.6	3.1	100.0	(780)	2.05	2.07
1명	0.1	10.6	66.6	18.2	3.0	1.5	100.0	(2,681)	2.14	2.14
2명	0.2	5.3	67.7	20.0	5.9	0.9	100.0	(6,158)	2.27	2.27
3명 이상	0.3	5.0	55.4	26.5	11.7	1.2	100.0	(1,390)	2.47	2.45
가구소득 ²⁾ ($\chi^2=51.1^*$)										
60%미만	0.3	6.5	67.9	18.9	4.7	1.6	100.0	(1,518)	2.22	2.23
60~80%미만	0.5	6.7	65.8	21.2	4.3	1.4	100.0	(1,713)	2.23	2.24
80~100%미만	0.1	6.7	65.7	19.4	7.0	0.9	100.0	(2,119)	2.27	2.28
100~120%미만	0.4	6.9	67.2	18.6	5.7	1.4	100.0	(1,924)	2.23	2.23
120~140%미만	-	7.6	63.3	21.1	6.5	1.5	100.0	(1,034)	2.28	2.28
140~160%미만	-	8.0	63.2	21.8	5.9	1.1	100.0	(945)	2.26	2.25
160%이상	0.1	7.3	66.1	19.8	5.8	1.0	100.0	(1,751)	2.25	2.23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전체 기혼여성(15~49세) 중 이상자녀수를 1명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자녀의 성선택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딸·아들 구별없이 77.6%, 딸·아들 구별해서 22.3%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자녀의 성별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별을 구별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자녀수의 성별을 구별하는 경우 아들 1명-딸 1명(48.5%)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들 1명-딸 2명(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성 구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딸이들		아들		딸·아들 구별 희망 시 성 선호도						모르		계	(명)
	구별 없이	구별 해서	아들1	딸1	아들1 딸1	아들2	딸2	아들1 딸2	아들2 딸1	아들2 딸2	기타	했음/ 기타		
전체	77.6	22.3	0.8	1.1	48.5	0.5	3.6	22.2	5.1	17.1	1.1	0.1	100.0	(10,846)
거주지($\chi^2=24.8^{**}$)														
대도시	79.2	20.6	0.9	1.1	50.1	0.8	3.0	21.0	4.4	17.8	0.8	0.2	100.0	(4,714)
중소도시	77.2	22.7	0.6	1.3	48.1	0.3	3.7	22.7	6.4	16.0	1.1	0.1	100.0	(4,535)
농촌	73.7	26.2	0.7	1.0	45.5	0.2	5.0	23.9	3.6	18.2	1.9	0.1	100.0	(1,597)
연령 ¹⁾														
25세 미만	48.1	51.9	-	7.4	70.4	-	-	7.4	3.7	3.7	7.4	-	100.0	(52)
25~29세	72.4	27.6	-	-	66.7	-	2.3	20.5	3.0	6.1	1.5	-	100.0	(482)
30~34세	76.7	23.1	0.3	1.8	52.0	0.3	5.6	18.3	6.6	14.2	1.0	0.2	100.0	(1,705)
35~39세	79.3	20.6	1.0	1.6	47.9	0.8	3.0	23.7	4.0	16.9	1.0	0.1	100.0	(2,415)
40~44세	78.7	21.2	1.6	1.1	48.3	0.6	3.3	21.2	5.8	16.7	1.4	0.1	100.0	(3,003)
45~49세	76.9	23.0	0.3	0.4	42.8	0.5	3.7	25.1	4.9	21.7	0.7	0.2	100.0	(3,189)
교육수준($\chi^2=24.8^{**}$)														
중졸이하	75.0	25.0	-	-	48.8	-	2.4	24.4	3.7	20.7	-	-	100.0	(332)
고졸	76.2	23.6	0.6	1.4	50.1	0.6	3.5	21.8	5.5	15.3	1.3	0.2	100.0	(4,488)
대졸	78.3	21.6	1.1	1.1	47.1	0.5	3.8	22.4	5.0	18.1	1.0	0.1	100.0	(5,593)
대학원졸	84.3	15.2	-	-	46.3	-	3.0	22.4	4.5	23.9	-	0.5	100.0	(433)
혼인상태														
유배우	77.4	22.5	0.8	1.1	48.1	0.5	3.4	22.4	5.3	17.4	1.0	0.1	100.0	(10,188)
사별	76.1	23.9	-	-	50.0	3.1	-	18.8	6.3	12.5	9.4	-	100.0	(138)
이혼·별거·미혼모	81.9	18.1	-	1.1	58.5	-	9.6	18.1	2.1	10.6	-	-	100.0	(520)
취업여부($\chi^2=5.1$)														
취업	76.9	23.0	0.6	0.7	46.7	0.4	3.9	23.6	4.9	18.1	1.1	0.2	100.0	(6,121)
비취업	78.5	21.4	1.0	1.7	51.0	0.6	3.3	20.4	5.4	15.7	1.0	0.1	100.0	(4,725)
출생아수														
0명	78.9	20.7	1.3	2.6	60.0	0.6	6.5	18.7	1.3	8.4	0.6	0.4	100.0	(749)
1명	80.8	19.0	1.2	1.4	59.4	0.2	6.0	17.7	4.0	9.4	0.8	0.2	100.0	(2,637)
2명	77.2	22.7	0.6	1.2	46.0	0.7	2.9	24.1	5.9	17.9	0.8	0.1	100.0	(6,090)
3명 이상	72.2	27.8	0.5	-	38.1	0.5	1.8	23.1	5.5	27.8	2.6	-	100.0	(1,371)
가구소득 ²⁾														
60%미만	78.9	21.1	0.6	2.2	54.6	0.3	4.8	18.7	4.1	13.0	1.6	-	100.0	(1,489)
60~80%미만	77.8	22.2	0.5	1.1	54.3	0.3	3.5	21.4	6.4	12.0	0.5	-	100.0	(1,680)
80~100%미만	76.3	23.6	0.4	0.6	45.1	0.4	3.6	21.2	6.3	21.4	1.0	0.2	100.0	(2,097)
100~120%미만	78.3	21.3	0.2	1.0	49.4	0.5	4.0	23.3	2.5	18.1	1.0	0.4	100.0	(1,896)
120~140%미만	76.3	23.7	0.4	0.8	46.3	-	2.9	25.8	4.2	18.8	0.8	-	100.0	(1,019)
140~160%미만	78.9	20.9	1.0	0.5	41.3	0.5	4.1	24.5	9.7	16.3	2.0	0.2	100.0	(934)
160%이상	76.9	23.0	2.0	1.8	45.8	1.0	3.3	22.8	4.3	18.0	1.3	0.1	100.0	(1,732)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15~49세)에게 인생 목표 추구 시 적정 자녀수를 질문하였다.
 ‘나 자신과 관심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적정한 자녀수로 1명을 응답한 비율이 36.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관계없음(21.2%), 0명(20.9%), 2명(20.1%), 3명 이상(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일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노후에 안락하게 사는 것’을 위해 적정한 자녀수로는 관계없음(35.0%), 2명(28.2%), 1명(21.6%), 3명 이상(8.5%), 무자녀(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는 문화가 약화되면서 노후 안락과 자녀수가 무관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부부간 가사일을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적정한 자녀수로는 ‘관계없음’이 44.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명(26.5%), 1명(20.5%), 0명(4.9%), 3명 이상(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간 가사일 분담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자녀수가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관계없음(22.8%), 무자녀 및 2자녀(19.5%), 3자녀 이상(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 마련을 위해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대의를 실현하는 것’을 위해 적정한 자녀수는 관계없음이 47.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명(21.2%), 2명(16.8%), 0명(12.3%), 3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명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32.8%), 그 다음으로 0명(28.4%), 관계없음(24.2%), 2명(13.6%), 3명 이상(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경력 쌓기를

위해 소규모의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넓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위해서는 자녀수가 관계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5.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명(28.8%), 2명(21.2%), 0명(11.7%), 3명 이상(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1명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명(26.7%), 관계없음(15.0%), 3명 이상(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혼여성들의 경우 노후 생활, 부부간 가사 분담, 대의 실현, 넓고 좋은 집에서의 거주 등의 목표들을 실현함에 있어 자녀 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산을 충분히 마련하거나,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기 위해 그리고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1명의 자녀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많은 비용 부담이 소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무자녀가 가장 적정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는데, 이는 여러 조건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것을 가정하며 현실과 조율해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6〉 기혼여성(15~49세)의 인생목표 추구 시 적정 자녀수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추구하는 인생 목표	인생목표 추구 시 적정 자녀수						계 (명)
	0명	1명	2명	3명 이상	관계 없음	계 (%)	
나 자신과 관심 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	20.9	36.1	20.1	1.8	21.2	100.0	(11,008)
노후에 안락하게 사는 것	6.6	21.6	28.2	8.5	35.0	100.0	(11,009)
부부간 가사일을 보다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	4.9	20.5	26.5	3.6	44.5	100.0	(11,009)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	19.5	36.6	19.5	1.6	22.8	100.0	(11,008)
대의를 실현하는 것	12.3	21.2	16.8	1.9	47.8	100.0	(11,008)

〈표 5-6〉 계속

(단위: %, 명)

추구하는 인생 목표	인생목표 추구 시 적정 자녀수					계	(명)
	0명	1명	2명	3명 이상	관계 없음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는 것	28.4	32.8	13.6	1.1	24.2	100.0	(11,007)
넓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11.7	28.8	21.2	3.2	35.1	100.0	(11,009)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것	-	56.5	26.7	1.8	15.0	100.0	(11,00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아들 필요성

전체 기혼여성(15~49세) 중 65.2%는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로, 28.8%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로, 그리고 5.7%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별로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간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는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0대와 40대 초반에 비교적 높고, 20대와 40대 후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혹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와 40대 후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20대의 경우 출산을 시작하는 초기로 아들 출산에 대한 바람이 표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학력층일수록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현재 자녀 중 아들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아들이 필요하다(반드시 필요하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

다 낳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질문에 대해 실제 출산한 자녀의 성을 합리화하여 응답한 영향이 있음을 짐작케 해 준다.

<표 5-7> 기혼여성(15~49세)의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상관없다	모르겠다	계	(명)
전체	5.7	28.8	65.2	0.4	100.0	(11,008)
거주지($\chi^2=16.9$)						
대도시	5.0	29.8	64.8	0.5	100.0	(4,798)
중소도시	6.0	27.7	66.1	0.3	100.0	(4,587)
농촌	7.0	28.7	64.1	0.3	100.0	(1,623)
연령 ¹⁾ ($\chi^2=49.9^{***}$)						
25세 미만	11.3	39.6	49.1	-	100.0	(53)
25~29세	8.2	30.3	61.1	0.4	100.0	(488)
30~34세	5.9	27.7	66.2	0.2	100.0	(1,725)
35~39세	5.1	25.9	68.6	0.4	100.0	(2,452)
40~44세	5.3	27.9	66.2	0.5	100.0	(3,049)
45~49세	5.9	31.8	62.0	0.3	100.0	(3,243)
교육수준($\chi^2=78.8^{***}$)						
중졸이하	11.0	33.4	53.8	1.7	100.0	(344)
고졸	6.0	30.3	63.4	0.3	100.0	(4,555)
대졸	5.4	27.3	66.9	0.3	100.0	(5,670)
대학원졸	1.6	27.3	70.2	0.9	100.0	(440)
현재녀 중 아들 여부($\chi^2=349.1^{***}$)						
없음	2.7	19.3	77.6	0.5	100.0	(3,402)
있음	7.0	33.0	59.7	0.3	100.0	(7,607)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앞서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응답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아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만족이 6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의 행복과 조화(25.9%), 가문을 잇기 위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별로도 아들이 필요한 이유의 분포는 전체적

인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교육수준별로 아들이 필요한 이유로 저학력층일수록 가문을 잇기 위해와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고학력층일수록 가정의 행복과 조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거주지와 연령 및 현 자녀 중 아들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5-8〉 기혼여성(15~49세)의 아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가문을 잇기 위해	심리적 만족	가정의 행복과 조화	기타 ¹⁾	계	(명)
전체	10.8	61.0	25.9	2.2	100.0	(3,791)
거주지($\chi^2=3.2$)						
대도시	10.3	61.0	26.2	2.5	100.0	(1,669)
중소도시	11.1	60.7	26.4	1.9	100.0	(1,543)
농촌	11.3	62.4	23.9	2.4	100.0	(577)
연령 ²⁾ ($\chi^2=15.7$)						
30세 미만	14.0	58.8	24.3	2.8	100.0	(188)
30~34세	12.1	59.0	26.6	2.4	100.0	(580)
35~39세	10.1	61.6	26.1	2.2	100.0	(760)
40~44세	9.6	59.4	28.2	2.9	100.0	(1,015)
45~49세	11.0	63.4	24.0	1.6	100.0	(1,222)
교육수준($\chi^2=18.4$)						
중졸이하	12.4	64.1	19.6	3.9	100.0	(153)
고졸	10.9	63.5	23.4	2.2	100.0	(1,652)
대졸	10.5	58.7	28.7	2.1	100.0	(1,860)
대학원졸	11.1	59.5	27.0	2.4	100.0	(126)
현자녀 중 아들 여부($\chi^2=2.2$)						
없음	11.9	60.9	24.6	2.5	100.0	(747)
있음	10.5	61.1	26.3	2.1	100.0	(3,043)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노후생활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가 포함됨.

2) 30세 미만에는 15~19세 3명, 20~24세 24명이 포함되어 있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자녀가치관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에 관한 견해에 대해 본인의 태도를 질문하였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견해

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인 97.5%(전적으로 찬성 56.0% 포함)가 찬성하였다.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보편적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여성의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기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대학원 졸업인 경우를 제외하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됨을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9〉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 (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56.0	41.5	2.3	0.2	100.0	(11,009)
거주지($\chi^2=15.2^*$)						
대도시	56.2	41.6	2.1	0.2	100.0	(4,797)
중소도시	55.6	41.5	2.8	0.1	100.0	(4,589)
농촌	56.8	41.3	1.5	0.4	100.0	(1,623)
연령 ¹⁾						
25세 미만	51.9	44.2	3.8	-	100.0	(52)
25~29세	60.9	37.1	2.0	-	100.0	(488)
30~34세	58.1	40.2	1.6	0.1	100.0	(1,725)
35~39세	56.9	40.8	2.1	0.2	100.0	(2,452)
40~44세	54.0	43.4	2.5	0.2	100.0	(3,048)
45~49세	55.5	41.6	2.6	0.2	100.0	(3,244)
교육수준($\chi^2=39.4^{***}$)						
중졸이하	56.3	40.8	2.9	-	100.0	(343)
고졸	53.0	44.3	2.6	0.2	100.0	(4,555)
대졸	58.1	39.8	2.0	0.1	100.0	(5,672)
대학원졸	61.4	35.2	3.0	0.5	100.0	(440)
혼인상태						
유배우	56.9	40.8	2.1	0.2	100.0	(10,325)
사별	61.2	36.7	2.2	-	100.0	(139)
이혼·별거·미혼모	38.2	55.8	5.7	0.4	100.0	(547)
취업여부($\chi^2=4.4$)						
취업	55.3	42.3	2.3	0.1	100.0	(6,219)
비취업	57.0	40.6	2.2	0.2	100.0	(4,791)

〈표 5-9〉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가구소득 ²⁾						
60%미만	52.7	43.4	3.8	0.1	100.0	(1,517)
60~80%미만	55.1	42.0	2.5	0.4	100.0	(1,713)
80~100%미만	56.4	41.9	1.5	0.2	100.0	(2,119)
100~120%미만	55.5	42.3	2.1	0.1	100.0	(1,924)
120~140%미만	57.3	39.9	2.5	0.3	100.0	(1,034)
140~160%미만	56.1	41.3	2.3	0.3	100.0	(945)
160%이상	59.1	39.1	1.8	-	100.0	(1,751)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작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기혼 여성의 94.3%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기혼여성(15~49세)의 특성별로 보면, 예외 없이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다만,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보면 45~49세를 제외하면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지 않은 태도가 저연령층일수록 다소나마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고학력층일수록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우세하였다.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 사별, 이혼·별거·미혼모 순으로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기혼여성이 취업 중인 경우보다 비취업인 경우에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연령층, 저학력층, 무배우 상태, 취업 중, 저소득층 등의 상황에 있는 기혼여성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기혼여성

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아 자녀의 존재가 반드시 부부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주는 역할을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5-1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 (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48.3	46.0	5.2	0.4	100.0	(11,009)
거주지($\chi^2=7.9$)						
대도시	48.4	45.8	5.3	0.5	100.0	(4,799)
중소도시	48.2	46.3	5.2	0.3	100.0	(4,589)
농촌	48.3	45.9	4.9	0.8	100.0	(1,622)
연령 ¹⁾ ($\chi^2=26.4^*$)						
25세 미만	46.2	48.1	5.8	-	100.0	(52)
25~29세	50.7	42.9	6.0	0.4	100.0	(487)
30~34세	48.9	45.6	5.2	0.4	100.0	(1,725)
35~39세	50.3	45.0	4.0	0.6	100.0	(2,451)
40~44세	48.0	46.9	4.7	0.4	100.0	(3,048)
45~49세	46.5	46.6	6.4	0.4	100.0	(3,244)
교육수준($\chi^2=59.7^{***}$)						
중졸이하	42.6	48.1	8.7	0.6	100.0	(343)
고졸	45.5	47.6	6.3	0.5	100.0	(4,555)
대졸	51.0	44.5	4.2	0.4	100.0	(5,673)
대학원졸	48.1	46.9	4.1	0.9	100.0	(441)
혼인상태($\chi^2=611.9^{***}$)						
유배우	49.9	45.7	4.0	0.4	100.0	(10,324)
사별	48.9	40.3	10.8	-	100.0	(139)
이혼·별거·미혼모	18.3	54.5	25.8	1.5	100.0	(547)
취업여부($\chi^2=20.0^{**}$)						
취업	47.6	46.2	5.9	0.3	100.0	(6,218)
비취업	49.4	45.8	4.2	0.6	100.0	(4,789)
가구소득 ²⁾ ($\chi^2=140.6^{***}$)						
60%미만	42.9	46.2	10.1	0.7	100.0	(1,518)
60~80%미만	46.0	48.0	5.5	0.5	100.0	(1,713)
80~100%미만	48.3	45.9	5.1	0.7	100.0	(2,119)
100~120%미만	48.8	46.3	4.8	0.2	100.0	(1,924)
120~140%미만	51.3	45.4	3.3	0.1	100.0	(1,034)
140~160%미만	50.1	45.7	3.4	0.8	100.0	(944)
160%이상	52.3	44.4	3.3	0.1	100.0	(1,751)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 기혼여성(15~49세)의 83.5%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 또한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기혼여성의 특성별로도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아주 우세하게 나타났다. 저연령층(20대 초반), 저학력층, 이혼·별거·미혼모 등의 상황에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본인의 노년기와 관련한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해 기대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기혼여성의 가구소득 수준별 차이는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표 5-11〉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34.9	48.6	14.3	2.2	100.0	(11,008)
거주지($\chi^2=12.3$)						
대도시	34.3	49.1	14.1	2.5	100.0	(4,799)
중소도시	35.4	48.9	13.8	1.9	100.0	(4,587)
농촌	35.4	46.2	16.0	2.5	100.0	(1,623)
연령 ¹⁾ ($\chi^2=35.9^{**}$)						
25세 미만	34.0	50.9	15.1	-	100.0	(53)
25~29세	43.3	44.1	10.5	2.1	100.0	(487)
30~34세	35.9	47.9	14.2	2.0	100.0	(1,724)
35~39세	36.9	46.0	14.5	2.5	100.0	(2,452)
40~44세	33.0	50.2	14.7	2.1	100.0	(3,049)
45~49세	33.4	50.0	14.3	2.3	100.0	(3,244)
교육수준($\chi^2=30.6^{**}$)						
중졸이하	35.9	46.6	17.2	0.3	100.0	(343)
고졸	33.2	49.7	14.9	2.2	100.0	(4,553)
대졸	36.6	47.3	13.6	2.5	100.0	(5,673)
대학원졸	30.7	54.5	13.2	1.6	100.0	(440)
혼인상태($\chi^2=67.8^{**}$)						
유배우	35.5	48.3	14.1	2.2	100.0	(10,323)
사별	47.1	43.5	9.4	-	100.0	(138)
이혼·별거·미혼모	20.5	56.6	19.2	3.7	100.0	(546)

〈표 5-11〉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취업여부($\chi^2=3.6$)						
취업	34.2	49.2	14.5	2.2	100.0	(6,219)
비취업	35.9	47.9	14.0	2.2	100.0	(4,789)
가구소득 ²⁾ ($\chi^2=54.8^{***}$)						
60%미만	32.3	50.1	15.0	2.6	100.0	(1,517)
60~80%미만	37.9	45.7	13.8	2.6	100.0	(1,714)
80~100%미만	34.5	47.0	16.5	2.0	100.0	(2,118)
100~120%미만	33.3	51.8	13.4	1.5	100.0	(1,923)
120~140%미만	37.2	45.2	15.1	2.5	100.0	(1,034)
140~160%미만	36.4	46.7	13.8	3.2	100.0	(945)
160%이상	34.3	51.7	12.2	1.8	100.0	(1,751)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 기혼여성의 25.6%만이 찬성하였고, 나머지 84.4%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자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기대감이 낮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향은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기혼여성의 모든 특성별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여성이 농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0대를 제외하면 저연령층일수록, 고학력층일수록, 유배우상태인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등 견해에 대한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에 거주함으로써 과거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강한 특징으로서 자녀의 경제적(특히 노동력)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약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고학력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 노후대책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 노후소득 보장의 수단으로서 자녀의 경제력에 의존할 필요성이 적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고소득층일수록 노후를

위한 자녀 의존에 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이 유배우상태인 경우 일반적으로 생애과정에서 자산축적, 연금 등 노후대책에 유리하나 사별 중인 경우에는 남편의 경제력 상실 등으로 노후의 소득원으로서 자녀의 경제적 지원 역할을 기대하는 심리가 높음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들이 저연령층일수록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노후 의존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다만, 20대의 경우 결혼생활 초기로 직업이나 소득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노후를 위한 자녀에의 의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다소나마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취업 여부와 동 견해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들의 취업과 비취업이 갖는 혼재된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기혼여성이 취업 중인 경우에는 경제력이 증가할 수 있어 노후 대책에 유리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구소득수준이 너무 낮아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파트타임 등으로 취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노후대책에 반드시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기혼여성들이 비취업 중인 경우에도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노후대책에 불리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가구소득(남편의 소득 등) 수준이 높아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노후대책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재된 이유로 두 집단(취업과 비취업)간 자녀를 통한 노후 보장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표 5-12〉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4.0	21.6	55.6	18.8	100.0	(11,007)
거주지($\chi^2=18.3^{**}$)						
대도시	4.0	20.2	55.4	20.4	100.0	(4,798)
중소도시	3.9	22.5	55.8	17.7	100.0	(4,587)
농촌	4.3	22.7	55.6	17.4	100.0	(1,623)
연령 ¹⁾ ($\chi^2=38.7^{**}$)						
25세 미만	5.7	26.4	49.1	18.9	100.0	(53)
25~29세	6.1	26.0	55.3	12.5	100.0	(488)
30~34세	3.8	20.8	58.2	17.3	100.0	(1,725)
35~39세	3.8	20.9	56.5	18.8	100.0	(2,452)
40~44세	3.9	21.0	56.2	18.9	100.0	(3,049)
45~49세	4.1	22.3	53.1	20.6	100.0	(3,242)
교육수준($\chi^2=44.4^{***}$)						
중졸이하	2.9	28.0	46.4	22.7	100.0	(343)
고졸	4.3	23.3	54.6	17.8	100.0	(4,551)
대졸	3.8	20.3	56.5	19.4	100.0	(5,671)
대학원졸	4.1	15.2	61.8	18.9	100.0	(440)
혼인상태($\chi^2=22.1^{**}$)						
유배우	4.1	21.3	55.9	18.8	100.0	(10,321)
사별	4.3	34.1	47.8	13.8	100.0	(138)
이혼·별거·미혼모	2.4	23.6	52.4	21.6	100.0	(546)
취업여부($\chi^2=7.6$)						
취업	3.9	21.2	55.1	19.7	100.0	(6,217)
비취업	4.2	21.9	56.2	17.7	100.0	(4,789)
가구소득 ²⁾ ($\chi^2=70.0^{***}$)						
60%미만	3.6	25.2	52.9	18.2	100.0	(1,517)
60~80%미만	5.2	23.5	55.3	16.0	100.0	(1,714)
80~100%미만	5.0	21.7	53.3	20.0	100.0	(2,117)
100~120%미만	3.2	21.0	54.6	21.2	100.0	(1,923)
120~140%미만	4.2	20.6	56.8	18.5	100.0	(1,035)
140~160%미만	2.8	19.8	59.5	17.9	100.0	(944)
160%이상	3.5	18.4	59.4	18.7	100.0	(1,752)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 기혼여성의 29.5%만이 찬성하였으며, 대다수인 70.5%는 반대하였다. 과거 자녀의 중요한 가치였던 ‘가문계승’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기혼여성의 모든 특성별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촌이나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서, 고연령층일수록, 고학력층일수록, 사별보다 유배우 및 이혼 중인 경우에, 저소득층인 경우보다 중소득층 이상인 경우 등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들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와 고학력층일수록 현대적 가치관이 강화된 영향으로 가문계승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별 중인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고연령층인데다가 남편이 없는 상황으로 가문계승에 대한 자녀의 역할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는 계층일수록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이는 가문계승에 관한 자녀 가치도 약하게 나타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동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연령층에 결혼 직후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기혼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가문계승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성을 다소나마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분석한 노후 경제적 보장으로써 자녀의 가치에 대한 태도에서와 같이 기혼여성의 취업과 비취업 간의 혼재된 가구경제의 특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표 5-13〉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 (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5.8	23.7	48.0	22.6	100.0	(11,009)
거주지($\chi^2=28.2^{***}$)						
대도시	5.0	22.9	47.9	24.3	100.0	(4,798)
중소도시	6.1	25.0	47.7	21.1	100.0	(4,589)
농촌	7.0	22.4	49.0	21.6	100.0	(1,623)
연령 ¹⁾ ($\chi^2=54.1^{***}$)						
25세 미만	11.3	26.4	43.4	18.9	100.0	(53)
25~29세	7.6	31.0	45.8	15.6	100.0	(487)
30~34세	5.8	24.6	47.5	22.1	100.0	(1,725)
35~39세	5.8	21.9	48.4	23.9	100.0	(2,452)
40~44세	5.1	21.5	50.3	23.1	100.0	(3,050)
45~49세	5.9	25.5	46.1	22.4	100.0	(3,244)
교육수준($\chi^2=71.7^{***}$)						
중졸이하	9.3	36.7	37.0	16.9	100.0	(343)
고졸	6.6	23.5	48.7	21.2	100.0	(4,554)
대졸	4.9	23.3	48.1	23.7	100.0	(5,673)
대학원졸	5.5	20.7	47.6	26.2	100.0	(439)
혼인상태($\chi^2=38.6^{***}$)						
유배우	5.7	24.0	48.0	22.3	100.0	(10,324)
사별	13.8	27.5	41.3	17.4	100.0	(138)
이혼·별거·미혼모	4.9	17.2	49.6	28.3	100.0	(548)
취업여부($\chi^2=6.1$)						
취업	5.9	23.0	48.8	22.3	100.0	(6,219)
비취업	5.6	24.6	46.9	22.9	100.0	(4,790)
가구소득 ²⁾ ($\chi^2=29.5^{\dagger}$)						
60%미만	5.5	24.0	48.6	21.9	100.0	(1,517)
60~80%미만	6.4	25.7	46.0	21.9	100.0	(1,714)
80~100%미만	6.2	23.5	48.9	21.4	100.0	(2,119)
100~120%미만	5.0	22.5	47.3	25.2	100.0	(1,923)
120~140%미만	6.7	25.5	47.3	20.5	100.0	(1,035)
140~160%미만	4.8	23.8	49.3	22.1	100.0	(944)
160%이상	5.6	21.8	48.8	23.8	100.0	(1,751)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의 응답은 찬성 47.9%, 반대 52.1%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하지 않을 경우는 자녀를 갖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개인적인 욕구나 선호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를 갖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적 의무라 하지 않는 응답 자체가 반드시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동 견해에 대한 태도를 기혼여성의 특성별로 보면, 농촌보다 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고학력층일수록, 유배우상태인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고, 유배우 상태이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이 자녀 출산을 사회 유지 등과 연계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와 동 견해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취업 기혼여성과 비취업 기혼여성 간의 특성이 가구 경제력 등과 연관하여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5-14〉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 (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7.7	40.2	40.0	12.1	100.0	(11,009)
거주지($\chi^2=21.5^{**}$)						
대도시	7.7	40.2	39.1	13.0	100.0	(4,799)
중소도시	8.0	41.4	39.8	10.8	100.0	(4,590)
농촌	7.2	37.1	43.0	12.7	100.0	(1,622)

〈표 5-14〉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연령 ¹⁾ ($\chi^2=64.2^{***}$)						
25세 미만	7.7	30.8	44.2	17.3	100.0	(52)
25~29세	6.4	36.5	44.3	12.9	100.0	(488)
30~34세	5.6	37.6	43.1	13.8	100.0	(1,725)
35~39세	7.3	38.5	40.9	13.4	100.0	(2,452)
40~44세	8.0	41.7	39.4	10.9	100.0	(3,049)
45~49세	9.3	42.3	37.4	11.0	100.0	(3,244)
교육수준($\chi^2=45.2^{***}$)						
중졸이하	7.6	35.6	41.4	15.5	100.0	(343)
고졸	7.2	37.9	42.4	12.5	100.0	(4,554)
대졸	7.9	42.1	38.3	11.7	100.0	(5,672)
대학원졸	11.4	44.1	35.2	9.3	100.0	(440)
혼인상태($\chi^2=47.4^{***}$)						
유배우	7.8	40.8	39.4	11.9	100.0	(10,323)
사별	11.6	34.1	47.8	6.5	100.0	(138)
이혼·별거·미혼모	4.9	30.5	48.3	16.3	100.0	(547)
취업여부($\chi^2=7.5$)						
취업	8.0	40.9	39.5	11.6	100.0	(6,220)
비취업	7.4	39.3	40.6	12.7	100.0	(4,790)
가구소득 ²⁾ ($\chi^2=107.7^{***}$)						
60%미만	7.8	34.3	44.9	13.1	100.0	(1,518)
60~80%미만	6.7	38.3	41.0	14.1	100.0	(1,714)
80~100%미만	7.6	38.0	41.0	13.4	100.0	(2,119)
100~120%미만	6.7	40.5	40.6	12.3	100.0	(1,923)
120~140%미만	8.3	41.4	39.3	11.0	100.0	(1,034)
140~160%미만	8.4	44.7	38.5	8.5	100.0	(944)
160%이상	9.5	46.5	34.2	9.8	100.0	(1,751)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 기혼여성의 47.0%가 찬성하고, 53.0%가 반대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동 견해에서 자녀 존재와 부모 자유 간의 연계는 경제적인 측면(양육비 등), 신체적인 측면(돌봄 등), 정서적 측면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동 견해에 대한 태도를 기혼여성의 거주지별로 보면,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열, 자녀 돌봄 공백의 문제 등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활동이 제한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동 견해에 대한 찬성 태도를 보면, 20대 전반과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20대 후반과 3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별 패턴은 자녀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생애주기에 따른 부담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대 전반의 경우 결혼을 하였으나 아직 출산을 경험한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자녀의 존재를 부모의 자유 제약으로까지 연계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이와 반대로 40대의 경우 어느 정도 자녀들이 성장하여 스스로 활동할 수 있어 돌봄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반영될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20대 후반과 30대의 경우 이제 막 출산을 하였거나 영유아 등을 양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녀 양육(주로 돌봄)이 부모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인 경우에 동 견해에 대해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원 졸업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고학력층인 경우에는 일-가정양립 곤란 등으로 인하여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커지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존재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짐작해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로 보면, 사별 중인 경우 50% 이상이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여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자녀의 존재를 더 중시하여 부모에 대한 제약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와 반대로 이혼·별

가·미혼모인 경우에 동 견해에 대한 찬성 태도가 38.6%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주로 이혼이거나 별거인 경우 배우자와 갈등 등으로 헤어진 상황으로 자녀의 존재가 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해볼 수 있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존재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160% 이상 고소득계층의 경우에는 다소나마 동 견해에 대한 찬성태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소득층이 맞벌이부부로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이거나 혹은 자녀가 치관이 약하기 때문으로 나타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와 동 견해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취업 기혼여성과 비취업 기혼여성의 특성들이 가구의 경제 상황 등과 맞물려 뚜렷하게 구분되기보다 혼재되어 있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표 5-15〉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 (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8.3	38.7	42.9	10.2	100.0	(11,009)
거주지($\chi^2=31.9^{***}$)						
대도시	8.4	37.1	42.7	11.8	100.0	(4,799)
중소도시	7.8	40.1	43.1	9.0	100.0	(4,589)
농촌	9.3	39.2	43.0	8.5	100.0	(1,623)

〈표 5-15〉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연령 ¹⁾ ($\chi^2=89.8^{***}$)						
25세 미만	7.5	41.5	43.4	7.5	100.0	(53)
25~29세	8.6	36.6	43.1	11.7	100.0	(487)
30~34세	6.6	35.6	45.2	12.6	100.0	(1,724)
35~39세	6.8	36.3	44.7	12.2	100.0	(2,451)
40~44세	8.5	42.2	40.2	9.1	100.0	(3,049)
45~49세	10.0	39.0	42.8	8.2	100.0	(3,243)
교육수준($\chi^2=24.7^{**}$)						
중졸이하	5.2	38.8	47.5	8.5	100.0	(343)
고졸	8.6	40.1	42.2	9.1	100.0	(4,554)
대졸	8.2	37.8	43.0	11.0	100.0	(5,672)
대학원졸	8.2	34.7	44.7	12.5	100.0	(441)
혼인상태($\chi^2=20.4^{**}$)						
유배우	8.4	38.9	42.5	10.2	100.0	(10,324)
사별	10.8	41.7	41.0	6.5	100.0	(139)
이혼·별거·미혼모	5.9	32.7	50.3	11.2	100.0	(547)
취업여부($\chi^2=2.0$)						
취업	8.5	38.2	43.0	10.2	100.0	(6,219)
비취업	7.9	39.2	42.7	10.1	100.0	(4,790)
가구소득 ²⁾ ($\chi^2=49.7^{***}$)						
60%미만	5.9	38.9	45.7	9.5	100.0	(1,519)
60~80%미만	8.9	38.2	42.1	10.9	100.0	(1,714)
80~100%미만	7.6	36.2	44.5	11.8	100.0	(2,119)
100~120%미만	8.3	39.9	41.7	10.1	100.0	(1,923)
120~140%미만	10.1	40.3	41.4	8.1	100.0	(1,035)
140~160%미만	10.2	40.7	41.4	7.7	100.0	(945)
160%이상	8.5	38.5	42.2	10.7	100.0	(1,751)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영아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보다 가정에서 키워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 기혼여성의 88.4%가 찬성하였고 11.6%는 반대하였다. 동 견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취업 여부나 가구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무상보육시스템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과잉 이용과 연계될 수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영아기에는 여성으로 하여금 취업을 중지하고 집에서 돌보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관과 연계될 수 있다. 동 견해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성분업적 역할관의 측면보다 어린이집의 과잉 이용을 염두에 두고 응답하였기 때문으로 간주해 볼 수 있겠다.

기혼여성의 특성별로 보아도, 동 견해에 대한 찬성태도는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찬성 태도는 농촌사회에서, 고연령층, 사별인 경우, 비취업 중인 경우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연령층인 경우 전통적인 성분업적인 역할관이 상대적으로 강하면서 이미 자녀가 성장하였다는 점(일부는 무상보육의 수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에서 동 견해에 대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사별 중이거나 농촌사회에서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관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 여성에 비해 비취업 여성의 경우 동 견해에 대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소나마 '자기 합리화'가 반영될 결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한편, 동 견해에 대한 태도는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성분업적인 역할관과 보육서비스의 과잉 이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혼재되어 특성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가구소득수준별 차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즉, 저소득층은 성분업적 역할관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층일수록 무상보육의 과잉 이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득계층간 찬성비율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표 5-16〉 ‘영아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보다 가정에서 키워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49.2	39.2	9.6	2.0	100.0	(11,009)
거주지($\chi^2=14.0^*$)						
대도시	47.5	40.4	10.1	2.0	100.0	(4,798)
중소도시	50.1	38.8	9.0	2.2	100.0	(4,589)
농촌	51.6	36.8	9.8	1.8	100.0	(1,623)
연령 ¹⁾ ($\chi^2=124.7^{***}$)						
25세 미만	49.1	32.1	17.0	1.9	100.0	(53)
25~29세	46.0	39.0	12.3	2.7	100.0	(487)
30~34세	42.6	41.9	13.1	2.4	100.0	(1,724)
35~39세	46.8	39.0	12.0	2.2	100.0	(2,451)
40~44세	50.7	38.9	8.2	2.2	100.0	(3,048)
45~49세	53.5	38.5	6.7	1.4	100.0	(3,243)
교육수준($\chi^2=16.1$)						
중졸이하	47.8	40.5	9.3	2.3	100.0	(343)
고졸	49.3	39.8	8.7	2.2	100.0	(4,555)
대졸	49.5	38.5	10.1	1.9	100.0	(5,673)
대학원졸	44.8	41.8	12.3	1.1	100.0	(440)
혼인상태($\chi^2=30.9^{***}$)						
유배우	49.6	38.7	9.6	2.1	100.0	(10,323)
사별	50.7	42.8	6.5	-	100.0	(138)
이혼·별거·미혼모	39.7	49.3	9.5	1.5	100.0	(546)
취업여부($\chi^2=31.0^{***}$)						
취업	47.2	40.0	10.6	2.2	100.0	(6,220)
비취업	51.7	38.2	8.3	1.8	100.0	(4,789)
가구소득 ²⁾ ($\chi^2=21.5$)						
60%미만	47.5	41.1	9.6	1.8	100.0	(1,517)
60~80%미만	47.3	40.0	10.8	1.9	100.0	(1,714)
80~100%미만	49.3	37.9	10.3	2.5	100.0	(2,119)
100~120%미만	51.2	37.6	8.8	2.4	100.0	(1,923)
120~140%미만	49.3	40.4	8.7	1.5	100.0	(1,034)
140~160%미만	49.5	38.3	10.1	2.1	100.0	(945)
160%이상	49.5	40.0	8.8	1.7	100.0	(1,752)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양한 자녀 가치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견해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적으로 찬성에 4

점, 대체로 찬성에 3점, 별로 찬성하지 않음에 2점,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 1점씩 각각 부과한 후 가중평균점수를 산정하였다. 태도 점수 2.5점을 중심으로 그보다 큰 경우에는 찬성하는 태도가 우세하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태도는 찬성하는 경향이 우세하고(3.16~3.53점/4점), 자녀의 도구적 가치에 대한 태도는 반대하는 경향이 우세하게(2.11~2.45점/4점) 나타났다. 영아의 돌봄으로서 가정 돌봄에 대한 태도는 찬성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3.36점). 이들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기혼여성은 자녀의 도구적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규모보다는 자녀의 질을 중시하여 자녀수를 축소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표 5-17〉 자녀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점)

견해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가중평균 점수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56.0	41.5	2.3	0.2	100.0(11,009)	3.53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48.3	46.0	5.2	0.4	100.0(11,009)	3.42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34.9	48.6	14.3	2.2	100.0(11,008)	3.16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0	21.6	55.6	18.8	100.0(11,007)	2.11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5.8	23.7	48.0	22.6	100.0(11,009)	2.13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7.7	40.2	40.0	12.1	100.0(11,009)	2.44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8.3	38.7	42.9	10.2	100.0(11,009)	2.45
영아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보다 가정에서 키워야 한다	49.2	39.2	9.6	2.0	100.0(11,009)	3.36

제2절 임신 실태

1. 임신 횟수와 종결형태

가. 임신 횟수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 횟수는 2회가 4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회(21.8%), 1회(18.8%), 4회(9.9%), 0회(4.4%), 5회 이상(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신횟수는 2.27회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평균 임신횟수를 보면, 저연령층일수록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등이 진행 중인 관계로 적게 나타났다. 출산이 거의 완료된 45~49세 기혼여성의 평균 임신횟수는 2.67회로 나타났다.

출생자녀수별 임신횟수는 정(+)의 관계로 출생자녀수가 많을수록 임신 횟수도 많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임신 경험이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출생아수가 없는 기혼여성 중 임신횟수가 0회인 경우는 62.5%이며, 나머지 37.5%는 임신 경험이 있으나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수가 1명인 기혼여성 중 임신 횟수가 1회인 경우는 65.9%이며, 나머지 34.1%는 임신횟수가 2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출생아수가 2명인 기혼여성 중 임신횟수가 2회 이하인 비율은 62.7%(이 중 1.0%는 임신횟수가 1회로 쌍생아 출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이며, 37.3%는 임신횟수가 3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5-18〉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 횟수

(단위: %, 명, 회)

구 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4.4	18.8	41.2	21.8	9.9	3.9	100.0	(11,009)	2.27

〈표 5-18〉 계속

(단위: %, 명, 회)

구 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명)	평균
연령 ¹⁾ ($\chi^2=1476.6^{***}$)									
25세 미만	11.3	60.4	20.8	5.7	1.9	-	100.0	(53)	1.27
25~29세	17.2	41.6	33.0	6.1	1.8	0.2	100.0	(488)	1.34
30~34세	9.5	34.4	37.4	13.0	4.5	1.1	100.0	(1,725)	1.72
35~39세	4.6	19.8	42.9	22.4	7.7	2.6	100.0	(2,451)	2.17
40~44세	2.2	14.2	45.4	23.2	10.7	4.5	100.0	(3,049)	2.41
45~49세	1.7	9.8	39.4	27.6	15.1	6.4	100.0	(3,244)	2.67
출생자녀수($\chi^2=14899.8^{***}$)									
0명	62.5	30.6	4.7	1.8	0.3	0.1	100.0	(779)	0.47
1명	-	65.9	24.0	7.5	1.8	0.9	100.0	(2,683)	1.48
2명	-	1.0	61.7	24.1	10.6	2.6	100.0	(6,156)	2.53
3명 이상	-	0.1	3.9	50.6	27.7	17.8	100.0	(1,391)	3.67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임신 방법

전체 임신횟수 중 난임시술에 의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신순위별로 난임시술에 의한 비율을 보면, 첫 번째 임신의 경우 1.5%, 두 번째 임신의 경우 0.8%, 세 번째 임신의 경우 0.6%, 네 번째 임신의 경우 0.4% 등 초기 임신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 비용, 고통 등을 고려할 때 난임시술에 의해 성공된 임신은 그 순위가 초기일(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19〉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순위별 임신 방법

(단위: %, 명)

구 분	첫 번째 임신	두 번째 임신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임신	다섯 번째 임신	여섯 번째 임신	일곱 번째 임신
자연 임신	98.5	99.2	99.4	99.6	100.0	100.0	100.0
난임 시술	1.5	0.8	0.6	0.4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22)	(8,455)	(3,925)	(1,520)	(428)	(102)	(30)

주: 1) 여덟 번째 임신부터는 전체 사례수가 30명 미만으로 분석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임신 종결형태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종결 형태를 살펴보면, 총 임신횟수는 평균 2.38회로 이 중 정상출생 1.82회, 자연유산 0.27회, 인공임신중절 0.25회 등으로 임신소모는 0.52회로 현 임신을 제외하면 전체 중 22.2%로 나타났다. 임신 경험 기혼여성의 거주지별로 임신소모율(이하 현 임신을 제외한 총 임신횟수 중 소모된 횟수의 비율을 의미함)은 농촌에서 23.2%로 도시지역(대도시 22.1%, 중소도시 22.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에 피임실패율이 높고, 보건의료인프라의 취약성 및 접근성 제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연령별 임신소모율은 고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고연령층인 경우 자연유산 경험이 많거나 원하는 자녀수를 출산한 후 발생한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한편, 25세 미만에서 임신소모율이 다소 높은 이유로는 경험이 없거나 준비 부족, 임신 시기 조절 실패 등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 임신소모율은 저학력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학력층일수록 임신 준비 부족, 피임 실패 등의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고연령층 비중이 높아 원하는 자녀수를 출산한 후의 임신에 대해서는 인공중절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초혼연령별로 임신소모율은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다가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소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임신소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임신준비 부족, 임신시기 조절 실패 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초혼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임신소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만혼으로 인하여 생식건강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자연유산이 급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별 임신소모율은 취업 중인 경우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취업여성의 경우 일-가정양립 곤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에 기인하여 인공임신중절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가구소득수준별 임신소모율은 대체적으로 21~22% 수준이나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전국 월평균가구소득의 60%이하)에서 25.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전국 월평균가구소득의 140%이상)에서도 22.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최저소득층의 경우 계획임신 미흡, 최고소득층의 경우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표 5-20〉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종결 형태별 구성비

(단위: 회, %, 명)

구 분	정상출생 횟수	임신소모 횟수					현 임신	총임신 횟수 (평균)	임신 소모율 (현임신 제외)	(명)
		사산	출생과 사산 동시	자연 유산	인공 임신 중절	소계				
전체(평균)	1.82	0.00	0.00	0.27	0.25	0.52	0.04	2.38	22.2	(10,522)
거주지										
대도시	1.79	0.00	0.00	0.27	0.24	0.51	0.03	2.34	22.1	(4,610)
중소도시	1.83	0.00	0.00	0.27	0.25	0.52	0.04	2.39	22.1	(4,370)
농촌	1.84	0.00	0.00	0.30	0.26	0.56	0.04	2.45	23.2	(1,543)
연령 ¹⁾										
25세 미만	0.97	0.00	0.00	0.10	0.08	0.18	0.28	1.43	15.7	(47)
25~29세	1.25	0.00	0.00	0.10	0.07	0.17	0.20	1.62	12.0	(404)
30~34세	1.48	0.00	0.00	0.19	0.09	0.28	0.13	1.90	15.8	(1,561)
35~39세	1.82	0.00	0.00	0.27	0.15	0.42	0.04	2.28	18.8	(2,338)
40~44세	1.92	0.00	0.00	0.29	0.25	0.54	0.00	2.47	21.9	(2,983)
45~49세	1.96	0.00	0.00	0.33	0.42	0.75	0.00	2.71	27.7	(3,189)
교육수준										
중졸이하	1.94	0.00	0.00	0.23	0.55	0.78	0.02	2.73	28.8	(330)
고졸	1.92	0.01	0.00	0.30	0.33	0.64	0.02	2.59	24.9	(4,412)
대졸	1.73	0.00	0.00	0.26	0.17	0.43	0.05	2.21	19.9	(5,369)
대학원 졸업	1.67	0.00	0.00	0.23	0.11	0.34	0.05	2.06	16.9	(411)
초혼연령										
24세 이하	2.05	0.00	0.00	0.28	0.38	0.66	0.02	2.73	24.4	(3,531)
25~29세	1.80	0.00	0.00	0.27	0.20	0.47	0.04	2.31	20.7	(5,233)
30~34세	1.46	0.00	0.00	0.24	0.12	0.36	0.09	1.92	19.7	(1,447)
35세 이상	1.01	0.02	0.00	0.49	0.08	0.59	0.08	1.67	37.1	(288)

〈표 5-20〉 계속

(단위: %, 회, 명)

구 분	정상출생 횟수	임신소모 횟수					현 임신	총임신 횟수 (평균)	임신 소모율 (현임신 제외)	(명)
		사산	출생과 사산 동시	자연 유산	인공 임신 중절	소계				
취업여부										
취업	1.85	0.00	0.00	0.27	0.29	0.56	0.02	2.43	23.2	(5,891)
비취업	1.77	0.00	0.00	0.28	0.19	0.47	0.06	2.31	20.9	(4,631)
출생아수										
0명	0.00	0.00	0.00	0.54	0.14	0.68	0.57	1.25	100.0	(292)
1명	1.00	0.00	0.00	0.25	0.15	0.40	0.07	1.48	28.4	(2,682)
2명	1.98	0.00	0.00	0.25	0.28	0.53	0.01	2.53	21.0	(6,157)
3명 이상	3.02	0.00	0.00	0.35	0.29	0.64	0.00	3.67	17.4	(1,391)
가구소득 ³⁾										
60%미만	1.71	0.00	0.00	0.27	0.32	0.59	0.06	2.36	25.7	(1,433)
60~80%미만	1.76	0.00	0.00	0.26	0.21	0.47	0.06	2.29	21.1	(1,630)
80~100%미만	1.84	0.00	0.00	0.27	0.23	0.50	0.04	2.39	21.3	(2,016)
100~120%미만	1.83	0.00	0.00	0.27	0.25	0.52	0.03	2.38	22.1	(1,839)
120~140%미만	1.85	0.00	0.00	0.28	0.21	0.49	0.03	2.38	20.9	(991)
140~160%미만	1.86	0.01	0.00	0.26	0.27	0.54	0.04	2.42	22.7	(905)
160%이상	1.88	0.00	0.00	0.31	0.24	0.55	0.02	2.44	22.7	(1,703)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인공임신중절 실태

1) 인공임신중절 횟수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없음(81.8%), 1회(13.0%), 2회(4.3%), 3회 이상(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0.25회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평균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을 살펴보면, 고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5~29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5.0%인 반면, 45~49세의 경우에는 29.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연

령층일수록 2회 이상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도 20대에 0.08회에서 45~49세에 0.42회로 많아졌다. 이러한 경향성은 고연령층일수록 임신에 노출 기간이 길어진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출생자녀수가 많을수록 인공임신중절 경험률(2회 이상 경험률도 마찬가지로)과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생자녀수가 많을수록 고연령층으로 임신에 노출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출생자녀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비율은 11.6%(2회 이상 경험률은 1.7%)로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0.14회로 나타났다. 출생자녀수가 1명인 경우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1.7%(평균 횟수 0.15회), 출생자녀수가 2명인 경우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20.6%(평균 횟수 0.28회) 등으로 나타났다. 취업 중인 기혼여성들이 비취업 중인 경우에 비해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높고(21.2%대 14.4%),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도 많게(0.29회대 0.19회) 나타났다.

〈표 5-21〉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인공임신중절 횟수

(단위: %, 명, 회)

구 분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계	(명)	평균	연령 표준화
전체	81.8	13.0	4.3	0.9	100.0	(10,522)	0.25	-
연령 ¹⁾ ($\chi^2=520.5^{***}$)								
25세 미만	93.5	6.5	-	-	100.0	(46)	0.08	-
25~29세	95.0	3.2	1.5	0.2	100.0	(404)	0.07	-
30~34세	92.4	6.1	1.2	0.3	100.0	(1,561)	0.09	-
35~39세	87.9	9.8	2.0	0.3	100.0	(2,338)	0.15	-
40~44세	81.2	13.7	4.4	0.7	100.0	(2,983)	0.25	-
45~49세	70.9	19.2	7.8	2.0	100.0	(3,190)	0.42	-
출생자녀수($\chi^2=122.7^{***}$)								
0명	88.4	9.9	1.0	0.7	100.0	(292)	0.14	0.20
1명	88.3	8.9	2.3	0.5	100.0	(2,682)	0.15	0.18
2명	79.4	14.4	5.1	1.1	100.0	(6,157)	0.28	0.26
3명 이상	78.8	14.9	5.3	1.0	100.0	(1,391)	0.29	0.27

〈표 5-21〉 계속

(단위: %, 명, 회)

구 분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계	(명)	평균	연령 표준화
취업여부($\chi^2=79.3^{***}$)								
취업	78.8	15.0	5.1	1.1	100.0	(5,891)	0.29	0.27
비취업	85.6	10.3	3.4	0.7	100.0	(4,630)	0.19	0.22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자녀의 성별에 따른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를 살펴보았다. 아들만 1명을 둔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0.16회로 딸만 1명을 둔 경우의 0.15회와 큰 차이가 없었다. 2명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 중 아들 1명-딸 1명의 경우 인공임신중절 횟수가 0.30회로 아들만 2명의 경우 0.26회, 딸만 2명의 경우 0.26회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들 1명-딸 1명을 둔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출생자녀수가 3명 이상인 기혼여성의 0.29회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표 5-22〉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자녀 성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횟수

(단위: %, 명, 회)

구 분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계	(명)	평균
출생자녀 성별($\chi^2=149.1^{***}$)							
무자녀(아들0명, 딸0명)	88.4	9.9	1.0	0.7	100.0	(292)	0.14
1명							
아들1명, 딸0명	88.2	8.6	2.6	0.5	100.0	(1,477)	0.16
아들0명, 딸1명	88.3	9.3	1.9	0.5	100.0	(1,205)	0.15
2명							
아들2명, 딸0명	80.4	14.4	4.5	0.7	100.0	(1,603)	0.26
아들0명, 딸2명	81.8	12.2	4.2	1.8	100.0	(1,207)	0.26
아들1명, 딸1명	78.0	15.3	5.7	1.0	100.0	(3,346)	0.30
3명이상	78.8	14.9	5.3	1.0	100.0	(1,391)	0.29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인공임신중절 시기 및 이유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인공임신중절 시기를 살펴보면,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한 비율은 첫 번째 임신에서 5.5%, 두 번째 임신에서 7.9%, 세 번째 임신에서 19.3%, 네 번째 임신에서 29.7%, 다섯 번째 임신에서 29.8%, 여섯 번째 임신에서는 23.3%로 나타났다. 임신순위가 높을수록 인공임신중절 비율이 높은 주된 이유로는 고임신순위일수록 희망 자녀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 해결책으로 인공임신중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5-23〉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인공임신중절 시기

(단위: %, 명)

구 분	임신 시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공임신중절 여부						
아니오	94.5	92.1	80.7	70.3	70.2	76.7
예	5.5	7.9	19.3	29.7	29.8	2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371)	(8,286)	(3,877)	(1,496)	(422)	(1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임신시기별 인공임신중절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첫 번째 임신을 인공중절한 가장 주된 이유는 혼전 임신(53.2%)이었으며, 두 번째 임신을 인공중절한 이유는 터울조절(27.6%), 임부 건강상 및 자궁외 임신(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임신을 인공중절한 이유는 원하는 만큼의 자녀출산(38.5%)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경제적 이유(15.1%), 임부 건강상 및 자궁외임신(14.7%) 등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임신을 인공중절한 이유는 원하는 만큼 자녀출산이 5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곤란(21.9%)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임신을 인공중절한 이유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첫 번째 임신 중 혼전 임신으로 인공중절로 귀결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한국사회에서 혼전 임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한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임신부터 자녀 ‘수’에 대한 조절을 위하여 주로 인공중절로 종결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자녀 가치관의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세 번째 임신부터는 경제적 곤란으로 인공중절을 선택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데, 그만큼 다자녀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높음을 시사해 준다.

〈표 5-24〉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시기별 인공임신중절 이유

(단위: %, 명)

인공임신중절 이유	임신 시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번째
원하는 만큼 자녀 출산	-	3.7	38.5	51.8	45.9
터울 조절	0.3	27.6	10.3	3.1	-
임부 건강상/자궁외임신	15.8	18.0	14.7	9.1	14.6
태아 이상	11.4	12.4	9.9	5.1	3.7
혼전 임신	53.2	5.8	0.8	0.5	-
가정 문제	2.1	4.1	3.4	2.9	1.5
경제적 곤란	11.4	15.1	15.1	21.9	30.1
태아가 딸이었으므로	-	1.2	1.1	2.4	0.4
태아가 아들이었으므로	-	-	0.2	-	-
취업 중이어서	1.7	3.5	1.7	1.1	2.0
기타	3.9	8.5	4.3	2.1	1.8
계(명)	100.0(566)	100.0(658)	100.0(749)	100.0(443)	100.0(126)

주: 여섯 번째 임신부터는 사례수가 30명 미만으로 분석하지 않음.

2. 남아 출산을 위한 노력

기혼여성(15~49세)의 ‘남아 출산을 위한 노력 경험’ 여부와 노력 유형을 조사하였다. 전체 기혼여성 중 남아를 출산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4%에 불과했다. 기혼여성의 경험률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연령층일수록, 비취업에 비해 취업 중인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남아선호도가 높은데다가 임신노출기간이 길어 남아 출산을 위한 노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저학력층일수록 노력 경험률이 높은 경향은 노후 등을 대비하여 아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별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라는 점에서 남아선호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취업여성은 비취업여성에 비해 기회비용이 높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적은 수의 자녀 중 반드시 아들을 두기 위하여서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남아출산 노력 비율이 가구소득에 따라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고소득층일수록 소자녀를 희망하면서 아들을 선호할 경우 실천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표 5-25〉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남아 출산을 위한 노력

(단위: %, 명)

구 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이 있는 경우 노력유형					계	(명)
			자연 요법	양수 검사	용모막 검사	초음파 검사	기타		
전체	95.6	4.4	66.8	4.9	0.3	20.7	7.3	100.0	(10,522)
거주지($\chi^2=5.0$)									
대도시	95.9	4.1	64.2	4.3	-	23.5	8.0	100.0	(4,610)
중소도시	95.1	4.9	68.1	3.8	0.5	20.2	7.5	100.0	(4,370)
농촌	96.2	3.8	70.7	12.1	-	13.8	3.4	100.0	(1,543)
연령 ¹⁾ ($\chi^2=50.2^{***}$)									
25세 미만	100.0	-	-	-	-	-	-	100.0	(47)
25~29세	98.3	1.7	83.3	-	-	16.7	-	100.0	(404)
30~34세	97.4	2.6	73.2	7.3	-	14.6	4.9	100.0	(1,560)
35~39세	96.7	3.3	70.5	5.1	-	17.9	6.4	100.0	(2,338)
40~44세	95.3	4.7	66.9	3.6	0.7	19.4	9.4	100.0	(2,983)
45~49세	93.9	6.1	63.4	5.2	-	24.2	7.2	100.0	(3,190)
교육수준($\chi^2=5.1$)									
중졸이하	93.9	6.1	65.0	-	-	10.0	25.0	100.0	(330)
고졸	95.6	4.4	60.3	7.7	0.5	24.2	7.2	100.0	(4,411)
대졸	95.6	4.4	70.9	3.4	-	19.7	6.0	100.0	(5,370)
대학원졸	97.3	2.7	100.0	-	-	-	-	100.0	(411)

〈표 5-25〉 계속

(단위: %, 명)

구 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이 있는 경우 노력유형					계	(명)
			자연 요법	양수 검사	용모막 검사	초음파 검사	기타		
혼인상태($\chi^2=0.2$)									
유배우	95.6	4.4	68.4	4.4	0.2	21.2	5.8	100.0	(9,854)
사별	96.4	3.6	60.0	-	-	20.0	20.0	100.0	(137)
이혼·별거·미혼모	95.7	4.3	37.5	16.7	-	12.5	33.3	100.0	(530)
취업여부($\chi^2=5.6$)									
취업	95.2	4.8	67.3	4.6	0.4	20.3	7.5	100.0	(5,891)
비취업	96.2	3.8	66.1	5.1	-	21.5	7.3	100.0	(4,631)
가구소득 ²⁾ ($\chi^2=34.7^{***}$)									
60%미만	97.8	2.2	50.0	6.3	-	21.9	21.9	100.0	(1,433)
60~80%미만	96.9	3.1	62.7	5.9	2.0	25.5	3.9	100.0	(1,629)
80~100%미만	95.7	4.3	67.4	5.8	-	19.8	7.0	100.0	(2,016)
100~120%미만	95.2	4.8	62.9	4.5	-	21.3	11.2	100.0	(1,839)
120~140%미만	94.2	5.8	68.4	7.0	-	24.6	-	100.0	(991)
140~160%미만	95.0	5.0	91.1	-	-	8.9	-	100.0	(905)
160%이상	94.4	5.6	67.7	3.1	1.0	20.8	7.3	100.0	(1,703)
현존자녀수($\chi^2=176.9^{***}$)									
0명	98.7	1.3	100.0	-	-	-	-	100.0	(297)
1명	98.3	1.7	50.0	13.0	-	26.1	10.9	100.0	(2,694)
2명	95.7	4.3	77.3	2.3	-	14.4	6.1	100.0	(6,176)
3명 이상	89.4	10.6	51.7	7.6	0.7	31.0	9.0	100.0	(1,355)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피임 실태

가. 피임실천율

전체 유배우여성(15~49세)의 피임실천율은 79.6%로 나타났다. 농촌보다 도시(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고연령층인 경우, 비취업보다 취업 중인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경우는 출산을 중단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산시기를 조절하는 경우일 것이다. 저연령층이거나 자녀수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 피임실천은 주로 일시적 출산시기 조절에 한정되어 그만큼 피임실천율은 낮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고연령층이거나 현존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는 임신을 종결하기 위하여 그만큼 피임실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실질적으로 가구소득은 연령과 비례한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에서의 높은 피임실천율은 연령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취업 중인 경우 일-가정양립 곤란, 기회비용 등으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자녀수 억제를 위해 피임실천율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의 차이는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교육수준별 기혼여성의 연령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으로 간주해볼 수 있겠다.

〈표 5-26〉 유배우여성(15~49세)의 피임 실천

(단위: %, 명)

구 분	현재 피임 중	현재 피임하지 않음		계	(명)
		과거 경험 있음	과거 전혀 경험 없음		
전체	79.6	11.1	9.3	100.0	(10,324)
거주지($\chi^2=13.3$)					
대도시	80.6	10.9	8.5	100.0	(4,468)
중소도시	79.7	10.8	9.5	100.0	(4,327)
농촌	76.5	12.6	10.9	100.0	(1,530)
연령 ¹⁾ ($\chi^2=853.1^{***}$)					
25세 미만	46.9	20.4	32.7	100.0	(49)
25~29세	49.4	26.3	24.3	100.0	(482)
30~34세	62.0	21.6	16.3	100.0	(1,689)
35~39세	80.8	11.1	8.1	100.0	(2,377)
40~44세	88.6	5.1	6.3	100.0	(2,860)
45~49세	85.6	8.2	6.1	100.0	(2,868)
교육수준($\chi^2=41.2^{***}$)					
중졸이하	76.7	11.5	11.9	100.0	(253)
고졸	82.6	9.4	8.0	100.0	(4,133)
대졸	77.7	12.1	10.2	100.0	(5,506)
대학원졸	77.4	14.1	8.5	100.0	(434)

〈표 5-26〉 계속

(단위: %, 명)

구 분	현재 피임 중	현재 피임하지 않음		계	(명)
		과거 경험 있음	과거 전혀 경험 없음		
취업여부($\chi^2=57.8^{***}$)					
취업	82.3	9.8	7.9	100.0	(5,654)
비취업	76.3	12.7	11.0	100.0	(4,670)
출생자녀수($\chi^2=2534.1^{***}$)					
0명	25.8	29.2	45.0	100.0	(756)
1명	63.3	19.6	17.1	100.0	(2,468)
2명	91.0	6.2	2.8	100.0	(5,795)
3명 이상	91.0	6.2	2.8	100.0	(1,302)
가구소득 ²⁾ ($\chi^2=179.3^{***}$)					
60%미만	68.9	14.4	16.7	100.0	(1,060)
60~80%미만	73.5	14.0	12.5	100.0	(1,588)
80~100%미만	81.1	10.2	8.7	100.0	(2,071)
100~120%미만	82.9	9.6	7.5	100.0	(1,903)
120~140%미만	80.2	12.2	7.6	100.0	(1,023)
140~160%미만	82.9	9.9	7.3	100.0	(934)
160%이상	84.5	9.1	6.4	100.0	(1,738)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피임 목적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여성의 피임 목적은 단산이 92.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7.0%만이 출산 연기로 나타났다. 출산자녀수별로 피임 목적을 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단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출산 연기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결혼생활 초기의 피임은 주로 출산 연기에 기인하나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희망 자녀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추가 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임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무자녀인 경우에도 피임실천 유배우여성 중 30.1%가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 무자녀이면서 출산을 연기하기 위하여 피임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고, 1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 추가 출산 연기를 위하여 피임을 실천하는 비율이 전체 피임실천 유배우여성 중 19.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5-27〉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여성(15~49세)의 피임 목적

(단위: %, 명)

구 분	단산	출산연기	기타	계	(명)
전체	92.9	7.0	0.1	100.0	(8,219)
출산자녀수					
0명	30.1	67.9	2.0	100.0	(196)
1명	80.5	19.4	0.1	100.0	(1,563)
2명	97.7	2.3	0.0	100.0	(5,275)
3명 이상	98.5	1.5	-	100.0	(1,185)

주: 1)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산 연기를 목적으로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 질문한 결과, 터울 조절(33.0%), 소득 부족(14.5%), 자녀 양육비용 부담(12.7%), 부부중심 생활(10.6%), 사회활동 지장(10.1%),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혼여성의 거주지별로는 전체 패턴과 유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35세 미만의 저연령층에서는 터울조절, 소득부족, 부부중심 생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층에서 향후 가임기간에 다소 여유가 있고, 가구소득이 낮고, 부부 중심의 가치관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35세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출산 연기의 목적으로 터울조절과 자녀 양육비용 부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소득부족, 터울조절 및 자녀 양육비용 부담의 이유가 높게 나타난 반면,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는 터울조절, 사회활동 지장, 부부중심 생활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우 고소득 등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취업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 불안, 사회활동 지장,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비취업 여성의 경우에는 터울조절, 소득 부족, 양육비 부담 등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가구소득수준별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부족의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 100% 미만의 가구에서는 소득 부족과 자녀 양육비용 부담의 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터울조절의 이유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120% 이상의 가구에서는 사회활동 지장의 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은 층이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5-28〉 출산연기를 목적으로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여성(15~49세)의 출산연기 이유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¹⁾	계	(명)
전체	33.0	14.5	2.5	12.7	8.0	2.6	10.1	10.6	1.9	0.6	3.6	100.0	(577)
거주지													
대도시	35.5	13.1	3.1	12.0	8.5	2.3	10.4	7.7	1.9	0.4	5.0	100.0	(259)
중소도시	29.4	15.8	2.2	11.8	8.8	3.5	12.3	12.7	0.9	0.9	1.8	100.0	(228)
농촌	34.1	15.4	2.2	16.5	4.4	1.1	3.3	13.2	4.4	-	5.5	100.0	(91)
연령 ²⁾													
30세 미만	35.6	19.3	1.5	9.6	5.2	0.7	8.9	15.6	0.7	1.5	1.5	100.0	(135)
30~34세	36.8	13.8	1.1	10.0	8.6	4.1	12.6	8.6	0.4	-	4.1	100.0	(269)
35~39세	26.4	10.8	4.1	18.2	10.8	2.0	6.8	10.1	6.1	0.7	4.1	100.0	(148)
40~49세	20.0	20.0	8.0	24.0	-	-	8.0	12.0	-	4.0	4.0	100.0	(25)
교육수준 ³⁾													
고졸이하	26.6	28.5	2.5	17.7	5.1	-	6.3	8.9	0.6	0.6	3.2	100.0	(158)
대졸	35.0	9.0	2.7	11.4	10.1	4.0	11.7	10.9	1.6	0.8	2.9	100.0	(377)
대학원졸	37.2	9.3	-	4.7	2.3	-	11.6	14.0	9.3	-	11.6	100.0	(43)
취업여부($\chi^2=77.1^{***}$)													
취업	22.4	12.8	3.5	11.9	10.3	4.8	16.0	12.2	2.2	1.3	2.6	100.0	(312)
비취업	45.7	16.2	1.1	13.6	5.3	-	3.0	8.7	1.5	-	4.9	100.0	(265)

〈표 5-28〉 계속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¹⁾	계	(명)
가구소득 ⁴⁾													
60%미만	29.9	41.6	3.9	9.1	3.9	-	1.3	9.1	-	-	1.3	100.0	(77)
60~80%미만	30.4	18.8	2.7	19.6	6.3	-	5.4	12.5	0.9	-	3.6	100.0	(112)
80~100%미만	32.0	13.3	1.6	17.2	4.7	2.3	10.9	10.9	0.8	1.6	4.7	100.0	(128)
100~120%미만	32.1	7.5	4.7	11.3	11.3	1.9	8.5	14.2	4.7	-	3.8	100.0	(106)
120~140%미만	29.0	6.5	3.2	11.3	14.5	9.7	14.5	8.1	-	-	3.2	100.0	(62)
140~160%미만	47.8	-	-	-	4.3	8.7	30.4	4.3	-	4.3	-	100.0	(23)
160%이상	43.9	1.5	-	1.5	13.6	3.0	16.7	9.1	3.0	1.5	6.1	100.0	(66)

* p<0.05, ** p<0.01, *** p<0.001

주: 1) ① 턱물조절, ② 소득이 적어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④ 자녀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⑤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⑥ 출산으로 인한 직장 차별, ⑦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⑧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⑨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⑩ 장애 또는 만성질환 등의 가족수발 때문에, ⑪ 기타

2) 30세 미만에는 15~19세 2명, 20~24세 13명이 그리고 40~49세에서 45~49세가 1명 포함되어 있음.

3) 고졸이하에는 중졸이하 13명이 포함되어 있음.

4)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피임방법

피임방법은 피임 실천자의 성별, 피임 효과의 지속성 등에 의해 다양하다. 우선, 피임 실천자의 성별에 따라 정관수술, 콘돔, 질외사정법 등과 같은 남성의 피임방법과 난관수술, 사전 혹은 사후 경구 피임약, 자궁내장치, 난관수술 등과 같은 여성의 피임방법으로 구분된다. 피임효과의 지속성을 기준으로서는 콘돔, 경구 피임약 등과 같은 일시적 효과를 내는 피임방법, 자궁내 장치와 같은 일정 기간 유지되면서도 비영구적인 피임방법, 그리고 피임 효과가 가장 높은 정관수술 또는 난관수술과 같은 영구 피임방법으로 구분된다. 피임방법 선택은 피임의 목적, 피임실천자의 선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체적으로 유배우여성과 남편이 현재 사용 중인 피임방법을 살펴보면, 콘돔,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 정관수술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유배우여성이 고연령층일수록 난관수술, 정관수술 등과 같은 영구적 피임방법과 자궁내장치와 같은 반영구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40세 이상에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연령층일수록 콘돔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고연령층일수록 원하는 수의 자녀출산을 완료하고 단산을 위하여 불임시술을 수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저연령층일수록 임신이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태울조절을 위한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출생자녀수가 많을수록 정관수술과 같은 영구 피임방법과 자궁내장치와 같은 반영구 피임방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수가 적을수록 콘돔,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 경구피임약 등과 같은 일시적 피임방법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교육수준별로 보면, 저학력층일수록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사전경구피임약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학력층일수록 콘돔, 월경주기법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체적으로 여성용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취업 중인 경우 정관수술과 같은 영구 피임방법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비취업 중인 경우에는 콘돔,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 등과 같은 일시적 피임방법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 여성의 경우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48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표 5-29〉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현재 피임 방법(중복응답)

(단위: %, 명)

구 분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자궁내 장치	사전경구 피임약	사후경구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 주기법	질외 사정법	기타 (대상자수)
전체	7.6	23.0	12.4	2.9	0.5	30.2	0.4	31.5	24.8	0.2 (8,219)
거주지										
대도시	6.9	22.0	11.5	2.9	0.5	32.5	0.3	34.7	27.3	0.2 (3,600)
중소도시	7.7	24.6	13.0	3.0	0.4	28.4	0.3	29.3	22.9	0.2 (3,450)
농촌	9.3	21.1	13.3	2.9	0.6	28.2	0.7	28.3	23.2	0.4 (1,170)
연령 ¹⁾										
30세 미만	2.5	6.4	6.4	12.3	1.0	49.8	-	32.4	34.5	0.4 (261)
30~34세	3.5	10.2	7.6	4.9	1.0	44.3	0.6	41.3	33.9	0.1 (1,048)
35~39세	5.0	16.9	9.3	3.1	0.2	38.9	0.3	37.2	28.5	0.3 (1,921)
40~44세	8.3	26.5	13.1	2.5	0.4	27.0	0.3	29.2	23.7	0.2 (2,533)
45~49세	11.2	31.3	16.6	1.5	0.5	18.5	0.4	25.2	18.3	0.2 (2,456)
교육수준										
중졸이하	17.0	19.6	20.0	4.9	1.3	20.6	-	22.2	15.6	- (194)
고졸	10.3	25.5	16.4	3.1	0.5	23.2	0.5	26.5	21.6	0.4 (3,413)
대졸	5.3	21.3	9.2	2.8	0.5	35.4	0.3	35.4	27.8	0.1 (4,277)
대학원졸	4.7	20.4	7.5	1.5	0.2	40.0	-	39.2	25.4	0.2 (336)
취업여부										
취업	7.6	24.1	14.8	2.8	0.4	27.3	0.5	30.2	24.0	0.3 (4,655)
비취업	7.6	21.5	9.2	3.1	0.6	33.9	0.2	33.2	26.0	0.1 (3,564)
가구소득 ²⁾										
60%미만	8.6	16.1	12.4	3.7	0.9	34.3	0.4	33.6	27.8	- (730)
60~80%미만	7.7	17.8	11.9	4.4	0.7	33.7	0.3	31.5	27.0	0.2 (1,167)
80~100%미만	8.0	22.6	13.8	2.7	0.3	30.4	0.3	31.7	22.8	0.2 (1,679)
100~120%미만	8.3	21.5	12.7	2.9	0.4	28.8	0.6	31.6	25.0	0.5 (1,577)
120~140%미만	9.3	22.6	13.6	3.0	0.6	29.7	0.8	30.9	22.8	0.2 (820)
140~160%미만	5.2	31.5	10.5	2.2	0.8	28.4	0.4	28.8	23.7	0.2 (774)
160%이상	6.1	28.2	11.1	1.9	0.3	27.6	-	32.1	25.6	0.1 (1,468)
출생자녀수										
0명	-	4.3	5.7	12.7	2.1	55.5	0.4	41.2	28.2	- (195)
1명	1.7	8.9	11.5	4.7	0.6	40.5	0.5	43.3	32.8	0.2 (1,563)
2명	8.3	26.6	12.2	2.1	0.4	28.0	0.3	29.8	23.7	0.1 (5,275)
3명 이상	13.6	28.6	15.3	2.5	0.3	21.8	0.3	22.1	18.7	0.6 (1,185)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2명, 20~24세 21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난임 실태

가. 난임 경험 및 진단

난임(불임)이란 임신 가능한 연령의 남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이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로 나타났다.

초혼연령과 유배우여성의 난임경험률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결혼을 늦게 할수록 가임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조사당시 출생아수별로 난임경험률은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출생아수가 없는 유배우부인의 난임 경험률은 38.0%로 무자녀 가정의 상당 비중이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난임 경험률은 출생아수가 1명인 경우 20.7%, 출생아수가 2명인 경우 8.1% 등으로 출생아수에 따라 급격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난임으로 인하여 출산이 제약되어 있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5-30〉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난임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13.2	86.8	100.0	(10,324)
초혼연령($\chi^2=131.8^{***}$)				
24세 이하	9.5	90.5	100.0	(3,168)
25~29세	13.1	86.9	100.0	(5,232)
30~34세	18.0	82.0	100.0	(1,570)
35세 이상	27.5	72.5	100.0	(353)

〈표 5-30〉 계속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출생자녀수($\chi^2=699.1^{***}$)				
0명	38.0	62.0	100.0	(757)
1명	20.7	79.3	100.0	(2,469)
2명	8.1	91.9	100.0	(5,796)
3명 이상	7.3	92.7	100.0	(1,30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난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유배우여성(15~49세) 중 양방병원에서 난임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37.1%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초혼연령이 늦은 경우 난임 진단 경험율이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혼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난임 진단 경험율은 28.5%인 반면, 초혼연령이 30~34세인 경우 난임 진단 경험율은 44.9%로 나타났다.

출생아수가 없는 경우 난임 진단 경험율은 52.1%로 난임을 경험한 경우 과반수가 실제 진단을 받아 출산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한편, 조사당시 출생아수가 있음에도 난임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출생아수가 1명인 경우 36.4%, 출생아수가 2명인 경우 32.3% 그리고 출생아수가 3명 이상인 경우 20.0%로 각각 나타났다. 이 또한 난임 발생으로 출산이 축소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5-31〉 난임 경험이 있는 유배우여성(15~49세)의 난임 진단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37.1	62.9	100.0	(1,364)
초혼연령($\chi^2=17.2^{**}$)				
24세 이하	28.5	71.5	100.0	(302)
25~29세	37.9	62.1	100.0	(683)
30~34세	44.9	55.1	100.0	(283)
35세 이상	36.1	63.9	100.0	(97)

〈표 5-31〉 계속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출생자녀수($\chi^2=44.4^{***}$)				
0명	52.1	47.9	100.0	(288)
1명	36.4	63.6	100.0	(511)
2명	32.3	67.7	100.0	(471)
3명 이상	20.0	80.0	100.0	(9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난임 원인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난임 원인 제공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원인 불명 44.0%, 여성이 원인 41.6%, 남편이 원인 11.0%, 부부 모두가 원인 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2〉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 부부 중 원인 제공자

(단위: %, 명)

구 분	비율
부인에게만	41.6
남편에게만	11.0
부부 모두에게	3.4
부부 모두 원인 불명	44.0
계(명)	100.0(50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난임의 원인이 부인에게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원인을 질문한 결과, 배란 장애(37.5%), 나팔관 장애(37.2%), 자궁내막 장애(1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난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정자무력증(43.5%), 희소정자증(35.3%), 무정자증(1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3〉 난임의 구체적 원인(중복응답)

(단위: %, 명)

난임의 원인 (여성)	비율(%)	난임의 원인 (남성)	비율(%)
나팔관장애	37.2	무정자증	13.2
배란장애	37.5	희소정자증	35.3
염색체 이상	0.6	정자무력증	43.5
자궁경관장애	0.9	염색체이상	4.7
자궁내막 장애	17.8	기타	7.6
조기 폐경	2.7	모름	0.8
습관성 유산	4.9		
기타	10.4		
잘 모름	2.0		
(대상자수)	(228)	(대상자수)	(7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난임 치료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치료 여부를 질문한 결과, 75.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진단과 다르게 난임 치료는 실제 성공 여부(이에 따라 출산 가능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 당시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과거에 난임 치료를 성공한 결과로도 간주할 수 있겠다. 한편, 난임치료 시기와 출산시기 간의 전후 관계가 혼재되어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조사 당시 출생아가 없는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여성 중 73.3%가 난임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실제 난임 진단을 받았던 유자녀 유배우여성들의 난임 치료 경험률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표 5-34〉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치료 여부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75.5	24.5	100.0	(506)
출생아수($\chi^2=5.6$)				
0명	73.3	26.7	100.0	(150)
1명	79.7	20.3	100.0	(187)
2명	70.9	29.1	100.0	(151)
3명 이상	88.9	11.1	100.0	(1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15~49세) 또는 남편이 난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장소로는 중복응답 결과 양방병원 98.6%, 한방병원 22.7%로 나타났다.

〈표 5-35〉 난임 치료 경험이 있는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치료 장소(중복응답)
(단위: %, 명)

구 분	양방병원	한방병원	기타	(대상자수)
전체	98.6	22.7	0.7	(382)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경험을 질문한 결과, 59.9%가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시술 시기와 조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나 적어도 상대적 소득수준의 차이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살펴보면, 유배우여성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경험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경험률의 차이가 좁혀지거나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당시 출생아수를 기준으로 보면, 출생아수별로 난임시술 경험률은 대체적으로 50%대이며, 출생아수가 1명인 경우에만 65.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유의할만한 것은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유배우여성(부부) 중 난임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58.0%로 높다는 점이다.

〈표 5-36〉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여부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59.9	40.1	100.0	(506)

〈표 5-36〉 계속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가구소득 ¹⁾ ($\chi^2=8.6$)				
60%미만	63.5	36.5	100.0	(74)
60~80%미만	56.4	43.6	100.0	(78)
80~100%미만	61.4	38.6	100.0	(88)
100~120%미만	56.0	44.0	100.0	(75)
120~140%미만	68.3	31.7	100.0	(41)
140~160%미만	43.2	56.8	100.0	(44)
160%이상	64.5	35.5	100.0	(107)
출생아수($\chi^2=4.6$)				
0명	58.0	42.0	100.0	(150)
1명	65.8	34.2	100.0	(187)
2명	55.0	45.0	100.0	(151)
3명 이상	55.6	44.4	100.0	(18)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난임 시술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신 후 출산(55.8%)과 현재 임신 중(3.3%)을 합하면 거의 60% 수준(59.1%)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신 실패는 30.8%, 임신 후 출산 실패는 7.5% 등으로 나타났다.

〈표 5-37〉 난임 시술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시술 결과

(단위: %, 명)

구 분	비율
임신 후 출산	55.8
현재 임신 중	3.3
임신 후 출산 실패	7.5
임신 실패	30.8
현재 시술 중	2.6
계(명)	100.0(30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이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힘들었던 점을 살펴보면,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41.0%), 경제적 부담(25.9%), 신체적으로 힘들어서(2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8〉 난임 시술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시술 시 힘들었던 점

(단위: %, 명)

구 분	비율
경제적 부담	25.9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41.0
시댁부모와 가족의 편견	2.1
남편의 비협조와 무시	0.1
사회적 편견	1.2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24.6
시간이 없어서	1.3
직장 때문에	3.4
기타	0.4
계(명)	100.0(30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난임 시술을 하였던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시술 중단 경험률은 34.4%로 나타났다. 출생아수별로 보면, 무자녀인 경우 난임시술을 중단한 비율이 절반에 이르렀다. 출생아수가 1명인 경우에는 30.9%, 출생아수가 2명인 경우에는 26.2%, 출생아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8.2%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출생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난임시술을 중단하다가 다시 시도하여 성공하였거나 혹은 이미 출생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추가 출산을 위해 난임시술을 시도하다가 중단하는 등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 가구소득수준별로 시술 중단 경험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소득층일수록 다소 높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표 5-39〉 난임 시술을 받은 유배우부인(15~49세)과 남편의 시술 중단 경험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34.4	65.6	100.0	(303)
출생아수($\chi^2=13.7^*$)				
0명	50.0	50.0	100.0	(86)
1명	30.9	69.1	100.0	(123)
2명	26.2	73.8	100.0	(84)
3명 이상	18.2	81.8	100.0	(11)

〈표 5-39〉 계속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가구소득 ¹⁾ ($\chi^2=12.0$)				
60%미만	46.8	53.2	100.0	(47)
60~80%미만	29.5	70.5	100.0	(44)
80~100%미만	25.9	74.1	100.0	(54)
100~120%미만	35.7	64.3	100.0	(42)
120~140%미만	25.0	75.0	100.0	(28)
140~160%미만	15.8	84.2	100.0	(19)
160%이상	43.5	56.5	100.0	(69)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 중 난임 시술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치료에 성공해서(20.7%)’,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18.2%)’,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난임 시술을 받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서’가 41.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28.6%)’, ‘가능성이 없어 보여(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0〉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시술경험이 없거나 받다가 중단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시술을 한번도 받지 않은 이유	구성비(%)	시술을 중단한 이유	구성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11.8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28.6
(추가)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8.4	(추가)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1.0
영구 불임 판정을 받아서	6.4	영구 불임 판정을 받아서	1.0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서	8.9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서	41.0
정보가 없어서	4.4	정보가 없어서	-
시간이 없어서	6.4	시간이 없어서	1.0
치료에 성공해서	20.7	치료에 성공해서	1.9
시술에 성공해서	-	시술에 성공해서	5.7
직장 때문에	3.9	직장 때문에	1.9
가능성 없어 보여서	18.2	가능성 없어 보여서	17.1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	2.0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	-
기타	8.9	기타	1.0
계(명)	100.0(203)	계(명)	100.0(10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여성을 대상으로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대해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경험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8.1%로 나타났다. 이들의 만족도는 만족 67.2%(매우 만족 20.6% 포함), 보통 27.3%, 불만족 5.5% 등으로 나타났다.

〈표 5-41〉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여성(15~49세)과 남편의 난임으로 인한 정서·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 또는 진료 경험 및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만족도					계	(명)	계	(명)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91.9	8.1	20.6	46.6	27.3	5.5	-	100.0	(41)	100.0	(50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3절 출산 행태

1. 결혼 시 출산 계획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수로는 2명이 57.2%, 1명이 15.2%, 생각해보지 않음 14.5%, 3명이 9.6%, 4명 이상이 2.9%, 무자녀가 0.6%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9.7%가 결혼 당시 2명 이상의 출산을 계획한 것이다. 전체 기혼여성의 평균 계획자녀수는 2.0명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거주지에 따라서는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할수록 결혼 당시 계획 자녀수로 3~4명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보면, 계획 자녀수로 3~4명 이상의 비율이 20대에서 높고,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출산

을 완료했거나 거의 완료에 가까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실제 자녀수를 고려하여 응답하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 효과로 간주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학력층일수록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가 무자녀 또는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저학력층일수록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 보면, 취업여성의 계획 자녀수가 2명인 비율이 더 높은 반면, 계획 자녀수가 3~4자녀 이상인 비율은 비취업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일수록 계획자녀수가 2명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3자녀 이상 다자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42〉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당시 계획 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생각해보지 않았음	계	(명)	평균
전체	0.6	15.2	57.2	9.6	2.9	14.5	100.0	(10,988)	2.00
거주지($\chi^2=42.7^{***}$)									
대도시	0.4	15.1	59.2	8.4	2.6	14.4	100.0	(4,789)	1.98
중소도시	0.7	15.7	56.5	10.0	2.8	14.4	100.0	(4,580)	1.99
농촌	0.6	14.4	53.5	12.1	4.2	15.3	100.0	(1,616)	2.08
연령 ¹⁾ ($\chi^2=190.4^{***}$)									
25세 미만	-	18.8	56.3	16.7	4.2	4.2	100.0	(48)	2.11
25~29세	0.2	13.2	49.0	20.0	5.1	12.6	100.0	(486)	2.20
30~34세	0.8	17.2	53.1	13.1	3.4	12.4	100.0	(1,720)	2.02
35~39세	0.9	16.6	54.9	9.9	3.0	14.7	100.0	(2,448)	1.98
40~44세	0.3	15.6	58.8	8.1	2.8	14.5	100.0	(3,048)	1.98
45~49세	0.5	13.1	61.0	7.1	2.4	15.9	100.0	(3,247)	1.98
교육수준($\chi^2=46.0^{**}$)									
중졸이하	-	14.8	50.4	9.8	3.3	21.7	100.0	(337)	2.03
고졸	0.6	14.0	57.5	9.0	3.4	15.6	100.0	(4,543)	2.02
대졸	0.5	16.1	57.4	10.0	2.6	13.4	100.0	(5,669)	1.98
대학원졸	1.1	16.8	56.9	9.8	2.7	12.7	100.0	(441)	1.95
취업여부($\chi^2=22.2^{***}$)									
취업	0.5	14.5	58.9	8.9	2.7	14.5	100.0	(6,208)	1.99
비취업	0.6	16.2	55.0	10.5	3.2	14.6	100.0	(4,782)	2.01

〈표 5-42〉 계속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생각해보지 않았음	계	(명)	평균
가구소득 ²⁾ ($\chi^2=119.1^{***}$)									
60%미만	0.7	16.4	52.5	7.9	3.5	19.0	100.0	(1,502)	1.99
60~80%미만	0.9	15.5	52.4	11.5	3.6	16.1	100.0	(1,711)	2.03
80~100%미만	0.3	15.0	56.4	11.2	3.1	14.0	100.0	(2,117)	2.03
100~120%미만	0.6	14.5	59.9	10.0	2.5	12.5	100.0	(1,923)	2.00
120~140%미만	0.1	15.3	57.1	9.6	3.5	14.4	100.0	(1,033)	2.02
140~160%미만	0.8	14.2	62.5	8.6	1.3	12.6	100.0	(944)	1.95
160%이상	0.5	15.5	61.2	7.2	2.6	13.0	100.0	(1,752)	1.96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6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의 출산 수준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아수는 2명(55.9%), 1명(24.4%), 3명(11.6%), 0명(7.1%), 4명 이상(1.0%)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그 결과 평균 출생아수는 1.75명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별로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1명 비율은 대도시에서 그리고 3명과 4명 이상의 비율은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평균 출생아수는 연령 표준화(전체 연령구조를 표준으로 적용) 전후 공히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많았다. 기혼여성 중 고연령층일수록 2명, 3명 및 4명 이상의 비율이 높고, 저연령층일수록 0명과 1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산이 거의 완료된 40~44세와 45~49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각각 1.90명과 1.95명이었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학력층일수록 0명과 1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학력층일수록 3명과 4명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 기혼여성의 경우 고연령, 낮은 기회비용(출산으로 인한) 등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출산을 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연령, 높은 기회비용 등으

로 인하여 출산을 상대적으로 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해준다.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평균 출생아수는 사별, 유배우, 이혼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사별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고연령층으로 기 출생아수가 가장 많고, 이혼·별거·미혼모의 경우에는 출산이 중단된 관계로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 표준화 후에 평균 출생아수는 유배우, 사별, 이혼·별거·미혼모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고소득층일수록 평균 출생아도 많이 나타나, 이른바 소득효과(income effect)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 표준화 후에 평균 출생아수는 오히려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연령구조가 동일하다면 고소득층에서 기회비용, 즉 가격효과(price effect)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5-43〉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아수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	(명)	평균 (연령 비표준화)	평균 (연령 표준화)
전체	7.1	24.4	55.9	11.6	1.0	100.0	(11,009)	1.75	-
거주지($\chi^2=20.5^{**}$)									
대도시	6.6	25.7	55.9	10.9	0.9	100.0	(4,797)	1.74	1.73
중소도시	7.4	23.1	56.7	12.0	0.9	100.0	(4,589)	1.76	1.77
농촌	7.6	24.2	54.0	12.7	1.5	100.0	(1,623)	1.77	1.79
연령 ¹⁾ ($\chi^2=1455.6^{***}$)									
25세 미만	22.6	69.8	7.5	-	-	100.0	(53)	0.86	-
25~29세	27.5	44.4	25.1	2.7	0.4	100.0	(487)	1.04	-
30~34세	16.2	39.4	37.0	7.2	0.2	100.0	(1,725)	1.36	-
35~39세	7.0	24.5	55.9	11.6	1.1	100.0	(2,452)	1.75	-
40~44세	3.4	19.5	62.2	13.9	1.0	100.0	(3,048)	1.90	-
45~49세	2.4	17.1	65.6	13.4	1.5	100.0	(3,244)	1.95	-
교육수준($\chi^2=251.1^{***}$)									
중졸이하	7.3	20.4	53.6	15.7	2.9	100.0	(343)	1.87	1.80
고졸	4.9	20.3	58.3	14.9	1.6	100.0	(4,554)	1.88	1.84
대졸	8.5	27.5	54.3	9.2	0.5	100.0	(5,671)	1.66	1.69
대학원졸	10.0	29.5	54.1	6.1	0.2	100.0	(440)	1.57	1.59

〈표 5-43〉 계속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	(명)	평균 (연령 비표준화)	평균 (연령 표준화)
혼인상태($\chi^2=42.6^{***}$)									
유배우	7.3	23.9	56.1	11.6	1.0	100.0	(10,324)	1.75	1.76
사별	0.7	23.9	63.0	12.3	-	100.0	(138)	1.87	1.69
이혼·별거·미혼모	3.8	32.9	50.1	11.5	1.6	100.0	(547)	1.74	1.68
가구소득 ²⁾ ($\chi^2=199.9^{***}$)									
60%미만	10.2	31.9	44.1	12.4	1.3	100.0	(1,518)	1.63	1.65
60~80%미만	8.4	28.2	51.2	11.0	1.2	100.0	(1,714)	1.69	1.76
80~100%미만	6.7	23.3	57.3	11.7	1.0	100.0	(2,119)	1.77	1.79
100~120%미만	7.3	21.4	59.0	11.4	0.8	100.0	(1,924)	1.77	1.75
120~140%미만	6.6	22.6	56.7	13.2	0.9	100.0	(1,034)	1.79	1.79
140~160%미만	6.7	19.5	63.2	9.7	1.0	100.0	(945)	1.79	1.73
160%이상	3.7	22.2	61.3	11.9	0.8	100.0	(1,751)	1.84	1.77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은 결혼이나 출산 전후 경력단절, 자녀 양육 후 노동시장에의 복귀 등 다른 일반적인 특성들에 비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경제활동 특성별 출산 수준은 연령집단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조사 당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출생아수는 20대와 30대의 경우 취업여성보다 비취업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반면, 40대에서는 비취업여성에 비해 취업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였거나 계속 비취업 상태로 있으면서 출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였던 여성들 중 일부가 자녀 양육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40대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체 가임기 취업여성의 평균 출생아수가 비취업여성보다 다소 많이 나타났으나, 연령 표준화 후에는 비취업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가 취업여성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40대 기혼여성의 자녀 양육 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효과는 경제활동 특성

들에서도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 기혼여성의 직종별 평균 출생아수는 30대에서 기능원·장치기계직이 가장 적고, 다음으로 사무직, 관리직·전문직,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40대에서 직종별 평균 출생아수는 농림어업직, 단순노무직, 기능원·장치기계직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는 40대 기혼여성 중 높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출산 및 양육한 후에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능원·장치기계직과 단순노무직 직종에 (재)진입하였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전체 취업 기혼여성의 직종별로 평균 출생아수는 연령 표준화 전후 공히 사무직, 관리직·전문직, 기능원·장치기계직,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 농림어업직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취업 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별로 평균 출생아수는 30대에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40대에서는 고용주, 자영업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40대 기혼여성 중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출산 및 양육한 이후에 상용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지위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30대까지 만해도 상대적으로 적게 출산을 하였으나, 소득 안정 등의 후에 출산이 활발해져 40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출산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령 효과로 인하여 전체 가임기 취업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연령 표준화 전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난 반면, 연령 표준화 후에는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임시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용근로자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직장 유형별로 평균 출생아수는 30대에서는 공무원, 민간부문,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40대에서는 정반대로 정부투자·출연기관, 민간부문, 공무원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공무원이나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 시기나 직장에의 적응 등으로 인하여 30대에 출산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40대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직장이 안정되고 일가정양립 환경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등의 이유로 출산이 가장 활발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연령효과로 40대 기혼여성 중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출산 및 양육한 후에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용이한 민간부문을 통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였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부투자·출연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30대에 비교적 출산이 활발하나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출산수준이 낮게 나타난 이유로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으나 고학력과 높은 기회비용 등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체 가임기 취업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연령 표준화 전에는 정부투자·출연기관, 공무원, 민간부문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난 반면, 연령 표준화 후에는 정부투자·출연기관, 민간부문, 공무원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근로소득 수준별로 평균 출생아수는 40대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30대에서는 3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비해 200~300만원 미만의 중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층이나 전문직 등의 속성을 가진 고소득층의 경우 30대에서 출산이 보다 활발하나,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희망자녀수가 이미 완료된 관계로 출산을 축소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전체 가임기 취업여성의 근로소득 수준별 평균 출생아수는 연령 표준화 전에는 30대에서 나타난 패턴을 보였으나, 연령 표준화 후에는 여성 개인의

근로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적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노동시장 이탈이 발생하여도 기회비용(승진, 임금 등) 등이 크지 않고, 재진입 후에도 유사한 근로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종 및 지위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다소 많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으로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문직·관리직, 상용직, 정규직, 고임금 등의 경우에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으로 인하여 출산을 축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44〉 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 명)

구 분	20대		30대		40대		전체 (연령 비표준화)		전체 (연령 표준화)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취업여부										
취업	0.84 (210)	1.53 (2,060)	1.94 (3,949)	1.77 (6,219)	1.73					
비취업	1.14 (330)	1.65 (2,116)	1.89 (2,343)	1.73 (4,790)	1.77					
직종										
관리직·전문직·군인	0.83 (66)	1.48 (737)	1.92 (1,049)	1.71 (1,852)	1.74					
사무직	0.73 (63)	1.41 (601)	1.91 (826)	1.66 (1,490)	1.72					
서비스직	1.02 (33)	1.66 (292)	1.93 (808)	1.83 (1,132)	1.80					
판매직	0.82* (15)	1.66 (232)	1.97 (542)	1.86 (788)	1.83					
농림어업	0.00* (1)	2.31 (17)	2.09 (35)	2.14 (53)	2.09					
기능원·장치기계직	0.73* (14)	1.40 (59)	1.98 (200)	1.79 (273)	1.75					
단순노무직	1.10* (19)	1.78 (123)	2.02 (489)	1.95 (630)	1.90					
중상상지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9* (2)	1.68 (51)	1.87 (153)	1.82 (205)	1.7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52* (9)	1.69 (218)	1.88 (527)	1.81 (754)	1.77					
무급가족종사자	1.49* (4)	1.63 (119)	2.05 (361)	1.94 (484)	1.87					
상용근로자	0.76 (132)	1.40 (1,093)	1.95 (1,647)	1.69 (2,872)	1.74					
임시근로자	0.97 (52)	1.63 (481)	1.93 (952)	1.80 (1,485)	1.79					
일용근로자	1.14* (11)	1.89 (99)	1.95 (310)	1.91 (420)	1.90					
직장유형										
국가, 지자체공무원	0.78* (21)	1.47 (256)	2.01 (352)	1.75 (629)	1.80					
정부투자·출연기관	0.00* (3)	1.61 (45)	1.87 (82)	1.74 (130)	1.73					
민간회사, 개인사업체, 기타	0.86 (186)	1.54 (1,759)	1.94 (3,516)	1.77 (5,460)	1.77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	1.36* (29)	1.79 (364)	2.01 (863)	1.93 (1,257)	1.91					
100~200만원 미만	0.85 (105)	1.59 (766)	1.95 (1,782)	1.80 (2,653)	1.79					
200~300만원 미만	0.62 (60)	1.33 (576)	1.89 (699)	1.60 (1,335)	1.69					
300만원 이상	0.63* (15)	1.45 (354)	1.88 (604)	1.71 (973)	1.69					

주: *는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다음으로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역의 관계를 보였다. 즉,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적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혼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 평균 출생아수는 2.04명이나, 초혼연령이 25~29세인 경우에는 1.76명, 30~34세인 경우에는 1.33명,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0.80명으로 나타났다.

출산이 거의 완결된 45~49세 기혼여성을 기준으로 보면, 초혼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 평균 출생아수가 2.09명인 반면, 초혼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0.93명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혼외출산에 대해 터부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초혼연령이 지연될수록 실질적인 가임기간이 단축되어 출생아수도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표 5-45〉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초혼연령	기혼여성의 현재 연령						전체 (15~49세)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체	0.85	1.04	1.36	1.76	1.90	1.95	1.75
25세 미만	0.85	1.55	1.94	2.08	2.13	2.09	2.04
25~29세		0.69	1.42	1.89	1.90	1.95	1.76
25세		1.04	1.80	2.02	2.01	2.00	1.93
26세		0.79	1.62	2.00	1.91	2.04	1.85
27세		0.59	1.51	1.82	1.90	1.86	1.71
28세		0.34	1.24	1.81	1.87	1.95	1.64
29세		0.10*	1.04	1.74	1.69	1.71	1.49
30~34세			0.70	1.37	1.68	1.64	1.33
30세			0.88	1.61	1.67	1.68	1.41
31세			0.61	1.50	1.66	1.63	1.33
32세			0.60	1.35	1.76	1.73	1.33
33세			0.24*	1.09	1.72	1.50	1.24
34세			0.25*	0.82	1.55	1.56	1.18
35세 이상				0.45	0.92	0.93	0.80

주: 1) *는 사례수가 30 미만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유배우여성의 추가 출산계획

유배우여성(15~49세)의 추가 출산 계획을 질문한 결과, 의향 있음 12.0%, 의향 없음 84.0%, 모르겠음 4.0%로 나타났다. 고연령층일수록, 저학력층일수록, 고소득층일수록 그리고 취업 중인 경우,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특성별 연령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저학력층, 고소득층, 취업 중인 경우, 현 자녀수가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구조가 고령화되어 이미 희망하는 출산수준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추가출산계획 비율은 출생아수가 없는 경우 66.5%, 1명인 경우 23.6%, 2명인 경우 2.3%, 3명 이상인 경우 1.1% 등으로 출산순위에 따라 급격하게 낮아졌다. 한편, 유배우여성의 거주지별로 추가 출산 계획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6〉 유배우여성(15~49세)의 추가출산 계획

(단위: %, 명)

구 분	추가출산 의향 있음	추가출산 의향 없음	생각중(모름)	계	(명)
전체	12.0	84.0	4.0	100.0	(10,324)
거주지($\chi^2=9.0$)					
대도시	11.0	84.9	4.1	100.0	(4,467)
중소도시	12.5	83.8	3.7	100.0	(4,327)
농촌	13.4	82.3	4.3	100.0	(1,529)
연령 ¹⁾ ($\chi^2=2551.6^{***}$)					
25세 미만	60.4	35.4	4.2	100.0	(48)
25~29세	51.7	38.2	10.2	100.0	(482)
30~34세	32.1	57.1	10.8	100.0	(1,690)
35~39세	12.2	82.5	5.3	100.0	(2,377)
40~44세	3.9	94.8	1.3	100.0	(2,859)
45~49세	0.6	98.9	0.5	100.0	(2,869)
교육수준($\chi^2=167.9^{***}$)					
중졸이하	7.9	87.4	4.7	100.0	(253)
고졸	8.4	89.4	2.2	100.0	(4,132)
대졸	14.5	80.4	5.1	100.0	(5,505)
대학원졸	17.1	76.9	6.0	100.0	(433)

〈표 5-46〉 계속

(단위: %, 명)

구 분	추가출산 의향 있음	추가출산 의향 없음	생각중(모름)	계	(명)
취업여부($\chi^2=28.7^{***}$)					
취업	10.7	85.8	3.5	100.0	(5,654)
비취업	13.6	81.9	4.5	100.0	(4,669)
가구소득 ²⁾ ($\chi^2=135.2^{***}$)					
60%미만	16.9	77.2	5.9	100.0	(1,060)
60~80%미만	16.5	78.8	4.7	100.0	(1,588)
80~100%미만	12.1	83.5	4.4	100.0	(2,071)
100~120%미만	11.2	84.9	3.9	100.0	(1,903)
120~140%미만	11.8	84.7	3.5	100.0	(1,023)
140~160%미만	8.2	88.9	2.9	100.0	(934)
160%이상	7.6	89.9	2.5	100.0	(1,739)
현존자녀수($\chi^2=3674.3^{***}$)					
0명	66.5	23.0	10.5	100.0	(761)
1명	23.6	67.1	9.3	100.0	(2,480)
2명	2.3	96.1	1.6	100.0	(5,814)
3명 이상	1.1	98.1	0.8	100.0	(1,269)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배우여성(15~49세)의 현존 자녀의 수와 성구조에 따른 추가 출산 계획을 분석한 결과, 현존 자녀수가 적을수록 추가출산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 무자녀인 경우, 추가출산 의향 비율이 유배우여성의 연령에 따라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유배우여성의 추가출산의향 비율은 66.5%(성별 구분없이 79.6%, 성별 구분하여 19.8%), 추가출산의향 없음은 23.0%, 모르겠음 10.5% 등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연령별로 보면, 무자녀이면서도 추가출산의향이 없는 비율은 30세 미만 5.5%, 30~34세 9.6%, 35~39세 26.5%, 40~49세 57.8% 등으로 고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추가출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비율도 30세 미만 8.9%, 30~34세 11.1%, 35~39세 12.4%, 40~49세 9.0% 등으로 대체적으로 고연령층일수록 높았다.

전체적으로 현존 자녀수가 1명일 경우 그 자녀가 딸인 경우에 24.9%로 아들인 경우 22.5%에 비해 추가출산의향이 다소나마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존 자녀 1명이 아들인 경우에 추가로 딸을 낳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5.4%, 현존 자녀 1명이 딸인 경우 추가로 아들을 낳겠다는 비율은 15.0%로 나타났다. 추가출산의향이 있으나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현존 자녀가 아들인 경우 66.9%, 딸인 경우 76.9%로 각각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연령별로 보면, 아들 1명인 경우 추가출산의향(딸만 출산의향)은 3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52.4%(27.0%), 30~34세 연령층의 경우 40.1%(28.3%), 35~39세 연령층의 경우 23.7%(21.3%), 40대 연령층의 경우 3.0%(11.8%)로 나타났다. 현존자녀수가 딸 1명인 경우 추가출산의향(아들만 출산의향)은 3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54.5%(25.5%), 30~34세 연령층의 경우 42.4%(13.4%), 35~39세 연령층의 경우 23.7%(14.8%), 40대 연령층의 경우 7.2%(6.3%)로 나타났다.

현존 자녀수가 2명인 경우 추가출산 계획의 비율은 아주 낮게 나타난다. 추가출산계획을 가진 비율은 현존하는 두 자녀 모두 아들인 경우 2.2%(추가로 딸을 선호하는 비율은 69.7%), 현존하는 두 자녀 모두 딸인 경우 3.6%(추가로 아들을 선호하는 비율은 43.9%), 현존하는 자녀가 '아들1명-딸1명'인 경우 1.9%(성별 구분없이 71.2%) 등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연령별로 보면, 현존하는 두 자녀 모두 아들인 경우 추가출산의향(추가로 딸만 선호)은 3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0.3%(100.0%), 30~34세 연령층의 경우 8.6%(85.7%), 35~39세 연령층의 경우 2.5%(50.0%), 40대 연령층의 경우 0.7%(66.7%)로 나타났다. 현존하는 두 자녀 모두 딸인 경우 추가출산 의향(추가로 아들만 선호)은 3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25.0%(57.1%), 30~34세 연령층의 경우 12.7%(56.3%),

35~39세 연령층의 경우 5.0%(28.6%), 40대 연령층의 경우 0.3%(33.3%)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남아선호의 성향은 여전히 부분적으로나마 남아있지만 딸 선호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 자녀의 성구조를 고려한 추가출산 의향은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약하게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자녀수와 자녀의 성구조일지라도 기혼여성이 고연령일수록 추가출산의 향과 더불어 특정 자녀의 성에 대한 선호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추가출산의향은 현존 자녀가 아들만 있는 경우에 비해 딸만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으나, 추가 자녀의 성으로 현존 자녀의 성과 반대되는 성을 선호하는 정도는 오히려 아들만 두고 있는 경우에 비해 딸만 두고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 이는 딸만 두고 있는 기혼여성들이 추가자녀의 성을 특정화하여 응답하는 것을 꺼렸음을 짐작해볼 수 있겠다.

〈표 5-47〉 유배우여성(15~49세)의 현존자녀의 성구조별 추가출산 계획

(단위: %, 명)

구 분	계획 없음	계획 있음	추가출산 계획 있는 경우, 성별 구별 여부							모르겠음	계	(명)
			성별 구별 없이	성별 구별하여 출산			모르겠음					
				아들1	딸1	딸2		아들1, 딸1	3명 이상			
유배우 전체	84.0	12.0	72.4	6.3	11.1	0.9	5.7	3.2	0.5	4.0	100.0	(10,324)
무자녀	23.0	66.5	79.6	1.4	3.0	1.2	7.9	6.3	0.6	10.5	100.0	(761)
아들1명, 딸0명	68.3	22.5	66.9	1.0	25.4	1.0	3.5	1.6	0.6	9.2	100.0	(1,380)
아들0명, 딸1명	65.6	24.9	76.9	15.0	2.9	-	4.4	0.7	-	9.5	100.0	(1,100)
아들2명, 딸0명	96.4	2.2	24.2	3.0	69.7	3.0	-	-	-	1.4	100.0	(1,530)
아들0명, 딸2명	94.5	3.6	48.8	43.9	4.9	-	-	-	2.4	1.9	100.0	(1,132)
아들1명, 딸1명	96.6	1.9	71.2	3.4	15.3	-	10.2	-	-	1.5	100.0	(3,152)
3명이상	98.1	1.1	42.9	42.9	14.3	-	-	-	-	0.8	100.0	(1,269)

〈표 5-47〉 계속

(단위: %, 명)

구 분	계획 없음	계획 있음	추가출산 계획 있는 경우, 성별 구별 여부								계 (명)
			성별 구별 없이	성별 구별하여 출산			모르겠음	모르겠음			
				아들1	딸1	딸2			아들1, 딸1	3명 이상	
15-29세	37.9	52.5	61.7	6.9	10.8	1.1	11.6	7.2	0.7	9.6	100.0 (530)
무자녀	5.5	85.6	66.4	0.8	1.6	1.6	15.2	12.8	1.6	8.9	100.0 (146)
아들1명, 딸0명	36.4	52.4	58.1	-	27.0	1.4	9.5	4.1	-	11.2	100.0 (143)
아들0명, 딸1명	32.7	54.5	63.6	25.5	-	-	9.1	1.8	-	12.9	100.0 (101)
아들2명, 딸0명	82.8	10.3	-	-	100.0	-	-	-	-	6.9	100.0 (29)
아들0명, 딸2명	67.9	25.0	42.9	57.1	-	-	-	-	-	7.1	100.0 (28)
아들1명, 딸1명	74.2	18.2	46.2	7.7	38.5	-	7.7	-	-	7.6	100.0 (66)
3명이상	100.0	-	-	-	-	-	-	-	-	-	100.0 (14)
30-34세	57.1	32.1	72.2	6.3	12.5	0.9	5.3	2.8	-	10.8	100.0 (1,690)
무자녀	9.6	79.3	80.1	1.8	3.2	1.4	8.1	5.4	-	11.1	100.0 (280)
아들1명, 딸0명	44.5	40.1	65.5	1.4	28.3	1.4	2.8	0.7	-	15.5	100.0 (362)
아들0명, 딸1명	39.4	42.4	75.6	13.4	3.9	-	5.5	1.6	-	18.2	100.0 (297)
아들2명, 딸0명	88.3	8.6	14.3	-	85.7	-	-	-	-	3.1	100.0 (162)
아들0명, 딸2명	83.6	12.7	43.8	56.3	-	-	-	-	-	3.7	100.0 (134)
아들1명, 딸1명	86.9	4.9	86.7	6.7	6.7	-	-	-	-	8.2	100.0 (329)
3명이상	94.4	3.2	33.3	33.3	33.3	-	-	-	-	2.4	100.0 (125)
35-39세	82.5	12.2	77.9	7.3	10.0	0.7	2.1	1.0	1.0	5.3	100.0 (2,377)
무자녀	26.5	61.2	85.8	1.9	3.8	0.9	3.8	2.8	0.9	12.4	100.0 (170)
아들1명, 딸0명	63.6	23.7	73.3	1.3	21.3	1.3	-	-	2.7	12.7	100.0 (316)
아들0명, 딸1명	64.0	23.7	83.6	14.8	1.6	-	-	-	-	12.3	100.0 (253)
아들2명, 딸0명	94.4	2.5	37.5	12.5	50.0	-	-	-	-	3.1	100.0 (357)
아들0명, 딸2명	91.7	5.0	57.1	28.6	14.3	-	-	-	-	3.2	100.0 (278)
아들1명, 딸1명	96.0	2.6	72.2	-	11.1	-	16.7	-	-	1.4	100.0 (700)
3명이상	96.0	2.7	50.0	50.0	-	-	-	-	-	1.3	100.0 (300)
40-49세	96.9	2.3	84.4	2.3	7.8	0.8	2.3	1.6	0.8	0.9	100.0 (5,728)
무자녀	57.8	33.1	92.7	-	1.8	1.8	-	3.6	-	9.0	100.0 (166)
아들1명, 딸0명	94.5	3.0	88.2	-	11.8	-	-	-	-	2.5	100.0 (559)
아들0명, 딸1명	91.7	7.2	90.6	6.3	3.1	-	-	-	-	1.1	100.0 (446)
아들2명, 딸0명	98.9	0.7	33.3	-	66.7	-	-	-	-	0.4	100.0 (981)
아들0명, 딸2명	99.0	0.3	33.3	33.3	-	-	-	-	33.3	0.7	100.0 (690)
아들1명, 딸1명	99.0	0.7	71.4	-	7.1	-	21.4	-	-	0.3	100.0 (2,058)
3명이상	99.4	0.2	33.3	33.3	33.3	-	-	-	-	0.4	100.0 (829)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향후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는 유배우여성(15~49세)의 출산 중단 이유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그 결과 1순위와 2순위 간 중단이유의 패턴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향후 출산 중단의 이유로는 자녀교육비 부담(21.8%), 자녀 수에 대한 가치관(21.7%), 고연령(20.8%), 자녀양육비 부담(12.4%), 소득·고용불안정(6.9%), 일-가정양립 곤란(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거주지에 따른 향후 출산 중단의 이유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소득 이유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자녀수에 대한 가치관 관련 이유는 반대로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층일수록 '본인 고연령'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저연령층에서는 자녀 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비 부담이 향후 출산 중단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비취업인 경우에 저소득,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교육비 부담 등의 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취업인 경우에는 일가정양립 곤란, 자녀 수에 대한 가치관 등의 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향후 출산 중단의 이유로 자녀수와 관련한 가치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존 자녀수간 향후 출산 중단 이유의 차이를 보면, 무자녀인 경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23.7%)'가 가장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를 제외하면,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양육비 부담, 자녀수에 대한 가치관 등의 이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와 반대로 무자녀인 경우를 제외하면, 현존 자녀수가 적을수록 일-가정양립 곤란, 가치관, 건강문제, 본인 고연령 등의 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48〉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중단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명)
전체	6.9	0.9	12.4	21.8	4.4	2.9	21.7	0.6	1.4	4.1	20.8	2.0	100.0	(8,659)
거주지($\chi^2=64.8^{***}$)														
대도시	6.8	1.2	12.5	22.4	4.9	3.5	21.7	0.4	1.3	3.4	20.3	1.5	100.0	(3,786)
중소도시	6.4	0.7	11.9	21.1	4.1	2.4	23.1	0.7	1.4	4.6	21.0	2.5	100.0	(3,616)
농촌	8.8	0.7	13.2	22.0	4.0	2.6	17.8	0.8	2.0	4.6	21.8	1.7	100.0	(1,259)
연령 ²⁾ ($\chi^2=1505.3^{***}$)														
30세 미만	13.5	4.0	22.5	21.0	9.5	5.0	20.5	0.5	0.5	1.5	-	1.5	100.0	(200)
30~34세	10.0	1.5	23.5	25.0	9.3	3.5	19.8	1.1	0.6	3.4	0.7	1.5	100.0	(963)
35~39세	9.9	1.4	18.5	26.5	6.6	3.8	18.4	0.7	0.9	3.9	6.6	2.6	100.0	(1,955)
40~44세	6.5	0.4	10.3	23.0	3.1	2.9	23.3	0.6	1.4	4.5	22.0	2.1	100.0	(2,708)
45~49세	3.8	0.7	5.6	16.4	2.1	1.9	23.3	0.3	2.2	4.2	37.8	1.6	100.0	(2,833)
교육수준($\chi^2=404.3^{***}$)														
중졸이하	18.2	1.8	4.1	15.0	2.3	1.8	19.5	-	1.8	6.4	28.6	0.5	100.0	(220)
고졸	9.1	0.8	11.8	22.3	2.0	1.6	20.7	0.6	1.2	3.8	24.3	1.6	100.0	(3,692)
대졸	4.9	1.0	13.5	22.5	5.8	3.8	22.6	0.6	1.6	4.1	17.5	2.2	100.0	(4,415)
대학원졸	1.8	0.9	9.4	11.5	13.6	5.5	23.6	0.9	1.5	6.1	21.2	3.9	100.0	(330)
취업여부($\chi^2=105.9^{***}$)														
취업	6.4	0.9	11.1	20.6	6.0	2.8	22.4	0.5	1.6	3.8	22.1	1.8	100.0	(4,844)
비취업	7.6	0.9	14.0	23.4	2.5	3.0	20.9	0.7	1.2	4.5	19.2	2.2	100.0	(3,815)
가구소득 ³⁾ ($\chi^2=862.5^{***}$)														
60%미만	19.6	1.3	12.7	15.3	2.2	1.8	15.2	1.5	2.1	5.9	21.0	1.3	100.0	(816)
60~80%미만	13.8	1.2	17.1	22.0	2.7	1.5	17.0	0.6	1.2	2.8	18.0	2.1	100.0	(1,248)
80~100%미만	8.4	1.4	14.6	26.8	2.6	2.1	19.0	0.6	0.9	3.8	18.0	1.9	100.0	(1,724)
100~120%미만	3.9	0.9	13.4	23.7	4.0	2.7	22.2	0.4	1.4	3.3	22.0	2.2	100.0	(1,614)
120~140%미만	3.0	1.0	11.8	24.5	5.4	2.7	22.3	0.7	0.7	4.2	21.8	1.9	100.0	(864)
140~160%미만	2.5	0.1	10.3	20.4	7.1	3.3	25.5	0.1	1.8	5.2	22.2	1.4	100.0	(828)
160%이상	1.0	0.4	6.4	17.0	7.4	5.5	29.3	0.4	1.9	4.6	23.7	2.4	100.0	(1,559)
현존자녀수($\chi^2=1433.1^{***}$)														
0명	5.1	1.1	9.6	5.6	3.4	16.4	2.8	0.6	23.7	13.0	16.4	2.3	100.0	(177)
1명	8.4	1.1	11.5	18.9	8.3	5.7	8.3	1.0	4.0	6.7	23.4	2.7	100.0	(1,661)
2명	6.3	0.9	12.9	23.5	3.9	2.0	23.7	0.5	0.2	3.3	20.7	2.0	100.0	(5,579)
3명 이상	8.2	0.6	11.3	20.4	1.8	1.2	33.3	0.3	0.2	3.0	18.7	0.9	100.0	(1,243)

* p<0.05, ** p<0.01, *** p<0.001

- 주: 1) ① 소득이 적어서,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②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③ 자녀양육비부담, ④ 자녀교육비부담, ⑤ 일-가정양립곤란, ⑥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서,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여,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⑦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해서, 아이가 많아서, ⑧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신체작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와상 상태 포함)을 겪는 가족의 수발 때문에, ⑨ 불임, ⑩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문제, ⑪ 본인의 고연령, ⑫ 기타
- 2) 25세 미만에는 15~19세 0명, 20~24세 18명이 포함되어 있음.
-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49〉 유배우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중단 이유(2순위)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명)
전체	4.1	0.9	8.9	21.6	8.0	6.5	18.9	1.0	0.7	4.1	20.9	4.4	100.0	(6,781)
거주지($\chi^2=40.5^{**}$)														
대도시	4.0	1.0	8.8	20.7	7.7	7.1	19.5	0.8	0.8	4.6	20.2	4.5	100.0	(2,942)
중소도시	4.0	0.8	9.3	21.6	9.4	6.2	17.9	1.0	0.6	3.4	21.3	4.4	100.0	(2,877)
농촌	4.5	0.7	7.8	24.0	5.0	5.8	20.0	1.1	0.4	4.3	22.1	4.3	100.0	(961)
연령 ²⁾ ($\chi^2=797.6^{***}$)														
30세 미만	6.7	3.7	15.3	20.2	13.5	11.7	23.9	0.6	-	1.8	0.6	1.8	100.0	(163)
30~34세	5.4	1.7	12.2	24.1	15.8	8.5	19.0	1.4	0.1	4.0	1.6	6.2	100.0	(802)
35~39세	4.2	1.5	12.6	23.7	11.4	7.1	18.5	1.6	0.3	3.8	10.3	5.0	100.0	(1,638)
40~44세	3.9	0.5	7.6	22.2	5.9	6.6	16.7	0.9	0.8	4.1	26.6	4.3	100.0	(2,129)
45~49세	3.5	0.2	5.5	18.3	4.2	4.8	21.2	0.3	1.1	4.5	32.8	3.5	100.0	(2,047)
교육수준($\chi^2=199.8^{***}$)														
중졸이하	7.1	0.6	5.1	25.6	3.2	1.9	17.9	-	-	5.8	26.3	6.4	100.0	(156)
고졸	4.8	1.1	8.6	22.9	5.5	4.4	20.8	0.8	0.7	4.2	22.5	3.8	100.0	(2,896)
대졸	3.7	0.8	9.4	20.6	9.6	8.3	17.8	1.2	0.7	3.7	19.3	4.8	100.0	(3,474)
대학원졸	-	-	6.6	16.8	18.8	10.2	13.7	0.4	0.4	6.3	22.3	4.7	100.0	(256)
취업여부($\chi^2=75.1^{***}$)														
취업	3.9	1.1	8.0	20.8	10.0	6.2	18.4	1.0	0.6	3.4	21.9	4.7	100.0	(3,804)
비취업	4.4	0.6	10.0	22.5	5.5	7.0	19.6	0.9	0.8	4.9	19.7	4.1	100.0	(2,974)
가구소득 ³⁾ ($\chi^2=452.5^{***}$)														
60%미만	12.9	1.1	12.4	23.1	6.5	2.9	14.9	1.1	0.5	6.7	15.7	2.3	100.0	(645)
60~80%미만	6.3	1.3	11.3	22.4	7.6	5.0	18.2	0.9	0.9	4.3	16.7	5.1	100.0	(1,017)
80~100%미만	5.4	1.2	9.7	26.1	6.3	5.2	18.8	0.6	0.6	3.5	19.2	3.6	100.0	(1,391)
100~120%미만	2.2	0.7	8.5	22.2	7.8	7.7	19.1	1.3	0.5	3.3	21.0	5.5	100.0	(1,265)
120~140%미만	2.0	1.3	7.3	18.7	8.8	8.6	22.0	1.0	1.0	4.4	20.7	4.3	100.0	(701)
140~160%미만	0.9	0.9	9.0	18.9	7.1	7.1	22.5	0.9	0.9	2.8	24.2	4.7	100.0	(636)
160%이상	0.7	0.1	5.1	16.9	11.8	8.7	17.8	1.1	0.5	4.5	28.0	4.7	100.0	(1,127)
현존자녀수($\chi^2=441.4^{***}$)														
0명	1.9	0.9	5.6	3.7	7.5	23.4	1.9	-	7.5	3.7	33.6	10.3	100.0	(107)
1명	6.7	1.3	9.0	20.5	10.7	11.1	8.6	1.3	2.0	6.0	18.0	4.8	100.0	(1,193)
2명	3.4	0.9	8.7	21.8	7.9	5.5	21.3	0.9	0.3	3.9	20.8	4.5	100.0	(4,455)
3명 이상	4.2	0.4	9.9	23.3	5.4	4.1	22.3	1.0	0.1	2.8	23.6	2.9	100.0	(1,029)

* p<0.05, ** p<0.01, *** p<0.001

주: 1) ① 소득이 적어서,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②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져서, ③ 자녀양육비부담, ④ 자녀교육비부담, ⑤ 일-가정양립곤란, ⑥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서,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여,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⑦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해서, 아이가 많아서, ⑧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와상 상태 포함)을 겪는 가족의 수발 때문에, ⑨ 불임, ⑩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문제, ⑪ 본인의 고연령, ⑫ 기타

2) 25세 미만에는 15~19세 0명, 20~24세 14명이 포함되어 있음.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기대자녀수

유배우여성(15~49세)의 기대자녀수는 실제 출생아수에 향후 출산을 계획한 자녀수를 더한 것으로 완결출산력(complete fertility rate)의 개념을 가진다. 우선 전체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는 2명이 63.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명(19.2%), 3명(14.2%), 무자녀(1.7%), 4명 이상(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혼여성의 평균 기대자녀수는 1.94명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거주지에 따라서는 농촌(1.97명), 중소도시(1.97명), 대도시(1.9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에 따라서는 30~34세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고연령층일수록 평균 기대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5세 미만과 30~34세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1.9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기대자녀수는 고등학교 졸업(2.02명), 중졸이하(2.01명), 대졸(1.89명), 대학원 졸업(1.83명) 순으로 고학력계층으로 갈수록 낮아졌는데, 이는 고학력 계층의 경우 높은 기회비용 등으로 인하여 기대자녀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취업 여성의 기대자녀수는 1명과 3명~4명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여성의 경우 2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평균 기대자녀수는 취업 여부 간에 차이가 없었다. 최고소득층(전국 월평균가구소득 160% 이상)을 제외하면, 가구소득수준과 기대자녀수는 캡형(\cap)의 관계를 나타냈다. 저소득층일수록 자녀양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소득층일수록 기회비용, 가치관 등으로 인하여 기대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50〉 유배우여성(15~49세)의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1.7	19.2	63.5	14.2	1.4	100.0	(9,913)	1.94
거주지($\chi^2=30.0^{***}$)								
대도시	1.7	20.9	63.2	13.0	1.2	100.0	(4,285)	1.91
중소도시	1.7	17.8	64.4	14.8	1.3	100.0	(4,164)	1.97
농촌	2.3	18.4	61.3	15.8	2.1	100.0	(1,464)	1.97
연령 ¹⁾ ($\chi^2=102.3^{***}$)								
25세 미만	2.1	35.4	47.9	12.5	2.1	100.0	(48)	1.75
25~29세	1.6	24.7	54.0	18.0	1.6	100.0	(433)	1.93
30~34세	1.8	25.6	58.2	13.4	1.0	100.0	(1,507)	1.86
35~39세	2.0	19.2	63.2	13.9	1.8	100.0	(2,249)	1.94
40~44세	1.4	18.4	64.6	14.6	1.1	100.0	(2,821)	1.96
45~49세	1.9	15.7	67.0	13.8	1.6	100.0	(2,855)	1.98
교육수준($\chi^2=150.3^{***}$)								
중졸이하	5.4	13.7	60.6	16.6	3.7	100.0	(241)	2.01
고졸	1.8	15.9	63.3	16.9	2.1	100.0	(4,041)	2.02
대졸	1.6	21.8	63.5	12.3	0.8	100.0	(5,224)	1.89
대학원졸	1.7	22.6	66.6	8.8	0.2	100.0	(407)	1.83
취업여부($\chi^2=26.4^{***}$)								
취업	1.8	17.9	65.6	13.4	1.3	100.0	(5,456)	1.95
비취업	1.6	20.9	60.9	15.1	1.5	100.0	(4,457)	1.94
가구소득 ²⁾ ($\chi^2=145.3^{***}$)								
60%미만	4.2	25.9	51.8	15.8	2.3	100.0	(997)	1.87
60~80%미만	2.5	21.7	59.2	15.2	1.5	100.0	(1,513)	1.92
80~100%미만	1.2	18.1	64.8	14.6	1.3	100.0	(1,980)	1.97
100~120%미만	1.5	17.6	65.9	13.7	1.4	100.0	(1,829)	1.96
120~140%미만	0.6	18.2	64.7	15.4	1.1	100.0	(986)	1.98
140~160%미만	2.1	17.8	68.0	11.0	1.1	100.0	(906)	1.91
160%이상	1.1	17.8	66.8	13.1	1.2	100.0	(1,695)	1.96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6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 유배우여성(15~49세)의 직종별 기대자녀수는 농림어업직(2.17명), 단순노무직(2.04명), 판매직(1.99명), 서비스직(1.97명), 기능원 및 장치기계직(1.97명), 관리직 및 전문직(1.92명), 사무직(1.89명)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종사상지위에 따른 기대자녀수는 일용근로자(2.04명), 무급가족종사자(2.02명), 임시근로자(1.97명), 자영업자(1.93명), 상

용근로자(1.92명), 고용주(1.91명)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취업 여성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기대자녀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은 실제 출생아수의 패턴과 유사한 것이다. 즉,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일-가정양립 곤란, 기회비용, 노동시장 진출입의 용이성 등이 클수록 기대자녀수는 적을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겠다.

〈표 5-51〉 취업 유배우여성(15~49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1.8	17.9	65.6	13.4	1.3	100.0	(5,456)	1.95
직종($\chi^2=126.0^{***}$)								
관리직·전문직·군인	1.9	19.0	65.5	12.8	0.8	100.0	(1,677)	1.92
사무직	1.3	20.2	67.4	10.2	0.8	100.0	(1,338)	1.89
서비스직	2.2	16.2	65.1	15.0	1.5	100.0	(940)	1.97
판매직	1.0	17.2	64.9	15.4	1.4	100.0	(693)	1.99
농림어업	12.2	4.1	49.0	24.5	10.2	100.0	(49)	2.17
기능원·장차기계직	2.1	14.7	68.5	14.3	0.4	100.0	(238)	1.97
단순노무직	2.1	15.0	63.2	16.6	3.1	100.0	(519)	2.04
종사상지위($\chi^2=55.6^{***}$)								
비임금근로자	2.1	18.9	61.9	15.2	1.8	100.0	(1,308)	1.9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7	20.1	62.0	14.7	0.5	100.0	(184)	1.9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0	21.2	60.4	14.7	1.7	100.0	(652)	1.93
무급가족종사자	2.1	15.5	63.8	16.1	2.5	100.0	(472)	2.02
임금근로자	1.7	17.5	66.7	12.8	1.2	100.0	(4,147)	1.94
상용근로자	1.5	18.8	67.6	11.1	1.0	100.0	(2,549)	1.92
임시근로자	2.4	15.8	65.6	15.2	1.0	100.0	(1,268)	1.97
일용근로자	1.5	14.6	64.7	16.4	2.7	100.0	(329)	2.04
직장유형($\chi^2=12.1$)								
국가, 지자체공무원	1.0	14.8	70.7	12.4	1.0	100.0	(581)	1.98
정부투자·출연기관	1.7	16.8	71.4	9.2	0.8	100.0	(119)	1.91
민간회사, 개인사업체, 기타	1.9	18.3	64.8	13.6	1.4	100.0	(4,756)	1.94
근로소득($\chi^2=49.7^{***}$)								
100만원 미만	1.8	15.6	63.2	17.7	1.8	100.0	(1,160)	2.02
100~200만원 미만	1.9	16.5	66.7	13.7	1.3	100.0	(2,280)	1.96
200~300만원 미만	2.1	21.3	64.1	11.6	0.9	100.0	(1,140)	1.88
300만원 이상	1.3	20.0	67.7	10.0	1.0	100.0	(873)	1.9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이상자녀수, 결혼 당시 계획자녀수,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유배우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결혼 당시 계획자녀수,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를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출생아수는 1.75명, 기대자녀수는 1.94명, 이상자녀수는 2.25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수는 이상자녀수에 0.5명이 미치지 못했으며, 향후 출산까지 고려(기대자녀수)하여도 이상자녀수에 0.31명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배우여성 중 20대의 경우 이상자녀수가 2.21명인데 비해 실제 출생아수는 1.02명, 기대자녀수는 1.91명으로 출생아수는 1.19명, 기대자녀수는 0.3명이 이상자녀수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상자녀수와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 간의 차이는 30~39세 여성의 경우 0.61명과 0.29명, 40~49세 여성의 경우 0.36명과 0.3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저연령층일수록 이상자녀수와 실제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이상자녀수와 실제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 간의 차이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고학력층일수록(다만 중졸 이하 학력층과 대졸 학력층과 유사),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명료하지 않았다.

〈표 5-52〉 유배우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결혼 당시 계획 자녀수,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평균)

(단위: 명)

구분	전체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이상	결혼 계획	실제	기대	이상	결혼 계획	실제	기대	이상	결혼 계획	실제	기대	이상	결혼 계획	실제	기대
전체	2.25	2.00	1.75	1.94	2.21	2.19	1.02	1.91	2.20	2.00	1.59	1.91	2.29	1.99	1.93	1.97
지역																
대도시	2.22	1.98	1.73	1.91	2.18	2.17	.97	1.92	2.19	1.97	1.56	1.87	2.25	1.98	1.91	1.94
중소도시	2.26	1.99	1.77	1.97	2.21	2.20	1.01	1.87	2.20	2.00	1.60	1.93	2.30	1.97	1.96	2.00
농촌	2.32	2.08	1.77	1.97	2.23	2.21	1.12	1.98	2.22	2.08	1.67	1.96	2.41	2.06	1.93	1.98

178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표 5-52〉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이상	결혼 계획	실제	기대	이상	결혼 계획	실제	기대	이상	결혼 계획	실제	기대	이상	결혼 계획	실제	기대
교육수준																
중졸이하	2.38	2.03	1.88	2.01	2.08*	1.91*	1.21*	1.80*	2.22	1.99	1.51	1.74	2.47	2.06	2.08	2.10
고졸	2.27	2.03	1.89	2.02	2.24	2.23	1.21	2.00	2.23	2.02	1.74	2.00	2.29	2.02	2.00	2.03
대졸	2.23	1.98	1.66	1.89	2.20	2.20	0.89	1.88	2.18	1.99	1.55	1.88	2.28	1.95	1.86	1.90
대학원졸	2.24	1.95	1.56	1.83	2.11*	1.81*	0.70*	1.59*	2.22	1.98	1.35	1.79	2.26	1.92	1.82	1.88
취업여부																
취업	2.27	2.00	1.77	1.95	2.13	2.13	0.84	1.87	2.20	1.99	1.53	1.88	2.31	2.00	1.96	1.98
비취업	2.23	2.00	1.73	1.94	2.25	2.24	1.13	1.94	2.20	2.01	1.65	1.94	2.26	1.97	1.90	1.95
가구소득 ¹⁾																
60%미만	2.24	2.00	1.60	1.87	2.17	2.05	1.06	1.88	2.18	1.98	1.54	1.86	2.30	2.01	1.79	1.87
60-80%미만	2.23	2.04	1.67	1.92	2.25	2.26	1.08	2.00	2.20	1.98	1.58	1.87	2.28	2.06	1.91	1.96
80-100%미만	2.27	2.03	1.77	1.97	2.25	2.29	1.07	1.93	2.21	2.04	1.67	1.97	2.33	1.99	1.93	1.97
100-120%미만	2.23	2.00	1.77	1.96	2.16	2.22	0.81	1.89	2.19	2.00	1.55	1.90	2.26	1.98	1.97	2.00
120-140%미만	2.28	2.02	1.79	1.98	2.22	2.28	0.97	1.98	2.23	2.06	1.58	1.94	2.31	1.97	1.98	2.01
140-160%미만	2.26	1.95	1.79	1.91	2.24*	2.23*	1.02*	1.71*	2.20	1.94	1.56	1.87	2.29	1.94	1.91	1.94
160%이상	2.24	1.96	1.84	1.96	2.06*	1.86*	0.96*	1.61*	2.19	1.95	1.59	1.93	2.27	1.96	1.96	1.98

주: 1) *는 사례수가 30 미만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기혼여성의 << 산전·산후 관리 실태

제1절 산전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전관리 시기

산전관리는 임신부가 출산 전까지 임신 기간 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있어서 건강하게 분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¹⁾. 본 조사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조사 시점까지 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임신 기간 동안 산전관리에 관해 질문하였다.²⁾ 산전수진율은 100%로 기혼여성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두 임신 기간 중에 한 번 이상의 산전 진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관리는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산전수진의 초진 시기를 모성건강(reproductive health)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2013~2015년 동안 출생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이 산전관리를 위해 보건 의료기관에서 초진을 받은 시기는 임신 후 평균 5.31주로 나타났다. 대체로 약 30% 이상이 임신 후 4주 이전에 초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주지별로는 농촌에 거주 시 초진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산전 진찰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WHO(2003). What is the efficacy/effectiveness of antenatal care and the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implications?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s Health Evidence Network (HEN). December 2003

2) 만약 이 기간 중 태어난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모의 출산 당시 연령별로는 25세 미만의 집단에서 초진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신 후 4주 이전에 초진을 받은 경우는 30.9%로 모든 세부 집단 중 가장 낮은 비율이며, 13주 이후에 초진을 받은 경우는 1.5%로 모의 연령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초진 시기가 출산 당시 25세 미만인 여성의 경우 임신 후 5.97주로 연령 집단에서 가장 늦게 나타났으며, 이외에는 고연령층일수록 늦게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층일수록 초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산전관리를 다소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의 교육수준별로는 특히 중졸 이하의 경우 임신 후 4주 이전 초진을 받은 경우는 25.9%로 나타나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고, 임신 후 13주 이후 초진을 받은 경우도 3.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초진 시기도 고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대체로 임신 후 5.21~5.33주로 비슷한 시기에 초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졸이하의 경우는 6.37주로 다른 세부 집단에서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초진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산전관리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학력 여성에게 있어서 산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사대상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도 임신 후 4주 이전 초진을 받은 경우는 30.4%로 나타나 첫째아와 둘째아의 경우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임신 후 13주 이후 초진을 받은 경우도 2.5%로 다른 두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초진 시기가 늦어져 셋째아 이상의 경우 평균 초진 시기가 임신 후 5.90주로 나타났다. 셋째아의 경우는 모의 연령이 높아져 고위험 임신으로 이어질 확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표 6-1) 기혼여성(15~49세)의 초진시기(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¹⁾

(단위: %, 명, 주)

구 분	~4주	5-8주	9-12주	13주 이후	계	(명)	평균 초진시기
전체	33.8	62.7	2.9	0.5	100.0	(1,776)	5.31
거주지							
대도시	33.9	62.7	3.1	0.4	100.0	(753)	5.27
중소도시	35.1	61.5	2.9	0.6	100.0	(724)	5.31
농촌	30.7	65.7	2.7	1.0	100.0	(300)	5.40
출산 시 모의 연령 ²⁾							
25세 미만	30.9	60.3	7.4	1.5	100.0	(68)	5.97
25~29세	34.1	62.8	2.5	0.5	100.0	(393)	5.23
30~34세	34.7	62.5	2.3	0.5	100.0	(864)	5.23
35~39세	33.1	63.5	2.6	0.8	100.0	(381)	5.38
40~45세	28.2	62.0	9.9	-	100.0	(71)	5.64
교육수준							
중졸이하	25.9	55.6	14.8	3.7	100.0	(27)	6.37
고졸	39.3	57.1	3.4	0.2	100.0	(466)	5.21
대졸	31.4	65.3	2.5	0.7	100.0	(1,183)	5.33
대학원졸	38.2	58.8	2.9	-	100.0	(102)	5.22
취업여부($\chi^2=1.3$)							
취업	32.1	64.6	2.8	0.5	100.0	(604)	5.29
비취업	34.7	61.8	3.0	0.5	100.0	(1,171)	5.32
가구소득 ³⁾							
60%미만	32.4	63.6	3.2	0.8	100.0	(250)	5.47
60~80%미만	33.8	61.6	4.6	-	100.0	(417)	5.34
80~100%미만	35.8	60.7	2.4	1.1	100.0	(377)	5.32
100~120%미만	35.0	62.5	2.5	-	100.0	(240)	5.16
120~140%미만	30.1	66.3	3.0	0.6	100.0	(166)	5.33
140~160%미만	25.5	72.6	1.9	-	100.0	(106)	5.26
160%이상	37.6	59.6	1.8	0.9	100.0	(218)	5.23
조사대상아 출생순위							
첫째아	35.6	61.6	2.4	0.3	100.0	(881)	5.19
둘째아	32.5	64.6	2.6	0.3	100.0	(692)	5.29
셋째아 이상	30.4	60.8	6.4	2.5	100.0	(204)	5.90

* p<0.05, ** p<0.01, *** p<0.001

주: 1) 2013.1.1.일 이후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5세 미만에는 17~19세 8명, 40~45세에는 45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산전관리 횟수

산전관리에 있어서 초진 시기뿐만 아니라 산전 수진의 횟수도 중요하

다. 이에 따라 산전 초진 시기뿐만 아니라 산전 수진의 횟수도 산전관리 적합도를 측정하는 지표에 포함되는 요소이다. 전체적으로 5회이하의 산전 수진을 받은 경우는 1.9%로 낮게 나타났다.

모의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에 따른 산전 수진 횟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산전 수진 횟수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편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가구소득과 조사대상아의 출생순위에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인 집단이 100%이상의 집단보다 5회 이하 산전 진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 60% 미만의 집단은 5회 이하 산전수진율이 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아의 출생순위별 차이를 살펴보면, 출생 순위가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산전수진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첫째아의 경우와 셋째아 이상의 경우가 둘째아의 경우보다 5회 이하 수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1회 이상 산전수진 횟수는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2〉 기혼여성(15~49세)의 산전 수진 횟수(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¹⁾

(단위: %, 명, 회)

구 분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1.9	23.0	55.8	17.2	2.1	100.0	(1,776)	13.30
거주지($\chi^2=4.0$)								
대도시	1.7	23.8	55.7	16.9	1.9	100.0	(752)	13.29
중소도시	1.7	21.4	57.3	17.4	2.2	100.0	(724)	13.37
농촌	2.7	24.7	52.5	17.7	2.3	100.0	(299)	13.18
출산 시 모의 연령 ²⁾ ($\chi^2=25.4$)								
25세 미만	4.3	17.4	59.4	18.8	-	100.0	(69)	13.11
25-29세	2.0	18.6	58.3	18.1	3.1	100.0	(393)	13.67
30-34세	2.3	23.4	56.1	16.4	1.7	100.0	(864)	13.17
35-39세	0.8	27.6	53.3	16.0	2.4	100.0	(381)	13.17
40-45세	-	22.9	47.1	27.1	2.9	100.0	(70)	13.83

〈표 6-2〉 계속

(단위: %, 명, 회)

구 분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계	(명)	평균
교육수준 ³⁾ ($\chi^2=11.4$)								
고졸이하	3.1	25.7	51.9	17.3	2.0	100.0	(491)	13.01
대졸	1.5	22.5	56.9	17.0	2.1	100.0	(1,183)	13.37
대학원졸	1.0	16.7	61.8	19.6	1.0	100.0	(102)	13.94
취업여부($\chi^2=3.8$)								
취업	1.2	23.1	57.4	16.5	1.8	100.0	(606)	13.41
비취업	2.3	23.0	54.9	17.6	2.2	100.0	(1,171)	13.25
가구소득 ⁴⁾								
60%미만	4.4	26.8	50.4	15.6	2.8	100.0	(250)	12.95
60~80%미만	1.9	27.3	51.6	17.3	1.9	100.0	(417)	13.06
80~100%미만	1.9	21.8	58.1	17.2	1.1	100.0	(377)	13.12
100~120%미만	0.8	23.0	58.2	15.1	2.9	100.0	(239)	13.43
120~140%미만	0.6	16.9	57.2	22.3	3.0	100.0	(166)	13.91
140~160%미만	0.9	21.7	62.3	13.2	1.9	100.0	(106)	13.86
160%이상	1.8	17.8	59.4	19.6	1.4	100.0	(219)	13.68
조사대상아 출생순위($\chi^2=48.1^{***}$)								
첫째아	2.3	18.0	55.8	21.1	2.7	100.0	(881)	13.81
둘째아	1.4	25.7	56.8	14.5	1.6	100.0	(692)	13.02
셋째아 이상	2.0	35.3	52.0	9.8	1.0	100.0	(204)	12.08

* p<0.05, ** p<0.01, *** p<0.001

주: 1) 2013.1.1.일 이후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5세 미만에는 17~19세 8명, 40~45세에는 45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3) 고졸이하에는 중졸이하 27명이 포함되어 있음.

4)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5)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6)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분만에 관한 사항

1. 분만 장소

조사 대상 기간(2013.1.1.~2015.7.31)에 이루어진 분만은 기혼여성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시설에서 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병원 70.6%, 의원 18.0%, 종합병원 10.8%, 보건의료원 0.1%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특성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 다만, 모가 취업한 경우에 비취업 중인 경우에 비해 그리고 고소득층일수록 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소득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고가인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대체적으로 종합병원은 분만 상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취업 여성 등이 상대적으로 임신 중 건강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표 6-3〉 기혼여성(15~49세)의 분만장소(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¹⁾

(단위: %, 명)

구 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 의료원	자택	계	(명)
전체	10.8	70.6	18.0	0.5	0.1	0.0	100.0	(1,776)
거주지								
대도시	10.6	73.8	14.6	0.7	0.1	0.1	100.0	(753)
중소도시	10.6	67.0	21.8	0.4	0.1	-	100.0	(725)
농촌	11.3	71.0	17.3	0.3	-	-	100.0	(300)
출산 시 모의 연령 ²⁾								
25세 미만	5.8	72.5	21.7	-	-	-	100.0	(69)
25~29세	8.4	72.8	18.0	0.5	0.3	-	100.0	(394)
30~34세	9.6	70.7	19.1	0.5	0.1	0.1	100.0	(866)
35~39세	15.0	68.9	15.0	1.1	-	-	100.0	(380)
40~45세	21.4	61.4	17.1	-	-	-	100.0	(70)
교육수준 ³⁾								
고졸 이하	10.8	67.4	21.4	0.4	-	-	100.0	(491)
대졸	10.5	72.6	16.2	0.5	0.1	0.1	100.0	(1,184)
대학원졸	14.9	62.4	21.8	1.0	-	-	100.0	(101)
취업여부								
취업	14.0	66.9	17.6	1.2	0.2	0.2	100.0	(607)
비취업	9.1	72.5	18.1	0.3	0.1	-	100.0	(1,170)
조사대상아 출생순위								
첫째아	10.4	71.4	17.5	0.6	0.1	-	100.0	(881)
둘째아	9.7	71.4	18.4	0.3	0.1	0.1	100.0	(692)
셋째아 이상	15.7	64.7	18.6	1.0	-	-	100.0	(204)

(표 6-3) 계속

(단위: %, 명)

구 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 의료원	자택	계	(명)
가구소득 ⁴⁾								
60%미만	8.0	74.8	16.4	0.4	0.4	-	100.0	(250)
60~80%미만	9.1	74.2	16.3	0.2	0.2	-	100.0	(418)
80~100%미만	8.8	67.6	23.1	0.5	-	-	100.0	(376)
100~120%미만	10.8	67.1	20.4	1.3	-	0.4	100.0	(240)
120~140%미만	7.3	75.2	17.6	-	-	-	100.0	(165)
140~160%미만	22.4	60.7	16.8	-	-	-	100.0	(107)
160%이상	16.9	69.4	12.3	1.4	-	-	100.0	(219)

* p<0.05, ** p<0.01, *** p<0.001

주: 1) 2013.1.1.일 이후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5세 미만에는 17~19세 8명, 40~45세에는 45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3) 중졸이하는 26명이 포함되어 있음.

4)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5)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6)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분만 방법

한국의 제왕절개분만율은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현재 출생아 1,000명당 360건으로 OECD 평균인 254.4건 보다 1.4배가 높은 실정이다. 본 조사 결과, 기혼여성(15~49세)의 제왕절개분만율은 39.0%로 나타났다.

출산 시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제왕절개분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왕절개분만율은 35세 이상에서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40~45세 기혼 여성의 경우 61.4%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령임신과 제왕절개분만 간의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겠다. 모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제왕절개분만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제왕절개의 단점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저학력층일수록 낮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분만 장소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종합병원에서 분만 한 경우 51.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위험 임신으로 주의

를 요하는 경우나 사전에 제왕절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대체로 종합병원에서 분만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 취업여부, 가구소득 및 해당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분만 방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 거주지별 제왕절개분만율은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농촌일수록 임신 중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미약하여 문제 발생 시 제왕절개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조사대상아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제왕절개분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초산 등의 경우 신체적 문제나 정서적 이유로 제왕절개를 더 선택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표 6-4〉 기혼여성(15~49세)의 분만방법(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구 분	자연분만	제왕절개 분만	계	(명)
전체	60.9	39.1	100.0	(1,776)
거주지($x^2=5.6$)				
대도시	63.5	36.5	100.0	(753)
중소도시	60.4	39.6	100.0	(724)
농촌	55.7	44.3	100.0	(300)
출산 시 모의 연령 ²⁾ ($x^2=46.7^{**}$)				
25세 미만	69.6	30.4	100.0	(69)
25~29세	66.2	33.8	100.0	(393)
30~34세	64.6	35.4	100.0	(864)
35~39세	49.6	50.4	100.0	(381)
40~45세	38.6	61.4	100.0	(70)
교육수준 ³⁾ ($x^2=6.6^*$)				
고졸이하	56.3	43.7	100.0	(492)
대졸	62.5	37.5	100.0	(1,183)
대학원졸	65.7	34.3	100.0	(102)
취업여부($x^2=1.9$)				
취업	63.1	36.9	100.0	(605)
비취업	59.8	40.2	100.0	(1,171)
조사대상아 출생순위($x^2=1.4$)				
첫째아	59.6	40.4	100.0	(881)
둘째아	61.9	38.1	100.0	(691)
셋째아 이상	63.2	36.8	100.0	(204)

〈표 6-4〉 계속

(단위: %, 명)

구 분	자연분만	제왕절개 분만	계	(명)
가구소득 ⁴⁾ ($\chi^2=8.3$)				
60%미만	60.2	39.8	100.0	(249)
60~80%미만	56.8	43.2	100.0	(417)
80~100%미만	60.7	39.3	100.0	(377)
100~120%미만	59.2	40.8	100.0	(240)
120~140%미만	64.5	35.5	100.0	(166)
140~160%미만	64.5	35.5	100.0	(107)
160%이상	67.1	32.9	100.0	(219)
분만 장소($\chi^2=17.8^{***}$)				
종합병원	48.7	51.3	100.0	(191)
병원	62.2	37.8	100.0	(1,255)
의원	61.8	38.2	100.0	(319)
기타	91.7	8.3	100.0	(12)

* p<0.05, ** p<0.01, *** p<0.001

주: 1) 2013.1.1.일 이후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5세 미만에는 17~19세 8명, 40~45세에는 45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3) 중졸이하는 27명이 포함되어 있음.

4)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임신주수

출생아의 임신주수 또는 재태주수(gestational age)는 중요한 출산 결과의 하나인 조산을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임신 주수가 37주 미만인 경우에 조산으로 그리고 37주 이상인 경우 정상 분만으로 구분된다. 임신부의 건강 상태가 조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또한 조산아는 체중 미달, 미성숙한 발달 등으로 인해 영아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사 대상 기간(2013.1.1.~2015.7.31.) 동안 출산을 경험한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임신주수는 38.82주로 나타났다. 출산 시 모의 연령별로 평균 임신주수는 20대 후반~30대 전반에서 약 38.9주인 반면, 25세 미만에서는 38.78주, 30대 후반 38.68주, 40대 38.20주로 나타났다.

평균 임신주수는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저연령층일수록 그리고 고연령층일수록 조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아 역시 조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요컨대, 아주 이른 연령층이거나 고연령층에서 임신을 하는 경우 산전관리 등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6-5〉 기혼여성(15~49세)의 출산당시 연령별 평균 임신주수(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단위: 주)

구 분	해당아 출산순위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당시 모의 연령				
전체 ¹⁾	38.95	38.70	38.62	38.82
15~24세	38.81	38.66*	38.65*	38.78
25~29세	38.97	38.66	39.01*	38.88
30~34세	39.01	38.77	38.85	38.90
35~39세	38.88	38.63	38.55	38.68
40~49세	38.40*	38.38*	37.83*	38.19

주: 1) 25세 미만에는 17~19세 8명, 40~45세에는 45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는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3절 산후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후 진찰

산후 관리는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로부터 회복하여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도록 특히 산욕기라고 부르는 분만 후 6주간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과 대조적으로 아직까지 산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은 다소 낮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후 관리를 보건의료적인 측면에 문화적인 요소를 더한 산후조리라는 개념으로 대체해서 인식하기도 한다.

조사 대상 기혼여성 중 산후 기간에 진찰을 받은 비율(산후수진율)은 94.6%로 산전 수진율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나,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산 시 모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 가구소득 등에 따른 산전수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의 거주지별로 산후수진율은 대도시(96.1%)와 중소도시(94.1%)에 비해 농촌(92.3%)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산후 진찰관련 의료기관 등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조사대상아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산후수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출산의 경우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관리가 소홀한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6-6〉 기혼여성(15~49세)의 산후 수진 경험(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¹⁾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94.6	5.4	100.0	(1,776)
거주지($\chi^2=7.0$)				
대도시	96.1	3.9	100.0	(753)
중소도시	94.1	5.9	100.0	(724)
농촌	92.3	7.7	100.0	(300)
출산 시 모의 연령 ²⁾ ($\chi^2=6.9$)				
25세 미만	92.8	7.2	100.0	(69)
25~29세	96.9	3.1	100.0	(393)
30~34세	93.9	6.1	100.0	(864)
35~39세	94.7	5.3	100.0	(380)
40~45세	91.5	8.5	100.0	(71)
교육수준 ³⁾ ($\chi^2=3.7$)				
고졸이하	93.5	6.5	100.0	(492)
대졸	94.8	5.2	100.0	(1,183)
대학원졸	98.0	2.0	100.0	(102)
취업여부($\chi^2=2.2$)				
취업	93.6	6.4	100.0	(605)
비취업	95.2	4.8	100.0	(1,171)

〈표 6-6〉 계속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가구소득 ⁴⁾ ($\chi^2=8.4$)				
60%미만	92.0	8.0	100.0	(250)
60~80%미만	95.9	4.1	100.0	(417)
80~100%미만	94.1	5.9	100.0	(376)
100~120%미만	95.0	5.0	100.0	(239)
120~140%미만	96.4	3.6	100.0	(166)
140~160%미만	97.2	2.8	100.0	(107)
160%이상	93.2	6.8	100.0	(219)
조사대상아 출생순위($\chi^2=7.5$)				
첫째아	95.5	4.5	100.0	(881)
둘째아	94.8	5.2	100.0	(691)
셋째아 이상	90.7	9.3	100.0	(204)

* p<0.05, ** p<0.01, *** p<0.001

주: 1) 2013.1.1.일 이후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5세 미만에는 17~19세 8명, 40~45세에는 45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3) 중졸이하 27명이 포함되어 있음.

4)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산후 우울

산후우울증은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후 기간 동안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산후우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기혼여성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거주지, 연령, 취업 여부, 출생순위 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모의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기혼여성에게 있어서 산후우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별로 산후우울증에 대한 진단 및 상담을 받은 비율은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인 계층의 경우 1.3~1.9%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 100% 이상의 계층에서는 2.3~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7〉 기혼여성(15~49세)의 산후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¹⁾

(단위: %, 명)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2.6	97.4	100.0	(1,776)
거주지($x^2=4.6$)				
대도시	3.6	96.4	100.0	(753)
중소도시	2.1	97.9	100.0	(724)
농촌	1.7	98.3	100.0	(300)
출산 시 모의 연령 ²⁾				
25세 미만	5.8	94.2	100.0	(69)
25~29세	2.0	98.0	100.0	(393)
30~34세	2.5	97.5	100.0	(863)
35~39세	3.4	96.6	100.0	(380)
40~45세	-	100.0	100.0	(71)
교육수준 ³⁾ ($x^2=10.3^{**}$)				
고졸이하	3.3	96.7	100.0	(492)
대졸	1.9	98.1	100.0	(1,182)
대학원졸	6.9	93.1	100.0	(101)
취업여부($x^2=0.5$)				
취업	3.0	97.0	100.0	(605)
비취업	2.4	97.6	100.0	(1,171)
조사대상아 출생순위($x^2=5.4$)				
첫째아	1.8	98.2	100.0	(881)
둘째아	3.0	97.0	100.0	(692)
셋째아 이상	4.4	95.6	100.0	(203)
가구소득 ⁴⁾ ($x^2=16.5^*$)				
60%미만	1.6	98.4	100.0	(249)
60~80%미만	1.9	98.1	100.0	(418)
80~100%미만	1.3	98.7	100.0	(377)
100~120%미만	5.0	95.0	100.0	(239)
120~140%미만	3.0	97.0	100.0	(166)
140~160%미만	6.5	93.5	100.0	(107)
160%이상	2.3	97.7	100.0	(219)

* p<0.05, ** p<0.01, *** p<0.001

주: 1) 2013.1.1.일 이후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5세 미만에는 17~19세 8명, 40~45세에는 45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3) 중졸이하 26명이 포함되어 있음.

4)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산후우울증에 대해 진단 혹은 상담을 받은 기혼여성은 46명에 불과하나, 이들의 진단 및 상담 기관을 살펴본 결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한 비율이 43.6%로 나타났다.

〈표 6-8〉 산후우울증 진단 및 상담을 받은 기혼여성(15~49세)의 진단 혹은 상담 장소
(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¹⁾

(단위: %, 명)

구 분	보건소	산부 인과	정신건강 의학과	정신보건 센터	한의원	기타	계	(명)
전체	11.7	31.5	43.6	2.4	3.6	7.3	100.0	(46)

주: 1) 2013.1.1.일 이후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산후 조리

산후조리는 출산 후 6주간의 산욕기 동안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성장발달을 위해 주의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기혼여성은 조사 대상의 59.8%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외에 산후조리의 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본인의 집(29.4%)으로 나타났다.

모의 거주지가 도시(특히 대도시)일수록 농촌에 비해 산후조리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후조리원 이용의 경제적 부담 차원에서 도시 거주 기혼여성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있지만, 산후조리원이 도시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에서 대가족 체계가 상대적으로 더 유지되고 있어 가족 지원에 의한 산후 조리가 더 용이하다는 영향도 존재한다고 하겠다. 실제 모의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출산 시 모의 연령이 25~34세인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61.5~64.4%로 다른 연령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이와 달리 고연령층일수록 본인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예로 40~45세의 경우 60.0%가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시 모의 연령이 젊을수록 초산으로 인한 산후조리 경험 내지 정보 부재, 미용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초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그만큼 경험이 있어 본인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조사대상아의 출생 순위가 높을수록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낮고, 대신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모가 취업한 경우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여성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등의 특징과 연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6-9〉 기혼여성(15~49세)의 산후조리 장소(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¹⁾

(단위: %, 명)

구 분	산후 조리원	산부인과	산부인과 외 병의원	본인 집	친정	시댁	조산소, 기타	계	(명)
전체	59.8	0.5	0.2	29.4	8.7	1.2	0.2	100.0	(1,776)
거주지									
대도시	65.7	0.7	0.1	26.3	6.6	0.4	0.1	100.0	(753)
중소도시	57.1	0.1	0.3	30.7	9.5	1.9	0.3	100.0	(723)
농촌	51.3	0.7	0.3	34.3	12.0	1.3	-	100.0	(300)
출산 시 모 연령 ²⁾									
25세 미만	51.5	-	-	27.9	16.2	4.4	-	100.0	(68)
25~29세	61.5	0.5	0.3	26.3	8.4	2.6	0.5	100.0	(392)
30~34세	64.4	0.6	0.1	25.1	9.1	0.7	-	100.0	(865)
35~39세	53.3	-	0.5	37.3	7.9	0.8	0.3	100.0	(381)
40~45세	37.1	1.4	-	60.0	1.4	-	-	100.0	(70)
교육수준 ³⁾									
고졸이하	41.4	0.6	0.4	42.8	11.4	3.4	-	100.0	(493)
대졸	65.9	0.3	0.1	25.0	8.0	0.4	0.3	100.0	(1,182)
대학원졸	78.2	1.0	-	16.8	4.0	-	-	100.0	(101)
취업여부									
취업	65.6	0.5	0.2	23.5	9.6	0.5	0.2	100.0	(604)
비취업	56.8	0.4	0.2	32.6	8.2	1.6	0.2	100.0	(1,170)

〈표 6-9〉 계속

(단위: %, 명)

구 분	산후 조리원	산부인과	산부인과 외 병의원	본인 집	친정	시댁	조산소, 기타	계	(명)
조사대상아 출생순위									
첫째아	74.8	0.5	0.1	15.1	7.9	1.5	0.1	100.0	(881)
둘째아	47.9	0.4	0.1	40.2	10.0	1.0	0.3	100.0	(691)
셋째아 이상	35.8	0.5	0.5	54.9	7.8	0.5	-	100.0	(204)
가구소득 ⁴⁾									
60%미만	48.2	0.4	-	33.9	12.4	4.8	0.4	100.0	(251)
60~80%미만	53.5	0.7	-	35.7	9.6	0.5	-	100.0	(417)
80~100%미만	58.1	0.3	0.3	31.0	8.8	1.6	-	100.0	(377)
100~120%미만	67.4	-	0.4	25.5	6.3	-	0.4	100.0	(239)
120~140%미만	65.1	1.2	0.6	22.3	10.2	0.6	-	100.0	(166)
140~160%미만	70.1	0.9	-	19.6	9.3	-	-	100.0	(107)
160%이상	69.9	-	-	24.7	5.0	-	0.5	100.0	(219)

* p<0.05, ** p<0.01, *** p<0.001

주: 1) 2013.1.1.일 이후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5세 미만에는 17~19세 8명, 40~45세에는 45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3) 중졸이하 26명이 포함되어 있음.

4)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5)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6)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를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이용한 일수와 지불한 비용,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지내는 모자동실의 이용시간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산후조리시설을 평균 13.1일 간 이용하였으며, 이용비용으로 평균 1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모자동실을 이용한 시간은 평균 4.5시간으로 나타났다.

모의 산후조리시설 이용 기간은 중소도시 거주 의 경우 평균 13.3일, 대도시 거주 의 경우 평균 13.2일, 농촌 거주 의 경우 평균 12.3일 순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출산 시의 모의 연령에 따라서 사례수가 적은 25세 미만을 제외하면, 고연령층일수록 산후조리시설을 상대적으로 더 오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층일수록 다출산으로 인하여 산후조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일단 이용하

는 경우에는 고령임신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길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대체적으로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월평균 소득의 140% 이상) 산후조리시설을 이용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층은 산후조리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그 기간도 더 길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아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산후조리시설을 이용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게 나타났다. 이는 첫째아의 경우 산후 기간에 산모와 신생아 관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려는 욕구가 크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 자녀만을 계획한 경우 산후조리시설을 통한 산모 본인과 첫째아의 돌봄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모의 산후조리시설 이용 시 지불한 비용은 대도시, 도시, 농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산 시 모가 고연령층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중인 경우,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조사대상아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특히 첫째아의 경우) 산후조리시설에 지불한 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한 공간에서 지내도록 되어있는 모자동실(rooming-in)의 이용은 모와 아이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유니세프(UNICEF)에서는 모자동실제를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따라 많은 산후조리원에서도 모자동실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후조리시설에서 모자동실로 산모와 신생아가 한 공간에서 함께 머무르는 시간은 비교적 짧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집단에서 보편화되어 있어 모의 특성에 따른 모자동실 이용 시간의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짧은 모자동실 시간은 산모와 신생아 간의 모아 상호작용, 모성 역할 획득, 모유수유 등 산후 시기의 중요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방해요인이 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표 6-10〉 산후조리시설¹⁾을 이용한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산후조리시설 이용일수, 비용, 모자동실 이용시간(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²⁾

(단위: 일, 만원, 시간)

구 분	평균 시설 이용 일수	(명)	F(t)	평균 비용	(명)	F(t)	평균 모자동실 이용시간	(명)	F(t)
전체	13.12	(1,075)	-	196	(1,075)	-	4.46	(1,075)	-
거주지									
대도시	13.19	(501)		211	(501)		4.24	(501)	
중소도시	13.32	(417)	4.1*	190	(417)	13.9***	4.67	(417)	1.7
농촌	12.34	(157)		165	(157)		4.57	(157)	
출산 시 모의 연령 ³⁾									
25세 미만	13.21	(35)		173	(35)		4.79	(35)	
25~29세	12.71	(244)		186	(244)		4.92	(244)	
30~34세	13.03	(563)	5.0**	195	(563)	2.6*	4.27	(563)	2.0
35~39세	13.44	(206)		212	(206)		4.49	(206)	
40~45세	15.91*	(27)		217*	(27)		3.52*	(27)	
교육수준 ⁴⁾									
고졸이하	12.98	(209)		167	(209)		4.74	(209)	
대졸	13.09	(786)	1.4	196	(786)	35.7***	4.33	(786)	1.8
대학원졸	13.76	(80)		277	(80)		4.91	(80)	
취업여부									
취업	13.10	(401)		208	(401)		4.37	(401)	
비취업	13.13	(674)	-0.1	189	(674)	2.9**	4.51	(674)	-0.6
가구소득 ⁵⁾									
60%미만	12.30	(121)		157	(121)		4.38	(121)	
60~80%미만	13.07	(226)		174	(226)		4.35	(226)	
80~100%미만	13.10	(221)		192	(221)		4.13	(221)	
100~120%미만	12.99	(163)	2.1*	195	(163)	14.9***	5.15	(163)	1.4
120~140%미만	13.02	(111)		202	(111)		4.40	(111)	
140~160%미만	13.93	(76)		211	(76)		4.27	(76)	
160%이상	13.64	(154)		255	(154)		4.56	(154)	
조사대상아 출생순위									
첫째아	13.43	(663)		202	(663)		4.39	(663)	
둘째아	12.71	(337)	6.8**	191	(337)	4.4*	4.56	(337)	0.4
셋째아 이상	12.16	(75)		169	(75)		4.63	(75)	

* p<0.05, ** p<0.01, *** p<0.001

- 주: 1) 산후조리시설에는 산후조리원, 조산소, 산부인과, 산부인과 외 병의원 등이 해당됨.
 2) 2013.1.1.일 이후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3) 25세 미만에는 17~19세 8명, 40~45세에는 45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4) 중졸이하 9명이 포함되어 있음.
 5)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6) *는 사례수가 30미만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7)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4절 수유 실태

WHO에서는 생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WHO에서는 특히 출생 후 1시간 이내의 모유인 초유의 섭취가 신생아의 성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 응답 기혼여성 중 3.9%가 모유수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 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를 실시한 비율은 18.1%에 불과했다. 이러한 낮은 모유 수유 실천율은 보편적인 것으로 모의 특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만, 출산 시 모의 연령이 25세 미만과 25~29세의 경우에 출생 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게 나타났다. 모유수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1〉 기혼여성(15~49세)의 모유수유 경험 여부(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구 분	모유수유 합	출생 후 1시간 내 모유수유 여부		모유수유 안함	계	(명)		
		모유수유 합	모유수유 안함					
전체	96.1	18.1	81.9	100.0	(1,707)	3.9	100.0	(1,776)
거주지($\chi^2=2.2$)								
대도시	95.3	21.5	78.5	100.0	(717)	4.7	100.0	(752)
중소도시	96.6	14.9	85.1	100.0	(699)	3.5	100.0	(724)
농촌	97.0	17.9	82.1	100.0	(291)	3.0	100.0	(300)
출산 시 모의 연령 ²⁾								
25세 미만	95.7	10.6	89.4	100.0	(66)	4.3	100.0	(69)
25~29세	98.0	15.6	84.4	100.0	(385)	2.0	100.0	(393)
30~34세	96.5	20.5	79.5	100.0	(833)	3.5	100.0	(863)
35~39세	93.2	16.9	83.1	100.0	(354)	6.8	100.0	(380)
40~45세	97.1	16.2	83.8	100.0	(68)	2.9	100.0	(70)
교육수준 ³⁾ ($\chi^2=2.8$)								
고졸이하	95.9	14.9	85.1	100.0	(471)	4.1	100.0	(492)
대졸	96.4	19.6	80.4	100.0	(1,141)	3.6	100.0	(1,183)
대학원졸	93.1	16.8	83.2	100.0	(95)	6.9	100.0	(102)
취업여부($\chi^2=0.0$)								
취업	96.2	21.6	78.4	100.0	(582)	3.8	100.0	(605)
비취업	96.1	16.4	83.6	100.0	(1,125)	3.9	100.0	(1,171)

〈표 6-11〉 계속

(단위: %, 명)

구 분	모유수유 함	출생 후 1시간 내 모유수유 여부			모유수유 안함	계	(명)
		모유수유 함	모유수유 안함	소계 (명)			
가구소득 ⁴⁾ ($\chi^2=6.6$)							
60%미만	96.4	15.8	84.2	100.0 (240)	3.6	100.0 (249)	
60~80%미만	97.4	19.2	80.8	100.0 (407)	2.6	100.0 (418)	
80~100%미만	94.2	17.2	82.8	100.0 (355)	5.8	100.0 (377)	
100~120%미만	96.3	16.5	83.5	100.0 (231)	3.8	100.0 (240)	
120~140%미만	95.8	20.8	79.2	100.0 (159)	4.2	100.0 (166)	
140~160%미만	95.3	19.6	80.4	100.0 (102)	4.7	100.0 (107)	
160%이상	97.2	19.8	80.2	100.0 (212)	2.8	100.0 (218)	
조사대상아 출생순위($\chi^2=0.9$)							
첫째아	96.6	16.6	83.4	100.0 (851)	3.4	100.0 (881)	
둘째아	95.8	19.2	80.8	100.0 (662)	4.2	100.0 (691)	
셋째아 이상	95.6	21.6	78.4	100.0 (194)	4.4	100.0 (203)	

* p<0.05, ** p<0.01, *** p<0.001

주: 1) 2013.1.1.일 이후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5세 미만에는 17~19세 8명, 40~45세에는 45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3) 중졸이하 27명이 포함되어 있음.

4)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모가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는 시기와 실제 중단한 시기 간에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는 시기는 평균 13.2개월이었으나 실제 중단한 시기는 평균 6.6개월로 6개월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해 알고 계획했으나 모의 신체적인 요인을 비롯한 많은 다양한 방해 요인으로 인해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모의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중단 계획 시기는 출산 시 모의 연령과 상관관계가 있는 조사대상아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출산 시 모가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조사대상아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났다.

모유수유 중단 시기는 출산 시 모의 연령, 조사대상아 출생 순위, 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유수유 중단 시기는 출산 시 모의 연령이 25세 미만인 집단에게서 가장 짧게 나타났다고, 35~39세를 제외하고 대체로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조사대상아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의 기간은 증가하였다. 이는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모가 신체적으로 모유수유에 적응이 되어 모유수유와 관련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12〉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모유수유 중단 예정시기 및 실제 중단 시기(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개월)

구 분	모유수유 중단예정시기	(명)	F(t)	모유수유 실제중단시기	(명)	F(t)
전체	13.22	(355)	-	6.57	(1,350)	-
거주지						
대도시	12.74	(158)		6.54	(557)	
중소도시	13.58	(141)	1.03	6.41	(559)	1.04
농촌	13.67	(56)		7.02	(234)	
출산 시 모의 연령 ²⁾						
25세 미만	14.51*	(7)		5.13	(59)	
25~29세	11.83	(71)		6.42	(314)	
30~34세	12.94	(184)	3.03*	6.90	(649)	4.22**
35~39세	14.87	(81)		5.91	(272)	
40~45세	13.84*	(13)		8.33	(56)	
교육수준 ³⁾						
고졸이하	13.88	(92)	1.7	6.34	(379)	0.5
대졸	13.11	(245)		6.64	(894)	
대학원졸	11.27*	(18)		6.84	(77)	
취업여부						
취업	12.51	(95)	-1.41	6.12	(485)	-2.37*
비취업	13.48	(260)		6.82	(866)	
가구소득 ⁴⁾						
60%미만	13.98	(41)		6.55	(199)	
60~80%미만	13.68	(101)		6.42	(305)	
80~100%미만	13.67	(73)		7.05	(282)	
100~120%미만	13.76	(45)	1.51	7.20	(185)	1.52
120~140%미만	12.22	(35)		6.03	(122)	
140~160%미만	*	(19)		6.37	(82)	
160%이상	11.18	(40)		5.87	(173)	

〈표 6-12〉 계속

(단위: %, 명, 개월)

구 분	모유수유 중단예정시기	(명)	F(t)	모유수유 실제중단시기	(명)	F(t)
조사대상아 출생순위						
첫째아	12.27	(188)		6.11	(663)	
둘째아	13.28	(117)	12.31***	6.83	(543)	6.35**
셋째아 이상	16.63	(50)		7.73	(144)	

* p<0.05, ** p<0.01, *** p<0.001

주: 1) 2013.1.1.일 이후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5세 미만에는 17~19세 8명, 40~45세에는 45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3) 중졸이하 4명(모유수유 중단 예정), 중졸이하 21명(모유수유 실제 중단시기)이 포함되어 있음.

4)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5) *는 사례수가 30 미만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아의 월령에 따른 완전 모유수유율을 살펴 보면, 생후 1주에 23.9%였다가 생후 2주에는 50.1%, 생후 3주에는 55.3%로 경과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인공유를 수유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생후 1주에 10.2%였으나, 이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낮게 나타났다. 모유와 인공유를 함께 수유하는 경우와 인공유를 수유하는 경우를 합하면 인공유 수유기간은 생후 1주에 76.1%였으나, 이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제왕절개 분만이 높으며 시설에서 분만하고 산후 기간 산후조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면서 하루 평균 약 4시간 정도의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 시설과 모자동실제를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은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생후 1주와 생후 2주에는 완전 모유수유율이 낮다가 집으로 돌아간 후 모유수유율이 증가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완전 모유수유율은 생후 1개월에 52.6%, 생후 2개월에 50.3%, 생후 3개월에 47.2%, 4개월에 40.6% 등 경과기간이 더욱 길어질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생후 6개월에는 9.4%로 완전 모유수유율이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후 6개월이 되면서 보충식을 시작하는 비율이 급증하기 때문인데, 생후 6개월에 모유와 보충식을

함께하는 경우가 33.5%로 생후 5개월의 14.7%와 생후 4개월의 4.0%와 비교해서 급증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6-13〉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아의 월령별 수유양상(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구 분	완전모유	모유 +인공유	인공유	모유 +보충식	인공유 +보충식	보충식 (이유식)	계	(명)
생후1주	23.9	65.9	10.2	-	-	-	100.0	(1,776)
생후2주	50.1	42.7	7.1	-	-	-	100.0	(1,776)
생후3주	55.3	36.2	8.5	-	-	-	100.0	(1,776)
생후4주	55.6	34.7	9.7	-	-	-	100.0	(1,773)
1개월	52.6	32.5	14.9	0.0	-	-	100.0	(1,773)
2개월	50.3	29.8	19.9	0.0	-	-	100.0	(1,750)
3개월	47.2	25.4	25.5	1.0	0.9	-	100.0	(1,705)
4개월	40.6	19.6	29.7	4.0	6.1	-	100.0	(1,657)
5개월	28.8	16.2	24.3	14.7	15.9	0.1	100.0	(1,598)
6개월	9.4	12.1	9.0	33.5	35.9	0.1	100.0	(1,545)
7개월	4.3	6.1	5.9	36.3	47.1	0.3	100.0	(1,494)
8개월	2.6	4.3	4.1	38.0	50.7	0.4	100.0	(1,435)
9개월	2.1	3.3	3.5	36.3	53.8	1.0	100.0	(1,385)
10개월	1.6	3.1	2.6	35.5	54.9	2.2	100.0	(1,339)
11개월	1.4	2.1	2.4	33.6	55.4	5.1	100.0	(1,291)
12개월	0.8	1.9	1.4	29.5	44.9	21.4	100.0	(1,229)
13개월	0.6	1.0	0.7	19.2	33.5	45.0	100.0	(1,175)
14개월	0.3	0.7	0.6	15.4	30.2	52.8	100.0	(1,128)
15~17개월	0.3	0.5	0.5	12.3	22.2	64.2	100.0	(1,070)
18~24개월	0.3	0.2	0.2	7.2	16.2	75.9	100.0	(893)

주: 1) 2013.1.1.일 이후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생후 1개월 시의 수유 양상을 보면, 완전 모유수유 52.6%, 모유+인공유 32.5%, 인공유 14.9%, 모유+보충식 0.0%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생후 1개월 시의 수유 양상도 출산 시 모의 연령과 조사 대상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출산 시 모의 연령이 25~29세 집단에서 완전 모유수유율이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5~39세 집단에서 46.7%, 25세 미만 집단에서 49.3%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아의 출생순위가 높

을수록 완전 모유수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출생순위가 높아질수록 모유수유의 어려움이 적어지는 것에서 기인한다.

〈표 6-14〉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아의 생후 1개월 시 수유양상(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구 분	완전 모유	모유+인공유	인공유	모유+ 보충식	계	(명)
전체	52.6	32.5	14.9	0.0	100.0	(1,773)
거주지						
대도시	50.6	35.6	13.7	0.1	100.0	(751)
중소도시	53.8	29.9	16.3	-	100.0	(723)
농촌	54.8	30.8	14.4	-	100.0	(299)
출산 시 모의 연령 ²⁾						
25세 미만	49.3	26.1	24.6	-	100.0	(69)
25~29세	57.3	29.0	13.5	0.3	100.0	(393)
30~34세	53.3	34.0	12.7	-	100.0	(861)
35~39세	46.7	33.2	20.1	-	100.0	(379)
40~45세	52.1	35.2	12.7	-	100.0	(71)
교육수준 ³⁾						
고졸이하	55.8	27.7	16.5	-	100.0	(491)
대졸	51.6	34.1	14.2	0.1	100.0	(1,181)
대학원졸	49.5	35.6	14.9	-	100.0	(101)
취업여부						
취업	51.9	33.7	14.4	-	100.0	(605)
비취업	53.0	31.8	15.2	0.1	100.0	(1,168)
가구소득 ⁴⁾						
60%미만	49.6	33.2	16.8	0.4	100.0	(250)
60~80%미만	55.9	29.0	15.1	-	100.0	(417)
80~100%미만	54.5	30.2	15.2	-	100.0	(374)
100~120%미만	56.3	31.3	12.5	-	100.0	(240)
120~140%미만	50.9	34.1	15.0	-	100.0	(167)
140~160%미만	49.5	38.3	12.1	-	100.0	(107)
160%이상	45.7	38.8	15.5	-	100.0	(219)
조사대상아 출생순위						
첫째아	49.0	36.9	14.0	0.1	100.0	(880)
둘째아	54.4	29.0	16.5	-	100.0	(689)
셋째아 이상	62.1	24.6	13.3	-	100.0	(203)

주: 1) 2013.1.1.일 이후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5세 미만에는 17~19세 8명, 40~45세에는 45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3) 중졸이하 26명이 포함되어 있음.

4)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5)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6)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생후 3개월 시의 수유 양상을 살펴보면, 완전 모유수유 47.2%, 모유+인공유 25.4%, 인공유 25.5%, 모유+보충식 1.0%, 인공유+보충식 0.9% 등으로 나타났다. 생후 1개월 시에 비해 완전 모유수유율과 모유+인공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공유만 수유하는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보충식을 조금씩 혼합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생후 3개월 시의 수유 양상은 출생 후 1개월 시와 마찬가지로 출산 시 모의 연령과 조사대상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거주지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우선, 농촌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완전 모유수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보충식을 도입한 비율은 도시(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산 시 모의 연령이 25~29세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완전 모유수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5세 미만의 연령 집단에서 인공유만 수유하는 비율이 4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생후 3개월 시에도 여전히 조사대상아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완전 모유수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5〉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아의 생후 3개월 시 수유양상(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¹⁾

(단위: %, 명)

구 분	완전 모유	모유+ 인공유	인공유	모유+ 보충식	인공유+ 보충식	보충식 (이유식)	계	(명)
전체	47.2	25.4	25.5	1.0	0.9	-	100.0	(1,705)
거주지($\chi^2=26.6^{**}$)								
대도시	45.7	29.4	22.2	1.1	1.7	-	100.0	(725)
중소도시	47.3	23.2	28.3	1.0	0.1	-	100.0	(693)
농촌	50.7	21.2	27.4	0.3	0.3	-	100.0	(288)
출산 시 모 연령 ²⁾								
25세 미만	34.3	23.9	41.8	-	-	-	100.0	(67)
25~29세	51.1	21.8	24.7	1.1	1.3	-	100.0	(380)
30~34세	48.7	27.6	22.1	0.6	1.0	-	100.0	(823)
35~39세	41.5	24.5	31.5	1.9	0.5	-	100.0	(371)
40~45세	50.0	25.8	22.7	1.5	-	-	100.0	(66)

〈표 6-15〉 계속

(단위: %, 명)

구 분	완전 모유	모유+ 인공유	인공유	모유+ 보충식	인공유+ 보충식	보충식 (이유식)	계	(명)
교육수준 ³⁾								
고졸이하	49.0	20.7	28.4	1.1	0.9	-	100.0	(469)
대졸	46.7	27.4	24.3	0.8	0.8	-	100.0	(1,138)
대학원졸	44.3	25.8	26.8	2.1	1.0	-	100.0	(97)
취업여부($\chi^2=5.6$)								
취업	44.5	27.9	25.8	1.4	0.5	-	100.0	(578)
비취업	48.6	24.2	25.4	0.8	1.0	-	100.0	(1,126)
가구소득 ⁴⁾								
60%미만	44.0	25.5	28.4	1.2	0.8	-	100.00	(243)
60~80%미만	49.9	23.3	26.1	0.2	0.5	-	100.00	(403)
80~100%미만	49.3	23.0	24.1	1.7	1.9	-	100.00	(361)
100~120%미만	50.9	25.4	23.3	0.4	-	-	100.00	(232)
120~140%미만	44.2	30.5	23.4	0.6	1.3	-	100.00	(154)
140~160%미만	49.5	22.8	27.7	-	-	-	100.00	(101)
160%이상	39.4	30.8	26.9	1.9	1.0	-	100.00	(208)
조사대상아 출생순위($\chi^2=33.0^{***}$)								
첫째아	43.1	30.0	24.4	0.9	1.5	-	100.0	(844)
둘째아	49.5	21.5	27.8	1.0	0.1	-	100.0	(669)
셋째아 이상	57.1	18.8	23.0	0.5	0.5	-	100.0	(191)

* p<0.05, ** p<0.01, *** p<0.001

주: 1) 2013.1.1.일 이후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5세 미만에는 17~19세 8명, 40~45세에는 45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3) 중졸이하 25명이 포함되어 있음.

4)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생후 6개월 시의 수유 양상을 보면, 완전 모유수유 9.4%, 모유+인공유 12.1%, 인공유 9.0%, 모유+보충식 33.5%, 인공유+보충식 35.9% 등으로 나타났다. 출생 후 6개월 시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생후 3개월 시의 완전 모유수유율(47.2%)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낮아졌다. 이는 생후 6개월 시점은 보충식이 도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모유와 보충식을 함께 실시한 경우가 33.5%에 이르면서 모유수유만 실시하는 경우는 급속하게 줄었다. 따라서 완전 모유수유와 모유와 보충식을 혼합하는 경우를 합한 42.9%가 실제적으로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유수유 양상은 출산 시 모의 연령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모의 연령이 25세 미만인 집단의 경우 31.7%만이 완전 모유수유와 모유와 보충식을 혼합한 혼합식을 실시하여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16〉 기혼여성(15~49세) 출생아의 생후 6개월 시 수유양상(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구 분	완전 모유	모유+ 인공유	인공유	모유+ 보충식	인공유+ 보충식	보충식 (이유식)	계	(명)
전체	9.4	12.1	9.0	33.5	35.9	0.1	100.0	(1,545)
거주지($\chi^2=16.1$)								
대도시	7.5	12.8	8.7	33.7	37.3	-	100.0	(656)
중소도시	9.5	11.7	9.5	33.6	35.7	-	100.0	(631)
농촌	14.3	11.2	8.5	32.8	32.8	0.4	100.0	(259)
출산 시 모의 연령 ²⁾ ($\chi^2=37.3$)								
25세 미만	6.7	8.3	8.3	25.0	51.7	-	100.0	(60)
25~29세	6.5	11.5	8.3	34.3	39.3	-	100.0	(338)
30~34세	11.7	13.0	8.9	34.3	32.0	0.1	100.0	(753)
35~39세	6.3	11.9	8.7	32.2	40.9	-	100.0	(335)
40~45세	19.0	8.6	15.5	32.8	24.1	-	100.0	(58)
교육수준 ³⁾ ($\chi^2=6.5$)								
고졸이하	8.1	10.6	10.4	34.1	36.9	-	100.0	(434)
대졸	10.2	12.5	8.7	33.2	35.3	0.1	100.0	(1,021)
대학원졸	7.7	14.3	5.5	33.0	39.6	-	100.0	(91)
취업여부($\chi^2=10.3$)								
취업	10.9	11.8	9.8	28.8	38.7	-	100.0	(532)
비취업	8.6	12.2	8.6	36.0	34.5	0.1	100.0	(1,014)
가구소득 ⁴⁾ ($\chi^2=40.0$)								
60%미만	7.5	13.7	8.0	32.3	38.5	-	100.0	(226)
60~80%미만	9.1	9.1	11.4	36.4	34.1	-	100.0	(352)
80~100%미만	9.6	10.1	8.1	36.7	35.5	-	100.0	(335)
100~120%미만	10.7	13.6	6.5	36.4	32.7	-	100.0	(214)
120~140%미만	5.8	19.4	7.2	30.2	37.4	-	100.0	(139)
140~160%미만	18.9	11.6	12.6	22.1	34.7	-	100.0	(95)
160%이상	8.8	12.6	9.3	28.6	40.7	-	100.0	(182)
조사대상아 출생순위($\chi^2=16.7$)								
첫째아	7.5	13.0	8.5	32.3	38.7	-	100.0	(745)
둘째아	10.9	11.2	9.9	32.7	35.2	-	100.0	(614)
셋째아 이상	12.5	11.4	7.6	40.8	27.7	-	100.0	(184)

* p<0.05, ** p<0.01, *** p<0.001

주: 1) 2013.1.1. 일 이후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5세 미만에는 17~19세 6명, 40~45세에는 45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3) 중졸이하 23명이 포함되어 있음.

4)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작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7

유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행태 <<

제1절 육아가사 분담에 관한 사항

1. 가족 내 부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

유배우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질문한 결과, 53.7%(찬성 45.0%, 매우 찬성 8.7%)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연령에 따라서는 20대를 제외하면 고연령층일수록 찬성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고학력층일수록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낮게 나타났는데, 고학력 여성일수록 양성평등 가치를 추구하고 본인의 경력 개발 등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 여성에 비해 비취업 여성에게서 동 견해에 대한 찬성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 합리화의 영향이거나, 이와 같은 성 역할 규범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비취업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고소득층일수록 동 견해에 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여성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개연성이 크고, 이에 여성에 대해 전통적 성 역할 보다는 적극적인 참여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1〉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8.7	45.0	40.1	6.2	100.0	(10,322)
거주지($\chi^2=17.1^{**}$)						
대도시	8.1	43.6	42.1	6.2	100.0	(4,468)
중소도시	8.9	46.1	38.7	6.3	100.0	(4,325)
농촌	10.1	45.7	38.0	6.3	100.0	(1,530)
연령 ¹⁾ ($\chi^2=29.9$)						
25세 미만	12.5	54.2	29.2	4.2	100.0	(48)
25~29세	10.8	45.4	36.7	7.1	100.0	(482)
30~34세	7.9	43.6	41.1	7.5	100.0	(1,690)
35~39세	8.3	43.5	42.2	6.1	100.0	(2,374)
40~44세	9.1	44.6	39.7	6.6	100.0	(2,859)
45~49세	8.8	47.2	38.8	5.2	100.0	(2,868)
교육수준($\chi^2=242.3^{***}$)						
중졸이하	11.9	58.7	26.6	2.8	100.0	(252)
고졸	11.1	49.1	35.9	3.9	100.0	(4,129)
대졸	7.1	42.2	43.1	7.6	100.0	(5,505)
대학원졸	4.4	33.0	49.9	12.7	100.0	(433)
취업여부($\chi^2=209.7^{***}$)						
취업	7.2	40.4	44.4	8.0	100.0	(5,651)
비취업	10.5	50.5	34.9	4.1	100.0	(4,670)
가구소득 ²⁾ ($\chi^2=109.1^{***}$)						
60%미만	10.4	50.6	35.0	4.1	100.0	(1,061)
60~80%미만	10.6	49.2	35.3	4.8	100.0	(1,588)
80~100%미만	9.3	46.0	39.5	5.2	100.0	(2,070)
100~120%미만	7.8	45.0	40.5	6.7	100.0	(1,903)
120~140%미만	7.7	42.0	42.8	7.4	100.0	(1,023)
140~160%미만	7.3	42.5	42.7	7.5	100.0	(934)
160%이상	7.6	39.6	44.5	8.2	100.0	(1,739)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는 견해에 대해 유배우여성(15~49세)의 35.9%(전적 찬성 5.1% 포함)만이 찬성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동 견해에 대한 찬성 정도는 농촌 거주 시, 고연령층일수록, 저학력층일수록, 비취업 여

성,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분업적 역할을 중시하는 성향은 과거 코호트와 비경제활동의 특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표 7-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5.1	30.8	53.0	11.1	100.0	(10,322)
거주지($\chi^2=16.9$)						
대도시	4.9	30.1	53.5	11.4	100.0	(4,466)
중소도시	4.8	31.8	53.0	10.5	100.0	(4,324)
농촌	6.8	29.7	51.3	12.2	100.0	(1,530)
연령 ¹⁾ ($\chi^2=75.4$ ***)						
25세 미만	8.2	36.7	49.0	6.1	100.0	(49)
25~29세	4.4	27.7	55.7	12.3	100.0	(481)
30~34세	4.2	26.9	53.1	15.8	100.0	(1,690)
35~39세	4.8	30.2	54.0	11.0	100.0	(2,374)
40~44세	5.1	32.2	52.3	10.5	100.0	(2,859)
45~49세	6.1	32.6	52.3	9.0	100.0	(2,868)
교육수준($\chi^2=280.1$ ***)						
중졸이하	9.1	47.2	37.7	6.0	100.0	(252)
고졸	6.5	34.5	51.3	7.6	100.0	(4,130)
대졸	4.2	28.3	54.6	12.9	100.0	(5,505)
대학원졸	1.4	17.3	56.4	24.9	100.0	(433)
취업여부($\chi^2=472.7$ ***)						
취업	3.6	23.6	58.2	14.6	100.0	(5,652)
비취업	7.0	39.5	46.6	6.9	100.0	(4,670)
가구소득 ²⁾ ($\chi^2=124.5$ ***)						
60%미만	7.4	36.4	48.7	7.5	100.0	(1,061)
60~80%미만	6.2	35.4	49.5	8.9	100.0	(1,589)
80~100%미만	4.6	32.5	52.9	10.0	100.0	(2,069)
100~120%미만	4.7	29.6	53.5	12.1	100.0	(1,903)
120~140%미만	5.7	27.6	52.9	13.9	100.0	(1,023)
140~160%미만	3.1	28.4	57.4	11.1	100.0	(932)
160%이상	4.7	25.6	55.8	13.9	100.0	(1,738)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6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유배우여성(15~49세)의 80.3%(전적 찬성 20.0% 포함)가 찬성하였다. 남성의 가사 참여에 대한 태도는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유배우 여성의 연령별로 동 견해에 대한 찬성 비율은 꺾임(∩)형으로 나타났다. 즉, 20대 후반~30대 초에서 남성의 가사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고, 그 이후의 고연령층일수록 그러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유배우 여성이 고학력층일수록 양성평등의식 등으로 남성의 가사 분담 증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비취업여성에 비해 취업여성에게서 동 견해에 대한 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여성들이 실제 일과 가정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부 간 가사 분담의 욕구가 더욱 큼을 의미한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찬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7-3〉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여성 (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20.0	60.3	19.2	0.6	100.0	(10,320)
거주지($\chi^2=6.5$)						
대도시	19.5	61.1	18.9	0.5	100.0	(4,467)
중소도시	20.0	60.0	19.3	0.7	100.0	(4,323)
농촌	21.1	58.4	19.6	0.8	100.0	(1,530)
연령 ¹⁾ ($\chi^2=50.3^{***}$)						
25세 미만	8.2	63.3	28.6	-	100.0	(49)
25~29세	19.1	63.1	17.0	0.8	100.0	(482)
30~34세	21.1	61.9	15.9	1.1	100.0	(1,689)
35~39세	22.3	58.9	18.1	0.7	100.0	(2,372)
40~44세	19.0	60.5	20.1	0.3	100.0	(2,859)
45~49세	18.6	59.6	21.2	0.6	100.0	(2,869)
교육수준($\chi^2=44.8^{***}$)						
중졸이하	15.1	56.7	28.2	-	100.0	(252)
고졸	18.1	61.0	20.4	0.5	100.0	(4,130)
대졸	21.3	60.1	17.9	0.7	100.0	(5,504)
대학원졸	23.6	57.5	17.8	1.2	100.0	(433)

〈표 7-3〉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취업여부($\chi^2=69.0^{***}$)						
취업	21.9	61.0	16.5	0.6	100.0	(5,652)
비취업	17.7	59.4	22.3	0.6	100.0	(4,669)
가구소득 ²⁾ ($\chi^2=39.5^{**}$)						
60%미만	14.8	61.9	22.8	0.5	100.0	(1,060)
60~80%미만	19.9	60.5	19.1	0.5	100.0	(1,589)
80~100%미만	21.9	59.7	17.9	0.5	100.0	(2,069)
100~120%미만	20.9	59.9	18.5	0.6	100.0	(1,908)
120~140%미만	20.1	59.0	19.7	1.1	100.0	(1,018)
140~160%미만	17.8	62.0	19.4	0.9	100.0	(933)
160%이상	21.0	59.8	18.6	0.5	100.0	(1,739)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6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유배우여성(15~49세)의 65.5%(전적 찬성 14.2% 포함)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대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역할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유배우여성의 거주지에 따른 찬성 태도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연령별 태도는 25세 미만의 저연령층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고연령층일수록 찬성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또는 취업여성에 비해 비취업여성에게서 동 견해에 대한 찬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코호트 간 차이에 더해 실제 유배우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등 지위 또는 역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표 7-4〉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유배우여성 (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14.2	51.3	31.8	2.7	100.0	(10,322)
거주지($\chi^2=16.9^*$)						
대도시	13.2	50.7	33.4	2.7	100.0	(4,466)
중소도시	15.2	52.3	30.0	2.6	100.0	(4,325)
농촌	14.4	50.5	32.0	3.1	100.0	(1,530)
연령 ¹⁾ ($\chi^2=27.1^*$)						
25세 미만	10.2	59.2	26.5	4.1	100.0	(49)
25~29세	15.1	48.8	32.6	3.5	100.0	(482)
30~34세	12.4	53.3	31.0	3.3	100.0	(1,689)
35~39세	15.5	49.0	32.4	3.1	100.0	(2,374)
40~44세	13.6	51.3	32.4	2.7	100.0	(2,860)
45~49세	14.6	52.4	31.0	2.0	100.0	(2,869)
교육수준($\chi^2=38.2^{***}$)						
중졸이하	21.0	54.0	24.2	0.8	100.0	(252)
고졸	14.9	52.6	30.3	2.2	100.0	(4,131)
대졸	13.5	50.4	33.0	3.1	100.0	(5,505)
대학원졸	12.5	50.1	33.7	3.7	100.0	(433)
취업여부($\chi^2=43.8^{***}$)						
취업	13.1	49.7	34.1	3.0	100.0	(5,652)
비취업	15.5	53.4	28.8	2.3	100.0	(4,670)
가구소득 ²⁾ ($\chi^2=30.2^*$)						
60%미만	13.6	53.7	30.3	2.5	100.0	(1,060)
60~80%미만	16.4	52.0	29.8	1.8	100.0	(1,588)
80~100%미만	14.5	51.0	31.3	3.2	100.0	(2,070)
100~120%미만	13.2	51.8	32.1	2.9	100.0	(1,904)
120~140%미만	14.5	51.9	30.3	3.3	100.0	(1,022)
140~160%미만	14.5	49.9	33.3	2.3	100.0	(933)
160%이상	12.9	49.7	34.7	2.8	100.0	(1,739)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6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기혼여성의 부부 역할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각 견해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적으로 찬성에 4점, 대체로 찬성에 3점, 별로 찬성하지 않음에 2점,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 1점씩 각각 부과한 후 가중평균점수를 산정하였다.

부부역할로서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찬성 정도가 다소 우세하고(3.00점),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전통적 성역할 분업)’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2.30점)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기혼여성의 태도점수는 2.77점으로 여전히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여성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기혼여성의 찬반 태도(2.56 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7-5〉 부부 역할 관련 견해에 대한 유배우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점)

견해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가중평균 점수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8.7	45.0	40.1	6.2	100.0 (10,322)	2.56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5.1	30.8	53.0	11.1	100.0 (10,322)	2.30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	20.0	60.3	19.2	0.6	100.0 (10,320)	3.00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14.2	51.3	31.8	2.7	100.0 (10,322)	2.77

2. 부부간 육아 및 가사 분담의 공정성

가. 육아 분담의 공정성

초등학교 재학 중 또는 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유배우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평상시 남편과 육아를 서로 공정하게 분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생각을 질문한 결과, 절반 정도인 58.7%(매우 그렇다 9.8% 포함)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농촌지역에서 육아가 공평하게 분담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에서 농사 일 등에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여 육아와 가사에 대한 남편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이는 유배우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육아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취업여성(57.1%)보다 취업여성(60.3%)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취업한 경우 아무래도 여성이 일을 하면서 육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부간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여성의 40% 정도는 육아 공평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여성의 일-가정양립에서의 부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배우여성이 저연령층일수록 남편과의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학력층일수록 남편과의 육아 공평 분담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최근의 세대일수록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양성평등수준이 높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정도가 높아 실제 부부 간 육아 분담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전국 월평균가구소득 120%이상의 소득계층에서 남편과의 육아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6〉 자녀가 있는 유배우여성(15~49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남편과의 육아 공평 분담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9.8	48.9	33.0	8.3	100.0	(6,110)
거주지($\chi^2=16.0^{\dagger}$)						
대도시	9.4	47.7	34.1	8.8	100.0	(2,629)
중소도시	9.2	49.8	32.5	8.6	100.0	(2,529)
농촌	12.4	49.8	31.3	6.5	100.0	(952)
연령 ¹⁾ ($\chi^2=93.6^{***}$)						
25세 미만	13.5	51.4	32.4	2.7	100.0	(37)
25~29세	12.9	56.0	26.1	4.9	100.0	(348)
30~34세	12.2	53.5	28.2	6.1	100.0	(1,409)
35~39세	8.9	48.8	33.9	8.4	100.0	(2,113)
40~44세	8.5	46.1	35.9	9.5	100.0	(1,720)
45~49세	8.5	40.3	37.8	13.4	100.0	(484)
교육수준($\chi^2=25.8^{**}$)						
중졸이하	8.1	42.4	35.4	14.1	100.0	(99)
고졸	8.2	48.0	34.2	9.6	100.0	(2,015)
대졸	10.4	49.7	32.4	7.5	100.0	(3,701)
대학원졸	13.2	45.9	31.8	9.1	100.0	(296)
취업여부($\chi^2=18.9^{***}$)						
취업	11.3	49.0	32.0	7.7	100.0	(2,963)
비취업	8.3	48.8	33.9	9.0	100.0	(3,148)
가구소득 ²⁾ ($\chi^2=30.8^{\dagger}$)						
60%미만	9.4	49.7	31.5	9.4	100.0	(672)
60~80%미만	10.5	47.8	32.6	9.1	100.0	(1,133)
80~100%미만	7.8	49.1	34.1	9.0	100.0	(1,320)
100~120%미만	9.2	47.3	35.7	7.7	100.0	(1,050)
120~140%미만	10.2	52.7	31.9	5.1	100.0	(567)
140~160%미만	9.8	51.1	31.3	7.8	100.0	(450)
160%이상	12.4	47.7	31.5	8.4	100.0	(912)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6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취업 중인 유배우여성(15~49세)의 주관적인 육아 공평 분담 정도를 경제활동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직종에 따라서는 관리직·전문직(63.0%), 사무직종(61.6%)에서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응답한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능원(50.0%) 및 단순노무직(55.0%) 등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관리직·전문직, 사무직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아 양성평등 의식이 높고, 정형적인 일(예로 상용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등으로 인하여 실제 남편과의 육아 분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해준다.

실제 유배우여성이 비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임금근로자인 경우에 남편과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특히 상용근로자(64.3%)와 무급가족종사자(63.0%)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여성들이 임금근로(특히 상용직) 등 정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부부가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무급가족종사)에 남편의 육아 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직장유형에 따라서는 공무원 등(69.6%)의 경우 육아 분담이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학교 교사 등의 경우 일의 형태가 상용직 등 정형적인 특성이 강하여 실제 남편과의 육아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배우여성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남편과의 육아 분담이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전문직, 사무직 등 정형적인 일(상용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7-7〉 자녀가 있는 취업 유배우여성(15~49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남편과의 육아
공평분담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11.3	49.0	32.0	7.7	100.0	(2,963)
직종($\chi^2=44.0^{**}$)						
관리직·전문직	14.0	49.0	30.5	6.4	100.0	(1,042)
사무직	11.4	50.2	31.9	6.5	100.0	(813)
서비스직	9.6	48.6	32.7	9.1	100.0	(428)
판매직	8.7	49.7	30.1	11.6	100.0	(346)
농림어업	-	48.1	48.1	3.7	100.0	(27)
기능원·장치기계직	2.1	47.9	43.8	6.3	100.0	(96)
단순노무직	11.0	44.0	34.4	10.5	100.0	(209)
중사상지위($\chi^2=41.5^{***}$)						
비임금근로자	11.3	47.2	31.5	10.0	100.0	(65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	39.6	36.3	9.9	100.0	(9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2.2	44.2	33.2	10.4	100.0	(337)
무급가족종사자	8.7	54.3	27.4	9.6	100.0	(230)
임금근로자	11.4	49.5	32.1	7.0	100.0	(2,305)
상용근로자	12.6	51.7	29.9	5.8	100.0	(1,436)
임시근로자	9.5	45.4	36.7	8.4	100.0	(694)
일용근로자	8.5	47.5	32.2	11.9	100.0	(177)
직장유형($\chi^2=25.2^{***}$)						
국가, 지자체공무원	15.2	54.4	26.2	4.1	100.0	(362)
정부투자·출연기관	8.2	42.6	32.8	16.4	100.0	(61)
민간회사, 기관사업체, 기타	10.8	48.4	32.8	8.0	100.0	(2,538)
근로소득($\chi^2=35.2^{***}$)						
100만원 미만	9.6	46.0	34.1	10.3	100.0	(659)
100~200만원 미만	9.8	47.7	35.0	7.5	100.0	(1,100)
200~300만원 미만	12.2	52.8	28.2	6.7	100.0	(687)
300만원 이상	15.7	50.3	27.9	6.2	100.0	(51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가사 분담의 공평성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유배우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남편과의 가사 분담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평성 정도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유배우여성의 47.7%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앞서 육아 분담의 공평성에 관한 응답 비율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남편과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은 유배우여성의 거주지별로 보면 농어촌(46.2%)에 비해 도시(특히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배우여성이 저연령층일수록, 고학력층일수록, 그리고 취업 중인 경우에 남편과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유배우여성들이 취업 중인 경우 등 실제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양성평등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집단에서 실질적으로 남편과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남편과의 가사 공평분담 비율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고소득층일수록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 월평균가구소득 160% 이상의 계층에서는 그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가사일에 대해서는 부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가사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경향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7-8〉 유배우여성(15~49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남편과의 가사 공평분담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7.2	40.5	38.1	14.2	100.0	(10,324)
거주지($\chi^2=22.8^{**}$)						
대도시	6.5	40.4	39.4	13.7	100.0	(4,467)
중소도시	7.2	41.7	36.8	14.2	100.0	(4,327)
농촌	9.0	37.2	38.2	15.6	100.0	(1,530)
연령 ¹⁾ ($\chi^2=270.8^{***}$)						
25세 미만	14.3	49.0	28.6	8.2	100.0	(49)
25~29세	12.7	50.9	29.3	7.1	100.0	(481)
30~34세	11.0	47.6	32.0	9.4	100.0	(1,688)
35~39세	7.2	42.7	37.2	12.8	100.0	(2,376)
40~44세	5.6	38.6	39.9	15.8	100.0	(2,859)
45~49세	5.4	34.4	42.4	17.7	100.0	(2,869)

〈표 7-8〉 계속

(단위: %, 명)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교육수준($\chi^2=78.1^{***}$)						
중졸이하	9.1	34.4	34.0	22.5	100.0	(253)
고졸	5.8	38.3	39.6	16.2	100.0	(4,133)
대졸	7.8	42.1	37.5	12.6	100.0	(5,505)
대학원졸	10.6	44.2	34.6	10.6	100.0	(434)
취업여부($\chi^2=85.1^{***}$)						
취업	8.7	42.4	36.3	12.6	100.0	(5,653)
비취업	5.4	38.1	40.3	16.2	100.0	(4,670)
가구소득 ²⁾ ($\chi^2=34.3^*$)						
60%미만	7.7	40.0	38.6	13.7	100.0	(1,060)
60~80%미만	7.6	41.2	35.6	15.5	100.0	(1,588)
80~100%미만	6.2	38.0	40.5	15.3	100.0	(2,071)
100~120%미만	6.6	40.2	39.5	13.7	100.0	(1,904)
120~140%미만	8.3	42.2	37.1	12.4	100.0	(1,024)
140~160%미만	7.3	43.9	33.7	15.1	100.0	(934)
160%이상	7.6	40.5	38.8	13.1	100.0	(1,739)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남편과의 가사 분담에 대하여 취업 중인 유배우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남편과 가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직종별로 관리직·전문직(55.8%), 사무직(53.6%), 서비스 직(50.1%) 순으로 높고, 농림어업(39.3%), 단순노무직(40.6%)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사상위위에 따라서는 상용근로자(55.8%)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55.5%)에게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무급가족종사자(41.7%), 일용근로자(43.0%)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교사 및 공무원(55.0%), 정부투자·출연기관(51.2%), 민간회사 및 개인사업체 등(50.6%) 등의 순으로 가사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근로소득이 높을

수록 가사가 공평하게 분담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의 육아 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유사하다. 즉, 여성의 경우 고위신 직종이나 상용직, 정규직, 고소득 등 전형적인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가사에 대해 남편과의 분담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표 7-9〉 취업 유배우여성(15~49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남편과의 가사 공평분담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8.7	42.4	36.3	12.6	100.0	(5,653)
직종 ($\chi^2=91.7^{***}$)						
관리직·전문직·군인	11.6	44.2	33.4	10.8	100.0	(1,752)
사무직	7.9	45.7	35.5	10.9	100.0	(1,403)
서비스직	8.9	41.2	37.4	12.4	100.0	(964)
판매직	7.1	38.4	38.2	16.2	100.0	(714)
농림어업	2.0	37.3	49.0	11.8	100.0	(51)
기능원·장치기계직	7.0	42.6	40.1	10.3	100.0	(242)
단순노무직	4.3	36.3	40.5	18.9	100.0	(529)
종사상지위 ($\chi^2=85.8^{***}$)						
비임금근로자	7.0	40.8	36.8	15.4	100.0	(1,34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1	48.4	32.6	12.0	100.0	(18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9	41.2	34.2	15.8	100.0	(673)
무급가족종사자	4.1	37.6	42.1	16.1	100.0	(484)
임금근로자	9.2	42.9	36.2	11.7	100.0	(4,312)
상용근로자	10.6	45.2	33.9	10.3	100.0	(2,664)
임시근로자	7.1	40.1	39.8	13.1	100.0	(1,315)
일용근로자	6.9	36.1	39.7	17.3	100.0	(335)
직장유형 ($\chi^2=18.9^{**}$)						
국가, 지자체공무원	11.1	43.9	37.3	7.7	100.0	(601)
정부투자·출연기관	6.4	44.8	35.2	13.6	100.0	(125)
민간회사, 개인사업체, 기타	8.4	42.2	36.2	13.1	100.0	(4,928)
근로소득 ($\chi^2=125.4^{***}$)						
100만원 미만	4.9	36.6	42.1	16.4	100.0	(1,192)
100~200만원 미만	8.2	40.7	38.0	13.1	100.0	(2,343)
200~300만원 미만	10.6	49.0	30.7	9.8	100.0	(1,210)
300만원 이상	12.6	46.0	31.7	9.7	100.0	(906)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부부의 육아 및 가사 시간

가. 육아 시간

초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유배우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본인의 육아 시간을 질문한 결과, 평일 기준으로 5시간 이상(51.7%), 3~4시간미만(16.2%), 4~5시간미만(16.0%), 2~3시간미만(10.4%), 2시간미만(5.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평일 기준 여성의 육아 시간은 맞벌이부부인 경우 5시간 이상이 33.5%, 3~4시간미만 22.6%인 반면, 비맞벌이부부인 경우 5시간 이상이 68.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일 기준으로 여성의 육아 시간은 평균 5.6시간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인 경우 여성의 육아시간은 평균 4.3시간으로 비맞벌이부부인 경우 6.7시간에 비해 2.4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토요일, 일요일 평균) 기준으로 유배우여성의 평균 육아시간은 5시간 이상(70.8%), 4~5시간미만(10.3%), 3~4시간미만(9.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말 기준으로 5시간 이상 육아를 하는 비율은 맞벌이부부인 경우 64.1%, 비맞벌이부부인 경우 77.0%로 비맞벌이부부인 경우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말 기준 여성의 육아 시간은 평균 7.2시간이며, 맞벌이부부인 경우 평균 6.6시간으로 비맞벌이부부인 경우 7.8시간에 비해 1.2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의 평균 육아 시간은 평일에 비해 주말에 1.6시간 더 길어지며, 맞벌이부부인 경우 2.3시간으로 비맞벌이부부인 경우(1.1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맞벌이인 유배우여성이 평

일에는 양육서비스 등을 통해 육아 투입 시간을 줄이고 있으나, 주말에는 직접적으로 집중해서 육아를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표 7-10〉 초등학교 재학 이하 자녀를 둔 유배우여성(15~49세)의 평일 및 주말 육아 시간

(단위: %, 명, 시간)

구 분	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명)	평균
평일 기준($\chi^2=810.3^{***}$)	5.6	10.4	16.2	16.0	51.7	100.0	(6,107)	5.6
맞벌이	9.4	15.8	22.6	18.7	33.5	100.0	(2,904)	4.3
비맞벌이	2.2	5.6	10.4	13.6	68.2	100.0	(3,203)	6.7
주말 기준($\chi^2=152.3^{**}$)	2.8	6.3	9.7	10.3	70.8	100.0	(6,106)	7.2
맞벌이	4.0	8.8	12.1	11.0	64.1	100.0	(2,904)	6.6
비맞벌이	1.8	3.9	7.6	9.7	77.0	100.0	(3,202)	7.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유배우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남편의 평균 육아시간을 질문한 결과, 평일 기준으로 2시간미만이 70.0%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2~3시간미만(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일 기준으로 남편의 육아 시간은 맞벌이부부 여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평일 기준으로 남편의 육아 시간은 평균 1.2시간이며, 맞벌이부부인 경우 1.3시간 그리고 비맞벌이부부인 경우 1.2시간으로 각각 나타났다.

주말(토요일, 일요일 평균)기준으로 남편의 육아 시간은 여전히 2시간 미만이 29.6%로 가장 높았으나, 다음으로 5시간 이상의 비율이 27.1%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 여부에 따른 주말 기준 남편의 육아 시간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말 기준으로 남편의 육아 시간은 평균 3.4시간이며, 맞벌이부부인 경우 3.5시간 그리고 비맞벌이부부인 경우 3.4시간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성의 육아 시간은 평일에 비해 주말에 2.2시간 길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맞벌이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7-11〉 초등학교 재학 이하 자녀를 둔 유배우여성(15~49세)의 남편의 평일 및 주말 육아 시간

(단위: %, 명, 시간)

구 분	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명)	평균
평일 기준($\chi^2=11.8^*$)	70.0	16.8	7.9	2.9	2.3	100.0	(6,107)	1.2
맞벌이	69.4	16.3	8.2	3.2	2.9	100.0	(2,904)	1.3
비맞벌이	70.7	17.3	7.6	2.6	1.8	100.0	(3,203)	1.2
주말 기준($\chi^2=14.2^*$)	29.6	18.7	14.3	10.3	27.1	100.0	(6,106)	3.4
맞벌이	31.0	17.0	14.9	9.8	27.2	100.0	(2,904)	3.5
비맞벌이	28.3	20.1	13.8	10.8	27.0	100.0	(3,202)	3.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에서 제시한 부인과 남편의 평균 육아시간을 비교해보면, 평일 기준 부인은 5.6시간인데 비해 남편은 1.2시간으로 여성이 4.4시간을 더 많이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평일 기준으로 육아 시간이 유배우여성의 경우 4.3시간으로 남편(1.3시간)에 비해 3.0시간 더 많이 투입하였으며, 비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유배우여성이 6.7시간으로 남편(1.2시간)에 비해 5.5시간을 더 많이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기준 육아 시간은 유배우여성은 7.2시간인데 비해 남편은 3.4시간으로 평일 기준에 비해 다소 차이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유배우여성이 3.8시간을 더 많이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주말 기준 육아 시간이 유배우여성의 경우 6.6시간으로 남편(3.5시간)에 비해 3.1시간 더 많이 투입하였으며, 비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유배우여성의 경우 7.8시간으로 남편(3.4시간)에 비해 4.4시간을 더 많이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사 시간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유배우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본인의 가사 시간을 질문한 결과, 평일 기준으로 3~4시간미만(30.2%), 2~3시간미만(25.2%), 4~5시간미만(19.6%), 5시간 이상(16.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일 기준으로 여성의 가사 시간은 평균 3.4시간이며, 맞벌이부부의 경우 평균 2.9시간으로 비맞벌이부부의 3.9시간에 비해 1.0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토요일, 일요일 평균) 기준으로 유배우여성의 평균 가사 시간은 3~4시간미만(26.5%), 5시간 이상(26.3%), 4~5시간미만(21.9%), 2~3시간미만(18.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말 기준 여성의 가사 시간은 평균 3.8시간이며, 맞벌이부부의 경우 3.6시간으로 비맞벌이부부의 4.1시간에 비해 0.5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 비해 주말에 가사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나 육아 시간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를 통해 취업여성들은 평일에도 일상적으로 일정한만큼 가사를 위해 시간을 투입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7-12〉 유배우여성(15~49세)의 평일 및 주말 가사 시간

(단위: %, 명, 시간)

구 분	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명)	평균
유배우여성 평일($\chi^2=1096.2^{***}$)	8.4	25.2	30.2	19.6	16.6	100.0	(10,325)	3.4
맞벌이	12.5	33.5	29.9	15.0	9.1	100.0	(5,521)	2.9
비맞벌이	3.7	15.6	30.6	24.9	25.2	100.0	(4,804)	3.9
유배우여성 주말($\chi^2=165.1^{***}$)	6.6	18.7	26.5	21.9	26.3	100.0	(10,323)	3.8
맞벌이	7.6	21.6	27.9	21.0	22.0	100.0	(5,520)	3.6
비맞벌이	5.5	15.4	24.8	23.1	31.2	100.0	(4,803)	4.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유배우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남편의 가사 시간을 질문한 결과, 평일 기준으로 2시간미만이 92.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일 기준으로 남편의 평균 가사 시간은 0.5시간에 불과하였으며, 맞벌이인 경우(0.6시간)와 비맞벌이인 경우(0.4시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주말(토요일, 일요일 평균) 기준으로 남편의 가사 시간은 평일에 비해 조금 길어진 듯하나, 대부분(91.6%) 3시간미만에 집중되었다. 주말 기준으로 남편의 가사 시간은 평균 1.1시간이며, 이는 맞벌이인 경우(1.2시간)와 비맞벌이인 경우(1.1시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7-13〉 유배우여성(15~49세) 남편의 평일 및 주말 가사 시간

(단위: %, 명, 시간)

구 분	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명)	평균
남편 평일($\chi^2=68.5^{***}$)	92.9	5.3	1.2	0.3	0.2	100.0	(10,325)	0.5
맞벌이	91.0	6.9	1.5	0.4	0.3	100.0	(5,521)	0.6
비맞벌이	95.1	3.5	0.9	0.3	0.2	100.0	(4,804)	0.4
남편 주말($\chi^2=34.8^{***}$)	75.9	15.7	5.6	1.5	1.3	100.0	(10,324)	1.1
맞벌이	73.6	17.0	6.3	1.7	1.4	100.0	(5,520)	1.2
비맞벌이	78.5	14.1	4.8	1.4	1.2	100.0	(4,804)	1.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에서 제시한 유배우여성과 남편의 평균 가사시간을 비교해보면, 평일 기준으로 유배우여성은 3.4시간인데 비해, 남편은 0.5시간으로 여성이 2.9시간을 더 많이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평일 기준으로 가사 시간이 유배우여성의 경우 2.9시간으로 남편(0.6시간)에 비해 2.3시간 더 많이 투입하였으며, 비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유배우여성이 3.9시간으로 남편(0.4시간)에 비해 3.5시간을 더 많이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기준으로 가사 시간을 비교해보면, 유배우여성은 3.8시간인데 비해 남편은 1.1시간으로 부부간 차이 2.7시간으로 평일 기준에 비해 더 늘어났다. 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주말 기준으로 가사 시간이 유배우여성의 경우 3.6시간으로 남편(1.2시간)에 비해 2.4시간 더 많이 투입하였으며, 비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유배우여성이 4.1시간으로 남편(1.1시간)에 비해 3.0시간을 더 많이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가사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 분업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4. 부모의 육아가사 지원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친정 또는 시부모와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돌봄 지원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장 많은 유형은 부모(친정 또는 시댁)로부터 돌봄이나 가사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유형(부모에 경제적 지원-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없음)으로 69.2%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에 경제적 지원-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유형이 23.0%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경제적 지원 없음-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없음’ 유형 5.9%, ‘부모에 경제적 지원 없음-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유형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경제적 지원-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유형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용돈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자녀양육을 위한 교환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녀양육을 위한 교환관계의 욕구는 비취업여성보다는 취업여성에게서 높을 것이다. 실제 본 조사에서는 ‘부모에 경제적 지원-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유형의 비율이 취업여성의 경우 24.4%로 비취업여성의 19.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에 경제적 지원-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유형의 비율은 현 자녀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연령(막내아 기준)이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여성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의 자녀돌봄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부모 이외의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녀가 적은 경우 육아경험 부족으로 부모의 돌봄 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며, 자녀가 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욕구와 함께 시설 이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표 7-14〉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지난 6개월 동안 친정/시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움-비경제적 지원 간 관계

(단위: %, 명)

구 분	부모에 경제적 지원-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부모에 경제적 지원없음-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부모에 경제적 지원-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없음	모두 없음	계	(명)
전체	23.0	1.9	69.2	5.9	100.0	(7,581)
현존 자녀수별 ²⁾ ($\chi^2=143.3^{***}$)						
1명	31.1	2.3	60.4	6.3	100.0	(2,118)
2명	20.2	1.6	73.1	5.1	100.0	(4,512)
3명 이상	18.4	2.6	70.1	8.8	100.0	(951)
막내아 연령($\chi^2=970.7^{***}$)						
0~2세	41.7	3.9	48.0	6.4	100.0	(1,929)
3세~취학전	31.8	2.5	60.0	5.7	100.0	(1,441)
초등 1~3학년	18.2	1.5	75.2	5.1	100.0	(1,090)
초등 4~6학년	12.6	0.7	79.7	6.7	100.0	(862)
중학교 이상	7.3	0.5	86.8	5.3	100.0	(2,220)
취업여성 전체	24.4	1.6	68.8	5.2	100.0	(4,398)
현존 자녀수별($\chi^2=127.5^{***}$)						
1명	38.0	1.1	56.5	4.3	100.0	(994)
2명	22.2	1.6	72.0	4.3	100.0	(2,523)
3명 이상	18.8	2.7	69.8	8.7	100.0	(484)
막내아 연령($\chi^2=689.7^{***}$)						
0~2세	54.1	3.2	37.3	5.3	100.0	(678)
3세~취학 전	41.2	2.1	51.8	4.9	100.0	(716)
초등 1~3학년	24.7	2.2	68.8	4.2	100.0	(597)
초등 4~6학년	14.6	0.7	79.5	5.2	100.0	(536)
중학교 이상	9.1	0.6	85.8	4.5	100.0	(1,448)

구 분	부모에 경제적 지원-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부모에 경제적 지원없음-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부모에 경제적 지원-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없음	모두 없음	계	(명)
비취업여성 전체	19.2	2.1	71.4	7.3	100.0	(3,861)
현존 자녀수별($x^2=47.1^{***}$)						
1명	24.8	3.4	63.8	7.9	100.0	(1,123)
2명	17.8	1.6	74.5	6.1	100.0	(1,988)
3명 이상	18.0	2.6	70.4	9.0	100.0	(467)
막내아 연령($x^2=431.5^{***}$)						
0~2세	35.1	4.2	53.8	7.0	100.0	(1,251)
3세~취학 전	22.6	2.9	68.0	6.6	100.0	(727)
초등 1~3학년	10.3	0.6	82.8	6.3	100.0	(494)
초등 4~6학년	9.5	0.9	80.4	9.2	100.0	(326)
중학교 이상	3.9	0.4	88.9	6.9	100.0	(772)

* p<0.05, ** p<0.01, *** p<0.001

주: 1) 한 가구 내 2가지 이상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부모에 경제적 지원 없음-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부모에 경제적 지원-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없음', '모두 없음'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음.

2) 기혼여성에게서 출생한 아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친인척의 육아가사 지원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15~49세)이 지난 6개월 동안 자녀 돌봄에 대해 부모 이외의 친인척에게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약 3%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비취업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저연령층일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취업 중인 경우에만), 자녀의 연령(막내아 기준)이 어릴수록 친인척으로부터 돌봄에 대한 도움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연령층일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 등이 부족하고, 자녀가 어릴수록 친인척의 도움이 보다 긴요해진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돌봄부담이 그만큼 커져 친인척에게 맡기기보다 시설 등 다른 돌봄수단을 이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표 7-15〉 기혼여성(15~49세)의 지난 6개월 동안 자녀 돌봄에 대해 부모 이외의 친인척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 분	취업				비취업			
	있음	없음	계	(명)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3.0	97.0	100.0	(5,715)	2.9	97.1	100.0	(4,457)
거주지	$(x^2=5.0)$				$(x^2=0.3)$			
대도시	3.5	96.5	100.0	(2,464)	3.0	97.0	100.0	(1,998)
중소도시	2.8	97.2	100.0	(2,418)	2.9	97.1	100.0	(1,804)
농촌	2.0	98.0	100.0	(833)	2.6	97.4	100.0	(654)
연령 ¹⁾	$(x^2=133.9^{***})$				$(x^2=80.4^{***})$			
15~29세	10.9	89.1	100.0	(129)	3.4	96.6	100.0	(265)
30~34세	6.1	93.9	100.0	(636)	6.1	93.9	100.0	(807)
35~39세	6.1	93.9	100.0	(1,145)	4.7	95.3	100.0	(1,125)
40~44세	2.2	97.8	100.0	(1,731)	1.3	98.7	100.0	(1,201)
45~49세	0.5	99.5	100.0	(2,075)	0.2	99.8	100.0	(1,057)
현존 자녀수	$(x^2=16.8^{**})$				$(x^2=3.5)$			
1명	4.6	95.4	100.0	(1,357)	3.6	96.4	100.0	(1,322)
2명	2.4	97.6	100.0	(3,605)	2.6	97.4	100.0	(2,537)
3명 이상	2.7	97.3	100.0	(752)	2.8	97.2	100.0	(598)
막내아의 연령	$(x^2=207.2^{***})$				$(x^2=95.7^{***})$			
0~2세	9.3	90.7	100.0	(732)	6.2	93.8	100.0	(1,326)
3~5세	5.9	94.1	100.0	(837)	3.6	96.4	100.0	(828)
6~8세	4.1	95.9	100.0	(772)	1.4	98.6	100.0	(589)
9~11세	2.7	97.3	100.0	(747)	2.1	97.9	100.0	(428)
12세 이상	-	100.0	100.0	(2,573)	-	100.0	100.0	(1,264)
가구소득 ²⁾	$(x^2=6.1)$				$(x^2=9.4)$			
60%미만	1.6	98.4	100.0	(567)	1.8	98.2	100.0	(760)
60~80%미만	3.7	96.3	100.0	(570)	3.8	96.2	100.0	(989)
80~100%미만	2.8	97.2	100.0	(984)	2.7	97.3	100.0	(989)
100~120%미만	3.4	96.6	100.0	(1,073)	3.7	96.3	100.0	(705)
120~140%미만	3.0	97.0	100.0	(644)	2.2	97.8	100.0	(321)
140~160%미만	2.6	97.4	100.0	(654)	3.1	96.9	100.0	(224)
160%이상	3.3	96.7	100.0	(1,220)	2.2	97.8	100.0	(465)

* p<0.05, ** p<0.01, *** p<0.001

주: 1) 취업여성의 경우 15~19세 5명, 비취업여성의 경우 15~19세 7명이 각각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취학 전 자녀의 돌봄 방법

1. 취학 전 자녀를 돌보기 바람직한 곳(사람)

가. 취학 전 자녀의 연령별 돌봄 방식 선호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주간 돌봄 방식으로 가장 바람직한 곳(사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 기준으로 64.4%는 어린이집(국공립, 민간)과 유치원 등 시설 그리고 25.8%는 본인(남편)의 직접 돌봄으로 응답하였다. 아동의 연령이 적을수록 본인(남편), 친정 또는 시부모에 의한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시설에 의한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16〉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연령별 주간 돌봄에 바람직한 곳(사람)(아동 기준)

(단위: %, 명)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방 등 시설	베이비 시터	(친정/시)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남편	기타	계	(명)
전체	64.4	1.7	0.9	6.9	0.3	25.8	0.1	100.0	(5,048)
아동연령									
0세	8.0	0.7	2.6	11.9	0.4	76.4	-	100.0	(733)
1세	33.9	3.4	0.8	8.8	0.7	52.4	-	100.0	(706)
2세	66.9	1.8	1.2	8.1	0.4	21.6	-	100.0	(829)
3세	81.2	1.0	0.4	5.9	0.3	11.2	-	100.0	(777)
4세	87.4	0.8	0.4	5.0	-	6.4	-	100.0	(843)
5세	88.4	2.2	0.4	3.7	0.1	5.1	0.1	100.0	(731)
6세 이상	89.5	2.3	-	4.2	-	3.7	0.2	100.0	(427)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야간에 돌보기 바람직한 곳(사람)으로는 본인(남편)이 94.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친정 및 시부모(3.3%), 베이비시터(0.6%), 기타 친인척(0.6%), 어린이집 및 유치원(0.3%), 학원 및 놀이방 등 기타 시설(0.3%)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90% 이상이 영유아 돌봄 방식으로 본인 또는 남편의 직접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표 7-17〉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연령별 야간 돌봄에 바람직한 곳(사람)(아동 기준)

(단위: %, 명)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방 등 시설	베이비 시터	(친정/시)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기타	계	(명)
전체	0.3	0.3	0.6	3.3	0.6	94.7	0.2	100.0	(5,048)
아동연령									
0세	0.3	0.1	1.0	1.9	0.3	96.5	-	100.0	(735)
1세	0.1	0.3	0.1	3.3	0.3	95.9	-	100.0	(706)
2세	0.5	-	0.1	3.6	0.5	95.3	-	100.0	(830)
3세	0.3	0.1	0.9	4.4	0.3	94.0	0.1	100.0	(777)
4세	0.6	0.4	0.7	3.2	1.1	93.7	0.4	100.0	(844)
5세	0.3	0.4	0.8	3.3	1.0	93.7	0.5	100.0	(731)
6세 이상	0.2	0.9	-	4.0	0.7	93.7	0.5	100.0	(427)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 취학전 자녀 주간돌봄방법 선호도

기혼여성(15~49세)의 취학 전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만 0~2세인 경우 주간 돌봄 방식으로 바람직한 곳(사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본인(남편) 51.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35.3%, 친인척 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간에 영아 돌봄으로 친인척(조부모 등)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혼여성의 거주지가 대도시인 경우 13.2%로

농촌이나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농촌 거주자의 경우에 대도시 거주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본인(남편) 등을 주간의 영아 돌봄으로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인 경우 어린이집·유치원과 친인척을 영아자녀 돌봄에 바람직한 곳(사람)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본인(남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영아 돌봄으로 친인척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 기혼여성 본인의 혼인상태나 현존 자녀수에 따른 영아자녀 돌봄 방식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7-18〉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0~2세 자녀(막내아 기준)의 바람직한 주간 돌봄 방법

(단위: %, 명)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방 등 시설	베이비 시터	(친정/시)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기타	계	(명)
전체	35.3	1.9	1.5	9.7	0.5	51.1	-	100.0	(2,059)
거주지($\chi^2=22.9^*$)									
대도시	32.4	1.6	1.7	12.7	0.5	51.2	-	100.0	(884)
중소도시	37.8	2.4	1.3	8.1	0.6	49.8	-	100.0	(828)
농촌	37.3	1.4	1.2	6.1	0.3	53.8	-	100.0	(346)
맞벌이 ¹⁾ ($\chi^2=113.4^{***}$)									
맞벌이	42.3	2.1	1.7	16.7	0.6	36.6	-	100.0	(707)
비맞벌이	31.7	1.8	1.3	6.1	0.4	58.6	-	100.0	(1,353)
혼인상태									
유배우	35.3	1.9	1.5	9.7	0.5	51.2	-	100.0	(2,038)
이혼·사별·미혼모	40.9	9.1	-	13.6	-	36.4	-	100.0	(22)
현존 자녀수 ²⁾									
1명	31.3	2.0	1.7	10.4	0.7	53.8	-	100.0	(884)
2명	39.1	2.1	1.3	9.5	0.2	47.7	-	100.0	(907)
3명 이상	35.8	1.1	0.7	8.2	0.7	53.4	-	100.0	(268)

〈표 7-18〉 계속

(단위: %, 명)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방 등 시설	베이비 시터	(친정/시)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기타	계	(명)
가구소득수준 ²⁾									
60%미만	41.2	1.7	3.5	5.2	-	48.4	-	100.0	(289)
60~80%미만	32.5	2.9	1.0	6.3	0.4	56.9	-	100.0	(480)
80~100%미만	36.5	2.1	0.9	6.2	-	54.3	-	100.0	(433)
100~120%미만	37.3	2.1	0.3	9.1	1.0	50.2	-	100.0	(287)
120~140%미만	36.0	0.5	2.1	13.2	0.5	47.6	-	100.0	(189)
140~160%미만	29.4	1.7	2.5	21.8	-	44.5	-	100.0	(119)
160%이상	32.7	1.2	1.2	19.2	1.2	44.6	-	100.0	(260)

* p<0.05, ** p<0.01, *** p<0.001

주: 1) 맞벌이는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이며, 비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1명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가구가 포함됨.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학 전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가 만3세 이상인 경우, 유아 자녀의 주간 돌봄 방식으로 가장 바람직한 곳(사람)은 아동 기준으로 어린이집·유치원(85.9%), 본인·남편(7.1%), 친인척(5.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응답 기혼여성의 거주지, 맞벌이 여부, 혼인상태, 현존 자녀수, 가구소득수준별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일부 특성에서 다소의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친인척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들로 농촌 거주, 맞벌이, 사별·이혼 등으로 나타났으며, 본인(남편)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들로는 대도시 거주, 유배우 상태, 1자녀 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표 7-19〉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3세~취학 전 자녀(막내아 기준)의 바람직한 주간 돌봄 방법

(단위: %, 명)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방 등 시설	베이비 시터	(친정/시)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기타	계	(명)
전체	85.8	1.4	0.5	4.9	0.1	7.1	0.2	100.0	(1,668)
거주지									
대도시	83.7	2.0	0.7	4.5	0.1	8.8	0.1	100.0	(695)
중소도시	88.9	1.0	0.3	4.1	-	5.7	-	100.0	(701)
농촌	83.5	0.7	0.4	8.5	-	6.6	0.4	100.0	(272)
맞벌이 ¹⁾									
맞벌이	85.2	1.0	0.6	6.2	0.1	6.8	-	100.0	(789)
비맞벌이	86.5	1.7	0.2	3.9	-	7.4	0.3	100.0	(879)
혼인상태									
유배우	85.8	1.4	0.5	4.8	0.1	7.2	0.2	100.0	(1,627)
이혼·사별·미혼모	85.7	-	-	11.9	-	2.4	-	100.0	(42)
현존 자녀수									
1명	81.6	2.4	0.4	5.7	-	9.8	-	100.0	(490)
2명	86.2	1.1	0.7	5.2	0.1	6.6	0.1	100.0	(897)
3명 이상	92.1	-	-	2.9	-	4.7	0.4	100.0	(278)
가구소득수준 ²⁾									
60%미만	88.2	-	0.5	3.2	-	7.7	0.5	100.0	(221)
60~80%미만	86.0	1.2	-	5.4	-	7.5	-	100.0	(335)
80~100%미만	85.6	1.6	0.3	6.3	-	6.3	-	100.0	(381)
100~120%미만	85.7	1.8	-	5.0	-	7.2	0.4	100.0	(279)
120~140%미만	89.7	0.8	-	4.8	-	4.8	-	100.0	(126)
140~160%미만	84.3	1.6	2.4	4.7	-	7.1	-	100.0	(127)
160%이상	82.4	3.0	1.5	3.5	0.5	9.0	-	100.0	(199)

주: 1) 맞벌이는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이며, 비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1명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가구가 포함됨.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실제 돌보는 곳(사람)

가. 취학 전 자녀의 연령별 실제 돌봄방식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주간에 실제로 돌보는 곳(사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유치원 71.8%, 본인·남편 22.3% 등으로 이

들 두 곳·사람에 94.1%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0세인 경우 주간 돌봄 방식은 본인·남편(83.5%), 친정 및 시부모(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세아의 주간 돌봄 방식으로는 본인·남편(48.4%), 어린이집·유치원(39.8%) 등으로 나타났다. 2세아의 주간 돌봄 방식은 본인·남편 비율이 13.7%로 낮게 나타나고, 대신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율이 80.1%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자녀가 고연령일 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7-20〉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연령별 주간에 실제 돌보는 곳·사람(아동 기준)

(단위: %, 명)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방 등 시설	베이비 시터	(친정/시)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남편	기타	계	(명)
전체	71.8	2.5	0.4	2.7	0.3	22.3	0.0	100.0	(5,048)
아동연령									
0세	4.4	0.3	1.5	9.3	1.0	83.4	0.3	100.0	(733)
1세	39.8	3.4	0.6	7.1	0.7	48.4	-	100.0	(706)
2세	80.1	3.3	0.5	2.2	0.2	13.7	-	100.0	(830)
3세	93.8	1.4	-	-	-	4.8	-	100.0	(775)
4세	95.8	2.6	0.1	-	-	1.4	-	100.0	(843)
5세	96.9	2.9	0.1	-	-	0.1	-	100.0	(732)
6세 이상	94.2	4.0	-	0.2	-	1.6	-	100.0	(428)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작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연령별로 실제 야간에 돌보는 방식에 대한 질 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영유아의 95.6%는 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었으며, 3.6%는 친인척이 돌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부모에 의한 직접 야간 돌봄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로도 영유아자녀의 야간돌봄 방식의 차이는 거의 없어 구체적인 분석을 생략하였으며, 다만 참고를 위해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7-21〉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연령별 아간에 실제 돌보는 곳(사람) 아동 기준

(단위: %, 명)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방 등 시설	베이비 시터	(친정/시)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남편	기타	계	(명)
전체	-	0.1	0.5	3.1	0.5	95.6	0.3	100.0	(5,048)
아동연령									
0세	-	-	0.4	0.7	0.1	98.8	-	100.0	(734)
1세	-	-	0.4	3.0	0.1	96.5	-	100.0	(705)
2세	-	0.1	0.8	3.4	0.6	94.9	0.1	100.0	(829)
3세	-	-	0.3	4.6	0.3	94.5	0.4	100.0	(775)
4세	-	-	0.5	3.0	0.8	95.3	0.5	100.0	(844)
5세	-	0.1	0.3	3.0	0.7	95.5	0.4	100.0	(732)
6세 이상	-	0.9	0.5	4.0	0.7	93.2	0.7	100.0	(427)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 취학 전 자녀의 주간돌봄방식

기혼여성(15~49세)의 취학 전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가 영아(만0~2세)인 경우, 주간에 실제 이용하는 돌봄 기관(사람)으로는 본인 및 남편이 50.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39.7%), 친인척(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친인척, 기타 시설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그리고 비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본인 및 남편이 직접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다른 특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검증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대도시에서는 친인척, 중소도시와 농촌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혼여성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에는 친인척과 어린이집·유치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친인척 비율이 그리고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본인(남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22〉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0~2세 자녀(막내아 기준)의 주간돌봄방식

(단위: %, 명)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방 등 시설	베이비 시터	(친정/시)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기타	계	(명)
전체	39.7	2.4	0.9	6.3	0.5	50.2	0.1	100.0	(2,059)
거주지									
대도시	36.5	2.3	1.0	9.3	0.2	50.7	-	100.0	(885)
중소도시	41.8	2.9	1.0	4.1	0.7	49.2	0.2	100.0	(827)
농촌	42.8	1.4	0.3	4.0	0.6	50.9	-	100.0	(346)
맞벌이									
맞벌이	54.5	3.4	2.1	15.0	1.3	23.7	-	100.0	(706)
비맞벌이	32.0	1.8	0.2	1.7	0.1	64.0	0.1	100.0	(1,353)
혼인상태									
유배우	39.7	2.4	0.9	6.3	0.5	50.1	-	100.0	(2,038)
이혼·사별·미혼모	36.4	-	-	4.5	-	50.0	9.1	100.0	(22)
현존 자녀수									
1명	35.4	3.1	1.0	7.6	0.8	51.9	0.2	100.0	(884)
2명	43.9	2.2	0.7	5.3	0.3	47.6	-	100.0	(909)
3명 이상	39.8	1.1	0.8	5.3	0.4	52.6	-	100.0	(266)
가구소득수준 ¹⁾									
60%미만	43.3	1.4	0.3	2.8	-	51.6	0.7	100.0	(289)
60~80%미만	33.8	1.9	-	1.3	0.6	62.4	-	100.0	(479)
80~100%미만	40.2	1.4	0.2	3.7	-	54.5	-	100.0	(433)
100~120%미만	45.6	3.8	-	4.9	0.7	44.9	-	100.0	(287)
120~140%미만	37.0	2.6	1.1	13.8	1.1	44.4	-	100.0	(189)
140~160%미만	45.0	4.2	1.7	14.2	0.8	34.2	-	100.0	(120)
160%이상	39.6	3.1	4.2	16.2	1.2	35.8	-	100.0	(260)

주: 1)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의 취학 전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가 유아(만 3세~취학전)인 경우 주간에 실제 이용하는 돌봄 시설(사람)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95.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기혼여성의 모든 특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으로 검증은 어렵지만 모가 대도시 거주인 경우, 현존 자녀수가 1명인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원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맞벌이인 경우, 현존 자녀수가 1명인 경우,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간 돌봄 방식으로 본인(남편)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23〉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3세~취학전 자녀(막내아 기준)의 주간돌봄방식

(단위: %, 명)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방 등 시설	베이비 시터	(친정/시)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기타	계	(명)
전체	95.2	2.3	0.1	-	-	2.4	-	100.0	(1,669)
거주지									
대도시	93.5	3.7	0.1	-	-	2.6	-	100.0	(694)
중소도시	96.1	1.6	-	-	-	2.3	-	100.0	(700)
농촌	97.8	0.4	-	-	-	1.8	-	100.0	(272)
맞벌이									
맞벌이	97.2	2.0	0.1	-	-	0.6	-	100.0	(790)
비맞벌이	93.4	2.6	0.1	-	-	3.9	-	100.0	(879)
혼인상태									
유배우	95.1	2.4	0.1	-	-	2.4	-	100.0	(1,625)
이혼·사별·미혼모	100.0	-	-	-	-	-	-	100.0	(42)
현존 자녀수									
1명	92.2	3.9	-	-	-	3.9	-	100.0	(490)
2명	96.1	2.0	0.1	-	-	1.8	-	100.0	(897)
3명 이상	97.8	0.7	-	-	-	1.4	-	100.0	(278)
가구소득수준 ¹⁾									
60%미만	95.9	0.9	-	-	-	3.2	-	100.0	(220)
60~80%미만	95.8	1.5	-	-	-	2.7	-	100.0	(334)
80~100%미만	95.5	1.6	0.3	-	-	2.6	-	100.0	(381)
100~120%미만	95.7	2.1	-	-	-	2.1	-	100.0	(280)
120~140%미만	97.6	0.8	-	-	-	1.6	-	100.0	(127)
140~160%미만	95.3	3.1	-	-	-	1.6	-	100.0	(126)
160%이상	91.0	7.5	0.5	-	-	1.0	-	100.0	(199)

주: 1)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취학 전 자녀의 주간돌봄방식으로 시설 이용 및 비용 이유

1) 시설 이용 이유

기혼여성(15~49세) 중 취학 전 자녀를 주간에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학원 등의 시설에 맡기는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38.0%),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32.2%),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13.8%),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7.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자녀가 저연령일수록 ‘취업 등으로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워서’, ‘같이 놀 아이가 없어서’ 등의 이유로 주간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이가 고연령일수록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24〉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연령별 주간에 시설 이용 이유(아동 기준)

(단위: %, 명)

구 분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기타 ¹⁾	계	(명)
전체	32.2	7.0	13.8	38.0	3.9	5.0	100.0	(3,750)
아동연령($\chi^2=704.0^{***}$)								
0세	8.3	-	66.7	2.8	13.9	8.3	100.0	(36)
1세	31.6	-	36.5	25.3	4.3	2.3	100.0	(304)
2세	31.6	-	21.2	36.3	7.2	3.6	100.0	(692)
3세	35.5	1.5	13.1	41.7	4.1	4.1	100.0	(738)
4세	33.4	5.7	7.7	45.1	2.9	5.2	100.0	(829)
5세	32.5	15.5	6.0	36.7	2.3	7.0	100.0	(730)
6세 이상	26.9	21.9	7.4	35.0	2.1	6.7	100.0	(420)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특기교육을 위하여’, ‘장애학업이 도움이 되기 위하여’, ‘집 근처에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여’, ‘기타’ 등이 포함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의 취학 전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가 영아(만0~2세)인 경우 주간돌봄방식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로는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가 3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29.9%)’,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29.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시설 이용 이유로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가 54.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비맞벌이가구의 경우에 ‘사회성 발달을 위해’,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를 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별로 보면, 대도시 거주인 경우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그리고 농촌 거주인 경우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를

이유로 시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존 자녀수가 1자녀인 경우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와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25〉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0~2세 자녀(막내아 기준)의 주간돌봄방식으로 시설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 분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기타 ¹⁾	계 (명)
전체	29.9	-	29.4	30.5	6.8	3.4	100.0 (867)
거주지($\chi^2=15.3$)							
대도시	28.1	-	35.7	27.8	4.9	3.5	100.0 (345)
중소도시	31.7	-	24.4	33.3	7.9	2.7	100.0 (369)
농촌	29.4	-	27.5	29.4	9.2	4.6	100.0 (153)
맞벌이($\chi^2=239.6^{***}$)							
맞벌이	21.0	-	54.5	19.8	2.7	2.0	100.0 (409)
비맞벌이	37.8	-	7.0	40.0	10.7	4.6	100.0 (458)
혼인상태							
유배우	29.8	-	29.5	30.5	6.9	3.3	100.0 (858)
이혼·사별·미혼모	37.5	-	25.0	25.0	-	12.5	100.0 (8)
현존 자녀수							
1명	25.9	-	33.5	31.2	6.5	2.9	100.0 (340)
2명	35.0	-	27.1	27.8	6.2	3.8	100.0 (417)
3명 이상	22.9	-	25.7	37.6	11.0	2.8	100.0 (109)
가구소득수준 ²⁾							
60%미만	40.6	-	7.8	36.7	9.4	5.5	100.0 (128)
60~80%미만	30.0	-	20.6	32.9	11.2	5.3	100.0 (170)
80~100%미만	30.9	-	28.2	33.1	4.4	3.3	100.0 (181)
100~120%미만	25.4	-	37.3	30.3	5.6	1.4	100.0 (142)
120~140%미만	27.6	-	35.5	28.9	6.6	1.3	100.0 (76)
140~160%미만	20.7	-	53.4	15.5	6.9	3.4	100.0 (58)
160%이상	28.8	-	43.2	24.3	2.7	0.9	100.0 (111)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특기교육을 위하여’, ‘장애학업이 도움이 되기 위하여’, ‘집 근처에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여’, ‘기타’ 등이 포함됨.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의 취학 전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가 유아(만3세~취학 전)에 해당되면서 주간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유로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40.0%)',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3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거주지가 도시지역인 경우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농촌인 경우에 '사회성 발달을 위해', 그리고 중소도시인 경우에 '취업으로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워' 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 '취업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그리고 비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혼인 상태별로 보면, 유배인 경우에는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그리고 이혼·사별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초등학교 준비'나 '사회성 발달'을 위해 그리고 고소득층일수록 '취업으로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워' 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모두가 맞벌이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부모 모두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하여 주간에 자녀 돌봄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현존자녀수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6〉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3세~취학전 자녀(막내아 기준)의 주간돌봄 방식으로 시설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 분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기타 ¹⁾	계	(명)
전체	32.1	9.1	9.7	40.0	3.2	5.8	100.0	(1,627)
거주지($x^2=26.3^{**}$)								
대도시	33.3	9.8	8.3	41.5	1.3	5.8	100.0	(675)
중소도시	33.2	9.1	11.1	36.4	4.8	5.4	100.0	(684)
농촌	26.6	7.1	9.7	45.7	3.7	7.1	100.0	(267)
맞벌이 ²⁾ ($x^2=150.2^{***}$)								
맞벌이	32.8	7.8	18.6	33.2	2.2	5.4	100.0	(783)
비맞벌이	31.5	10.3	1.4	46.3	4.1	6.3	100.0	(844)
혼인상태								
유배우	32.2	8.6	9.7	40.4	3.3	5.7	100.0	(1,585)
이혼·사별·미혼모	27.9	25.6	11.6	23.3	-	11.6	100.0	(43)
현존 자녀수($x^2=8.8$)								
1명	31.2	10.2	8.9	41.4	3.6	4.7	100.0	(471)
2명	33.8	8.2	9.4	39.0	3.1	6.6	100.0	(880)
3명 이상	28.1	10.2	12.0	40.9	3.3	5.5	100.0	(275)
가구소득수준 ³⁾ ($x^2=63.4^{***}$)								
60%미만	32.9	10.3	6.1	41.3	3.3	6.1	100.0	(213)
60~80%미만	33.2	10.5	4.6	42.5	5.5	3.7	100.0	(325)
80~100%미만	32.2	8.4	9.2	41.6	2.7	5.9	100.0	(370)
100~120%미만	27.1	8.8	12.5	42.5	1.8	7.3	100.0	(273)
120~140%미만	33.9	8.1	12.1	37.9	3.2	4.8	100.0	(124)
140~160%미만	34.1	8.9	16.3	38.2	2.4	-	100.0	(123)
160%이상	34.2	7.1	14.3	30.6	2.6	11.2	100.0	(196)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특기교육을 위하여', '장래학업이 도움이 되기 위하여', '집 근처에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여', '기타' 등이 포함됨.

2) 비맞벌이에는 홀벌이 부부가구, 한부모, 미혼모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시설 비용 이유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가 주간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상 아동의 67.6%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접 키우는 것이 정서적 발달 등에 좋을 것 같아서(19.2%)', '굳이 맡길 이유

가 없어서(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어릴수록 ‘아이가 너무 어려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 ‘직접 키우는 것이 정서적 발달 등에 좋을 것 같아서’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부모의 직접 양육이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표 7-27〉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연령별 주간에 시설을 이용하지 주된 이유(아동 기준)
(단위: %, 명)

구 분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	아이가 너무 어려서	직접 키우는 것이 정서적 발달 등에 좋을 것 같아서	기타 ¹⁾	계	(명)
전체	9.0	67.6	19.2	4.3	100.0	(1,298)
아동연령						
0세	6.7	77.4	14.7	1.1	100.0	(699)
1세	8.8	63.8	23.0	4.5	100.0	(400)
2세	16.1	51.8	22.6	9.5	100.0	(137)
3세	21.1	15.8	36.8	26.3	100.0	(38)
4세	21.4	14.3	42.9	21.4	100.0	(14)
5세	-	-	50.0	50.0	100.0	(2)
6세 이상	37.5	-	37.5	25.0	100.0	(8)

주: 1) 기타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돌봄시설이 없어서’, ‘원하는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없어서’,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타’가 해당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로 취학 전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가 영아(만 0~2세아)이면서 주간 돌봄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가 7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직접 키우는 것이 정서 발달 등에 좋을 것 같아서(18.0%)’,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유가 그리고 비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직접 키우는 것이 정서적 발달에

‘좋은 것 같아서’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직접 키우는 것이 정서 발달 등에 좋은 것 같아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나 혼인상태 및 현존 자녀수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7-28〉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영아(0~2세)자녀(막내아 기준)를 주간에 시설에 보내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 분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	아이가 너무 어려서	직접 키우는 것이 정서적 발달 등에 좋은 것 같아서	기타 ¹⁾	계	(명)
전체	8.4	70.6	18.0	3.0	100.0	(1,193)
거주지($\chi^2=5.8$)						
대도시	7.6	71.5	18.0	2.9	100.0	(543)
중소도시	9.0	68.5	19.9	2.6	100.0	(457)
농촌	9.8	72.7	13.4	4.1	100.0	(194)
맞벌이 ²⁾ ($\chi^2=15.3^{**}$)						
맞벌이	7.8	78.7	10.8	2.7	100.0	(296)
비맞벌이	8.6	68.0	20.4	3.0	100.0	(896)
혼인상태						
유배우	8.3	70.7	18.1	3.0	100.0	(1,179)
이혼·사별·미혼모	15.4	69.2	7.7	7.7	100.0	(13)
현존 자녀수($\chi^2=5.3$)						
1명	8.3	69.4	19.6	2.8	100.0	(542)
2명	9.0	72.2	16.3	2.4	100.0	(490)
3명 이상	7.0	70.3	17.7	5.1	100.0	(158)
가구소득수준 ³⁾ ($\chi^2=40.4^{***}$)						
60%미만	6.3	71.3	18.1	4.4	100.0	(160)
60~80%미만	8.7	67.0	20.1	4.2	100.0	(309)
80~100%미만	7.5	72.0	18.5	2.0	100.0	(254)
100~120%미만	16.4	55.5	26.0	2.1	100.0	(146)
120~140%미만	7.0	76.3	14.0	2.6	100.0	(114)
140~160%미만	5.0	80.0	10.0	5.0	100.0	(60)
160%이상	6.0	80.1	11.9	2.0	100.0	(151)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돌봄시설이 없어서’, ‘원하는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없어서’,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타’가 해당됨.

2) 비맞벌이에는 홀벌이 부부가구, 한부모, 미혼모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취학 전 자녀 돌봄의 실제 이용과 바람직한 곳 간의 일치도

영아(0~2세)의 주간 돌봄방식으로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사람) 간의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주간의 영아돌봄방식으로 실제 이용과 희망 간 일치도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74.3%), 본인 및 남편(79.9%)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모(54.8%), 학원 및 놀이방 등 기타 시설(37.7%)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7-29〉 영아(0~2세)의 주간 돌봄으로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과 바람직한 곳·사람 (아동 기준) 간의 일치도

(단위: %, 명)

구 분	바람직한 곳(사람)							계	(명)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방 등 시설	베이비 시터	(친정/사)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기타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어린이집, 유치원	74.3	0.5	0.9	6.4	0.3	17.5	-	100.0	(978)
학원, 놀이방 등 시설	24.5	37.7	-	9.4	-	28.3	-	100.0	(53)
베이비시터	5.3	5.3	26.3	10.5	-	52.6	-	100.0	(19)
(친정/사)부모	4.4	1.5	1.5	54.8	-	37.8	-	100.0	(135)
기타 친인척	7.7	-	7.7	7.7	38.5	38.5	-	100.0	(13)
본인/남편	9.9	1.5	1.7	6.7	0.3	79.9	-	100.0	(1,069)
기타	-	-	-	-	-	100.0	-	100.0	(2)

주: 1)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야간의 영아(0~2세) 돌봄방식으로 실제 이용과 희망 간 일치도로 본인 및 남편이 97.0%, 부모(친정 또는 시부모)의 경우 32.7%로 각각 나타났다. 이외 형태의 돌봄방식은 사례수 부족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

〈표 7-30〉 영아(0~2세)의 야간 돌봄으로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과 바람직한 곳·사람 (아동 기준) 간의 일치도

(단위: %, 명)

구 분	바람직한 곳(사람)							계 (명)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방 등 시설	베이비 시터	(친정/사)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기타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학원, 놀이방 등 시설	-	-	-	-	-	100.0	-	100.0 (1)
베이비시터	-	-	-	25.0	-	75.0	-	100.0 (12)
(친정/사)부모	-	-	-	32.7	-	67.3	-	100.0 (55)
기타 친인척	16.7	-	-	-	66.7	16.7	-	100.0 (6)
본인/남편	0.2	0.1	0.4	2.1	0.2	97.0	-	100.0 (2,192)
기타	-	-	-	-	-	100.0	-	100.0 (1)

주: 1)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유아(3세~취학 전)의 주간 돌봄 방식의 실제와 희망 간 일치도로 어린이집·유치원 88.5%, 학원 및 놀이방 등 기타 시설 42.3%, 본인 및 남편 58.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베이비시터나 부모의 경우 사례수가 극히 적어 유의한 결과로 간주하기 곤란하다.

〈표 7-31〉 유아(3세~취학 전)의 주간 돌봄으로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과 바람직한 곳·사람(아동 기준) 간의 일치도

(단위: %, 명)

구 분	바람직한 곳(사람)							계 (명)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방 등 시설	베이비 시터	(친정/사)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기타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어린이집, 유치원	88.5	0.3	0.3	4.9	0.1	5.8	0.1	100.0 (2,646)
학원, 놀이방 등 시설	46.5	42.3	-	2.8	-	8.5	-	100.0 (71)
베이비시터	-	-	50.0	-	-	50.0	-	100.0 (2)
(친정/사)부모	-	-	-	100.0	-	-	-	100.0 (1)
본인/남편	34.5	5.2	-	1.7	-	58.6	-	100.0 (58)

주: 1)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야간에 유아(3세~취학 전)를 맡기는 실제와 바람직한 곳 간 일치도로 본인 및 남편 95.9%, 부모 39.0%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머지 유형의 돌봄 방식에 대해서는 사례수가 부족하여 유의한 결과로 간주할 수 없다.

〈표 7-32〉 유아(3세~취학 전)를 야간에 맡기기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과 바람직한 곳·사람(아동 기준) 간의 일치도

(단위: %, 명)

구 분	바람직한 곳(사람)							계	(명)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방 등 시설	베이비 시터	(친정/사)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기타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학원, 놀이방 등 시설	-	20.0	-	-	-	80.0	-	100.0	(5)
베이비시터	-	-	40.0	20.0	-	40.0	-	100.0	(10)
(친정/사)부모	-	-	-	39.0	1.0	60.0	-	100.0	(100)
기타 친인척	-	-	-	-	70.6	29.4	-	100.0	(17)
본인/남편	0.3	0.4	0.6	2.4	0.2	95.9	0.2	100.0	(2,633)
기타	7.1	-	-	7.1	14.3	50.0	21.4	100.0	(14)

- 주: 1)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제3절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돌봄 방법

1. 초등학교 재학 자녀를 돌보기 바람직한 곳(사람)

가. 초등학교 자녀의 학년별 선호도

초등학교 재학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15~49세)이 자녀를 주간에 맡기기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사람)으로는 학원이 5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방과후프로그램(28.2%), 본인 및 남편(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년별로 구분하면, 저학년일수록 방과후프로그램

램, 친인척, 부모 등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고학년일 수록 학원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33〉 초등학교 재학 자녀를 돌보기에 바람직한 곳(사람)(1순위, 아동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기타 기관	베이비 시터	(친정/사)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아이혼자/ 형제자매/ 기타	계	(명)
전체	28.2	51.2	2.8	0.5	4.2	0.4	12.1	0.7	100.0	(4,778)
아동학년										
1학년	37.3	39.3	2.5	0.7	5.7	0.1	13.6	0.8	100.0	(845)
2학년	29.4	47.9	3.5	0.5	4.9	0.2	13.1	0.5	100.0	(817)
3학년	26.6	52.7	3.1	0.6	4.0	0.2	12.6	0.2	100.0	(835)
4학년	28.2	50.7	2.7	-	3.4	0.4	13.3	1.2	100.0	(737)
5학년	24.0	57.1	3.0	-	4.7	0.7	10.0	0.6	100.0	(709)
6학년	23.0	60.3	1.8	1.0	2.5	0.8	10.0	0.6	100.0	(833)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 선호도

기혼여성(15~4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맡기기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사람)으로는 학원이 4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방과후프로그램(31.2%), 본인 및 남편(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 ‘학원’을 그리고 비맞벌이 가구인 경우 본인 또는 남편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른 차이는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원을 그리고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방과후 프로그램을 바람직한 돌봄 방식으로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 혼인상태, 현존 자녀수 등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돌봄방식 선호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7-34)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취학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 기준)을 돌보기에 바람직한 곳(사람(1순위))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기타 기관	베이비 시터	(친정/시)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아이 혼자/ 형제자매	계	(명)
전체	31.2	46.4	3.1	0.6	5.0	0.2	12.9	0.6	100.0	(2,258)
거주지										
대도시	31.1	45.2	2.9	0.6	6.2	0.2	13.5	0.4	100.0	(972)
중소도시	30.6	49.5	3.1	0.4	4.4	0.1	11.3	0.5	100.0	(929)
농어촌	33.1	41.8	4.2	0.8	3.1	0.3	15.6	1.1	100.0	(359)
맞벌이 ¹⁾ ($x^2=15.6$)										
맞벌이	28.8	48.4	4.0	0.7	5.5	0.1	11.8	0.6	100.0	(1,092)
비맞벌이	33.5	44.5	2.3	0.5	4.5	0.3	13.9	0.5	100.0	(1,167)
혼인상태										
유배우	31.1	47.0	2.9	0.6	4.9	0.1	12.8	0.6	100.0	(2,185)
이혼·사별·미혼모	34.2	28.8	11.0	-	8.2	1.4	16.4	-	100.0	(73)
현존 자녀수 ²⁾										
1명	27.9	47.7	2.4	1.2	7.8	0.3	12.3	0.3	100.0	(333)
2명	31.3	45.6	3.0	0.6	5.0	0.1	13.7	0.6	100.0	(1,411)
3명 이상	32.9	48.0	3.9	0.4	3.1	-	11.1	0.6	100.0	(513)
가구소득수준 ³⁾										
60%미만	34.6	37.1	5.7	1.4	3.2	-	16.1	1.8	100.0	(280)
60~80%미만	35.9	44.9	2.9	-	5.1	-	11.2	-	100.0	(376)
80~100%미만	31.6	47.0	3.0	-	5.9	0.2	11.7	0.6	100.0	(528)
100~120%미만	32.2	43.6	3.4	0.2	4.1	0.5	14.8	1.2	100.0	(413)
120~140%미만	31.5	48.4	2.7	0.5	2.7	-	14.1	-	100.0	(184)
140~160%미만	27.3	50.6	4.1	0.6	8.1	-	9.3	-	100.0	(172)
160%이상	22.4	56.3	0.7	2.0	5.6	-	13.2	-	100.0	(304)

* p<0.05, ** p<0.01, *** p<0.001

주: 1) 비맞벌이가구에는 홀벌이가구, 이혼·사별·별거·미혼모 등이 해당됨.

2) 기혼여성의 출생아 기준임.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x^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15~49세)의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자녀를 맡기기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사람)으로는 학원이 55.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26.2%), 본인 및 남편(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저학년(1~3학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학원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방과후프로그램이나 부모에 대한 선호도가 상

대적으로 낮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비맞벌이 가구인 경우 본인 또는 남편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을 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기혼여성의 거주지, 혼인상태, 현존자녀수 및 가구소득 수준 등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주간돌봄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큰 차이 없이 보편적인 특징을 보였다.

〈표 7-35〉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취학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 기준)을 돌보기에 바람직한 곳사람(1순위)

(단위: %, 명)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기타 기관	베이비 시터	(친정/시)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아이 혼자/ 형제자매	계	(명)
전체	26.2	55.1	2.3	0.4	3.8	0.6	10.7	0.8	100.0	(1,410)
거주지										
대도시	23.5	57.1	1.6	0.8	4.8	1.1	10.1	1.0	100.0	(625)
중소도시	28.7	53.9	2.4	0.2	2.9	0.2	11.0	0.8	100.0	(592)
농어촌	26.9	52.8	4.7	-	3.1	-	12.4	-	100.0	(193)
맞벌이 ¹⁾										
맞벌이	26.3	55.5	2.7	0.4	4.6	0.8	8.5	1.3	100.0	(791)
비맞벌이	26.0	54.4	1.9	0.5	2.7	0.3	13.7	0.3	100.0	(619)
혼인상태										
유배우	25.8	55.6	2.4	0.5	3.9	0.7	10.4	0.8	100.0	(1,332)
이혼·사별·미혼모	31.6	46.8	1.3	-	1.3	-	16.5	2.5	100.0	(79)
현존 자녀수 ²⁾										
1명	27.2	51.8	1.8	1.3	5.8	-	12.1	-	100.0	(224)
2명	25.9	57.0	2.3	0.3	3.5	0.7	9.5	0.9	100.0	(918)
3명 이상	26.8	51.3	2.6	-	3.0	1.1	14.0	1.1	100.0	(265)
가구소득수준 ³⁾										
60%미만	34.2	43.7	2.5	-	1.3	-	15.8	2.5	100.0	(158)
60~80%미만	33.7	46.1	4.7	-	3.1	1.0	10.9	0.5	100.0	(193)
80~100%미만	24.7	56.7	3.6	-	2.0	1.6	9.7	1.6	100.0	(247)
100~120%미만	24.1	59.4	2.4	-	1.6	-	11.6	0.8	100.0	(248)
120~140%미만	24.4	54.3	1.2	-	7.9	-	12.2	-	100.0	(164)
140~160%미만	23.5	61.3	0.8	1.7	5.0	-	7.6	-	100.0	(119)
160%이상	21.9	60.1	1.1	1.4	5.7	1.1	8.8	-	100.0	(283)

* p<0.05, ** p<0.01, *** p<0.001

주: 1) 비맞벌이가구에는 홀벌이 가구, 이혼·사별·별거·미혼모 등이 해당됨.

2) 기혼여성의 출생아 기준임.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초등학교 재학 자녀를 실제 맡긴 곳(사람)

가. 초등학교 자녀의 학년별 실제 돌봄 방식

기혼여성(15~49세)이 실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주간에 맡긴 곳 혹은 사람을 자녀의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원이 6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26.3%), 본인 및 남편(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년별로 구분하면, 저학년일수록 방과후프로그램 그리고 고학년일수록 학원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36〉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년별 실제 맡긴 곳(사람)(1순위, 아동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기타 기관	베이비 시터	(친정/사)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아이혼자/ 형제자매/ 기타	계	(명)
전체	26.3	64.3	2.2	0.2	0.6	0.0	5.2	1.2	100.0	(4,779)
아동학년										
1학년	36.9	52.8	2.6	0.4	0.2	-	6.5	0.6	100.0	(845)
2학년	31.5	61.0	2.1	-	0.5	0.1	3.9	0.9	100.0	(816)
3학년	24.2	66.0	3.2	0.1	0.8	-	4.7	1.0	100.0	(835)
4학년	25.6	63.8	1.6	0.3	0.7	-	6.1	1.9	100.0	(737)
5학년	22.0	69.3	2.1	0.1	0.4	0.1	4.8	1.1	100.0	(709)
6학년	17.0	73.6	1.4	-	1.0	-	4.8	2.2	100.0	(834)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 실제 돌봄 방식

기혼여성(15~4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를 주간에 실제 맡긴 곳(사람)으로는 학원이 6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방과후 프로그램(31.3%), 본인 및 남편(5.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농촌에 사는 경우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본인 및 남편

의 직접 돌봄 등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맞벌이 가구인 경우 '학원' 그리고 비맞벌이 가구인 경우 본인(남편)에 맡긴 비율이 다소 높았을 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7-37〉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취학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 기준)를 실제 맡긴 곳(사람)(1순위)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기타 기관	베이비 시터	(친정/사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아이혼자/ 형제자매/ 기타	계	(명)
전체	31.2	60.3	2.2	0.1	0.4	0.1	5.1	0.8	100.0	(2,258)
거주지										
대도시	31.7	60.4	1.7	-	0.3	0.1	5.1	0.6	100.0	(972)
중소도시	29.1	63.3	2.0	0.1	0.3	-	4.4	0.8	100.0	(928)
농촌	34.8	51.8	3.9	0.8	0.6	-	6.7	1.4	100.0	(359)
맞벌이 ¹⁾										
맞벌이	30.9	61.8	3.1	0.1	0.4	0.1	2.9	0.7	100.0	(1,091)
비맞벌이	31.5	58.8	1.3	0.3	0.3	-	7.0	0.9	100.0	(1,166)
혼인상태										
유배우	30.4	61.2	2.0	0.1	0.4	0.0	5.1	0.7	100.0	(2,184)
이혼·사별·미혼모	54.8	31.5	8.2	-	-	-	2.7	2.7	100.0	(73)
현존 자녀수 ²⁾										
1명	28.1	66.5	1.5	0.3	0.6	-	2.4	0.6	100.0	(334)
2명	30.5	61.8	1.2	0.2	0.4	-	5.2	0.8	100.0	(1,411)
3명 이상	35.1	51.9	5.3	-	0.2	0.2	6.6	0.8	100.0	(513)
가구소득수준 ³⁾										
60%미만	41.1	40.0	5.7	1.1	0.4	-	9.3	2.5	100.0	(280)
60~80%미만	36.6	54.6	2.1	-	-	-	5.8	0.8	100.0	(377)
80~100%미만	33.9	57.2	2.3	-	0.2	0.2	5.5	0.8	100.0	(528)
100~120%미만	28.6	65.3	1.2	-	0.2	-	4.1	0.5	100.0	(412)
120~140%미만	28.3	65.8	1.1	0.5	-	-	4.3	-	100.0	(184)
140~160%미만	23.1	72.8	1.2	-	1.2	-	1.7	-	100.0	(173)
160%이상	20.5	73.3	1.3	-	1.0	-	3.3	0.7	100.0	(303)

* p<0.05, ** p<0.01, *** p<0.001

주: 1) 비맞벌이가구에는 홀벌이 가구, 이혼·사별·별거·미혼모 등이 해당됨.

2) 기혼여성의 출생아 기준임.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15~49세)의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자녀를 주간에 실제 맡긴 곳(사람)으로는 학원이 6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방과후

프로그램(21.5%), 본인 및 남편(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경우와 비교하여 학원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방과후프로그램 이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비맞벌이 가구인 경우 본인(남편)에 맡긴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을 뿐,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7-38〉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취학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 기준)를 실제 맡긴 곳(사람(1순위))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기타 기관	베이비 시터	(친정/시)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아이혼자/ 형제자매/ 기타	계	(명)
전체	21.5	68.4	1.7	-	0.6	0.1	5.4	2.3	100.0	(1,410)
거주지										
대도시	21.6	70.2	1.1	-	0.3	-	5.1	1.6	100.0	(625)
중소도시	21.8	67.7	1.4	-	0.8	-	5.2	3.0	100.0	(591)
농촌	20.1	64.4	5.2	-	0.5	0.5	7.2	2.1	100.0	(194)
맞벌이 ¹⁾										
맞벌이	22.4	69.8	1.1	-	0.9	-	2.3	3.5	100.0	(791)
비맞벌이	20.4	66.7	2.4	-	0.2	0.2	9.5	0.6	100.0	(618)
혼인상태										
유배우	20.7	69.6	1.7	-	0.5	-	5.2	2.4	100.0	(1,331)
이혼·사별·미혼모	35.4	48.1	3.8	-	1.3	1.3	10.1	-	100.0	(79)
현존 자녀수 ²⁾										
1명	22.3	69.6	1.3	-	0.9	0.4	4.5	0.9	100.0	(224)
2명	19.4	70.8	1.4	-	0.7	-	4.9	2.8	100.0	(918)
3명 이상	28.2	58.6	3.4	-	-	-	8.3	1.5	100.0	(266)
가구소득수준 ³⁾										
60%미만	31.8	47.8	2.5	-	0.6	-	13.4	3.8	100.0	(157)
60~80%미만	28.4	61.1	3.7	-	0.5	0.5	5.3	0.5	100.0	(190)
80~100%미만	19.9	68.3	1.6	-	-	-	5.7	4.5	100.0	(246)
100~120%미만	19.4	74.7	2.0	-	-	-	2.8	1.2	100.0	(249)
120~140%미만	15.2	75.8	-	-	1.8	-	4.8	2.4	100.0	(165)
140~160%미만	24.8	65.8	2.6	-	-	-	3.4	3.4	100.0	(117)
160%이상	16.3	77.0	0.4	-	1.1	-	4.6	0.7	100.0	(282)

* p<0.05, ** p<0.01, *** p<0.001

주: 1) 비맞벌이가구에는 홀벌이 가구, 이혼·사별·별거·미혼모 등이 해당됨.

2) 기혼여성의 출생아 기준임.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기관 이용 및 비이용 이유

1) 기관 이용 이유

초등학교 재학 자녀를 학원 등 기관에 보내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장래 학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특기 교육을 위하여(19.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13.0%)’, ‘중고등학교 준비를 위해서(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년별로 살펴보면 고학년일수록 ‘중고등학교 준비를 위해’, ‘장래 학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등 교육적 목적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저학년일수록 ‘아이의 전인적 발달’, ‘특기교육’, ‘사회성 발달’ 등을 위하여 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39〉 초등학교 재학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아동 기준)

(단위: %, 명)

구 분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특기교육을 위하여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장래 학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타 ¹⁾	계	(명)
전체	13.0	11.3	19.1	5.6	7.1	41.8	2.2	100.0	(4,573)
아동학년($\chi^2=786.7^{***}$)									
1학년	17.3	3.0	26.9	9.1	11.7	29.4	2.7	100.0	(804)
2학년	16.4	2.5	21.7	10.0	9.6	38.2	1.6	100.0	(793)
3학년	14.1	4.4	22.3	5.2	7.2	43.6	3.1	100.0	(802)
4학년	10.7	8.8	19.5	4.0	4.7	50.7	1.6	100.0	(702)
5학년	12.0	18.5	14.5	3.2	4.6	46.7	0.4	100.0	(681)
6학년	7.1	31.7	9.0	1.7	3.8	43.8	2.8	100.0	(785)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집 근처에 있어서 이용이 편리해서’, ‘기타’ 등이 포함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인 경우 중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를 기관에 보내는 이유로는 '장애 학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36.9%)', '특기교육(23.9%)', '아이의 전인적 발달(16.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거주지, 혼인상태, 현존자녀수 및 가구소득수준 등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기관 이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0〉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의 돌봄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아이의 전인적 발달	중고등학교 준비	특기 교육	취업 등으로 부모 돌봄 곤란	사회성 발달	장래 학업	기타 ¹⁾	계	(명)
전체	16.1	3.2	23.9	8.0	9.3	36.9	2.5	100.0	(2,175)
거주지($\chi^2=15.3$)									
대도시	16.6	2.4	24.8	7.3	8.0	38.3	2.6	100.0	(940)
중소도시	16.0	3.7	23.8	8.4	9.6	36.6	2.0	100.0	(896)
농촌	15.3	4.1	22.1	8.8	12.4	33.5	3.8	100.0	(340)
맞벌이 ²⁾ ($\chi^2=104.8^{***}$)									
맞벌이	13.4	2.4	21.2	13.7	8.7	37.6	3.0	100.0	(1,069)
비맞벌이	18.7	3.9	26.5	2.6	10.0	36.2	2.1	100.0	(1,105)
혼인상태 ($\chi^2=32.5^{***}$)									
유배우	16.1	3.2	24.3	7.5	9.4	37.0	2.5	100.0	(2,106)
이혼·사별·미혼모	14.5	2.9	14.5	26.1	7.2	31.9	2.9	100.0	(69)
현존 자녀수($\chi^2=11.6$)									
1명	15.9	2.7	21.0	9.5	11.6	37.5	1.8	100.0	(328)
2명	16.5	3.3	23.8	7.8	9.5	36.1	3.0	100.0	(1,363)
3명 이상	14.8	3.3	26.2	7.8	7.2	38.8	1.9	100.0	(485)

〈표 7-40〉 계속

(단위: %, 명)

구 분	아이의 전인적 발달	중고등 학교 준비	특기 교육	취업 등으로 부모 돌봄 곤란	사회성 발달	장래 학업	기타 ¹⁾	계	(명)
가구소득수준 ³⁾ ($\chi^2=45.6$)									
60%미만	22.2	1.6	25.8	8.7	10.7	29.0	2.0	100.0	(252)
60~80%미만	17.1	3.7	21.6	5.6	12.1	36.5	3.4	100.0	(356)
80~100%미만	13.6	3.4	25.3	7.5	10.7	37.0	2.6	100.0	(506)
100~120%미만	16.5	3.9	23.3	9.1	7.6	36.9	2.7	100.0	(407)
120~140%미만	12.2	2.8	27.1	8.3	9.9	36.5	3.3	100.0	(181)
140~160%미만	15.8	1.2	23.4	9.4	6.4	40.9	2.9	100.0	(171)
160%이상	16.0	4.0	21.7	9.0	5.7	42.3	1.3	100.0	(300)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집 근처에 있어서 이용이 편리해서', '기타' 등이 포함됨.

2) 비맞벌이가구에는 홀벌이 가구, 이혼사별·별거·미혼모 등이 해당됨.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이면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를 시설에 보내는 이유로는 '장래 학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 47.9%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준비를 위해(19.0%)', '특기교육을 위하여(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거주지에 따라서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 비해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아이의 전인적 발달', '중고등학교 준비', '장래 학업' 등을 위해 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기교육이나 사회성 발달, 취업으로 인한 직접 돌봄 곤란 등으로 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경제활동으로 직접 돌봄이 어려워 그리고 사회성 발달을 위해 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현존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자녀수가 적을수록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특기교육을 위하여' 기

관을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로 보면, 일부 불규칙 계층을 제외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고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이유의 패턴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구소득수준별 차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7-41〉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의 돌봄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아이의 전인적 발달	중고등학교 준비	특기 교육	취업 등으로 부모 돌봄 곤란	사회성 발달	장래 학업	기타 ¹⁾	계	(명)
전체	9.6	19.0	14.6	2.3	4.3	47.9	2.2	100.0	(1,331)
거주지($\chi^2=24.6$)									
대도시	10.2	20.7	13.7	1.8	3.2	48.0	2.5	100.0	(600)
중소도시	9.1	18.5	15.0	2.0	4.9	49.5	0.9	100.0	(547)
농촌	9.2	15.2	16.3	4.9	6.0	43.5	4.9	100.0	(184)
맞벌이 ²⁾ ($\chi^2=13.6$)									
맞벌이	9.6	18.6	14.9	3.7	4.5	46.5	2.1	100.0	(752)
비맞벌이	9.8	19.3	14.3	0.7	4.0	49.7	2.2	100.0	(580)
혼인상태									
유배우	9.3	19.1	14.5	2.2	4.4	48.3	2.2	100.0	(1,258)
이혼·사별·미혼모	16.4	16.4	16.4	5.5	2.7	41.1	1.4	100.0	(73)
현존 자녀수($\chi^2=35.5$ ***)									
1명	10.6	17.9	12.8	2.3	4.1	46.3	6.0	100.0	(218)
2명	9.8	20.3	13.6	1.7	4.3	49.0	1.3	100.0	(866)
3명 이상	7.7	15.4	19.8	4.9	4.5	45.7	2.0	100.0	(247)
가구소득수준 ³⁾ ($\chi^2=66.6$ *)									
60%미만	13.0	14.5	16.7	2.9	3.6	46.4	2.9	100.0	(138)
60~80%미만	7.2	13.9	21.7	3.3	5.0	46.1	2.8	100.0	(180)
80~100%미만	10.1	18.5	14.1	0.0	7.0	48.5	1.8	100.0	(227)
100~120%미만	7.3	21.6	12.7	3.7	2.9	49.8	2.0	100.0	(247)
120~140%미만	15.8	12.0	14.6	3.2	3.2	50.6	0.6	100.0	(156)
140~160%미만	10.6	19.5	12.4	2.7	1.8	46.9	6.2	100.0	(113)
160%이상	7.0	26.4	12.1	1.5	4.4	46.9	1.8	100.0	(273)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집 근처에 있어서 이용이 편리해서’, ‘기타’ 등이 포함됨.

2) 비맞벌이가구에는 홀벌이 가구, 이혼·사별·별가·미혼모 등이 해당됨.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관 미이용 이유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돌봄방식으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35.0%)’,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25.0%)’, ‘직접 돌보는 것이 자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3.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학년별로는 사례수가 극히 적어 대표성 있는 결과로 간주할 수 없다.

〈표 7-42〉 초등학교 재학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아동 기준)

(단위: %, 명)

구 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원하는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없어서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	직접 돌보는 것이 자녀에 도움 될 것 같아서	기타	계	(명)
전체	35.0	8.7	7.5	25.0	13.8	9.9	100.0	(207)
아동학년								
1학년	32.5	10.0	5.0	22.5	20.0	10.0	100.0	(40)
2학년	30.4	8.7	4.3	34.8	8.7	13.0	100.0	(23)
3학년	45.2	6.5	16.1	19.4	6.5	6.5	100.0	(31)
4학년	47.2	13.9	-	27.8	11.1	-	100.0	(36)
5학년	17.9	10.7	7.1	28.6	14.3	21.4	100.0	(28)
6학년	32.7	6.1	10.2	22.4	18.4	10.2	100.0	(49)

주: 1)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3. 초등학교 재학 자녀 방과후돌봄의 실제 이용과 바람직한 곳 간 일치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돌봄 방법으로 실제로 이용하는 곳(사람)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교차하여 실제와 선호 간의 차이(일치도)를 측정해 보았다. 전체 초등학교 재학 자녀를 기준으로 일치도는 방과후프로그램 73.6%, 학원 72.1%, 본인 또는 남편 69.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시터 등은 사례수가 극히 적어 대표성 있는 결과로 간주할 수 없다.

〈표 7-43〉 초등학교 재학(1~6학년) 자녀의 방과후 돌봄 방법의 실제와 희망 간 일치도(1순위)
(단위: %, 명)

구 분	바람직한 곳(사람)								계	(명)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기타 기관	베이비 시터	(친정/사)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아이혼자/ 형제자매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73.6	10.7	2.2	0.3	4.4	0.6	7.7	0.4	100.0	(1,258)
학원	12.2	72.1	2.1	0.5	3.8	0.4	8.7	0.2	100.0	(3,073)
기타 기관	12.3	28.3	35.8	3.8	2.8	-	16.0	0.9	100.0	(106)
베이비시터	66.7	16.7	-	16.7	-	-	-	-	100.0	(6)
(친정/사)부모	3.3	6.7	-	-	46.7	-	43.3	-	100.0	(30)
기타 친인척	-	50.0	50.0	-	0.0	-	-	-	100.0	(2)
본인/남편	8.1	16.2	1.2	-	3.6	-	69.6	1.2	100.0	(247)
아이 혼자/형제자매/기타	16.7	33.3	-	-	-	-	23.3	26.7	100.0	(60)

주: 1)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의 돌봄 방법에 대한 일치도로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71.7%, 학원 68.8%, 본인 또는 남편 70.1%, 기타 기관 34.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시터 등은 사례수가 극히 적어 대표성 있는 결과로 간주할 수 없다.

〈표 7-44〉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 방법의 실제와 희망 간 일치도(1순위)
(단위: %, 명)

구 분	바람직한 곳(사람)								계	(명)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기타 기관	베이비 시터	(친정/사)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아이 혼자/ 형제자매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71.7	11.5	1.9	0.5	5.2	-	8.8	0.3	100.0	(771)
학원	13.5	68.8	2.4	0.6	4.4	0.3	9.8	0.3	100.0	(1,494)
기타 기관	10.6	30.3	34.8	3.0	4.5	-	16.7	-	100.0	(66)
베이비시터	50.0	25.0	-	25.0	-	-	-	-	100.0	(4)
(친정/사)부모	7.7	-	-	-	53.8	-	38.5	-	100.0	(13)
기타 친인척	-	-	100.0	-	-	-	-	-	100.0	(1)
본인/남편	9.4	15.0	-	-	3.9	-	70.1	1.6	100.0	(127)
아이 혼자/형제자매/기타	10.0	25.0	-	-	-	-	35.0	30.0	100.0	(20)

주: 1)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자녀의 방과후 돌봄 방법에 대한 일치도로 방과후프로그램 76.4%, 학원 75.5%, 본인 또는 남편 69.7%, 기타 기관 38.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베이비시터 등은 사례수가 극히 적어 대표성 있는 결과로 간주할 수 없다.

〈표 7-45〉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 방법의 실제와 희망 간 일치도(1순위)
(단위: %, 명)

구 분	바람직한 곳(사람)								계	(명)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기타 기관	베이비 시터	(친정/사) 부모	기타 친인척	본인/ 남편	아이 혼자/ 형제자매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76.4	9.6	2.7	-	3.3	1.4	5.9	0.6	100.0	(488)
학원	10.9	75.5	1.7	0.4	3.2	0.5	7.6	0.2	100.0	(1,573)
기타 기관	15.4	23.1	38.5	5.1	-	-	15.4	2.6	100.0	(39)
베이비시터	66.7	33.3	-	-	-	-	-	-	100.0	(3)
(친정/사)부모	-	6.3	-	-	43.8	-	50.0	-	100.0	(16)
기타 친인척	-	100.0	-	-	-	-	-	-	100.0	(1)
본인/남편	6.7	17.6	2.5	-	3.4	-	69.7	-	100.0	(119)
아이 혼자/형제자매/기타	20.0	37.5	-	-	-	-	17.5	25.0	100.0	(40)

주: 1)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제4절 자녀 양육비에 관한 사항

1.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시기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양육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대학 졸업 때까지라는 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 때까지가 17.2%였다. 적어도 대학교 졸업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비율이 89.6%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라고 지원해야한다는 비율은 10.4%에 불과했다.

이러한 양상은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기혼여성의 모든 특성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별로 보면, 농촌에 비해 도시(특히 대도시)에서 자녀 양육책임 기간을 더 길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저연령층일수록 양육책임 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고연령층일수록 더 길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특히 40대 후반 연령층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또는 혼인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혼인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이 중졸이하 학력집단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혼인상태와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고소득층일수록 양육책임 기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생각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해야한다는 비율이 전국 월평균가구소득 60% 미만 계층에서는 15.4%이었고, 전국 월평균가구소득 160%이상 계층에서는 5.7%에 불과했다. 반면, 혼인할 때까지라는 비율은 가구소득 60% 미만 계층에서 9.4%였고, 가구소득 160%이상 계층에서는 12.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46〉 기혼여성(15~49세)의 자녀 양육 책임의 범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대학 졸업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혼인할 때까지	언제 까지라도	계	(명)
전체	10.4	62.4	17.2	8.8	1.2	100.0	(11,003)
거주지($\chi^2=21.7^{**}$)							
대도시	9.9	62.2	17.0	9.8	1.1	100.0	(4,798)
중소도시	10.6	62.3	17.9	7.8	1.4	100.0	(4,586)
농촌	11.4	63.3	15.4	8.8	1.0	100.0	(1,619)

〈표 7-46〉 계속

(단위: %, 명)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대학 졸업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혼인할 때까지	언제 까지라도	계	(명)
연령 ¹⁾ ($\chi^2=297.8^{***}$)							
25세 미만	28.8	59.6	5.8	5.8	-	100.0	(52)
25~29세	17.2	60.9	13.9	6.8	1.2	100.0	(488)
30~34세	14.6	62.1	14.9	7.3	1.2	100.0	(1,723)
35~39세	13.1	63.2	14.2	8.3	1.2	100.0	(2,451)
40~44세	9.7	64.7	15.8	8.0	1.8	100.0	(3,047)
45~49세	5.5	60.1	22.7	11.0	0.7	100.0	(3,242)
교육수준($\chi^2=91.8^{***}$)							
중졸이하	9.9	50.3	19.2	19.8	0.9	100.0	(344)
고졸	11.3	61.4	17.9	8.4	1.0	100.0	(4,552)
대졸	9.9	64.3	16.2	8.1	1.5	100.0	(5,669)
대학원졸	7.7	58.0	20.6	12.2	1.4	100.0	(441)
혼인상태($\chi^2=29.6^{***}$)							
유배우	10.2	62.9	17.1	8.7	1.2	100.0	(10,317)
사별	10.8	60.4	19.4	9.4	-	100.0	(139)
이혼·별거·미혼모	14.8	54.0	18.5	10.1	2.6	100.0	(546)
취업여부($\chi^2=22.0^{***}$)							
취업	9.3	63.2	17.7	8.6	1.3	100.0	(6,216)
비취업	11.9	61.4	16.5	9.1	1.2	100.0	(4,787)
가구소득 ²⁾ ($\chi^2=212.9^{***}$)							
60%미만	15.3	58.1	15.8	9.5	1.3	100.0	(1,518)
60~80%미만	13.8	62.9	14.1	8.2	1.0	100.0	(1,712)
80~100%미만	11.7	64.6	15.9	6.9	0.9	100.0	(2,117)
100~120%미만	8.6	63.8	18.7	8.0	0.9	100.0	(1,921)
120~140%미만	9.9	62.1	16.9	9.3	1.8	100.0	(1,035)
140~160%미만	6.5	66.6	18.8	7.3	0.8	100.0	(944)
160%이상	5.8	59.2	20.5	12.6	1.9	100.0	(1,752)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자녀양육비

본 조사에서는 각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월평균 양육비용을 질문하였다. 지출항목은 총 8개로 구분하였고, 조사 대상 자녀로는 5

명까지 조사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4째 자녀가 88명에 불과하여, 여기에서는 세 번째 자녀까지 분석하였다.

우선 자녀의 연령 등 세부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의 수만을 고려하여 총 지출액을 산정하였다. 월평균 양육비 지출액은 자녀가 1명인 경우 64만8천원, 2명인 경우 128만5천원, 3명인 경우 152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와 2명 있는 경우 총 자녀양육비 지출액은 약 2배 차이가 나타나나, 자녀가 3명이 있는 경우에는 2자녀의 경우에 비해 월평균 약 25만원이 증가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연령, 가구의 지출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자녀수가 많을수록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도 늘어났는데, 특히 사교육비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보육유아교육비와 비공식 돌봄비용은 자녀수에 따른 증가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 항목은 영유아기에만 지출되기 때문이다. 비공식 돌봄비용 지출액은 자녀가 1명인 경우 4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았으며, 자녀수가 증가하면 오히려 감소했다. 이 역시 영아기에만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1명만 양육하는 가정에서 지출한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기혼여성의 거주지가 농촌인 경우 52만1천원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61만5천원, 대도시인 경우 71만7천원으로 도시(특히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총 지출액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은 사교육비로 보인다. 다른 지출항목은 지역간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사교육비의 경우 농촌 12만6천원, 대도시 22만7천원이었다. 보육교육비도 농촌에서는 월평균 3만8천원인 반면, 대도시에서는 월평균 6만9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 간 차이는 주로 공교육비와 부모의 돌봄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났다.

1자녀 양육 시 기혼여성이 취업 중인 경우 자녀양육비 지출 총액은

69.6만원으로 비취업 중인 경우 59.9만원에 비해 월 10만원씩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1명만 양육하는 가정에서 지출한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60% 미만 계층은 월평균 총 지출액이 37만6천원이었지만, 월평균 가구소득 160% 이상 계층은 108만5천원으로 약 3배가 더 많았다. 지출항목 중 사교육비는 소득 계층 간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60% 미만 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7만원이었고, 월평균 가구소득 160% 이상 계층은 36만4천원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다른 지출항목에서도 고소득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월평균 지출액이 증가하지만, 총액의 증가분은 거의 사교육비와 공교육비의 증가분이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전체 경향은 자녀가 2명 또는 3명일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역별 격차에서 농촌지역보다 대도시 지역에서 지출 총액이 더 컸고, 사교육비 역시 농촌지역보다 대도시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소득계층 간 차이를 보아도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에서 사교육비와 공교육비를 훨씬 많이 지출했고, 총 지출액 중 대부분은 사교육비와 공교육비가 차지하였다.

〈표 7-47〉 기혼여성(15~49세)의 월평균 자녀양육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명)

구 분	보육 교육	공교육	사교육	돌봄			기타	비분류	합계	명
				부모	친인척	비혈연				
1자녀 가정	3.3	5.9	18.5	3.4	0.4	0.9	29.6	2.8	64.8	(2,693)
거주 지역										
대도시	3.7	6.9	22.7	4.3	0.5	1.1	30.0	2.5	71.7	(1,239)
중소도시	3.1	5.4	15.8	2.6	0.3	0.8	30.1	3.3	61.5	(1,060)
농촌	2.5	3.8	12.6	2.9	0.5	0.2	27.0	2.6	52.1	(395)
취업 여부										
취업	3.3	7.3	18.5	6.2	0.8	1.1	29.0	3.4	69.6	(1,367)
비취업	3.3	4.4	18.5	0.6	0.0	0.6	30.3	2.2	59.9	(1,327)

〈표 7-47〉 계속

(단위: 만원, 명)

구 분	보육 교육	공교육	사교육	돌봄			기타	비분류	합계	명
				부모	친인척	비혈연				
가구소득										
60%미만	2.3	3.9	7.0	0.5	0.0	0.1	21.9	1.9	37.6	(489)
60-80%미만	3.6	3.9	10.6	0.7	0.2	0.4	29.5	2.0	50.9	(489)
80-100%미만	3.0	4.4	15.1	1.0	0.1	0.3	28.0	1.8	53.8	(493)
100-120%미만	3.0	5.9	24.7	4.2	0.6	0.0	30.3	3.5	72.3	(416)
120-140%미만	3.8	6.4	19.0	6.3	0.6	1.4	31.4	3.7	72.7	(234)
140-160%미만	3.1	7.8	27.3	9.2	0.0	0.3	32.2	4.7	84.8	(182)
160%이상	4.6	11.4	36.4	8.3	1.4	3.9	38.4	4.0	108.4	(389)
2자녀 가정										
거주 지역										
대도시	4.5	24.1	50.3	2.2	0.1	1.0	46.7	9.4	138.3	(2,684)
중소도시	3.7	22.2	41.1	1.5	0.1	0.1	48.4	8.9	126.0	(2,614)
농촌	4.0	18.0	28.2	1.0	0.0	0.3	46.4	8.5	106.5	(877)
취업 여부										
취업	3.1	24.8	45.0	2.8	0.2	0.8	47.8	10.4	135.0	(3,631)
비취업	5.6	18.9	40.8	0.2	0.0	0.1	46.7	7.1	119.5	(2,545)
가구소득										
60%미만	3.4	10.6	15.8	0.1	0.0	0.1	30.8	4.9	65.7	(669)
60-80%미만	5.4	13.3	23.1	0.4	0.1	0.1	39.1	5.5	86.9	(876)
80-100%미만	4.9	16.8	34.6	0.7	0.0	0.2	43.1	6.0	106.3	(1,225)
100-120%미만	4.0	24.0	44.6	0.9	0.2	0.3	46.8	9.9	130.8	(1,140)
120-140%미만	3.6	26.5	42.8	1.4	0.2	0.3	49.0	9.4	133.1	(587)
140-160%미만	3.7	32.1	51.9	3.6	0.2	0.3	56.7	13.4	161.9	(600)
160%이상	3.2	34.2	80.4	5.0	0.1	2.0	63.8	14.4	203.0	(1,080)
3자녀 가정										
거주 지역										
대도시	5.5	30.5	54.3	1.4	0.9	1.5	57.4	12.4	163.8	(518)
중소도시	4.4	25.6	49.2	1.1	0.2	0.1	60.1	11.0	151.7	(536)
읍면부	4.6	19.1	34.3	1.0	0.0	0.3	58.6	10.2	128.2	(203)
취업 여부										
취업	3.6	31.7	48.7	1.9	0.4	1.2	58.3	13.5	159.3	(699)
비취업	6.5	20.2	49.1	0.3	0.4	0.1	59.3	8.9	144.8	(557)
가구소득										
60%미만	4.3	11.1	16.6	0.1	0.0	0.0	39.1	7.0	78.2	(185)
60-80%미만	6.2	13.0	30.2	0.2	0.0	0.0	49.4	6.6	105.6	(188)
80-100%미만	6.5	17.4	36.8	0.7	0.0	0.2	55.2	7.9	124.6	(235)
100-120%미만	4.1	31.3	48.8	0.7	0.0	1.1	64.1	10.8	160.9	(217)
120-140%미만	3.3	36.9	57.9	2.3	0.0	0.0	60.9	13.9	175.2	(137)
140-160%미만	5.2	38.7	68.9	2.0	0.1	1.0	66.8	15.1	197.9	(91)
160%이상	4.1	46.4	94.6	3.1	2.6	2.6	78.7	21.5	253.6	(203)

주: 1) 현존 자녀수는 총출생아수에서 총사망자녀수를 뺀 것이며, 동거 여부를 반영하지 않은 숫자임
 2) 기타는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 등을 말하며, 비분류는 항목 분류가 곤란한 금액의 합계임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8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 행태 <<

제1절 취업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전후 경력단절 실태

1. 경력단절 실태

결혼 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이 그 기간 동안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42.3%이었으며, 57.7%는 계속 일을 하였던 것(근무시간을 줄여서 한 경우 1.3%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의 연령별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 연령층의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45.3%로 45~49세 연령층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일수록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상대적으로 더 보편적이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대 이하의 높은 경력단절 경험은 이른바 센서링 효과로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20대 미혼여성들이 조사대상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8-1〉 결혼 전후 6개월 간 취업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경력단절 경험

(단위 : %, 명)

구 분	일 하였음			일하다 그만 둔 적 있음	계	(명)
	소계	근로시간 줄였음	근로시간 줄이지 않음			
전체	57.7	1.3	56.5	42.3	100.0	(8,479)
현재 연령 ¹⁾ ($\chi^2=204.7^{***}$)						
30세 미만	54.7	1.2	53.5	45.3	100.0	(413)
30~34세	69.0	1.3	67.7	31.0	100.0	(1,443)
35~39세	63.6	1.5	62.2	36.4	100.0	(2,033)
40~44세	55.9	1.2	54.7	44.1	100.0	(2,340)
45~49세	47.6	1.1	46.4	52.4	100.0	(2,250)

* p<0.05, ** p<0.01, *** p<0.001

주: 1) 30세 미만에는 15~19세 7명, 20~24세 43명이 포함되어 있음.

결혼 전후 경력단절 경험 비율을 당시의 경제활동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보면, 다른 직종보다 관리직·전문직의 경우 31.4%로 가장 낮았으며, 판매직의 경우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속 일을 했던 비율은 모든 직종에서 3% 미만으로 아주 낮았으나, 관리직·전문직의 경우 2.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경력단절 비율이 51.5%로 가장 높았고, 상용근로자 41.5%, 비임금근로자 26.5%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속 일을 했던 비율은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3.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장 유형에 따른 경력단절 경험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회사 등 44.8%, 정부투자·출연기관 26.9%, 공무원·국공립교사 13.6% 등의 순으로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고용안정성이 낮은 경우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속 일을 했던 비율은 공무원·국공립교사의 경우 2.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결혼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한 비율은 결혼 당시 직종별로는 관리직·전문직과 판매직에서, 결혼 당시 종사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가, 결혼 당시 직장 유형별로는 공무원·국공립교사와 일반회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의 안정성과 근로시간의 융통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결혼 전후로 근로시간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8-2〉 결혼 당시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경력단절 경험

(단위 : %, 명)

구 분	일 하였음			일하다 그만 둔 적 있음	계	(명)
	소계	근로시간을 줄였음	근로시간 줄이지 않음			
전체	57.7	1.3	56.5	42.3	100.0	(8,479)
직종($\chi^2=184.9^{***}$)						
관리직·전문직	68.6	2.2	66.4	31.4	100.0	(2,305)
사무직	55.0	1.0	54.0	45.0	100.0	(3,867)
서비스직	54.3	0.8	53.4	45.7	100.0	(943)
판매직	52.8	1.3	51.5	47.2	100.0	(619)
기타	46.7	0.4	46.3	53.3	100.0	(745)
종사상지위($\chi^2=125.3^{***}$)						
비임금근로자	73.5	3.0	70.5	26.5	100.0	(566)
상용근로자	58.5	1.1	57.4	41.5	100.0	(6,431)
임시일용근로자	48.5	1.6	46.9	51.5	100.0	(1,483)
직장유형($\chi^2=244.6^{***}$)						
공무원·국공립교사	86.4	2.4	83.9	13.6	100.0	(623)
정부투자·출연기관	73.1	0.8	72.3	26.9	100.0	(130)
일반회사기타	55.2	1.2	54.0	44.8	100.0	(7,726)

* p<0.05, ** p<0.01, *** p<0.00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미혼모의 경우 조사하지 않았음.

결혼 전후 6개월 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주된 사유를 질문한 결과, 가사(30.8%),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20.1%),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16.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사 상 불이익 이유의 비율은 결혼 당시 직종이 사무직인 경우, 종사상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직장유형이 정부투자·출연기관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3〉 결혼 전후 6개월 간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15~49세)의 경력단절 이유

(단위 : %, 명)

구 분	일하고 싶지 않아	육아 전념 희망	가사	남편, 시댁반 대	직장-집 먼 거리	인사상 불이익	기타	계	(명)
전체	20.1	16.1	30.8	9.6	11.5	4.1	7.8	100.0	(3,584)

〈표 8-3〉 계속

(단위 : %, 명)

구 분	일하고 싶지 않아	육아 전념 희망	가사	남편, 시댁반대	직장-집 먼 거리	인사상 불이익	기타	계	(명)
결혼 당시 직종($\chi^2=61.0^{***}$)									
관리직·전문직	19.7	18.3	28.3	7.6	14.3	2.8	9.0	100.0	(725)
사무직	19.4	15.0	31.2	10.3	11.4	5.4	7.3	100.0	(1,741)
서비스직	20.2	21.6	30.4	7.7	9.7	2.1	8.4	100.0	(431)
판매직	21.0	16.8	30.6	12.4	8.2	2.7	8.2	100.0	(291)
기타	23.2	10.3	33.8	10.8	10.6	4.0	7.3	100.0	(397)
결혼 당시 종사상지위($\chi^2=24.0^*$)									
비임금근로자	28.5	16.6	27.2	10.6	7.9	0.7	8.6	100.0	(151)
상용근로자	19.6	15.2	30.7	9.9	12.1	4.5	7.9	100.0	(2,671)
임시일용근로자	20.0	19.0	31.8	8.5	9.9	3.4	7.3	100.0	(764)
결혼 당시 직장유형									
공무원·국공립교사	21.2	5.9	30.6	2.4	24.7	4.7	10.6	100.0	(85)
정부투자·출연기관	13.5	24.3	16.2	8.1	18.9	5.4	13.5	100.0	(37)
일반회사기타	20.1	16.3	30.9	9.8	11.1	4.1	7.7	100.0	(3,465)

* p<0.05, ** p<0.01, *** p<0.00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미혼모의 경우 조사하지 않았음.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취업 증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이 그 기간 동안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44.6%, 계속 일을 하였던 비율은 55.4%(근무시간을 줄여서 일을 했다는 비율 5.9% 포함)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첫째아 출산 당시 경력단절 경험률은 20대 이하(56.5%)와 45~49세(41.4%)를 제외하면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일수록 첫째아 출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력단절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대의 경우 선택효과(대부분 아직 결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이 연령층에서 결혼을 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감수하고 첫째아 출산으로 이행하여 경력단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0대 후반에서 경력단절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로는 가장 과거 코호트로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다가 결혼 당시

이미 높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결과 첫째아 출산 이행으로 추가적인 경력 단절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8-4〉 기혼여성(15~49세)의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간 취업 상태

(단위 : %, 명)

구 분	일 하였음			일하다 그만 둔 적 있음	계	(명)
	소계	근로시간을 줄였음	근로시간 줄이지 않음			
전체	55.4	5.9	49.5	44.6	100.0	(4,119)
현재 연령 ¹⁾ ($\chi^2=47.1^{**}$)						
30세 미만	43.5	7.0	36.6	56.5	100.0	(186)
30~34세	60.7	5.8	55.0	39.3	100.0	(782)
35~39세	55.3	7.8	47.5	44.7	100.0	(1,092)
40~44세	50.9	4.0	46.9	49.1	100.0	(1,112)
45~49세	58.6	5.8	52.8	41.4	100.0	(947)

* p<0.05, ** p<0.01, *** p<0.001

주: 1) 30세 미만에는 15~19세 1명, 20~24세 13명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첫째아 출산 전후 경력단절 경험률을 당시 직종별로 보면 관리직 또는 전문직의 경우 35.5%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판매직 54.5%, 서비스직 53.9%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을 계속 했다는 비율도 서비스직(9.5%)와 판매직(9.4%)에서 사무직(3.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경우 첫째아 출산 전후로 근무형태가 가장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 출산 당시 종사상지위별로 경력단절 경험률은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71.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상용근로자 41.8%, 비임금근로자 31.0% 순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속 일을 했던 것(20.9%)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이와 달리, 임시·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을 했던 비율이 5% 미만으로 낮았고, 그만큼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임금근로

자의 경우 근무형태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지 못하여 경력단절로 귀결되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아 출산 당시 직장의 유형별로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일반회사 등 민간부문 49.8%, 정부투자·출연기관 27.5%, 공무원·국공립교사 11.2%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속 일을 했던 비율은 공무원·국공립교사의 경우 7.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국공립교사의 경우 일-가정양립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등의 여건들이 경력단절을 줄인데 기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8-5〉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특성 별 경력단절 경험

(단위 : %, 명)

구 분	일 하였음			일하다 그만 둔 적 있음	계	(명)
	소계	근로시간을 줄였음	근로시간 줄이지 않음			
전체	55.4	5.9	49.5	44.6	100.0	(4,119)
당시 직종($\chi^2=133.9^{***}$)						
관리직·전문직	64.5	7.5	56.9	35.5	100.0	(1,368)
사무직	53.2	3.1	50.1	46.8	100.0	(1,757)
서비스직	46.1	9.5	36.6	53.9	100.0	(431)
판매직	45.5	9.4	36.0	54.5	100.0	(286)
기타	48.9	6.9	42.0	51.1	100.0	(276)
당시 종사상지위($\chi^2=203.7^{***}$)						
비임금근로자	69.0	20.9	48.1	31.0	100.0	(455)
상용근로자	58.2	4.3	53.8	41.8	100.0	(3,104)
임시일용근로자	28.9	2.7	26.3	71.1	100.0	(559)
당시 직장유형($\chi^2=274.4^{***}$)						
공무원·국공립교사	88.8	7.2	81.6	11.2	100.0	(499)
정부투자·출연기관	72.5	2.2	70.3	27.5	100.0	(91)
일반회사기타	50.2	5.8	44.4	49.8	100.0	(3,52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첫째아 출산 당시 경력단절의 주된 이유로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82.3%)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인사 상 불이익은 2.0%에 불과하였다. 이

에 따라 첫째아 출산 당시 직종이나 종사상지위 및 직장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직종 중에는 판매직과 사무직에서, 종사상지위 중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그리고 직장 유형 중에서는 공공부문(민간부문에 비해)에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6〉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경력단절 이유

(단위 : %, 명)

구 분	그만둔 이유						계	(명)
	육아에 전념	건강 상 어려움	가사 때문에	남편, 시댁 반대	인사상 불이익	기타		
전체	82.3	4.6	3.1	3.3	2.0	4.8	100.0	(1,838)
당시 직종								
관리직·전문직	84.8	5.3	2.1	1.6	1.6	4.5	100.0	(486)
사무직	80.6	4.5	3.3	4.5	2.4	4.6	100.0	(821)
서비스직	84.9	5.2	2.2	2.2	0.9	4.7	100.0	(232)
판매직	84.6	0.6	4.5	2.6	2.6	5.1	100.0	(156)
기타	77.9	5.7	5.0	5.0	0.7	5.7	100.0	(140)
당시 종사상지위($\chi^2=18.9$)								
비임금근로자	84.4	6.4	3.5	2.8	-	2.8	100.0	(141)
상용근로자	81.5	4.5	3.3	3.7	1.6	5.3	100.0	(1,299)
임시일용근로자	84.4	4.0	2.0	2.3	3.8	3.5	100.0	(397)
당시 직장유형								
공무원·국공립교사	83.6	5.5	1.8	1.8	3.6	3.6	100.0	(55)
정부투자·출연기관	84.6	11.5	-	-	3.8	-	100.0	(26)
일반회사·기타	82.1	4.5	3.1	3.4	1.9	4.9	100.0	(1,758)

* p<0.05, ** p<0.01, *** p<0.001

주: 1)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둘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그 기간 동안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3%, 계속 일을 하였던 비율은 79.7%(근무시간을 줄여서 일을 했다는 비율 10.0% 포함)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현 연령별로 둘째아 출산 당시 경력단절 경험률은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여성은 이미 첫째아 출산 이후에 노동시장에

남아있거나 새로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직장요인보다는 육아 부담 등 개인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표 8-7〉 기혼여성(15~49세)의 둘째아 출산 전후 6개월간 취업 상태

(단위 : %, 명)

구 분	일 하였음			일하다 그만 둔 적 있음	계	(명)
	소계	근로시간을 줄였음	근로시간 줄이지 않음			
전체	79.7	10.0	69.7	20.3	100.0	(1,823)
현재 연령 ¹⁾ ($\chi^2=13.7^{**}$)						
15~29세	66.7	8.3	58.3	33.3	100.0	(36)
30~34세	77.5	6.3	71.3	22.5	100.0	(253)
35~39세	79.2	11.0	68.2	20.8	100.0	(509)
40~44세	77.6	8.6	69.0	22.4	100.0	(545)
45~49세	84.8	12.5	72.2	15.2	100.0	(479)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둘째아 출산 전후 경력단절 경험률을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별로 살펴보면, 직종과 종사상지위 그리고 직장 유형에 따라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응답 기혼여성 중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비율이 관리직·전문직에서 14.9%로 가장 낮았고, 서비스직에서 32.5%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을 했던 비율이 판매직 18.0%, 서비스직 17.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관리직·전문직 9.8%, 사무직 4.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비율이 비임금근로자는 13.6% 그리고 상용근로자는 16.2%이었는데, 임시일용근로자는 55.6%에 달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속 일을 했던 것(25.8%)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한편, 임시·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을 했던 비율이 5.8%와 4.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아 출산 당시 직장의 유형별로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일반회사 등 민간부문 24.5%, 정부투자·출연기관 8.5%, 공무원·국공립교사 3.6% 등

의 순으로 높았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속 일을 했던 비율도 일반회사 등 민간부문에서 10.7%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부투자·출연기관의 경우 2.1%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요컨대,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경우 둘째아 출산 전후로 경력단절 비율도 높고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 그만큼 불안정성을 보였다. 종사상지위 중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축소 등을 통한 탄력적 조정 보다는 경력단절로 직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민간부문에서 경력단절 비율도 높고 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취업상태 유지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둘째아 출산 전후 경력단절은 특히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 근로 여건에 따라서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 둘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경력단절 경험

(단위 : %, 명)

구 분	일 하였음			일하다 그만 둔 적 있음	계	(명)
	소개	근로시간을 줄였음	근로시간 줄이지 않음			
전체	79.7	10.0	69.7	20.3	100.0	(1,823)
당시 직종($\chi^2=100.9^{***}$)						
관리직·전문직	85.1	9.8	75.3	14.9	100.0	(697)
사무직	80.0	4.6	75.4	20.0	100.0	(650)
서비스직	67.5	17.5	50.0	32.5	100.0	(200)
판매직	74.1	18.0	56.1	25.9	100.0	(139)
기타	74.6	18.1	56.5	25.4	100.0	(138)
당시 종사상지위($\chi^2=322.2^{***}$)						
비임금근로자	86.4	25.8	60.6	13.6	100.0	(391)
상용근로자	83.8	5.8	78.0	16.2	100.0	(1,215)
임시일용근로자	44.4	4.6	39.8	55.6	100.0	(216)
당시 직장유형($\chi^2=90.9^{***}$)						
공무원·국공립교사	96.4	8.1	88.3	3.6	100.0	(334)
정부투자·출연기관	91.5	2.1	89.4	8.5	100.0	(47)
일반회사·기타	75.5	10.7	64.8	24.5	100.0	(1,44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둘째아 출산 당시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들은 이미 첫째아를 양육 중 인만큼 일을 그만 둔 주된 이유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가 89.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의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건강상 어려움이 각각 3.1%와 3.0%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둘째아 출산 당시 종사했던 직장이나 종사상 지위 및 직장 유형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일을 그만 둔 비율은 당시 직종 중 사무직이 4.6%, 판매직 2.8%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당시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4.1% 임시일용근로자가 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산 당시 직장 유형별로는 일반회사 등 민간부문에서 2.8%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9〉 둘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경력단절 이유

(단위 : %, 명)

구 분	그만둔 이유						계	명
	육아에 전념	건강 상 어려움	가사 때문에	남편, 시댁 반대	인사상 불이익	기타		
전체	89.7	3.0	1.1	0.7	3.1	2.4	100.0	(369)
당시 직종								
관리직·전문직	87.4	5.8	1.0	-	2.9	2.9	100.0	(103)
사무직	90.0	-	2.3	1.5	4.6	1.5	100.0	(130)
서비스직	92.3	4.6	-	-	1.5	1.5	100.0	(65)
판매직	91.7	-	-	-	2.8	5.6	100.0	(36)
기타	91.4	5.7	-	-	-	2.9	100.0	(35)
당시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90.6	5.7	-	-	-	3.8	100.0	(53)
상용근로자	87.8	2.5	2.0	1.0	4.1	2.5	100.0	(197)
임시일용근로자	92.5	3.3	-	-	2.5	1.7	100.0	(120)
당시 직장유형								
공무원·국공립교사	91.7	8.3	-	-	-	-	100.0	(12)
정부투자, 출연기관	75.0	-	-	-	25.0	-	100.0	(4)
일반회사기타	90.1	2.8	1.1	0.6	2.8	2.6	100.0	(353)

주: 1)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혼 전후 6개월 내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42.3%로 나타났다. 출산 당시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첫째아 출산의 경우 44.6%, 둘째아 출산의 경우 20.3%, 셋째아 출산의 경우 22.2%³⁾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대체적으로 결혼 및 첫째아 출산 시 40%대인 것에 비해,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 시에 20%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결혼 혹은 출산 당시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속 일을 하였다는 비율은 결혼 당시 1.3%, 첫째아 출산 당시 5.9%, 둘째아 출산 당시 10.0%, 셋째아 출산 당시 15.0%로 급격하게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아, 결혼이나 첫째아 출산이라는 이벤트(사상)는 여성 개인의 생활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인 또는 가족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 환경적으로 계속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후속적인 출산으로 둘째아 이상의 출산 시에는 이미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직장에서 기 출산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거나,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취업을 새로이 하는 경우에도 출산 및 양육에 지장이 없는 직장 또는 형태로 일을 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경력단절 발생률이 적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후속적인 출산 당시에 시간제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을 계속 함으로써 경력단절 비율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표 8-10〉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및 출산 전후 6개월간 취업 상태

(단위 : %, 명)

구 분	소 계	일 하였음		일하다 그만 둔 적 있음	계	(명)
		근로시간을 줄였음	근로시간 줄이지 않음			
결혼 전후 6개월 내	57.7	1.3	56.5	42.3	100.0	(8,479)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내	55.4	5.9	49.5	44.6	100.0	(4,119)
둘째아 출산 전후 6개월 내	79.7	10.0	69.7	20.3	100.0	(1,823)
셋째아 출산 전후 6개월 내	77.8	15.0	62.7	22.2	100.0	(342)

3) 사례수가 적어 출산 당시 경제활동특성별 실태는 본 보고서에서 생략하였다.

2. 출산전후휴가 사용 실태

막내자녀 출산 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19세)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47.3%로 나타났다. 이를 막내자녀의 출생코호트별로 보면, 최근 코호트일수록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산전후휴가 이용 경험비율은 막내가 2001년 이전 코호트인 경우 32.9%, 2001~2005년 코호트 44.3%, 2006~2010년 코호트 46.3%, 2010년 이후 코호트 62.2%로 각각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출산 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데, 이들 중 일부 여성은 출산전후휴가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경력단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하는 도중 혹은 이용 후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막내 출산전후로 경력단절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비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력단절이 없었던 경우 막내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비율은 84.8%로 높았으나, 경력단절이 있었던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비율은 7.7%에 불과하였다. 경력단절이 없었던 여성 집단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비율은 막내의 출생코호트가 최근일수록 아주 높게 나타났다. 즉, 2001년 이전 코호트 73.9%, 2001~2005년 코호트 77.9%, 2006~2010년 코호트 85.2%, 2010년 이후 코호트 94.2%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직장 환경 개선 등으로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용이해졌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서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경력단절이 있었던 경우 막내의 출생코호트 간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비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뚜렷한 패턴을 보여주지 못했다.

〈표 8-11〉 막내 출산전후 6개월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막내 출생코호트별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

(단위 : %, 명)

구 분	전체 여성			비경단여성			경단여성		
	사용	미사용	전체 (명)	사용	미사용	전체 (명)	사용	미사용	전체 (명)
전체	47.3	52.7	100.0 (3,624)	84.8	15.2	100.0 (1,859)	7.7	92.3	100.0 (1,765)
막내 출생코호트	$(x^2=177.0^{***})$			$(x^2=94.8^{***})$			$(x^2=7.4)$		
2000년까지	32.9	67.1	100.0 (927)	73.9	26.1	100.0 (371)	5.6	94.4	100.0 (556)
2001~2005년	44.3	55.7	100.0 (697)	77.9	22.1	100.0 (357)	9.1	90.9	100.0 (340)
2006~2010년	46.3	53.7	100.0 (908)	85.2	14.8	100.0 (454)	7.3	92.7	100.0 (455)
2010년 이후	62.2	37.8	100.0 (1,092)	94.2	5.8	100.0 (677)	9.9	90.1	100.0 (414)

* p<0.05, ** p<0.01, *** p<0.001

주: 1) 당시 종사상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제외하고 분석

2) 여기에서의 막내 자녀는 기혼여성의 출생 자녀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막내 중 2011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출생아에 한정하여, 출산 당시 경제활동특성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직종별로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 비율은 관리직·전문직이 68.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력이 단절되지 않았던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비율은 대부분 90% 이상으로 직종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경력단절을 겪었던 여성들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은 사무직종에서 14.4%로 다소 높게 나타나나 대체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당시의 종사상지위별로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비율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70.3%)와 임시·일용근로자(18.2%) 간 차이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이 없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이용 경험비율은 상용근로자가 96.5%로 임시·일용근로자의 63.0%에 비해 높았으며, 경력단절이 있었던 경우에도 13.7%와 1.6%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당시의 직장유형별로 보면,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비율은 공무원·국공립교사 92.2%, 정부투자·출연기관 87.1%, 일반회사 등 민간부문 56.2%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이 없었던 경우에는 모든 직장유형에

서 90%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경력단절이 있었던 경우에 민간 부문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비율은 9.3%에 불과하였다.

〈표 8-12〉 막내 출산전후 6개월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당시 경제활동특성별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2011.1.1.일 이후 출생아 대상)

(단위 : %, 명)

구 분	전체 여성				비경단여성				경단여성			
	사용	미사용	전체	(명)	사용	미사용	전체	(명)	사용	미사용	전체	(명)
전체	62.2	37.8	100.0	(1,092)	94.2	5.8	100.0	(677)	9.9	90.1	100.0	(414)
당시 직종	$(x^2=55.2^{***})$											
관리직·전문직	68.8	31.2	100.0	(397)	93.0	7.0	100.0	(285)	7.1	92.9	100.0	(112)
사무직	66.1	33.9	100.0	(495)	95.8	4.2	100.0	(313)	14.4	85.6	100.0	(181)
서비스직	38.2	61.8	100.0	(102)	94.7	5.3	100.0	(38)	4.6	95.4	100.0	(65)
판매직	34.1	65.9	100.0	(44)	93.8	6.3	100.0	(16)	-	100.0	100.0	(28)
기타	47.2	52.8	100.0	(53)	88.0	12.0	100.0	(25)	10.3	89.7	100.0	(29)
당시 종사상지위 ¹⁾	$(x^2=165.3^{***})$											
상용근로자	70.3	29.7	100.0	(922)	96.5	3.5	100.0	(631)	13.7	86.3	100.0	(291)
임시일용근로자	18.2	81.8	100.0	(170)	63.0	37.0	100.0	(46)	1.6	98.4	100.0	(124)
당시 직장유형	$(x^2=80.9^{***})$											
공무원·국공립교사	92.2	7.8	100.0	(154)	97.9	2.1	100.0	(141)	30.8	69.2	100.0	(13)
정부투자·출연기관	87.1	12.9	100.0	(31)	100.0	-	100.0	(27)	-	100.0	100.0	(4)
일반회사기타	56.2	43.8	100.0	(907)	92.9	7.1	100.0	(509)	9.3	90.7	100.0	(397)

* p<0.05, ** p<0.01, *** p<0.001

주: 1) 당시 종사상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제외하고 분석

2)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력단절이 없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경험 비율은 최근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출산전후휴가 경험 비율은 대부분 직종과 직장유형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상용직의 경우 아주 높은 사용경험비율을 보인 것과 달리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반면, 출산 전후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집단의 대부분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직종 간, 종사상지위 간 및 직장유형 간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출산전후휴가 이용이 보편화되어 가고는 있으나, 이는 여전히 공무원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이 안정된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육아휴직 사용 실태

막내 출산 전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의 21.1%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력단절을 겪지 않았던 여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비율은 40.2%로 비교적 높으나, 경력단절을 겪은 경우에는 1.1%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막내의 출생코호트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사용 경험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코호트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1년 이전 코호트 5.3%, 2001~2005년 코호트 10.9%, 2006~2010년 코호트 22.6%, 2010년 이후 코호트 39.9%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경력단절 경험 여부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경력단절이 없었던 여성집단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비율이 막내가 2001년 이전 코호트인 경우 13.2%로 아주 낮으나, 가장 최근 코호트인 2010년 이후 코호트의 경우에는 63.0%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단절을 겪었던 여성집단의 경우 최근 코호트일수록 육아휴직 사용 경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가장 최근 코호트인 2010년 이후 코호트의 경우에도 2.2%에 불과하였다.

〈표 8-13〉 막내 출산전후 6개월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막내 출생코호트 별 육아휴직 사용 경험

(단위 : %, 명)

구 분	전체 여성				비경력여성				경력여성			
	사용	미사용	전체	(명)	사용	미사용	전체	(명)	사용	미사용	전체	(명)
전체	21.1	78.9	100.0	(3,624)	40.2	59.8	100.0	(1,858)	1.1	98.9	100.0	(1,765)
막내 출생코호트	$(x^2=415.9^{***})$				$(x^2=317.3^{***})$							
2000년까지	5.3	94.7	100.0	(927)	13.2	86.8	100.0	(371)	-	100.0	100.0	(556)
2001~2005년	10.9	89.1	100.0	(697)	20.7	79.3	100.0	(357)	0.6	99.4	100.0	(340)
2006~2010년	22.6	77.4	100.0	(908)	43.5	56.5	100.0	(453)	1.8	98.2	100.0	(455)
2010년 이후	39.9	60.1	100.0	(1,092)	63.0	37.0	100.0	(676)	2.2	97.8	100.0	(414)

* p<0.05, ** p<0.01, *** p<0.001

주: 1) 당시 종사상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제외하고 분석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막내 중 2011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출생아에 한정하여, 출산 당시 경제활동상태 특성별로 육아휴직 사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직종별로 육아휴직 사용 경험비율은 관리직·전문직(44.7%), 사무직(41.5%), 판매직(27.3%), 서비스직(22.3%) 등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집단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비율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 5% 미만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집단의 사용 경험비율은 사례수가 충분한 관리직·전문직과 사무직의 경우 61.8%와 63.6%로 전체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산 당시 종사상지위별로 육아휴직 사용 경험비율을 보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46.4%로 임시·일용근로자의 4.7%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경력을 계속 유지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경력단절이 없었던 여성집단 중 상용직은 66.4%인데 비해 임시·일용직은 17.4%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을 겪은 경우에는 상용직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경험비율이 3.1%에 불과하였으며,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당시 직장유형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경험비율은 공무원·국공립교사의 경우 77.3%, 정부투자·출연기관의 경우 58.1%, 일반회사 등 민간부문 3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력단절을 겪었던 여성집단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은 사례수가 충분한 민간부문의 경우 1.5%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들 경력단절 여성을 제외하면, 육아휴직 사용 경험비율은 공무원·국공립교사 81.6%, 일반회사 등 민간부문 57.6%로 전체 수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8-14〉 막내 출산전후 6개월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당시 경제활동특
성별 육아휴직 사용 경험(2011.1.1.일 이후 출생한 막내 대상)

(단위 : %, 명)

구 분	전체 여성				비경단여성				경단여성			
	사용	미사용	전체	(명)	사용	미사용	전체	(명)	사용	미사용	전체	(명)
전체	39.9	60.1	100.0	(1,092)	63.0	37.0	100.0	(676)	2.2	97.8	100.0	(414)
당시 직종	$(\chi^2=21.3^{***})$				$(\chi^2=1.4)$							
관리직·전문직	44.7	55.3	100.0	(398)	61.8	38.2	100.0	(285)	1.8	98.2	100.0	(112)
사무직	41.5	58.5	100.0	(494)	63.6	36.4	100.0	(313)	3.3	96.7	100.0	(181)
서비스직	22.3	77.7	100.0	(103)	60.5	39.5	100.0	(38)	-	100.0	100.0	(65)
판매직	27.3	72.7	100.0	(44)	70.6	29.4	100.0	(17)	-	100.0	100.0	(28)
기타	34.0	66.0	100.0	(53)	70.8	29.2	100.0	(24)	3.6	96.4	100.0	(28)
당시 종사상지위 ¹⁾	$(\chi^2=104.1^{***})$				$(\chi^2=44.2^{***})$							
상용근로자	46.4	53.6	100.0	(922)	66.4	33.6	100.0	(631)	3.1	96.9	100.0	(291)
임시일용근로자	4.7	95.3	100.0	(170)	17.4	82.6	100.0	(46)	-	100.0	100.0	(124)
당시 직장유형	$(\chi^2=111.5^{***})$				$(\chi^2=27.4^{**})$							
공무원·국공립교사	77.3	22.7	100.0	(154)	81.6	18.4	100.0	(141)	25.0	75.0	100.0	(12)
정부투자·출연기관	58.1	41.9	100.0	(31)	66.7	33.3	100.0	(27)	-	100.0	100.0	(5)
일반회사기타	33.1	66.9	100.0	(907)	57.6	42.4	100.0	(509)	1.5	98.5	100.0	(397)

* p<0.05, ** p<0.01, *** p<0.001

주: 1) 당시 종사상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제외하고 분석

2)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육아휴직 사용 경험비율은 출산전후휴가 사용 경험비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에 올수록 육아휴직 사용 경험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도 개선, 직장 분위기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크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경험비율은 관리직·전문직과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직이나 판매직에서,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에서, 그리고 공무원·국공립교사에 비해 일반회사 등 민간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정도와 더불어 고용안정성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집단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경험비율이 아주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출산 시 육아휴직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되거나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워 일-가정양립 문제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제2절 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 관련 태도

1. 현재 일을 하는 이유

취업 중인 기혼여성(15~49세)이 일을 하는 주된 이유는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 부족(32.7%), 자녀양육·교육비 부담(22.3%), 자아실현(19.1%), 본인 외 소득 없음(9.2%), 노후대책(7.0%), 본인의 경제적 독립(4.9%),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해서(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를 거주지별로 보면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다만 도시지역에서는 자아실현이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노후대책이나 남편의 수입으로는 부족하여 일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도시와 농촌 거주 여성의 학력수준, 직종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취업여성의 연령별로 일하는 이유도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저연령층일수록 자아실현을 위해 그리고 고연령층일수록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때문에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3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 부족 이유 다음으로 자아실현 이유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이 연동되어 있어, 고연령층일수록 실질적으로 자녀가 성장과 함께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여성의 교육수준별 일하는 이유는 학력층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일하는 이유로서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 부족과 본인 외 소득 없음은 저학력층일수록 그리고 자아실현과 본인의 경제적 독립 등은 고학력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졸 이하 학력층의 경우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 부족 다음으로 본인 외 소득 없음의 이유를 고졸 학력계층에서는

자녀양육·교육비 부담을 대학원 졸업의 고학력층에서는 자아실현과 본인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실현과 본인의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일반적인 이론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부분적으로라도 학력과 직종이나 가구소득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취업 기혼여성 중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비 부족과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으로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현존자녀수가 적을수록 자아실현과 본인의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에서 저소득층일수록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비 부족과 본인 외 소득이 없음으로 인하여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자아실현과 노후대책을 이유로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15〉 취업 기혼여성(15~49세)이 현재 일을 하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 분	본인 외 소득 없음	남편 수입으로 는 부족	자녀 양육·교육 비 부담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	자아 실현	본인의 경제적 독립	노후 대책	기타	계	(명)
전체	9.2	32.7	22.3	3.8	19.1	4.9	7.0	1.1	100.0	(6,219)
거주지($\chi^2=45.7^{***}$)										
대도시	10.4	32.1	21.1	3.4	20.5	5.1	6.7	0.7	100.0	(2,670)
중소도시	8.3	31.9	23.2	3.9	18.9	5.3	6.9	1.6	100.0	(2,640)
농촌	8.0	36.6	23.5	4.3	15.4	3.3	8.1	0.8	100.0	(910)
연령($\chi^2=234.1^{***}$)										
30세 미만 ¹⁾	1.9	34.8	18.1	7.1	27.1	4.3	5.2	1.4	100.0	(210)
30~34세	4.5	35.5	19.1	2.6	26.8	5.4	5.5	0.6	100.0	(802)
35~39세	5.5	33.5	25.0	2.9	22.7	4.8	4.8	0.8	100.0	(1,259)
40~44세	9.5	32.3	24.9	4.1	17.0	4.8	6.4	1.0	100.0	(1,801)
45~49세	13.5	31.2	20.2	4.1	15.0	4.9	9.6	1.4	100.0	(2,148)

〈표 8-15〉 계속

(단위: %, 명)

구 분	본인 외 소득 없음	남편 수입으로 는 부족	자녀 양육·교육 비 부담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	자아 실현	본인의 경제적 독립	노후 대책	기타	계	(명)
교육수준($\chi^2=868.2^{***}$)										
중졸이하	28.9	40.1	15.9	3.0	1.7	1.7	8.6	-	100.0	(232)
고졸	13.3	38.0	24.7	3.3	9.0	3.5	7.2	1.1	100.0	(2,571)
대졸	5.0	29.6	22.3	4.5	24.6	5.9	7.0	1.2	100.0	(3,089)
대학원졸	2.1	14.9	9.5	1.2	58.8	8.2	4.9	0.3	100.0	(328)
현존 자녀수($\chi^2=454.8^{**}$)										
0명	4.7	26.8	0.9	8.2	37.1	12.4	9.2	0.6	100.0	(466)
1명	12.7	30.2	16.1	2.8	22.5	5.5	9.0	1.2	100.0	(1,366)
2명	8.3	33.4	25.5	3.9	16.8	4.1	6.9	1.0	100.0	(3,633)
3명 이상	9.8	36.9	31.7	2.1	12.6	2.9	2.8	1.2	100.0	(756)
가구소득 ²⁾ ($\chi^2=3151.7^{***}$)										
60%미만	59.3	23.5	8.9	1.4	1.4	2.0	3.1	0.3	100.0	(639)
60~80%미만	17.1	48.2	19.4	2.9	5.3	3.4	2.7	1.0	100.0	(624)
80~100%미만	4.0	49.8	25.7	3.3	9.0	2.8	4.8	0.6	100.0	(1,074)
100~120%미만	1.0	38.4	26.5	4.2	17.5	4.6	6.4	1.3	100.0	(1,194)
120~140%미만	1.7	32.0	25.2	3.3	21.6	5.8	9.5	1.0	100.0	(707)
140~160%미만	1.4	23.9	25.8	3.3	27.6	7.5	9.3	1.1	100.0	(706)
160%이상	0.7	15.0	20.3	5.9	38.3	7.2	10.9	1.7	100.0	(1,274)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1명, 20~24세 13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시간제 근로 여부와 이유

취업 기혼여성(15~49세) 중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21.1%로 나타났다. 취업 기혼여성의 연령별 시간제 근로 비율은 45~49세를 제외 하면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층일수록 자녀의 나이도 많아져 그리고 자녀양육비 부담이 증가하여 그만큼 (재)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나 자녀 양육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혹은 전일제 일을 찾기 어려워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한편, 45~49세 고연령층의 경우 자녀의 상급학교(고등학교) 진학으로 인

하여 오히려 시간제 근로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진입 정도가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취업 기혼여성의 시간제 근로비율을 현존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다자녀 기혼여성들이 자녀양육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나 자녀양육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그만큼 시간제 근로형태를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구소득수준별로 시간제 근로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일수록 자녀양육비 부담과 자녀양육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이 보다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표 8-16〉 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시간제 근로 여부

(단위: %, 명)

구 분	전일제	시간제	계	(명)
전체	78.8	21.2	100.0	(6,219)
거주지($\chi^2=0.8$)				
대도시	79.0	21.0	100.0	(2,671)
중소도시	78.4	21.6	100.0	(2,639)
농촌	79.7	20.3	100.0	(910)
연령($\chi^2=18.6^{**}$)				
30세 미만	83.7	16.3	100.0	(209)
30~34세	80.5	19.5	100.0	(801)
35~39세	77.1	22.9	100.0	(1,260)
40~44세	76.4	23.6	100.0	(1,800)
45~49세	80.9	19.1	100.0	(2,149)
현존자녀수($\chi^2=22.7^{***}$)				
0명	86.0	14.0	100.0	(465)
1명	79.8	20.2	100.0	(1,367)
2명	78.4	21.6	100.0	(3,631)
3명 이상	74.9	25.1	100.0	(756)

〈표 8-16〉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일제	시간제	계	(명)
가구소득 ¹⁾ ($\chi^2=106.3^{***}$)				
60%미만	72.9	27.1	100.0	(638)
60~80%미만	70.0	30.0	100.0	(624)
80~100%미만	73.2	26.8	100.0	(1,074)
100~120%미만	80.8	19.2	100.0	(1,196)
120~140%미만	84.0	16.0	100.0	(706)
140~160%미만	82.3	17.7	100.0	(706)
160%이상	84.5	15.5	100.0	(1,274)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시간제 근로로 일하고 있는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57.4%가 육아 또는 자녀교육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 14.1%,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14.0%로 나타났다.

고연령층일수록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서 시간제 근로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층이 저연령층에 비해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 더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육아 및 자녀 교육 때문에 시간제 근로를 한다는 이유는 저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저연령층의 경우 자녀 연령이 더 어리기 때문에 돌봄 시간이 더 필요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존 자녀수가 적을수록 여가를 즐기기 위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였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간 소득계층의 경우 자녀의 육아 또는 교육을 위해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였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17〉 시간제 취업 기혼여성(15~49세)이 시간제 근로를 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집안일이 많아서	육아/자녀 교육	건강상	여가 즐기기 위해	전일제 직장 구직 힘들	기타	계	(명)
전체	6.6	57.4	5.1	14.0	14.1	2.8	100.0	(1,306)
거주지($\chi^2=14.0$)								
대도시	7.2	58.1	5.0	11.3	14.9	3.6	100.0	(558)
중소도시	6.5	55.3	5.7	17.3	13.1	2.1	100.0	(566)
농촌	5.5	62.1	3.8	11.5	14.8	2.2	100.0	(182)
연령								
15~29세 ¹⁾	5.7	60.0	-	20.0	11.4	2.9	100.0	(35)
30~34세	1.3	78.7	0.6	11.0	5.8	2.6	100.0	(155)
35~39세	1.8	82.0	-	6.3	6.3	3.5	100.0	(284)
40~44세	6.8	64.8	6.1	8.9	12.0	1.4	100.0	(426)
45~49세	11.9	24.2	9.6	25.4	25.2	3.7	100.0	(405)
교육수준								
중졸이하	3.1	32.8	12.5	17.2	31.3	3.1	100.0	(64)
고졸	9.9	49.7	9.5	11.3	17.3	2.3	100.0	(485)
대졸	5.2	64.0	1.8	16.1	10.2	2.8	100.0	(677)
대학원졸	1.3	69.6	-	8.9	15.2	5.1	100.0	(79)
현존 자녀수($\chi^2=188.5^{***}$)								
0명	4.6	-	10.8	50.8	18.5	15.4	100.0	(65)
1명	1.8	69.5	4.0	10.2	13.1	1.5	100.0	(275)
2명	7.6	55.4	5.7	14.0	14.7	2.7	100.0	(778)
3명 이상	10.6	67.7	2.6	6.9	11.6	0.5	100.0	(189)
가구소득 ²⁾ ($\chi^2=182.4^{***}$)								
60%미만	6.4	38.7	16.2	8.7	27.2	2.9	100.0	(173)
60~80%미만	1.6	68.3	6.5	5.4	16.7	1.6	100.0	(186)
80~100%미만	6.9	63.5	3.5	6.6	13.9	5.6	100.0	(288)
100~120%미만	9.8	60.3	2.7	17.0	8.0	2.2	100.0	(224)
120~140%미만	10.6	55.8	0.9	19.5	10.6	2.7	100.0	(113)
140~160%미만	5.6	51.6	4.0	20.6	16.7	1.6	100.0	(126)
160%이상	5.6	56.1	2.6	26.0	8.7	1.0	100.0	(196)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0명, 20~24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일-가정양립의 곤란 정도

취업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정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53.8%(매우 어려움 10.2%, 대체로 어려움 43.6%)가 일-가정양립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은 30대에서 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일-가정양립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27.3%이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64.1%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일-가정양립에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소득계층은 중간 계층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80~100% 소득계층과 100~120% 소득계층에서 일-가정양립이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55%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중간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어린 자녀를 두고 전일제로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8-18〉 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없음	전혀 어려움 없음	계	(명)
전체	10.2	43.6	41.2	5.0	100.0	(6,219)
연령($\chi^2=309.9^{***}$)						
30세 미만 ¹⁾	12.9	47.6	31.9	7.6	100.0	(210)
30~34세	16.5	48.8	30.7	4.0	100.0	(801)
35~39세	14.5	52.0	30.6	2.9	100.0	(1,259)
40~44세	9.4	44.8	41.2	4.6	100.0	(1,800)
45~49세	5.8	35.3	52.1	6.7	100.0	(2,149)
현존 자녀수($\chi^2=255.9^{***}$)						
0명	3.9	23.4	57.2	15.5	100.0	(465)
1명	11.3	43.9	40.5	4.3	100.0	(1,367)
2명	9.3	45.2	41.0	4.5	100.0	(3,631)
3명 이상	16.5	47.6	33.5	2.4	100.0	(756)
가구소득 ²⁾ ($\chi^2=56.3^{***}$)						
60%미만	14.6	40.7	38.9	5.8	100.0	(637)
60~80%미만	11.2	43.0	40.6	5.1	100.0	(623)
80~100%미만	9.9	48.6	36.9	4.7	100.0	(1,074)
100~120%미만	9.3	47.5	38.4	4.8	100.0	(1,198)
120~140%미만	9.2	43.3	42.8	4.7	100.0	(703)
140~160%미만	10.5	41.6	42.3	5.7	100.0	(707)
160%이상	9.2	38.8	47.1	4.9	100.0	(1,273)

* p<0.05, ** p<0.01, *** p<0.001

주: 1) 30세 미만에는 15~19세 1명, 20~24세 13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 어려움은 사무직인 경우 58.0%, 관리직 및 전문직인 경우 54.3%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직종의 경우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사상지위별로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 유형에 따른 일-가정양립 어려움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크지 않으나, 매우 어렵다는 응답 비율은 정부투자·출연기관, 민간기업, 국가기관·지자체(공무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취업 기혼여성들이 시간제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19〉 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없음	전혀 어려움 없음	계	(명)
전체	10.2	43.6	41.2	5.0	100.0	(6,219)
직종($\chi^2=37.5^*$)						
관리직·전문직·군인	10.5	43.8	40.6	5.0	100.0	(1,852)
사무직	10.7	47.3	37.4	4.5	100.0	(1,490)
서비스직	9.0	42.9	43.0	5.1	100.0	(1,133)
판매직	11.5	42.8	41.4	4.3	100.0	(788)
농림어업	11.3	41.5	41.5	5.7	100.0	(53)
기능원	13.0	40.2	43.2	3.6	100.0	(169)
장치기계직	9.6	37.5	46.2	6.7	100.0	(104)
단순노무직	7.9	38.5	46.6	7.0	100.0	(629)
종사상지위($\chi^2=60.1^{***}$)						
비임금근로자	8.8	41.4	44.4	5.3	100.0	(1,44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0.7	38.0	45.4	5.9	100.0	(20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8	42.3	44.1	5.8	100.0	(755)
무급가족종사자	9.5	41.5	44.4	4.5	100.0	(484)
임금근로자	10.7	44.2	40.2	4.9	100.0	(4,776)
상용근로자	11.6	46.7	38.0	3.7	100.0	(2,872)
임시근로자	9.0	40.7	43.5	6.9	100.0	(1,485)
일용근로자	10.5	40.2	43.1	6.2	100.0	(420)

〈표 8-19〉 계속

(단위: %, 명)

구 분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없음	전혀 어려움 없음	계	(명)
전일제 여부($\chi^2=81.2^{***}$)						
전일제	10.9	45.8	38.8	4.5	100.0	(4,905)
시간제	7.8	35.3	49.8	7.1	100.0	(1,316)
직장유형($\chi^2=5.2$)						
국가, 지자체공무원	9.9	45.8	40.5	3.8	100.0	(629)
정부투자·출연기관	13.8	41.5	40.8	3.8	100.0	(130)
민간회사, 개인사업체, 기타	10.2	43.4	41.2	5.2	100.0	(5,46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일-가정양립이 어렵다고 응답한 취업 기혼여성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녀양육 부담(46.6%), 가사 부담(34.5%),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11.6%), 직장 일 전념 곤란(3.3%), 부부간 공유시간 부족(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기혼여성들이 고연령층일수록 가사부담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의 성장 단계와 관련이 있다.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이유로 무자녀인 경우 가사 부담, 부부만의 시간 부족, 직장일 전념 곤란 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자녀양육 부담 및 자녀와의 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전국 월 평균가구소득의 60%미만의 계층에서 자녀와의 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리고 160%이상의 계층에서 직장일 전념 곤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기혼여성의 직종에 따라서는 관리직·전문직과 사무직의 경우 자녀양육 부담 이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가사부담 이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사상지위에 따라서는 비임금근로자에게서 가사부담과 자녀와의 시간 부족 이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유형에 따라서는 민간회사 및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자

녀와의 시간 부족을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20〉 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특성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구 분	자녀양육 부담	가사 부담	부부 간 시간 부족	자녀와의 시간 부족	직장 일 전념 곤란	기타 ¹⁾	계	(명)
전체	46.6	34.5	2.3	11.6	3.3	1.7	100.0	(3,348)
연령($\chi^2=566.6^{***}$)								
30세 미만 ²⁾	53.2	27.0	4.8	7.9	6.3	0.8	100.0	(126)
30~34세	67.9	17.6	3.4	6.7	3.4	1.0	100.0	(524)
35~39세	63.2	18.3	1.7	12.3	3.5	1.1	100.0	(838)
40~44세	45.0	37.1	1.1	12.8	3.1	0.9	100.0	(978)
45~49세	18.9	57.9	3.3	13.0	3.2	3.7	100.0	(884)
현존 자녀수($\chi^2=308.7^{***}$)								
0명	-	68.5	15.7	0.8	10.2	4.7	100.0	(127)
1명	58.0	22.0	2.0	13.0	3.2	1.9	100.0	(754)
2명	45.0	37.4	1.6	11.8	2.9	1.4	100.0	(1,982)
3명 이상	47.8	32.8	2.5	11.5	3.7	1.6	100.0	(485)
가구소득 ³⁾ ($\chi^2=61.2^{**}$)								
60%미만	44.2	32.9	0.8	15.6	3.7	2.8	100.0	(353)
60~80%미만	47.9	29.6	3.6	13.0	3.3	2.7	100.0	(338)
80~100%미만	45.9	36.7	2.2	10.3	3.7	1.1	100.0	(629)
100~120%미만	41.8	41.4	2.1	10.9	2.2	1.6	100.0	(679)
120~140%미만	47.4	34.0	3.2	11.9	1.3	2.2	100.0	(371)
140~160%미만	51.9	31.5	2.2	9.8	3.8	0.8	100.0	(368)
160%이상	49.5	30.1	2.6	11.4	5.1	1.3	100.0	(612)
직종($\chi^2=148.1^{***}$)								
관리직·전문직·군인	53.2	29.2	2.0	10.7	3.6	1.3	100.0	(1,009)
사무직	52.7	27.5	2.2	11.8	4.6	1.2	100.0	(865)
서비스직	40.4	36.3	2.4	15.2	2.4	3.4	100.0	(587)
판매직	42.2	43.3	1.6	9.6	2.3	0.9	100.0	(427)
농업	29.6	48.1	7.4	14.8	-	-	100.0	(27)
기능원·장치기계	39.9	39.9	5.1	10.1	2.9	2.2	100.0	(138)
단순노무	29.8	52.7	2.7	10.3	2.4	2.1	100.0	(292)
종사상지위($\chi^2=27.8^{***}$)								
비임금근로자	40.8	38.5	2.8	14.9	1.9	1.1	100.0	(725)
임금근로자	48.2	33.3	2.2	10.7	3.7	1.8	100.0	(2,622)

〈표 8-20〉 계속

(단위: %, 명)

구 분	자녀양육 부담	가사 부담	부부 간 시간 부족	자녀와의 시간 부족	직장 일 전념 곤란	기타 ¹⁾	계	(명)
직장유형($\chi^2=36.6^{***}$)								
국가, 지자체공무원	55.4	29.1	1.7	7.1	5.4	1.1	100.0	(350)
정부투자·출연기관	66.2	22.5	2.8	7.0	-	1.4	100.0	(71)
민간회사·개인사업체·기타	45.0	35.4	2.4	12.3	3.2	1.7	100.0	(2,926)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부모부양 부담', '성 차별적인 근로조건',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관행, 제도' 등이 포함됨.

2) 30세 미만에는 15~19세 1명, 20~24세 4명이 포함되어 있음.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일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기간

취업 중인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일을 지속할 생각인지 질문한 결과, 자녀의 성장 단계에 무관하게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74.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의 응답 내용으로 자녀의 결혼 때까지 6.6%, 대학교 졸업까지 6.1%, 자녀 취업 때까지 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기혼여성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유사하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무관하게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저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을 그만둘 주된 시기로는 저연령층일수록 자녀 임신과 자녀 출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연령층일수록 자녀 대학교 졸업, 자녀 취업, 자녀 결혼 등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는 중졸 이하 저학력 집단에서 자녀의 성장 단계와 무관하게 일을 지속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계층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으로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제시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층에서도 자녀의 성장 단계와 무관하게 일을 지속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들 고학력층의 경우 자아실현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다가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해석된다.

현존 자녀수에 따라서는 무자녀인 경우 임신이나 출산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때까지, 자녀 결혼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뚜렷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 8-21〉 취업 기혼여성(15~49세)이 일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기간

(단위: %, 명)

구 분	출산양육과 관계없이	~임신	~출산	~초등 학교	~대학교 진학	~대학교 졸업	~자녀 취업	~자녀 결혼	기타 ¹⁾	계	(명)
전체	74.0	1.1	1.1	1.8	2.8	6.1	3.6	6.6	3.0	100.0	(6,216)
거주지($\chi^2=13.4$)											
대도시	73.5	1.0	0.9	1.7	3.0	6.4	4.1	6.2	3.1	100.0	(2,668)
중소도시	75.2	1.1	1.3	1.6	2.5	5.8	3.1	6.4	3.0	100.0	(2,639)
농촌	71.9	1.2	1.1	2.2	3.1	6.2	3.4	8.0	3.0	100.0	(910)
연령 ²⁾ ($\chi^2=561.5^{***}$)											
30세 미만	67.9	6.7	7.7	1.9	2.9	2.4	1.9	4.3	4.3	100.0	(209)
30~34세	69.7	3.4	5.4	4.7	2.0	4.2	2.6	5.4	2.6	100.0	(801)
35~39세	71.3	1.7	0.6	3.1	3.3	6.7	3.0	6.4	4.1	100.0	(1,257)
40~44세	73.6	0.3	0.2	0.8	4.1	7.6	3.8	5.8	3.8	100.0	(1,800)
45~49세	78.2	-	-	0.6	1.6	5.5	4.2	8.0	1.8	100.0	(2,147)
교육수준($\chi^2=151.8^{***}$)											
중졸이하	85.8	1.3	-	-	1.3	5.2	1.7	4.7	-	100.0	(232)
고졸	73.9	0.8	0.5	0.8	2.7	6.2	4.4	8.6	2.1	100.0	(2,569)
대졸	72.5	1.4	1.6	2.8	3.0	6.7	3.1	4.9	4.0	100.0	(3,089)
대학원졸	80.5	0.6	1.5	0.9	1.8	1.2	2.7	7.9	2.7	100.0	(328)
현존 자녀수($\chi^2=1005.9^{***}$)											
0명	72.2	11.0	10.6	0.2	1.1	0.9	-	2.6	1.5	100.0	(464)
1명	75.5	1.1	1.2	3.0	2.9	3.9	2.8	5.7	3.8	100.0	(1,365)
2명	73.9	0.1	0.1	1.6	2.9	7.0	4.4	7.3	2.9	100.0	(3,629)
3명 이상	73.0	-	-	1.2	3.0	9.1	3.4	7.3	2.9	100.0	(756)

〈표 8-21〉 계속

(단위: %, 명)

구 분	출산양육과 관계없이	~임신	~출산	~초등 학교	~대학교 진학	~대학교 졸업	~자녀 취업	~자녀 결혼	기타 ¹⁾	계	(명)
가구소득 ³⁾ ($\chi^2=119.7^{**}$)											
60%미만	79.9	0.6	0.3	0.3	2.4	5.2	2.7	7.2	1.4	100.0	(637)
60~80%미만	73.6	1.8	1.1	1.3	2.7	6.1	4.0	6.9	2.6	100.0	(623)
80~100%미만	69.8	1.8	1.3	2.0	3.0	7.5	5.6	5.4	3.5	100.0	(1,074)
100~120%미만	73.4	0.8	1.9	1.9	2.7	7.5	3.1	6.4	2.3	100.0	(1,195)
120~140%미만	69.4	1.7	1.8	2.1	4.7	5.7	4.0	7.5	3.1	100.0	(706)
140~160%미만	76.2	0.7	0.7	2.1	2.4	5.8	2.8	5.8	3.4	100.0	(706)
160%이상	76.7	0.6	0.4	1.8	2.0	4.6	2.9	7.2	3.9	100.0	(1,272)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어린이집 갈 때까지, 유치원 갈 때까지,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까지,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까지, 대학원에 진학할때까지, 대학원을 졸업할때까지, 기타 등이 해당됨.

2) 30세 미만에는 15~19세 1명, 20~24세 14명이 포함되어 있음.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3절 비취업 기혼여성의 취업 의향

1.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비취업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육아를 위해(57.1%), 적당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11.2%), 가사일 때문(10.4%), 건강상 어려움(7.4%), 일하고 싶지 않아서(4.7%), 가족 반대(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사와 육아 때문에 현재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이 67.5%로 높게 나타났다.

비취업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고연령층일수록 가사부담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반면, 저연령층일수록 육아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저연령층의 경우 어린 자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고연령층의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사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취업 여성의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일수록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현재 일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존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일 경우 육아 부담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첫째 자녀를 양육할 때 주관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소득수준별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자녀육아 부담 때문에 그리고 고소득층일수록 가사부담 때문, 가족반대, 일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22〉 비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가사	육아	가족 반대	건강상 어려움	가족 돌봄	적당한 일자리 없음	근처에 일자리 없음	일할 필요가 없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다니던 직장 휴/폐업 등	기타	계	(명)
전체	10.4	57.1	2.3	7.4	1.2	11.2	1.2	1.3	4.7	1.1	2.0	100.0	(4,790)
거주지($\chi^2=31.8^*$)													
대도시	11.3	56.8	2.4	7.0	1.3	11.0	0.9	1.8	4.7	1.2	1.5	100.0	(2,128)
중소도시	10.1	55.8	2.1	7.7	1.2	11.7	1.5	1.2	4.9	1.2	2.5	100.0	(1,951)
농촌	8.7	61.5	2.7	8.0	1.3	10.0	1.3	0.3	3.9	0.6	1.8	100.0	(711)
연령 ¹⁾ ($\chi^2=1512.8^{***}$)													
30세미만	5.8	79.9	1.2	1.8	-	4.3	0.9	-	2.4	-	3.6	100.0	(329)
30~34세	3.1	82.7	1.5	2.1	0.3	4.5	0.5	0.2	2.7	0.3	2.0	100.0	(921)
35~39세	5.5	79.2	0.7	2.8	0.4	5.0	0.8	0.5	3.0	1.0	1.1	100.0	(1,192)
40~44세	14.7	48.5	2.6	9.3	1.4	13.2	1.7	1.3	3.4	1.9	2.0	100.0	(1,248)
45~49세	18.6	14.6	4.8	16.6	3.0	23.2	1.7	3.7	10.2	1.2	2.4	100.0	(1,094)
교육수준													
중졸이하	7.2	31.5	2.7	24.3	1.8	15.3	0.9	-	7.2	5.4	3.6	100.0	(111)
고졸	11.5	45.9	3.5	11.9	1.5	12.7	1.8	0.9	6.1	1.3	3.0	100.0	(1,982)
대졸	9.8	66.2	1.5	3.5	1.0	10.2	0.8	1.7	3.5	0.7	1.1	100.0	(2,581)
대학원졸	10.7	72.3	1.8	3.6	-	1.8	-	0.9	2.7	4.5	1.8	100.0	(112)
현존 자녀수($\chi^2=569.5^{***}$)													
0명	18.7	10.0	4.4	16.8	-	15.0	2.2	2.5	17.8	3.7	9.0	100.0	(321)
1명	5.8	69.8	1.0	5.5	1.9	8.5	1.2	1.1	2.9	0.5	1.9	100.0	(1,326)
2명	11.6	55.5	2.6	7.4	1.3	12.3	1.0	1.4	4.3	1.3	1.4	100.0	(2,546)
3명 이상	11.2	61.1	2.8	7.0	0.3	10.5	1.8	1.2	3.0	0.2	0.8	100.0	(599)

〈표 8-22〉 계속

(단위: %, 명)

구 분	가사	육아	가족 반대	건강상 어려움	가족 돌봄	적당한 일자리 없음	근처에 일자리 없음	일할 필요가 없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다니던 직장 휴/폐업 등	기타	계	(명)
가구소득 ²⁾ ($\chi^2=472.2^{***}$)													
60%미만	6.8	51.1	1.8	15.7	1.6	12.6	1.8	0.2	3.3	1.8	3.2	100.0	(880)
60~80%미만	7.0	66.7	1.1	7.0	1.1	8.8	1.1	0.2	4.2	1.3	1.6	100.0	(1,090)
80~100%미만	8.4	63.6	2.2	5.6	0.7	10.1	1.2	0.8	4.6	1.1	1.7	100.0	(1,044)
100~120%미만	14.0	52.8	2.6	5.4	1.2	13.3	1.1	1.5	5.2	1.1	1.7	100.0	(727)
120~140%미만	12.8	54.4	2.1	4.3	1.5	13.8	1.5	1.5	6.4	0.3	1.2	100.0	(327)
140~160%미만	20.3	43.0	6.3	5.5	3.4	12.2	0.4	0.8	4.6	0.8	2.5	100.0	(237)
160%이상	17.6	47.3	4.0	3.6	1.3	10.9	0.6	7.1	6.1	-	1.7	100.0	(478)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 20~24세 32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향후 취업 의향

비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향후 취업 의사를 질문한 결과, 70.2%가 취업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의 거주지별로는 농촌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에게서 향후 취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취업 기혼여성들이 저연령층일수록, 고학력층일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향후 취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23〉 비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향후 취업 의향

(단위: %, 명)

구 분	취업 의향 있음	취업 의향 없음	계	(명)
전체	70.2	29.8	100.0	(4,790)
거주지($\chi^2=7.9$)				
대도시	68.2	31.8	100.0	(2,127)
중소도시	71.4	28.6	100.0	(1,950)
농촌	72.8	27.2	100.0	(713)

〈표 8-23〉 계속

(단위: %, 명)

구 분	취업 의향 있음	취업 의향 없음	계	(명)
연령 ¹⁾ ($\chi^2=368.7^{***}$)				
30세 미만	84.9	15.1	100.0	(331)
30~34세	83.3	16.7	100.0	(924)
35~39세	79.0	21.0	100.0	(1,193)
40~44세	65.1	34.9	100.0	(1,248)
45~49세	50.7	49.3	100.0	(1,094)
교육수준($\chi^2=22.2^{***}$)				
중졸이하	58.6	41.4	100.0	(111)
고졸	67.8	32.2	100.0	(1,984)
대졸	72.7	27.3	100.0	(2,583)
대학원졸	64.9	35.1	100.0	(111)
현존 자녀수($\chi^2=14.8^{**}$)				
0명	74.0	26.0	100.0	(319)
1명	73.5	26.5	100.0	(1,327)
2명	68.6	31.4	100.0	(2,544)
3명 이상	67.3	32.7	100.0	(600)
가구소득 ²⁾ ($\chi^2=285.6^{***}$)				
60%미만	78.4	21.6	100.0	(879)
60~80%미만	79.6	20.4	100.0	(1,091)
80~100%미만	75.4	24.6	100.0	(1,045)
100~120%미만	64.3	35.7	100.0	(728)
120~140%미만	63.5	36.5	100.0	(329)
140~160%미만	48.7	51.3	100.0	(238)
160%이상	46.7	53.3	100.0	(478)

* p<0.05, ** p<0.01, *** p<0.001

주: 1) 30세 미만에는 15~19세 7명, 20~24세 32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비취업 기혼여성이 취업 의사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때문(35.7%),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가 부족(24.0%), 자아실현(21.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30대 연령층의 경우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때문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30대 연령층의 경우 자녀 성장으로 양육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비취업 기혼여성들이 저학력층일수록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가구소득이 낮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이들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때문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수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24〉 현재 비취업이나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15~49세)의 취업 희망 이유

(단위: %, 명)

구 분	현재 돈을 버는 사람 없음	남편 수입으로 부족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	자아 실현	본인의 경제적 독립	노후 대책	기타	계	(명)
전체	2.3	24.0	35.7	4.3	21.4	4.6	7.2	0.4	100.0	(3,361)
거주지($\chi^2=21.9$)										
대도시	2.3	24.1	35.2	4.6	21.9	4.8	6.9	0.2	100.0	(1,450)
중소도시	2.5	23.0	35.0	4.1	21.5	5.2	8.4	0.4	100.0	(1,393)
농촌	1.7	26.8	39.3	4.2	19.5	2.7	5.0	0.8	100.0	(519)
연령($\chi^2=235.2^{***}$)										
30세 미만 ¹⁾	3.2	32.4	32.7	3.6	20.3	5.0	2.8	-	100.0	(281)
30~34세	1.0	25.8	40.8	2.1	22.1	3.9	3.8	0.5	100.0	(770)
35~39세	1.3	23.8	42.0	2.8	18.9	4.0	6.7	0.5	100.0	(942)
40~44세	2.5	22.2	35.5	4.3	22.8	4.6	8.0	0.2	100.0	(812)
45~49세	5.0	20.3	20.0	10.8	23.0	7.0	13.7	0.2	100.0	(556)
교육수준										
중졸이하	12.5	34.4	20.3	7.8	10.9	4.7	9.4	-	100.0	(64)
고졸	3.6	32.8	34.6	4.2	13.2	4.5	6.9	0.2	100.0	(1,345)
대졸	1.0	17.9	37.4	4.4	26.4	4.8	7.6	0.4	100.0	(1,879)
대학원졸	2.7	11.0	26.0	1.4	52.1	4.1	-	2.7	100.0	(73)
현존 자녀수($\chi^2=127.8^{***}$)										
0명	1.3	25.1	14.9	8.1	31.5	9.4	8.5	1.3	100.0	(235)
1명	3.4	24.0	33.3	3.0	24.9	3.5	7.5	0.4	100.0	(975)
2명	1.9	22.7	38.0	4.9	19.6	5.2	7.5	0.2	100.0	(1,746)
3명 이상	1.7	29.3	43.7	3.2	14.9	2.2	4.2	0.7	100.0	(403)

〈표 8-24〉 계속

(단위: %, 명)

구 분	현재 돈 버는 사람 없음	남편 수입으로 는 부족	자녀 양육·교육 비 부담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	자아 실현	본인의 경제적 독립	노후 대책	기타	계	(명)
가구소득 ²⁾ ($\chi^2=992.6^{***}$)										
60%미만	10.1	45.3	28.4	1.0	9.4	2.3	3.2	0.3	100.0	(691)
60~80%미만	0.5	30.8	43.1	2.9	13.5	3.8	5.1	0.5	100.0	(868)
80~100%미만	0.1	18.4	45.7	5.2	19.0	4.2	7.1	0.3	100.0	(788)
100~120%미만	-	11.5	34.6	4.9	31.0	5.8	11.5	0.6	100.0	(468)
120~140%미만	-	7.2	27.8	7.7	40.7	8.6	8.1	-	100.0	(209)
140~160%미만	-	6.9	16.4	6.9	38.8	10.3	18.1	2.6	100.0	(116)
160%이상	1.3	2.7	13.5	11.7	50.2	8.1	12.6	-	100.0	(223)

* p<0.05, ** p<0.01, *** p<0.001

주: 1) 30세 미만에는 15~19세 6명, 20~24세 29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작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비취업 기혼여성으로서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그 시기를 질문한 결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27.2%), 자녀의 성장단계에 무관하게 (25.4%), 중학교 진학 후(13.2%), 자녀가 어린이집에 갈 때(12.3%), 유치원 갈 때(8.2%), 고등학교 진학 후(5.4%), 대학 진학(5.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기로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시점까지를 합하면 47.7%에 이른다.

거주지가 농촌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취원 시기를 그리고 도시지역일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 등을 희망시기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아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모가 집에 있으면서 자녀 양육에 노력을 집중하여야 하는 시기를 더 늦추어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연령에 따른 취업 희망 시기의 차이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출산·양육과 관계없이 또는 대학 진학 시기로 그리고 저연령층일수록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갈 시기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5~49세를

제외하면, 고연령층일수록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진학 후를 취업 희망 시기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5~40세 비취업 여성들은 이미 자녀들이 성장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력수준별로 취업 희망 시기는 고학력층일수록 초등학교 입학 시기 또는 대학 진학 시기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5~49세를 제외하면, 고연령층일수록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진학 후를 취업 희망 시기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5~49세 비취업 여성들은 이미 자녀들이 성장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초등학교 입학 후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의 비율도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돌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 희망 시 그 시기를 늦추어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출산·양육과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무자녀인 경우 44.7%로 아주 높았으며, 한 자녀를 둔 경우 17.5%, 두 자녀를 둔 경우 27.1%, 세 자녀 이상을 둔 경우 25.8%로 각각 나타났다. 한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취업 희망시기를 보다 제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소득층일수록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입학 후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아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60% 미만인 계층을 제외하면, 저소득층일수록 초등학교 입학 후 취업 희망시기로 고려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과 반대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일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표 8-25〉 현재 비취업이나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15~49세)의 취업 희망 시기

(단위: %, 명)

구 분	출산양육 관계없이	어린이집 갈 때	유치원 갈때	초등 학교	중학교 진학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기타	계	(명)
전체	25.4	12.3	8.2	27.2	13.2	5.4	5.0	3.4	100.0	(3,361)
거주지($\chi^2=29.4^{**}$)										
대도시	24.4	10.9	8.3	27.3	13.7	5.8	6.5	3.2	100.0	(1,450)
중소도시	26.4	12.8	7.4	26.8	13.1	5.2	4.0	4.2	100.0	(1,393)
읍면부	25.4	14.6	10.2	27.7	12.1	4.6	3.7	1.7	100.0	(520)
연령 ¹⁾ ($\chi^2=1407.1^{***}$)										
30세 미만	16.8	36.9	17.2	24.0	3.6	0.7	-	0.7	100.0	(279)
30~34세	11.7	23.3	17.0	33.8	10.5	1.7	0.7	1.3	100.0	(769)
35~39세	16.6	9.9	8.0	40.8	17.4	3.8	2.5	1.1	100.0	(942)
40~44세	29.5	3.7	2.3	21.2	18.5	11.6	8.5	4.8	100.0	(813)
45~49세	57.7	1.3	0.4	5.4	6.8	6.7	12.4	9.4	100.0	(556)
교육수준($\chi^2=159.1^{***}$)										
중졸이하	55.4	13.8	1.5	16.9	3.1	4.6	1.5	3.1	100.0	(65)
고졸	33.2	10.0	6.2	23.8	13.4	4.2	4.3	4.8	100.0	(1,345)
대졸	19.0	13.7	9.8	29.5	13.5	6.4	5.6	2.4	100.0	(1,880)
대학원졸	19.4	13.9	6.9	37.5	12.5	2.8	6.9	-	100.0	(72)
현존 자녀수($\chi^2=362.9^{***}$)										
0명	44.7	28.5	11.1	12.3	1.7	0.9	0.4	0.4	100.0	(235)
1명	17.5	18.9	14.0	26.6	11.5	3.9	4.2	3.4	100.0	(977)
2명	27.1	6.7	5.2	28.5	15.8	6.6	6.0	4.2	100.0	(1,745)
3명 이상	25.8	10.9	5.5	31.8	13.2	6.2	5.5	1.2	100.0	(403)
가구소득 ²⁾ ($\chi^2=309.0^{***}$)										
60%미만	34.8	16.1	9.4	21.9	10.9	3.3	1.0	2.6	100.0	(690)
60~80%미만	20.4	15.6	9.4	31.5	13.4	3.9	3.0	2.9	100.0	(868)
80~100%미만	24.1	10.9	9.1	30.5	14.5	4.4	3.3	3.0	100.0	(787)
100~120%미만	23.3	6.6	4.9	29.5	14.7	8.3	8.5	4.1	100.0	(468)
120~140%미만	24.3	10.0	5.7	24.8	12.9	8.6	8.6	5.2	100.0	(210)
140~160%미만	29.6	10.4	4.3	23.5	13.0	8.7	6.1	4.3	100.0	(115)
160%이상	24.3	6.8	7.7	14.4	12.2	10.4	19.8	4.5	100.0	(222)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5명, 20~24세 2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4절 일 형태와 자녀 출산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

1. 일 형태와 자녀수 간의 이상적 조합

전체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일 형태와 자녀수 간의 이상적인 조합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시간제+2자녀 이상' 37.2%, '시간제+1자녀' 15.8%, '전일제+2자녀 이상' 15.4%, '전일제+1자녀'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전일제이면서 1명 또는 시간제이면서 1명의 자녀를 두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이면서 2명 이상을 두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보면, 30대 연령층까지는 전일제로 일할 경우 자녀 1명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고, 시간제로 일할 경우에만 자녀 2명 이상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40대의 경우는 전일제로 일하더라도 자녀 2명 이상을 두는 것을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이하와 대학원 졸업의 학력계층에서 전일제로 일하면서 무자녀, 1자녀 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학력계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중졸이하의 경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전일제 일이 필요하고, 대학원 졸업의 경우에는 자아실현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하여 전일제로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별로 이상적인 조합형태를 살펴보면, 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시간제+2자녀 이상', '전일제+2자녀 이상', '전일제+1자녀', '시간제+1자녀' 순으로 그리고 비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시간제+2자녀 이상', '시간제+1자녀', '전일제+1자녀', '비취업+2자녀 이상' 순으

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제+2자녀 이상'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현재 취업 중인 여성들은 2자녀 이상을 그리고 비취업 여성들은 1자녀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현존 자녀수가 없는 여성들은 '시간제+2자녀 이상'(27.9%), '시간제+1자녀'(19.5%), '전일제+1자녀'(19.5%), '전일제+2자녀 이상'(11.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일제+무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10.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현존 자녀수로 1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들의 경우 이상적인 조합형태로 '시간제+1자녀'(28.4%), '시간제+2자녀 이상'(24.8%), '전일제+1자녀'(24.4%), '전일제+2자녀 이상'(8.3%)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존자녀수가 2명 이상인 기혼여성의 경우, 이상적인 조합 형태로 '시간제+2자녀 이상'과 '전일제+2자녀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이상적인 조합형태를 다소나마 현존 자녀수를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전일제로 일하면서 1명의 자녀를 두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일제로 일을 하면서 자녀를 2명 이상 두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고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8-26〉 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적인 직장형태와 적정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전일제			시간제			비취업			계	(명)
	무자녀	1명	2명+	무자녀	1명	2명+	무자녀	1명	2명+		
전체	5.5	14.9	15.4	0.6	15.8	37.2	0.2	1.0	9.3	100.0	(11,009)
거주지($\chi^2=56.2^{***}$)											
대도시	5.8	16.2	15.0	0.3	17.3	34.9	0.2	0.9	9.3	100.0	(4,798)
중소도시	5.1	14.4	15.8	0.8	15.0	38.6	0.1	1.2	9.1	100.0	(4,588)
농촌	6.1	12.9	15.4	0.9	13.8	40.4	0.2	0.7	9.6	100.0	(1,623)

〈표 8-26〉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일제			시간제			비취업			계	(명)
	무자녀	1명	2명+	무자녀	1명	2명+	무자녀	1명	2명+		
연령 ¹⁾ ($\chi^2=130.9^{***}$)											
30세 미만	6.3	14.4	13.9	0.6	19.8	37.3	0.2	0.6	7.0	100.0	(541)
30~34세	6.5	16.6	12.6	0.6	16.6	38.2	0.1	1.0	7.7	100.0	(1,726)
35~39세	6.2	15.8	12.4	0.8	16.8	37.2	0.3	1.3	9.1	100.0	(2,450)
40~44세	5.5	13.1	15.7	0.6	16.0	39.0	0.1	0.9	9.2	100.0	(3,049)
45~49세	4.3	15.3	19.2	0.6	13.8	35.0	0.1	0.9	10.7	100.0	(3,244)
교육수준($\chi^2=52.8^{**}$)											
중졸이하	6.4	17.2	17.2	0.9	13.1	37.3	0.6	1.2	6.1	100.0	(343)
고졸	5.1	14.4	16.3	0.6	14.6	37.5	0.1	1.2	10.3	100.0	(4,555)
대졸	5.7	15.0	14.5	0.7	17.0	37.1	0.2	0.9	8.8	100.0	(5,672)
대학원졸	6.6	17.5	17.3	0.5	15.0	36.1	-	0.5	6.6	100.0	(440)
취업여부($\chi^2=421.3^{***}$)											
취업	5.1	16.8	20.6	0.5	13.9	34.9	0.1	0.7	7.3	100.0	(6,220)
비취업	6.1	12.5	8.6	0.8	18.4	40.2	0.2	1.4	11.8	100.0	(4,789)
현존 자녀수($\chi^2=1132.4^{***}$)											
0명	10.2	19.5	11.1	1.4	19.5	27.9	0.4	1.9	8.0	100.0	(784)
1명	5.1	24.4	8.3	0.8	28.4	24.8	0.2	2.1	5.9	100.0	(2,694)
2명	5.1	11.0	18.8	0.5	11.2	42.7	0.1	0.6	10.1	100.0	(6,175)
3명 이상	5.5	11.7	16.7	0.6	10.0	42.5	0.1	0.3	12.6	100.0	(1,354)
가구소득 ²⁾ ($\chi^2=178.7^{***}$)											
60%미만	4.9	16.1	13.2	0.5	17.9	36.8	0.3	1.3	9.1	100.0	(1,517)
60~80%미만	6.9	12.7	11.4	1.6	17.3	40.7	0.2	1.2	7.9	100.0	(1,713)
80~100%미만	5.7	14.6	13.3	0.8	15.6	40.1	0.2	1.0	8.7	100.0	(2,119)
100~120%미만	5.6	14.2	15.1	0.2	15.8	37.7	0.1	0.9	10.5	100.0	(1,922)
120~140%미만	5.2	15.4	20.0	0.4	14.7	33.9	0.1	1.2	9.2	100.0	(1,035)
140~160%미만	4.6	16.8	18.8	0.3	14.0	34.5	0.1	1.1	10.0	100.0	(943)
160%이상	5.1	16.2	19.6	0.3	14.6	33.7	0.1	0.6	9.9	100.0	(1,752)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 20~24세 44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의 향후 시간제 근로 희망 여부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로의 희망 여부를 질문한 결과, 44.9%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 희망 비율은 저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저연령층일수록 자녀 출산을

앞두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고연령층에 비해 일을 한다면 시간제가 더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풀이된다. 취업자보다 비취업자의 경우에 시간제 근로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비취업여성의 경우 자녀 육아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일을 한다면 전일제보다 시간제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시간제 근로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여성들이 저연령 및 비취업의 특성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연계된다.

한편, 시간제 근로 희망 여부와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뚜렷한 패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시간제 근로 희망 비율이 대학졸업 학력층에서 가장 높고, 대학원졸업의 학력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일제 직업에의 현 취업 여부 또는 가능성 등에 있어서 두 학력계층 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 희망 여부와 현존 자녀수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기혼여성의 연령이나 교육수준, 취업 여부 등 특성이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8-27〉 기혼여성(15~49세)의 향후 시간제근로 희망 여부

(단위: %, 명)

구 분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계	(명)
전체	44.9	55.1	100.0	(11,009)
거주지($\chi^2=0.8$)				
대도시	44.8	55.2	100.0	(4,798)
중소도시	44.8	55.2	100.0	(4,588)
농촌	46.0	54.0	100.0	(1,622)

〈표 8-27〉 계속

(단위: %, 명)

구 분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계	(명)
연령 ¹⁾ ($\chi^2=293.9^{***}$)				
25~29세	57.7	42.3	100.0	(541)
30~34세	53.6	46.4	100.0	(1,725)
35~39세	51.7	48.3	100.0	(2,452)
40~44세	44.1	55.9	100.0	(3,049)
45~49세	33.9	66.1	100.0	(3,244)
교육수준($\chi^2=43.7^{***}$)				
중졸이하	42.0	58.0	100.0	(343)
고졸	42.5	57.5	100.0	(4,554)
대졸	47.7	52.3	100.0	(5,672)
대학원졸	36.1	63.9	100.0	(440)
취업여부($\chi^2=161.8^{***}$)				
취업	39.7	60.3	100.0	(6,219)
비취업	51.8	48.2	100.0	(4,790)
현존 자녀수($\chi^2=4.6$)				
0명	42.5	57.5	100.0	(785)
1명	45.4	54.6	100.0	(2,694)
2명	44.6	55.4	100.0	(6,176)
3명 이상	47.0	53.0	100.0	(1,355)
가구소득 ²⁾ ($\chi^2=296.8^{***}$)				
60%미만	51.1	48.9	100.0	(1,518)
60~80%미만	54.0	46.0	100.0	(1,714)
80~100%미만	51.0	49.0	100.0	(2,118)
100~120%미만	45.6	54.4	100.0	(1,923)
120~140%미만	40.4	59.6	100.0	(1,035)
140~160%미만	32.9	67.1	100.0	(944)
160%이상	31.9	68.1	100.0	(1,751)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 25~29세 45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향후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9.3%가 육아 또는 자녀양육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저연령층의 경우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로 육아 또는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대 연령층의 경우 육아 또는 자녀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92.6%로 나타난 반면, 40대

후반 연령층의 경우 29.3%로 나타났다. 40대 연령층의 경우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에서 여가생활을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저학력층보다 고학력층의 경우 육아 또는 자녀교육 때문에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층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존 자녀수별로 보면, 자녀가 1명인 경우 육아 또는 자녀교육을 위해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고소득 계층의 경우 육아 또는 자녀교육을 위해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여가생활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과 여가 생활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28〉 향후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기혼여성(15~49세)의 시간제 근로 희망 이유

(단위: %, 명)

구 분	집안일이 많아	육아 또는 자녀교육	건강 상 이유	여가	전일제 직장 구직 힘들	기타	계	(명)
전체	3.5	69.3	4.5	19.0	2.6	1.0	100.0	(4,948)
거주지($\chi^2=15.2$)								
대도시	3.8	69.8	4.1	18.4	2.8	1.1	100.0	(2,148)
중소도시	3.4	67.3	5.1	20.9	2.4	0.9	100.0	(2,054)
읍면부	3.4	72.9	4.2	15.8	2.7	1.1	100.0	(746)
연령 ¹⁾ ($\chi^2=1367.8^{***}$)								
30세 미만	0.6	92.6	1.0	4.5	0.3	1.0	100.0	(311)
30~34세	1.3	90.8	0.6	5.1	1.4	0.8	100.0	(925)
35~39세	1.3	88.4	1.2	7.5	1.0	0.6	100.0	(1,268)
40~44세	4.8	63.7	5.1	23.0	2.4	1.0	100.0	(1,344)
45~49세	7.3	29.3	11.8	43.3	6.4	1.9	100.0	(1,099)
교육수준($\chi^2=346.5^{***}$)								
중졸이하	4.2	47.6	24.5	19.6	3.5	0.7	100.0	(143)
고졸	5.7	60.2	7.1	21.9	3.6	1.5	100.0	(1,937)
대졸	2.1	76.4	1.6	17.4	1.9	0.6	100.0	(2,708)
대학원졸	0.6	79.1	4.4	12.0	1.3	2.5	100.0	(158)

310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표 8-28〉 계속

(단위: %, 명)

	집안일이 많아	육아 또는 자녀교육	건강 상 이유	여가	전일제 직장 구직 힘들	기타	계	(명)
현존 자녀수($\chi^2=180.2^{***}$)								
0명	3.0	58.2	5.4	27.5	3.0	3.0	100.0	(335)
1명	1.6	80.4	3.4	12.5	1.3	0.7	100.0	(1,222)
2명	4.1	64.3	4.6	22.2	3.6	1.2	100.0	(2,756)
3명 이상	5.3	74.7	5.8	13.5	0.6	-	100.0	(637)
취업여부($\chi^2=197.5^{***}$)								
취업	3.6	61.0	5.4	25.7	2.5	1.8	100.0	(2,467)
비취업	3.5	77.4	3.7	12.4	2.7	0.3	100.0	(2,482)
가구소득 ²⁾ ($\chi^2=257.5^{***}$)								
60%미만	2.6	71.4	8.8	12.2	4.1	0.9	100.0	(776)
60~80%미만	3.1	75.1	5.0	11.7	3.7	1.5	100.0	(926)
80~100%미만	4.8	75.3	3.9	13.4	1.5	1.1	100.0	(1,079)
100~120%미만	4.3	64.5	3.0	24.5	3.0	0.7	100.0	(877)
120~140%미만	2.4	64.1	2.4	27.5	2.2	1.4	100.0	(418)
140~160%미만	2.9	64.5	3.2	27.4	1.0	1.0	100.0	(310)
160%이상	3.0	59.5	3.6	31.7	1.6	0.5	100.0	(558)

* p<0.05, ** p<0.01, *** p<0.001

주: 1) 30세 미만에는 15~19세 5명, 20~24세 26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9

기혼여성의 출산 관련 정책에 << 대한 인식 및 욕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노력해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에 제1차 기본계획으로 출발하여 5개년 종합계획으로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제2차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2016년부터는 제3차 기본계획이 시작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그간에 시행된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인지도 및 만족도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1절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매우 심각 39.2%, 다소 심각은 48.7%로 긍정적 태도(매우 심각+다소 심각)가 87.9%로 아주 높았다. 기혼여성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고학력층일수록, 고소득층일수록 그리고 취업 중인 경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집단이 출산현상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또는 정보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9-1〉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출생아수 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심각함	다소 심각함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모름	계	(명)
전체	39.2	48.7	9.8	0.5	1.9	100.0	(11,009)
거주지($\chi^2=56.9^{***}$)							
대도시	38.8	51.2	8.1	0.2	1.6	100.0	(4,797)
중소도시	39.5	46.7	10.9	0.8	2.1	100.0	(4,589)
농촌	39.1	46.8	11.7	0.2	2.1	100.0	(1,622)

〈표 9-1〉 계속

(단위: %, 명)

구 분	매우 심각함	다소 심각함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모름	계	(명)
연령 ¹⁾ ($\chi^2=184.5^{***}$)							
25세 미만	15.4	57.7	21.2	1.9	3.8	100.0	(52)
25~29세	29.7	48.0	18.0	0.8	3.5	100.0	(488)
30~34세	33.5	50.4	12.8	0.5	2.8	100.0	(1,725)
35~39세	36.5	50.2	11.1	0.7	1.5	100.0	(2,452)
40~44세	41.1	48.8	8.3	0.3	1.5	100.0	(3,049)
45~49세	44.2	46.5	7.4	0.3	1.7	100.0	(3,244)
교육수준($\chi^2=132.7^{***}$)							
중졸이하	28.4	56.4	9.4	1.2	4.7	100.0	(342)
고졸	35.9	49.7	11.6	0.4	2.5	100.0	(4,554)
대졸	41.4	48.0	8.8	0.5	1.3	100.0	(5,673)
대학원졸	53.0	40.9	5.0	0.2	0.9	100.0	(440)
취업여부($\chi^2=42.7^{***}$)							
취업	41.5	47.4	8.8	0.4	1.9	100.0	(6,219)
비취업	36.1	50.3	11.1	0.6	1.9	100.0	(4,789)
가구소득 ²⁾ ($\chi^2=156.1^{***}$)							
60%미만	35.1	49.6	11.7	0.9	2.6	100.0	(1,517)
60~80%미만	33.5	51.7	11.3	0.6	2.9	100.0	(1,714)
80~100%미만	37.0	49.1	10.9	0.4	2.6	100.0	(2,119)
100~120%미만	39.6	48.3	10.5	0.3	1.3	100.0	(1,923)
120~140%미만	42.9	47.2	8.0	0.4	1.4	100.0	(1,035)
140~160%미만	41.8	49.6	7.4	0.3	0.8	100.0	(945)
160%이상	46.9	45.1	7.0	0.3	0.7	100.0	(1,751)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매우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17.0%, 대체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45.1%로 심각(매우 심각+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고학력층일수록, 고소득층일수록 그리고 취업 중인 경우 저출산현상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 계층의 기혼여성들이 저출산현상의 파급효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정도나 정보 노출 정도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표 9-2〉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정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영향있음	대체로 영향있음	별로 영향없음	전혀 영향없음	모름	계	(명)
전체	17.0	45.1	30.3	4.0	3.5	100.0	(11,009)
거주지($\chi^2=16.9$)							
대도시	17.5	46.2	29.2	3.7	3.4	100.0	(4,798)
중소도시	16.4	45.3	30.5	4.2	3.6	100.0	(4,589)
농촌	17.5	41.4	32.9	4.6	3.6	100.0	(1,622)
연령 ¹⁾ ($\chi^2=151.9$ ***)							
25세 미만	1.9	34.6	48.1	5.8	9.6	100.0	(52)
25~29세	9.7	42.5	36.8	4.9	6.2	100.0	(487)
30~34세	11.3	46.2	33.8	3.9	4.8	100.0	(1,725)
35~39세	17.4	43.2	31.3	4.4	3.7	100.0	(2,451)
40~44세	20.0	44.5	29.5	3.5	2.4	100.0	(3,049)
45~49세	18.4	47.1	27.2	4.1	3.3	100.0	(3,244)
교육수준($\chi^2=239.5$ ***)							
중졸이하	12.2	36.9	35.8	7.8	7.3	100.0	(344)
고졸	13.4	43.3	34.3	4.8	4.2	100.0	(4,554)
대졸	19.1	47.0	27.5	3.4	2.9	100.0	(5,672)
대학원졸	31.4	45.6	20.3	1.6	1.1	100.0	(439)
취업여부($\chi^2=84.9$ ***)							
취업	19.4	45.8	27.9	3.5	3.3	100.0	(6,220)
비취업	14.0	44.3	33.3	4.7	3.8	100.0	(4,790)
가구소득 ²⁾ ($\chi^2=231.9$ ***)							
60%미만	13.4	42.2	33.6	5.3	5.5	100.0	(1,517)
60~80%미만	14.5	42.7	33.2	5.0	4.6	100.0	(1,715)
80~100%미만	13.8	44.6	33.5	4.0	4.1	100.0	(2,119)
100~120%미만	17.3	44.2	31.4	3.8	3.3	100.0	(1,923)
120~140%미만	19.7	46.8	26.7	4.0	2.8	100.0	(1,034)
140~160%미만	18.3	52.6	24.0	3.2	1.9	100.0	(945)
160%이상	24.2	46.6	25.0	2.6	1.6	100.0	(1,752)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출산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욕구

1. 국가 및 직장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국가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기혼여성의 35.0%는 전적으로 지원, 61.4%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96.4%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에 따라서는 저연령층일수록 국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추가 출산이 기대되는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였는데, 이들의 경우 자녀의 질(quality)을 상대적으로 높게 추구하여 정책 필요성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일수록 국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국가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9-3〉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국가의 출산 및 양육지원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지원필요	어느 정도 지원필요	별로 지원할 필요없음	전혀 지원할 필요없음	모름	계	(명)
전체	35.0	61.4	2.8	0.5	0.3	100.0	(11,009)
거주지($\chi^2=12.3$)							
대도시	34.6	61.8	2.7	0.4	0.4	100.0	(4,798)
중소도시	34.4	62.2	2.7	0.5	0.2	100.0	(4,589)
농촌	37.8	58.0	3.3	0.4	0.4	100.0	(1,623)

〈표 9-3〉 계속

(단위: %, 명)

	전적으로 지원필요	어느 정도 지원필요	별로 지원할 필요없음	전혀 지원할 필요없음	모름	계	(명)
연령 ¹⁾ ($\chi^2=340.7^{***}$)							
25세 미만	53.8	46.2	-	-	-	100.0	(52)
25~29세	48.6	50.0	0.8	0.2	0.4	100.0	(488)
30~34세	43.7	54.8	1.3	0.1	0.1	100.0	(1,725)
35~39세	41.2	56.8	1.3	0.4	0.2	100.0	(2,451)
40~44세	32.3	64.0	3.0	0.4	0.4	100.0	(3,048)
45~49세	26.0	68.0	4.7	0.8	0.5	100.0	(3,244)
교육수준							
중졸이하	34.4	61.8	3.2	-	0.6	100.0	(343)
고졸	33.4	62.4	3.2	0.5	0.4	100.0	(4,554)
대졸	36.0	60.9	2.5	0.4	0.3	100.0	(5,672)
대학원졸	39.4	59.0	0.9	0.2	0.5	100.0	(439)
취업여부($\chi^2=1.6$)							
취업	34.7	61.6	2.8	0.5	0.3	100.0	(6,219)
비취업	35.4	61.2	2.7	0.4	0.4	100.0	(4,789)
가구소득 ²⁾ ($\chi^2=99.7^{***}$)							
60%미만	41.0	56.1	2.0	0.6	0.3	100.0	(1,518)
60~80%미만	39.1	58.3	1.6	0.4	0.6	100.0	(1,714)
80~100%미만	35.4	61.9	2.1	0.3	0.2	100.0	(2,119)
100~120%미만	31.7	64.6	3.0	0.4	0.4	100.0	(1,924)
120~140%미만	35.3	60.5	3.6	0.4	0.2	100.0	(1,034)
140~160%미만	30.4	64.2	4.7	0.5	0.2	100.0	(945)
160%이상	31.4	64.1	3.6	0.6	0.3	100.0	(1,750)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세금을 통한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찬성 정도를 질문한 결과, 전체 기혼여성 중 매우 찬성 24.9%, 대체로 찬성 56.5%로 81.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령층일수록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연령층 기혼여성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향후 추가로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저소득층은 자녀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점에서 세금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기혼

여성의 거주지나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9-4〉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세금을 통한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름	계	(명)
전체	24.9	56.5	15.6	2.3	0.7	100.0	(11,009)
거주지($\chi^2=12.4$)							
대도시	24.4	56.7	16.0	2.1	0.7	100.0	(4,799)
중소도시	24.8	55.9	16.0	2.5	0.7	100.0	(4,589)
농촌	26.4	57.5	13.3	2.3	0.4	100.0	(1,623)
연령 ¹⁾ ($\chi^2=130.0^{***}$)							
25세 미만	21.2	71.2	3.8	-	3.8	100.0	(52)
25~29세	32.0	55.9	8.2	2.1	1.8	100.0	(487)
30~34세	28.7	56.1	12.8	1.8	0.6	100.0	(1,725)
35~39세	28.0	53.4	15.5	2.4	0.7	100.0	(2,452)
40~44세	23.5	57.9	15.9	2.3	0.5	100.0	(3,049)
45~49세	20.9	57.7	18.2	2.6	0.7	100.0	(3,245)
교육수준($\chi^2=19.2$)							
중졸이하	25.6	55.8	15.4	0.9	2.3	100.0	(344)
고졸	25.4	55.9	15.7	2.3	0.7	100.0	(4,554)
대졸	24.4	57.0	15.6	2.3	0.6	100.0	(5,673)
대학원졸	25.1	56.7	14.8	2.7	0.7	100.0	(439)
취업여부($\chi^2=3.1$)							
취업	24.7	56.6	15.7	2.4	0.6	100.0	(6,219)
비취업	25.2	56.4	15.5	2.2	0.8	100.0	(4,790)
가구소득 ²⁾ ($\chi^2=71.4^{***}$)							
60%미만	27.2	57.4	12.8	1.7	0.9	100.0	(1,517)
60~80%미만	27.8	55.2	13.1	3.0	0.9	100.0	(1,715)
80~100%미만	26.1	56.0	15.8	1.7	0.5	100.0	(2,119)
100~120%미만	22.6	57.6	16.7	2.1	0.9	100.0	(1,922)
120~140%미만	23.9	56.9	16.5	2.2	0.5	100.0	(1,033)
140~160%미만	22.7	58.4	15.4	3.0	0.6	100.0	(944)
160%이상	22.8	55.3	18.7	2.9	0.4	100.0	(1,750)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직장의 출산 및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 기혼여성의 98.2%가 필요하다(전적으로 지원 필요 35.5%, 어느 정도 지원 필요

62.7%)고 응답하여 거의 대부분이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직장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9-5〉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직장의 출산 및 양육지원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지원필요	어느 정도 지원필요	별로 지원할 필요없음	전혀 지원할 필요없음	모름	계	(명)
전체	35.5	62.7	1.3	0.2	0.3	100.0	(11,009)
거주지($\chi^2=6.7$)							
대도시	35.2	63.3	1.1	0.1	0.3	100.0	(4,797)
중소도시	35.5	62.4	1.6	0.2	0.3	100.0	(4,589)
농촌	36.2	62.0	1.4	0.1	0.3	100.0	(1,622)
연령 ¹⁾							
25세 미만	41.5	54.7	3.8	-	-	100.0	(53)
25~29세	43.5	54.6	1.0	0.4	0.4	100.0	(487)
30~34세	40.5	58.4	0.8	0.2	0.2	100.0	(1,725)
35~39세	38.5	60.2	0.9	0.2	0.2	100.0	(2,452)
40~44세	33.8	64.3	1.5	0.0	0.4	100.0	(3,050)
45~49세	30.7	66.7	1.9	0.3	0.5	100.0	(3,245)
교육수준							
중졸이하	31.1	65.4	1.7	0.3	1.5	100.0	(344)
고졸	33.2	64.6	1.6	0.2	0.3	100.0	(4,554)
대졸	36.8	61.7	1.1	0.1	0.3	100.0	(5,672)
대학원졸	45.2	53.6	0.9	-	0.2	100.0	(440)
취업여부($\chi^2=3.4$)							
취업	35.5	62.5	1.4	0.2	0.4	100.0	(6,220)
비취업	35.4	62.9	1.2	0.2	0.2	100.0	(4,789)
가구소득 ²⁾							
60%미만	37.7	60.4	1.2	0.3	0.4	100.0	(1,518)
60~80%미만	36.9	61.4	0.6	0.5	0.6	100.0	(1,713)
80~100%미만	35.6	63.2	1.0	-	0.2	100.0	(2,118)
100~120%미만	33.0	65.7	1.1	0.1	0.2	100.0	(1,923)
120~140%미만	36.3	61.6	1.7	0.2	0.2	100.0	(1,034)
140~160%미만	32.1	65.8	1.6	0.1	0.4	100.0	(944)
160%이상	36.1	61.1	2.3	0.1	0.3	100.0	(1,752)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출산 및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질문한 결과, 양육의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결혼 지원, 주거 지원, 임신 및 출산 지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자녀 임신기, 출산시기, 보육기, 취학기 등)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기혼여성의 현 연령별로 보면, 이제 막 결혼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25세 미만 여성의 경우, 양육의 경제적 지원 다음으로 결혼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5세 이상 여성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지원으로는 일률적으로 양육의 경제적 지원 다음으로 일-가정양립 지원,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30대와 40대 전반) 또는 결혼 지원(20대와 40대 후반), 주거 지원, 임신 및 출산 지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 전반에서 양육의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양립 지원 다음으로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가 그리고 20대와 40대 후반에 결혼 지원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본인의 생애주기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특히 40대 후반의 경우에는 자녀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응답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결혼지원은 여성들이 저연령층일수록 그리고 10대 후반인 경우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임신 및 출산 지원은 저연령층일수록,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는 30대와 40대 전반에, 일가정양립지원은 30대 전반(대체로 첫아이 출산 시기)과 40대 후반(자녀의 초등학교 취학기), 주거지원은 고연령층일수록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여성에 비해 취업여성에게서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결혼 지원 등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여성들이 일-가정양립 제도뿐만 아니라 관련된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해준다.

가구소득 수준별로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일-가정 양립 지원과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저소득층일수록 양육의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현존 자녀수별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무자녀인 경우 양육의 경제적 지원이 28.8%로 여전히 가장 높으나, 다음으로 일가정양립 지원(21.4%), 결혼 지원(21.1%) 임신 및 출산 지원(14.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일-가정 양립 지원과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6〉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영역)¹⁾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결혼 지원	임신 및 출산 지원	양육의 경제적 지원	양육인프라/ 프로그램 다양화	일·가정 양립 지원	주거 지원	계	(명)
전체	12.9	3.8	45.9	14.1	19.3	4.1	100.0	(11,009)
연령 ²⁾ ($\chi^2=245.1^{***}$)								
25세 미만	20.4	5.6	55.6	9.3	5.6	3.7	100.0	(54)
25~29세	13.8	8.0	44.7	10.9	18.9	3.7	100.0	(486)
30~34세	12.7	4.1	44.8	16.0	19.8	2.6	100.0	(1,724)
35~39세	8.9	3.5	49.6	15.9	17.9	4.3	100.0	(2,451)
40~44세	10.0	4.0	49.3	13.9	18.6	4.3	100.0	(3,049)
45~49세	18.5	3.0	40.5	12.5	20.9	4.5	100.0	(3,244)

〈표 9-6〉 계속

(단위: %, 명)

	결혼 지원	임신 및 출산 지원	양육의 경제적 지원	양육인프라/ 프로그램 다양화	일·가정 양립 지원	주거 지원	계 (명)
취업여부($\chi^2=57.8^{***}$)							
취업	13.0	3.3	43.9	14.3	21.5	4.0	100.0 (6,220)
비취업	12.7	4.4	48.5	13.8	16.4	4.2	100.0 (4,789)
가구소득 ³⁾ ($\chi^2=346.5^{***}$)							
60%미만	14.1	3.8	53.2	9.1	13.6	6.3	100.0 (1,518)
60~80%미만	14.5	4.4	49.2	12.6	13.7	5.5	100.0 (1,713)
80~100%미만	12.7	3.5	49.2	13.4	16.6	4.6	100.0 (2,119)
100~120%미만	12.0	3.4	46.7	14.6	19.8	3.4	100.0 (1,922)
120~140%미만	11.6	4.5	41.0	13.8	25.7	3.3	100.0 (1,034)
140~160%미만	14.1	3.6	42.4	15.8	22.0	2.1	100.0 (944)
160%이상	11.6	3.6	36.2	19.2	26.9	2.3	100.0 (1,752)
현존자녀수 ³⁾ ($\chi^2=659.9^{***}$)							
0명	21.3	14.0	28.6	12.1	21.4	2.4	100.0 (779)
1명	11.8	4.8	44.1	16.7	19.8	2.8	100.0 (2,681)
2명	13.2	2.5	46.8	14.5	19.7	3.3	100.0 (6,156)
3명이상	9.1	1.5	54.9	8.5	15.0	11.0	100.0 (1,390)

* p<0.05, ** p<0.01, *** p<0.001

- 주: 1) ① 결혼 지원에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신혼부부 대상 주택 자금대출, ② 임신 및 출산 지원에는 산전진찰비 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지원, ③ 양육의 경제적 지원에는 자녀보육·유아교육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아동수당, ④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에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방과 후 보육·교육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확충, ⑤ 일·가정 양립 지원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 출퇴근 등),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직장 문화 개선, 정시퇴근제, ⑥ 주거 지원에는 다자녀 가정 주택 공급/자금대출, 주거수당 등 포함
- 2)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3)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를 기르기에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사교육비 경감(17.9%)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조성(15.9%),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12.4%), 공교육 강화(8.5%), 경기활성화(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사교육비 경감을, 농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저연령층일수록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그리고 고연령층일수록 공교육 강화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욕구도의 차이는 현재 자녀 성장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저학력층은 사교육비 경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학력층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은 양육비용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고학력층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안전한 환경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중간소득 계층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양육 환경이 취약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9-7〉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에 대한 기혼여성 (15~49세)의 태도(1순위)

(단위: %, 명)

구 분	학벌 사회문화 타파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 체계 개선	노동 시장 변화	주택 시장 안정	경기 활성화	질 높은 보육육아 자원시설 확충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양성 평등 사회 구현	경쟁 사회 지연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기타	계	(명)
전체	7.4	8.5	17.9	6.2	6.2	2.4	7.9	12.4	1.6	2.4	5.9	15.9	5.3	100.0	(11,008)
거주지($\chi^2=46.0^{**}$)															
대도시	7.5	8.4	19.0	6.1	5.5	2.7	7.8	12.9	1.4	2.3	6.0	15.2	5.3	100.0	(4,798)
중소도시	7.6	9.0	17.4	5.9	6.5	2.2	7.8	11.9	1.9	2.5	5.6	16.0	5.5	100.0	(4,589)
농촌	6.6	7.4	16.1	7.3	7.6	2.1	8.5	12.3	1.4	2.2	6.2	17.7	4.4	100.0	(1,621)
연령 ¹⁾ ($\chi^2=771.0^{***}$)															
25세 미만	9.6	3.8	11.5	1.9	5.8	1.9	3.8	23.1	1.9	3.8	1.9	17.3	13.5	100.0	(52)
25~29세	4.5	4.1	12.3	2.3	6.4	2.7	8.8	16.2	2.1	2.1	4.3	25.1	9.2	100.0	(487)
30~34세	4.5	5.1	13.5	4.5	3.8	4.1	6.2	21.5	2.0	1.6	5.7	21.0	6.6	100.0	(1,723)
35~39세	6.0	7.8	18.8	5.3	5.3	2.3	5.8	16.6	1.9	2.1	5.2	17.0	5.8	100.0	(2,452)
40~44세	8.9	10.1	20.4	6.6	6.8	2.3	6.6	7.9	1.1	2.7	6.7	16.1	4.0	100.0	(3,048)
45~49세	8.9	10.0	18.1	8.1	7.8	1.8	11.4	8.0	1.7	2.8	5.9	10.8	4.7	100.0	(3,244)
교육수준($\chi^2=322.2^{***}$)															
중졸이하	8.1	6.4	20.6	8.7	10.2	3.2	9.0	6.7	1.7	-	5.8	12.8	6.7	100.0	(344)
고졸	9.1	9.1	21.0	6.5	6.7	2.3	8.7	8.5	1.1	2.3	4.9	15.1	4.7	100.0	(4,554)
대졸	6.2	8.2	15.9	5.9	5.6	2.4	7.3	15.3	1.9	2.6	6.3	16.9	5.6	100.0	(5,673)
대학원졸	4.3	8.2	9.1	5.2	7.1	3.6	6.2	20.3	3.4	2.7	10.3	13.7	5.9	100.0	(439)

〈표 9-7〉 계속

(단위: %, 명)

구 분	학벌 사문화 타파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 체계 개편	노동 시장 변화	주택 시장 안정	경기 활성화	질 높은 보육·육아 지원시설 확충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양성 평등 구현	경쟁 사회 지연	안전한 자녀육 환경 조성	기타	계	(명)
취업여부($\chi^2=56.8^{***}$)															
취업	7.2	8.3	18.2	6.4	6.5	2.4	8.3	11.9	2.0	2.7	6.0	14.3	5.6	100.0	(6,217)
비취업	7.6	8.7	17.5	6.0	5.8	2.4	7.3	13.1	1.1	2.0	5.7	18.0	4.8	100.0	(4,790)
가구소득 ²⁾ ($\chi^2=201.5^{***}$)															
60%미만	8.8	6.9	15.9	6.7	7.8	2.8	9.2	9.9	1.2	2.3	5.5	16.1	6.9	100.0	(1,518)
60-80%미만	8.3	8.2	16.1	5.1	6.2	2.9	7.8	12.7	1.1	1.6	5.1	19.2	5.7	100.0	(1,713)
80-100%미만	7.3	8.5	19.9	5.9	6.0	3.0	6.9	11.9	1.4	2.0	5.8	16.7	4.8	100.0	(2,118)
100-120%미만	7.4	8.3	21.0	6.2	4.8	2.0	7.8	12.7	1.5	2.4	5.0	15.7	5.1	100.0	(1,925)
120-140%미만	6.0	10.4	17.2	7.0	7.2	1.8	8.0	12.5	1.9	2.7	4.5	15.8	4.9	100.0	(1,033)
140-160%미만	7.1	9.8	17.7	5.5	6.0	1.7	9.3	12.5	2.4	2.9	6.2	14.8	4.0	100.0	(945)
160%이상	6.3	8.6	16.0	7.0	6.3	2.2	7.1	14.6	2.4	3.3	8.5	12.5	5.1	100.0	(1,751)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3절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지도 및 도움정도

정부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인식 여부 및 수혜 시 도움 정도를 질문하였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고려하여, 정책 영역을 임신·출산 지원,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그리고 일-가정양립 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임신·출산 지원 정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사업, 국민행복카드 사업, 미숙아의료비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정책으로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방과후교실·방과후아카데미·지역아동센터 등이 포함되었다.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으로는 출산

전후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유연근무제도, 직장어린이집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실제 정책 수혜자가 체감하는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여, 그 결과를 이용하여 평균 점수를 산정하였다. 그 방식으로 매우 도움에 5점, 다소 도움에 4점, 보통에 3점, 별로 도움 안 됨에 2점, 전혀 도움 안 됨에 1점을 각각 부과하여 평균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평균 점수의 만점은 5점이 된다.

1.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도움정도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난임가정을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지원규모를 점차 증액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가 대상이다. 우선, 양방병원에서 난임(불임)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유배우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에 관해 질문한 결과, 86.0%가 인지하고 있었다. 정책 수혜 여성이 응답한 도움 정도는 3.98점(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유배우여성의 87.7%로 나타났다. 정책 경험 유배우여성인 응답한 사업의 도움 정도는 평균 3.95점(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민행복카드 사업은 건강보험을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에너지 바우처가 1개의 카드로 통합된 것이다. 이 중 출산 전후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구 고운맘카드)에 대해 인지도와 도

움 정도를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현존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이들 기혼여성 대부분 사업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을 이용한 기혼여성들이 응답한 도움 정도는 4.29점(5점 만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미숙아의료비 지원 사업은 전국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며, 체중별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출생 당시 체중이 2,500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동 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69.4%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소득 기준 제한이 인지도 일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수혜 여성이 응답한 도움 정도는 4.60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일정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단태아 기준 10일간 지원하며, 소득수준과 신생아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고, 일부 본인부담금도 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15~49세) 중 79.8%가 본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들이 응답한 도움 정도는 평균 4.3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경우,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를 제외하면 보편적인 정책이 아닌 관계로 정책의 인지율은 70~8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책 수혜에 따른 도움 정도는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낮고(3.95~3.98), 다른 정책들의 경우에는 4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9-8〉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도움 정도

(단위: %, 점, 명)

구 분	인지율	(명)	도움정도 평균	(명)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86.0	(506)	3.98	(127)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87.7	(506)	3.95	(142)
국민행복카드	100.0	(1,776)	4.29	(1,774)
미숙아 의료비 지원	69.4	(129)	4.60	(37)
산모·신생아건강관리	79.8	(1,776)	4.36	(369)

- 주 : 1) 체외수정시술비지원, 인공수정시술비지원의 경우 난임경험이 있는 유배우여성을 대상으로 질문함.
 2) 국민행복카드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의 경우 2013.1.1.일 이후 출생자녀수가 있는 기혼여성에 한하여 질문함.
 3)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2013.1.1.일 이후 출생자녀 중 출생 당시 체중이 2,500g미만이었거나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사이인 경우에 한하여 질문함.

2. 보육·유아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도움정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양육수당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인지도는 89.7% 나타났다. 양육수당을 이용한 기혼여성들이 체감하는 도움 정도는 평균 4.10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은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취업 여부에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동 사업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인지도는 9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동 사업을 수혜 받은 여성이 응답한 보육료 지원 사업의 도움 정도는 4.34점(5점 만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만 3~5세가 되면 누리과정 지원 정책에 따라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인지도는 92.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비를 지원 받은 수혜 기혼여성이 응답한 도움 정도는 평균 4.22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15~49세)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지도는 91.6%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실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들이 응답한 도움 정도는 평균 4.4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방과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인지도는 87.1%이며, 이용 경험 기혼여성이 응답한 도움 정도는 평균 3.92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보육·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대개 90%에 가깝거나 그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이들 정책의 경우 대상이 비교적 보편적이고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육·유아교육 지원정책의 세부과제들에 대한 만족도도 3.92~4.43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9-9〉 보육·유아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도움 정도

(단위: %, 점, 명)

구 분	인지율	(명)	도움정도 평균	(명)
양육수당	89.7	(11,009)	4.10	(3,001)
보육료 지원	95.1	(11,009)	4.34	(4,130)
유아교육비	92.7	(11,009)	4.22	(2,719)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91.6	(11,009)	4.43	(939)
방과후교실	87.1	(11,009)	3.92	(832)

3.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도움정도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인지도는 97.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이용한 여성들이 응답한 도움 정도는 4.57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향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13.6%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배우자출산휴가제도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인지도는 92.3%로

나타났으며, 정책 수혜 경험이 있는 유배우여성의 만족도는 4.1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에 한하여 향후 남편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을 희망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13.8%는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인지도는 9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기혼여성이 응답한 도움 정도는 4.72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기혼여성(15~49세) 중 육아휴직제도를 향후에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14.2%로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가능성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인지도는 88.7%로 나타났다. 실제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한 기혼여성의 만족도는 4.5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유배우여성을 대상으로 향후 배우자가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10.4%가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인지도는 68.6%로 나타났다. 동 제도의 경우 2008년 법제화가 되고 2011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는 등 제도가 안정화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 다른 제도(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비해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제도 이용자들이 응답한 도움 정도는 4.40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15~49세) 중 향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12.6%로 나타났다.

남성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인지도는 62.7%로 나타났다. 유배우 여성(15~49세) 중 향후 남편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를 활용하길 희망하는 비율은 10.2%이다.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인지도는 59.6%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기혼여성이 응답한 도움 정도는 4.47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기혼여성 중 유연근무제를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13.2%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기혼여성(15~49세)의 인지도는 88.4%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이용자가 응답한 도움 정도는 4.61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기혼여성 중 직장어린이집을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13.2%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 지원의 세부 과제들에 대한 기혼여성의 인지도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정책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 사업들은 남성의 일·가정양립제도나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사업(유연근무제, 직장어린이집 등)인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정책을 수혜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의 만족도가 4.17~4.72점으로 높아 향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혼여성(15~49세)의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은 10%수준대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령 집단별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표 9-10〉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율 및 도움 정도

(단위: %, 점, 명)

구 분	인지율	(명)	도움정도 평균	(명)	향후 이용의향	(명)
출산전후휴가	97.2	(11,009)	4.57	(1,867)	13.6	(11,009)
배우자출산휴가	92.3	(11,009)	4.17	(1,100)	13.8	(10,324)
육아휴직제도	97.4	(11,009)	4.72	(868)	14.2	(11,009)
남성 육아휴직	88.7	(11,009)	4.58	(45)	10.4	(10,32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68.6	(11,009)	4.40	(113)	12.6	(11,009)
남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62.7	(11,009)	4.63*	(7)	10.2	(10,324)
유연근무제	59.6	(11,009)	4.47	(54)	13.2	(11,009)
직장어린이집	88.4	(11,009)	4.61	(61)	13.2	(11,009)

주 : 1) 남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은 유배우여성을 대상으로 질문함.

2) *는 사례수가 30명 미만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제 3 부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행태

제10장 미혼남녀의 결혼가치관

제11장 미혼남녀 본인의 결혼 계획과 정책 욕구

제12장 미혼남녀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태도

제13장 미혼남녀의 저출산 현상 인식과 정책 욕구



10

미혼남녀의 결혼가치관 <<

제1절 결혼에 대한 태도

1. 결혼 필요성

본 조사에서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18.1%, '하는 편이 좋다' 42.7%,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33.0%, '하지 않는 게 낫다' 3.9% 등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7.7%, '하는 편이 좋다' 32.0%,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52.3%, '하지 않는 게 낫다' 5.7% 등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라는 긍정적인 태도는 미혼여성보다 미혼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와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부정적인 태도는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으며, 미혼여성의 경우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한 편이었다.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주지에 따른 결혼에 대한 태도는 미혼남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역으로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는 태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반드시 해야 한다+하는편이 좋다)는 대도시나 농촌에

서 유사하게 나타나나,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결혼을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도시에서는 개인주의화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혼남녀의 연령에 따른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미혼남녀 모두 저연령층일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다)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연령층일수록 결혼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본인이 연령이 높아짐에도 계속 미혼상태로 남아있으면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거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미혼상태로 남아있는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대졸 이상 또는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체적으로 학업을 마친 후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나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남성은 여러 여건이나 개인의 가치관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큰 반면, 아직 재학 중인 미혼남성은 사회생활 진입 전으로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 비해 대졸 이상인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으로 올수록 맞벌이 선호 등으로 취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학 졸업 이상의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취업 여부에 따른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취업 미혼여성이 비취업 미혼여

성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 자체가 결혼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과 연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미혼남성의 경우 비취업 시 결혼 자체가 어렵다는 현실과 취업 시에도 고용불안정이나 미혼상태를 즐기려는 경향 등이 혼재되면서 취업 여부별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모호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0-1〉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게 낫다	모르겠다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8.1	42.7	33.0	3.9	2.4	100.0	(1,096)
거주지($x^2=22.7^{**}$)							
대도시	14.5	47.8	31.4	4.6	1.7	100.0	(538)
중소도시	19.9	38.1	35.8	3.2	3.0	100.0	(402)
농촌	25.9	36.7	30.4	3.2	3.8	100.0	(158)
연령($x^2=49.9^{***}$)							
20~24세	23.0	46.3	24.4	3.6	2.7	100.0	(365)
25~29세	19.7	45.1	29.9	2.1	3.2	100.0	(284)
30~34세	11.8	44.3	38.0	4.1	1.8	100.0	(221)
35~39세	13.1	33.6	45.3	6.6	1.5	100.0	(137)
40~44세	17.0	29.5	46.6	5.7	1.1	100.0	(88)
교육수준($x^2=41.6^{***}$)							
고졸이하	14.1	38.7	38.7	3.9	4.6	100.0	(284)
대학재학	25.5	48.6	21.0	3.4	1.4	100.0	(290)
대졸이상	16.2	41.4	36.5	4.2	1.7	100.0	(524)
취업여부($x^2=4.7$)							
취업	18.9	40.6	33.6	4.6	2.3	100.0	(652)
비취업	16.9	45.6	32.3	2.7	2.5	100.0	(443)
미혼여성 전체	7.7	32.0	52.4	5.7	2.3	100.0	(1,287)
거주지($x^2=4.4$)							
대도시	7.8	33.1	50.2	6.4	2.5	100.0	(683)
중소도시	7.6	30.5	54.9	5.2	1.9	100.0	(463)
농촌	7.7	31.7	54.2	3.5	2.8	100.0	(142)
연령($x^2=71.9^{***}$)							
20~24세	8.9	35.6	48.7	2.5	4.3	100.0	(517)
25~29세	9.3	36.2	48.4	6.1	-	100.0	(378)
30~34세	6.2	24.2	60.4	8.4	0.9	100.0	(227)
35~39세	2.8	23.4	59.8	10.3	3.7	100.0	(107)
40~44세	1.7	18.3	65.0	11.7	3.3	100.0	(60)

〈표 10-1〉 계속

(단위: %, 명)

구 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게 낫다	모르겠다	계	(명)
교육수준($\chi^2=35.8^{***}$)							
고졸이하	4.9	28.0	49.4	13.4	4.3	100.0	(164)
대학재학	8.0	30.3	55.8	2.2	3.6	100.0	(274)
대졸이상	8.1	33.3	51.8	5.3	1.4	100.0	(849)
취업여부($\chi^2=14.2^{**}$)							
취업	8.8	32.3	51.3	6.1	1.3	100.0	(816)
비취업	5.7	31.4	53.9	4.9	4.0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 시에도 고용 불안정이나 기회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혼남녀의 경제활동특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우선, 취업 미혼남성의 경우 관리직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에 따라서는 상대적 고소득층(300만원 이상)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위신 직종에 종사하거나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 자산 형성, 주택 마련 등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기에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3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연령 효과에 기인한다.

취업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사무직종, 대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상용직인 경우에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소득이 보장된 직종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취업 미혼여성의 정규직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도 나타났다. 정규직 미혼여성(44.6%)이 비정규직 미혼여성(36.2%)에 비하여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2〉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게 낫다	모르겠다	계	(명)
취업 미혼남성 전체	18.9	40.6	33.6	4.6	2.3	100.0	(652)
직종							
관리자·전문직	25.3	38.5	30.8	3.3	2.2	100.0	(91)
사무직	17.5	43.5	35.1	3.9	-	100.0	(154)
서비스·판매직	21.9	39.1	34.3	3.0	1.8	100.0	(169)
기타	15.5	40.8	32.8	6.7	4.2	100.0	(238)
직장유형							
공무원, 공공기관	12.7	56.4	27.3	1.8	1.8	100.0	(55)
대기업	21.3	47.5	27.5	3.8	-	100.0	(80)
중소기업	15.1	41.3	36.5	4.5	2.6	100.0	(312)
개인사업체, 기타	25.6	33.0	33.0	5.4	3.0	100.0	(203)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15.1	47.2	34.0	-	3.8	100.0	(53)
상용직	19.0	40.1	34.7	4.2	2.0	100.0	(406)
임시일용직	20.3	40.1	30.7	6.8	2.1	100.0	(192)
정규직 여부 ¹⁾ ($\chi^2=1.9$)							
정규직	19.6	40.6	33.6	4.1	2.1	100.0	(387)
비정규직	18.3	39.4	33.3	6.6	2.3	100.0	(213)
근로소득							
150만원 미만	25.3	25.3	41.4	8.0	-	100.0	(87)
150~200만원 미만	15.6	48.1	24.4	5.2	6.7	100.0	(135)
200~300만원 미만	20.2	44.4	31.0	3.0	1.3	100.0	(297)
300만원 이상	15.2	34.8	43.2	5.3	1.5	100.0	(132)
취업 미혼여성 전체	8.8	32.3	51.3	6.1	1.3	100.0	(816)
직종							
관리자·전문직	9.0	30.7	53.6	6.0	0.6	100.0	(332)
사무직	8.6	36.1	49.1	5.2	1.0	100.0	(291)
서비스·판매직	9.4	28.3	50.3	8.2	3.8	100.0	(159)
기타	2.9	35.3	52.9	5.9	2.9	100.0	(34)

〈표 10-2〉 계속

(단위: %, 명)

구 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게 낫다	모르겠다	계	(명)
직장유형							
공무원, 공공기관	6.4	36.7	52.3	3.7	0.9	100.0	(109)
대기업	15.3	32.7	43.9	6.1	2.0	100.0	(98)
중소기업	7.6	37.0	49.4	5.1	0.9	100.0	(316)
개인사업체, 기타	8.5	25.6	55.6	8.5	1.7	100.0	(293)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12.0	22.7	58.7	5.3	1.3	100.0	(75)
상용직	9.3	35.3	50.1	4.5	0.7	100.0	(535)
임시일용직	6.3	28.5	51.7	10.6	2.9	100.0	(207)
정규직 여부($\chi^2=26.4^{***}$)							
정규직	9.9	34.7	51.2	3.6	0.6	100.0	(496)
비정규직	5.7	30.5	49.6	11.4	2.8	100.0	(246)
근로소득							
150만원 미만	9.4	28.8	47.5	11.3	3.1	100.0	(160)
150~200만원 미만	9.6	32.0	53.2	4.0	1.2	100.0	(250)
200~300만원 미만	9.4	32.0	51.8	5.8	1.0	100.0	(309)
300만원 이상	4.2	40.6	51.0	4.2	-	100.0	(96)

* p<0.05, ** p<0.01, *** p<0.001

주: 1) 비정규직에는 비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포함됨.

-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이상적인 결혼 연령

미혼남성(20~44세)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32~34세(33.4%), 30~31세(31.7%), 35세 이상(21.9%), 28~29세(9.4%) 순으로 평균 32.3세로 나타났다. 미혼여성(20~44세)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32~34세(39.0%), 35세 이상(28.9%), 30~31세(25.3%), 28~29세(5.0%), 27세 이하(1.9%) 순으로 평균 33.0세로 나타났다.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이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상대적으로 높게 생각하고 있다.

미혼남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에 따라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남녀 모두 40~4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고연령층일수록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으로 35세 이상을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저연령층일수록 31세 이하의 연령을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녀 모두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30대를 제시하되, 본인의 현재 연령을 감안하여 고연령층일수록 이상적인 연령을 30대에서 뒤로 늦추는 경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미혼남녀 모두 대학 재학 중의 학생인 경우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을 상대적으로 앞당겨 응답하였고, 반대로 대졸이상의 고학력층인 경우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을 상대적으로 늦추어 응답하였다. 아직 대학 재학 중인 미혼남녀는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비교적 높아 이상적 결혼 연령도 앞당겨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학력층의 경우 본인의 길어진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혼남녀 모두 비취업보다는 취업 중인 경우에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을 상대적으로 늦추어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본인이 취업 중인 경우에 학교 졸업, 취업 등으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응답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도시와 농촌에서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없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0-3〉 미혼남녀(20~44세)의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계	(명)	평균 연령
미혼남성 전체	3.6	9.4	31.7	33.4	21.9	100.0	(1,096)	32.3
거주지($\chi^2=6.7$)								
대도시	4.3	8.0	30.4	35.4	22.0	100.0	(537)	32.4
중소도시	3.2	11.2	33.8	30.3	21.4	100.0	(402)	32.2
농촌	2.5	9.5	30.4	34.8	22.8	100.0	(158)	32.5

〈표 10-3〉 계속

(단위: %, 명, 세)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계	(명)	평균 연령
연령($\chi^2=239.4^{***}$)								
20~24세	6.1	18.5	42.4	28.9	4.1	100.0	(363)	30.9
25~29세	2.4	5.9	30.4	43.7	17.5	100.0	(286)	32.4
30~34세	2.7	5.0	21.7	38.5	32.1	100.0	(221)	33.3
35~39세	-	2.2	20.4	27.0	50.4	100.0	(137)	34.0
40~44세	4.5	4.5	34.1	17.0	39.8	100.0	(88)	33.1
교육수준($\chi^2=103.7^{***}$)								
고졸이하	5.3	7.8	29.3	29.3	28.3	100.0	(283)	32.5
대학재학	4.8	18.7	39.1	31.8	5.5	100.0	(289)	31.2
대졸이상	2.1	5.0	28.8	36.5	27.7	100.0	(524)	32.9
취업여부($\chi^2=23.9^{**}$)								
취업	4.1	6.9	29.4	34.2	25.4	100.0	(653)	32.5
비취업	2.9	13.1	35.0	32.3	16.7	100.0	(443)	32.1
미혼여성 전체								
	1.8	5.0	25.2	39.0	28.9	100.0	(1,287)	33.0
거주지($\chi^2=11.7$)								
대도시	2.1	3.8	24.6	38.4	31.1	100.0	(682)	33.1
중소도시	1.1	6.5	25.3	41.0	26.1	100.0	(463)	32.9
농촌	3.5	4.9	28.2	35.9	27.5	100.0	(142)	32.8
연령($\chi^2=237.0^{***}$)								
20~24세	3.3	9.3	34.4	37.3	15.7	100.0	(515)	32.1
25~29세	-	2.9	21.8	53.6	21.8	100.0	(377)	33.1
30~34세	3.1	0.9	17.6	30.0	48.5	100.0	(227)	34.0
35~39세	-	2.8	15.0	22.4	59.8	100.0	(107)	34.3
40~44세	-	-	16.7	26.7	56.7	100.0	(60)	34.2
교육수준($\chi^2=50.7^{***}$)								
고졸이하	3.7	3.7	28.2	28.8	35.6	100.0	(163)	33.2
대학재학	2.6	8.1	34.8	37.4	17.2	100.0	(273)	32.2
대졸이상	1.2	4.2	21.6	41.6	31.4	100.0	(851)	33.2
취업여부($\chi^2=26.0^{**}$)								
취업	1.7	3.7	23.0	38.4	33.2	100.0	(817)	33.3
비취업	2.1	7.2	29.1	39.9	21.7	100.0	(471)	32.6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30~31세(41.4%), 28~29세(27.9%), 27세 이하(19.3%) 순으로 평균 29.7세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30~31세(43.3%), 28~29세(20.0%), 32~34세(19.9%) 순으로 평균 30.8세로 나

타났다.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혼 남성보다 미혼여성이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상대적으로 늦게 생각하고 있다.

미혼남성은 40~44세 고연령층을 제외하면 고연령층일수록 30~31세를 이상적인 결혼 연령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40~44세 연령층을 제외하면 고연령층일수록 35세 이상을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녀는 대체적으로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30대 초반을 제시하였으나, 본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고연령층에서는 그만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30대 후반 쪽으로 늦추어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혼남녀 모두 고학력층일수록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을 늦추어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본인의 길어진 교육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혼남녀 공히 현재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비교적 높아서 이상적인 결혼 연령을 상대적으로 가장 앞당겨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비취업에 비해 취업인 경우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을 낮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혼여성은 비취업에 비해 취업인 경우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을 높게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요컨대, 취업 미혼남성은 경제력 등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배우자가 될 여성의 결혼 연령을 보다 이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취업 미혼여성은 취업 준비에 따른 결혼 지연, 직장에서의 경력 유지, 자기개발 등으로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를 이상적인 결혼 연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는 거주지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표 10-4〉 미혼남녀(20~44세)의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계	(명)	평균 연령
미혼남성 전체	19.3	27.9	41.4	7.7	3.6	100.0	(1,096)	29.7
거주지($\chi^2=7.5$)								
대도시	17.2	29.1	43.7	6.5	3.5	100.0	(536)	29.7
중소도시	20.6	26.6	39.3	9.2	4.2	100.0	(402)	29.7
농촌	22.9	27.4	39.5	7.6	2.5	100.0	(157)	29.6
연령($\chi^2=82.0^{***}$)								
20~24세	26.8	30.7	35.9	6.0	0.5	100.0	(365)	29.0
25~29세	20.3	29.4	39.2	9.1	2.1	100.0	(286)	29.6
30~34세	10.0	30.0	44.5	8.2	7.3	100.0	(220)	30.3
35~39세	11.0	16.9	60.3	6.6	5.1	100.0	(136)	30.2
40~44세	20.7	23.0	35.6	11.5	9.2	100.0	(87)	30.1
교육수준($\chi^2=32.2^{***}$)								
고졸이하	19.8	24.0	43.8	8.5	3.9	100.0	(283)	29.7
대학재학	25.6	33.9	33.6	6.2	0.7	100.0	(289)	29.1
대졸이상	15.7	26.8	44.4	8.0	5.2	100.0	(523)	29.9
취업여부($\chi^2=10.3$)								
취업	19.6	26.2	43.6	8.1	2.5	100.0	(652)	29.6
비취업	18.7	30.5	38.4	7.0	5.4	100.0	(443)	29.7
미혼여성 전체	9.3	19.9	43.3	19.9	7.6	100.0	(1,287)	30.8
거주지($\chi^2=8.7$)								
대도시	9.0	18.5	44.5	20.6	7.5	100.0	(681)	30.8
중소도시	9.3	19.4	44.1	19.2	8.0	100.0	(463)	30.8
농촌	10.6	28.2	35.9	19.0	6.3	100.0	(142)	30.4
연령($\chi^2=258.7^{***}$)								
20~24세	14.1	29.2	42.9	11.0	2.7	100.0	(517)	30.0
25~29세	5.0	21.8	50.1	19.4	3.7	100.0	(377)	30.7
30~34세	7.0	5.7	32.9	36.8	17.5	100.0	(228)	31.9
35~39세	9.3	4.7	30.8	30.8	24.3	100.0	(107)	32.2
40~44세	3.4	8.5	64.4	16.9	6.8	100.0	(59)	31.0
교육수준($\chi^2=57.6^{***}$)								
고졸이하	16.0	12.9	42.3	14.7	14.1	100.0	(163)	30.8
대학재학	9.8	28.4	46.2	13.5	2.2	100.0	(275)	30.1
대졸이상	7.8	18.6	42.6	23.1	8.0	100.0	(850)	30.9
취업여부($\chi^2=28.4^{***}$)								
취업	9.2	17.4	41.2	23.7	8.4	100.0	(817)	30.9
비취업	9.4	24.5	46.8	13.2	6.2	100.0	(470)	30.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결혼 문화와 형식에 관한 태도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20~44세)의 68.9%, 미혼여성(20~44세)의 67.5%가 각각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남녀 간 비교를 해보면 동 태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견해에 대한 찬성 비율은 미혼남녀 모두 저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세대 간 가족가치관의 차이로 간주할 수 있다. 찬성 태도는 미혼남성의 경우 대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거주지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동 견해에 대한 태도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 미혼남성의 찬성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교육수준별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아 학력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0-5〉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7.0	51.9	26.4	4.7	100.0	(1,096)
거주지($\chi^2=13.0^*$)						
대도시	15.1	49.5	30.9	4.5	100.0	(537)
중소도시	18.5	53.6	22.7	5.2	100.0	(401)
농촌	20.3	55.7	20.3	3.8	100.0	(158)
연령($\chi^2=36.3^{***}$)						
20~24세	13.7	53.7	30.1	2.5	100.0	(365)
25~29세	13.7	58.9	23.2	4.2	100.0	(285)
30~34세	22.6	43.0	28.5	5.9	100.0	(221)
35~39세	25.0	47.8	19.1	8.1	100.0	(136)
40~44세	15.7	49.4	27.0	7.9	100.0	(89)

〈표 10-5〉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교육수준($\chi^2=12.8$)						
고졸이하	21.1	48.9	23.9	6.0	100.0	(284)
대학재학	13.1	54.7	29.8	2.4	100.0	(289)
대졸이상	17.0	51.8	25.9	5.3	100.0	(525)
취업여부($\chi^2=5.0$)						
취업	18.7	50.7	25.3	5.4	100.0	(653)
비취업	14.6	53.6	27.9	3.8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14.5	53.0	27.7	4.8	100.0	(1,287)
거주지($\chi^2=5.5$)						
대도시	16.0	50.7	28.0	5.3	100.0	(682)
중소도시	12.1	56.6	27.0	4.3	100.0	(463)
농촌	15.5	51.4	28.2	4.9	100.0	(142)
연령($\chi^2=32.3^{**}$)						
20~24세	12.8	57.4	25.9	3.9	100.0	(517)
25~29세	18.5	50.0	28.0	3.4	100.0	(378)
30~34세	11.0	48.2	30.7	10.1	100.0	(228)
35~39세	17.0	48.1	32.1	2.8	100.0	(106)
40~44세	13.3	60.0	20.0	6.7	100.0	(60)
교육수준($\chi^2=10.5$)						
고졸이하	19.6	49.1	27.6	3.7	100.0	(163)
대학재학	9.9	58.4	27.7	4.0	100.0	(274)
대졸이상	15.1	52.1	27.6	5.3	100.0	(849)
취업여부($\chi^2=2.4$)						
취업	15.5	51.7	27.7	5.1	100.0	(817)
비취업	12.9	55.1	27.5	4.4	100.0	(47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21.1%, 미혼여성의 27.8%가 각각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남녀 공히 부정적인 태도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간 비교해 보면, 미혼여성에 비해 미혼남성의 반대 정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 거주지에 관계없이 동 견해에 대한 태도가 거의 유사한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반대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도시 지역에서의 신혼 집 마

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저연령층일수록 동 견해에 대해 반대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세대의 남성일수록 길어진 교육기간,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으로 자산형성이 충분하지 않으나 주택비용은 고비용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 혼자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미혼여성의 연령별로는 동 견해에 대한 찬성 정도가 꺾형(\cap)으로 나타났는데, 저연령층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고연령층은 혼수에 대한 부담 등으로 반대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대학 재학 중인 집단에서 동 견해에 대한 반대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아직 학생으로서 자산형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이 주택을 전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대학 재학의 집단에서 동 견해에 대한 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오히려 고학력층에서 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고학력 여성 집단의 경우 일부이지만 결혼 준비에 있어서 남녀 간 역할 구분을 명료화하려는 경향이 존재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비취업 여성에 비해 취업 여성이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 여성의 경우 본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결혼 준비에 대한 성분업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6〉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5	19.6	56.9	22.1	100.0	(1,096)
거주지($\chi^2=8.1$)						
대도시	1.7	16.8	60.4	21.1	100.0	(536)
중소도시	1.0	22.2	54.1	22.7	100.0	(401)
농촌	1.9	22.2	51.9	24.1	100.0	(158)
연령($\chi^2=30.5^{**}$)						
20~24세	1.1	15.1	58.1	25.8	100.0	(365)
25~29세	1.0	21.7	52.8	24.5	100.0	(286)
30~34세	2.3	22.2	51.1	24.4	100.0	(221)
35~39세	1.5	19.9	66.9	11.8	100.0	(136)
40~44세	3.4	23.6	62.9	10.1	100.0	(89)
교육수준($\chi^2=21.7^{**}$)						
고졸이하	1.1	23.6	58.8	16.5	100.0	(284)
대학재학	0.7	12.5	61.2	25.6	100.0	(289)
대졸이상	2.1	21.4	53.4	23.1	100.0	(524)
취업여부($\chi^2=3.5$)						
취업	1.1	21.0	56.4	21.6	100.0	(653)
비취업	2.0	17.6	57.4	23.0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3.3	24.5	56.4	15.9	100.0	(1,287)
거주지($\chi^2=13.7^*$)						
대도시	4.4	24.0	57.3	14.2	100.0	(682)
중소도시	2.6	26.1	52.6	18.8	100.0	(464)
농촌	0.7	21.0	63.6	14.7	100.0	(143)
연령($\chi^2=41.4^{***}$)						
20~24세	0.6	21.7	58.7	19.0	100.0	(516)
25~29세	3.7	26.5	57.6	12.2	100.0	(377)
30~34세	7.5	28.2	49.3	15.0	100.0	(227)
35~39세	5.6	25.0	50.9	18.5	100.0	(108)
40~44세	3.3	20.0	65.0	11.7	100.0	(60)
교육수준($\chi^2=23.0^{***}$)						
고졸이하	2.4	21.3	60.4	15.9	100.0	(164)
대학재학	0.7	17.5	64.0	17.8	100.0	(275)
대졸이상	4.2	27.3	53.1	15.3	100.0	(849)
취업여부($\chi^2=17.5^{**}$)						
취업	3.9	27.5	54.7	14.0	100.0	(816)
비취업	2.1	19.3	59.2	19.3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식은 격식을 갖추어 예단, 예물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 남성은 15.2%, 미혼여성은 12.6%만이 찬성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남녀 공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가 보다 보편화되어 있는 관계로 미혼남녀의 특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만, 미혼남녀 모두 30~34세 연령층에서 동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녀 공히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한 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혼남성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인 경우에 비해 비취업인 경우에 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7〉 ‘결혼식은 격식을 갖추어 예단, 예물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 (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7	13.5	58.6	26.2	100.0	(1,096)
거주지($x^2=6.2$)						
대도시	2.2	13.2	58.5	26.1	100.0	(537)
중소도시	1.0	13.0	61.3	24.7	100.0	(401)
농촌	1.3	15.9	52.2	30.6	100.0	(157)
연령($x^2=23.2$)						
20~24세	1.1	15.9	60.0	23.0	100.0	(365)
25~29세	1.4	10.5	55.2	32.9	100.0	(286)
30~34세	4.1	14.5	58.4	23.1	100.0	(221)
35~39세	0.7	11.7	62.0	25.5	100.0	(137)
40~44세	-	15.7	58.4	25.8	100.0	(89)
교육수준($x^2=14.6$)						
고졸이하	1.8	13.7	65.5	19.0	100.0	(284)
대학재학	1.4	16.6	55.0	27.0	100.0	(289)
대졸이상	1.9	11.8	56.8	29.5	100.0	(525)
취업여부($x^2=11.2$)						
취업	1.2	11.3	59.0	28.4	100.0	(652)
비취업	2.5	16.7	58.0	22.8	100.0	(443)

〈표 10-7〉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여성 전체	2.0	10.6	56.6	30.9	100.0	(1,287)
거주지($\chi^2=7.1$)						
대도시	2.6	11.1	55.5	30.7	100.0	(683)
중소도시	1.3	10.8	58.5	29.4	100.0	(463)
농촌	0.7	7.7	55.6	35.9	100.0	(142)
연령($\chi^2=45.3^{***}$)						
20~24세	0.4	12.2	58.9	28.5	100.0	(516)
25~29세	1.9	10.3	57.3	30.5	100.0	(377)
30~34세	6.1	8.3	51.8	33.8	100.0	(228)
35~39세	1.9	13.2	47.2	37.7	100.0	(106)
40~44세	-	-	67.8	32.2	100.0	(59)
교육수준($\chi^2=17.9^{**}$)						
고졸이하	2.4	4.3	61.6	31.7	100.0	(164)
대학재학	0.4	13.5	60.2	25.9	100.0	(274)
대졸이상	2.5	10.8	54.5	32.2	100.0	(850)
취업여부($\chi^2=1.7$)						
취업	2.1	9.8	57.4	30.8	100.0	(816)
비취업	1.7	11.9	55.3	31.1	100.0	(47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식은 호화롭게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5%, 미혼여성의 4.7%만이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이에 따라 미혼남녀의 일반특성(거주지, 연령,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미세한 차이지만 미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 재학,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순으로 동 견해에 대한 찬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허례허식 문화에서 벗어나 실속형 혼인문화에 대해 미혼남녀 모두 적극 동의하고 있었다.

〈표 10-8〉 ‘결혼식은 호화롭게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0.2	4.8	44.9	50.1	100.0	(1,096)
거주지						
대도시	0.2	5.2	46.0	48.6	100.0	(537)
중소도시	-	3.7	43.9	52.4	100.0	(401)
농촌	-	6.4	43.9	49.7	100.0	(157)
연령						
20~24세	-	6.3	46.4	47.3	100.0	(364)
25~29세	0.3	3.8	43.4	52.4	100.0	(286)
30~34세	-	4.5	46.8	48.6	100.0	(222)
35~39세	1.5	2.9	45.3	50.4	100.0	(137)
40~44세	-	6.7	38.2	55.1	100.0	(89)
교육수준						
고졸이하	-	7.4	47.9	44.7	100.0	(284)
대학재학	-	4.9	47.9	47.2	100.0	(288)
대졸이상	0.4	3.4	41.7	54.5	100.0	(525)
취업여부						
취업	0.3	4.3	43.0	52.4	100.0	(653)
비취업	0.2	5.6	47.5	46.6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0.7	4.0	44.0	51.3	100.0	(1,287)
거주지($\chi^2=7.2$)						
대도시	0.9	4.0	44.0	51.2	100.0	(682)
중소도시	0.9	4.3	46.2	48.6	100.0	(463)
농촌	-	2.8	36.6	60.6	100.0	(142)
연령						
20~24세	0.6	3.7	51.4	44.4	100.0	(516)
25~29세	-	5.8	44.0	50.1	100.0	(377)
30~34세	1.8	3.5	38.6	56.1	100.0	(228)
35~39세	1.9	2.8	26.2	69.2	100.0	(107)
40~44세	-	-	31.7	68.3	100.0	(60)
교육수준($\chi^2=29.7^{***}$)						
고졸이하	1.2	1.2	34.1	63.4	100.0	(164)
대학재학	0.4	6.9	52.2	40.5	100.0	(274)
대졸이상	0.7	3.5	43.2	52.5	100.0	(849)
취업여부($\chi^2=0.9$)						
취업	0.7	3.7	43.5	52.1	100.0	(816)
비취업	0.6	4.5	45.0	49.9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혼인신고는 결혼식 이후 함께 살아 본 뒤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44.0%, 미혼여성의 54.8%가 찬성하여 남녀 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즉,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태도는 부정적인 편이나 미혼여성의 태도는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결혼 해체 이후 여성이 남성보다 겪어야 할 사회적·문화적 냉대나 어려움 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이 법률적 신고에 대해 더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혼남성의 일반특성 중 교육수준을 제외하고는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혼여성의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동 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만큼 이혼과 관련한 간접적 경험들이 더 많아 혼인신고를 통한 법적 지위 형성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혼남녀 공히 고졸 이하 학력층에서 동 견해에 대한 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미혼여성의 경우 비취업 여성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한 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9〉 ‘혼인신고는 결혼식 이후 함께 살아 본 뒤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6.7	37.3	42.2	13.8	100.0	(1,096)
거주지($\chi^2=7.3$)						
대도시	7.1	39.5	41.0	12.5	100.0	(537)
중소도시	6.5	35.6	44.8	13.2	100.0	(402)
농촌	6.3	34.2	39.9	19.6	100.0	(158)

〈표 10-9〉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연령($x^2=18.7$)						
20~24세	4.4	33.0	46.4	16.2	100.0	(364)
25~29세	8.1	37.5	39.6	14.7	100.0	(285)
30~34세	6.8	44.1	37.8	11.3	100.0	(222)
35~39세	8.0	41.6	40.1	10.2	100.0	(137)
40~44세	9.0	31.5	47.2	12.4	100.0	(89)
교육수준($x^2=13.4^*$)						
고졸이하	8.1	41.0	37.5	13.4	100.0	(283)
대학재학	4.8	32.5	44.3	18.3	100.0	(289)
대졸이상	6.9	37.9	43.6	11.6	100.0	(525)
취업여부($x^2=7.3$)						
취업	8.3	37.0	42.2	12.6	100.0	(652)
비취업	4.5	37.8	42.1	15.5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10.1	44.7	32.9	12.2	100.0	(1,287)
거주지($x^2=5.5$)						
대도시	10.0	43.5	33.5	13.0	100.0	(683)
중소도시	9.7	46.0	31.5	12.7	100.0	(463)
농촌	12.6	46.2	34.3	7.0	100.0	(143)
연령($x^2=22.0^*$)						
20~24세	7.8	45.7	35.5	11.0	100.0	(516)
25~29세	10.1	44.2	32.0	13.8	100.0	(378)
30~34세	11.9	47.1	28.6	12.3	100.0	(227)
35~39세	16.0	41.5	35.8	6.6	100.0	(106)
40~44세	15.0	35.0	28.3	21.7	100.0	(60)
교육수준($x^2=19.2^*$)						
고졸이하	14.7	44.8	32.5	8.0	100.0	(163)
대학재학	6.6	49.3	36.1	8.0	100.0	(274)
대졸이상	10.4	43.2	32.0	14.4	100.0	(849)
취업여부($x^2=10.2^*$)						
취업	10.3	43.9	31.5	14.3	100.0	(816)
비취업	9.8	46.2	35.5	8.5	100.0	(47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미혼남녀의 결혼 문화와 형식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견해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적으로 찬성에 4 점, 대체로 찬성에 3점, 별로 찬성하지 않음에 2점,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 1점씩 각각 부과한 후 가중평균점수를 산정하였다. 태도 점수 2.5점을 중

심으로 그보다 큰 경우에는 찬성하는 태도가 우세하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의 외향적인 측면(격식을 갖춘 예단 및 예물, 호화로운 결혼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다소나마 우세하며(2.65~2.80점/4점), 혼인신고는 함께 살아본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태도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태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2.65점/4점). 반대로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태도나 ‘남자는 집-여자는 혼수 마련’에 대한 태도는 반대하는 경향이 다소나마 우세하게 나타났다(1.98~2.09점/4점).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예단 및 예물 등 격식에 대한 찬성 정도가 3.13점으로 높게 나타나나, 호화로운 결혼식이나 결혼식 이후 함께 살아 본 후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가 다소 높았다(각 2.43점/4점).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태도나 ‘남자는 집-여자는 혼수 마련’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정도가 낮고(1.81~1.92점/4점), 미혼남성보다도 그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미혼남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다소나마 형식을 중시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절차를 중시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한편, 결혼 관계나 준비에 대한 태도는 미혼남녀 모두 전통적 방식을 지양하고, 일정한 결혼의 격식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10-10〉 결혼 문화와 형식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점)

견해	성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가중평균 점수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미혼남성	17.0	51.9	26.4	4.7	100.0(1,096)	2.81
	미혼여성	14.5	53.0	27.7	4.8	100.0(1,287)	2.77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	미혼남성	1.5	19.6	56.9	22.1	100.0(1,096)	2.00
	미혼여성	3.3	24.5	56.4	15.9	100.0(1,287)	2.15

〈표 10-10〉 계속

(단위: %, 명, 점)

견해	성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가중평균 점수
결혼식은 격식을 갖추어 예단, 예물을 해야 한다	미혼남성	1.7	13.5	58.6	26.2	100.0(1,096)	1.91
	미혼여성	2.0	10.6	56.6	30.9	100.0(1,287)	1.84
결혼식은 호화롭게 해야 한다	미혼남성	0.2	4.8	44.9	50.1	100.0(1,096)	1.55
	미혼여성	0.7	4.0	44.0	51.3	100.0(1,287)	1.54
혼인신고는 결혼식 이후 함께 살아 본 뒤 하는 것이 좋다	미혼남성	6.7	37.3	42.2	13.8	100.0(1,096)	2.37
	미혼여성	10.1	44.7	32.9	12.2	100.0(1,287)	2.53

4. 결혼비용에 대한 태도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걱정하다고 생각하는 전체 결혼 비용(주택비용 제외)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은 1,000~2,000만원 이하(29.4%), 2,000~3,000만원 이하(26.6%), 4,000만원 초과(22.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혼여성은 2,000~3,000만원 이하(30.9%), 1,000~2,000만원 이하(23.7%), 4,000만원 초과(22.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걱정 결혼비용에 대한 태도는 미혼남성의 일반특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거주지와 연령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이 농촌보다 도시(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걱정 결혼비용으로 3,000~4,000만원과 4,000만원 초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경향 등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미혼여성의 연령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혼여성의 교육수준이나 취업여부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은 결혼 비용에 대한 기대가 교육수준이나 현재의 취업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편적인 경향이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표 10-11〉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결혼 비용(주택비용 제외)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1,000만원 이하	1,000~2,000만원 이하	2,000~3,000만원 이하	3,000~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4.3	29.4	26.6	7.3	22.4	100.0	(1,096)
거주지($\chi^2=7.4$)							
대도시	12.8	27.2	28.5	8.2	23.3	100.0	(537)
중소도시	15.9	32.6	23.9	6.2	21.4	100.0	(402)
농촌	15.3	28.7	26.8	7.6	21.7	100.0	(157)
연령($\chi^2=24.7$)							
20~24세	15.9	31.0	24.2	4.7	24.2	100.0	(364)
25~29세	12.6	24.5	32.2	8.4	22.4	100.0	(286)
30~34세	15.4	34.8	23.1	7.2	19.5	100.0	(221)
35~39세	13.1	25.5	24.8	13.1	23.4	100.0	(137)
40~44세	12.4	30.3	29.2	6.7	21.3	100.0	(89)
교육수준($\chi^2=7.0$)							
고졸이하	16.3	26.5	28.3	8.8	20.1	100.0	(283)
대학재학	14.2	32.2	23.9	5.5	24.2	100.0	(289)
대졸이상	13.4	29.4	27.2	7.5	22.6	100.0	(523)
취업여부($\chi^2=9.4$)							
취업	13.2	27.1	29.2	7.7	22.8	100.0	(653)
비취업	16.2	32.7	22.5	6.8	21.8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11.0	23.7	30.9	11.7	22.7	100.0	(1,287)
거주지($\chi^2=15.8$)							
대도시	11.1	21.4	30.8	12.9	23.8	100.0	(682)
중소도시	9.5	24.4	32.4	10.8	22.9	100.0	(463)
농촌	15.5	32.4	26.8	9.2	16.2	100.0	(142)
연령($\chi^2=33.3^{**}$)							
20~24세	11.4	24.4	30.0	10.8	23.4	100.0	(517)
25~29세	10.6	22.5	31.3	13.8	21.8	100.0	(377)
30~34세	5.3	22.5	36.6	14.1	21.6	100.0	(227)
35~39세	21.3	27.8	22.2	3.7	25.0	100.0	(108)
40~44세	11.9	23.7	28.8	13.6	22.0	100.0	(59)
교육수준($\chi^2=11.1$)							
고졸이하	12.8	30.5	28.7	9.1	18.9	100.0	(164)
대학재학	10.9	26.2	26.9	11.6	24.4	100.0	(275)
대졸이상	10.7	21.6	32.6	12.2	22.9	100.0	(849)
취업여부($\chi^2=4.6$)							
취업	10.5	23.1	30.6	13.2	22.5	100.0	(817)
비취업	11.7	24.8	31.2	9.3	22.9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부부의 역할에 관한 태도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24.2%, 미혼여성의 18.2%가 각각 찬성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여성의 고학력화,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이인부양체계로의 전환, 양성평등 문화 등의 영향으로 여성에게 보조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녀 모두 대체적으로 저연령층일수록 동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 거주자인 경우,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 등으로 그리고 저연령층일수록 교육과 문화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미혼남녀 공히 현재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 다른 학력층에 비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현재 대학 재학 중인 미혼남녀는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으로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만큼 여성의 경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취업 중인 미혼여성은 취업 중인 미혼여성에 비해 남성에 대한 지원의 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인의 취업이나 진로 등과 관련하여 취업 중인 미혼여성에 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취업 중인 경우가 비취업 중인 경우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한 찬성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12〉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2.8	21.4	57.9	17.9	100.0	(1,096)
거주지($\chi^2=1.0$)						
대도시	3.0	20.7	58.0	18.3	100.0	(536)
중소도시	3.0	22.1	57.2	17.7	100.0	(402)
농촌	1.9	21.5	59.5	17.1	100.0	(158)
연령($\chi^2=28.6^{**}$)						
20~24세	2.7	16.5	59.1	21.7	100.0	(364)
25~29세	2.1	21.1	57.5	19.3	100.0	(285)
30~34세	5.0	24.3	56.8	14.0	100.0	(222)
35~39세	2.2	24.3	55.1	18.4	100.0	(136)
40~44세	-	31.8	61.4	6.8	100.0	(88)
교육수준($\chi^2=22.3^{**}$)						
고졸이하	4.9	24.0	57.6	13.4	100.0	(283)
대학재학	1.7	15.2	59.5	23.5	100.0	(289)
대졸이상	2.1	23.3	57.3	17.4	100.0	(524)
취업여부($\chi^2=30.6^{***}$)						
취업	2.9	25.6	58.0	13.5	100.0	(653)
비취업	2.5	15.3	57.8	24.4	100.0	(443)
미혼여성 전체	1.9	16.3	54.0	27.9	100.0	(1,287)
거주지($\chi^2=13.3^{\dagger}$)						
대도시	1.0	18.0	53.2	27.7	100.0	(682)
중소도시	1.9	14.7	54.6	28.7	100.0	(463)
농촌	4.9	13.4	55.6	26.1	100.0	(142)
연령($\chi^2=36.7^{***}$)						
20~24세	1.0	13.4	53.1	32.6	100.0	(516)
25~29세	1.6	15.6	55.4	27.3	100.0	(377)
30~34세	5.3	20.3	50.7	23.8	100.0	(227)
35~39세	0.9	23.4	56.1	19.6	100.0	(107)
40~44세	-	18.3	60.0	21.7	100.0	(60)

〈표 10-12〉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교육수준($\chi^2=55.1^{***}$)						
고졸이하	6.1	17.7	60.4	15.9	100.0	(164)
대학재학	0.7	11.3	46.7	41.2	100.0	(274)
대졸이상	1.4	17.6	55.1	25.9	100.0	(849)
취업여부($\chi^2=11.9^{**}$)						
취업	2.0	17.1	56.3	24.6	100.0	(817)
비취업	1.7	14.9	49.9	33.5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20.0%, 미혼여성의 13.7%가 각각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전통적 성 역할 분업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반대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은 농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미혼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저연령층일수록 동 견해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 재학,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순으로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하여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남성들은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미혼남성의 경우 비취업자에게

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취업 미혼남성 대부분은 실업 중인 상태로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성 분업적 역할에 대한 반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13〉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2.4	17.6	55.3	24.7	100.0	(1,096)
거주지($\chi^2=10.7$)						
대도시	2.2	19.5	53.0	25.3	100.0	(538)
중소도시	2.7	13.9	60.7	22.6	100.0	(402)
농촌	2.5	20.9	48.7	27.8	100.0	(158)
연령($\chi^2=36.1^{***}$)						
20~24세	2.5	12.9	55.2	29.4	100.0	(364)
25~29세	1.4	17.2	52.3	29.1	100.0	(285)
30~34세	3.6	18.6	60.2	17.6	100.0	(221)
35~39세	0.7	22.1	55.1	22.1	100.0	(136)
40~44세	4.5	29.2	53.9	12.4	100.0	(89)
교육수준($\chi^2=26.8$)						
고졸이하	4.6	23.0	55.5	17.0	100.0	(283)
대학재학	1.0	14.2	53.5	31.3	100.0	(288)
대졸이상	2.1	16.6	56.1	25.2	100.0	(524)
취업여부($\chi^2=9.8$)						
취업	2.6	19.2	56.7	21.5	100.0	(652)
비취업	2.0	15.3	53.3	29.3	100.0	(443)
미혼여성 전체	2.0	11.7	51.5	34.8	100.0	(1,287)
거주지($\chi^2=19.0^{**}$)						
대도시	0.9	13.2	54.2	31.7	100.0	(681)
중소도시	2.8	10.6	49.2	37.4	100.0	(463)
농촌	4.2	8.5	46.5	40.8	100.0	(142)
연령($\chi^2=39.1^{***}$)						
20~24세	1.5	10.6	48.2	39.7	100.0	(517)
25~29세	1.3	13.2	48.4	37.0	100.0	(378)
30~34세	4.8	11.0	56.8	27.3	100.0	(227)
35~39세	-	11.2	57.9	30.8	100.0	(107)
40~44세	1.7	16.7	68.3	13.3	100.0	(60)

〈표 10-13〉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교육수준($\chi^2=37.1^{***}$)						
고졸이하	5.5	11.7	63.8	19.0	100.0	(163)
대학재학	1.1	9.9	46.0	43.1	100.0	(274)
대졸이상	1.5	12.4	51.1	35.1	100.0	(850)
취업여부($\chi^2=14.0^{**}$)						
취업	1.6	11.6	55.3	31.5	100.0	(816)
비취업	2.5	11.9	45.2	40.3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73.1%, 미혼여성의 87.9%가 각각 찬성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여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거주지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농촌, 대도시 거주 순으로 남성의 가사 분담 증가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거주하는 미혼남성의 경우 분주한 도시생활, 지나친 경쟁사회, 일-가정양립 곤란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남성의 가사 분담을 늘리는데 다소나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미혼남녀 모두 고졸이하인경우가 대학 재학이나 대졸이상인 경우에 비해 찬성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학력층의 경우 교육 등의 영향으로 양성평등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남성의 가사 참여 증가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 외 미혼남성의 연령, 취업여부 그리고 미혼여성의 일반특성별(거주지, 연령,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14〉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 (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0.0	63.1	24.2	2.7	100.0	(1,096)
거주지($\chi^2=24.4^{**}$)						
대도시	7.4	61.6	27.4	3.5	100.0	(537)
중소도시	14.9	63.4	19.9	1.7	100.0	(402)
농촌	6.3	67.1	24.7	1.9	100.0	(158)
연령($\chi^2=14.6$)						
20~24세	9.6	60.5	26.0	3.8	100.0	(365)
25~29세	11.2	59.4	26.6	2.8	100.0	(286)
30~34세	8.6	69.2	19.5	2.7	100.0	(221)
35~39세	10.2	68.6	20.4	0.7	100.0	(137)
40~44세	11.4	61.4	27.3	-	100.0	(88)
교육수준($\chi^2=17.4^{**}$)						
고졸이하	11.7	55.8	31.1	1.4	100.0	(283)
대학재학	7.6	64.4	24.6	3.5	100.0	(289)
대졸이상	10.3	66.4	20.2	3.1	100.0	(524)
취업여부($\chi^2=2.6$)						
취업	9.4	64.1	24.4	2.1	100.0	(652)
비취업	11.1	61.6	23.9	3.4	100.0	(443)
미혼여성 전체	26.6	61.3	10.5	1.6	100.0	(1,287)
거주지($\chi^2=9.7$)						
대도시	25.5	62.3	11.1	1.0	100.0	(682)
중소도시	27.6	61.6	8.4	2.4	100.0	(463)
농촌	28.9	54.9	14.8	1.4	100.0	(142)
연령($\chi^2=14.5$)						
20~24세	27.5	60.1	9.7	2.7	100.0	(516)
25~29세	26.8	60.7	11.7	0.8	100.0	(377)
30~34세	27.8	59.9	11.9	0.4	100.0	(227)
35~39세	23.6	66.0	8.5	1.9	100.0	(106)
40~44세	18.6	72.9	8.5	-	100.0	(59)
교육수준($\chi^2=13.4^*$)						
고졸이하	20.1	61.6	16.5	1.8	100.0	(164)
대학재학	31.0	58.8	8.0	2.2	100.0	(274)
대졸이상	26.5	62.1	10.1	1.3	100.0	(849)
취업여부($\chi^2=3.6$)						
취업	26.9	61.0	11.0	1.1	100.0	(816)
비취업	26.3	61.8	9.6	2.3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59.4%, 미혼여성의 46.7%가 각각 찬성하여, 미혼남성은 긍정적인 태도가 그리고 미혼여성은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약 절반 수준도 여성을 주된 양육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미혼남성의 경우 저연령층일수록 동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최근 세대일수록 육아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취업 미혼남성에 비해 취업 미혼남성에게서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인들이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고졸 이하인 경우가 대학 재학이나 대졸 이상인 미혼남성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데, 교육 등에 의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미혼남성의 거주지 그리고 미혼여성의 일반특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5〉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 (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1.0	48.4	35.2	5.3	100.0	(1,096)
거주지($\chi^2=10.5$)						
대도시	11.5	49.2	33.1	6.1	100.0	(537)
중소도시	12.2	48.0	36.3	3.5	100.0	(402)
농촌	6.3	46.2	39.9	7.6	100.0	(158)
연령($\chi^2=48.2^{***}$)						
20~24세	9.9	40.4	42.0	7.7	100.0	(364)
25~29세	9.8	56.5	29.1	4.6	100.0	(285)
30~34세	7.7	51.4	37.8	3.2	100.0	(222)
35~39세	13.1	46.0	35.8	5.1	100.0	(137)
40~44세	24.7	50.6	20.2	4.5	100.0	(89)

〈표 10-15〉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교육수준($\chi^2=39.6^{***}$)						
고졸이하	14.8	55.6	26.1	3.5	100.0	(284)
대학재학	5.5	42.9	42.2	9.3	100.0	(289)
대졸이상	12.0	47.3	36.5	4.2	100.0	(524)
취업여부($\chi^2=11.7^{**}$)						
취업	11.5	51.2	33.4	3.8	100.0	(652)
비취업	10.4	44.1	37.8	7.7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6.7	40.0	42.7	10.7	100.0	(1,287)
거주지($\chi^2=2.4$)						
대도시	6.6	41.6	41.6	10.3	100.0	(681)
중소도시	6.9	39.1	43.2	10.8	100.0	(463)
농촌	5.6	35.9	46.5	12.0	100.0	(142)
연령($\chi^2=12.2$)						
20~24세	6.2	39.7	43.9	10.3	100.0	(517)
25~29세	7.7	37.7	43.8	10.9	100.0	(377)
30~34세	7.5	39.2	42.7	10.6	100.0	(227)
35~39세	4.7	44.3	35.8	15.1	100.0	(106)
40~44세	3.4	54.2	37.3	5.1	100.0	(59)
교육수준($\chi^2=6.1$)						
고졸이하	7.3	42.7	39.0	11.0	100.0	(164)
대학재학	8.0	34.7	47.4	9.9	100.0	(274)
대졸이상	6.1	41.2	41.9	10.8	100.0	(848)
취업여부($\chi^2=4.9$)						
취업	6.7	42.0	40.4	10.8	100.0	(816)
비취업	6.6	36.4	46.4	10.6	100.0	(47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미혼남녀의 부부 역할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견해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적으로 찬성에 4점, 대체로 찬성에 3점, 별로 찬성하지 않음에 2점,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 1점씩 각각 부과한 후 가중평균점수를 산정하였다.

미혼남성의 경우, 남성의 가사 참여 증가에 대한 찬성 태도가 다소 우세한(2.80점) 반면, 여성에게 남성의 경력 쌓기를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2.09점)이나 전통적 성역할 분업(1.98점)에 대한 태도는 반대가 우세하

여 양성평등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역할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65점/4점)를 보이고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미혼남성과 유사하게 전통적 성역할 분업(1.81점)이나 여성의 보조적 역할(1.92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가 우세하고, 남성의 가사 참여 증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태도가 우세하게 나타났다(3.13점). 자녀양육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43점).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미혼남녀 모두 전통적 성역할 분업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여전히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0-16〉 부부 역할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점)

견해	성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가중평균 점수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혼남성	2.8	21.4	57.9	17.9	100.0(1,096)	2.09
	미혼여성	1.9	16.3	54.0	27.9	100.0(1,287)	1.9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미혼남성	2.4	17.6	55.3	24.7	100.0(1,096)	1.98
	미혼여성	2.0	11.7	51.5	34.8	100.0(1,287)	1.81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	미혼남성	10.0	63.1	24.2	2.7	100.0(1,096)	2.80
	미혼여성	26.6	61.3	10.5	1.6	100.0(1,287)	3.13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미혼남성	11.0	48.4	35.2	5.3	100.0(1,096)	2.65
	미혼여성	6.7	40.0	42.7	10.7	100.0(1,287)	2.43

제3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태도

1. 가족의 범위에 대한 태도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가족’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결혼한 부부와 입양한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95.4%, 미혼여성의 97.9%가 가족으로 인정하였다.

‘미혼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62.0%, 미혼여성의 71.0%가 가족으로 인정하였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동거 커플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31.5%, 미혼여성의 26.3%만이 가족으로 인정하였다. 자녀가 없는 동거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미혼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취업 중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와 교육수준별로 인정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농촌과 저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대도시와 저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혹은 고학력 미혼남성들이 동 유형의 가구에 대해 일시적 형태로 간주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겠다.

‘동거 커플+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미혼남성의 59.8%, 미혼여성의 57.7%)이 가족으로 인정하였다. 미혼남녀의 특성별로 ‘동거 커플+자녀’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비율의 차이도 앞서의 동거 커플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다만, 미혼남성의 거주지와 미혼남녀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아주 미세하게 나타났으며, 미혼남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저학력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동성 부부’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16.6%, 미혼여성의 32.8%가 가족으로 받아들여 인정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성 부부

와 입양한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도 미혼남성의 23.4%, 미혼여성의 40.4%만이 가족으로 인정하였다. 이들 가구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미혼남녀 모두 저연령층, 대학 재학 및 비취업 중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중소도시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 가족 인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혈연가구를 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응답은 미혼남녀 모두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 중소도시 거주자, 저연령층, 대학 재학 및 비취업 중인 경우에 가족으로서의 인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대도시, 고연령층, 저학력층 및 취업 중인 경우에 가족으로서의 인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17〉 '가족'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가구형태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중복응답)

(단위: %, 명)

구 분	결혼한 부부 +입양 자녀	동거 커플	동거 커플 +자녀	미혼부/모 +자녀	동성 부부	동성부부 +입양 자녀	비혈연 가구	(대상자 수)
미혼남성 전체	95.4	31.5	59.8	62.0	16.6	23.4	7.1	(1,096)
거주지								
대도시	95.9	28.5	60.2	63.5	15.3	20.9	5.8	(537)
중소도시	93.9	33.9	60.1	59.8	19.1	27.7	8.4	(401)
농촌	98.0	35.2	57.8	62.2	15.0	21.4	8.0	(158)
연령								
20~24세	95.5	26.1	62.0	65.6	23.3	32.6	10.0	(365)
25~29세	97.0	28.9	52.2	61.5	15.2	21.5	5.0	(285)
30~34세	92.4	29.1	57.9	63.5	13.3	17.4	6.6	(221)
35~39세	98.1	48.3	70.5	58.2	15.6	18.2	6.3	(136)
40~44세	93.7	41.8	63.8	50.4	3.7	15.2	4.4	(88)
교육수준								
고졸이하	93.1	37.5	65.1	54.9	13.1	19.1	8.4	(283)
대학재학	97.8	28.1	58.7	65.2	23.9	30.0	10.4	(289)
대졸이상	95.4	30.1	57.6	64.0	14.5	22.2	4.6	(524)
취업여부								
취업	95.3	33.7	59.8	58.6	13.3	18.1	5.9	(652)
비취업	95.7	28.1	59.9	66.9	21.5	31.3	9.0	(444)

〈표 10-17〉 계속

(단위: %, 명)

구 분	결혼한 부부 +입양 자녀	동거 커플	동거 커플 +자녀	미혼부/모 +자녀	동성 부부	동성부부 +입양 자녀	비혈연 가구	(대상자 수)
미혼여성 전체	97.9	26.3	57.7	71.0	32.8	40.4	9.6	(1,287)
거주지								
대도시	98.1	28.1	57.9	73.2	30.4	38.7	10.0	(682)
중소도시	97.4	25.7	57.7	68.2	34.2	41.2	9.4	(463)
농촌	98.4	19.4	56.3	69.7	39.7	46.2	8.2	(142)
연령								
20~24세	98.3	23.2	55.6	70.9	35.6	44.8	8.8	(516)
25~29세	96.8	21.6	55.3	73.2	31.3	39.8	9.9	(377)
30~34세	98.6	30.4	64.5	71.5	33.5	38.1	8.6	(227)
35~39세	97.3	38.5	57.8	61.6	29.7	34.5	14.1	(107)
40~44세	98.3	44.2	64.2	73.2	20.9	25.7	10.5	(59)
교육수준								
고졸이하	96.6	30.7	62.1	64.5	22.0	31.9	12.4	(164)
대학재학	98.6	21.3	58.7	73.0	40.0	48.7	7.4	(274)
대졸이상	97.9	27.0	56.5	71.6	32.5	39.4	9.7	(850)
취업여부								
취업	98.0	26.8	57.6	70.5	29.5	37.0	10.2	(816)
비취업	97.7	25.4	57.8	72.0	38.4	46.2	8.6	(47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성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68.1%, 미혼여성의 51.2%가 각각 찬성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미혼남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결혼 전 동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개방된 태도를 보였다. 미혼여성의 경우 부정적인 태도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사회에서 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관념 등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미혼남성의 거주지에 따라서는 농촌에 비해 도시(특히 중소도시)에서 혼전 동거에 대하여 찬성하는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 지역의 상대적인 보수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할 있다. 미혼여성의 연령에 따라서는 35~39세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저연령층일수록 혼전 동거에 대하여 찬성하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세대일수록 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미혼여성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계층에서 대학 재학 또는 대졸 이상의 계층에 비해 혼전 동거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학력계층의 경우 교육기간이 짧은 대신 사회생활이나 독립 시기 등이 빨라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짐작된다.

〈표 10-18〉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1.5	56.6	25.9	6.0	100.0	(1,096)
거주지($\chi^2=24.1^{**}$)						
대도시	12.1	52.8	28.6	6.5	100.0	(538)
중소도시	9.2	65.3	21.2	4.2	100.0	(401)
농촌	15.2	46.8	28.5	9.5	100.0	(158)
연령($\chi^2=11.6$)						
20~24세	12.6	59.7	22.7	4.9	100.0	(365)
25~29세	9.5	56.5	27.0	7.0	100.0	(285)
30~34세	11.4	57.3	25.5	5.9	100.0	(220)
35~39세	12.5	54.4	25.7	7.4	100.0	(136)
40~44세	12.6	46.0	36.8	4.6	100.0	(87)
교육수준($\chi^2=9.8$)						
고졸이하	13.8	58.3	22.6	5.3	100.0	(283)
대학재학	12.8	58.7	22.6	5.9	100.0	(288)
대졸이상	9.6	54.5	29.6	6.3	100.0	(523)

〈표 10-18〉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취업여부($\chi^2=1.5$)						
취업	12.3	55.7	25.6	6.4	100.0	(653)
비취업	10.4	57.8	26.4	5.4	100.0	(443)
미혼여성 전체	6.9	44.3	37.4	11.4	100.0	(1,287)
거주지($\chi^2=1.5$)						
대도시	6.6	44.0	37.2	12.2	100.0	(682)
중소도시	7.1	44.7	37.1	11.0	100.0	(463)
농촌	7.7	43.7	39.4	9.2	100.0	(142)
연령($\chi^2=21.6$)						
20~24세	7.5	45.8	37.5	9.1	100.0	(517)
25~29세	5.0	44.6	35.0	15.4	100.0	(377)
30~34세	7.0	42.7	39.6	10.6	100.0	(227)
35~39세	12.1	42.1	33.6	12.1	100.0	(107)
40~44세	3.4	39.0	50.8	6.8	100.0	(59)
교육수준($\chi^2=38.4^{***}$)						
고졸이하	14.0	53.0	27.4	5.5	100.0	(164)
대학재학	5.8	50.4	35.4	8.4	100.0	(274)
대졸이상	5.9	40.5	40.0	13.5	100.0	(849)
취업여부($\chi^2=4.6$)						
취업	6.7	42.2	39.2	11.9	100.0	(817)
비취업	7.2	47.9	34.5	10.4	100.0	(47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50.1%, 미혼여성의 29.8%가 각각 찬성하여 미혼남녀 간 태도의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남성은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반씩 나타난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태도가 상당 수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법률혼 외의 혼인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 차이는 미혼남성의 연령과 미혼남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미약하며, 다만 35~39세에서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체적으로 결혼의 적령기를 막 넘어선 미혼남성의 경우 굳이 법률혼에 구속되지 않으려는 성향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미혼남녀 모두 고졸 이하의 학력계층에서 동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졸 이하의 학력계층들이 보다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인 경향을 보인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10-19〉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6.2	43.9	38.4	11.5	100.0	(1,096)
거주지($\chi^2=3.3$)						
대도시	6.3	44.5	36.7	12.5	100.0	(537)
중소도시	5.5	44.0	40.5	10.0	100.0	(402)
농촌	7.6	41.8	38.6	12.0	100.0	(158)
연령($\chi^2=23.8^*$)						
20~24세	6.1	44.9	34.2	14.9	100.0	(363)
25~29세	6.3	41.4	41.4	10.9	100.0	(285)
30~34세	6.8	42.3	40.1	10.8	100.0	(222)
35~39세	5.8	56.2	31.4	6.6	100.0	(137)
40~44세	5.6	33.3	52.2	8.9	100.0	(90)
교육수준($\chi^2=15.8^*$)						
고졸이하	7.4	50.0	32.7	9.9	100.0	(284)
대학재학	4.9	41.0	38.2	16.0	100.0	(288)
대졸이상	6.1	42.4	41.8	9.7	100.0	(524)
취업여부($\chi^2=2.2$)						
취업	6.1	45.2	38.3	10.4	100.0	(653)
비취업	6.3	42.1	38.5	13.1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3.4	26.4	49.5	20.6	100.0	(1,287)
거주지($\chi^2=8.2$)						
대도시	4.1	26.7	47.8	21.4	100.0	(682)
중소도시	2.2	27.4	49.9	20.5	100.0	(463)
농촌	4.9	21.1	56.3	17.6	100.0	(142)

〈표 10-19〉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연령($\chi^2=14.3$)						
20~24세	3.3	27.7	48.4	20.5	100.0	(516)
25~29세	2.1	22.8	50.8	24.3	100.0	(378)
30~34세	4.8	26.0	51.5	17.6	100.0	(227)
35~39세	4.7	28.3	49.1	17.9	100.0	(106)
40~44세	5.0	35.0	46.7	13.3	100.0	(60)
교육수준($\chi^2=27.9^{**}$)						
고졸이하	7.9	34.1	46.3	11.6	100.0	(164)
대학재학	2.9	30.3	47.4	19.3	100.0	(274)
대졸이상	2.8	23.6	50.8	22.8	100.0	(851)
취업여부($\chi^2=0.5$)						
취업	3.4	25.9	50.4	20.3	100.0	(816)
비취업	3.4	27.2	48.3	21.1	100.0	(47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47.4%가 찬성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다소 우세한 반면, 미혼여성은 60.9%가 찬성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부부에 대하여 미혼여성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자녀 양육의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미혼남성의 경우 여전히 가문계승 등과 관련한 자녀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남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혼남녀의 일반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남성은 거주지와 연령에 따라 그리고 미혼여성은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거주지별로 보면, 농촌에 비해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무자녀 부부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자녀 부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전통적인 자녀 가치관이 약화된 도시에서 먼저 확산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

다. 미혼남성의 연령에 따라서는 35~39세를 제외하면 저연령층일수록 무자녀 부부에 대한 수용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세대일수록 부부만의 생활 추구, 자녀양육 부담 등으로 결혼 후 자녀 출산을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미혼여성의 경우 취업인 경우에 비해 비취업자인 경우 무자녀 부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취업자에 저연령층이나 학생 등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미혼여성의 경우 거주지나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여성의 자녀양육 부담 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 모두 그리고 모든 코호트에 무자녀 부부에 대한 수용성이 이미 확산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10-20〉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5.6	41.8	40.3	12.2	100.0	(1,096)
거주지($\chi^2=16.5^*$)						
대도시	7.3	39.7	42.8	10.2	100.0	(537)
중소도시	3.7	45.1	38.9	12.2	100.0	(401)
농촌	5.1	40.5	35.4	19.0	100.0	(158)
연령($\chi^2=28.0^{**}$)						
20~24세	6.9	42.0	37.6	13.5	100.0	(364)
25~29세	4.2	44.1	36.0	15.7	100.0	(286)
30~34세	5.9	37.7	47.7	8.6	100.0	(220)
35~39세	4.3	51.4	37.7	6.5	100.0	(138)
40~44세	5.7	28.4	51.1	14.8	100.0	(88)
교육수준($\chi^2=10.2$)						
고졸이하	5.3	43.5	37.5	13.8	100.0	(283)
대학재학	8.7	37.5	41.3	12.5	100.0	(288)
대졸이상	4.2	43.3	41.2	11.3	100.0	(524)
취업여부($\chi^2=1.0$)						
취업	5.4	42.5	39.4	12.7	100.0	(652)
비취업	6.1	40.7	41.6	11.7	100.0	(445)

〈표 10-20〉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여성 전체	11.1	49.8	30.7	8.4	100.0	(1,287)
거주지($\chi^2=5.4$)						
대도시	11.1	50.1	29.6	9.2	100.0	(683)
중소도시	12.5	47.9	31.7	7.8	100.0	(463)
농촌	7.0	53.8	32.2	7.0	100.0	(143)
연령($\chi^2=16.4$)						
20~24세	11.0	51.6	31.6	5.8	100.0	(516)
25~29세	11.4	47.1	29.9	11.6	100.0	(378)
30~34세	12.3	46.7	31.3	9.7	100.0	(227)
35~39세	11.2	57.9	23.4	7.5	100.0	(107)
40~44세	6.8	47.5	37.3	8.5	100.0	(59)
교육수준($\chi^2=7.3$)						
고졸이하	8.6	52.8	30.1	8.6	100.0	(163)
대학재학	13.9	51.1	29.6	5.5	100.0	(274)
대졸이상	10.7	48.9	31.1	9.3	100.0	(849)
취업여부($\chi^2=10.9^*$)						
취업	9.7	48.5	32.1	9.7	100.0	(816)
비취업	13.6	52.1	28.1	6.2	100.0	(47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23.9%, 미혼여성의 16.9%가 찬성하여 미혼남녀 모두 부정적인 태도가 아주 우세하였다.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이 이러한 혼외 출산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혼남녀의 일반특성에 따라서는 미혼남성의 경우 거주지와 교육수준 그리고 미혼남녀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미혼남성의 거주지에 따라서는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혼외 출산에 대한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미혼남성의 경우 뚜렷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만 35~39세 연령 층에서 혼외 출산에 대한 수용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고연령층일수록 혼외 출산에 대해 수용하는 경향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인 경우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 이상에 비해 혼외 출산에 대한 찬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0-21〉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2.8	21.1	48.2	27.9	100.0	(1,096)
거주지($\chi^2=14.1^*$)						
대도시	3.5	21.3	44.8	30.4	100.0	(536)
중소도시	2.7	22.7	50.6	23.9	100.0	(401)
농촌	-	16.6	54.1	29.3	100.0	(157)
연령($\chi^2=52.7^{***}$)						
20~24세	3.3	19.5	47.3	29.9	100.0	(364)
25~29세	1.7	16.1	49.3	32.9	100.0	(286)
30~34세	2.7	17.6	51.6	28.1	100.0	(221)
35~39세	3.7	42.6	38.2	15.4	100.0	(136)
40~44세	2.3	19.5	55.2	23.0	100.0	(87)
교육수준($\chi^2=15.9^*$)						
고졸이하	2.1	28.0	44.0	25.9	100.0	(282)
대학재학	4.2	16.3	48.4	31.1	100.0	(289)
대졸이상	2.3	20.0	50.4	27.3	100.0	(524)
취업여부($\chi^2=2.6$)						
취업	2.6	22.5	46.6	28.2	100.0	(652)
비취업	2.9	18.9	50.5	27.7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3.0	13.9	48.9	34.2	100.0	(1,287)
거주지($\chi^2=11.1$)						
대도시	4.1	14.1	49.4	32.4	100.0	(682)
중소도시	1.5	13.6	46.8	38.1	100.0	(462)
농촌	2.1	14.1	53.5	30.3	100.0	(142)
연령($\chi^2=63.3^{***}$)						
20~24세	1.6	12.0	47.5	39.0	100.0	(516)
25~29세	2.7	12.5	51.5	33.4	100.0	(377)
30~34세	7.0	13.2	53.3	26.4	100.0	(227)
35~39세	2.8	15.0	43.9	38.3	100.0	(107)
40~44세	1.7	40.0	38.3	20.0	100.0	(60)

〈표 10-21〉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교육수준($\chi^2=6.2$)						
고졸이하	2.5	19.6	47.2	30.7	100.0	(163)
대학재학	2.2	13.6	49.8	34.4	100.0	(273)
대졸이상	3.2	12.9	49.1	34.9	100.0	(848)
취업여부($\chi^2=5.0$)						
취업	3.3	13.7	50.7	32.3	100.0	(817)
비취업	2.3	14.4	45.6	37.6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60.4%, 미혼여성의 74.3%가 찬성하여 미혼남녀 모두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이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

미혼남성의 경우 40~44세 고연령층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고연령층일수록 이혼에 대한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한 간접적 경험에 의한 영향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미혼남녀 모두 고졸 이하이거나 대졸 이상인 경우에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 비해 이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성을 보였는데, 이는 재학 미혼남녀들이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0-22〉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2.9	47.5	30.4	9.2	100.0	(1,096)
거주지($\chi^2=11.0$)						
대도시	15.4	48.0	27.5	9.1	100.0	(538)
중소도시	11.4	48.3	31.6	8.7	100.0	(402)
농촌	8.3	43.9	37.6	10.2	100.0	(157)

〈표 10-22〉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연령($\chi^2=32.1^{**}$)						
20~24세	12.1	41.5	36.5	9.9	100.0	(364)
25~29세	13.0	48.4	28.8	9.8	100.0	(285)
30~34세	15.4	43.9	30.3	10.4	100.0	(221)
35~39세	15.4	62.5	16.9	5.1	100.0	(136)
40~44세	6.7	55.1	31.5	6.7	100.0	(89)
교육수준($\chi^2=13.0^{\circ}$)						
고졸이하	12.4	45.2	30.4	12.0	100.0	(283)
대학재학	12.5	42.2	36.3	9.0	100.0	(289)
대졸이상	13.5	51.6	27.0	7.8	100.0	(525)
취업여부($\chi^2=2.9$)						
취업	12.6	49.2	28.7	9.5	100.0	(652)
비취업	13.3	45.1	33.0	8.6	100.0	(443)
미혼여성 전체	20.3	54.0	20.7	5.1	100.0	(1,287)
거주지($\chi^2=7.1$)						
대도시	19.6	55.1	19.2	6.0	100.0	(682)
중소도시	21.0	54.0	21.2	3.9	100.0	(463)
농촌	20.4	47.9	26.8	4.9	100.0	(142)
연령($\chi^2=20.1$)						
20~24세	20.3	50.8	23.6	5.2	100.0	(516)
25~29세	17.5	54.9	22.5	5.0	100.0	(377)
30~34세	25.1	58.6	11.0	5.3	100.0	(227)
35~39세	20.6	56.1	19.6	3.7	100.0	(107)
40~44세	16.9	55.9	22.0	5.1	100.0	(59)
교육수준($\chi^2=12.8^{**}$)						
고졸이하	21.5	54.0	21.5	3.1	100.0	(163)
대학재학	23.4	46.0	26.6	4.0	100.0	(274)
대졸이상	19.0	56.5	18.6	5.9	100.0	(849)
취업여부($\chi^2=2.0$)						
취업	20.1	54.4	19.9	5.6	100.0	(816)
비취업	20.6	53.1	22.1	4.2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50.7%, 미혼여성의 72.1%가 찬성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결혼을 억지로 유지하여 발생하는 불행

보다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풀이된다. 미혼남성의 경우 거주지와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와 저학력층인 경우에 반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인식 내지 가치관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0-23〉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8.4	42.3	37.1	12.2	100.0	(1,096)
거주지($\chi^2=18.2^{**}$)						
대도시	9.7	41.3	37.8	11.2	100.0	(537)
중소도시	7.2	45.4	37.7	9.7	100.0	(401)
농촌	7.0	38.0	33.5	21.5	100.0	(158)
연령($\chi^2=20.2$)						
20~24세	8.0	38.2	37.4	16.5	100.0	(364)
25~29세	9.8	41.6	37.8	10.8	100.0	(286)
30~34세	9.1	41.8	37.3	11.8	100.0	(220)
35~39세	8.0	52.6	33.6	5.8	100.0	(137)
40~44세	3.4	46.6	39.8	10.2	100.0	(88)
교육수준($\chi^2=15.3^*$)						
고졸이하	10.2	41.3	33.2	15.2	100.0	(283)
대학재학	7.6	37.7	39.4	15.2	100.0	(289)
대졸이상	7.8	45.4	38.0	8.8	100.0	(524)
취업여부($\chi^2=1.8$)						
취업	8.4	43.0	35.7	12.9	100.0	(653)
비취업	8.4	41.3	39.3	11.1	100.0	(443)
미혼여성 전체	14.6	57.5	24.2	3.7	100.0	(1,287)
거주지($\chi^2=2.6$)						
대도시	14.8	57.6	23.3	4.3	100.0	(682)
중소도시	14.0	57.2	25.9	2.8	100.0	(463)
농촌	15.4	58.0	23.1	3.5	100.0	(143)
연령($\chi^2=14.5$)						
20~24세	13.7	56.1	25.5	4.6	100.0	(517)
25~29세	14.6	57.0	24.9	3.4	100.0	(377)
30~34세	18.1	59.0	21.1	1.8	100.0	(227)
35~39세	14.0	60.7	24.3	0.9	100.0	(107)
40~44세	10.2	59.3	22.0	8.5	100.0	(59)

〈표 10-23〉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교육수준($\chi^2=3.1$)						
고졸이하	15.9	48.8	30.5	4.9	100.0	(164)
대학재학	14.9	57.5	24.7	2.9	100.0	(275)
대졸이상	14.2	59.2	22.9	3.6	100.0	(850)
취업여부($\chi^2=1.7$)						
취업	14.7	56.3	25.2	3.8	100.0	(816)
비취업	14.3	59.8	22.6	3.4	100.0	(47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78.5%, 미혼여성의 82.3%가 찬성하여 미혼남녀 모두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에게서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미혼남성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재혼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은 농촌에 비해 도시(특히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의 보수적인 태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나, 뚜렷한 패턴은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미혼남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 견해에 대한 찬성 정도는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가 고졸 이하나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별이나 이혼 후 재혼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은 비취업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24〉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1.7	66.8	18.9	2.7	100.0	(1,096)
거주지($\chi^2=16.8^*$)						
대도시	13.4	62.2	20.9	3.5	100.0	(537)
중소도시	11.2	72.1	15.0	1.7	100.0	(401)
농촌	6.4	68.8	22.3	2.5	100.0	(157)
연령($\chi^2=25.4^*$)						
20~24세	8.8	66.3	21.4	3.6	100.0	(365)
25~29세	11.9	63.5	20.7	3.9	100.0	(285)
30~34세	15.9	70.0	14.1	-	100.0	(220)
35~39세	15.3	64.2	16.8	3.6	100.0	(137)
40~44세	6.7	74.2	18.0	1.1	100.0	(89)
교육수준($\chi^2=14.2^*$)						
고졸이하	16.2	60.6	20.4	2.8	100.0	(284)
대학재학	8.3	68.5	19.0	4.2	100.0	(289)
대졸이상	11.1	69.1	17.9	1.9	100.0	(524)
취업여부($\chi^2=3.3$)						
취업	12.4	67.3	18.1	2.1	100.0	(652)
비취업	10.6	66.0	19.8	3.6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17.6	64.7	16.2	1.6	100.0	(1,287)
거주지($\chi^2=4.7$)						
대도시	18.3	64.4	15.5	1.8	100.0	(682)
중소도시	17.1	66.1	16.0	0.9	100.0	(463)
농촌	16.2	62.0	19.0	2.8	100.0	(142)
연령($\chi^2=50.2^{***}$)						
20~24세	14.1	65.9	18.0	1.9	100.0	(516)
25~29세	22.5	64.5	13.0	-	100.0	(377)
30~34세	17.2	61.7	20.3	0.9	100.0	(227)
35~39세	15.1	66.0	11.3	7.5	100.0	(106)
40~44세	21.7	65.0	13.3	-	100.0	(60)
교육수준($\chi^2=9.3$)						
고졸이하	18.3	59.1	18.9	3.7	100.0	(164)
대학재학	15.3	65.3	17.9	1.5	100.0	(274)
대졸이상	18.3	65.5	15.1	1.2	100.0	(849)
취업여부($\chi^2=8.5^*$)						
취업	18.4	64.0	16.8	0.9	100.0	(816)
비취업	16.4	66.0	14.9	2.8	100.0	(47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60.0%, 미혼여성의 68.0%가 찬성하여 미혼남녀 모두 긍정적인 태도가 비교적 우세하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거주지에 따라서는 동 견해에 대한 찬성 정도가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연령에 따라서는 부 또는 모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긍정적 태도가 꺾(∩)형으로 나타나는데, 전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는 저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최근 세대일수록 자녀양육에 대해 성 분업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이하나 대학재학에 비해 대졸이상인 계층에서 그리고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인 경우가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한 수용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일반특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데, 미혼여성의 모든 계층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해 수용성 정도가 유사함을 제시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0-25〉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8.3	51.7	36.0	4.1	100.0	(1,096)
거주지($\chi^2=24.3^{***}$)						
대도시	10.0	52.2	33.8	3.9	100.0	(538)
중소도시	9.0	53.2	34.6	3.2	100.0	(402)
농촌	0.6	45.9	46.5	7.0	100.0	(157)
연령($\chi^2=36.3^{***}$)						
20~24세	12.3	45.5	37.8	4.4	100.0	(365)
25~29세	8.1	49.1	37.2	5.6	100.0	(285)
30~34세	5.9	65.2	26.7	2.3	100.0	(221)
35~39세	5.8	52.6	39.4	2.2	100.0	(137)
40~44세	2.3	51.1	42.0	4.5	100.0	(88)

〈표 10-25〉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교육수준($\chi^2=29.1^{***}$)						
고졸이하	7.4	52.7	36.0	3.9	100.0	(283)
대학재학	13.2	39.9	42.4	4.5	100.0	(288)
대졸이상	5.9	57.8	32.4	3.8	100.0	(524)
취업여부($\chi^2=9.6^*$)						
취업	6.5	54.5	34.7	4.3	100.0	(651)
비취업	10.8	47.6	37.9	3.6	100.0	(443)
미혼여성 전체						
미혼여성 전체	12.3	55.7	29.3	2.8	100.0	(1,287)
거주지($\chi^2=11.8$)						
대도시	12.8	55.7	29.8	1.8	100.0	(682)
중소도시	12.1	57.5	26.9	3.4	100.0	(464)
농촌	10.5	49.0	35.0	5.6	100.0	(143)
연령($\chi^2=17.4$)						
20~24세	12.2	53.6	30.9	3.3	100.0	(517)
25~29세	13.0	52.9	31.7	2.4	100.0	(378)
30~34세	13.7	61.9	21.2	3.1	100.0	(226)
35~39세	7.5	65.4	25.2	1.9	100.0	(107)
40~44세	10.0	50.0	38.3	1.7	100.0	(60)
교육수준($\chi^2=1.9$)						
고졸이하	13.5	56.4	26.4	3.7	100.0	(163)
대학재학	11.7	55.1	31.0	2.2	100.0	(274)
대졸이상	12.2	55.7	29.3	2.8	100.0	(851)
취업여부($\chi^2=6.5$)						
취업	11.6	56.0	28.8	3.6	100.0	(816)
비취업	13.2	55.3	30.2	1.3	100.0	(47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59.9%, 미혼여성의 62.5%가 찬성하여 미혼남녀 모두 긍정적인 태도가 비교적 우세하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전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은 도시(특히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 저연령층일수록 전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20~24세를 제외하면 저연령층일수록 전적으로 찬성하는 경향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연령층일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혈연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약화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취업인 경우에 비해 비취업인 경우에 찬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비취업자에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이 집중되어 나타난 연령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10-26〉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3.1	46.8	30.8	9.2	100.0	(1,096)
거주지($\chi^2=9.5$)						
대도시	12.8	44.3	31.3	11.5	100.0	(537)
중소도시	14.3	48.3	31.0	6.5	100.0	(400)
농촌	10.8	51.9	28.5	8.9	100.0	(158)
연령($\chi^2=60.1^{***}$)						
20~24세	20.5	47.1	26.0	6.3	100.0	(365)
25~29세	12.2	42.7	33.6	11.5	100.0	(286)
30~34세	12.2	44.3	32.6	10.9	100.0	(221)
35~39세	5.1	61.8	25.0	8.1	100.0	(136)
40~44세	-	42.0	45.5	12.5	100.0	(88)
교육수준($\chi^2=11.3$)						
고졸이하	13.8	47.7	30.7	7.8	100.0	(283)
대학재학	18.0	43.9	29.4	8.7	100.0	(289)
대졸이상	10.1	48.0	31.5	10.3	100.0	(523)
취업여부($\chi^2=13.2^{**}$)						
취업	10.6	46.5	32.2	10.7	100.0	(652)
비취업	16.9	47.4	28.7	7.0	100.0	(443)
미혼여성 전체	14.6	47.9	30.1	7.5	100.0	(1,287)
거주지($\chi^2=16.5$)						
대도시	16.1	43.8	31.7	8.4	100.0	(682)
중소도시	13.8	51.6	27.0	7.6	100.0	(463)
농촌	9.2	55.3	32.6	2.8	100.0	(141)

〈표 10-26〉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연령($\chi^2=21.3^{\ast}$)						
20~24세	13.6	52.9	28.3	5.2	100.0	(516)
25~29세	17.5	43.7	30.2	8.7	100.0	(378)
30~34세	14.1	44.9	30.0	11.0	100.0	(227)
35~39세	11.2	44.9	34.6	9.3	100.0	(107)
40~44세	13.6	49.2	35.6	1.7	100.0	(59)
교육수준($\chi^2=9.3$)						
고졸이하	14.6	39.6	36.0	9.8	100.0	(164)
대학재학	15.4	52.0	27.5	5.1	100.0	(273)
대졸이상	14.2	48.2	29.8	7.8	100.0	(850)
취업여부($\chi^2=13.0^{\ast\ast}$)						
취업	13.2	45.8	32.4	8.6	100.0	(817)
비취업	17.0	51.6	25.9	5.5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미혼남녀의 가족 가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견해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적으로 찬성에 4점, 대체로 찬성에 3점, 별로 찬성하지 않음에 2점,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 1점씩 각각 부과한 후 가중평균점수를 산정하였다.

미혼남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이혼, 재혼, 한부모, 입양에 대한 태도는 찬성하는 경향이 우세하나(2.64~2.87점/4점), 혼인 외에서의 출산에 대한 태도는 반대하는 경향이 우세하였다(1.99점/4점). 결혼과 무관한 동거, 무자녀 가구,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의 이혼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반대하는 태도가 우세하게 나타났다(2.41~2.47점/4점). 이와 같이 미혼남성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으나 그 태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동거가 동거로서 끝나는 행태와 혼외출산, 무자녀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의 이혼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하는 태도가 다소나

마 우세하여 가족의 정형성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무자녀 가구, 이혼, 재혼, 한부모가구, 입양에 대한 수용성이 높게(2.64~2.98점/4점) 나타나고 있다. 미혼여성 역시 미혼남성과 마찬가지로 혼인 외 출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1.86점/4점)를 보이고 있으며, 결혼과 관련 없는 동거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태도(2.13점/4점)를 보이고 있다. 즉, 미혼여성도 미혼남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은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나나, 여전히 혼외출산이나 동거(결혼 비전제) 등에 대한 반대가 우세하여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27〉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점)

견해	성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가중평균 점수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미혼남성	11.5	56.6	25.9	6.0	100.0(1,096)	2.74
	미혼여성	6.9	44.3	37.4	11.4	100.0(1,287)	2.47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	미혼남성	6.2	43.9	38.4	11.5	100.0(1,096)	2.45
	미혼여성	3.4	26.4	49.5	20.6	100.0(1,287)	2.13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미혼남성	5.6	41.8	40.3	12.2	100.0(1,096)	2.41
	미혼여성	11.1	49.8	30.7	8.4	100.0(1,287)	2.6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미혼남성	2.8	21.1	48.2	27.9	100.0(1,096)	1.99
	미혼여성	3.0	13.9	48.9	34.2	100.0(1,287)	1.86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미혼남성	12.9	47.5	30.4	9.2	100.0(1,096)	2.64
	미혼여성	20.3	54.0	20.7	5.1	100.0(1,287)	2.89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미혼남성	8.4	42.3	37.1	12.2	100.0(1,096)	2.47
	미혼여성	14.6	57.5	24.2	3.7	100.0(1,287)	2.83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미혼남성	11.7	66.8	18.9	2.7	100.0(1,096)	2.87
	미혼여성	17.6	64.7	16.2	1.6	100.0(1,287)	2.98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미혼남성	8.3	51.7	36.0	4.1	100.0(1,096)	2.64
	미혼여성	12.3	55.7	29.3	2.8	100.0(1,287)	2.77
임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미혼남성	13.1	46.8	30.8	9.2	100.0(1,096)	2.64
	미혼여성	14.6	47.9	30.1	7.5	100.0(1,287)	2.70



11

미혼남녀 본인의 << 결혼 계획과 정책 욕구

제1절 본인의 결혼 계획

1. 결혼 의향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결혼 의향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혼 남성의 74.5%, 미혼여성의 64.7%가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남성의 9.9%, 미혼여성의 13.9%로 나타났다. 요컨대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본인의 결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혼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결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과거에는 결혼할 생각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저학력층일수록 결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저학력인 경우 결혼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생각으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짐작된다.

미혼남녀 모두 비취업 중인 경우에 비해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결혼 의향이 없다고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녀들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인 경우 결혼 후 경력 단절 등 기회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11-1〉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 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모르겠다)	계	(명)
미혼남성 전체	74.5	7.8	2.1	6.0	9.6	100.0	(1,096)
거주지($\chi^2=11.5$)							
대도시	71.5	8.2	2.4	6.0	11.9	100.0	(536)
중소도시	76.9	6.7	1.7	6.7	8.0	100.0	(402)
농촌	79.0	9.6	1.9	3.8	5.7	100.0	(157)
연령($\chi^2=103.3^{***}$)							
20~24세	79.5	2.7	2.2	9.6	6.0	100.0	(365)
25~29세	79.3	4.2	2.5	6.0	8.1	100.0	(285)
30~34세	74.1	12.7	0.5	3.2	9.5	100.0	(220)
35~39세	65.9	15.9	2.9	2.9	12.3	100.0	(138)
40~44세	52.8	16.9	4.5	1.1	24.7	100.0	(89)
교육수준($\chi^2=38.1^{***}$)							
고졸이하	69.3	12.0	1.4	5.3	12.0	100.0	(283)
대학재학	80.6	2.4	2.8	9.3	4.8	100.0	(289)
대졸이상	74.0	8.6	1.9	4.6	10.9	100.0	(524)
취업여부($\chi^2=14.9^{**}$)							
취업	74.4	9.7	1.4	4.6	10.0	100.0	(652)
비취업	74.7	5.2	2.9	7.9	9.3	100.0	(443)
미혼여성 전체	64.7	8.8	5.1	7.7	13.8	100.0	(1,287)
거주지($\chi^2=7.9$)							
대도시	65.3	9.7	5.3	6.6	13.1	100.0	(681)
중소도시	65.0	7.3	4.8	9.5	13.4	100.0	(463)
농촌	60.1	9.1	5.6	7.0	18.2	100.0	(143)
연령($\chi^2=185.9^{***}$)							
20~24세	71.6	4.3	2.3	10.8	11.0	100.0	(517)
25~29세	74.3	8.2	4.8	3.4	9.3	100.0	(378)
30~34세	54.6	8.4	9.3	5.3	22.5	100.0	(227)
35~39세	39.6	19.8	7.5	6.6	26.4	100.0	(106)
40~44세	25.4	33.9	11.9	16.9	11.9	100.0	(59)
교육수준($\chi^2=63.3^{***}$)							
고졸이하	49.4	22.0	10.4	6.7	11.6	100.0	(164)
대학재학	65.7	7.7	3.6	11.3	11.7	100.0	(274)
대졸이상	67.3	6.6	4.5	6.7	15.0	100.0	(849)
취업여부($\chi^2=24.0^{***}$)							
취업	64.8	10.3	5.1	5.1	14.6	100.0	(816)
비취업	64.3	6.4	4.9	11.9	12.5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 중인 미혼남녀의 경제활동특성별로 결혼 의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에 결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사무직(67.6%), 관리직 및 전문직(66.3%), 서비스·판매직(58.8%), 기타(54.3%) 순으로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유형별로는 대기업(78.4%), 중소기업(67.1%), 공무원 및 공공기관(66.1%), 개인사업체 등(57.3%)의 순으로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미혼남성의 경우 고용안정이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 직업 및 직장의 안정성이 결혼조건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혼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미혼남성의 직업과 직장유형, 종사상지위와 근로소득 그리고 미혼여성의 종사상지위, 정규직 여부, 근로소득은 결혼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남성의 경우 정규직 여부가 특히 중요한 결혼조건이며, 이외의 특성들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과 달리,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직장 유형 등이 결혼조건 등으로 결혼 의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표 11-2〉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의향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모르겠다)	계	(명)
취업 미혼남성 전체	74.4	9.7	1.4	4.6	10.0	100.0	(652)
직종							
관리자·전문직	83.5	5.5	1.1	2.2	7.7	100.0	(91)
사무직	74.0	11.0	2.6	2.6	9.7	100.0	(154)
서비스·판매직	74.6	8.3	2.4	5.9	8.9	100.0	(169)
기타	71.0	10.9	0.4	5.9	11.8	100.0	(238)

〈표 11-2〉 계속

(단위: %, 명)

구 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모르겠다)	계	(명)
직장유형							
공무원, 공공기관	76.4	9.1	3.6	5.5	5.5	100.0	(55)
대기업	87.5	1.3	-	5.0	6.3	100.0	(80)
중소기업	71.6	11.8	0.3	5.1	11.2	100.0	(313)
개인사업체, 기타	73.0	9.3	3.4	3.4	10.8	100.0	(204)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69.2	9.6	-	11.5	9.6	100.0	(52)
상용직	76.1	10.1	1.0	4.2	8.6	100.0	(406)
임시일용직	72.4	8.3	2.6	3.6	13.0	100.0	(192)
정규직 여부¹⁾($x^2=12.2^*$)							
정규직	78.0	9.8	1.0	2.3	8.8	100.0	(386)
비정규직	69.5	8.9	2.3	7.0	12.2	100.0	(213)
근로소득							
150만원 미만	63.6	5.7	4.5	9.1	17.0	100.0	(88)
150~200만원 미만	74.6	10.4	1.5	5.2	8.2	100.0	(134)
200~300만원 미만	79.5	7.7	0.3	4.4	8.1	100.0	(298)
300만원 이상	69.2	15.8	2.3	2.3	10.5	100.0	(133)
취업 미혼여성 전체	64.8	10.3	5.2	5.2	14.6	100.0	(815)
직종($x^2=26.8^*$)							
관리자·전문직	66.3	8.4	3.9	3.3	18.1	100.0	(332)
사무직	67.6	11.7	5.9	5.2	9.7	100.0	(290)
서비스·판매직	58.8	11.3	6.9	6.9	16.3	100.0	(160)
기타	54.3	11.4	5.7	17.1	11.4	100.0	(35)
직장유형($x^2=29.0^{**}$)							
공무원, 공공기관	66.1	8.3	4.6	2.8	18.3	100.0	(109)
대기업	78.4	4.1	1.0	5.2	11.3	100.0	(97)
중소기업	67.1	9.2	6.3	6.6	10.8	100.0	(316)
개인사업체, 기타	57.3	14.2	5.4	4.7	18.3	100.0	(295)
종사상지위($x^2=7.5$)							
비임금근로자	57.3	16.0	5.3	4.0	17.3	100.0	(75)
상용직	67.5	9.0	5.0	5.0	13.5	100.0	(535)
임시일용직	60.2	11.7	5.8	5.8	16.5	100.0	(206)
정규직 여부($x^2=1.7$)							
정규직	66.8	9.5	4.6	5.2	13.9	100.0	(497)
비정규직	63.1	9.8	6.6	5.3	15.2	100.0	(244)

〈표 11-2〉 계속

(단위: %, 명)

구 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모르겠다)	계	(명)
근로소득($\chi^2=8.2$)							
150만원 미만	60.9	9.9	7.5	5.0	16.8	100.0	(161)
150~200만원 미만	67.3	12.0	4.0	5.6	11.2	100.0	(251)
200~300만원 미만	64.0	9.1	5.2	5.5	16.2	100.0	(308)
300만원 이상	67.0	10.3	5.2	3.1	14.4	100.0	(97)

* p<0.05, ** p<0.01, *** p<0.001

주: 1) 비정규직에는 비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포함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결혼 계획 연령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결혼을 계획한 연령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의 경우 30~31세 26.4%, 32~33세 22.1%, 34~35세 17.8%, 40세 이상 12.1%, 36~39세 9.1% 등의 순으로 평균 33.7세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30~31세 34.0%, 28~29세 22.8%, 32~33세 13.5%, 27세 이하 10.4%, 34~35세 10.0% 순으로 평균 31.5세로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로 결혼 계획 연령의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에 따라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과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연령에 따라서는 센서링 효과에 의해 고연령층일수록 결혼 계획 연령도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학 재학 중인 경우 결혼을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계획하고 있으며, 고졸이하의 저학력층인 경우 결혼 계획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대학 재학 중인 미혼층은 결혼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하여 보다 이른 연령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며, 이는 앞서 결혼 가치관의 응답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하겠다. 이와 달리,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고졸 이하 미혼남녀들은 상대적으로 결혼 조건이 불리하여 그만큼 결혼연령도 늦추어 계획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도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취업자인 경우 비취업자인 경우에 비해 결혼연령을 상대적으로 늦추어 계획하고 있었다. 취업자인 경우 취업 준비 등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결혼을 늦추어 계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11-3〉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계획 연령

(단위: %, 명, 세)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3세	34~35세	36~39세	40세 이상	계	(명)	평균 연령
미혼남성 전체	3.8	8.6	26.4	22.1	17.8	9.1	12.1	100.0	(814)	33.7
거주지($\chi^2=13.0$)										
대도시	3.7	7.9	25.9	23.6	16.0	11.5	11.5	100.0	(382)	33.8
중소도시	5.2	8.1	27.3	20.8	18.5	7.5	12.7	100.0	(308)	33.6
농촌	1.6	12.0	25.6	20.8	21.6	5.6	12.8	100.0	(125)	33.5
연령($\chi^2=1177.2^{**}$)										
20~24세	8.3	21.1	44.3	20.1	5.5	0.3	0.3	100.0	(289)	30.7
25~29세	3.1	4.0	37.4	39.2	15.4	0.4	0.4	100.0	(227)	32.2
30~34세	-	-	1.2	20.2	57.7	17.8	3.1	100.0	(163)	35.1
35~39세	-	-	-	-	-	48.9	51.1	100.0	(90)	39.6
40~44세	-	-	-	-	-	-	100.0	100.0	(46)	43.7
교육수준($\chi^2=225.8^{***}$)										
고졸이하	6.1	4.1	19.9	14.8	18.4	14.3	22.4	100.0	(196)	35.2
대학재학	4.7	21.9	44.2	24.0	4.7	0.4	-	100.0	(233)	30.9
대졸이상	2.3	3.1	18.9	24.5	25.3	11.6	14.2	100.0	(387)	34.6
취업여부($\chi^2=115.4^{**}$)										
취업	4.3	4.1	18.4	21.5	21.3	12.0	18.2	100.0	(483)	34.9
비취업	3.0	15.4	38.1	23.0	12.7	4.8	3.0	100.0	(331)	32.0

〈표 11-3〉 계속

(단위: %, 명, 세)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3세	34~35세	36~39세	40세 이상	계	(명)	평균 연령
미혼여성 전체	10.4	22.8	34.0	13.5	10.0	4.9	4.4	100.0	(832)	31.5
거주지($\chi^2=16.7$)										
대도시	10.6	20.0	33.5	15.5	9.9	6.3	4.3	100.0	(445)	31.7
중소도시	9.0	25.0	35.0	12.0	10.7	3.0	5.3	100.0	(300)	31.4
농촌	13.8	29.9	34.5	8.0	8.0	4.6	1.1	100.0	(87)	30.4
연령										
20~24세	19.5	34.7	37.9	7.0	0.8	-	-	100.0	(369)	29.5
25~29세	5.0	22.1	47.7	20.3	5.0	-	-	100.0	(281)	30.8
30~34세	-	-	7.3	23.6	52.8	9.8	6.5	100.0	(123)	34.8
35~39세	-	-	-	-	2.4	66.7	31.0	100.0	(42)	38.9
40~44세	-	-	-	-	-	-	100.0	100.0	(15)	45.3
교육수준($\chi^2=73.0^{***}$)										
고졸이하	21.0	12.3	22.2	13.6	14.8	9.9	6.2	100.0	(81)	32.1
대학재학	13.4	30.7	44.1	9.5	1.7	0.6	-	100.0	(179)	29.8
대졸이상	7.7	21.9	32.6	14.7	11.9	5.6	5.4	100.0	(570)	31.9
취업여부($\chi^2=57.2^{***}$)										
취업	9.8	19.8	28.9	15.5	13.2	7.4	5.3	100.0	(529)	32.0
비취업	11.2	28.1	42.9	10.2	4.3	0.7	2.6	100.0	(303)	30.5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 중인 미혼남녀의 경제활동특성별로 결혼계획연령을 살펴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직종, 종사상지위 및 정규직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직장유형, 종사상지위, 정규직 여부 및 근로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직종에 따라서는 사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32~33세로 계획한 비율이 높은 반면, 관리자 및 전문직의 경우 34~35세 그리고 기타 직종(농업,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으로 결혼을 계획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지위 등이 안정적인 직종에 있는 경우 결혼 계획 연령이 낮게 나타나는데, 관리직 및 전문직의 경우에는 고위신 직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준비하였

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결혼 계획 연령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직장유형에 따른 차이는 취업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30~31세, 대기업 종사자인 경우 28~29세, 중소기업 종사자인 경우 36~39세, 개인사업체 종사자인 경우 34~35세를 결혼할 시기로 계획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평균 결혼계획연령은 개인사업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용이나 소득이 안정된 대기업에서 결혼계획연령이 낮고, 개인사업체 등 고용이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에 결혼계획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입직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결혼계획연령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사상지위의 경우에는 미혼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모두 평균 결혼계획연령은 비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일용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용직에서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이른 나이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직업 안정성 등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임시일용직에서 결혼계획연령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직업의 안정성 차원보다 연령 효과에 의한 결과일 수 있어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정규직 여부에 따라서는 미혼남녀 모두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결혼 계획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의 경우 고용 안정성 등이 비정규직 보다 높으나, 정규직이 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이 집중되어 나타난 연령 효과에 의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취업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27세 이하를 결혼계획 연령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34~35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는 고소득층일수록 고연령층이 집중되어 나타난 연령 효과에 의한 것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소득 취업여성들의 경우 자기 개발 등을 위하여 결혼을 상대적으로 지연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표 11-4〉 결혼 의향이 있는 취업 미혼남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 계획 연령
(단위: %, 명, 세)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3세	34-35세	36-39세	40세 이상	계	(명)	평균 연령
취업 미혼남성 전체	4.3	4.1	18.4	21.5	21.3	12.0	18.2	100.0	(483)	34.9
직종($\chi^2=55.3^{***}$)										
관리자·전문직	6.6	1.3	17.1	13.2	34.2	15.8	11.8	100.0	(76)	34.7
사무직	3.5	3.5	16.8	31.9	27.4	6.2	10.6	100.0	(113)	34.0
서비스·판매직	4.0	7.9	23.0	23.8	15.1	11.9	14.3	100.0	(126)	34.2
기타 ¹⁾	4.2	3.0	16.7	16.1	16.1	14.9	29.2	100.0	(168)	36.0
직장유형($\chi^2=26.8$)										
공무원, 공공기관	4.8	4.8	23.8	21.4	33.3	2.4	9.5	100.0	(42)	33.5
대기업	5.7	5.7	18.6	17.1	30.0	15.7	7.1	100.0	(70)	34.1
중소기업	4.1	4.1	17.1	24.3	19.8	10.8	19.8	100.0	(222)	34.9
개인사업체, 기타	4.7	2.7	19.6	18.9	15.5	14.9	23.6	100.0	(148)	35.5
종사상지위($\chi^2=52.1^{***}$)										
비임금근로자	-	8.3	8.3	13.9	11.1	8.3	50.0	100.0	(36)	38.0
상용직	2.6	2.9	19.2	21.5	26.1	13.4	14.3	100.0	(307)	34.6
임시일용직	10.0	5.0	19.3	22.9	13.6	10.0	19.3	100.0	(140)	34.5
정규직 여부 ²⁾ ($\chi^2=19.6^{**}$)										
정규직	2.3	3.0	19.4	22.1	25.4	13.0	14.7	100.0	(299)	34.7
비정규직	10.1	5.4	18.9	21.6	15.5	10.1	18.2	100.0	(148)	34.5
근로소득										
150만원 미만	7.3	9.1	34.5	21.8	9.1	5.5	12.7	100.0	(55)	32.9
150~200만원 미만	10.0	10.0	25.0	28.0	18.0	6.0	3.0	100.0	(100)	32.5
200~300만원 미만	3.0	1.3	14.8	20.3	23.3	13.6	23.7	100.0	(236)	35.8
300만원 이상	-	2.2	9.9	17.6	27.5	18.7	24.2	100.0	(91)	36.4
취업 미혼여성 전체	9.8	19.9	29.0	15.5	13.3	7.2	5.3	100.0	(528)	32.0
직종										
관리자·전문직	7.3	18.7	31.5	15.5	12.8	6.4	7.8	100.0	(219)	32.3
사무직	9.6	19.3	31.5	14.2	12.7	9.6	3.0	100.0	(197)	32.0
서비스·판매직	13.5	24.0	20.8	14.6	16.7	5.2	5.2	100.0	(96)	31.7
기타 ¹⁾	26.3	21.1	10.5	26.3	5.3	5.3	5.3	100.0	(19)	30.9

〈표 11-4〉 계속

(단위: %, 명, 세)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3세	34-35세	36-39세	40세 이상	계	(명)	평균 연령
직장유형($\chi^2=37.3^{**}$)										
공무원, 공공기관	4.2	16.7	43.1	15.3	9.7	4.2	6.9	100.0	(72)	32.4
대기업	10.7	24.0	32.0	21.3	9.3	1.3	1.3	100.0	(75)	31.1
중소기업	11.3	22.2	24.1	17.0	11.8	10.4	3.3	100.0	(212)	31.8
개인사업체, 기타	10.1	16.6	27.8	11.2	18.3	7.1	8.9	100.0	(169)	32.5
중상상지위($\chi^2=41.9^{***}$)										
비임금근로자	4.7	23.3	16.3	7.0	18.6	9.3	20.9	100.0	(43)	34.0
상용직	8.8	20.2	27.9	16.0	14.1	8.6	4.4	100.0	(362)	32.2
임시일용직	15.2	17.6	36.0	16.8	8.8	3.2	2.4	100.0	(125)	31.0
정규직 여부 ²⁾ ($\chi^2=16.2$)										
정규직	9.6	19.9	26.5	17.2	14.5	9.3	3.0	100.0	(332)	32.0
비정규직	12.2	18.6	37.2	14.1	9.6	2.6	5.8	100.0	(156)	31.5
근로소득($\chi^2=59.0^{***}$)										
150만원 미만	16.3	27.6	26.5	13.3	5.1	7.1	4.1	100.0	(98)	31.0
150-200만원 미만	12.4	17.8	30.8	16.6	14.2	4.7	3.6	100.0	(169)	31.7
200-300만원 미만	7.1	21.3	30.5	13.7	14.7	9.6	3.0	100.0	(197)	32.0
300만원 이상	3.1	7.7	23.1	20.0	16.9	9.2	20.0	100.0	(65)	34.5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 직종에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이 포함됨.

2) 비정규직에는 비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포함됨.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배우자 조건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배우자 조건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의 경우 성격(44.1%), 신뢰와 사랑(20.6%), 건강(9.3%) 등의 순으로 중시하고 있었으며,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성격(37.0%), 경제력(21.1%), 신뢰와 사랑(16.1%), 가정환경(8.7%) 등의 순으로 중시하고 있었다. 미혼남성의 일반특성 중 연령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0~24세의 경우에는 외모 등 신체적 조건, 30~34세는 신뢰와 사랑, 35~39세는 건강, 40~44세는 성격을 배우자 조건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다른 특성이나 미혼여성의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배우자 조건에 대한 선호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1-5〉 미혼남녀(20~44세)가 제시한 배우자 조건

(단위: %, 명)

구 분	신체적 조건	건강	직업	경제력	성격	신뢰와 사랑	가정 환경	기타 ¹⁾	계	(명)
미혼남성 전체	3.9	9.3	3.6	4.0	44.1	20.6	6.1	8.5	100.0	(1,096)
거주지($\chi^2=22.5$)										
대도시	3.5	9.5	5.0	4.3	42.8	18.0	8.0	8.9	100.0	(538)
중소도시	4.7	8.7	2.5	3.2	45.3	23.6	5.0	7.0	100.0	(402)
농촌	3.2	10.1	1.3	5.1	45.6	22.2	2.5	10.1	100.0	(158)
연령($\chi^2=68.6^{***}$)										
20~24세	5.5	8.3	1.9	5.2	41.9	21.8	5.5	9.9	100.0	(363)
25~29세	2.1	10.2	5.6	1.8	49.1	14.4	7.4	9.5	100.0	(285)
30~34세	4.5	6.3	5.9	4.1	39.2	28.8	6.3	5.0	100.0	(222)
35~39세	1.5	14.7	2.2	5.1	43.4	19.9	8.8	4.4	100.0	(136)
40~44세	4.5	9.1	-	4.5	51.1	17.0	-	13.6	100.0	(88)
교육수준($\chi^2=16.9$)										
고졸이하	5.3	12.0	3.2	3.9	46.3	17.7	4.2	7.4	100.0	(283)
대학재학	2.8	7.3	3.1	4.5	43.9	20.4	6.2	11.8	100.0	(289)
대졸이상	3.6	8.8	4.2	3.6	42.9	22.3	7.1	7.4	100.0	(524)
취업여부($\chi^2=4.1$)										
취업	3.8	10.3	4.1	3.7	42.6	21.0	6.0	8.4	100.0	(652)
비취업	3.8	7.9	2.9	4.5	46.1	20.0	6.3	8.5	100.0	(445)
미혼여성 전체	0.4	4.3	7.2	21.1	37.0	16.1	8.7	5.1	100.0	(1,287)
거주지($\chi^2=23.2$)										
대도시	0.3	4.4	7.3	22.3	36.5	14.2	9.1	5.9	100.0	(682)
중소도시	0.2	5.2	6.7	20.5	34.5	19.6	8.8	4.5	100.0	(464)
농촌	1.4	1.4	8.4	17.5	47.6	14.0	6.3	3.5	100.0	(143)
연령										
20~24세	0.6	3.7	7.8	22.3	37.3	15.1	8.7	4.5	100.0	(515)
25~29세	-	4.2	8.5	18.3	37.8	17.5	10.6	3.2	100.0	(378)
30~34세	0.4	3.1	5.7	21.1	35.2	18.9	7.9	7.5	100.0	(227)
35~39세	-	7.5	7.5	26.4	34.0	10.4	6.6	7.5	100.0	(106)
40~44세	-	10.2	-	20.3	42.4	15.3	3.4	8.5	100.0	(59)
교육수준($\chi^2=16.0$)										
고졸이하	-	4.3	5.5	30.5	36.0	12.2	6.1	5.5	100.0	(164)
대학재학	0.4	3.6	6.2	22.3	36.9	15.7	10.2	4.7	100.0	(274)
대졸이상	0.4	4.6	7.9	18.8	37.3	17.1	8.8	5.2	100.0	(850)

〈표 11-5〉 계속

(단위: %, 명)

구 분	신체적 조건	건강	직업	경제력	성격	신뢰와 사랑	가정 환경	기타 ¹⁾	계	(명)
취업여부($\chi^2=13.0$)										
취업	0.1	3.8	8.8	20.7	36.2	16.0	9.3	5.0	100.0	(815)
비취업	0.6	5.1	4.5	21.9	38.5	16.4	7.9	5.1	100.0	(470)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연령, 학력, 학벌, 종교, 궁합, 형제순위, 출산지역, 조건 없음이 포함되어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결혼하지 않은 이유

가.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의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앞서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미혼남녀(20~44세)에 한하여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가 2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11.5%)’,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10.4%)’,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싶어서(9.0%)’ 등의 순으로 주로 가치관 관련된 이유들이었다.

미혼남녀 모두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의 이유가 공통적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 생활의 비용 부담(14.5%),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9.1%),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9.1%), 소득이 적어서(7.3%), 실업 상태여서(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12.9%),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싶어(11.8%),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11.2%), 소득이 적어(5.6%), 결혼생활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5.6%),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간의 차이로는 미혼남성은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이유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6〉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의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 분		전체	미혼남성	미혼여성
경제적 요인	소득이 적어서	6.3	7.3	5.6
	실업상태여서	2.8	6.4	0.6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2.1	3.6	1.1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0.7	1.8	0.0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2.4	3.6	1.7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7.3	14.5	2.8
사회적 요인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	0.7	-	1.1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2.8	-	4.5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지장이 있을까봐	4.2	1.8	5.6
가치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3.5	1.8	4.5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3.5	2.7	3.9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10.4	9.1	11.2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9.0	4.5	11.8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11.5	9.1	12.9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1.0	1.8	0.6
	결혼을 하면 응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1.0	1.8	0.6
가족 요인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3.1	-	5.1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경험하는 가족 수발 때문에	1.0	1.8	0.6
건강	건강문제장애 때문에	1.7	2.7	1.1
기타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1.0	1.8	0.6
	형이나 언니가 아직 미혼이어서	0.3	0.9	-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22.2	20.0	23.6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1.4	2.7	0.6
전체(계)		100.0(288)	100.0(110)	100.0(178)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녀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35세 미만의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가 20.2%, ‘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가 14.3%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소득/고용불안정이나 결혼 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수준이다. 한편, 35세 이상의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21.7%)’와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15.2%)’가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는 35세 미만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25.0%)’,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2.5%)’ ‘결혼 생활과 직장일 동시 수행 곤란 및 사회활동 지장(11.7%)’을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한 반면,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9.3%)’,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19.3%)’, ‘결혼에 적당한 시기를 놓쳐서(12.3%)’ 등의 순으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5세 미만 연령층에서 이와 같은 응답을 보인 것은 여전히 결혼 후에 여성이 본인의 경력 개발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1-7〉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별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 분	미혼남성			미혼여성		
	전체	35세 미만	35세 이상	전체	35세 미만	35세 이상
소득이 적어서	7.1	9.1	4.3	5.6	5.0	7.0
실업상태여서	6.6	9.1	2.2	0.5	0.8	0.0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3.5	6.1	-	1.3	1.7	1.8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1.9	1.5	2.2	-	-	-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3.7	1.5	6.5	1.5	2.5	-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14.3	16.7	10.9	2.8	3.3	-
결혼생활-직장일 동시 수행 곤란, 결혼생활로 사회활동 지장 우려	1.5	3.0	-	10.2	11.7	7.0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	2.0	3.0	-	4.3	5.8	1.8
결혼에 적당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2.4	-	6.5	4.2	-	12.3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9.2	7.6	13.0	11.1	10.8	12.3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4.2	7.6	-	11.8	12.5	10.5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9.6	6.1	15.2	13.1	10.0	19.3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	-	-	5.1	6.7	1.8
건강문제, 장애 때문에	2.8	-	6.5	1.3	-	3.5
시간이 없어서	1.9	3.0	-	.4	-	1.8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20.2	18.2	21.7	23.3	25.0	19.3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2.9	4.5	-	.5	-	1.8
기타	6.2	3.0	10.9	3.1	4.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9)	(66)	(46)	(179)	(120)	(57)

주: 1) 기타에는 직장 내 불이익, 교육을 더 받을 계획,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가족 수발, 형이나 언니가 미혼,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기타 등이 해당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30세 이상 미혼남녀의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30세 이상 미혼남녀에 한하여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미혼남성(30~44세)의 경우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7.2%)’, ‘소득이 적어서(10.9%)’,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8.6%)’,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8.3%)’,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7.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 거주자는 주택 장만 곤란, 결혼 시기 놓침, 시간이 없어서, 이성을 만날 기회 없음 등을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높은 주택 비용이나 장시간 근로 등이 미혼남성의 결혼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혼남성의 연령별로는 30~34세 연령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적인 이유(소득/고용 불안정, 주택 비용 등 포함한 결혼 비용 등)로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고, 35~39세 연령층의 경우에는 시간, 이성 만날 기회 부족,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등이 미혼으로 있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0~44세 연령층의 경우에는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이 비취업인 경우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실업상태, 고용 불안정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인 경우에는 비용 부담, 결혼에 적당한 시기 놓침,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길 희망,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등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30~44세)이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가 32.5%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1.0%)’,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9.2%)’, ‘결혼생활과 직장일 동시 수행 곤란, 결혼생활로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

이 있을까봐(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거주지별로는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일-가정양립 곤란에 대한 우려나 결혼보다 본인의 일에 충실하고 싶어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30~34세 미혼여성이나 취업 중인 미혼여성에게서도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경우 결혼 후에는 본인의 일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결혼보다는 본인의 경력개발 등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8〉 미혼남녀(30~44세)의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0.9	4.2	5.7	8.3	4.4	7.9	0.2	1.6	7.1	3.5	5.1	17.2	-	1.6	3.3	6.8	8.6	3.5	100.0 (446)
거주지																			
대도시	11.5	5.3	4.0	9.7	4.4	7.5	0.4	0.4	8.0	3.5	3.1	15.0	-	1.8	4.4	6.2	11.1	3.5	100.0 (226)
중소도시	9.0	3.2	9.7	7.7	2.6	8.4	-	1.9	7.7	5.2	10.3	16.1	-	-	2.6	7.1	6.5	1.9	100.0 (155)
농촌	12.5	3.1	1.6	4.7	7.8	7.8	-	4.7	3.1	-	-	28.1	-	4.7	1.6	7.8	4.7	7.8	100.0 (64)
연령																			
30~34세	13.1	4.5	7.7	10.4	5.4	10.9	0.5	2.7	1.4	3.2	6.8	14.0	-	1.8	2.3	6.3	6.3	2.7	100.0 (221)
35~39세	6.6	4.4	4.4	4.4	3.7	7.4	-	0.7	8.1	5.9	3.7	18.4	-	1.5	6.6	9.6	11.8	2.9	100.0 (136)
40~44세	12.4	2.2	3.4	9.0	3.4	1.1	-	-	19.1	1.1	3.4	22.5	-	1.1	1.1	4.5	9.0	6.7	100.0 (89)
교육수준																			
고졸이하	16.2	3.2	5.2	2.6	7.1	11.0	-	0.6	8.4	1.9	3.9	16.2	-	3.2	0.6	7.8	9.1	2.6	100.0 (154)
대졸이상	8.2	4.8	6.1	11.3	3.1	6.1	0.3	2.0	6.5	4.1	5.8	17.7	-	0.7	4.8	6.1	8.2	4.1	100.0 (293)
취업여부																			
취업	12.2	-	4.3	8.9	5.4	8.1	-	1.9	7.8	3.8	5.9	19.2	-	-	3.8	6.8	9.5	2.4	100.0 (370)
비취업	3.9	25.0	11.8	5.3	-	6.6	1.3	-	3.9	2.6	1.3	7.9	-	9.2	1.3	7.9	3.9	7.9	100.0 (76)
미혼여성 전체	3.5	1.3	1.6	0.5	2.3	2.0	7.7	1.2	6.5	4.4	9.2	32.5	4.3	1.4	1.7	11.0	5.0	3.7	100.0 (393)
거주지																			
대도시	3.5	1.3	1.3	0.4	2.2	2.6	10.8	0.4	6.1	5.6	11.3	32.5	4.8	0.4	0.4	8.2	3.9	4.3	100.0 (231)
중소도시	4.7	1.6	2.4	-	1.6	1.6	2.4	2.4	7.9	1.6	6.3	30.7	3.1	3.1	3.9	15.7	7.1	3.9	100.0 (127)
농촌	-	-	-	2.7	5.4	-	5.4	2.7	2.7	8.1	8.1	40.5	5.4	-	2.7	10.8	5.4	-	100.0 (37)
연령																			
30~34세	3.5	1.3	1.8	0.4	2.7	2.2	10.2	1.8	1.8	3.1	9.7	34.1	4.0	0.4	0.9	11.5	5.8	4.9	100.0 (226)
35~39세	2.8	1.9	-	0.9	1.9	2.8	3.8	0.9	7.5	9.4	7.5	38.7	-	1.9	2.8	10.4	2.8	3.8	100.0 (106)
40~44세	5.1	-	3.4	-	-	-	5.1	-	23.7	1.7	10.2	15.3	13.6	3.4	3.4	10.2	5.1	-	100.0 (59)
교육수준 ²⁾																			
고졸이하	10.6	-	2.4	1.2	2.4	1.2	4.7	1.2	11.8	10.6	9.4	22.4	1.2	3.5	-	10.6	4.7	2.4	100.0 (85)
대졸이상	1.6	1.6	1.6	0.3	2.3	2.3	8.4	1.3	4.9	2.6	9.4	35.3	5.2	1.0	2.3	11.0	5.2	3.9	100.0 (309)

〈표 11-8〉 계속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계	(명)	
취업여부																					
취업	2.7	-	1.5	0.3	2.1	1.8	8.8	1.2	6.2	3.5	10.3	34.8	5.0	0.6	2.1	10.9	5.6	2.7	100.0	(339)	
비취업	9.1	9.1	1.8	1.8	3.6	3.6	-	1.8	7.3	10.9	1.8	18.2	-	5.5	-	12.7	1.8	10.9	100.0	(55)	

주: 1) ①소득이 적어서, ②실업상태여서, ③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④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⑤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⑥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⑦결혼생활과 직장일 동시 수행 곤란, 결혼생활로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⑧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 ⑨결혼에 적당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⑩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⑪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⑫본인의 기대지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⑬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⑭건강문제, 장애 때문에, ⑮시간이 없어서, ⑯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⑰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⑱기타(직장 내 불이익, 교육을 더 받을 계획,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가족 수발, 형이나 언니가 미혼,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기타)
 2) 미혼여성 중 대학재학 중인 경우가 5명에 불과하여 고졸이하에 포함하여 분석함.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결혼정책에 대한 욕구

1. 결혼정책의 필요성

결혼에 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미혼남녀(20~44세)에게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의 86.3%, 미혼여성의 87.7%가 각각 필요(매우 필요함+다소 필요함)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미혼남녀 대부분 결혼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미혼남녀의 특성들에 관계없이 결혼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은 대학 재학 중인 경우와 비취업 중인 경우 결혼정책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11-9〉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에 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필요함	다소 필요함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37.4	48.9	12.4	1.3	100.0	(1,096)
거주지($\chi^2=12.2$)						
대도시	33.1	52.0	13.2	1.7	100.0	(537)
중소도시	43.4	45.4	10.5	0.7	100.0	(401)
농촌	36.7	47.5	13.9	1.9	100.0	(158)

〈표 11-9〉 계속

(단위: %, 명)

구 분	매우 필요함	다소 필요함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계	(명)
연령						
20~24세	33.2	52.9	12.3	1.6	100.0	(365)
25~29세	43.2	46.3	9.5	1.1	100.0	(285)
30~34세	40.7	46.2	12.7	0.5	100.0	(221)
35~39세	38.2	43.4	16.2	2.2	100.0	(136)
40~44세	27.0	55.1	15.7	2.2	100.0	(89)
교육수준($\chi^2=9.9$)						
고졸이하	37.5	49.5	11.3	1.8	100.0	(283)
대학재학	32.5	52.6	12.5	2.4	100.0	(289)
대졸이상	40.1	46.4	13.0	0.6	100.0	(524)
취업여부($\chi^2=4.7$)						
취업	39.0	46.9	13.2	0.9	100.0	(652)
비취업	35.4	51.7	11.1	1.8	100.0	(443)
미혼여성 전체						
	36.9	50.8	11.0	1.4	100.0	(1,287)
거주지($\chi^2=4.5$)						
대도시	36.2	51.9	10.3	1.6	100.0	(682)
중소도시	36.1	51.2	11.7	1.1	100.0	(463)
농촌	42.3	44.4	12.7	0.7	100.0	(142)
연령($\chi^2=75.2^{**}$)						
20~24세	39.0	52.1	8.3	0.6	100.0	(516)
25~29세	41.9	50.1	7.7	0.3	100.0	(377)
30~34세	26.9	53.7	16.3	3.1	100.0	(227)
35~39세	35.5	49.5	11.2	3.7	100.0	(107)
40~44세	26.7	35.0	33.3	5.0	100.0	(60)
교육수준($\chi^2=31.2^{***}$)						
고졸이하	21.3	61.6	14.0	3.0	100.0	(164)
대학재학	46.4	44.5	8.8	0.4	100.0	(274)
대졸이상	36.9	50.6	11.1	1.4	100.0	(849)
취업여부($\chi^2=13.1^{**}$)						
취업	34.1	52.4	11.4	2.1	100.0	(817)
비취업	41.4	48.0	10.4	0.2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결혼정책에 관한 욕구도

앞서 국가의 결혼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필요한 결혼정책의 유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의 경우

청년고용 안정화(32.6%), 신혼집 마련 지원(27.4%), 청년 실업문제 해소(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청년고용 안정화(28.6%), 신혼집 마련 지원(24.1%),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20.3%), 청년 실업문제 해소(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간 결혼정책에 대한 욕구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미혼여성에게는 여전히 직장 내 자리 잡고 있는 성차별적 문화의 타파가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남녀 모두 교육수준과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남성 중 고졸이하의 경우 ‘청년 고용 안정화(33.9%)’, ‘장시간 근로 관행 타파(8.2%)’ 등을 그리고 대학 재학 중인 경우는 ‘청년 실업 문제 해소(32.1%)’,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9.3%)’ 등을 그리고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신혼집 마련 지원(31.8%)’, ‘허례허식 혼례문화 개선(7.9%)’ 등을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미혼여성 중 고졸이하인 경우 ‘청년 고용 안정화(32.8%)’, ‘신혼집 마련 지원(32.8%)’ 등을 대학 재학 중인 경우 ‘청년 실업 문제 해소(26.5%)’,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23.3%)’ 등을 그리고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관행 타파(5.8%)’, ‘허례허식 혼례문화 개선(6.9%)’ 등을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저학력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정책 욕구가 그리고 현재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노동시장 진입에 관한 정책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남성이 취업 중인 경우에는 ‘신혼집 마련 지원(35.7%)’, ‘장시간 근로관행 타파(6.8%)’, ‘허례허식 혼례문화 개선(7.0%)’ 등을 그리고 비취업 중인 경우에는 ‘청년 실업 해소(31.3%)’, ‘청년고용 안정(35.5%)’,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6.7%)’ 등의 결혼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컨대, 비취업 중인 경우에는 고용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취업 중인 경우에는 주택이나 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10〉 미혼남성(20~44세)의 필요한 결혼정책

(단위: %, 명)

구 분	청년 실업 문제 해소	청년 고용 안정화	신혼집 마련 지원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	장시간 근로관행 타파	허례허식 혼례문화 개선	기타	계	(명)
미혼남성 전체	23.0	32.6	27.4	4.4	6.0	6.5	0.2	100.0	(946)
거주지($x^2=17.3$)									
대도시	22.1	36.7	23.4	4.4	6.6	6.6	0.4	100.0	(458)
중소도시	23.8	28.9	30.8	3.6	5.9	7.0	-	100.0	(357)
농촌	23.1	28.4	32.1	7.5	4.5	4.5	-	100.0	(134)
연령									
20~24세	30.7	32.6	19.8	7.7	4.2	5.1	-	100.0	(313)
25~29세	19.5	31.6	32.4	1.6	7.8	6.3	0.8	100.0	(256)
30~34세	17.1	31.6	34.7	3.6	7.8	5.2	-	100.0	(193)
35~39세	25.2	39.6	24.3	2.7	3.6	4.5	-	100.0	(111)
40~44세	14.9	28.4	27.0	4.1	6.8	18.9	-	100.0	(74)
교육수준($x^2=53.9^{**}$)									
고졸이하	21.6	33.9	29.0	2.9	8.2	4.5	-	100.0	(245)
대학재학	32.1	32.1	17.9	9.3	2.8	5.7	-	100.0	(246)
대졸이상	18.8	32.0	31.8	2.6	6.4	7.9	0.4	100.0	(453)
취업여부($x^2=68.6^{**}$)									
취업	17.1	30.5	35.7	2.9	6.8	7.0	-	100.0	(560)
비취업	31.3	35.5	15.5	6.7	4.7	5.7	0.5	100.0	(386)
미혼여성 전체	16.5	28.6	24.1	20.3	4.9	5.6	0.1	100.0	(1,128)
거주지($x^2=19.8$)									
대도시	17.8	28.2	27.2	18.0	4.0	4.7	0.2	100.0	(600)
중소도시	15.6	28.1	22.5	22.0	5.2	6.7	-	100.0	(405)
농촌	13.1	32.0	14.8	25.4	8.2	6.6	-	100.0	(122)
연령									
20~24세	20.0	28.7	18.5	24.3	4.5	3.8	0.2	100.0	(470)
25~29세	15.0	28.2	28.5	17.6	4.0	6.6	-	100.0	(347)
30~34세	12.0	22.4	30.1	18.0	7.7	9.8	-	100.0	(183)
35~39세	18.9	36.7	23.3	15.6	4.4	1.1	-	100.0	(90)
40~44세	5.6	41.7	27.8	13.9	5.6	5.6	-	100.0	(36)

〈표 11-10〉 계속

(단위: %, 명)

구 분	청년 실업 문제 해소	청년 고용 안정화	신혼집 마련 지원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	장시간 근로관행 타파	허례허식 혼례문화 개선	기타	계	(명)
교육수준($\chi^2=49.0^{***}$)									
고졸이하	13.1	32.8	32.8	14.6	4.4	2.2	-	100.0	(137)
대학재학	26.5	27.3	16.9	23.3	2.4	3.2	0.4	100.0	(249)
대졸이상	13.9	28.3	24.9	20.3	5.8	6.9	-	100.0	(743)
취업여부($\chi^2=72.1^{***}$)									
취업	11.3	28.3	30.2	18.1	4.8	7.1	0.1	100.0	(706)
비취업	25.2	29.0	14.0	23.8	5.0	2.9	-	100.0	(420)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2

미혼남녀의 << 출산 및 자녀에 대한 태도

제1절 자녀에 대한 태도

1. 자녀 필요성

미혼남녀(20~44세)에게 자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남성 39.9%, 미혼여성 28.4%로 각각 나타났다.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남성 17.5%, 미혼여성 29.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에게서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양육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는데다가, 취업여성의 경우 기회비용이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미혼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혼남녀 모두 대체적으로 고연령층일수록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없어도 무관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연령층일수록 결혼을 아직까지 하지 못한 여러 제약 조건이나 결혼 후에도 늦어진 자녀의 출산 및 양육 부담 등이 크다는 점들을 고려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에 자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나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조건의 상대적 열악함 등의 영향으로 자녀 출산에 대

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느끼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대학 재학 중인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 필요성과 결혼 의향이 높은 반면,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준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자녀출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 중인 미혼여성에게서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올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취업 중인 미혼여성에게서는 ‘없어도 무관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중인 경우에는 본인의 경제적 자원을 고려하여 향후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반면, 비취업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의 부족 등을 예상하여 향후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표 12-1〉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올 것이다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39.9	40.6	17.5	1.9	100.0	(1,096)
거주지($\chi^2=7.2$)						
대도시	39.3	42.1	16.6	2.0	100.0	(537)
중소도시	39.2	39.2	20.4	1.2	100.0	(401)
농촌	44.3	38.6	13.9	3.2	100.0	(158)
연령($\chi^2=43.4^{**}$)						
20~24세	36.3	47.3	15.1	1.4	100.0	(364)
25~29세	48.3	36.0	12.9	2.8	100.0	(286)
30~34세	44.8	36.2	17.6	1.4	100.0	(221)
35~39세	28.5	38.0	30.7	2.9	100.0	(137)
40~44세	34.1	44.3	21.6	-	100.0	(88)
교육수준($\chi^2=20.9^{**}$)						
고졸이하	42.3	36.6	16.5	4.6	100.0	(284)
대학재학	38.1	45.7	14.9	1.4	100.0	(289)
대졸이상	39.6	40.0	19.7	0.8	100.0	(523)

〈표 12-1〉 계속

(단위: %, 명)

구 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	(명)
취업여부($\chi^2=3.4$)						
취업	41.6	38.7	18.1	1.7	100.0	(652)
비취업	37.5	43.6	16.7	2.3	100.0	(443)
미혼여성 전체	28.4	40.0	29.5	2.2	100.0	(1,287)
거주지($\chi^2=10.6$)						
대도시	28.7	38.0	30.8	2.5	100.0	(682)
중소도시	26.6	41.9	30.2	1.3	100.0	(463)
농촌	32.4	43.7	20.4	3.5	100.0	(142)
연령($\chi^2=48.0^{***}$)						
20~24세	31.0	38.6	26.0	4.5	100.0	(516)
25~29세	31.0	39.3	29.4	0.3	100.0	(377)
30~34세	27.8	41.0	30.8	0.4	100.0	(227)
35~39세	16.8	38.3	43.0	1.9	100.0	(107)
40~44세	11.9	55.9	30.5	1.7	100.0	(59)
교육수준($\chi^2=42.8^{***}$)						
고졸이하	26.8	40.2	32.3	0.6	100.0	(164)
대학재학	29.7	31.1	32.6	6.6	100.0	(273)
대졸이상	28.2	42.8	28.0	0.9	100.0	(850)
취업여부($\chi^2=24.6^{***}$)						
취업	28.2	43.0	27.9	0.9	100.0	(816)
비취업	28.7	34.8	32.1	4.5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앞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하여(40.2%)’,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30.1%)’,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26.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하여(36.2%)’,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32.0%)’,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21.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혼남녀 모두 무자녀를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경제적 요인이었다.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주지에 따라서는 미혼남녀 모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싫어서’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경제적 여유를 위해 그리고 저연령층일수록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뚜렷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미혼남녀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미혼남성의 경우 고졸 이하의 경우 경제적 여유를,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부부만의 생활 추구를, 그리고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와 ‘직장생활 유지’ 등을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부부만의 생활추구, 직장생활 유지 곤란 등을 그리고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를 위해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이유로 미혼남녀 모두 취업자인 경우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2-2〉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 명)

구 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유지 희망/기타	계	(명)
미혼남성 전체 거주지	40.2	30.1	26.9	2.8	100.0	(192)
대도시	36.0	24.7	34.8	4.5	100.0	(89)
중소도시	45.7	33.3	18.5	2.5	100.0	(81)
농촌	36.4	36.4	27.3	-	100.0	(22)

〈표 12-2〉 계속

(단위: %, 명)

구 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유지 희망/기타	계	(명)
연령						
20~24세	36.4	45.5	18.2	-	100.0	(55)
25~29세	39.5	21.1	36.8	2.6	100.0	(38)
30~34세	41.0	20.5	30.8	7.7	100.0	(39)
35~39세	45.2	28.6	21.4	4.8	100.0	(42)
40~44세	42.1	21.1	36.8	-	100.0	(19)
교육수준						
고졸이하	55.3	25.5	19.1	-	100.0	(47)
대학재학	40.5	35.7	21.4	2.4	100.0	(42)
대졸이상	33.0	30.1	33.0	3.9	100.0	(103)
취업여부						
취업	40.7	23.7	31.4	4.2	100.0	(118)
비취업	39.2	40.5	20.3	-	100.0	(74)
미혼여성 전체	36.2	21.3	32.0	10.5	100.0	(379)
거주지($\chi^2=6.4$)						
대도시	39.0	19.5	32.4	9.0	100.0	(210)
중소도시	33.3	25.5	30.5	10.6	100.0	(141)
농촌	32.1	10.7	39.3	17.9	100.0	(28)
연령($\chi^2=13.2$)						
20~24세	34.1	23.7	34.1	8.1	100.0	(135)
25~29세	35.1	21.6	28.8	14.4	100.0	(111)
30~34세	32.9	17.1	40.0	10.0	100.0	(70)
35~39세	50.0	17.4	19.6	13.0	100.0	(46)
40~44세	35.3	29.4	35.3	-	100.0	(17)
교육수준($\chi^2=11.9$)						
고졸이하	37.7	20.8	39.6	1.9	100.0	(53)
대학재학	27.0	24.7	31.5	16.9	100.0	(89)
대졸이상	39.5	20.2	30.3	10.1	100.0	(238)
취업여부($\chi^2=4.8$)						
취업	33.8	20.6	32.5	13.2	100.0	(228)
비취업	39.7	22.5	31.1	6.6	100.0	(151)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이상자녀수

미혼남녀(20~44세)가 응답한 이상자녀수는 미혼남성의 경우 2명(68.6%), 1명(15.0%), 3명 이상(1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2명(66.1%), 1명(13.8%), 3명 이상(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혼남성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1.96명, 미혼여성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1.98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주지에 따라서는 미혼남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자녀수로 1명을 응답한 비율은 도시(특히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상자녀수로 2명이나 3명 이상을 응답한 비율은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혼남성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농촌(2.07명), 중소도시(2.01명), 대도시(1.89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과 달리, 미혼여성의 거주지로 이상자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혼남녀 모두 평균 이상자녀수가 고연령층일수록 적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고연령인 미혼남녀들이 결혼 후 늦어진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이상자녀수를 상대적으로 적게 응답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미혼남녀 모두 대학 재학 중인 경우 평균 이상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고졸 이하의 계층에서 평균 이상자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모두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취업인 경우에 평균 이상자녀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취업 미혼여성의 경우 다자녀 출산에 따라 양육 부담과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점에서 적은 수의 자녀수를 이상자녀수로 간주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3〉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모르겠음	계	(명)	평균
미혼남성 전체	0.8	15.0	68.6	11.7	3.9	100.0	(1,096)	1.96
거주지								
대도시	0.9	17.7	68.2	8.7	4.5	100.0	(538)	1.89
중소도시	0.7	13.0	68.6	14.0	3.7	100.0	(401)	2.01
농촌	0.6	10.8	70.1	16.6	1.9	100.0	(157)	2.07
연령								
20~24세	0.5	11.8	66.8	15.1	5.8	100.0	(365)	2.04
25~29세	1.1	10.2	73.0	12.6	3.2	100.0	(285)	2.01
30~34세	0.5	20.4	67.4	8.1	3.6	100.0	(221)	1.86
35~39세	0.7	18.4	69.9	7.4	3.7	100.0	(136)	1.86
40~44세	1.1	24.7	64.0	10.1	-	100.0	(89)	1.87
교육수준								
고졸이하	0.4	19.0	65.8	12.0	2.8	100.0	(284)	1.93
대학재학	0.3	10.4	68.8	16.0	4.5	100.0	(288)	2.06
대졸이상	1.1	15.3	70.2	9.4	4.0	100.0	(523)	1.92
취업여부								
취업	1.1	15.3	69.9	10.3	3.4	100.0	(652)	1.93
비취업	0.2	14.5	67.0	13.8	4.5	100.0	(442)	2.00
미혼여성 전체	0.7	13.8	66.1	11.9	7.6	100.0	(1,287)	1.98
거주지								
대도시	0.9	14.4	68.0	10.3	6.5	100.0	(682)	1.95
중소도시	0.6	13.8	64.1	12.7	8.6	100.0	(463)	2.00
농촌	-	10.6	62.7	16.9	9.9	100.0	(142)	2.08
연령								
20~24세	0.6	10.5	62.8	16.3	9.9	100.0	(516)	2.08
25~29세	0.5	16.2	67.9	10.3	5.0	100.0	(377)	1.94
30~34세	0.9	14.5	73.1	6.2	5.3	100.0	(227)	1.89
35~39세	-	11.2	74.8	9.3	4.7	100.0	(107)	1.99
40~44세	3.3	30.0	40.0	10.0	16.7	100.0	(60)	1.68
교육수준($\chi^2=56.3^{***}$)								
고졸이하	3.0	11.6	73.2	7.3	4.9	100.0	(164)	1.89
대학재학	0.7	9.9	57.3	20.1	12.0	100.0	(274)	2.14
대졸이상	0.2	15.5	67.5	10.1	6.6	100.0	(849)	1.95
취업여부($\chi^2=32.0^{***}$)								
취업	0.7	16.1	67.9	10.2	5.2	100.0	(815)	1.93
비취업	0.6	9.8	63.1	14.9	11.7	100.0	(471)	2.07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2-4〉에서는 취업 미혼남녀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자녀수를 제시하였다. 우선 미혼남성의 직종별 평균 이상자녀수는 서비스·판매직(2.02명), 관리자·전문직(1.95명), 기타(1.89명), 사무직(1.88명)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직장유형별로 평균 이상자녀수는 대기업(2.04명), 개인사업체 및 기타(1.95명), 중소기업(1.91명), 공무원 및 공공기관(1.83명)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 평균 이상자녀수는 비임금근로자(2.06명), 임시일용직(1.93명), 상용직(1.92명)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정규직 여부별로 평균 이상자녀수는 정규직(1.93명)이 비정규직(1.90명) 보다 많이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이상자녀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직종별 평균 이상자녀수는 기타(2.05명), 관리자·전문직(2.03명), 서비스·판매직(1.92명), 사무직(1.82명)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직장유형별로 평균 이상자녀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2.08명), 개인사업체 및 기타(1.96명), 중소기업(1.89명), 대기업(1.85명)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 평균 이상자녀수는 임시일용직(1.99명), 비임금근로자(1.95명), 상용직(1.91명)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정규직 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평균 이상자녀수는 정규직(1.92명)이 비정규직(1.96명) 보다 적게 나타났다. 취업 미혼여성의 근로소득 수준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근로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이상자녀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표 12-4〉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모르겠음	계	(명)	평균
취업 미혼남성	1.1	15.3	69.9	10.3	3.4	100.0	(652)	1.93
직종								
관리자·전문직	1.1	13.3	72.2	11.1	2.2	100.0	(90)	1.95
사무직	0.6	16.9	72.1	6.5	3.9	100.0	(154)	1.88
서비스·판매직	-	11.8	70.0	13.5	4.7	100.0	(170)	2.02
기타 ¹⁾	2.1	17.6	67.8	10.5	2.1	100.0	(239)	1.89
직장유형								
공무원, 공공기관	3.6	19.6	62.5	8.9	5.4	100.0	(56)	1.83
대기업	-	9.9	75.3	11.1	3.7	100.0	(81)	2.04
중소기업	1.6	15.0	70.9	9.3	3.2	100.0	(313)	1.91
개인사업체, 기타	0.5	16.7	68.0	11.8	3.0	100.0	(203)	1.95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	13.2	64.2	18.9	3.8	100.0	(53)	2.06
상용직	0.7	15.7	72.5	8.6	2.5	100.0	(407)	1.92
임시일용직	2.1	15.0	66.3	11.4	5.2	100.0	(193)	1.93
정규직 여부 ¹⁾								
정규직	0.8	14.8	73.1	8.8	2.6	100.0	(386)	1.93
비정규직	1.9	16.6	66.4	10.4	4.7	100.0	(211)	1.90
근로소득								
150만원 미만	1.1	8.0	70.1	9.2	11.5	100.0	(87)	2.01
150~200만원 미만	3.7	9.6	72.8	11.8	2.2	100.0	(136)	1.97
200~300만원 미만	-	21.4	65.6	10.0	3.0	100.0	(299)	1.89
300만원 이상	1.5	12.9	75.8	9.8	-	100.0	(132)	1.94
취업 미혼여성	0.7	16.0	67.9	10.2	5.2	100.0	(814)	1.93
직종								
관리자·전문직	-	11.4	70.5	12.7	5.4	100.0	(332)	2.03
사무직	1.4	22.7	63.2	7.2	5.5	100.0	(291)	1.82
서비스·판매직	1.3	15.6	68.8	10.0	4.4	100.0	(160)	1.92
기타 ¹⁾	-	8.8	76.5	11.8	2.9	100.0	(34)	2.05
직장유형								
공무원, 공공기관	0.9	10.1	68.8	14.7	5.5	100.0	(109)	2.08
대기업	-	20.6	68.0	6.2	5.2	100.0	(97)	1.85
중소기업	0.3	20.3	66.1	9.5	3.8	100.0	(316)	1.89
개인사업체, 기타	1.4	12.5	68.8	10.5	6.8	100.0	(295)	1.96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	17.3	62.7	12.0	8.0	100.0	(75)	1.95
상용직	0.2	18.2	68.4	9.2	4.1	100.0	(534)	1.91
임시일용직	2.4	10.2	68.4	12.1	6.8	100.0	(206)	1.99
정규직 여부 ¹⁾								
정규직	0.2	17.1	69.2	9.1	4.4	100.0	(497)	1.92
비정규직	2.0	13.9	66.1	11.8	6.1	100.0	(245)	1.96

〈표 12-4〉 계속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모르겠음	계	(명)	평균
근로소득								
150만원 미만	2.5	11.3	71.3	10.0	5.0	100.0	(160)	1.95
150~200만원 미만	0.4	13.2	68.4	11.6	6.4	100.0	(250)	1.99
200~300만원 미만	0.3	20.8	67.5	7.1	4.2	100.0	(308)	1.85
300만원 이상	-	15.5	60.8	17.5	6.2	100.0	(97)	2.01

주: 1) 기타 직종에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이 포함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여성이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이상적인 직장형태와 자녀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혼남녀 모두 '시간제+2명 이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남성의 경우 '시간제+2명 이상(30.2%)', '전일제+2명 이상(22.9%)', '전일제+1명(17.4%)', '시간제+1명(14.0%)', '비취업+2명 이상(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시간제+2명 이상(33.0%)', '전일제+1명(19.5%)', '전일제+2명 이상(17.0%)', '시간제+1명(15.5%)', '전일제+무자녀(8.2%)', '비취업+2명 이상(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전일제+1명'과 '전일제+무자녀'를 중시하는 경향이 미혼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 대체로 이상적이라고 인식하는 직장형태와 자녀수 간 조합의 구조는 어느 정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체적인 패턴은 일견 미혼남녀의 일반적인 특성별로 다소의 차이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표 12-5〉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적인 직장형태와 자녀수 간 조합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일제			시간제			비취업			계	(명)
	무자녀	1명	2명 이상	무자녀	1명	2명 이상	무자녀	1명	2명 이상		
미혼남성 전체	5.7	17.4	22.9	0.7	14.0	30.2	0.1	1.1	7.9	100.0	(1,096)
거주지											
대도시	6.3	17.1	19.9	0.9	16.2	29.4	-	1.5	8.7	100.0	(538)
중소도시	6.2	13.9	27.6	0.5	11.9	30.6	0.2	0.5	8.5	100.0	(402)
농촌	2.5	27.2	20.9	-	12.0	31.6	-	1.3	4.4	100.0	(158)
연령											
20~24세	6.0	11.5	23.8	1.1	13.4	33.4	-	0.8	9.9	100.0	(365)
25~29세	5.9	15.3	26.4	0.7	11.1	33.3	0.3	0.3	6.6	100.0	(288)
30~34세	7.2	23.8	20.6	0.9	15.7	24.7	-	0.4	6.7	100.0	(223)
35~39세	3.7	24.3	17.6	-	19.9	25.0	-	0.7	8.8	100.0	(136)
40~44세	3.4	20.7	21.8	-	11.5	28.7	-	6.9	6.9	100.0	(87)
교육수준											
고졸이하	3.5	16.3	24.4	1.4	19.4	26.9	0.0	0.7	7.4	100.0	(283)
대학재학	5.9	13.5	21.5	0.7	12.1	37.7	0.0	1.0	7.6	100.0	(289)
대졸이상	6.9	20.2	22.9	0.4	12.2	27.8	0.2	1.3	8.2	100.0	(525)
취업여부											
취업	6.1	19.6	23.7	0.8	12.7	29.2	-	0.6	7.2	100.0	(653)
비취업	5.0	14.2	21.6	0.7	16.0	31.8	0.2	1.6	9.0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8.2	19.5	17.0	1.9	15.5	33.0	0.1	0.4	4.5	100.0	(1,287)
거주지											
대도시	7.2	20.4	16.0	1.0	17.1	32.9	-	0.4	5.0	100.0	(683)
중소도시	9.7	17.9	16.2	3.5	14.0	35.0	-	0.2	3.5	100.0	(463)
농촌	7.8	20.6	25.5	0.7	12.1	27.0	-	0.7	5.7	100.0	(141)
연령											
20~24세	7.5	22.6	19.5	2.3	10.8	32.6	0.2	0.4	4.1	100.0	(518)
25~29세	6.9	19.1	20.2	0.5	12.8	37.0	-	0.3	3.2	100.0	(376)
30~34세	11.0	17.2	8.4	0.4	24.7	31.3	-	-	7.0	100.0	(227)
35~39세	6.5	12.1	15.9	8.4	22.4	30.8	-	0.9	2.8	100.0	(107)
40~44세	13.1	16.4	9.8	-	27.9	21.3	-	1.6	9.8	100.0	(61)
교육수준											
고졸이하	11.7	11.0	18.4	3.7	19.6	24.5	-	0.6	10.4	100.0	(163)
대학재학	9.5	24.8	13.9	1.8	10.9	36.5	0.4	-	2.2	100.0	(274)
대졸이상	7.1	19.4	17.6	1.6	16.2	33.5	-	0.4	4.1	100.0	(850)
취업여부											
취업	8.1	20.2	17.5	1.2	16.6	31.8	-	0.1	4.4	100.0	(817)
비취업	8.1	18.3	16.2	3.0	13.6	35.2	-	0.9	4.7	100.0	(469)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자녀의 가치에 대한 태도

일반적인 ‘자녀 가치(value of child)’에 대해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자녀 가치 중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94.0%, 미혼여성의 91.4%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아주 우세하였다. 동견해에 대한 태도는 미혼남성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고연령층일수록, 고학력층일수록 그리고 취업 중인 경우에 반대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저학력층일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2-6〉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44.8	49.2	5.3	0.7	100.0	(1,096)
거주지						
대도시	42.8	49.7	6.1	1.3	100.0	(537)
중소도시	45.6	49.4	5.0	-	100.0	(401)
읍면부	49.4	46.8	3.8	-	100.0	(158)
연령						
20~24세	49.6	46.3	3.6	0.5	100.0	(365)
25~29세	49.0	43.4	7.3	0.3	100.0	(286)
30~34세	43.4	51.1	3.6	1.8	100.0	(221)
35~39세	29.9	62.8	7.3	-	100.0	(137)
40~44세	37.1	55.1	7.9	-	100.0	(89)
교육수준						
고졸이하	40.6	54.1	4.9	0.4	100.0	(283)
대학재학	54.0	40.5	4.5	1.0	100.0	(289)
대졸이상	41.8	51.5	6.1	0.6	100.0	(524)
취업여부						
취업	43.6	49.3	6.6	0.5	100.0	(653)
비취업	46.4	48.9	3.6	1.1	100.0	(444)

〈표 12-6〉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여성 전체	39.1	52.3	8.2	0.4	100.0	(1,287)
거주지						
대도시	37.7	53.0	9.0	0.3	100.0	(681)
중소도시	39.9	51.7	7.8	0.6	100.0	(464)
읍면부	43.0	50.7	5.6	0.7	100.0	(142)
연령						
20~24세	41.4	50.9	7.0	0.8	100.0	(517)
25~29세	41.9	50.7	7.4	-	100.0	(377)
30~34세	36.8	48.2	14.9	-	100.0	(228)
35~39세	23.4	69.2	7.5	-	100.0	(107)
40~44세	37.3	59.3	-	3.4	100.0	(59)
교육수준						
고졸이하	33.1	52.1	12.9	1.8	100.0	(163)
대학재학	40.9	50.0	8.4	0.7	100.0	(274)
대졸이상	39.6	53.2	7.2	-	100.0	(850)
취업여부						
취업	39.1	52.5	8.1	0.4	100.0	(816)
비취업	39.1	52.0	8.3	0.6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92.0%, 미혼여성의 87.7%가 찬성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일반특성에 따른 차이 없이 보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12-7〉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 (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39.8	52.2	7.4	0.6	100.0	(1,096)
거주지						
대도시	38.4	51.0	9.7	0.9	100.0	(537)
중소도시	42.1	52.1	5.5	0.2	100.0	(401)
읍면부	38.6	55.7	5.1	0.6	100.0	(158)

〈표 12-7〉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연령						
20~24세	43.6	49.9	5.5	1.1	100.0	(365)
25~29세	46.9	44.1	8.7	0.3	100.0	(286)
30~34세	35.6	56.3	6.8	1.4	100.0	(222)
35~39세	29.2	57.7	13.1	-	100.0	(137)
40~44세	27.3	68.2	4.5	-	100.0	(88)
교육수준						
고졸이하	36.2	56.4	7.1	0.4	100.0	(282)
대학재학	46.6	46.2	5.9	1.4	100.0	(290)
대졸이상	38.0	53.2	8.4	0.4	100.0	(524)
취업여부						
취업	38.5	52.6	8.9	-	100.0	(652)
비취업	41.7	51.6	5.2	1.6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29.4	58.3	11.4	0.9	100.0	(1,287)
거주지($\chi^2=4.2$)						
대도시	29.5	58.2	11.4	0.9	100.0	(682)
중소도시	28.7	59.8	10.2	1.3	100.0	(463)
읍면부	30.8	53.1	15.4	0.7	100.0	(143)
연령						
20~24세	30.2	58.1	10.7	1.0	100.0	(516)
25~29세	32.6	55.2	11.1	1.1	100.0	(377)
30~34세	27.3	59.5	13.2	-	100.0	(227)
35~39세	19.6	68.2	10.3	1.9	100.0	(107)
40~44세	26.7	55.0	15.0	3.3	100.0	(60)
교육수준($\chi^2=10.9$)						
고졸이하	26.8	54.9	15.9	2.4	100.0	(164)
대학재학	27.7	62.4	9.1	0.7	100.0	(274)
대졸이상	30.5	57.5	11.3	0.7	100.0	(850)
취업여부($\chi^2=2.5$)						
취업	29.5	57.5	12.2	0.7	100.0	(817)
비취업	29.1	59.6	10.0	1.3	100.0	(470)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74.4%, 미혼여성의 79.4%가 찬성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게 나타

났다. 미혼남녀 모두 저연령층일수록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저학력계층일수록 동 견해에 찬성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고학력계층일수록 찬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여성의 경우 취업 중인 경우에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2-8〉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28.6	45.8	21.7	3.9	100.0	(1,096)
거주지($\chi^2=3.5$)						
대도시	29.6	44.1	22.7	3.7	100.0	(538)
중소도시	28.4	47.1	20.9	3.5	100.0	(401)
농촌	25.5	48.4	20.4	5.7	100.0	(157)
연령($\chi^2=44.1^{***}$)						
20~24세	38.4	41.1	17.3	3.3	100.0	(365)
25~29세	26.3	50.9	18.9	3.9	100.0	(285)
30~34세	25.8	46.6	24.0	3.6	100.0	(221)
35~39세	19.1	40.4	35.3	5.1	100.0	(136)
40~44세	18.4	55.2	21.8	4.6	100.0	(87)
교육수준($\chi^2=14.8^{\circ}$)						
고졸이하	27.2	49.1	19.4	4.2	100.0	(283)
대학재학	36.5	41.3	19.1	3.1	100.0	(288)
대졸이상	25.0	46.4	24.4	4.2	100.0	(524)
취업여부($\chi^2=5.0$)						
취업	26.2	46.9	23.0	4.0	100.0	(653)
비취업	32.2	44.1	19.8	3.8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27.4	52.0	18.0	2.5	100.0	(1,287)
거주지($\chi^2=1.8$)						
대도시	28.3	51.0	17.9	2.8	100.0	(681)
중소도시	26.8	52.9	18.4	1.9	100.0	(463)
농촌	25.5	54.6	17.0	2.8	100.0	(141)

〈표 12-8〉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연령($\chi^2=35.9^{***}$)						
20~24세	31.3	51.3	15.1	2.3	100.0	(517)
25~29세	29.2	49.6	19.6	1.6	100.0	(377)
30~34세	23.2	56.6	16.7	3.5	100.0	(228)
35~39세	20.8	57.5	17.9	3.8	100.0	(106)
40~44세	10.2	47.5	39.0	3.4	100.0	(59)
교육수준($\chi^2=16.0^*$)						
고졸이하	23.3	44.8	27.6	4.3	100.0	(163)
대학재학	29.9	51.1	17.2	1.8	100.0	(274)
대졸이상	27.4	53.7	16.5	2.4	100.0	(849)
취업여부($\chi^2=11.4^*$)						
취업	24.9	53.7	18.1	3.3	100.0	(816)
비취업	31.8	49.0	17.8	1.3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40.6%, 미혼여성의 41.7%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찬성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녀 모두 저연령층일수록, 대학 재학 중인 경우, 취업인 경우에 찬성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2-9〉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9.1	31.5	44.6	14.8	100.0	(1,096)
거주지($\chi^2=5.4$)						
대도시	9.1	30.0	44.6	16.2	100.0	(536)
중소도시	8.7	33.4	46.1	11.7	100.0	(401)
읍면부	9.6	31.8	41.4	17.2	100.0	(157)
연령($\chi^2=85.6^{***}$)						
20~24세	13.2	43.3	33.2	10.4	100.0	(365)
25~29세	8.7	32.2	42.3	16.8	100.0	(286)
30~34세	6.8	22.6	58.4	12.2	100.0	(221)
35~39세	5.9	14.7	56.6	22.8	100.0	(136)
40~44세	4.5	28.1	46.1	21.3	100.0	(89)
교육수준($\chi^2=43.3^{**}$)						
고졸이하	6.7	29.7	50.2	13.4	100.0	(283)
대학재학	14.5	41.2	30.8	13.5	100.0	(289)
대졸이상	7.3	27.3	49.2	16.2	100.0	(524)
취업여부($\chi^2=33.8^{***}$)						
취업	7.5	25.9	50.0	16.6	100.0	(652)
비취업	11.3	39.7	36.8	12.2	100.0	(443)
미혼여성 전체	7.6	34.1	47.0	11.3	100.0	(1,287)
거주지($\chi^2=17.1^{**}$)						
대도시	8.9	30.9	47.1	13.0	100.0	(682)
중소도시	5.4	40.0	45.8	8.9	100.0	(463)
읍면부	8.5	29.6	50.7	11.3	100.0	(142)
연령($\chi^2=74.8^{***}$)						
20~24세	9.7	41.4	42.3	6.6	100.0	(515)
25~29세	7.4	33.9	47.4	11.4	100.0	(378)
30~34세	5.7	27.2	53.5	13.6	100.0	(228)
35~39세	6.5	27.1	40.2	26.2	100.0	(107)
40~44세	-	13.3	70.0	16.7	100.0	(60)
교육수준($\chi^2=17.8^{**}$)						
고졸이하	7.4	26.4	50.3	16.0	100.0	(163)
대학재학	9.2	39.6	45.4	5.9	100.0	(273)
대졸이상	7.1	33.8	47.0	12.1	100.0	(849)
취업여부($\chi^2=14.6^{**}$)						
취업	6.5	32.1	48.2	13.2	100.0	(816)
비취업	9.6	37.6	45.0	7.9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45.9%, 미혼여성의 27.9%만이 찬성하여 부정적인 태도(특히 미혼여성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미혼남녀(특히 미혼여성)가 고연령층일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연령 미혼집단의 태도가 반영된 이른바 ‘센서링 효과’에 기인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미혼남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대학 재학 중인 경우 찬성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미혼남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인 경우에 비해 비취업인 경우 찬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2-1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 (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1.3	34.6	40.4	13.7	100.0	(1,096)
거주지($\chi^2=6.1$)						
대도시	10.6	34.3	39.9	15.3	100.0	(537)
중소도시	10.7	36.4	41.4	11.5	100.0	(401)
농촌	15.2	31.0	39.2	14.6	100.0	(158)
연령($\chi^2=41.1^{***}$)						
20~24세	14.8	40.3	32.6	12.3	100.0	(365)
25~29세	12.3	35.6	37.7	14.4	100.0	(284)
30~34세	9.0	25.3	50.2	15.4	100.0	(221)
35~39세	6.6	28.5	53.3	11.7	100.0	(137)
40~44세	5.6	40.4	37.1	16.9	100.0	(89)
교육수준($\chi^2=15.4^*$)						
고졸이하	12.4	35.7	38.9	13.1	100.0	(283)
대학재학	13.5	39.9	32.6	13.9	100.0	(288)
대졸이상	9.5	31.0	45.5	13.9	100.0	(525)
취업여부($\chi^2=13.8^{**}$)						
취업	11.0	30.7	42.6	15.6	100.0	(652)
비취업	11.7	40.4	37.0	10.8	100.0	(443)

〈표 12-10〉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여성 전체	5.4	22.5	51.9	20.2	100.0	(1,287)
거주지($\chi^2=6.1$)						
대도시	5.6	21.8	53.2	19.4	100.0	(682)
중소도시	4.3	22.7	51.8	21.2	100.0	(463)
농촌	8.5	25.4	45.1	21.1	100.0	(142)
연령($\chi^2=44.6^{***}$)						
20~24세	7.2	25.0	51.6	16.2	100.0	(517)
25~29세	6.1	21.7	51.1	21.2	100.0	(378)
30~34세	2.2	23.7	57.0	17.1	100.0	(228)
35~39세	3.7	21.5	43.0	31.8	100.0	(107)
40~44세	1.7	5.0	55.0	38.3	100.0	(60)
교육수준($\chi^2=7.4$)						
고졸이하	8.5	26.2	46.3	18.9	100.0	(164)
대학재학	5.9	23.8	50.5	19.8	100.0	(273)
대졸이상	4.6	21.4	53.4	20.6	100.0	(849)
취업여부($\chi^2=1.1$)						
취업	5.0	22.8	51.3	20.8	100.0	(816)
비취업	5.9	22.1	52.9	19.1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45.3%, 미혼여성의 39.8%가 찬성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미혼남녀 모두 거주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남녀 공히 도시(특히 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하여 찬성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여성이 저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대학 재학 중인 경우 찬성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12-11〉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 (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9.4	35.9	40.2	14.5	100.0	(1,096)
거주지($\chi^2=16.3^{\dagger}$)						
대도시	7.8	32.8	42.5	16.8	100.0	(536)
중소도시	12.0	40.4	36.9	10.7	100.0	(401)
농촌	8.2	34.8	40.5	16.5	100.0	(158)
연령($\chi^2=18.2$)						
20~24세	9.9	34.3	43.1	12.6	100.0	(364)
25~29세	10.5	42.1	32.3	15.1	100.0	(285)
30~34세	10.5	33.2	39.5	16.8	100.0	(220)
35~39세	6.6	30.9	47.8	14.7	100.0	(136)
40~44세	4.5	37.5	44.3	13.6	100.0	(88)
교육수준($\chi^2=4.0$)						
고졸이하	7.4	33.9	43.1	15.5	100.0	(283)
대학재학	10.4	34.6	40.8	14.2	100.0	(289)
대졸이상	9.9	37.7	38.1	14.3	100.0	(525)
취업여부($\chi^2=2.2$)						
취업	9.5	36.4	38.6	15.5	100.0	(653)
비취업	9.2	35.1	42.6	13.1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5.8	34.0	47.0	13.2	100.0	(1,287)
거주지($\chi^2=13.7^{\dagger}$)						
대도시	7.6	31.8	48.5	12.2	100.0	(683)
중소도시	4.3	37.6	43.6	14.5	100.0	(463)
농촌	2.8	32.4	51.4	13.4	100.0	(142)
연령($\chi^2=27.9^{**}$)						
20~24세	5.6	36.4	43.7	14.3	100.0	(517)
25~29세	8.7	35.7	44.4	11.1	100.0	(378)
30~34세	3.1	29.4	57.0	10.5	100.0	(228)
35~39세	2.8	29.9	47.7	19.6	100.0	(107)
40~44세	5.0	26.7	53.3	15.0	100.0	(60)
교육수준($\chi^2=15.6^{\ddagger}$)						
고졸이하	7.9	29.3	48.8	14.0	100.0	(164)
대학재학	4.8	42.5	38.5	14.3	100.0	(273)
대졸이상	5.8	32.1	49.5	12.6	100.0	(850)
취업여부($\chi^2=2.4$)						
취업	5.3	34.1	48.2	12.5	100.0	(816)
비취업	6.8	33.8	45.2	14.2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55.6%, 미혼여성의 45.7%가 찬성하였다. 즉, 미혼남성은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도시(특히 대도시)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찬성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이 저연령층일수록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세대일수록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응답한 결과일 것이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미혼여성의 경우 대졸 이상에서 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들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 자기개발 등이 자녀 양육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2-12〉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1.4	44.2	35.8	8.5	100.0	(1,096)
거주지($\chi^2=12.1$)						
대도시	13.2	40.5	36.8	9.5	100.0	(536)
중소도시	9.0	49.9	34.7	6.5	100.0	(401)
농촌	11.4	42.4	35.4	10.8	100.0	(158)
연령($\chi^2=32.7^{**}$)						
20~24세	14.8	43.3	34.2	7.7	100.0	(365)
25~29세	15.4	38.5	38.1	8.0	100.0	(286)
30~34세	8.1	48.2	36.0	7.7	100.0	(222)
35~39세	3.6	54.7	32.1	9.5	100.0	(137)
40~44세	5.6	39.3	40.4	14.6	100.0	(89)
교육수준($\chi^2=11.1$)						
고졸이하	10.2	43.7	38.0	8.1	100.0	(284)
대학재학	16.0	43.4	30.9	9.7	100.0	(288)
대졸이상	9.4	45.0	37.4	8.2	100.0	(524)
취업여부($\chi^2=1.3$)						
취업	10.9	43.7	37.1	8.3	100.0	(652)
비취업	12.2	45.0	34.0	8.8	100.0	(444)

〈표 12-12〉 계속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미혼여성 전체	8.2	37.5	41.3	13.0	100.0	(1,287)
거주지($\chi^2=5.5$)						
대도시	7.5	37.7	40.4	14.4	100.0	(681)
중소도시	8.9	35.7	43.7	11.7	100.0	(462)
농촌	9.2	42.3	38.0	10.6	100.0	(142)
연령($\chi^2=32.3^{**}$)						
20~24세	10.3	37.1	39.7	13.0	100.0	(517)
25~29세	6.9	41.9	40.3	10.9	100.0	(377)
30~34세	4.4	33.5	48.0	14.1	100.0	(227)
35~39세	15.0	29.9	43.0	12.1	100.0	(107)
40~44세	1.7	42.4	32.2	23.7	100.0	(59)
교육수준($\chi^2=12.9$)						
고졸이하	13.4	41.5	33.5	11.6	100.0	(164)
대학재학	9.9	36.9	40.9	12.4	100.0	(274)
대졸이상	6.7	36.8	42.9	13.5	100.0	(850)
취업여부($\chi^2=5.0$)						
취업	7.2	38.7	40.4	13.7	100.0	(816)
비취업	10.0	35.5	42.9	11.7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자녀 가치에 대한 견해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혼남녀의 응답 결과로서 각 견해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적으로 찬성에 4점, 대체로 찬성에 3점, 별로 찬성하지 않음에 2점,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 1점씩 각각 부과한 후 가중평균점수를 산정하였다.

대체적으로 미혼남녀 공히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평균점수(2.99~3.38점/4점)가 높게 나타나고, 자녀의 도구적(수단적) 가치에 대한 평균점수(2.13~2.44점/4점)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현재 미혼층은 자녀 출산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더 중시함으로써 자녀의 규모 보다는 자녀의 질적 측면을 더 강조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출산에 있어서 자녀 수를 축소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2-13〉 자녀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점)

견해	성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가중평균 점수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미혼남성	44.8	49.2	5.3	0.7	100.0(1,096)	3.38
	미혼여성	39.1	52.3	8.2	0.4	100.0(1,287)	3.3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미혼남성	39.8	52.2	7.4	0.6	100.0(1,096)	3.31
	미혼여성	29.4	58.3	11.4	0.9	100.0(1,287)	3.16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미혼남성	28.6	45.8	21.7	3.9	100.0(1,096)	2.99
	미혼여성	27.4	52.0	18.0	2.5	100.0(1,287)	3.0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혼남성	9.1	31.5	44.6	14.8	100.0(1,096)	2.35
	미혼여성	7.6	34.1	47.0	11.3	100.0(1,287)	2.38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미혼남성	11.3	34.6	40.4	13.7	100.0(1,096)	2.44
	미혼여성	5.4	22.5	51.9	20.2	100.0(1,287)	2.13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미혼남성	9.4	35.9	40.2	14.5	100.0(1,096)	2.40
	미혼여성	5.8	34.0	47.0	13.2	100.0(1,287)	2.32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미혼남성	11.4	44.2	35.8	8.5	100.0(1,096)	2.58
	미혼여성	8.2	37.5	41.3	13.0	100.0(1,287)	2.41

4.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

혼전 임신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2-14〉에 제시하였다. 혼전 임신에 대해 미혼남성의 절반 정도(49.9%)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3.0%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72.3%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혼전 임신 및 출산으로 받는 차별이나 냉대 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미혼 남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0~44세 고연령층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혼전 임신을 한 경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연령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미혼남성의 경우 고졸 이하인 경우 혼전 임신에 의한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기를 수 있는 상황에 한하여 낳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에는 절대로 낳아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인 경우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상황에 한하여 출산해야 한다,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절대로 낳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중인 미혼남성이 비취업 중인 경우에 비해 혼전 임신으로 생긴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반드시 낳아야 한다와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2-14> 미혼남성(20~44세)의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반드시 낳아야 함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함	절대로 낳아서는 안됨	모르겠음/ 기타	계	(명)
미혼남성 전체	43.0	49.9	2.3	4.8	100.0	(1,096)
거주지($\chi^2=11.3$)						
대도시	41.9	50.7	3.5	3.9	100.0	(537)
중소도시	42.5	51.2	1.0	5.2	100.0	(402)
농촌	47.8	44.6	1.3	6.4	100.0	(157)
연령($\chi^2=25.5$)						
20~24세	44.4	46.3	1.4	7.9	100.0	(365)
25~29세	40.4	52.6	4.2	2.8	100.0	(285)
30~34세	44.8	51.6	1.4	2.3	100.0	(221)
35~39세	38.0	55.5	2.2	4.4	100.0	(137)
40~44세	49.4	42.7	2.2	5.6	100.0	(89)
교육수준($\chi^2=24.8^{***}$)						
고졸이하	49.1	48.1	0.7	2.1	100.0	(283)
대학재학	37.6	51.6	2.1	8.7	100.0	(287)
대졸이상	42.7	50.2	3.2	3.8	100.0	(524)
취업여부($\chi^2=15.2^{**}$)						
취업	43.3	52.0	2.0	2.8	100.0	(652)
비취업	42.6	47.1	2.7	7.7	100.0	(444)

〈표 12-14〉 계속

(단위: %, 명)

구 분	반드시 날아야 함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날아야 함	절대로 날아서는 안됨	모르겠음/ 기타	계	(명)
미혼여성 전체	18.3	72.3	4.2	5.3	100.0	(1,287)
거주지($\chi^2=3.3$)						
대도시	18.8	72.1	4.0	5.1	100.0	(682)
중소도시	16.4	73.4	4.5	5.6	100.0	(463)
농촌	22.5	69.0	4.2	4.2	100.0	(142)
연령($\chi^2=20.3$)						
20~24세	18.0	70.8	4.3	7.0	100.0	(517)
25~29세	20.7	72.1	4.8	2.4	100.0	(377)
30~34세	14.1	77.1	4.0	4.8	100.0	(227)
35~39세	21.5	65.4	4.7	8.4	100.0	(107)
40~44세	16.9	79.7	-	3.4	100.0	(59)
교육수준($\chi^2=19.5^{**}$)						
고졸이하	18.3	75.0	3.0	3.7	100.0	(164)
대학재학	15.3	69.3	8.4	6.9	100.0	(274)
대졸이상	19.4	72.6	3.1	4.9	100.0	(850)
취업여부($\chi^2=5.1$)						
취업	18.3	73.6	3.3	4.8	100.0	(815)
비취업	18.4	69.9	5.5	6.1	100.0	(47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본인의 출산에 대한 태도

1. 기대자녀수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결혼 후 몇 명의 자녀(기대자녀수)를 두고 싶은지를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은 2명(62.8%), 3명 이상(16.7%), 1명(15.1%), 무자녀(0.3%)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혼여성은 2명(56.1%) 다음으로 1명(18.0%), 3명 이상(15.3%), 무자녀(1.3%)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혼남녀 간 기대자녀수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미혼

남성의 경우 2자녀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1자녀 이하(무자녀 포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혼남성의 평균 기대자녀수는 2.06명으로 미혼여성의 1.97명 보다 다소 많게 나타났다.

거주지별 기대자녀수의 차이는 미혼남성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기대자녀수는 대도시 거주 경우 1.97명으로 농촌 거주 경우 2.21명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연령별 기대자녀수의 차이는 미혼여성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연령층일수록 대체로 2자녀와 3자녀의 비율이 낮고 1자녀와 무자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혼여성의 평균 기대자녀수는 20~24세 2.08명, 40~44세 1.53명(두 코호트간 차이는 0.55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연령층일수록 결혼 후 늦어진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수준별 평균 기대자녀수 차이는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미혼남녀 공히 대학 재학 중인 경우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평균 기대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반대로 고졸 이하의 계층에서는 무자녀 또는 1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평균 기대자녀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들 계층의 경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향후 출산에 대한 기대도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업 여부별 평균 기대자녀수의 차이는 미혼여성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 미혼여성의 평균 기대자녀수는 1.94명으로 비취업 미혼여성의 2.04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 미혼여성의 경우 향후 자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2-15〉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모르겠음	계	(명)	평균
미혼남성 전체	0.3	15.1	62.8	16.7	5.1	100.0	(1,096)	2.06
거주지								
대도시	0.6	17.0	64.2	11.6	6.7	100.0	(536)	1.97
중소도시	-	14.0	63.1	19.5	3.5	100.0	(401)	2.13
농촌	-	11.5	58.0	26.8	3.8	100.0	(157)	2.21
연령								
20~24세	0.5	11.8	60.0	20.8	6.8	100.0	(365)	2.18
25~29세	0.7	11.6	66.3	18.6	2.8	100.0	(285)	2.10
30~34세	-	18.6	66.5	13.1	1.8	100.0	(221)	2.00
35~39세	-	20.6	61.0	9.6	8.8	100.0	(136)	1.90
40~44세	-	23.9	55.7	12.5	8.0	100.0	(88)	1.91
교육수준								
고졸이하	0.4	19.4	60.4	15.9	3.9	100.0	(283)	1.99
대학재학	0.7	11.1	58.8	22.1	7.3	100.0	(289)	2.21
대졸이상	0.2	15.1	66.2	13.9	4.6	100.0	(524)	2.03
취업여부								
취업	0.3	15.6	62.7	16.2	5.2	100.0	(654)	2.04
비취업	0.5	14.5	62.8	17.4	5.0	100.0	(443)	2.10
미혼여성 전체	1.3	18.0	56.1	15.3	9.3	100.0	(1,287)	1.97
거주지($\chi^2=11.1$)								
대도시	1.6	19.8	56.5	14.7	7.5	100.0	(682)	1.95
중소도시	1.3	16.4	55.5	15.6	11.2	100.0	(463)	1.99
농촌	-	14.2	56.7	17.7	11.3	100.0	(141)	2.06
연령($\chi^2=58.8^{***}$)								
20~24세	1.0	14.4	55.3	19.8	9.5	100.0	(515)	2.08
25~29세	0.8	20.2	56.2	14.3	8.5	100.0	(377)	1.94
30~34세	1.3	16.7	63.9	12.8	5.3	100.0	(227)	1.99
35~39세	2.8	19.8	56.6	6.6	14.2	100.0	(106)	1.78
40~44세	3.4	37.3	33.9	6.8	18.6	100.0	(59)	1.53
교육수준($\chi^2=46.9^{***}$)								
고졸이하	4.3	15.9	54.9	12.8	12.2	100.0	(164)	1.92
대학재학	1.1	16.4	46.0	24.5	12.0	100.0	(274)	2.11
대졸이상	0.7	18.9	59.6	12.8	7.9	100.0	(850)	1.94
취업여부($\chi^2=23.2^{***}$)								
취업	1.2	19.9	58.5	13.2	7.2	100.0	(816)	1.94
비취업	1.5	14.7	52.1	18.7	13.0	100.0	(470)	2.0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를 전혀 두지 않거나 1명만을 두고자 하는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은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54.4%), 여가·자아성취(13.0%), 소득부족(11.1%), 실업·고용불안정(7.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혼여성은 그 이유로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45.3%), 일·가정양립 곤란(27.1%), 여가·자아성취(13.7%), 육아인프라 부족(3.8%)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혼남녀 모두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과 여가·자아성취를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미혼여성의 경우는 일·가정 양립 곤란을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였으며, 비록 비중은 낮지만 육아인프라 부족도 이유로 제시하였다.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소득부족, 실업·고용불안정 등 경제적 이유들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다.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 향후 무자녀 또는 1자녀 희망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농촌 거주 미혼남성의 경우 고용불안정 이유 비중이 그리고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여가 및 자아성취의 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연령에 따라서는 35~39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연령층일수록 소득부족과 고용불안정 이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 미혼남성의 경우 소득부족과 여가 및 자아성취에 관한 이유 비율이 그리고 비취업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고용불안정 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일·가정양립 곤란 이유의 비중이 도시(특히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여가 및 자아성취 이유와 육아인프라 부족 이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2-16) 미혼남녀(20~44세)의 무자녀 또는 1자녀만 출산 의향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 분	소득고용 불안정		주택 마련 곤란	자녀교육·양육비용 부담		육아 인프라 부족	일가정 양립 곤란	여가/부부만의 생활	건강 문제	기타	계	(명)
	①	②		④	⑤							
미혼남성 전체 거주지	11.1	7.7	4.5	23.9	30.5	5.9	1.2	13.0	-	2.3	100.0	(169)
대도시	10.5	5.3	3.2	25.3	32.6	7.4	2.1	11.6	-	2.1	100.0	(95)
중소도시	14.3	1.8	8.9	19.6	28.6	5.4	-	19.6	-	1.8	100.0	(56)
농촌	-	36.8	-	26.3	26.3	-	-	5.3	-	5.3	100.0	(19)
연령												
20~24세	6.8	-	2.3	13.6	50.0	2.3	-	25.0	-	-	100.0	(44)
25~29세	11.4	8.6	-	25.7	31.4	2.9	5.7	14.3	-	-	100.0	(35)
30~34세	20.0	12.5	5.0	27.5	22.5	7.5	-	5.0	-	-	100.0	(40)
35~39세	-	-	14.3	32.1	17.9	17.9	-	10.7	-	7.1	100.0	(28)
40~44세	20.0	20.0	-	25.0	25.0	-	-	-	-	10.0	100.0	(20)
교육수준												
고졸이하	10.7	12.5	10.7	21.4	25.0	7.1	-	10.7	-	1.8	100.0	(56)
대학재학	8.8	-	2.9	14.7	47.1	2.9	-	23.5	-	-	100.0	(34)
대졸이상	12.7	7.6	-	29.1	27.8	6.3	2.5	10.1	-	3.8	100.0	(79)
취업여부												
취업	12.6	5.8	4.9	25.2	22.3	8.7	1.9	14.6	-	3.9	100.0	(103)
비취업	7.7	10.8	3.1	21.5	44.6	1.5	-	10.8	-	-	100.0	(65)
미혼여성 전체 거주지	2.9	0.7	1.9	24.8	20.5	3.8	27.1	13.7	2.0	2.8	100.0	(248)
대도시	3.4	0.7	0.7	28.3	14.5	0.7	32.4	14.5	2.1	2.8	100.0	(145)
중소도시	1.2	-	4.9	14.6	31.7	9.8	20.7	12.2	1.2	3.7	100.0	(82)
농촌	4.8	-	-	38.1	19.0	4.8	14.3	19.0	-	-	100.0	(21)
연령												
20~24세	1.3	2.5	2.5	28.8	23.8	1.3	25.0	12.5	-	2.5	100.0	(80)
25~29세	-	-	-	25.6	19.2	5.1	25.6	21.8	-	2.6	100.0	(78)
30~34세	4.9	-	4.9	22.0	17.1	4.9	31.7	9.8	2.4	2.4	100.0	(41)
35~39세	4.2	-	4.2	16.7	29.2	4.2	33.3	4.2	4.2	-	100.0	(24)
40~44세	7.7	-	-	19.2	11.5	7.7	26.9	7.7	11.5	7.7	100.0	(26)
교육수준												
고졸이하	12.1	3.0	-	24.2	33.3	3.0	12.1	-	-	12.1	100.0	(33)
대학재학	2.1	-	4.2	27.1	16.7	-	37.5	10.4	-	2.1	100.0	(48)
대졸이상	1.2	-	1.8	24.6	18.6	4.8	27.5	17.4	3.0	1.2	100.0	(167)
취업여부												
취업	3.5	0.6	1.8	18.7	22.2	4.7	29.8	12.9	2.9	2.9	100.0	(171)
비취업	2.6	-	2.6	38.2	15.8	1.3	21.1	15.8	-	2.6	100.0	(76)

주: ① 소득이 적어서, ② 실업상태에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③ 자녀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마련이 어려워서, ④ 자녀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⑤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⑥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⑦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 불이익/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가정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⑧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⑨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⑩ 본인이 애를 싫어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겪는 가족의 간호 때문에/ 기타

2)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 있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자녀의 성구조에 대한 선호도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자녀의 성별 구조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의 71.5%와 미혼여성의 74.7%는 자녀의 성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7〉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적 자녀의 성별 구조¹⁾

(단위: %, 명)

구 분	딸이들 구별없이	딸이들 구별해서	잘 모르겠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71.5	28.3	0.2	100.0	(1,036)
거주지					
대도시	72.6	27.2	0.2	100.0	(497)
중소도시	71.6	28.4	-	100.0	(387)
농촌	67.8	31.6	0.7	100.0	(152)
연령					
20~24세	71.6	28.1	0.3	100.0	(338)
25~29세	65.8	33.5	0.7	100.0	(275)
30~34세	72.8	27.2	-	100.0	(217)
35~39세	79.0	21.0	-	100.0	(124)
40~44세	74.4	25.6	-	100.0	(82)
교육수준					
고졸이하	67.5	32.5	-	100.0	(271)
대학재학	72.2	27.4	0.4	100.0	(266)
대졸이상	73.1	26.5	0.4	100.0	(499)
취업여부					
취업	71.0	28.7	0.3	100.0	(617)
비취업	72.1	27.6	0.2	100.0	(420)
미혼여성 전체	74.7	24.7	0.6	100.0	(1,151)
거주지					
대도시	75.3	24.4	0.3	100.0	(620)
중소도시	75.1	24.4	0.5	100.0	(405)
농촌	70.6	27.8	1.6	100.0	(126)
연령					
20~24세	72.3	26.8	0.9	100.0	(462)
25~29세	75.8	23.6	0.6	100.0	(343)
30~34세	73.0	26.5	0.5	100.0	(211)
35~39세	77.3	22.7	-	100.0	(88)
40~44세	93.5	6.5	-	100.0	(46)
교육수준					
고졸이하	66.9	33.1	-	100.0	(136)
대졸이상	79.8	19.7	0.4	100.0	(238)
대졸이상	74.5	24.8	0.6	100.0	(777)

〈표 12-17〉 계속

(단위: %, 명)

구 분	딸·아들 구별없이	딸·아들 구별해서	잘 모르겠음	계	(명)
취업여부					
취업	73.2	26.4	0.4	100.0	(746)
비취업	77.4	21.6	1.0	100.0	(403)

주: 1) 1명 이상의 자녀를 딸·아들을 구별하여 갖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작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녀(20~44세)들이 특정한 자녀의 성 구조를 선호하는 경우 그 형태로는 미혼남녀 모두 ‘아들1명+딸1명’(미혼남성 68.6%, 미혼여성 69.0%)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아들1명+딸2명(11.3%)’, ‘아들2명+딸1명(6.8%)’, ‘성별을 구별하여 4명 이상(5.5%)’, ‘딸2명(4.1%)’, ‘아들1명(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아들1명+딸2명(12.3%)’, ‘성별을 구별하여 4명 이상(8.1%)’, ‘아들2명+딸1명(4.9%)’, ‘딸2명(2.8%)’, ‘딸1명(2.5%)’ 등의 순으로 미혼남성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컨대, 미혼남녀들은 자녀 성 구성의 조화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며, 1자녀만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미혼남성은 아들을, 그리고 미혼여성은 딸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미혼남녀 모두 아들 2명 보다는 딸2명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8〉 미혼남녀(20~44세)가 희망하는 자녀 성 구성¹⁾

(단위: %, 명)

구 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이상	계	(명)
	아들1	딸1	아들2	아들1 딸1	딸2	아들3	아들2 딸1	아들1 딸2	딸3			
미혼남성	2.7	1.0	-	68.6	4.1	-	6.8	11.3	-	5.5	100.0	(293)
미혼여성	-	2.5	-	69.0	2.8	-	4.9	12.3	0.4	8.1	100.0	(284)

주: 1명 이상의 자녀를 딸·아들을 구별하여 갖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미혼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함

3. 적정 출산여건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첫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미혼남성은 '가정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42.0%)', '안정된 직장을 마련한 이후에(18.3%)', '배우자가 원할 때(14.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첫 아이 출산 여건으로 '가정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44.8%)', '출산 적령기를 넘기지 않을 때(19.1%)', '자신과 배우자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17.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혼남녀 공히 절반 이상이 첫 아이 출산의 여건으로 경제적 여건(미혼남성 60.3%, 미혼여성 57.0%)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산 자체보다는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혼남녀의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원할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도시(특히 대도시)에서 소득안정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아직 고용이 불안정한) 저연령층일수록 대체로 고용 안정을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출산적령기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미혼남성의 경우 대졸이상인 경우 가정을 꾸려갈 만큼의 충분한 소득 유지 시, 집 장만 이후 등의 경제적 상황이나, 출산적령기를 넘기지 않을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안정된 직장 마련 후, 부부간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원할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

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출산 적령기 내와 충분한 부부 생활 후 등을 그리고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가정을 꾸려나갈 만큼의 소득을 유지하는 경우나 배우자가 원할 때 등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미혼남녀의 경우 비취업 미혼남녀에 비해 집 장만과 더불어 출산 적령기 내와 충분한 부부 생활 후 등과 같은 비경제적 여건을 중요한 여건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취업 미혼남녀는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을 출산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응답하였다.

〈표 12-19〉 미혼남녀(20~44세)의 첫 아이 출산 여건

(단위: %, 명)

구 분	안정된 직장 마련 후	가정을 꾸릴 만큼 소득 유지 시	집 장만 이후	부부간 충분한 생활을 누린 이후	출산 적령기를 넘기지 않을 때	배우자가 원할 때	기타 ¹⁾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8.3	42.0	4.3	9.3	10.0	14.5	1.6	100.0	(1,040)
거주지($\chi^2=29.5^{**}$)									
대도시	16.2	45.8	4.4	10.2	9.2	11.6	2.8	100.0	(500)
중소도시	23.1	36.8	3.9	8.3	10.9	16.3	0.8	100.0	(386)
농촌	13.1	43.8	5.2	8.5	9.8	19.6	0.0	100.0	(153)
연령($\chi^2=117.8^{***}$)									
20~24세	24.8	42.5	3.8	11.2	4.7	12.1	0.9	100.0	(339)
25~29세	16.7	45.7	5.1	12.3	6.5	13.0	0.7	100.0	(276)
30~34세	17.0	39.9	4.1	6.9	14.7	16.1	1.4	100.0	(218)
35~39세	13.7	43.5	0.8	7.3	13.7	20.2	0.8	100.0	(124)
40~44세	7.4	33.3	8.6	0.0	24.7	16.0	9.9	100.0	(81)
교육수준($\chi^2=43.9^{***}$)									
고졸이하	20.3	39.5	4.1	9.6	8.1	16.2	2.2	100.0	(271)
대학재학	26.5	42.9	3.0	10.8	4.5	11.2	1.1	100.0	(268)
대졸이상	12.7	43.2	5.0	8.2	14.1	15.3	1.6	100.0	(498)
취업여부($\chi^2=46.5^{***}$)									
취업	12.8	41.7	5.2	9.5	13.2	15.7	1.9	100.0	(619)
비취업	26.4	42.5	3.1	8.8	5.2	12.8	1.2	100.0	(421)
미혼여성 전체	12.2	44.8	2.2	17.5	19.1	2.8	1.4	100.0	(1,167)
거주지($\chi^2=23.9$)									
대도시	12.9	46.9	3.2	14.5	18.4	3.0	1.3	100.0	(629)
중소도시	10.2	43.4	1.2	21.4	19.9	1.9	1.9	100.0	(412)
농촌	15.9	38.9	-	19.8	19.8	4.8	0.8	100.0	(126)

〈표 12-19〉 계속

(단위: %, 명)

구 분	안정된 직장 마련 후	가정을 꾸릴 만큼 소득 유지 시	집 장만 이후	부부간 충분한 생활을 누린 이후	출산 적령기를 넘기지 않을때	배우자가 원할 때	기타 ¹⁾	계	(명)
연령									
20~24세	16.3	46.1	1.7	19.3	13.1	2.8	0.6	100.0	(466)
25~29세	9.2	42.8	2.3	20.8	22.3	2.0	0.6	100.0	(346)
30~34세	7.0	47.9	3.3	15.3	22.3	1.9	2.3	100.0	(215)
35~39세	16.3	41.3	2.2	6.5	22.8	4.3	6.5	100.0	(92)
40~44세	10.6	36.2	-	8.5	34.0	10.6	-	100.0	(47)
교육수준($\chi^2=71.7^{***}$)									
고졸이하	21.0	49.0	2.8	9.1	13.3	4.2	0.7	100.0	(143)
대학재학	21.9	47.1	2.1	15.3	10.7	1.7	1.2	100.0	(242)
대졸이상	7.5	43.4	2.0	19.8	22.8	2.9	1.5	100.0	(782)
취업여부($\chi^2=46.6^{**}$)									
취업	8.8	42.4	2.8	18.6	22.8	2.8	1.8	100.0	(759)
비취업	18.5	49.0	1.2	15.6	12.2	2.9	0.5	100.0	(410)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자신의 부모님께서 원하실 때,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원하실 때, 기타가 해당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3

미혼남녀의 저출산 현상 << 인식과 정책 욕구

제1절 저출산현상 관련 인식과 태도

1.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의 86.9%(매우 심각 36.2%, 다소 심각 50.7%), 미혼여성의 84.1%(매우 심각 26.3%, 다소 심각 57.8%)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미혼남성 중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취업자보다 취업자에서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1〉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심각한 문제임	다소 심각한 문제임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님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님	모르겠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36.2	50.7	9.1	0.8	3.2	100.0	(1,096)
거주지							
대도시	34.9	51.7	8.7	0.7	3.9	100.0	(538)
중소도시	38.6	47.8	10.0	1.0	2.7	100.0	(402)
농촌	34.4	54.8	8.3	0.6	1.9	100.0	(157)
연령							
20~24세	29.1	56.0	10.4	0.3	4.1	100.0	(364)
25~29세	42.7	46.2	7.7	0.7	2.8	100.0	(286)
30~34세	34.7	51.8	9.5	1.4	2.7	100.0	(222)
35~39세	37.5	48.5	10.3	1.5	2.2	100.0	(136)
40~44세	46.6	43.2	5.7	1.1	3.4	100.0	(88)

〈표 13-1〉 계속

(단위: %, 명)

구 분	매우 심각한 문제임	다소 심각한 문제임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님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님	모르겠음	계	(명)
교육수준							
고졸이하	32.5	49.8	11.7	1.8	4.2	100.0	(283)
대학재학	36.3	52.9	6.6	0.0	4.2	100.0	(289)
대졸이상	38.2	49.8	9.2	0.8	2.1	100.0	(524)
취업여부($x^2=16.4^{**}$)							
취업	38.0	46.2	10.7	1.1	4.0	100.0	(653)
비취업	33.6	57.1	6.8	0.5	2.0	100.0	(443)
미혼여성 전체	26.3	57.8	8.8	1.0	6.1	100.0	(1,287)
거주지($x^2=18.2^*$)							
대도시	26.8	57.4	8.9	1.8	5.1	100.0	(683)
중소도시	28.1	57.5	8.2	0.4	5.8	100.0	(463)
농촌	18.3	60.6	9.9	-	11.3	100.0	(142)
연령							
20~24세	22.7	59.5	10.7	0.2	7.0	100.0	(516)
25~29세	29.7	59.2	7.7	0.5	2.9	100.0	(377)
30~34세	28.2	52.0	7.0	4.0	8.8	100.0	(227)
35~39세	21.5	63.6	10.3	-	4.7	100.0	(107)
40~44세	36.7	46.7	3.3	3.3	10.0	100.0	(60)
교육수준($x^2=46.9^{***}$)							
고졸이하	19.5	48.2	18.3	2.4	11.6	100.0	(164)
대학재학	23.0	60.9	9.5	-	6.6	100.0	(274)
대졸이상	28.7	58.7	6.7	1.1	4.8	100.0	(849)
취업여부($x^2=11.0^*$)							
취업	26.9	58.9	7.8	1.5	4.9	100.0	(817)
비취업	25.3	55.8	10.4	0.4	8.1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x^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저출산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의 53.0%(매우 영향 15.9%, 대체로 영향 37.1%), 미혼여성의 53.4%(매우 영향 12.2%, 대체로 영향 41.2%)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미혼남녀의 반절 수준이 본인에 대한 저출산현상의 영향을 인식하였으며, 남녀 간 차이는 미세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미혼남성의 거주지, 취업여부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미혼남성의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계층으로 갈수록 저출산현상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출산현상의 본인 영향에 대한 응답 비율을 미혼여성의 거주지별로 보면, 농촌 거주자의 경우 50% 미만이었으나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저출산현상의 본인 영향에 대한 응답 비율은 고졸 이하 36.6%, 대학 재학 49.0%, 대졸 이상 57.9%로 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른 응답 비율은 취업인 경우 57.1%, 비취업인 경우 47.1%로 나타났다. 요컨대, 미혼여성 중 대도시 거주, 고학력계층, 취업인 경우에 저출산현상이 본인에 영향을 미칠 것을 상대적으로 더 우려하고 있었다.

〈표 13-2〉 저출산현상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영향 있음	대체로 영향 있음	별로 영향 없음	전혀 영향 없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5.9	37.1	32.2	8.3	6.5	100.0	(1,096)
거주지($\chi^2=11.5$)							
대도시	14.3	39.5	32.2	8.9	5.0	100.0	(537)
중소도시	18.2	34.2	31.2	9.0	7.5	100.0	(401)
농촌	15.2	36.7	34.8	4.4	8.9	100.0	(158)
연령($\chi^2=47.2^{***}$)							
20~24세	14.0	36.2	35.9	8.8	5.2	100.0	(365)
25~29세	14.3	45.1	24.1	5.2	11.2	100.0	(286)
30~34세	16.3	36.7	30.8	10.9	5.4	100.0	(221)
35~39세	19.9	27.2	39.0	11.8	2.2	100.0	(136)
40~44세	21.6	30.7	36.4	4.5	6.8	100.0	(88)
교육수준($\chi^2=20.0^{\dagger}$)							
고졸이하	13.0	31.7	39.1	6.7	9.5	100.0	(284)
대학재학	14.9	39.1	30.4	8.7	6.9	100.0	(289)
대졸이상	18.0	39.0	29.4	9.0	4.6	100.0	(523)
취업여부($\chi^2=7.3$)							
취업	16.5	34.0	34.5	8.6	6.4	100.0	(653)
비취업	15.1	41.7	28.8	7.9	6.5	100.0	(444)

〈표 13-2〉 계속

(단위: %, 명)

구 분	매우 영향 있음	대체로 영향 있음	별로 영향 없음	전혀 영향 없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여성 전체	12.2	41.2	33.4	5.8	7.5	100.0	(1,287)
거주지($\chi^2=27.2^{**}$)							
대도시	11.3	42.4	33.9	6.7	5.7	100.0	(682)
중소도시	13.8	40.9	33.4	4.7	7.1	100.0	(464)
농촌	11.2	36.4	30.1	4.9	17.5	100.0	(143)
연령($\chi^2=33.6^{**}$)							
20~24세	10.1	39.9	34.7	5.6	9.7	100.0	(516)
25~29세	15.2	41.8	34.6	4.5	4.0	100.0	(376)
30~34세	12.8	44.1	26.4	7.5	9.3	100.0	(227)
35~39세	10.2	34.3	44.4	4.6	6.5	100.0	(108)
40~44세	12.1	50.0	20.7	10.3	6.9	100.0	(58)
교육수준($\chi^2=47.0^{***}$)							
고졸이하	6.7	29.9	40.2	11.6	11.6	100.0	(164)
대학재학	14.5	34.5	32.4	6.9	11.6	100.0	(275)
대졸이상	12.5	45.4	32.2	4.4	5.5	100.0	(850)
취업여부($\chi^2=17.9^{**}$)							
취업	11.9	45.2	30.9	5.9	6.1	100.0	(815)
비취업	12.7	34.4	37.6	5.5	9.8	100.0	(47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저출산현상 관련 사회주체의 역할에 대한 태도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저출산현상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국가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의 96.4%(전적 지원 31.3%, 어느 정도 지원 65.1%), 미혼여성의 96.5%(전적 지원 34.5%, 어느 정도 지원 62.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미혼남녀의 일반특성에 따라서도 대체적으로 국가지원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3〉 국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함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음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31.3	65.1	2.5	0.2	0.8	100.0	(1,096)
거주지							
대도시	28.9	67.0	2.6	0.4	1.1	100.0	(537)
중소도시	34.3	63.4	1.7	-	0.5	100.0	(402)
농촌	31.2	63.1	4.5	0.6	0.6	100.0	(157)
연령							
20~24세	26.6	69.3	3.0	0.5	0.5	100.0	(365)
25~29세	34.9	63.7	1.1	-	0.4	100.0	(284)
30~34세	32.6	62.9	3.2	-	1.4	100.0	(221)
35~39세	39.4	58.4	1.5	-	0.7	100.0	(137)
40~44세	23.9	69.3	5.7	-	1.1	100.0	(88)
교육수준							
고졸이하	28.3	67.5	1.4	1.1	1.8	100.0	(283)
대학재학	27.0	70.6	2.1	-	0.3	100.0	(289)
대졸이상	35.4	60.8	3.3	-	0.6	100.0	(523)
취업여부							
취업	32.1	63.3	2.8	0.5	1.4	100.0	(654)
비취업	30.0	67.6	2.3	-	0.2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34.5	62.0	2.2	0.4	0.8	100.0	(1,287)
거주지							
대도시	32.8	63.0	2.9	0.7	0.4	100.0	(682)
중소도시	34.7	62.3	1.7	0.2	1.1	100.0	(464)
농촌	42.3	55.6	0.7	-	1.4	100.0	(142)
연령							
20~24세	34.0	62.3	2.5	0.2	1.0	100.0	(517)
25~29세	38.5	58.6	1.6	0.3	1.1	100.0	(377)
30~34세	33.8	61.4	3.5	1.3	-	100.0	(228)
35~39세	26.4	73.6	-	-	-	100.0	(106)
40~44세	30.5	64.4	3.4	1.7	-	100.0	(59)
교육수준							
고졸이하	33.5	64.6	0.6	-	1.2	100.0	(164)
대학재학	34.7	61.3	2.9	0.4	0.7	100.0	(274)
대졸이상	34.7	61.8	2.4	0.5	0.7	100.0	(850)
취업여부							
취업	34.3	63.0	1.7	0.4	0.6	100.0	(816)
비취업	34.9	60.6	3.0	0.4	1.1	100.0	(470)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저출산현상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직장
장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의

95.1%(전적 지원 27.3%, 어느 정도 지원 67.8%), 미혼여성의 96.1%(전적 지원 33.9%, 어느 정도 지원 62.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미혼 남녀 모두 직장지원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서, 일반특성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4〉 직장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함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음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27.3	67.8	3.6	0.6	0.7	100.0	(1,096)
거주지							
대도시	24.1	70.0	4.7	0.7	0.6	100.0	(536)
중소도시	28.9	67.2	2.2	0.7	1.0	100.0	(402)
농촌	34.2	62.0	3.2	-	0.6	100.0	(158)
연령							
20~24세	23.1	70.1	5.2	0.8	0.8	100.0	(364)
25~29세	35.7	62.2	1.4	0.7	-	100.0	(286)
30~34세	25.7	68.5	4.1	0.5	1.4	100.0	(222)
35~39세	28.7	68.4	0.7	1.5	0.7	100.0	(136)
40~44세	19.3	73.9	6.8	-	-	100.0	(88)
교육수준							
고졸이하	24.6	71.8	1.4	1.1	1.1	100.0	(284)
대학재학	28.7	64.7	5.2	0.3	1.0	100.0	(289)
대졸이상	27.8	67.0	4.0	0.8	0.4	100.0	(525)
취업여부							
취업	25.8	69.5	3.4	0.8	0.6	100.0	(652)
비취업	29.5	65.3	4.1	0.5	0.7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33.9	62.2	2.3	0.9	0.6	100.0	(1,287)
거주지							
대도시	32.8	63.5	2.1	1.3	0.3	100.0	(680)
중소도시	33.9	62.2	2.8	0.4	0.6	100.0	(463)
농촌	39.4	56.3	2.1	-	2.1	100.0	(142)
연령							
20~24세	34.9	61.2	2.7	0.2	1.0	100.0	(516)
25~29세	33.7	63.9	1.6	-	0.8	100.0	(377)
30~34세	35.7	58.1	2.2	4.0	-	100.0	(227)
35~39세	27.1	72.0	0.9	-	-	100.0	(107)
40~44세	33.3	60.0	5.0	1.7	-	100.0	(60)
교육수준							
고졸이하	28.0	67.7	3.0	-	1.2	100.0	(164)
대학재학	34.8	61.2	3.3	0.4	0.4	100.0	(273)
대졸이상	34.8	61.5	1.8	1.3	0.6	100.0	(850)

〈표 13-4〉 계속

(단위: %, 명)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함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음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음	모르겠음	계	(명)
취업여부							
취업	32.6	63.6	2.0	1.2	0.6	100.0	(815)
비취업	36.4	59.8	3.0	0.2	0.6	100.0	(470)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저출산현상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가 세금을 사용하여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의 86.5%(매우 찬성 31.7%, 대체로 찬성 54.8%), 미혼여성의 84.7%(매우 찬성 25.5%, 대체로 찬성 59.2%)가 찬성하였다.

미혼남성 중 대도시 거주, 대학 재학, 비취업자 등인 경우에 세금을 통한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 중 고졸 이하, 취업 중인 경우에 세금을 통한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5〉 세금으로 다자녀가정 지원하는 것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미혼남성 전체	31.7	54.8	10.3	1.9	1.3	100.0	(1,096)
거주지($\chi^2=16.4^*$)							
대도시	27.4	57.5	11.5	2.2	1.3	100.0	(537)
중소도시	35.3	54.0	8.5	0.8	1.5	100.0	(400)
농촌	38.2	47.8	10.2	3.2	0.6	100.0	(157)
연령							
20~24세	31.9	50.5	12.1	2.7	2.7	100.0	(364)
25~29세	32.6	55.8	10.5	0.4	0.7	100.0	(285)
30~34세	29.9	61.5	7.2	0.9	0.5	100.0	(221)
35~39세	33.8	53.7	10.3	1.5	0.7	100.0	(136)
40~44세	30.3	55.1	9.0	5.6	-	100.0	(89)

〈표 13-5〉 계속

(단위: %, 명)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교육수준($\chi^2=28.6^{***}$)							
고졸이하	28.6	59.4	7.1	2.8	2.1	100.0	(283)
대학재학	35.3	45.0	15.2	2.4	2.1	100.0	(289)
대졸이상	31.5	57.6	9.4	1.1	0.4	100.0	(524)
취업여부($\chi^2=13.6^{**}$)							
취업	31.1	58.1	7.8	1.8	1.1	100.0	(652)
비취업	32.7	50.0	14.0	1.8	1.6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25.5	59.2	10.5	2.6	2.1	100.0	(1,287)
거주지($\chi^2=6.9$)							
대도시	26.1	59.0	9.5	3.4	2.0	100.0	(683)
중소도시	24.6	60.5	11.0	1.5	2.4	100.0	(463)
농촌	25.4	55.6	14.1	2.8	2.1	100.0	(142)
연령							
20~24세	30.5	56.3	8.2	2.9	2.1	100.0	(515)
25~29세	22.0	61.5	10.1	3.7	2.7	100.0	(377)
30~34세	20.3	62.6	12.8	2.2	2.2	100.0	(227)
35~39세	31.8	51.4	15.9	-	0.9	100.0	(107)
40~44세	13.6	71.2	15.3	-	-	100.0	(59)
교육수준($\chi^2=23.2^{**}$)							
고졸이하	23.3	59.5	13.5	1.8	1.8	100.0	(163)
대학재학	34.8	50.2	8.8	4.4	1.8	100.0	(273)
대졸이상	22.9	62.1	10.5	2.2	2.2	100.0	(850)
취업여부($\chi^2=30.2^{***}$)							
취업	22.9	61.7	12.4	1.6	1.5	100.0	(816)
비취업	30.0	54.9	7.2	4.5	3.4	100.0	(470)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저출산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의 경우 신혼부부대상 주택 공급(26.2%), 자녀교육비 지원(21.5%), 자녀보육·유아교육비 지원(14.3%) 순으로 그리고 미혼

여성의 경우 자녀교육비 지원(17.1%), 신혼부부대상 주택 공급(14.0%), 다양한 보육서비스(13.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비 지원과 자녀보육·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는 미혼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신혼부부대상 주택 공급 등은 미혼남성에게서 그리고 양육인프라와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는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일가정양립정책으로 육아휴직, 근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 출퇴근 등),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가정양립에 대한 미혼여성의 정책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특성과 양성불평등적인 직장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혼여성의 경우 거주지와 취업여부에 따라 정책 필요성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다양한 보육서비스, 직장 문화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고, 자녀 교육비 지원, 육아휴직,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은 농촌 거주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미혼여성의 경우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취업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근로형태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6〉 출산 및 양육에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인식

(단위: %, 명)

구 분	결혼		임신·출산 ③	양육비용		양육인프라			일-가정양립						기타 ⑮	계 (명)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미혼남성 전체	26.2	8.7	0.8	14.3	21.5	9.2	1.0	0.6	0.9	1.6	3.9	1.7	2.5	3.0	4.1	100.0 (1,096)
거주지																
대도시	28.8	9.8	0.9	12.6	20.6	9.6	1.3	0.4	0.7	2.0	2.8	2.6	2.0	2.8	3.0	100.0 (539)
중소도시	23.3	8.4	1.0	16.4	19.1	8.9	0.5	0.5	1.2	1.0	6.7	0.7	3.2	3.0	6.0	100.0 (403)
농촌	23.4	5.1	-	13.9	29.7	8.2	1.9	2.5	0.6	1.9	1.3	1.3	1.9	4.4	3.8	100.0 (158)

〈표 13-6〉 계속

(단위: %, 명)

구 분	결혼		임신·출산	양육비용		양육인프라			일-가정양립						기타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연령																	
20~24세	19.8	10.4	0.8	15.9	24.2	8.2	0.5	0.8	1.4	0.8	3.3	1.1	2.2	6.0	4.4	100.0	(364)
25~29세	32.8	4.5	0.7	10.8	22.0	9.4	-	1.0	1.0	1.4	4.5	1.7	5.2	2.4	2.4	100.0	(287)
30~34세	33.9	11.3	-	10.9	16.3	7.7	2.7	-	0.5	3.6	4.5	1.4	1.4	1.4	4.5	100.0	(221)
35~39세	24.6	8.7	-	18.1	20.3	10.1	-	-	-	2.2	5.8	2.9	-	0.7	6.5	100.0	(138)
40~44세	13.5	7.9	4.5	22.5	23.6	15.7	3.4	1.1	-	-	-	3.4	1.1	-	3.4	100.0	(89)
교육수준																	
고졸이하	28.9	9.2	0.7	14.4	20.1	9.5	1.1	1.1	0.4	0.7	3.5	1.8	3.2	0.7	4.9	100.0	(284)
대학재학	21.9	6.9	0.7	14.9	27.4	8.7	0.3	1.0	2.1	0.3	2.8	1.0	1.7	6.9	3.1	100.0	(288)
대졸이상	27.0	9.3	0.8	13.7	19.0	9.3	1.5	0.2	0.8	2.9	4.8	2.1	2.5	2.1	4.2	100.0	(526)
취업여부																	
취업	26.8	8.9	0.8	16.1	20.1	8.7	1.2	0.5	0.6	1.2	4.8	2.0	2.3	1.8	4.1	100.0	(652)
비취업	25.2	8.3	0.7	11.7	23.4	10.1	0.9	0.9	1.4	2.0	2.7	1.1	2.7	4.7	4.1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14.0	6.8	1.4	13.1	17.1	13.3	1.6	2.9	1.6	4.5	8.2	7.3	2.8	2.0	5.3	100.0	(1,287)
거주지($\chi^2=61.4^{***}$)																	
대도시	14.7	6.9	2.1	13.7	15.7	13.5	2.2	3.8	1.2	3.7	6.9	6.3	3.8	1.2	4.4	100.0	(681)
중소도시	13.6	7.8	0.6	11.9	18.1	13.6	0.9	2.4	2.2	4.8	11.0	7.6	1.7	1.9	1.9	100.0	(463)
농촌	12.8	2.8	0.7	14.9	20.6	11.3	1.4	0.7	1.4	7.8	5.0	11.3	1.4	5.7	2.1	100.0	(141)
연령																	
20~24세	13.2	7.2	1.0	15.1	18.8	11.4	2.1	2.1	1.4	6.0	7.7	7.9	1.9	1.5	2.7	100.0	(517)
25~29세	13.5	7.9	2.1	13.8	12.4	13.8	0.8	4.0	1.9	4.5	9.0	6.9	4.0	3.7	1.9	100.0	(378)
30~34세	19.8	5.7	1.3	7.0	19.4	15.4	0.9	2.2	1.8	2.2	10.1	4.8	1.3	1.3	6.6	100.0	(227)
35~39세	10.2	6.5	2.8	7.4	24.1	17.6	3.7	1.9	0.9	2.8	6.5	11.1	0.9	-	3.7	100.0	(108)
40~44세	8.5	1.7	-	23.7	11.9	11.9	1.7	6.8	3.4	3.4	3.4	6.8	11.9	-	5.1	100.0	(59)
교육수준																	
고졸이하	26.4	12.3	1.2	12.9	17.8	3.7	1.2	3.7	2.5	1.2	5.5	3.1	2.5	1.8	4.3	100.0	(163)
대학재학	8.4	4.0	1.1	15.7	23.4	12.8	3.6	1.1	0.7	4.4	11.3	8.8	2.2	0.7	1.8	100.0	(274)
대졸이상	13.5	6.5	1.6	12.4	15.1	15.3	1.1	3.3	1.8	5.1	7.6	7.6	3.2	2.5	3.5	100.0	(850)
취업여부($\chi^2=44.0^{***}$)																	
취업	16.5	7.0	1.8	13.2	16.4	14.1	0.7	3.2	1.8	3.7	6.9	6.5	2.7	1.5	3.9	100.0	(817)
비취업	9.6	6.2	0.6	13.0	18.3	12.1	3.2	2.3	1.3	6.0	10.6	8.7	3.2	2.8	2.1	100.0	(470)

* p<0.05, ** p<0.01, *** p<0.001

주: 1) ①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② 신혼부부 대상 주택 자금 대출, ③ 난임부부 지원, ④ 자녀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⑤ 자녀 교육비 지원, ⑥ 다양한 보육서비스(반일제, 시간제, 휴일, 24시간, 긴급 등) 지원, ⑦ 국공립어린이집, ⑧ 직장어린이집, ⑨ 출산전후휴가, ⑩ 육아휴직, ⑪ 근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 출퇴근 등), ⑫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⑬ 직장문화 개선, ⑭ 정서퇴근제, ⑮ 기타(산전진찰비 지원, 산후 도우미 지원, 방과후 보육교육지원, 다자녀 가정 주택 공급/자금대출, 주거수당)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자녀를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⁴⁾로 미혼남성의 경우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15.1%,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13.1%, 사교육비 경감 11.0%, 노동

시장 변화(학력주의, 학벌주의, 스펙 등 타파) 10.6% 등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15.9%,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15.6%,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10.6%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모두 고용안정을 가장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외는 미혼남성의 경우 경제나 노동시장에 관한 정책에 대해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자녀 보육 및 양육과 관련한 조건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여건에 대한 응답 비율의 차이는 미혼남녀의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남성 중 고졸이하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노동시장 변화(학력주의, 학벌주의, 스펙 등 타파),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을,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양성평등 구현, 사교육비 경감, 경기 활성화(고용 안정) 등을 그리고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복지수준의 향상 등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고졸이하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사교육비 경감, 교육체계 개편(졸업 후 취업, 선취업 후 교육), 경기 활성화(고용 안정) 등을,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양성평등 구현,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그리고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등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미혼여성 중 취업인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 질 높은 보육·육아 지원시설 확충 등 그리고 비취업 중인 경우에는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등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동 질문에 대한 2순위 응답 결과는 <부표>를 참조하도록 한다.

〈표 13-7〉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에 관한 미혼남녀 (20~44세)의 인식(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계	(명)
미혼남성 전체	3.7	13.1	2.9	11.0	7.5	10.6	5.4	15.1	0.6	7.6	5.6	1.8	9.3	5.4	0.2	100.0	(1,096)
거주지($\chi^2=40.6$)																	
대도시	4.3	13.1	3.7	10.8	9.5	11.4	6.0	13.5	0.9	7.3	4.5	2.2	7.3	5.2	0.2	100.0	(535)
중소도시	3.5	11.5	2.0	9.7	6.0	8.7	4.7	19.0	0.2	8.7	6.5	1.2	11.7	6.5	-	100.0	(401)
농촌	2.5	17.8	2.5	14.6	5.1	12.7	5.1	10.8	0.6	5.7	7.6	1.3	10.2	3.2	-	100.0	(157)
연령																	
20~24세	5.0	14.3	2.5	15.2	6.3	11.6	2.5	16.8	0.8	6.1	5.0	2.2	8.5	2.8	0.6	100.0	(363)
25~29세	1.1	14.0	2.5	7.0	9.1	8.8	9.5	17.2	0.4	8.1	7.0	1.4	8.4	5.6	-	100.0	(285)
30~34세	3.6	10.4	2.7	9.5	5.9	13.1	5.9	14.4	-	9.5	4.1	3.6	12.6	5.0	-	100.0	(222)
35~39세	8.0	11.7	1.5	10.9	10.2	10.2	5.1	8.8	0.7	6.6	4.4	0.0	10.9	10.9	-	100.0	(137)
40~44세	1.1	14.6	9.0	11.2	7.9	6.7	3.4	11.2	1.1	10.1	9.0	0.0	5.6	9.0	-	100.0	(89)
교육수준($\chi^2=61.9^{***}$)																	
고졸이하	3.5	16.5	2.8	8.5	8.1	13.7	2.1	13.0	0.7	8.5	4.6	2.5	9.9	4.9	0.7	100.0	(284)
대학재학	5.9	12.1	2.8	17.6	6.2	8.0	3.5	16.6	1.0	6.6	5.2	1.4	9.7	3.5	-	100.0	(289)
대졸이상	2.7	11.8	3.1	8.8	8.0	10.5	8.2	15.3	0.2	7.8	6.3	1.7	8.8	6.9	-	100.0	(524)
취업여부($\chi^2=14.4$)																	
취업	3.8	14.0	3.4	10.7	7.8	10.6	6.4	12.7	0.5	8.0	5.2	2.0	8.9	5.7	0.3	100.0	(652)
비취업	3.6	11.9	2.0	11.5	7.2	10.6	4.1	18.5	0.7	7.0	6.3	1.8	9.9	5.0	-	100.0	(444)
미혼여성 전체	5.0	7.4	3.2	8.5	4.4	7.5	2.7	15.9	1.0	10.6	7.3	3.5	15.6	7.3	-	100.0	(1,287)
거주지($\chi^2=31.4$)																	
대도시	5.7	8.8	3.4	8.8	3.8	7.6	3.4	15.7	1.0	10.0	7.5	3.4	14.6	6.4	-	100.0	(683)
중소도시	2.6	5.6	2.8	8.0	4.8	8.0	1.9	16.0	1.1	13.0	7.8	3.7	15.8	9.1	-	100.0	(463)
농촌	9.1	6.3	3.5	8.4	6.3	5.6	2.1	16.8	0.7	6.3	5.6	3.5	19.6	6.3	-	100.0	(143)
연령																	
20~24세	6.2	8.3	2.1	8.9	3.7	8.2	1.2	16.3	1.6	10.5	7.8	3.5	14.8	7.0	-	100.0	(515)
25~29세	2.9	4.5	2.6	7.7	4.2	8.7	5.6	15.1	1.1	8.5	6.3	6.1	16.7	10.1	-	100.0	(378)
30~34세	3.5	11.8	3.1	5.7	4.8	5.3	1.8	15.8	-	12.7	7.9	1.3	21.1	5.3	-	100.0	(228)
35~39세	6.6	2.8	10.4	9.4	4.7	2.8	1.9	19.8	1.9	15.1	8.5	0.9	9.4	5.7	-	100.0	(106)
40~44세	10.2	8.5	1.7	16.9	10.2	10.2	3.4	10.2	-	10.2	6.8	-	6.8	5.1	-	100.0	(59)
교육수준($\chi^2=42.8^*$)																	
고졸이하	4.3	11.0	3.1	11.0	6.7	7.4	0.6	19.0	0.6	9.8	3.7	1.8	16.0	4.9	-	100.0	(163)
대학재학	7.3	9.8	1.8	7.6	5.1	5.8	0.7	16.7	1.1	9.5	6.5	4.0	17.8	6.2	-	100.0	(275)
대졸이상	4.4	5.8	3.7	8.2	3.8	8.2	3.8	15.1	1.2	11.1	8.2	3.7	14.7	8.2	-	100.0	(849)
취업여부($\chi^2=35.9^{**}$)																	
취업	4.3	6.6	3.9	9.1	4.5	8.7	3.8	14.2	0.6	11.5	8.0	3.2	14.9	6.7	-	100.0	(817)
비취업	6.2	8.7	1.7	7.5	4.3	5.5	0.9	18.8	1.7	9.2	6.2	4.1	16.8	8.5	-	100.0	(469)

* p<0.05, ** p<0.01, *** p<0.001

주: 1) ① 양성평등 구현, ②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③ 공교육 강화, ④ 사교육비 경감, ⑤ 교육체계 개편(졸업 후 취업, 선취업 후 교육), ⑥ 노동시장 변화(학력주의, 학벌주의, 스펙 등 타파), ⑦ 주택시장 안정, ⑧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⑨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⑩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⑪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⑫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⑬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⑭ 복지수준의 향상, ⑮ 기타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 4 부

결론부

제14장 결론



본 조사는 결혼 및 출산에 관한 태도(가치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8월 1일 기준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로서 가임기(15~49세) 인구를 모집단으로 전국적으로 표본추출한 12,000가구 내 기혼여성(15~49세)과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생애주기에 따라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및 정책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1. 결혼 행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임기 인구의 결혼행태가 보다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미 결혼을 한 가임기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 간에서만 비교해도 결혼행태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 결혼과정(marriage process)을 보면, 과거의 초혼코호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결혼식→함께 삶→혼인신고’ 순서로 진행하였다면, 최근 초혼코호트일수록 ‘함께 삶→결혼식→혼인신고’, ‘함께 삶→혼인신고(결혼식 안함)’ 등 다양한 진행과정을 보인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 전제 조건 중 하나로서 신혼집 마련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 실례로 신혼집 마련을 위해 최근의 초혼코호트일수록 신혼집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험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혼집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남성의 책무로 여겼다면 최근에는 여성은 물론 친정까지 신혼집 마련의 부담을 분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성은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결혼의 부담은 현재의 미혼세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남성의 60%와 미혼여성의 40%만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실제 결혼할 의향이 있는 미혼남성은 75%, 미혼여성은 65%로 나타난다. 결혼할 의향이 없는 가장 주된 원인은 미혼남녀 공히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라는 가치관의 고착화에 기인하며, 이외에도 미혼남성은 경제적인 요인(결혼 생활비용 부담, 낮은 소득, 실업 상태 등) 그리고 미혼여성은 사회문화적 요인(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길 희망, 상대방 구속 싫어, 결혼제도가 남편집안 중심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주저하고 있다. 결혼 의향과 관계없이 현재 30세 이상이면서 결혼하지 않는 가임기 인구는 '기대치에 맞는 사람 만나지 못함'과 더불어 미혼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요인(낮은 소득, 결혼생활비용 부담 등)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 일-가정양립곤란 등을 주요 이유로 표출하고 있다.

2. 임신 실태

유배우여성 중 1/10은 피임을 하지 않아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 실제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비율은 2/5수준에 이른다. 난임 진단자 중 3/4는 실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시술을 받은 비율은 3/5 정도이다. 난임 시술을 중단한 주된 이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1/10만이 상담이나 진료를 받고 있다.

일단 임신이 성공하면 모두 출산 전 검진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소모율이 1/5 수준으로 높다. 임신소모율은 보건의료인프라 미흡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 높다. 취업여성 사이에서 높은 것은 장시간근

로 등 직장환경이 출산 친화적이지 못한 데에도 어느 정도 기인할 것이다. 또한, 만혼인 임신부 사이에서도 임신소모 정도가 높다. 만혼은 임신소모 뿐만 아니라 조산과 저체중 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신소모 중 인공임신중절은 1/5로 높다. 주된 이유 중에는 자녀를 더 이상 원치 않아서도 있지만 경제적 곤란 등 사회경제적 원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다.

출산 후 관리는 인구 자질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 재생산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로 우리나라 출산여성의 대부분은 산후에 검진을 받고 있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에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3. 출산 행태

기혼여성 중 10% 정도는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미혼남성에게서 18%로 더 높아지고, 미혼여성에게서는 30%로 더욱 높다. 미혼여성의 경우 성분업적 역할관으로 인한 양육부담과 기회비용으로 인하여 더욱 부정적인 자녀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이들 모두 자녀의 도구적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점차 적은 수의 자녀를 보다 잘 키우고자 하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실례로 유배우여성의 이상자녀수는 평균 2.25명이나 기대자녀수는 1.94명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혼남녀의 이상자녀수는 남성 1.96명, 여성 1.98명으로 나타났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이상자녀수와 기대자녀수 간 차이는 최근 코호트일수록, 고학력층일수록, 취업 중인 경우에 더 커지고 있다.

무자녀 유배우여성 중 23%가 향후 출산 의향이 없으며, 1자녀 유배우

여성 중 67%도 출산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아예 낳지 않겠다는 이유는 주로 난임이며, 1자녀만 두겠다는 이유는 주로 자녀교육비 부담, 일-가정양립 곤란, 고연령 등이다. 미래 결혼할 미혼남성은 자녀양육교육비 부담, 경제적 이유(소득부족, 실업고용 불안정 등) 등으로 그리고 미혼여성은 자녀양육교육비 부담, 일-가정양립곤란이나 자아성취, 육아인프라 부족 등으로 자녀를 1명만 낳거나 전혀 낳지 않을 의향이 존재한다.

4. 자녀양육 행태

유자녀 유배우여성 중 약 60%가 남편과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8%는 가사 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인의 육아 시간과 가사 시간은 남편에 비해 상당 수준 길게 나타난다. 맞벌이부부인 경우 부인과 남편 간 육아 시간의 차이는 줄어들으나 여전히 부인의 부담이 크게 나타난다. 맞벌이부부이든 아니든 부인과 남편 간 가사 시간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어, 여전히 가사는 여성의 전담 영역으로 남아 있다.

유자녀 기혼여성이 부모(친정, 시댁)으로부터 자녀 돌봄을 지원 받은 정도는 25%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자녀 돌봄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23%를 포함한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녀가 첫째아이거나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만큼 육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혹은 취업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자녀 돌봄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친인척의 육아·가사 지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실로 영아(0~2세)의 주간 돌봄방식에 대한 실제와 희망 간의 일치도는

본인 및 남편(79.9%), 어린이집 및 유치원(74.3%), 부모(54.8%) 등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가 영아의 주간 돌봄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취업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져'가 절반 정도로 나타나, 취업모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돌봄 방식에 대한 실제와 희망 간의 일치도는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71.1%), 학원(68.8%), 본인 및 남편(70.1%) 등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3/5정도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대학 졸업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녀양육비는 대체적으로 대도시에서 많고,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공교육비나 부모의 돌봄에 대한 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다.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2/5가 결혼 전후 6개월 간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는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아, 육아전념 희망 등이다.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45% 수준이나,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전후에는 2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결혼 시 그리고 첫째아 출산 시 경력단절이 되지 않은 여성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경력단절은 그 당시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 임시일용직인 경우, 일반회사에 종사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실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거나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경력단절이 더욱 쉽게 발생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이용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고, 일-가정양립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직장에 종사하는 여성에게서 이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절반 정도가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정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중산층일수록, 사무직일수록, 상

용근로자일수록 더 높다. 사무직종 그리고 상용근로자들의 경우, 근로행태가 경직되어 있고 노동시장 이탈 후 동일한 위치로의 복귀가 어려운 현실 등으로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이유로는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여성에게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전가되어 있는 현실이 반영될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5. 정책 영역

기혼여성과 미혼남녀 모두 국가나 직장의 결혼·출산 관련 지원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기혼여성은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등에 대한 정책 욕구가 높다. 미혼남성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 자녀보육교육비 지원 등에 대한 그리고 미혼여성은 다양한 보육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도 높다. 자녀를 양육하기에 바람직한 사회여건으로는 기혼여성은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 공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혼남성은 경기활성화, 교육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등을 그리고 미혼여성은 경기활성화, 자녀 보육 및 양육에 대한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혼남녀 모두 국가의 결혼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이들이 필요한 결혼정책으로는 미혼남성은 청년고용 안정, 신혼집 마련 지원, 실업문제 해소를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청년고용 안정, 신혼집 마련,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기혼여성의 인지도 및 도움정도는 정책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임신출산 지원 정책 중 난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80% 이상으로 높고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인지도는 100%이며, 도움정도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인지도는 80% 수준에 이르며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인지도는 60%로 상대적으로 낮고,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자녀양육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높으며,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양육수당 지원, 영아보육료 지원, 유아누리과정 비용 지원 등의 제도는 보편적으로 실시되면서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공립시설 이용자의 도움정도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방과후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는 다른 정책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현재 방과후프로그램 등은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중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유연근무제도는 인지도가 다른 일·가정양립제도보다 낮다. 근로시간단축 제도와 유연근무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안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기혼여성과 미혼남녀의 결혼행태는 상당 수준 비혼화와 만혼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환경 변화로 인하여 결혼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기 어려워지고, 가족문화나 직장환경 역시 전통적인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미혼층의 비혼화와 만혼화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적어도 비자발적인 만혼화 비혼화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청년층의 고용불안정, 주거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며, 양성평

등적 가족문화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의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

기혼여성과 미혼남녀의 출산행태도 상당 수준 저출산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자체가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며, 실제 생활에서도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일가정양립 곤란(기회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을 억제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혼여성이나 미혼남녀의 가치관 자체이기보다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자녀양육의 다양한 어려움이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신·출산지원과 보육·유아교육 지원을 제외한 초등 돌봄이나 일가정양립 지원은 인지도가 높고 도움정도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수혜율이 낮다는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다. 난임이나 임신에 성공한 경우에도 소모되는 정도가 높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조사의 결과들이 결혼과 출산에 관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정책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환류를 통해 정책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본 조사의 결과는 결혼과 출산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록 1. 부표

1. 기혼여성의 결혼 행태

〈부표 1〉 기혼여성(15~49세)의 동거, 결혼식 및 혼인신고 간 순서

(단위: %,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명)
전체	7.6	6.3	73.6	3.9	1.5	3.8	0.2	0.5	1.7	0.2	0.8	100.0	(10,984)
거주지($\chi^2=140.4^{***}$)													
대도시	6.3	5.3	76.4	4.1	1.3	3.8	0.2	0.4	1.5	-	0.7	100.0	(4,788)
중소도시	8.1	6.7	73.5	3.1	1.7	3.5	0.1	0.5	1.7	0.1	0.9	100.0	(4,788)
농촌	9.7	7.9	65.4	5.5	1.9	4.8	0.1	0.4	2.7	0.7	1.1	100.0	(1,614)
교육수준($\chi^2=797.0^{***}$)													
중졸이하	10.1	19.3	47.6	5.4	1.5	3.9	-	0.3	6.5	1.8	3.6	100.0	(336)
고졸	10.0	10.3	66.0	3.8	1.8	3.2	0.2	0.4	3.0	0.1	1.3	100.0	(4,539)
대졸	5.7	2.7	80.5	3.9	1.3	4.3	0.1	0.6	0.5	0.1	0.3	100.0	(5,668)
대학원졸	4.8	1.1	84.1	2.5	1.4	4.8	-	0.2	0.7	-	0.5	100.0	(439)
혼인상태													
유배우	7.4	6.2	73.9	3.7	1.6	4.0	0.2	0.5	1.7	0.1	0.8	100.0	(10,323)
사별	12.4	7.3	74.5	3.6	-	0.7	-	-	-	-	1.5	100.0	(137)
이혼·별거	8.6	8.6	69.1	6.5	1.2	1.0	0.2	0.2	3.3	0.4	1.0	100.0	(521)
취업여부($\chi^2=23.2^*$)													
취업	7.6	6.2	74.5	3.6	1.3	3.4	0.2	0.5	1.5	0.2	0.9	100.0	(6,204)
비취업	7.5	6.3	72.4	4.2	1.9	4.3	0.2	0.3	2.0	0.1	0.7	100.0	(4,781)
가구소득 ²⁾													
60%미만	10.5	9.3	62.5	4.7	2.1	2.9	0.5	0.5	5.3	0.3	1.6	100.0	(1,502)
60~80%미만	8.7	7.7	66.1	5.4	2.2	4.3	0.1	0.5	2.9	0.2	2.0	100.0	(1,708)
80~100%미만	7.2	8.0	72.5	3.3	1.8	4.1	0.1	0.4	1.2	0.3	0.9	100.0	(2,116)
100~120%미만	7.5	5.4	76.5	3.4	1.6	3.8	0.2	0.5	0.9	-	0.2	100.0	(1,928)
120~140%미만	6.4	4.8	78.1	4.4	1.0	3.6	0.1	0.7	0.4	0.2	0.4	100.0	(1,028)
140~160%미만	6.1	5.4	77.6	3.9	0.8	4.2	0.2	0.6	0.8	-	0.2	100.0	(942)
160%이상	5.9	2.4	84.0	2.5	0.7	3.8	-	0.2	0.5	-	0.2	100.0	(1,752)

* p<0.05, ** p<0.01, *** p<0.001

주: 1) ① 함께 살 → 결혼식 → 혼인신고 순, ② 함께 살 → 혼인신고 → 결혼식 순, ③ 결혼식 → 함께 살 → 혼인신고 순, ④ 결혼식 → 혼인신고 → 함께 살 순, ⑤ 혼인신고 → 함께 살 → 결혼식 순, ⑥ 혼인신고 → 결혼식 → 함께 살 순, ⑦ 함께 살 → 결혼식 (혼인신고 안함), ⑧ 결혼식 → 함께 살(혼인신고 안함), ⑨ 함께 살 → 혼인신고 (결혼식 안함), ⑩ 혼인신고 → 함께 살(결혼식 안함), ⑪ 함께 살 (결혼식, 혼인신고 안함)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미혼모인 경우 조사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혼, 사별, 별거 상태인 경우에는 직전 결혼을 기준으로 질문함.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행태

〈부표 2〉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의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피임 방법(중복응답)

(단위: %, 명)

마지막 피임 방법	비율(%)
난관수술	0.2
정관수술	0.7
자궁내 장치	8.2
사전경구피임약	8.6
사후경구피임약	1.8
콘돔	51.3
살정제	0.5
월경주기법	42.7
질외사정법	32.3
기타	0.8
(대상자수)	(1,146)

〈부표 3〉 유배우 여성(15~49세)의 피임 중단 이유

(단위: %, 명)

	비율(%)
자녀를 갖기 위해	42.7
피임 중 임신이 되어서	11.1
자궁내장치(IUD)가 자연 배출 되어서	0.3
사용이 불편해서	2.6
부작용 때문에	2.1
일시적으로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장기출장, 산후무월경 등)	17.2
자궁적출로 영구적 피임 불필요	8.5
폐경으로 영구적 피임 불필요	12.6
양측나팔관 제거로 영구적 피임 불필요	1.0
타 영구적 피임 불필요	0.8
기타 피임중단 이유	1.0
계	100.0
(명)	(1,146)

〈부표 4〉 현재 배우자와 피임 경험이 없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피임 무경험 이유

(단위: %, 명)

	자연불임	자녀를 원해서	방법을 몰라서	일시적 불필요	기타	계	(명)
전체	10.4	82.2	0.2	5.6	1.6	100.0	(958)
거주지							
대도시	8.9	83.8	0.3	6.5	0.5	100.0	(382)
중소도시	12.0	80.0	0.2	5.9	2.0	100.0	(409)
농촌	9.6	84.4	-	3.0	3.0	100.0	(167)
연령							
25세 미만 ¹⁾	6.3	68.8	6.3	18.8	-	100.0	(16)
25~29세	2.6	87.2	-	9.4	0.9	100.0	(117)
30~34세	3.6	90.2	0.4	5.1	0.7	100.0	(276)
35~39세	9.8	84.0	-	5.7	0.5	100.0	(194)
40~44세	13.9	76.7	-	6.1	3.3	100.0	(180)
45~49세	23.9	71.0	-	2.3	2.8	100.0	(176)
교육수준							
중졸이하	20.0	70.0	3.3	3.3	3.3	100.0	(30)
고졸	12.4	79.7	0.3	5.5	2.1	100.0	(330)
대졸	9.4	83.8	-	5.9	0.9	100.0	(562)
대학원졸	-	89.2	-	5.4	5.4	100.0	(37)
취업여부							
취업	11.9	82.2	-	3.6	2.3	100.0	(444)
비취업	8.9	82.3	0.4	7.4	1.0	100.0	(514)
가구소득 ²⁾							
60%미만	11.9	77.4	0.6	7.3	2.8	100.0	(177)
60~80%미만	7.6	84.8	-	6.6	1.0	100.0	(198)
80~100%미만	10.4	81.9	-	7.1	0.5	100.0	(182)
100~120%미만	11.9	77.6	-	8.4	2.1	100.0	(143)
120~140%미만	14.1	83.3	-	2.6	-	100.0	(78)
140~160%미만	7.5	89.6	-	1.5	1.5	100.0	(67)
160%이상	9.8	85.7	0.9	0.9	2.7	100.0	(112)
출생아수							
0명	8.8	88.5	-	0.9	1.8	100.0	(340)
1명	9.3	81.8	0.5	8.1	0.5	100.0	(422)
2명	16.1	72.7	-	6.8	4.3	100.0	(161)
3명 이상	13.9	69.4	-	16.7	-	100.0	(36)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3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5〉 현재 피임 중단 혹은 피임경험이 없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피임 의향

(단위: %, 명)

	있음	없음	모름	계	(명)
전체	49.1	38.5	12.4	100.0	(2,104)
거주지($\chi^2=16.5^{**}$)					
대도시	49.0	37.6	13.5	100.0	(868)
중소도시	47.2	39.0	13.8	100.0	(877)
읍면부	53.9	40.0	6.1	100.0	(360)
연령($\chi^2=749.3^{***}$)					
25세 미만 ¹⁾	77.8	11.1	11.1	100.0	(27)
25~29세	71.2	14.0	14.8	100.0	(243)
30~34세	68.5	15.3	16.2	100.0	(641)
35~39세	60.7	26.5	12.7	100.0	(456)
40~44세	26.4	58.9	14.7	100.0	(326)
45~49세	9.0	88.1	2.9	100.0	(413)
교육수준($\chi^2=86.0^{***}$)					
중졸이하	25.4	59.3	15.3	100.0	(59)
고졸	38.5	49.2	12.4	100.0	(720)
대졸	56.7	31.6	11.7	100.0	(1,228)
대학원졸	45.9	34.7	19.4	100.0	(98)
취업여부($\chi^2=39.8^{***}$)					
취업	43.5	45.6	10.9	100.0	(998)
비취업	54.2	32.2	13.7	100.0	(1,106)
가구소득 ²⁾ ($\chi^2=21.8^{\circ}$)					
60%미만	49.7	36.7	13.6	100.0	(330)
60~80%미만	53.7	32.3	14.0	100.0	(421)
80~100%미만	50.6	37.9	11.5	100.0	(393)
100~120%미만	45.9	40.4	13.8	100.0	(327)
120~140%미만	46.8	39.4	13.8	100.0	(203)
140~160%미만	50.0	39.4	10.6	100.0	(160)
160%이상	44.3	47.6	8.1	100.0	(271)
출생아수 ⁴⁾ ($\chi^2=132.9^{***}$)					
0명	49.2	32.1	18.7	100.0	(561)
1명	57.3	30.7	12.0	100.0	(906)
2명	37.9	54.2	7.9	100.0	(520)
3명 이상	34.5	61.2	4.3	100.0	(116)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5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6〉 현재는 피임을 하지 않으나 향후 피임 의향이 있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피임 방법(중복응답)

(단위: %, 명)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자궁내 장치	사전 경구 피임약	사후 경구 피임약 (응급 피임약)	콘돔	실(질) 정제	월경 주기법	질외 사정법	불임 수술	생각해 보지 않음	(대상자수)
전체	2.6	25.5	6.7	3.7	0.5	34.2	0.3	28.5	20.1	3.2	11.1	(1,409)
거주지												
대도시	2.3	22.5	6.5	3.6	0.4	39.4	0.4	31.9	20.5	3.6	11.0	(425)
중소도시	2.8	28.8	7.3	3.3	0.4	30.8	0.3	25.8	17.9	3.2	11.1	(414)
농촌	3.0	24.8	6.1	4.9	1.0	30.4	0.0	27.0	23.7	2.2	11.2	(194)
연령												
25세 미만 ¹⁾	13.1	22.0	11.4	5.3	1.8	36.3	0.0	21.4	19.9	2.1	6.5	(21)
25~29세	3.1	22.1	7.2	5.2	0.0	40.3	0.0	28.3	17.0	1.9	13.3	(173)
30~34세	2.0	25.9	5.9	2.5	0.5	40.2	0.4	28.3	22.2	3.8	9.8	(439)
35~39세	2.4	32.0	6.7	4.1	0.3	29.4	0.4	27.4	16.8	3.8	9.7	(277)
40~44세	3.2	20.8	10.4	3.5	2.1	16.8	0.0	30.2	15.6	1.8	19.4	(86)
45~49세	2.7	0.0	3.3	7.8	0.0	10.9	0.0	41.0	43.5	1.9	9.9	(37)
교육수준												
중졸이하	2.5	3.5	18.6	13.9	1.7	24.9	0.0	22.5	34.8	0.0	9.8	(15)
고졸	5.4	24.5	8.1	5.0	1.2	30.1	0.4	24.1	14.3	2.7	12.5	(277)
대졸	1.2	26.7	6.0	3.1	0.2	35.0	0.3	30.5	22.3	3.0	10.9	(696)
대학원졸	7.8	20.3	4.3	1.7	0.0	51.8	0.0	26.8	15.4	10.9	4.7	(45)
취업여부												
취업	1.7	23.9	7.7	2.5	0.5	36.4	0.3	29.4	20.8	2.9	10.1	(434)
비취업	3.3	26.6	6.0	4.6	0.5	32.7	0.3	27.9	19.5	3.4	11.8	(599)
가구소득 ³⁾												
60%미만	3.7	24.2	6.2	6.1	1.1	30.7	1.1	28.2	18.6	1.7	10.9	(164)
60~80%미만	3.1	26.9	8.6	3.1	0.4	33.8	0.0	30.8	17.9	2.3	10.9	(226)
80~100%미만	3.1	28.1	4.8	3.8	0.2	31.0	0.0	28.0	23.5	4.4	8.3	(199)
100~120%미만	1.9	23.0	8.8	1.9	0.4	39.0	0.4	24.3	19.7	4.0	17.1	(150)
120~140%미만	3.0	30.2	7.3	6.1	0.0	30.3	0.6	30.7	16.8	3.1	7.1	(95)
140~160%미만	1.0	24.1	5.7	4.5	0.0	29.8	0.0	26.9	24.2	3.2	12.9	(80)
160%이상	1.3	20.5	4.7	1.3	1.3	45.4	0.0	30.1	20.8	4.1	10.7	(120)
출생아수												
0명	1.5	16.5	6.8	4.0	0.0	36.2	0.0	32.0	20.6	1.8	16.8	(276)
1명	3.8	27.5	5.3	3.9	0.5	34.0	0.6	29.3	19.3	4.0	9.0	(519)
2명	1.5	26.4	10.7	2.9	1.3	34.0	0.0	23.7	24.5	3.3	9.3	(197)
3명 이상	1.3	56.8	5.4	3.2	0.0	24.7	0.0	17.8	4.8	1.7	7.1	(40)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5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유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행태

〈부표 7〉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돌보기에 바람직한 곳(사람), 2순위

(단위: %, 명)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기타 기관	베이비 시터	친인척	본인/ 남편	아이 혼자/ 형제자매	계	(명)
전체	9.5	16.6	1.8	0.3	6.8	60.0	5.0	100.0	(4,571)
아동학년									
1학년	9.5	18.0	1.4	0.4	9.0	57.6	4.1	100.0	(800)
2학년	11.8	18.6	1.5	0.5	7.1	57.2	3.3	100.0	(780)
3학년	7.7	16.1	1.1	0.3	6.9	62.7	5.3	100.0	(796)
4학년	9.3	18.6	2.4	0.0	7.2	57.8	4.8	100.0	(711)
5학년	8.7	15.1	2.6	0.4	5.3	61.5	6.3	100.0	(680)
6학년	9.8	13.5	1.6	0.1	5.4	63.2	6.4	100.0	(798)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기혼여성의 출산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욕구

〈부표 8〉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알고 있음	(명)	알고 있음	(명)	알고 있음	(명)	알고 있음	(명)	알고 있음	(명)
전체	86.0	(506)	87.7	(506)	100.0	(1,776)	69.4	(129)	79.8	(1,773)
거주지										
대도시	87.9	(206)	89.8	(206)	100.0	(752)	63.2	(57)	76.5	(752)
중소도시	85.8	(218)	87.2	(218)	100.0	(724)	81.0	(42)	81.4	(724)
농촌	80.7	(83)	84.1	(83)	100.0	(300)	65.5	(29)	84.3	(300)
연령										
30세 미만	87.5	(8)	87.5	(8)	100.0	(301)	63.6	(22)	77.4	(301)
30~34세	90.5	(84)	92.9	(84)	100.0	(816)	72.1	(61)	79.0	(816)
35~39세	91.4	(140)	94.3	(140)	100.0	(527)	71.0	(31)	83.3	(527)
40~44세	91.2	(147)	90.5	(147)	100.0	(118)	45.5	(11)	75.4	(118)
45~49세	70.9	(127)	73.2	(127)	100.0	(15)	100.0	(4)	78.6	(14)
취업여부										
취업	83.2	(250)	84.8	(250)	100.0	(605)	73.0	(37)	78.2	(605)
비취업	88.7	(256)	90.2	(256)	100.0	(1,171)	68.5	(92)	80.5	(1,171)
가구소득 ⁴⁾										
60%미만	87.8	(74)	90.5	(74)	100.0	(250)	78.6	(14)	81.5	(249)
60~80%미만	78.2	(78)	82.1	(78)	100.0	(417)	72.9	(48)	81.3	(418)
80~100%미만	83.0	(88)	86.4	(88)	100.0	(377)	57.9	(19)	81.2	(377)
100~120%미만	90.7	(75)	93.3	(75)	100.0	(239)	75.0	(12)	78.2	(239)
120~140%미만	90.2	(41)	90.2	(41)	100.0	(166)	53.3	(15)	79.5	(166)
140~160%미만	86.4	(44)	84.1	(44)	100.0	(107)	62.5	(8)	86.8	(107)
160%이상	87.9	(107)	86.9	(107)	100.0	(219)	80.0	(15)	71.2	(219)

- 주: 1) 체외수정시술비지원, 인공수정시술비지원의 경우 난임경험이 있는 유배우여성을 대상으로 질문함.
 2) 국민행복카드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의 경우 2013.1.1.일 이후 출생자녀수가 있는 기혼여성에 한하여 질문함.
 3)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2013.1.1.일 이후 출생자녀 중 출생 당시 체중이 2,500g미만이었거나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질문함.
 4)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5)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작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9〉 기혼여성(15~49세)의 보육유아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알고 있음	(명)	알고 있음	(명)	알고 있음	(명)
전체	89.7	(11,009)	95.1	(11,009)	92.7	(11,009)
거주지						
대도시	89.1	(4,798)	94.5	(4,798)	92.5	(4,798)
중소도시	90.5	(4,589)	95.7	(4,589)	92.6	(4,589)
농촌	89.5	(1,623)	95.2	(1,622)	93.5	(1,623)
연령						
25세 미만	90.4	(52)	86.8	(53)	84.6	(52)
25~29세	92.4	(488)	93.4	(487)	88.1	(487)
30~34세	96.2	(1,725)	97.9	(1,725)	94.7	(1,725)
35~39세	95.5	(2,452)	98.3	(2,452)	96.0	(2,451)
40~44세	88.6	(3,049)	95.6	(3,049)	94.2	(3,049)
45~49세	82.6	(3,244)	91.1	(3,244)	88.6	(3,244)
취업여부						
취업	88.6	(6,220)	95.0	(6,220)	92.8	(6,219)
비취업	91.1	(4,789)	95.2	(4,789)	92.5	(4,789)
가구소득 ²⁾						
60%미만	84.9	(1,518)	93.3	(1,518)	89.2	(1,517)
60~80%미만	90.4	(1,714)	95.5	(1,714)	93.1	(1,714)
80~100%미만	91.0	(2,119)	95.8	(2,119)	93.1	(2,118)
100~120%미만	91.9	(1,923)	95.9	(1,930)	94.2	(1,923)
120~140%미만	89.2	(1,034)	94.8	(1,029)	92.6	(1,034)
140~160%미만	89.8	(944)	94.1	(944)	93.0	(944)
160%이상	89.5	(1,751)	95.1	(1,751)	93.3	(1,752)

주: 1)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10〉 기혼여성(15~49세)의 돌봄 인프라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등	
	알고 있음	(명)	알고 있음	(명)
전체	91.6	(11,009)	87.1	(11,009)
거주지				
대도시	91.5	(4,798)	86.5	(4,798)
중소도시	91.3	(4,589)	87.4	(4,589)
농촌	92.2	(1,623)	88.1	(1,622)
연령				
25세 미만	77.4	(53)	62.3	(53)
25~29세	87.1	(487)	77.9	(488)
30~34세	93.6	(1,725)	84.3	(1,724)
35~39세	95.4	(2,451)	91.9	(2,452)
40~44세	93.1	(3,049)	92.2	(3,049)
45~49세	87.0	(3,243)	82.0	(3,244)
취업여부				
취업	91.7	(6,219)	87.2	(6,220)
비취업	91.3	(4,790)	86.9	(4,790)
가구소득 ²⁾				
60%미만	86.6	(1,518)	81.8	(1,518)
60~80%미만	91.7	(1,714)	86.5	(1,714)
80~100%미만	91.5	(2,118)	88.2	(2,119)
100~120%미만	93.7	(1,923)	88.9	(1,929)
120~140%미만	92.4	(1,034)	87.1	(1,028)
140~160%미만	93.3	(944)	88.9	(945)
160%이상	92.1	(1,752)	87.8	(1,751)

주: 1)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11〉 기혼여성(15~49세)의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인지여부 및 향후 이용의향

(단위: %, 명)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알고 있음	(명)	향후 이용의향	(명)	알고 있음	(명)	향후 이용의향	(명)
기혼여성 전체	97.2	(11,009)	13.6	(11,009)	92.3	(11,009)	13.8	(10,324)
거주지								
대도시	97.3	(4,798)	12.7	(4,797)	92.4	(4,798)	13.5	(4,467)
중소도시	97.1	(4,589)	14.3	(4,588)	92.2	(4,588)	13.6	(4,327)
농촌	97.2	(1,622)	14.3	(1,622)	92.2	(1,622)	14.8	(1,530)
연령								
25세 미만	81.1	(53)	56.6	(53)	69.2	(52)	53.1	(49)
25~29세	93.6	(488)	54.4	(487)	92.0	(487)	55.1	(481)
30~34세	97.1	(1,725)	37.5	(1,725)	95.6	(1,725)	36.4	(1,689)
35~39세	98.4	(2,451)	15.4	(2,452)	95.3	(2,452)	14.6	(2,376)
40~44세	97.7	(3,049)	4.7	(3,049)	92.9	(3,048)	4.5	(2,859)
45~49세	96.7	(3,244)	1.2	(3,244)	88.1	(3,244)	1.4	(2,868)
취업여부								
취업	97.4	(6,219)	13.5	(6,219)	92.1	(6,219)	12.6	(5,653)
비취업	97.0	(4,790)	13.9	(4,790)	92.5	(4,789)	15.2	(4,670)
가구소득 ¹⁾								
60%미만	93.7	(1,518)	13.3	(1,518)	83.8	(1,518)	18.9	(1,061)
60~80%미만	96.7	(1,714)	16.7	(1,714)	91.1	(1,714)	19.1	(1,588)
80~100%미만	97.3	(2,119)	13.4	(2,119)	91.6	(2,119)	13.4	(2,071)
100~120%미만	98.0	(1,923)	14.9	(1,923)	95.1	(1,923)	13.5	(1,903)
120~140%미만	97.8	(1,034)	15.7	(1,034)	94.4	(1,035)	13.7	(1,023)
140~160%미만	99.0	(944)	10.8	(944)	95.8	(944)	9.3	(933)
160%이상	98.5	(1,752)	10.0	(1,752)	95.4	(1,751)	8.6	(1,739)

주: 1)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12〉 기혼여성(15~49세)의 육아휴직제도 인지여부 및 향후 이용의향

(단위: %, 명)

	육아휴직제도				남성 육아휴직			
	알고 있음	(명)	향후 이용의향	(명)	알고 있음	(명)	향후 이용의향	(명)
기혼여성 전체	97.4	(11,009)	14.2	(11,009)	88.7	(11,009)	10.4	(10,324)
거주지								
대도시	97.4	(4,798)	13.4	(4,798)	88.1	(4,798)	10.4	(4,467)
중소도시	97.3	(4,589)	14.6	(4,588)	89.4	(4,589)	10.1	(4,327)
농촌	97.5	(1,623)	15.3	(1,622)	88.7	(1,622)	11.6	(1,530)
연령								
25세 미만 ¹⁾	80.8	(52)	52.8	(53)	63.5	(52)	33.3	(48)
25~29세	93.8	(487)	55.5	(488)	86.3	(488)	40.3	(481)
30~34세	97.8	(1,725)	39.1	(1,725)	93.0	(1,725)	27.2	(1,689)
35~39세	99.1	(2,451)	16.3	(2,451)	92.8	(2,452)	11.5	(2,376)
40~44세	98.1	(3,049)	4.7	(3,049)	89.1	(3,049)	3.7	(2,859)
45~49세	96.1	(3,244)	1.3	(3,244)	83.7	(3,244)	0.9	(2,869)
취업여부								
취업	97.4	(6,220)	13.8	(6,220)	88.6	(6,219)	9.9	(5,653)
비취업	97.3	(4,790)	14.6	(4,789)	89.0	(4,789)	11.1	(4,669)
가구소득 ³⁾								
60%미만	92.6	(1,518)	13.8	(1,518)	78.7	(1,518)	13.4	(1,060)
60~80%미만	97.3	(1,714)	17.4	(1,714)	88.2	(1,714)	14.9	(1,588)
80~100%미만	97.2	(2,119)	13.3	(2,119)	86.9	(2,119)	9.7	(2,071)
100~120%미만	98.9	(1,923)	15.2	(1,923)	91.8	(1,930)	10.7	(1,909)
120~140%미만	97.6	(1,034)	16.3	(1,035)	89.3	(1,029)	11.2	(1,017)
140~160%미만	99.4	(945)	12.1	(944)	94.3	(945)	7.5	(933)
160%이상	99.1	(1,751)	10.8	(1,751)	93.4	(1,752)	6.0	(1,739)

주: 1)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13〉 기혼여성(15~49세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인지여부 및 향후 이용의향

(단위: %, 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남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알고 있음	(명)	향후 이용의향	(명)	알고 있음	(명)	향후 이용의향	(명)
기혼여성 전체	68.6	(11,009)	12.6	(11,009)	62.7	(11,009)	10.2	(10,324)
거주지								
대도시	69.6	(4,798)	11.8	(4,797)	63.9	(4,798)	9.9	(4,467)
중소도시	67.7	(4,588)	12.9	(4,588)	61.7	(4,589)	10.1	(4,327)
농촌	68.4	(1,622)	14.1	(1,622)	61.5	(1,622)	11.3	(1,529)
연령								
25세 미만	47.2	(53)	45.3	(53)	30.2	(53)	34.7	(49)
25~29세	66.4	(488)	47.3	(488)	61.1	(488)	36.2	(481)
30~34세	74.5	(1,724)	34.1	(1,724)	68.3	(1,725)	25.8	(1,689)
35~39세	73.0	(2,452)	15.5	(2,451)	66.9	(2,451)	11.7	(2,377)
40~44세	69.1	(3,049)	4.1	(3,049)	63.3	(3,048)	4.0	(2,859)
45~49세	62.5	(3,244)	1.2	(3,244)	56.6	(3,244)	1.2	(2,869)
취업여부								
취업	70.6	(6,219)	11.6	(6,220)	63.6	(6,219)	9.6	(5,654)
비취업	66.1	(4,789)	14.0	(4,789)	61.4	(4,790)	10.9	(4,670)
가구소득 ¹⁾								
60%미만	58.3	(1,518)	12.0	(1,518)	52.8	(1,518)	12.9	(1,061)
60~80%미만	63.4	(1,714)	16.6	(1,714)	56.5	(1,714)	14.4	(1,588)
80~100%미만	66.9	(2,119)	12.1	(2,119)	61.8	(2,118)	9.2	(2,071)
100~120%미만	72.4	(1,923)	13.5	(1,924)	65.1	(1,924)	10.7	(1,904)
120~140%미만	69.3	(1,035)	14.4	(1,035)	62.7	(1,035)	11.0	(1,024)
140~160%미만	75.4	(945)	10.5	(944)	68.8	(945)	7.2	(934)
160%이상	76.6	(1,751)	9.0	(1,752)	72.3	(1,751)	6.4	(1,739)

주: 1)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14〉 기혼여성(15~49세)의 유연근무제 인지여부 및 향후 이용의향

(단위: %, 명)

	유연근무제				직장어린이집			
	알고 있음	(명)	향후 이용의향	(명)	알고 있음	(명)	향후 이용의향	(명)
기혼여성 전체	59.6	(11,009)	13.2	(11,009)	88.4	(11,009)	13.2	(11,009)
거주지								
대도시	61.3	(4,798)	13.1	(4,798)	88.1	(4,798)	12.5	(4,797)
중소도시	58.2	(4,588)	13.1	(4,588)	88.3	(4,589)	13.4	(4,589)
농촌	58.6	(1,622)	14.0	(1,623)	89.7	(1,622)	14.2	(1,623)
연령								
25세 미만	34.0	(53)	43.4	(53)	61.5	(52)	52.8	(53)
25~29세	54.9	(488)	46.5	(488)	83.6	(488)	49.3	(487)
30~34세	64.4	(1,724)	33.7	(1,725)	90.0	(1,725)	34.6	(1,724)
35~39세	64.1	(2,452)	16.6	(2,452)	91.8	(2,451)	16.8	(2,451)
40~44세	60.1	(3,049)	5.2	(3,049)	89.6	(3,048)	4.6	(3,049)
45~49세	54.4	(3,243)	1.8	(3,244)	85.0	(3,244)	1.0	(3,244)
취업여부								
취업	61.7	(6,219)	12.3	(6,220)	88.9	(6,220)	12.0	(6,219)
비취업	56.9	(4,790)	14.4	(4,789)	87.7	(4,790)	14.7	(4,790)
가구소득 ¹⁾								
60%미만	48.4	(1,518)	13.1	(1,518)	81.8	(1,517)	13.5	(1,517)
60~80%미만	53.9	(1,714)	16.9	(1,714)	87.0	(1,714)	16.9	(1,714)
80~100%미만	57.3	(2,118)	12.7	(2,119)	88.3	(2,119)	12.9	(2,119)
100~120%미만	62.6	(1,923)	13.6	(1,923)	89.4	(1,923)	13.4	(1,924)
120~140%미만	61.5	(1,034)	14.5	(1,034)	88.8	(1,035)	14.4	(1,035)
140~160%미만	67.1	(945)	11.3	(945)	91.9	(944)	10.4	(945)
160%이상	69.2	(1,752)	10.0	(1,752)	92.3	(1,751)	9.9	(1,751)

주: 1)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74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부표 15〉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2순위)

(단위: %, 명)

구분	학벌 사회 문화 타파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 체계 개편	노동 시장 변화	주택 시장 안정	경기 활성화	보육 육아지원 시설 확충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양성 평등 구현	경쟁 사회 지연	안전한 재태양육 환경 조성	기타	계	(명)
전체	4.4	7.0	8.8	6.0	6.3	3.5	7.6	9.9	3.8	0.9	9.9	18.3	13.7	100.0	(10,941)
거주지($\chi^2=33.7$)															
대도시	4.0	7.3	8.5	5.8	6.6	3.5	7.6	9.4	3.6	0.8	9.6	19.3	13.9	100.0	(4,769)
중소도시	4.4	6.9	9.3	6.3	5.9	3.6	7.9	10.4	3.9	1.1	10.3	17.3	12.9	100.0	(4,560)
농촌	5.3	6.3	8.3	5.3	7.0	3.5	6.9	9.8	3.9	0.7	9.4	18.3	15.4	100.0	(1,614)
연령 ¹⁾ ($\chi^2=536.7^{***}$)															
25세 미만	5.8	0.0	5.8	3.8	5.8	0.0	3.8	21.2	1.9	0.0	3.8	28.8	19.2	100.0	(52)
25~29세	3.3	4.1	8.3	4.3	5.2	3.5	7.2	15.9	3.9	1.9	6.2	17.8	18.4	100.0	(484)
30~34세	2.9	5.2	7.5	4.0	4.1	3.1	5.8	15.5	6.4	0.8	6.4	22.1	16.2	100.0	(1,712)
35~39세	3.4	6.6	8.6	5.4	5.1	4.3	6.1	12.0	4.3	0.8	8.9	20.4	14.0	100.0	(2,442)
40~44세	5.0	7.9	9.9	6.1	7.6	2.7	6.8	8.3	2.7	0.9	10.4	18.7	12.9	100.0	(3,024)
45~49세	5.4	7.8	8.8	7.6	7.4	4.0	10.5	5.6	2.9	0.9	12.5	14.4	12.1	100.0	(3,226)
교육수준($\chi^2=225.0^{***}$)															
중졸이하	7.4	6.8	8.3	6.5	5.0	3.8	11.5	7.4	2.1	1.2	8.6	15.1	16.3	100.0	(338)
고졸	4.9	6.8	9.8	7.1	7.4	4.4	8.6	7.9	2.6	0.6	9.5	16.7	13.6	100.0	(4,522)
대졸	3.9	7.2	8.2	5.3	5.7	2.9	6.8	11.4	4.4	1.1	10.2	19.4	13.5	100.0	(5,639)
대학원졸	2.3	6.2	6.2	2.1	5.7	2.1	5.3	13.5	8.7	1.1	10.0	23.1	13.9	100.0	(438)
취업여부($\chi^2=48.4^{***}$)															
취업	4.5	6.9	8.8	6.1	6.8	4.2	8.2	8.8	3.7	0.9	9.8	17.8	13.6	100.0	(6,180)
비취업	4.2	7.1	8.8	5.8	5.7	2.7	6.8	11.3	3.9	0.9	9.9	19.0	13.8	100.0	(4,764)
가구소득 ²⁾ ($\chi^2=130.0^{***}$)															
60%미만	4.6	6.6	9.8	5.7	6.5	3.9	9.2	8.8	3.1	1.1	7.9	16.9	16.0	100.0	(1,503)
60~80%미만	4.8	6.7	9.0	6.5	6.2	3.3	7.8	10.8	3.2	0.4	8.7	19.7	12.9	100.0	(1,704)
80~100%미만	4.5	5.8	8.8	6.1	6.4	4.4	7.8	9.2	3.3	0.9	10.2	18.6	14.0	100.0	(2,110)
100~120%미만	4.3	7.4	7.1	7.0	6.6	3.3	8.2	9.7	3.9	0.7	10.7	16.6	14.5	100.0	(1,910)
120~140%미만	4.8	7.9	9.3	5.5	5.6	3.5	6.8	11.0	3.9	0.7	10.4	17.4	13.3	100.0	(1,030)
140~160%미만	3.3	8.2	9.4	6.1	6.5	2.8	6.1	8.8	4.8	1.0	10.0	18.9	14.3	100.0	(940)
160%이상	3.9	7.2	9.0	4.5	6.4	3.2	6.6	10.9	4.7	1.6	10.9	20.0	11.2	100.0	(1,739)

* p<0.05, ** p<0.01, *** p<0.001

주: 1) 25세 미만에는 15~19세 8명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미혼남녀의 출산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욕구

〈부표 16〉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관한 미혼남녀 (20~44세)의 인식(2순위)

(단위: %,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계	(명)
미혼남성 전체	1.8	5.0	3.3	6.9	4.9	9.1	6.4	10.6	1.4	10.9	9.6	4.0	13.8	12.2	-	100.0	(1,076)
거주지($\chi^2=30.1$)																	
대도시	2.5	3.4	4.0	8.5	4.3	7.5	7.2	11.3	1.5	10.9	10.6	4.0	11.7	12.6	-	100.0	(530)
중소도시	1.3	5.8	3.0	6.0	5.5	10.3	4.8	9.6	1.8	11.1	8.6	4.5	15.6	12.1	-	100.0	(397)
읍면부	0.7	8.2	2.0	4.1	4.8	11.6	8.2	11.6	-	9.5	8.8	2.7	16.3	11.6	-	100.0	(147)
연령																	
20~24세	2.5	4.4	3.0	8.2	3.3	8.2	7.4	10.7	2.2	12.9	11.5	4.1	12.4	9.1	-	100.0	(364)
25~29세	2.9	6.9	1.4	5.4	5.8	7.6	9.0	7.9	-	8.3	9.7	2.2	16.6	16.2	-	100.0	(277)
30~34세	0.5	3.2	4.1	6.4	7.8	6.4	3.7	13.8	2.3	10.6	10.6	6.0	10.1	14.7	-	100.0	(218)
35~39세	0.8	3.0	4.5	3.8	3.8	13.6	6.1	12.9	-	8.3	8.3	2.3	18.9	13.6	-	100.0	(132)
40~44세	1.1	9.2	6.9	12.6	2.3	16.1	1.1	6.9	2.3	16.1	2.3	6.9	11.5	4.6	-	100.0	(87)
교육수준($\chi^2=24.7$)																	
고졸이하	1.4	6.2	2.2	8.0	6.2	9.1	8.0	11.2	0.7	10.1	8.7	3.3	14.5	10.5	-	100.0	(276)
대학재학	2.4	4.9	3.5	8.0	4.5	8.7	3.8	12.2	2.4	13.3	8.7	3.5	13.6	10.1	-	100.0	(286)
대졸이상	1.8	4.5	3.9	5.5	4.5	9.4	6.8	9.2	1.2	9.9	10.7	4.7	13.6	14.4	-	100.0	(513)
취업여부($\chi^2=20.8$)																	
취업	1.7	5.8	4.1	7.1	5.5	9.8	7.7	10.6	0.9	9.4	8.5	4.1	12.4	12.3	-	100.0	(635)
비취업	1.8	3.9	2.3	6.6	4.1	7.9	4.5	10.7	2.0	13.2	11.3	3.9	15.9	12.0	-	100.0	(441)
미혼여성 전체	1.3	3.5	3.6	6.4	6.9	4.6	4.5	11.4	0.6	10.9	9.2	4.7	17.7	14.4	0.2	100.0	(1,261)
거주지($\chi^2=58.1^{**}$)																	
대도시	1.2	3.6	3.3	6.5	5.9	3.2	4.2	12.3	0.5	11.0	10.4	3.8	18.8	15.1	0.3	100.0	(664)
중소도시	2.0	2.9	4.8	7.3	7.9	4.4	5.1	9.9	0.7	9.9	8.6	6.6	17.6	12.5	-	100.0	(455)
읍면부	-	5.6	0.7	2.8	8.5	12.7	4.2	12.0	0.7	14.1	5.6	2.8	13.4	16.9	-	100.0	(142)
연령																	
20~24세	2.2	5.3	2.4	7.6	11.4	3.9	2.7	12.4	0.4	9.8	8.2	4.3	16.1	13.3	-	100.0	(510)
25~29세	1.1	2.7	4.9	4.9	4.9	5.4	2.4	14.1	0.5	14.1	9.5	4.9	17.4	12.5	0.5	100.0	(368)
30~34세	1.4	1.4	5.1	5.6	2.8	5.6	8.8	8.4	-	10.2	10.2	4.7	16.3	19.5	-	100.0	(215)
35~39세	-	1.9	3.8	7.6	1.0	2.9	8.6	6.7	2.9	9.5	10.5	1.9	22.9	20.0	-	100.0	(105)
40~44세	-	3.4	-	3.4	5.1	5.1	10.2	6.8	1.7	5.1	10.2	11.9	30.5	6.8	-	100.0	(59)
교육수준($\chi^2=47.8$)																	
고졸이하	-	4.6	3.3	4.6	6.6	7.2	11.2	0.7	9.2	12.5	5.9	16.4	13.2	-	-	100.0	(152)
대학재학	3.0	5.5	1.5	6.6	11.8	4.1	1.8	11.1	0.4	10.0	8.1	3.3	17.0	15.9	-	100.0	(271)
대졸이상	1.1	2.8	4.1	6.8	5.6	4.6	4.8	11.6	0.7	11.5	8.9	4.9	18.2	14.1	0.2	100.0	(834)
취업여부($\chi^2=51.7^{***}$)																	
취업	0.9	2.7	4.1	6.9	4.2	5.0	5.0	9.6	0.7	11.7	10.1	5.1	18.2	15.6	-	100.0	(801)
비취업	2.2	5.0	2.6	5.4	11.5	3.9	3.7	14.6	0.4	9.6	7.6	3.9	16.7	12.4	0.4	100.0	(460)

* p<0.05, ** p<0.01, *** p<0.001

주: 1) ① 양성평등 구현, ②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③ 공교육 강화, ④ 사교육비 경감, ⑤ 교육체계 개편(졸업 후 취업, 선취업 후 교육), ⑥ 노동시장 변화(학력주의, 학벌주의, 스펙 등 타파), ⑦ 주택시장 안정, ⑧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⑨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⑩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⑪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⑫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⑬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⑭ 복지수준의 향상, ⑮ 기타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록 2.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조사표

1. 기혼여성(15~49세) 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만 15~49세 기혼여성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인구, 보건 및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가지정통계'로서 15~49세 기혼여성 조사와 20~44세 미혼남녀 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 가구는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지역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표본추출 되었으며, 귀댁이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쁘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조사내용 문의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044-287-8182, 044-287-8128

조사구 번호

			-	
--	--	--	---	--

행정코드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조사구내 조사원료가구 일련번호	기혼여성		
				가구내 조사대상 기혼여성 총 수(명)	가구내 조사원료 기혼여성 일련번호	가구내 조사원료 기혼여성 가구원 번호
1-7	8-10	11-12	13-14	15	16	17

신주소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 H.P.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1	___월 ___일 ___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 기타()			
2	___월 ___일 ___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 기타()			
3	___월 ___일 ___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 기타()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이 테(기)구에서 상주하고 있는 기구원에 관한 사항

※ 조사업: 단원의 사항을 확인하여 조사업에 기입합니다. 1. 기구내 조사업원 기보여성(만15~49세) 수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2. 기구내 조사업원 미혼남녀(만20~44세) 수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3. 기구원 수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4. 원단 기보여성의 기구원 변화					
구분	51. 기구원 이름 (기구주부터 기록 62조사업: 이름은 바 쳐기 지내는 경우 '김 O' 등으로 표기)	52. 기구주와의 관계 (기구주: 조사업원, 조사업원: 조사업원) 기구주: 조사업원, 조사업원: 조사업원	53. 성 ① 남 ② 여	54. 연령 상세 표시한 총연령 (기구주: 총연령, 조사업원: 조사업원) 만연령 조건표 표기	55. 교육수준		56. 혼인상태	57. 경재활동		58. 종교	59. 국적
					55-1. 교육장도	55-2. 교육형태		57-1. 상 경재활동 형태	57-2. 직종		
1	(기구주) 2728	남 3033 3435 여 29	남 3638 여 41	41	42	43	44-45	46-47	48 49-50	① 없음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불교(국교) ⑤ 기타() ⑥ 무종교 ⑦ 기타() ⑧ 기타() ⑨ 기타() ⑩ 기타() (부조사업: 국적코드는 조 사업원별 표명 필요) (인14세 이하)	
2	5253	남 6143 여 54	66	67	68	69-70	71-72	73 74-75	76 77-78	① 없음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불교(국교) ⑤ 기타() ⑥ 무종교 ⑦ 기타() ⑧ 기타() ⑨ 기타() ⑩ 기타() (부조사업: 국적코드는 조 사업원별 표명 필요) (인14세 이하)	
3	7778	남 8083 8485 여 79	91	92	93	94-95	96-97	98 99-100	101 102-103	① 없음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불교(국교) ⑤ 기타() ⑥ 무종교 ⑦ 기타() ⑧ 기타() ⑨ 기타() ⑩ 기타() (부조사업: 국적코드는 조 사업원별 표명 필요) (인14세 이하)	
4	2223	남 3133 여 24	36	37	38	39-40	41-42	43 44-45	46 47-48	① 없음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불교(국교) ⑤ 기타() ⑥ 무종교 ⑦ 기타() ⑧ 기타() ⑨ 기타() ⑩ 기타() (부조사업: 국적코드는 조 사업원별 표명 필요) (인14세 이하)	
5	4748	남 5033 5455 여 49	61	62	63	64-65	66-67	68 69-70	71 72-73	① 없음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불교(국교) ⑤ 기타() ⑥ 무종교 ⑦ 기타() ⑧ 기타() ⑨ 기타() ⑩ 기타() (부조사업: 국적코드는 조 사업원별 표명 필요) (인14세 이하)	
6	7273	남 8183 여 71	86	87	88	89-90	91-92	93 94-95	96 97-98	① 없음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불교(국교) ⑤ 기타() ⑥ 무종교 ⑦ 기타() ⑧ 기타() ⑨ 기타() ⑩ 기타() (부조사업: 국적코드는 조 사업원별 표명 필요) (인14세 이하)	
7	2223	남 3133 여 24	36	37	38	39-40	41-42	43 44-45	46 47-48	① 없음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불교(국교) ⑤ 기타() ⑥ 무종교 ⑦ 기타() ⑧ 기타() ⑨ 기타() ⑩ 기타() (부조사업: 국적코드는 조 사업원별 표명 필요) (인14세 이하)	
8	4748	남 5033 5455 여 49	61	62	63	64-65	66-67	68 69-70	71 72-73	① 없음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불교(국교) ⑤ 기타() ⑥ 무종교 ⑦ 기타() ⑧ 기타() ⑨ 기타() ⑩ 기타() (부조사업: 국적코드는 조 사업원별 표명 필요) (인14세 이하)	
9	7273	남 8183 여 71	86	87	88	89-90	91-92	93 94-95	96 97-98	① 없음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불교(국교) ⑤ 기타() ⑥ 무종교 ⑦ 기타() ⑧ 기타() ⑨ 기타() ⑩ 기타() (부조사업: 국적코드는 조 사업원별 표명 필요) (인14세 이하)	

♣6. 현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 ① 혼인신고 하였음 (_____년 _____월)
② 혼인신고 하지 않았음

6 년 월

♣7. 현재 남편과 결혼식을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 ① 결혼식 하였음 (_____년 _____월)
② 결혼식 하지 않았음

7 년 월

※조사원: 이혼, 사별, 별거인 경우 <질문 8>~<질문 10>은 직전 결혼을 기준으로 질문합니다.

8. 가장 최근의 결혼을 기준으로 실제 함께 삶, 결혼식, 혼인신고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십니까?

- ① 함께 삶 → 결혼식 → 혼인신고 ② 함께 삶 → 혼인신고 → 결혼식
③ 결혼식 → 함께 삶 → 혼인신고 ④ 결혼식 → 혼인신고 → 함께 삶
⑤ 혼인신고 → 함께 삶 → 결혼식 ⑥ 혼인신고 → 결혼식 → 함께 삶
⑦ 함께 삶 → 결혼식(혼인신고 안함) ⑧ 결혼식 → 함께 삶(혼인신고 안함)
⑨ 함께 삶 → 혼인신고(결혼식 안함) ⑩ 혼인신고 → 함께 삶(결혼식 안함)
⑪ 함께 삶(결혼식, 혼인신고 안함) ⑫ 기타

8

9. 귀하와 배우자는 지금까지 몇 번 결혼하셨습니까?

- 1) 본인 : _____ 번째 ♣2) 남편 : _____ 번째

9-1)본인 번째 9-2)남편 번째

10. 다음은 귀하의 과거 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사원: 응답 여성이 한번이라도 이혼, 별거(이혼 전제), 사별을 경험한 경우에만 조사합니다.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결혼
10-1. 혼인시기	<input type="text" value="65-68"/> <input type="text" value="69-70"/> 년 <input type="text" value=""/> 월	<input type="text" value="82-85"/> <input type="text" value="86-87"/> 년 <input type="text" value=""/> 월	<input type="text" value="99-102"/> <input type="text" value="103-104"/> 년 <input type="text" value=""/> 월
10-2. 혼인 종료시기	<input type="text" value="71-74"/> <input type="text" value="75-76"/> 년 <input type="text" value=""/> 월	<input type="text" value="88-91"/> <input type="text" value="92-93"/> 년 <input type="text" value=""/> 월	<input type="text" value="105-108"/> <input type="text" value="109-110"/> 년 <input type="text" value=""/> 월
10-3. 종료된 이유 ① 이혼 ② 별거(이혼 전제) ③ 사별	<input type="text" value="77"/>	<input type="text" value="94"/>	<input type="text" value="111"/>
10-4. 당시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수	<input type="text" value="78-79"/> 명	<input type="text" value="95-96"/> 명	<input type="text" value="112-113"/> 명
10-5. 당시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 중 현재 같이 사는 자녀수	<input type="text" value="80-81"/> 명	<input type="text" value="97-98"/> 명	<input type="text" value="114-115"/> 명

III. 본인의 결혼 비용

18-20
CARD
222

※조사원: 응답 여성이 재혼 이상인 경우에는 초혼을 기준으로 질문합니다.

11. 결혼 당시 본인이 지출한 결혼비용이 부담되었습니까?

- ① 매우 부담되었음 ② 부담되는 편이었음
③ 부담되지 않았음 ④ 전혀 부담되지 않았음 ⇒ (질문 12로 이동)

11

영역 2: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

I.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

1. 지금까지 총 몇 번 임신하셨습니다가? (※현 임신 포함) 총 _____ 번 임신 | 1 21-22 번

※조사원: 임신 횟수가 "0"회인 경우 <질문 2>에 '0'으로 처리하고, <질문 5>로 이동합니다.

임신 횟수별로 임신 당시 상황 및 결과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순위	1-1. 임신시기		1-2. 임신을 원했는지 여부		1-3. 임신방법	1-4. 임신 당시 태아수		1-5. 태아 성감별 실시 여부		1-6. 임신 종결 여부 및 시기			1-7. 임신 결과(중복체크) ※1-6에서 '0'임신 중'인 경우 질문하지 않습니다				1-8. 인공임신중절 이유	
	년	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첫 번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두 번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세 번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네 번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20	CARD224																	
다섯 번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여섯 번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곱 번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여덟 번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20	CARD225																	
아홉 번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조사원: <질문 1>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을 기입하십시오.

총 임신횟수 =	출생	+ 사산	+ 출생과 사산 동시 발생	+ 자연유산	+ 인공임신중절	+ 현 임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회

2. 지금까지 총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셨습니다가?

※조사원: 분기(출가), 사망한 자녀를 모두 포함하되, 입양 자녀는 제외합니다.
앞의 임신력 사항에서 조사한 총 출생아수와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총 _____ 명, 아들 _____ 명, 딸 _____ 명

2 총 명 아들 명 딸 명

484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 지금까지 출산한 자녀 중 사망한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총 ____명, 아들 ____명, 딸 ____명) ② 없다

3
 총 명 아들 명 딸 명

4. 남아출산을 위해 임신 전 또는 임신 후에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한번이라도 있다 ② 지금까지 전혀 없다 ⇒ (질문 5로 이동)

4

4-1. (남아출산을 위해 노력하신 적이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자연요법 ② 양수검사 ③ 용모막검사
 ④ 초음파검사 ⑤ 기타(무엇 : _____)

4-1

5. 결혼 당시 몇 명의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었습니까?

(※조사원: 초혼을 기준으로 질문합니다. 미혼모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 ① 총 ____명 ② 생각해보지 않았음

5 총

※조사원: ▲표시가 있는 문항은 미혼모, 이혼, 별거(이혼 전제), 사별자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6.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현재 임신은 제외)

- ① 낳을 생각이다 (____명)
 ② 낳지 않을 생각이다 ⇒ (질문 6-2로 이동)
 ③ 생각중이다(모르겠음) ⇒ (질문 7로 이동)

6 총

▲6-1. (낳을 생각이라면) 딸·아들 구별해서 입니까? 구별 없이 입니까?

- ① 딸·아들 구별 없이
 ② 딸·아들 구별해서 (아들:____명, 딸:____명)
 ③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6-1 아들 명 딸 명

◆6-2. (남지 않을 생각이라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기입합니다.
2순위는 있는 경우에만 기입하고 없는 경우에는 '88'로 기입합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영역	보 기
경제	① 소득이 적어서 ② 실업상태여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④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⑤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식품, 의류, 의료비 등) ⑥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사회	⑦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⑧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⑩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가치관	⑪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서 ⑫ 본인 또는 남편이 아이를 싫어해서 ⑬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해서 ⑭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⑮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⑯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해서 ⑰ 아이가 많아서
가족	⑱ 가정 내에서의 양육 및 가사가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⑲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⑳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외상상태 포함)을 겪는 가족의 수발 때문에
건강	㉑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㉒ 본인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때문에 ㉓ 배우자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때문에
기타	㉔ 나이가 많아서 ㉕ 기타(무엇: _____)

6-2

75-76 77-78

1순위 2순위

II. 출산에 대한 태도

7. 귀하께서는 본인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 ③ 없어도 무관함 ⇒ (질문 7-2로 이동)
- ④ 모르겠음 ⇒ (질문 8로 이동)

18-20

CARD

226

21

7-1.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문(대)를 잇기 위해
- ② 노후생활을 위해서
- ③ 계사를 지내야 하므로
- ④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 ⑤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든든하다, 울타리가 된다, 알보이지 않는다)
- ⑥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 ⑦ 기타(무엇: _____)

※조사원: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질문 7-1 응답 후 질문 8로 이동합니다.

22
7-1

7-2.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 ②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 ③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 ④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 ⑤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 ⑥ 남편이 아이를 싫어해서
- ⑦ 유전병 등 질환 때문에
- ⑧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워서
- ⑨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 ⑩ 기타(무엇: _____)

23 24
7-2

--	--

8.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상자녀수: 총 _____명 (*0명이라고 응답한 경우 질문 9로 이동)
- ② 잘 모르겠다 ⇒ (질문 9로 이동)

25 26,27
8

	총		
--	---	--	--

명

8-1. 딸·아들 구별 없이입니까? 구별해서입니까?

- ① 딸·아들 구별 없이 ② 딸·아들 구별해서(아들 _____명, 딸 _____명)
- ③ 모르겠음 ④ 기타(무엇: _____)

28 29 30
8-1

	명		
아들		딸	

9. 귀하께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 ③ 없어도 상관없다 ④ 모르겠다 ⇒(질문 10으로 이동)

31
9

9-1.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문(대)를 잇기 위해
- ② 노후생활을 위해서
- ③ 계사를 지내야 하므로
- ④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 ⑤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든든하다, 울타리가 된다, 알보이지 않는다)
- ⑥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 ⑦ 기타(무엇: _____)

32
9-1

10. 인생에서 추구해 볼 만한 목표의 실현과 자녀의 수가 관계가 있다면, 다음의 각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자녀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자녀수				자녀수와 관계없다
	0명	1명	2명	3명 이상	
1) 나 자신과 관심 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2) 노후에 안락하게 사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3) 부부간 가사일을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4)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5) 대의를 실현하는 것(자신의 신념이나 신앙에 따라 사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6)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7) 넓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8)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1) 33
- 2) 34
- 3) 35
- 4) 36
- 5) 37
- 6) 38
- 7) 39
- 8) 40

11.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6)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7)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8) 영아(0-2세)는 어린이집에 보내기 보다 가정에서 키워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 1) 41
- 2) 42
- 3) 43
- 4) 44
- 5) 45
- 6) 46
- 7) 47
- 8) 48

III. 피임에 관한 사항

※조사원: 응답 여성이 미혼모이거나 이혼, 별거(이혼 전제) 혹은 사별한 경우에는 **♣**표시가 있는 문항을 질문하지 않고 <영역 3. 산전·산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합니다.

♣ 12.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지금까지 피임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 (질문 16으로 이동)

12 49

♣ 13.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현재 피임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질문 14로 이동)

13 50

※ 조사원: 【질문 16】은 **현 배우자와의 피임 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질문합니다.

▲16. 귀하와 배우자께서 혼인 후 피임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연불임
② 자녀를 원해서
③ 피임방법을 잘 몰라서
④ 일시적으로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장기출장, 해외취업, 산후무월경 등)
⑤ 기타(무엇: _____)

※ 조사원: **질문 17**로 이동합니다.

16 65

※ 조사원: 【질문 17】 ~ 【질문 17-2-1】은 **현재 피임을 중단** 혹은 **현 배우자와의 피임 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질문합니다.

▲17.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앞으로 피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 (질문 18로 이동)

▲17-1.(피임할 생각이 있는 경우) 어떤 피임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최대 두 가지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난관수술 ② 정관수술 ③ 자궁내장치
④ 사전 경구 피임약 ⑤ 사후 경구 피임약(응급 피임약) ⑥ 콘돔
⑦ 살(질)정제 ⑧ 월경주기법 ⑨ 질외사정법
⑩ 난관이든 정관이든 불임수술 ⑪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⑫ 기타(무엇: _____)

17 66

17-1 67-68
 69-70

IV. 난임(불임)에 관한 사항

▲18.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임신 시도 후 최소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영역 3으로 이동)

▲19.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양방병원에서 난임(불임) 진단을 받았습니까?
① 받았다 ② 받지 않았다 ⇒ (영역 3으로 이동)

▲20. 난임(불임) 진단 결과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① 부인에게만 ② 남편에게만
③ 부부 모두에게 ④ 부부 모두 원인 불명 ⇒ (질문 21로 이동)

18 71

19 72

20 73

▲20-1. 그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최대 두 가지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부인 (최대 2가지)	① 나팔관(난관) 장애	② 배란 장애	③ 염색체 이상	④ 자궁경관 장애	⑤ 자궁내막 장애	⑥ 조기 폐경
	⑦ 습관성 유산	⑧ 기타(무엇: _____)	⑨ 잘 모르겠다			
남편 (최대 2가지)	① 무정자증	② 희소정자증	③ 정자무력증	④ 염색체이상	⑤ 기타(무엇: _____)	⑥ 잘 모르겠다

20-1 74-75
 76-77
 남편 78-79
 80-81

490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21.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그동안 난임(불임)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질문 22로 이동) 21 82
- ♣21-1. (치료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어디서 난임(불임) 치료를 받았습니까? 모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양방병원 ② 한방병원 ③기타(어디:) 21-1 83 84 85
- ♣22.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그동안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질문 22-4로 이동) 22 86
- ♣22-1. (시술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시술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① 임신 후 출산 ② 현재 임신 중 ③ 임신 후 출산 실패
④ 임신 실패 ⑤ 현재 시술 중 22-1 87
- ♣22-2. (시술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시술을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부담 ②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③ 시댁부모와 가족의 편견 ④ 남편의 비협조와 무시
⑤ 사회적 편견 ⑥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⑦ 정보가 없어서(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⑧ 시간이 없어서
⑨ 직장 때문에
⑩ 기타(무엇:) 22-2 88-89
- ♣22-3. (시술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시술을 받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질문 23로 이동) 22-3 90
- ♣22-4. (시술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받다가 중단한 경우)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②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③ 영구불임 판정을 받아서 ④ (추가)자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
⑤ 입양을 해서 ⑥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⑦ 정보가 없어서(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⑧ 시간이 없어서
⑨ 치료에 성공해서 ⑩ 시술에 성공해서
⑪ 직장 때문에 ⑫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⑬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
⑭ 기타(무엇:) 22-4 91-92
- ♣23.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대해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질문 24로 이동) 23 93
- ♣23-1.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상담 또는 진료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3-1 94

◆24. 정부의 다음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경험 및 도움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	24-1. 인지 여부		24-2. 이용 경험		24-2-1. 도움 받은 정도 (※조사원: 24-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알고 있음	모름	경험 있음	없음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받지 못함	전혀 도움받지 못함	해당 없음	
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⑧	
2)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⑧	

1)

24-1	95	24-2	96	24-2-1	97
------	----	------	----	--------	----

2)

98	99	100
----	----	-----

영역 3. 산전·산후 관리에 관한 사항

※ 조사원: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현존자녀 유무를 확인하여 아래 해당란에 표시한 후 질문을 시작하되, 이 기간 중 태어난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할 때에는 아기 이름을 호명하면서 질문합니다.

-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현존자녀 유무
 - ①있음 ②없음 ⇒ (영역 4로 이동)
-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 ① 생년월일(양력): 20__년 __월 __일 (※월 단위까지 코딩)
 - ② 만 연령: __년 __개월 (※조사 당일부터 계산하여 개월로 환산)
 - ③ 이름: _____
 - (가구원 번호:__) ④ ○○(이)의 출생순위: __번째

18-20
CARD
227

21

①생년월일

22-23	년	24-25	월
-------	---	-------	---

②만 연령

26-27	년	28-29	개월
-------	---	-------	----

③출생순위

30-31	번째
-------	----

I. 산전 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

1. ○○(이)의 임신기간 동안에 산전 진찰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질문 2로 이동)

1-1. (있다면) 몇 회나 산전 진찰을 받았습니까? _____ 회

1-2. (있다면) 첫 산전진찰(초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임신 _____ 주

2. ○○(이)를 어디에서 분만하셨습니까?
① 종합병원 ② 병원 ③ 의원
④ 조산원 ⑤ 보건의료원 ⑥ 자택(친정, 시댁 포함)
⑦ 기타(어디: _____)

3. ○○(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으셨습니까? 제왕절개로 낳으셨습니까?
① 자연분만 ② 제왕절개

1

32

산전진찰

33-34	회
-------	---

초진시기

35-36	주
-------	---

2

37

3

38

492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4. 정부의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경험 및 도움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	4-1. 인지 여부		4-2. 이용 경험		4-2-1. 도움 받은 정도 (※조사원: 4-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알고 있음	모름	경험 있음	없음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받지 못함	전혀 도움 받지 못함	해답 없음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⑧	

4-1 39 4-2 40 4-2-1 41

※조사원: 다음 문항은 질문하지 말고 가급적 아기수첩, 모자보건수첩, 산모수첩 등을 가져오게 하여 확인하고 적습니다.

5. ○○(이)를 임신 몇 주 만에 분만하셨습니까? 또한 그 당시 ○○(이)의 체중은 얼마였습니까?

1) 분만시기: 임신 _____주 2) ○○(이)의 출생 당시 체중: _____g

1) 42-43 주 2) 44-47 g

※조사원: ○○(이)가 출생 당시 체중이 2,500g 미만이었거나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인 경우에만 <질문 6>을 조사합니다.

6. (○○(이)가 출생 당시 체중이 2,500g 미만이었거나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인 경우) 정부의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경험 및 도움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	6-1. 인지 여부		6-2. 이용 경험		6-2-1. 도움 받은 정도 (※조사원: 6-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알고 있음	모름	경험 있음	없음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받지 못함	전혀 도움 받지 못함	해답 없음	
미숙아 의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⑧	

6-1 48 6-2 49 6-2-1 50

II. 산후 관리에 관한 사항

7. ○○(이) 출산 후 (산모의 출산과 관련하여) 산후진찰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 51

8. ○○(이) 출산 후 산후우울증 진단이나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질문 9로 이동)

8 52

8-1. (산후우울증 진단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진단 또는 상담은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① 보건소 ② 산부인과 ③ 정신건강의학과
④ 정신보건센터 ⑤ 한의원 ⑥ 기타(어디: _____)

8-1 53

9. ○○(이) 출산 후 산후조리를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① 산후조리원 ② 조산소 ③ 산부인과 ④ 산부인과 외 병·의원
⑤ 본인 집 ⑥ 친정 ⑦ 시댁
⑧ 기타(어디: _____) ⇒ (질문 10으로 이동)

9 54-55

※조사원: 질병, 예방접개, 건강이상 등의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한 기간은 산후조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II. 부모 및 친인척 지원

※조사원: 응답 여성이 미혼모이거나 이혼, 별거(이혼 전제) 혹은 사별한 경우에는 ▲표시가 있는 문항을 질문하지 않고 응답자의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만 질문합니다.

6. 귀하의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몇 세입니까?

구분	부	모
1) 친정부모	<input type="checkbox"/> ① 생존 (만 _____ 세) <input type="checkbox"/> ② 사망	<input type="checkbox"/> ① 생존 (만 _____ 세) <input type="checkbox"/> ② 사망
▲2) 시부모	<input type="checkbox"/> ① 생존 (만 _____ 세) <input type="checkbox"/> ② 사망	<input type="checkbox"/> ① 생존 (만 _____ 세) <input type="checkbox"/> ② 사망

6

부 모

75 76-78 79 80-82

1) 친정 세 세

83 84-86 87 88-90

2) 시 세 세

※조사원: 사망한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질문 7>과 <질문 8>의 해당 부 또는 모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7. 지난 6개월 동안 친정 부모님 혹은 시부모님께 다음의 도움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렸습니까?

	친정부모	▲시부모
1) 경제적 도움 (생활비, 외식비, 여가비 등)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월 평균 _____ 만원)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월 평균 _____ 만원)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비해당
2) 집안일 또는 보살핌 등 비경제적 도움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주 평균 _____ 시간)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주 평균 _____ 시간)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비해당

7

친정부모 시부모

91 92-94 95 96-98

1) 만원 만원

99 100-102 103 104-106

2) 시간 만원

8. 지난 6개월 동안 친정 부모님 혹은 시부모님께 다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친정부모		▲시부모	
	부	모	부	모
1) 경제적 도움 (생활비, 외식비, 여가비 등)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월 평균 _____ 만원)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월 평균 _____ 만원)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월 평균 _____ 만원)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월 평균 _____ 만원)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비해당
2) 집안일 또는 자녀돌봄 등 비경제적 도움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주 평균 _____ 시간)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주 평균 _____ 시간)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주 평균 _____ 시간)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주 평균 _____ 시간)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비해당

친정부모 시부모

107 108-110 115 116-118

1) 부 만원 만원

111 112-114 119 120-122

모 만원 만원

123 124-126 131 132-134

2) 부 시간 시간

127 128-130 135 136-138

모 시간 시간

9. 지난 6개월 동안 자녀 돌봄에 대해 부모님 이외의 친인척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주 평균 _____ 시간) ② 아니오 ⇒ (질문 10으로 이동)

139 140-141

9 주 시간

9-1. 누가(어떤 친인척이) 귀하의 자녀 돌봄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도움을 준 모든 사람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남편의 형제자매 ② 부인의 형제자매
 ③ 기타 친인척(누구:)

142 143 144

9-1

18-20

CARD
229

III.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돌봄

※ 조사원: 동거 또는 비동거 중인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수를 파악하여 기입한 후, 해당 자녀수만큼 아래의 문항을 질문합니다.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없는 경우 <IV.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돌봄>으로 이동합니다.

21
취학 전 자녀수 명

◆ 취학 전 자녀수: _____명

문항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이상 중 막내
10. ()째아를 맡기기에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누가(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10-1. ()째아는 현재 만으로 몇 세입니까? 10-2. ()째아를 맡기기에 바람직한 사람(군): 주간 / 야간(오후 7시 30분 이후) 10-3. ()째아를 실제 맡긴 사람(군): 주간 / 야간(오후 7시 30분 이후) (*조사원: 여러 사람(곳)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간, 야간 각각 가장 주된 것을 한 가지만 표시합니다.)	22 1) <input type="text"/> 세 2)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3)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37 1) <input type="checkbox"/> 세 2)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3)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52 1) <input type="checkbox"/> 세 2)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3)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67 1) <input type="checkbox"/> 세 2)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3)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82 1) <input type="checkbox"/> 세 2)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3)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문항	23-24 25-26 27-28	38-39 40-41 42-43	53-54 55-56 57-58	68-69 70-71 72-73	83-84 85-86 87-88
목아지원시설 ① 공공립 어린이집 ② 민간 어린이집 ③ 놀이방 ④ 직장보육시설 ⑤ 유치원 ⑥ 학원(만일제 이상) ⑦ 기타(어디:)	가정보육사 친인척 기타 ⑩ 친경 부모님 ⑪ 시부모님 ⑫ 친가 친인척 ⑬ 외가 친인척	친인척 기타 ⑭ 본인 또는 남편이 직접 ⑮ 아이 혼자 자람 ⑯ 아이의 형제(자매) ⑰ 기타()			
11. ()~()의 육아지원시설 이용 시) 현재 이용하는 시설에 다니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명세하여 주십시오. □1 아이의 전일적 발달을 위해서 □2 특기교육을 위하여 □3 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4 장래학업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5 기타(무엇:)	11 31-32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46-47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61-62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76-77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91-92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12. ()주기에 ()~()의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2 원하는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없어서 □3 원하는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없어서 □4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5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 □6 아이가 너무 어려서 □7 직접 키우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발달 등에 좋을 것 같아서 □8 기타(무엇:)	12 35-36	31-31	65-66	80-81	95-96

18-20

CARD
230

IV.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돌봄

21
세학
자녀수 명

※ 조사원: 동거 또는 비동거 중인 초등학교 재학 자녀수를 파악하여 기입한 후, 해당 자녀수만큼 아래의 문항을 질문합니다. ◆ 초등학교 재학 자녀수: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없는 경우 <V. 자녀양육비 >로 이동합니다.

문항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중 말년
13. ()째아를 맡기기에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누가(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13-1. ()째아는 현재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13-2. ()째아를 맡기기에 버림받은 사람(웃): (가장 주된 것 2가지) 13-3. ()째아를 실제 맡긴 사람(웃): (가장 주된 것 2가지)	문항	22 1) <input type="text"/> 학년 2) 23-24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35 1) <input type="text"/> 학년 2) 35-37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48 1) <input type="text"/> 학년 2) 49-51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61 1) <input type="text"/> 학년 2) 62-63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74 1) <input type="text"/> 학년 2) 75-76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14. ()~()의 보육·교육 기관 이용 시)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다니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input type="checkbox"/> ② 주·고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input type="checkbox"/> ③ 특기교육을 위하여 <input type="checkbox"/> ④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지 어려워서 <input type="checkbox"/> ⑤ 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input type="checkbox"/> ⑥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⑦ 장애 학업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input type="checkbox"/> ⑧ 집 근처에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여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무엇:)	친인척	25-26 1) <input type="text"/> 2) 27-28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38-39 1) <input type="text"/> 2) 40-41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51-52 1) <input type="text"/> 2) 53-54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64-65 1) <input type="text"/> 2) 66-67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77-78 1) <input type="text"/> 2) 79-80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15. ()~()의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② 가까운 곳에 돌봄시설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③ 원하는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④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⑤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⑥ 아이가 너무 어려서 <input type="checkbox"/> ⑦ 직접 돌보는 것이 자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무엇:)	기타	29-30 1) <input type="text"/> 2) 29-30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42-43 1) <input type="text"/> 2) 42-43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55-56 1) <input type="text"/> 2) 55-56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68-69 1) <input type="text"/> 2) 68-69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81-82 1) <input type="text"/> 2) 81-82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V. 자녀양육비

16.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언제까지 책임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③ 취업할 때까지 ④ 혼인할 때까지 ⑤ 언제까지라도

16

17. (지난 3개월 간) 귀댁의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자녀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원: 비동거 자녀일지라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질문합니다)

구분	첫째아 가구원번호: 22-2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둘째아 가구원번호: 48-4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셋째아 가구원번호: 74-7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넷째아 가구원번호: 100-10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다섯째아 이상 중 막내 가구원번호: 126-127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24-26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50-5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76-78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02-10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28-13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2) 공교육비(등록금, 보충수업 비 등)	27-2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53-5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79-8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05-107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31-13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3) 사교육비(학원, 학습지, 과 외비 등)	30-3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56-58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82-8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08-11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34-136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4) 돌봄비용 1(친청부모, 시부 모)	33-3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59-6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85-87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11-11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37-13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5) 돌봄비용 2(기타 친인척)	36-38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62-6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88-9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14-116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40-14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6) 돌봄비용 3(비혈연)	39-4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65-67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91-9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17-11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43-14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7) 기타(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비 등)	42-4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68-7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94-96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20-12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46-148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8) 지출 항목 분류 곤란	45-47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71-7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97-9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23-12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49-15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8. 정부의 다음 보육·유아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 및 도움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	18-1. 인지도 여부		18-2. 이용 경험		18-2-1. 도움 받은 정도 (※조사원: 18-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알고 있음	모름	경험 있음	없음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받지 않음	전혀 도움 받지 않음	해당 없음
1) 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⑧
2) 보육료(어린이집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⑧
3) 유아교육비(유치원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⑧
4)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⑧
5)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⑧

	18-1	18-2	18-2-1
1)	<input type="text"/> 152	<input type="text"/> 153	<input type="text"/> 154
2)	<input type="text"/> 155	<input type="text"/> 156	<input type="text"/> 157
3)	<input type="text"/> 158	<input type="text"/> 159	<input type="text"/> 160
4)	<input type="text"/> 161	<input type="text"/> 162	<input type="text"/> 163
5)	<input type="text"/> 164	<input type="text"/> 165	<input type="text"/> 166

영역 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18-20
CARD
232

1.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취업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취업 경험 있음 ② 취업 경험 없음 ⇒ (질문 2로 이동)

1 21

1-1. 지금까지 이직한 회수는 총 몇 회입니까?

총 _____ 회

1-1 22-23 회

1-2. 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직장에서의 총 근무기간은 얼마입니까?

총 _____ 년 _____ 개월

1-2 24-25 년 26-27 개월

[부인과 남편의 현재 취업 상태]

2. 다음은 귀하와 배우자의 현재 취업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 조사원: - 응답 여성과 배우자의 취업여부를 가구원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하여 <질문 2-1> 해당 칸에 기입합니다.
- 응답 여성과 남편의 현 취업 시 직업은 가구조사표에서 이기한다.
- 응답 여성이 미혼모이거나 이혼, 별거(이혼 전제) 혹은 사별한 경우 ♠남편의 현 취업은 질문하지 않는다.
- 응답 여성과 배우자 모두 비취업인 경우 각각에 대해 <질문 2-1>만 기입하고 <질문 7>로 이동합니다.
- 응답 여성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최대 3개까지 관련 사항을 조사합니다.

구분	부인의 현 직업(1)	부인의 현 직업(2)	부인의 현 직업(3)	♠남편의 현 취업
				남편 가구원 번호: <input type="text"/> 107-108 <input type="text"/>
2-1. 취업 여부	① 취업 <input type="text"/> 28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 <질문2-2>~<질문2-12>는 조사하지 않음	X	X	① 취업 <input type="text"/> 109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 ⇒ <질문2-2>~<질문2-12>는 조사하지 않음
2-2. 직업종류	① 관리자 <input type="text"/> 29-30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① 관리자 <input type="text"/> 55-56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① 관리자 <input type="text"/> 81-82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① 관리자 <input type="text"/> 110-111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500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구분	부인의 현 직업(1)	부인의 현 직업(2)	부인의 현 직업(3)	♂남편의 현 직업
2-3. 출산상 지위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31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57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83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112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2-4. 정규직 여부	①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32 ② 비정규직(계약직) ③ 비정규직(무기계약직) ④ 비해당(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①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58 ② 비정규직(계약직) ③ 비정규직(무기계약직) ④ 비해당(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①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84 ② 비정규직(계약직) ③ 비정규직(무기계약직) ④ 비해당(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①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113 ② 비정규직(계약직) ③ 비정규직(무기계약직) ④ 비해당(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2-5. 직업종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공립교사 포함) <input type="checkbox"/> 33 ②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재투자기관 ③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④ 기타(무엇:)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공립교사 포함) <input type="checkbox"/> 59 ②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재투자기관 ③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④ 기타(무엇:)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공립교사 포함) <input type="checkbox"/> 85 ②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재투자기관 ③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④ 기타(무엇:)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공립교사 포함) <input type="checkbox"/> 114 ②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재투자기관 ③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④ 기타(무엇:)
2-6. 종업원 수	① 1-4인 ② 5-9인 <input type="checkbox"/> 34-35 ③ 10-29인 ④ 30-49인 ⑤ 50-69인 ⑥ 70-99인 ⑦ 100-299인 ⑧ 300-499인 ⑨ 500-999인 ⑩ 1000인 이상	① 1-4인 ② 5-9인 <input type="checkbox"/> 60-61 ③ 10-29인 ④ 30-49인 ⑤ 50-69인 ⑥ 70-99인 ⑦ 100-299인 ⑧ 300-499인 ⑨ 500-999인 ⑩ 1000인 이상	① 1-4인 ② 5-9인 <input type="checkbox"/> 86-87 ③ 10-29인 ④ 30-49인 ⑤ 50-69인 ⑥ 70-99인 ⑦ 100-299인 ⑧ 300-499인 ⑨ 500-999인 ⑩ 1000인 이상	① 1-4인 ② 5-9인 <input type="checkbox"/> 115-116 ③ 10-29인 ④ 30-49인 ⑤ 50-69인 ⑥ 70-99인 ⑦ 100-299인 ⑧ 300-499인 ⑨ 500-999인 ⑩ 1000인 이상
2-7. 현 직업에의 취업(사망)시작시기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월
2-8. 전일제 여부	① 전일제 <input type="checkbox"/> 42 ② 시간제	① 전일제 <input type="checkbox"/> 68 ② 시간제	① 전일제 <input type="checkbox"/> 94 ② 시간제	① 전일제 <input type="checkbox"/> 123 ② 시간제
2-9. 평일 근무시간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시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시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시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시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시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시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시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시
2-10. (자녀)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주당 평균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시간	주당 평균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시간	주당 평균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시간	주당 평균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시간
2-11. 주말 근무 여부	① 주말 근무 함 <input type="checkbox"/> 50 ② 주말 근무 하지 않음	① 주말 근무 함 <input type="checkbox"/> 76 ② 주말 근무 하지 않음	① 주말 근무 함 <input type="checkbox"/> 102 ② 주말 근무 하지 않음	① 주말 근무 함 <input type="checkbox"/> 131 ② 주말 근무 하지 않음
2-12. (자녀)월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월평균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만원

[부인이 현재 일을 하는 경우]

※조사원: <질문 3>부터 <질문 6>까지는 응답 여성이 취업 중인 경우에만 조사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질문 9>로 이동합니다.

18-20
CARD
233

3. 현재 일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 이외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 ②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어서
- ③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
- ④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 ⑤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 ⑥ 가족들로부터 인정(존경)을 받기 위해서
- ⑦ 본인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 ⑧ 노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 ⑨ 기타(무엇:)

3 - 21-22

4. (현재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전일제 근로가 아닌 시간제 근로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집안일이 많아서
- ② 육아 또는 자녀교육
- ③ 건강상 이유
- ④ 여가를 즐기기 위해
- ⑤ 학업 병행을 위해
- ⑥ 다른 일자리와 병행하기 위해
- ⑦ 직업훈련을 병행하기 위해
- ⑧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사업부진, 조업중단, 노사분규 등 포함)
- ⑨ 기타(무엇: _____)

4 23-24

5. 요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어려움
 - ② 대체로 어려움
 - ③ 대체로 어려움 없음
 - ④ 전혀 어려움 없음
- ⇒ (결문 6으로 이동)

5 25

5-1.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경우) 어려움의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양육 부담
- ② 가사 부담
- ③ 부부간의 공유 시간(대화) 부족
- ④ 자녀와의 공유 시간(대화) 부족
- ⑤ 직장 일에 전념하기 곤란
- ⑥ 부모 부양(돌봄) 부담
- ⑦ 성 차별적인 근로조건(채용,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
- ⑧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및 제도
- ⑨ 기타(무엇: _____)

5-1 26-27

6. 귀하께서는 일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 ① 자녀 출산이나 양육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 ② 자녀를 임신할 때까지
- ③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 ④ 자녀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 ⑤ 자녀가 유치원에 갈 때까지
- ⑥ 자녀가 초등학교 ()학년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 ⑦ 자녀가 중학교 ()학년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 ⑧ 자녀가 고등학교 ()학년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 ⑨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 ⑩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⑪ 자녀가 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
- ⑫ 자녀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 ⑬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 ⑭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 ⑮ 기타(언제: _____)

6 28-29

30
학년

[부인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조사원: <질문 7>부터 <질문 8>까지는 응답 여성이 비취업 중인 경우에만 조사합니다.

7.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사
- ② 육아
- ③ 부모 혹은 기타 가족 부양(돌봄)
- ④ 가족의 반대
- ⑤ 건강상 어려움(심신장애)
- ⑥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나이, 전공, 경력 등과 원하는 근로조건 불일치)
- ⑦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
- ⑧ 교육, 기술, 경력이 부족해서
- ⑨ 일할 필요가 없어서
- ⑩ 일하고 싶지 않아서
- ⑪ 다니던 직장의 휴업, 폐업, 사업부진, 정리해고 등
- ⑫ 기타(무엇: _____)

7 31-32

8.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질문 9로 이동)

8 33

8-1.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우리 집에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 ②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어서
- ③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
- ④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 ⑤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 ⑥ 가족들로부터 인정(존경)을 받기 위해서
- ⑦ 본인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 ⑧ 노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 ⑨ 기타(무엇: _____)

8-1 34-35

8-2.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경우) 향후 취업을 한다면 언제쯤 취업하고 싶으십니까?

- ① 자녀 출산이나 양육과 상관없이 취직이 될 때
- ② 자녀가 어린이집에 갈 때 즈음
- ③ 자녀가 유치원에 갈 때 즈음
- ④ 자녀가 초등학교 ()학년에 올라갈 때 즈음
- ⑤ 자녀가 중학교 ()학년에 올라갈 때 즈음
- ⑥ 자녀가 고등학교 ()학년에 올라갈 때 즈음
- ⑦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할 때 즈음
- ⑧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즈음
- ⑨ 자녀가 대학원에 진학할 때 즈음
- ⑩ 자녀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즈음
- ⑪ 자녀가 취업할 때 즈음
- ⑫ 자녀가 결혼할 때 즈음
- ⑬ 기타(무엇: _____)

8-2 36-37

38
학년

13. 귀하께서는 남성도 다음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귀하의 배우자께서 다음의 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배우자의 제도 이용으로 인해 귀하는 얼마나 도움을 받았습니까? 또한 귀하께서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향후 배우자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을 희망하십니까?

정책	13-1. 인지 여부		13-2. 이용 경험		13-2-1. 도움 받은 정도 (*조사원: 13-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13-3.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경험 있음	없음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별로 도움 받지 못함	전혀 도움 받지 못함	해당 없음	이용 희망	희망하지 않음
1) 배우자 출산휴가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⑧	①	②
2) 육아휴직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⑧	①	②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⑧	①	②

	13-1	13-2	13-2-1	13-3
1)	159	160	161	162
2)	163	164	165	166
3)	167	168	169	170

영역 6.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

18-20
CARD
234

1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 ② 다소 심각한 문제이다
- ③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 ④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 ⑤ 모르겠다

1

2 저출산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관련(영향)이 있다
- ② 대체로 관련(영향)이 있다
- ③ 별로 관련(영향)이 없다
- ④ 전혀 관련(영향)이 없다
- ⑤ 모르겠다

2

3 국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 ⑤ 모르겠다

3

4 직장(회사, 기업 등)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 ⑤ 모르겠다

4

5 국가가 세금으로 자녀가 많은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
- ② 대체로 찬성
- ③ 별로 찬성하지 않음
- ④ 전혀 찬성하지 않음
- ⑤ 모르겠다

5

506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6.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데 어떠한 지원이 가장 도움 될 것 같습니까?

영역	세부정책
결혼 지원	①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② 신혼부부 대상 주택 자금대출
임신 및 출산 지원	③ 산전진찰비 지원 ④ 산후 도우미 지원 ⑤ 난임부부 지원
양육의 경제적 지원	⑥ 자녀보육·유아교육비 지원 ⑦ 자녀교육비 지원 ⑧ 아동수당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⑨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⑩ 방과 후 보육·교육 지원 ⑪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⑫ 직장어린이집 확충
일·가정 양립 지원	⑬ 출산전후휴가 ⑭ 육아휴직 ⑮ 근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 출퇴근 등) ⑯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⑰ 직장 문화 개선 ⑱ 정시퇴근제
주거 지원	⑲ 다자녀 가정 주택 공급/자금대출 ⑳ 주거수당

26-27

6

7.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기입합니다.
2순위는 있는 경우에만 기입하고 없는 경우에는 '88'로 기입합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① 양성평등 구현 ②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③ 공교육 강화
④ 사교육비 경감 ⑤ 교육체계 개편(졸업 후 취업, 선취업 후 교육)
⑥ 노동시장 변화(학력주의, 학벌주의, 스펙 등 타파) ⑦ 주택시장 안정
⑧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⑨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⑩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⑪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⑫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⑬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⑭ 복지수준의 향상
⑮ 기타(무엇:)

28-29 30-31

1순위 2순위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미혼남녀(20~44세) 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만 20~44세 미혼남녀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인구, 보건 및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가지정통계'로서 15~49세 기혼여성 조사와 20~44세 미혼남녀 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 가구는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지역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표본추출 되었으며, 귀택이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쁘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조사내용 문의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 기획단

조사구 번호

044-287-8182, 044-287-8128

--	--	--	--	--	--	--	--	--	--

행정코드번호	거처 번호	가구번호	조사구내 조사완료가구 일련번호	미혼자		
				가구내 조사대상 미혼남녀 총 수(명)	가구내 조사완료 미혼남녀 일련번호	가구내 조사완료 미혼남녀 가구원 번호
1-7	8-10	11-12	13-14	15	16	17

신주소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 H.P.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1	___월 ___일 ___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 기타(_____)			
2	___월 ___일 ___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 기타(_____)			
3	___월 ___일 ___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 기타(_____)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조사대상 미혼남녀의 비동거 가족(부모)에 관한 사항

구분	6-1. 이름 (※ 조사대상 미혼남녀의 경우 영문(가)로 표기)	6-2. 생년월일 연월일	6-3. 성 ① 남 ② 여	6-4. 연령 만 연령 (※조사대상: 부모 연령은 조부모 참조)	6-5. 교육수준		6-6. 혼인상태		6-7. 경제활동		6-8. 종교	6-9. 국적	6-10. 비동거 시기, 지역			
					6-5-1. 교육정도	6-5-2. 교육상태	6-6-1. 배우자 있음	6-6-2. 교육상태	6-7-1. 장래 생애 계획	6-7-2. 직업			6-10-1. 비동거 시점(최근 비동거 기준)	6-10-2. 거주지		
연령 범위					6-5-1. 교육정도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원)까지 진학(4년제) ⑥ 대학교(4년제) 진학(2년제) ⑦ 대학원(박사) ⑧ 대학원(석사) (빈칸에 이하)	6-5-2. 교육상태 ① 졸업 ② 수료 ③ 중퇴 ④ 휴학 ⑤ 재학 ⑥ 미취학 (빈칸에 이하)	6-6-1. 배우자 있음 ① 있음 ② 없음 ③ 미혼 (이혼, 전세) ④ 이혼(재혼) ⑤ 미혼(재혼) ⑥ 미혼(재혼) ⑦ 미혼(재혼) ⑧ 미혼(재혼) (빈칸에 이하)	6-6-2. 교육상태 ① 졸업 ② 수료 ③ 중퇴 ④ 휴학 ⑤ 재학 ⑥ 미취학 (빈칸에 이하)	6-7-1. 장래 생애 계획 ① 취업 ② 창업 ③ 비영리활동 ④ 휴학 ⑤ 미취학 (빈칸에 이하) (선택문 6대로 인함)	6-7-2. 직업 ① 판매직 ② 전업주부 ③ 전업주부 ④ 전업주부 ⑤ 전업주부 ⑥ 전업주부 ⑦ 전업주부 ⑧ 전업주부 ⑨ 전업주부 ⑩ 전업주부 ⑪ 전업주부 ⑫ 전업주부 ⑬ 전업주부 ⑭ 전업주부 ⑮ 전업주부 ⑯ 전업주부 ⑰ 전업주부 ⑱ 전업주부 ⑲ 전업주부 ⑳ 전업주부 (빈칸에 이하)	6-8. 종교 ① 없음 ② 불교 ③ 개신교 ④ 천주교 ⑤ 유교 ⑥ 원불교 ⑦ 신도교 ⑧ 불교 ⑨ 개신교 ⑩ 천주교 ⑪ 유교 ⑫ 원불교 ⑬ 신도교 ⑭ 불교 ⑮ 개신교 ⑯ 천주교 ⑰ 유교 ⑱ 원불교 ⑲ 신도교 ⑳ 불교 ㉑ 개신교 ㉒ 천주교 ㉓ 유교 ㉔ 원불교 ㉕ 신도교 (빈칸에 이하)	6-9. 국적 ① 대한민국 ② 대한민국 ③ 대한민국 ④ 대한민국 ⑤ 대한민국 ⑥ 대한민국 ⑦ 대한민국 ⑧ 대한민국 ⑨ 대한민국 ⑩ 대한민국 ⑪ 대한민국 ⑫ 대한민국 ⑬ 대한민국 ⑭ 대한민국 ⑮ 대한민국 ⑯ 대한민국 ⑰ 대한민국 ⑱ 대한민국 ⑲ 대한민국 ⑳ 대한민국 ㉑ 대한민국 ㉒ 대한민국 ㉓ 대한민국 ㉔ 대한민국 ㉕ 대한민국 ㉖ 대한민국 ㉗ 대한민국 ㉘ 대한민국 ㉙ 대한민국 ㉚ 대한민국 ㉛ 대한민국 ㉜ 대한민국 ㉝ 대한민국 ㉞ 대한민국 ㉟ 대한민국 ㊱ 대한민국 ㊲ 대한민국 ㊳ 대한민국 ㊴ 대한민국 ㊵ 대한민국 ㊶ 대한민국 ㊷ 대한민국 ㊸ 대한민국 ㊹ 대한민국 ㊺ 대한민국 ㊻ 대한민국 ㊼ 대한민국 ㊽ 대한민국 ㊾ 대한민국 ㊿ 대한민국 (빈칸에 이하)	6-10. 비동거 시기, 지역		6-10-1. 비동거 시점(최근 비동거 기준)	6-10-2. 거주지 ① 동양시도 ② 타시도 ③ 지방 ④ 기타
21-21	21	유리	24	25-28	34-35	36	37	38	39-40	41-42	43	44-45	46-49	50-51	52	
33-34	22	양리	36	37-40	66-67	68	69	70	71-72	73-74	75	76-77	78-81	82-83	84	
18-20 [CARD 105]																
21-21	23	유리	24	25-28	34-35	36	37	38	39-40	41-42	43	44-45	46-49	50-51	52	
33-34	24	양리	36	37-40	66-67	68	69	70	71-72	73-74	75	76-77	78-81	82-83	84	

512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구분	현재 취업 중인 경우 (*질문 3에서 "①취업 중"에 응답한 경우)	현재 비취업 중인 경우 (*질문 3에서 "②~③비취업중" 그리고 3-1에서 "①취업 경험 있음"에 응답한 경우)	3-4-3.최초의 경제활동 (*질문 3-2에서 이직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3-4-1.현재의 경제활동	3-4-2.마지막 경제활동	
직장유형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공립교사 포함) ②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 기관 ③대기업(300인 이상) ④중기업(50-299인) ⑤소기업(5-49인) ⑥개인사업체(5인 미만) ⑦기타 55-56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공립교사 포함) ②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 기관 ③대기업(300인 이상) ④중기업(50-299인) ⑤소기업(5-49인) ⑥개인사업체(5인 미만) ⑦기타 75-76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공립교사 포함) ②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 기관 ③대기업(300인 이상) ④중기업(50-299인) ⑤소기업(5-49인) ⑥개인사업체(5인 미만) ⑦기타 103-104
종사상시직유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 가족종사자 ④ 상용직 ⑤ 임시직 ⑥ 일용직 57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 가족종사자 ④ 상용직 ⑤ 임시직 ⑥ 일용직 77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 가족종사자 ④ 상용직 ⑤ 임시직 ⑥ 일용직 105
정규직 여부 (*종사상시직위에서 4, 5, 6에 응답한 경우에만 질문)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계약직) ③ 비정규직(무기계약직) 58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계약직) ③ 비정규직(무기계약직) 78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계약직) ③ 비정규직(무기계약직) 106
근로소득· 사업소득	59-62 월 [] [] [] 만원	79-82 월 [] [] [] 만원	107-110 월 [] [] [] 만원
근로형태	① 시간제 ② 전일제 63	① 시간제 ② 전일제 83	① 시간제 ② 전일제 111
주당 근로시간	64-66 주당 평균 [] [] [] 시간	84-86 주당 평균 [] [] [] 시간	112-114 주당 평균 [] [] [] 시간
경제활동 종단시기		87-90 [] [] [] [] 년 91-92 [] [] 월	115-118 [] [] [] [] 년 119-120 [] [] 월
경제활동 종단 이유		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 ② 정리해고로 인해 ③ 권고사직 ④ 명예퇴직 ⑤ 계약기간 끝나서 ⑥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⑦ 일이 일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⑧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⑨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⑩ 결혼으로 인해서 ⑪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⑫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⑬ 전근·발령을 받아서 ⑭ 우리 집이 이사하여서 ⑮ 학업 때문에 ⑯ 군입대 때문에 ⑰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⑱ 출산, 육아를 위해 93-94 [] []	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 ② 정리해고로 인해 ③ 권고사직 ④ 명예퇴직 ⑤ 계약기간 끝나서 ⑥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⑦ 일이 일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⑧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⑨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⑩ 결혼으로 인해서 ⑪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⑫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⑬ 전근·발령을 받아서 ⑭ 우리 집이 이사하여서 ⑮ 학업 때문에 ⑯ 군입대 때문에 ⑰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⑱ 출산, 육아를 위해 121-122 [] []

4. 귀하는 현재 부모님 중 적어도 한 분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 ① 같은 집에서 살고 있음
 ②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 않음 => _____년 _____월부터
 ③ 비해당(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123
4 []
[] [] [] [] 년 [] [] 월
124-127 128-129

5. 귀하는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생활비, 주거비, 교육비)을 받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5-1.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얼마 동안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동안

5

5-1 년 개월

영역 2.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

1.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⑤ 모르겠다

1

2.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다면 몇 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 남자: 만 _____ 세

2) 여자: 만 _____ 세

2)1)남자 만 세
 2)2)여자 만 세

3. 귀하는 결혼에 관한 다음의 견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결혼식은 격식을 갖추어 예단, 예물을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결혼식은 호화롭게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혼인신고는 결혼식 이후 함께 살아 본 뒤 하는 것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1)
 2)
 3)
 4)
 5)

4. 귀하는 일반적으로 결혼 비용(주택 제외)은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결혼비용은 혼수, 예단, 결혼식, 신혼여행 비용 등 포함, 주택마련 비용은 제외)

_____ 만원

4 만원

5. 가족 내 부부의 역할과 관련한 다음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남자들은 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1)
 2)
 3)
 4)

514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6. 가족에 대한 다음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을	전혀 찬성하지 않을
1)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6)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7)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8)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9)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1)	40
2)	41
3)	42
4)	43
5)	44
6)	45
7)	46
8)	47
9)	48

7. 다음 중 "가족"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가구형태를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결혼한 부부와 입양한 자녀로 구성된 가구
- ②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
- ③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과 자녀로 구성된 가구
- ④ 미혼부/미혼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⑤ 동성 부부(무자녀) 가구
- ⑥ 동성 부부와 입양한 자녀로 구성된 가구
- ⑦ 친밀한 친구나 동료(비혈연)와 함께 사는 가구

7

49	50	51	5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3	54	5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영역 3. 본인의 결혼에 관한 사항

18-20

CARD
323

1. 귀하는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결혼할 생각이 있다 ⇒ 1-1. 귀하가 결혼한다면 몇 세에 할 계획입니까?
만 _____ 세
- ②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 ③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 ④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21

1

22-23

세

4. 귀하는 결혼에 관한 국가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함 ② 다소 필요함
 ③ 별로 필요없음 ④ 전혀 필요없음 ⇒ (다음 페이지 영역 4로 이동)

28
4

4-1.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 실업 문제 해소 ② 청년 고용 안정화(비정규직 문제 등 해소)
 ③ 신혼집 마련 지원 ④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
 ⑤ 장시간 근로관행 타파 ⑥ 허례허식 혼례문화 개선
 ⑦ 기타 (무엇: _____)

29-30
4-1

영역 4.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

18-20
CARD
324

1. 귀하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1-1.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③ 없어도 무관함 ⇒ ②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④ 모르겠음 ③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④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④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⑤ 기타(무엇: _____)

21
1

22
1-1

2.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상자녀수: _____명 (*0명이라고 응답한 경우 질문 3으로 이동)
 ② 잘 모르겠다 ⇒ (질문 3으로 이동)

23 24-25
2 이상자녀수 명

2-1. 딸·아들 구별없이 입니까? 구별해서 입니까?

- ① 딸·아들 구별없이 ② 딸·아들 구별해서(아들 _____명, 딸 _____명)
 ③ 모르겠음 ④ 기타(무엇: _____)

26 27-28
2-1
아들(명) 딸(명)

3. 귀하는 미혼 남녀가 결혼 전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낳아야 함 ②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함
 ③ 절대로 낳아서는 안 됨 ④ 모르겠음
 ⑤ 기타(무엇: _____)

29
3

4.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6)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7)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1)	30
2)	31
3)	32
4)	33
5)	34
6)	35
7)	36

5. 여성이 직장일과 가정일을 함께 해나가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어떠한 형태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수	직장형태		
	전일제	시간제	일을 전혀 하지 않음
자녀를 전혀 두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자녀를 1명만 둬م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⑥
자녀를 2명 이상 둬م	<input type="checkbox"/> ⑦	<input type="checkbox"/> ⑧	<input type="checkbox"/> ⑨

37-38

5

영역 5. 향후 출산에 관한 사항

18-20
CARD
325

1. 귀하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결혼 후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싶으십니까?

- ① 희망자녀수: _____명
- ② 모르겠음 ⇒ <영역 6 출산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

21

1 희망자녀수 명

22-23

※ 조사원: 희망 자녀수를 0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 <질문 2>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 <영역 6. 출산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1. (자녀를 둔다면) 딸·아들 구별없이 입니까? 구별해서 입니까?

- ① 딸·아들 구별없이
- ② 딸·아들 구별해서(아들 _____명, 딸 _____명)
- ③ 잘 모르겠음
- ④ 기타(무엇: _____)

24

25-26

1-1 아들(명) 딸(명)

518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 (질문 1에서 0명 또는 1명이라 응답한 경우) 귀하가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두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역	<보기>
경제	① 소득이 적어서 ② 실업상태여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④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⑤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⑥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사회	⑦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⑧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때문에) 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가치관	⑩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서 ⑪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⑫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서
가족	⑬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⑭ 장애(신체적·정신적) 또는 만성질환(와상상태 포함)이 있는 가족 수발 때문에
건강	⑮ 본인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포함) 때문에
기타	⑯ 기타(무엇: _____)

27-28

2

3. 귀하가 자녀를 갖는다면 첫 아이는 언제쯤 가지고 싶으십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희망하는 자녀수를 0명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기타(아이를 원치 않음)'로 처리합니다.)

<보기>	
① 안정된 직장을 마련한 이후에	② 가정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
③ 짐장만을 한 이후에	④ 자신과 배우자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
⑤ 출산 적령기를 넘기지 않을 때	⑥ 배우자가 원할 때
⑦ 자신의 부모님께서 원하실 때	⑧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원하실 때
⑨ 기타1(무엇: _____)	⑩ 기타2(무엇: _____)

29-30

3

영역 6. 출산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8-20

CARD
326

1.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한 문제임 ② 다소 심각한 문제임
 ③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님 ④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님
 ⑤ 모르겠음

21

1

2. 저출산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관련(영향)이 있음 ② 대체로 관련(영향)이 있음
 ③ 별로 관련(영향)이 없음 ④ 전혀 관련(영향)이 없음
 ⑤ 모르겠음

22

2

3. 국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함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음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음
 ⑤ 모르겠음

3

4. 직장(회사, 기업 등)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함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음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음
 ⑤ 모르겠음

4

5. 국가가 세금으로 자녀가 많은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대체로 찬성
 ③ 별로 찬성하지 않음 ④ 전혀 찬성하지 않음
 ⑤ 모르겠음

5

6.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데 어떠한 지원이 도움 될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영역	세부정책
결혼 지원	①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② 신혼부부 대상 주택 자금 대출
임신 및 출산 지원	③ 산전진찰비 지원 ④ 산후·도우미 지원 ⑤ 난임부부 지원
양육의 경제적 지원	⑥ 자녀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⑦ 자녀 교육비 지원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⑧ 다양한 보육서비스(반일제, 시간제, 휴일, 24시간, 긴급 등) 지원 ⑨ 방과 후 보육·교육 지원 ⑩ 국공립어린이집 ⑪ 직장어린이집
일·가정 양립 지원	⑫ 출산전후휴가 ⑬ 육아휴직 ⑭ 근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 출퇴근 등) ⑮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⑯ 직장 문화 개선 ⑰ 정서퇴근제
기타 가족생활 지원	⑱ 다자녀 가정 주택 공급/자금대출 ⑲ 주거수당

6

520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7. 귀하는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두 가지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① 양성평등 구현	②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③ 공교육 강화
④ 사교육비 경감	⑤ 교육체계 개편(졸업 후 취업, 신취업 후 교육)	⑥ 노동시장 변화(학력주의, 학벌주의, 스펙 등 타파)
⑦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⑧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⑨ 주택시장 안정
⑩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⑪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⑫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⑬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⑭ 복지수준의 향상	⑮ 기타(무엇: _____)

28-29		
1순위		
2순위		
	30-31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